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이다.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이다.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한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필자가 보여 주는 세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진다.

한편 독자는 ㉠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동아리 등에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며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심화·확장할 수 있다.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 생산·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은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다른 독자와의 소통은 독자가 인식의 폭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 ③ 독자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매개로 접할 수 있다.
- ④ 독자의 배경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 ⑤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2.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다. 책에서는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에 성악을 결합해 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 이 곡이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했다.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뒷부분도 읽었는데, ㉢ 이 내용들을 종합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에 교향곡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 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됐다. 이후 ㉣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게 되었다. ㉤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① ㉠과 ㉡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나타난다.
- ② ㉢와 ㉣에는 모두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 지으며’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이, ㉤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에서 찾아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윗글을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② 독서 모임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관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③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동아리를 통해 심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④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겠군.
- 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類書)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A]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다. ㉡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자학의 지식을 ㉢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나)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類書)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7세기의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이규경도 ㉨ 『오주연문장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자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 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자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 ②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 ③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 ④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 ⑤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 ②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③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 ④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 ⑤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6.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 ㉢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식의 제공이라는 ㉠의 편찬 의도는, ㉡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②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의 방식은, ㉢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③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의 성격은, ㉢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④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 과학에 대해 드러낸 ㉠의 관심은, ㉢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
- 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과 ㉢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7. ㉣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다.
- ②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얌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 ③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변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④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 ⑤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다.

8.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설을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①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되었군.
- ②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군.
- ③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
- ④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사설』에 비해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
- ⑤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달리 중화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었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거(依據)하여
- ② ㉡: 계몽(啓蒙)하는
- ③ ㉢: 용이(容易)하게
- ④ ㉣: 혼재(混在)되어
- ⑤ ㉤: 변경(變更)하여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 배상 예정액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 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 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 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 재량 준칙이라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 작용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 ②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재량 행위인 경우보다 기속 행위인 경우가 많다.
- ⑤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된다.

1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 ②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 작용은 기속 행위이다.
- ③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 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
- ④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 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 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나)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단, 위의 모든 상황에서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 ②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⑤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13.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이것이 내가 찾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라.
- ② ㉡: 그 부부는 노후 대책으로 적금을 들고 안심했다.
- ③ ㉢: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 ④ ㉣: 형은 땀 흘려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
- ⑤ ㉤: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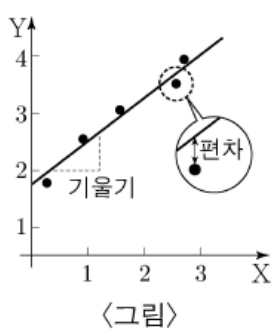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그중 기초 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比)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0.67}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0.67}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체중이 W에서 2W로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2W)/(W) = 2이다. 이 경우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2W)^{0.67} / (W)^{0.67} = 2^{0.67}, 즉 약 1.6이 된다.

1930년대에 클라이버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나타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 제공법으로 구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에 두 변수의 순서쌍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댓값을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공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공 합'이며, 편차 제공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공법이다.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0.75}에 기초 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 하며, (체중)^{0.75}을 대사 체중이라 부른다. 대사 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 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 ②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한다.
- ③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 ④ 최소 제공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 준다.
- ⑤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15.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 ②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 ③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 ④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 ⑤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겠군.

1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
- ② ㉡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다.
- ③ ㉠은 ㉡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 ④ ㉠과 ㉡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 대사량을 구한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농계의 ㉠ 게딱지 폭을 이용해 ㉡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 ①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에 ㉡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과 ㉡의 증가율을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 제곱 합은 더 작겠군.
- ③ ㉠의 증가율보다 ㉡의 증가율이 크다면,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 ④ ㉠의 증가율보다 ㉡의 증가율이 작다면,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 ⑤ ㉠의 증가율과 ㉡의 증가율이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옥영은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길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다음 해 갑오년 ㉡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해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옥영은 ㉢ 그달에 바로 잉태해 열 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夢釋)이라고 지었다.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 매양 꽃 피는 아침과 달 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 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에 최척은 옥영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 거리며 퍼져 나갔다. 옥영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옥영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 찾을 수 없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최척은 동방이 밝아 오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 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양국의 백사람들이 저잣거리 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 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 조위한, 「최척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삼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 ④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 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사람들’은 최척과 옥영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 ②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 ③ ‘최척’은 옥영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옥영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 ④ ‘옥영’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옥영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 ⑤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옥영의 행실을 칭찬했다.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③ ㉡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은 ㉡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④ ㉡은 ㉠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 주는, ㉣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 ⑤ ㉡과 ㉣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나게 하거나,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 ① 옥영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옥영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몽석의 꿈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옥영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옥영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최척과 옥영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렇다 어떠하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으슴하료 <제1수>

[A]

연하(烟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삼아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 가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제2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 가흥(佳興)이 사람과 한가지라
하물며 어악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 -

(나)

산가(山家) 풍수설에 동구 못이 좋다 할새
십 년을 경영하여 한 땅을 얻으니
형세는 좁고 굽은 암석은 많고 많다
옛 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 파서
활수*를 끌어 들여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 있다
천고(千古)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一朝)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처음의 이 내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백석은 치치(齒齒)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벽류는 활활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이요
뻑뻑한 소나무는 전후의 울타리로다
구곡 상하대는 층층이 둘러 있고
삼경(三逕) 송국죽(松菊竹)은 줄지어 벌여 있다
하물며 바위 벼랑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구부러 누웠
거늘
운근(雲根)을 베어 내고 ㉠ 작은 정자 붙여 세워
떠 풀로 지붕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려인가 무이의 와룡암인가*
다시금 살펴보니 필경 위언의 그림의 것이로다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 김득연, 「지수정가」 -

[B]

* 활수: 흐르는 물.
* 남양의 제갈려, 무이의 와룡암: 옛 현인이 은거한 처.

(다)

내 초로의 어느 가을날, 나는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간정, 성류굴을
일삼아 떠돌아다녔다. 망양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근남면 산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140여 년이 넘어, 기성면의
㉡ 옛 망양정 자리는 도로 공사로 단애의 허리가 잘리워 나가,
바닷물은 단애 끝으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는 시멘트
칠갑이 되어 있었다. 정자 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의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을의 고로(古老)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은 없었고, 다만 그들의 증조나 고조로부터 전해 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양정 옛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實景山水)의
자리를 찾을 적에 그곳에 옛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는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는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중략)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
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
[C] 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
서는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정자, 집, 배, 나귀,
가마, 화분, 성곽 같은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 김훈, 「겸재의 빛」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현실을 통찰하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A]의 <제2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시상을 이어받아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의 '끌어 들여'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허물이나 없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산십이곡」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지수정가」에서 강호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도산십이곡」에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일하는 화자가 등장하며, 「지수정가」에서는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등장한다.

- ① (가)의 '초야우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 ②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 ③ (가)의 '천석고황'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④ (가)의 '사람과 한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말이겠군.
- ⑤ (가)의 '춘풍에 화만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나)의 '벽류는 팔팔 흘러 옥 술잔을 때리는 듯'은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 말이겠군.

2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고, ㉡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 ② ㉠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 준다.
- ③ ㉠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④ ㉠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고, ㉡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⑤ ㉠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C]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 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과 바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 ① '먼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 ②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겠군.
-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뜻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A]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B] 오동나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릿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 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넌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C]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 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 쪽으로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데불은 시냇물이 흐르며
[D]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삼십 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 밖의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 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열기설기 엮은 뒤, 풍우나 피하자는 시늉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유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 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 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

이라고 웃으셨다는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자랄까 싶었던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드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 곁에 손수건만 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는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실였다.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E]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뵈는 저 산마루에 절, 저기가 영익이 있는 데예요?”

나는 동편 산마루의 깜박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구 중바위산 아니냐. 그 애 공부하는 덴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뵈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이 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범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르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익이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흠’ 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우선 대문이 변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슨 철제였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긋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다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 한 것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발라 놓았고, 방들은 오밀조밀 붙어 있어 개수만 여럿일 뿐, 좁고 어두웠다.

그중에 한 방은 아예 전혀 채광 통풍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아마 바로 옆에 가게를 이어 내느라고 막아 버린 모양이었다. 그 가게란 양품점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린 네글리제와 여자용 속옷, 스타킹 따위를 고무 인형에 입혀 세워 놓은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게를 중심으로 앞뒤에 같은 양품점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양장점, 제과소, 음식점, 식료품 잡화상들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마찰음, 무엇이 부딪쳐 떨어지는 소리, 어느 악기점에선가 쿵, 쿵, 울려 오는 스피커 소리…… 끼익, 하며 숨넘어가는 자동차 소리.

한마디로 그 집은, 아스팔트의 바둑판, 환락과 유행과 흥정의 경박한 거리에 금방이라도 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해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 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

- 최명희, 「쓰러지는 빛」 -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 ②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 한다.
- ③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 ④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 ⑤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변화한 동네이다.

28.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만큼에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③ [C]: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 ④ [D]: ‘동네였을 것이다’를 보면,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담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9.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 ②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 ③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워 내어 무성해진 애착의 결실이다.
- ④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 단서이다.
- ⑤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 곳곳에 심은 상징적 기념물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 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 ②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군.
- ④ ‘창문’을 ‘막아 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군.
- ⑤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수염을 드리운 몇 그루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그리고 울타리엔 덩불을 이룬 넉출 사이로 반질반질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이며 호박들!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은 제각기 타고난 바탕과 생김새로 주어서 아낌없고 받아서 아쉽 없는 황금의 햇빛 속에 일심으로 자라고 영글기에 숨소리도 들릴세라 적적히 여념 없나니

㉢과분하지 말라 의혹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 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죽할 줄을 알라 오직 여기에 목숨의 유연과 천지와와의 화합에 있거니

한여름 채전으로 가 보아라

나비가 심방 오고 풍뎅이가 찾아오고 잠자리가 왔다 가고 바람결에 스쳐 가고 그들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같이 ㉣많은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지극히 범속한 것들의 지극히 충족한 ㉤빛나는 생명의 양상을 한여름 채전으로 와서 보아라

- 유치환, 『채전(菜田)』 -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A]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B]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C]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D]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E]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F]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심 제재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 중심 제재를 바라보는 비관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풍경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중심 제재의 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중심 제재의 심미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장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여 중심 제재와의 정서적 거리를 부각하고 있다.

32. ㉠~㉣의 지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채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을 수식어로 반복하여 '범속한 것들'로부터 '충족한' 느낌을 받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 부정 명령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대로' '죽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사물을 인격화하여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 ⑤ ㉣에서 관념을 시각화하여 '목숨의 유열과 천지와 화합'이 이루어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3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②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드러내는 경계로,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제시되어 있군.
- ③ (가)의 '넉넉'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루어 가는 배경으로서의, (나)의 '음지'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군.
- ⑤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우움을 갖게 하는,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표상되어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력하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6. 윗글의 ㉡, ㉢와 연관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 ⑤ ‘꼬마전구’와 ‘꿀잠’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乃냉終중 ㄱ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 ㉡ ㅅ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 ㉢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乃냉終중 ㄱ소리도 혼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로이다]
- ㉣ ㅅ와 ㅆ와 ㅈ와 ㅊ와 ㅋ와 ㆁ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ㅅ, ㅆ, ㅈ, ㅊ, ㅋ, ㆁ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 ㉤ ㅅ와 ㅆ와 ㅈ와 ㅊ와 ㅋ와 ㆁ 올흔너기 브터 쓰라
[ㅅ, ㅆ, ㅈ, ㅊ, ㅋ, ㆁ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ㅁ니, ㅁ, 사비, 스ㄱ불, ㅁ, ㅎ

- ① ㉠: ㅁ, ㅁ, ㅎ ② ㉡: 사비, 스ㄱ불
- ③ ㉢: ㅁ니, ㅁ, ㅎ ④ ㉣: ㅁ, 스ㄱ불, ㅎ
- ⑤ ㉤: ㅁ니, 사비, ㅁ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보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ㄹ’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ㄹ’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 피로를 푼다[푼다]
- ㉡ 더운 여름도[여름도]
- ㉢ 대문을 잠가[잠가]
- ㉣ 품에 안겨라[안겨라]
- ㉤ 학교가 큰지[큰지]

학생: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② ㉡의 ‘ㄹ’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③ ㉢의 ‘ㄹ’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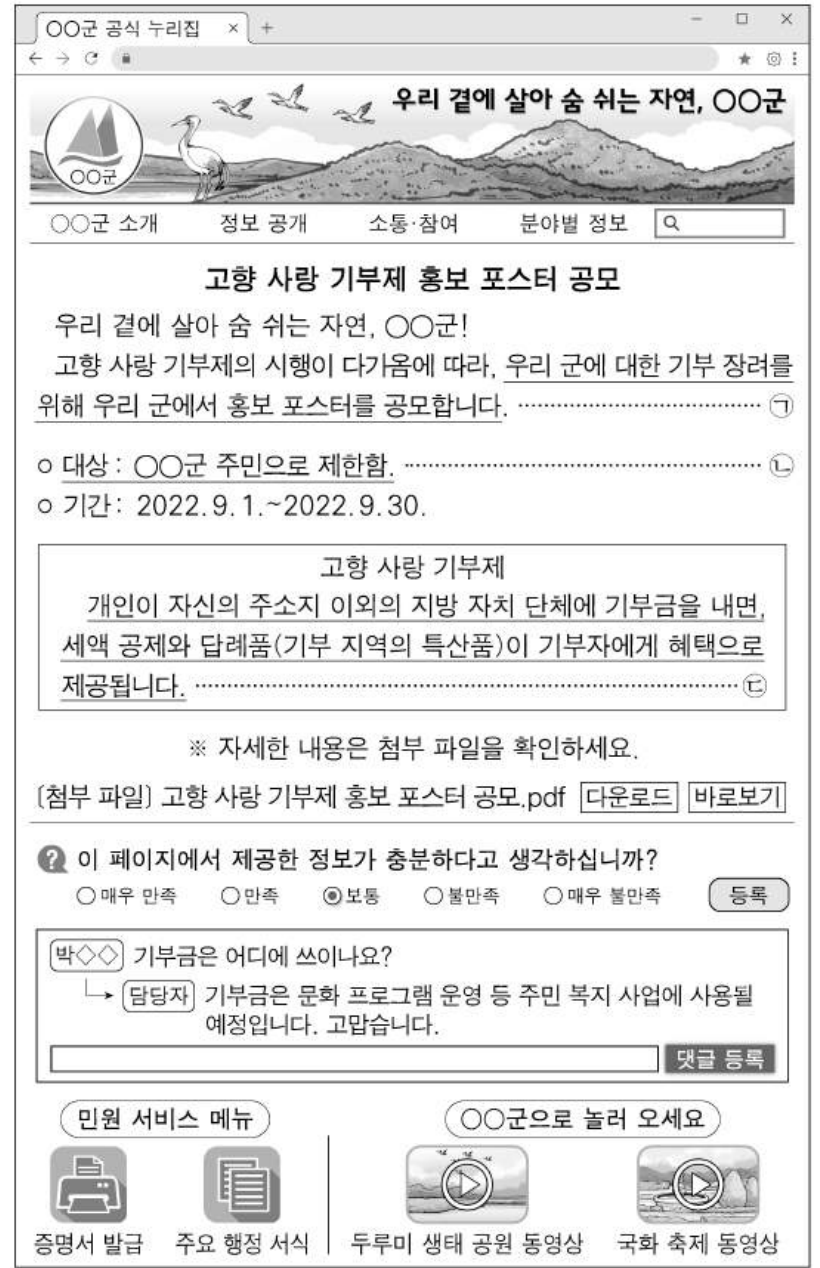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났도록 돌아다녔다.

-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40~43] (가)는 ○○군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해운: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하자. 내 말 잘 들리지?
 설아: 해운아,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좀 확인해 줄래?
 해운: 어?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이제 잘 들리지?
 설아: 응. 근데 오늘 나연이는 참석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 동의하지?
 해운, 종서, 수영: 응,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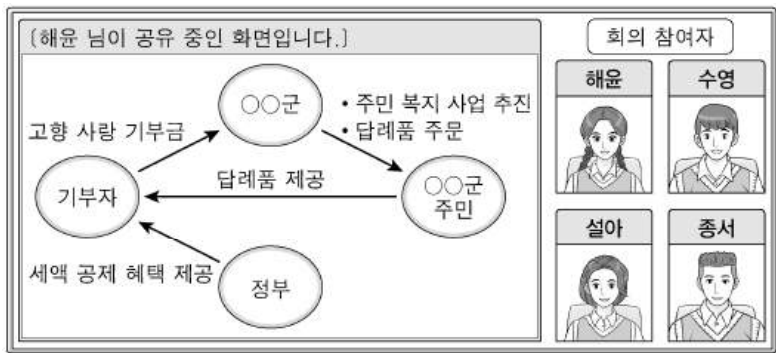
채팅: 설아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운: 오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우리 ○○군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봤니?
 종서: 미안해. 나는 아직 못 봤어.
 수영: 음,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 파일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읽으면서 들어.

채팅: 수영님이 종서님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pdf

종서: 고마워.
 해운: 그럼 이어서 얘기할게. 내가 만들어 온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하자.

채팅 해운 님이 화면 공유를 시작합니다.



해운: 정부, 기부자, OO군, OO군 주민으로 구분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타낸 거야.
수영: 좋은데, 포스터에 정부까지 그려 넣으면 너무 복잡할 거 같으니까, 나머지 셋으로만 구성하자.
설아: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부자가 부각되도록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
수영: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면 기부자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걸 포스터에 드러낼 수 있을 거 같아.
해운: 좋아. 그런데 포스터에 정부가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나타내지?
종서: 음, 고민해 보자. 그리고 첨부 파일을 읽어 보니 기부자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대. 우리 지역에 기부하게 하려면 담례품을 알려 줘야 할 거 같은데?
해운: 담례품 정보가 있는 누리집 주소 불러 줄게. 디, 에이, 엠... 아, 그냥 채팅 창에 링크로 올리는 게 편하겠네.

채팅 해운 <https://damnyepum.□□□□.go.kr>
 종서 고마워.

종서: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담례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
해운: 그리고 우리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니까, OO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
수영: 응, 좋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
해운: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자.

4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②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군.
- ③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군.
- ④ 누리집 상단에 홍보 문구와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이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은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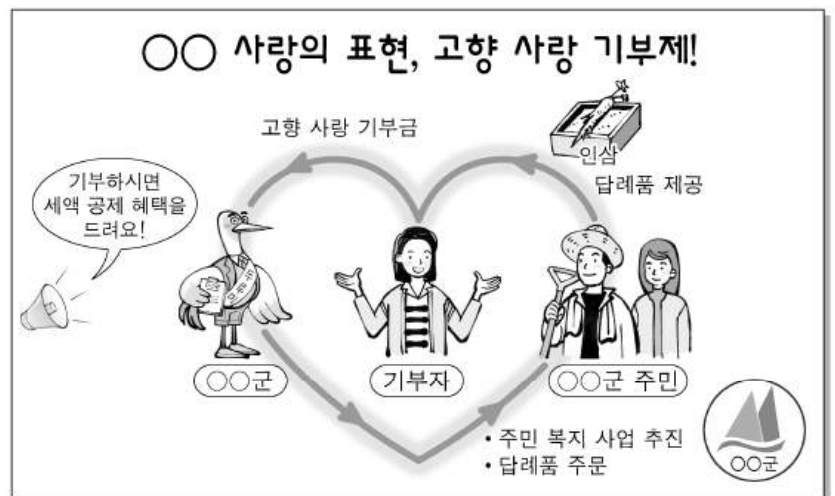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OO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 ③ ㉢은 명사형 어미 '-고'를 사용하여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운'은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② '해운'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 ③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하였다.
- ④ '설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
- ⑤ '설아'는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하였다.

43.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했다.
- ②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기호의 모양을 사용했다.
- ③ '종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OO군에 기부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담례품을 그려 넣었다.
- ④ '해운'의 의견을 바탕으로, OO군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OO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했다.
- ⑤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 주듯이 말풍선을 제시했다.

[44~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게시판]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클릭한 화면)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태도
작성자: 재원

최근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1인 미디어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가 즐겨 보는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 역시 밀림을 혼자 돌아다닌다든가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참신함이 돋보인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하다.

↳ **민수** 나도 그 방송 봤어. 내가 모르던 낯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특정 상표를 언급하며 칭찬할 때에는 상업성이 짙어 보이더라. 그런 상업적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 **혜원** 어떤 1인 미디어 방송인은 특정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성분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었어. 방송에 나오는 정보라도 믿을 수 있는지 잘 따져 봐야 해.

↳ **영진** 1인 미디어 방송들은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내가 보는 1인 미디어 방송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도,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 그래서 1인 미디어 방송이 발전해도 사회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 **지수** 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이 인기를 많이 끌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잖아.

댓글 등록

44. <보기>를 바탕으로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체통’ 동아리 카페 활동 규칙

개설 목적: ‘매체통’ 동아리원들이 다양한 매체 자료 비평 활동을 통해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규칙 1.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매체 자료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하고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3.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① ㉠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성격이 드러나도록 카페의 활동 주제와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군.
- ②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항목별로 나누어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군.
- ③ ㉢을 보니, ‘규칙 1’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을 상기할 수 있도록 비평 활동 결과의 제출 기한을 제시하였군.
- ④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하였군.
- ⑤ ㉤을 보니, ‘규칙 3’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이 동아리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였군.

45.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혜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던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영진’은 ‘지수’와 달리,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계발 등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독서 동기는 ‘독서를 이끌어 내고, 지속하는 힘’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는 독서의 시작과 지속이라는 두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독서 동기는 슈츠가 제시한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라는 두 유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A] 독서의 ‘때문에 동기’는 독서 행위를 하게 만든 이유를 의미한다. 이는 독서 행위를 유발한 계기가 되므로 독서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해당한다. 독서의 ‘위하여 동기’는 독서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독서 행위의 결과로 달성되므로 독서 이후 시점의 상태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라는 성격을 가지며,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되었다고 할 때, 선물로 책을 받은 것은 이 독서 행위의 ‘때문에 동기’이다.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와 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면 이는 ‘위하여 동기’가 된다. 또한 독서 행위를 통해 성취감이나 감동을 느끼는 것, 선물로 받은 책을 읽어서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등도 이 독서 행위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위하여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개념은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독서 경험의 핵심은 독서 행위를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책을 더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마음은 새로운 독서 행위로 연결된다.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은 새로운 독서 행위의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때문에 동기’가 된다. 동시에, 새로운 독서 행위를 통해 다시 경험하고 싶어지는 ‘위하여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되면서 독서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려면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를 바탕으로 우선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과, 성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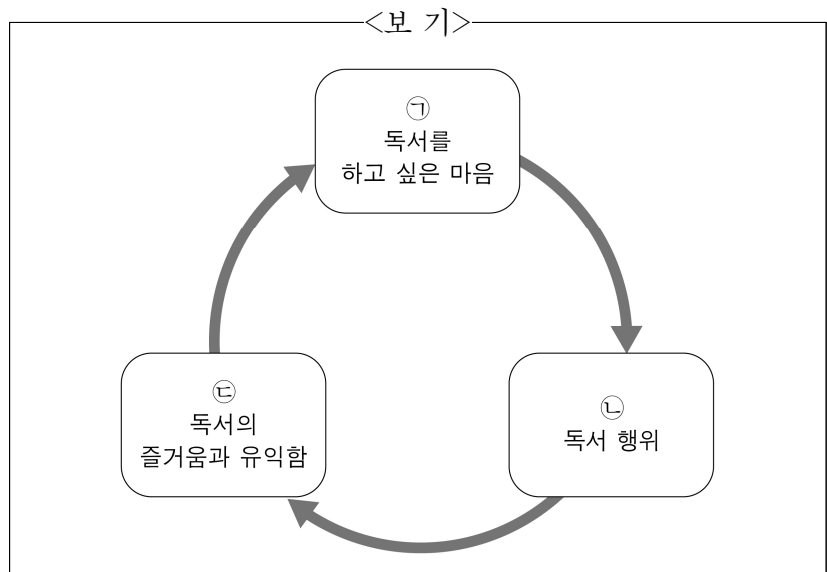
- ① 타인의 권유나 추천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 ② 슈츠는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 ③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독서 동기의 정의는 독서를 시작하게 하는 힘과 계속하게 하는 힘을 포함한다.
- ⑤ 독서의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는 독서 습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다음은 학생의 메모이다. [A]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 학교에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과제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읽을 책으로 철학 분야의 책을 선택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 철학에 대해 많이 알게 되겠지, 그리고 ㉢ 어려운 책을 읽어 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거야.

- ① ㉠은 독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위하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② ㉡는 독서를 하도록 만든 사건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③ ㉠과 ㉡는 이미 발생하여 독서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④ ㉠과 ㉢은 독서 이전 시점에 경험한 일에 해당하므로 ‘때문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 ⑤ ㉡와 ㉢은 독서의 결과로 얻게 될 기대에 해당하므로 ‘위하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시작해 ㉡를 경험하면 ㉠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 ② ㉢으로 ㉡를 얻는 것이 성공적 독서 경험의 핵심이다.
- ③ ㉡의 경험을 통하여 ㉠이 생기면 ㉢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는 ㉢의 결과인 동시에 새로운 ㉢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⑤ ㉠, ㉢, ㉡의 선순환을 통해 독서 경험이 반복되고 심화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포 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재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포 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재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공포 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협 통제 반응’이라 ㉡ 불렀다. 그리고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협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협을 자신이 ㉢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협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 공포 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공포 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협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 보냈다고 하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게 된다.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에는 위협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 ④ 화제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 후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그 극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5.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니스는 공포 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 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겠군.
- ② 레벤달은 재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겠군.
- ③ 레벤달은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협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 ④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겠군.
- ⑤ 위티는 공포 소구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 소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겠군.

6.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모임에서 공포 소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위협의 수준(높음/낮음), 효능감의 수준(높음/낮음)의 조합을 달리 하여 피실험자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1과 집단2는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집단3은 위협 통제 반응, 집단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다.

- ① 집단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 ② 집단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 ③ 집단4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 ④ 집단2와 집단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 ⑤ 집단3과 집단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았을 것이다.

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편향(偏向)되었다고
- ② ㉡: 명명(命名)하였다
- ③ ㉢: 경험(經驗)할
- ④ ㉣: 발송(發送)했다고
- ⑤ ㉤: 기여(寄與)하지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된 후,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된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한다.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 한다. 입자가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이다.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한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촉매를 이용하면 화학 반응이 새로운 경로로 진행된다.
- ②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과 촉매의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 ③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 완결된다.
- ④ 암모니아 합성에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
- ⑤ 증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가 있다.

9. ㉠의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 ② 활성 성분의 소결을 촉진하는 증진제를 첨가한다.
- ③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
- ④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 ⑤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큰 입자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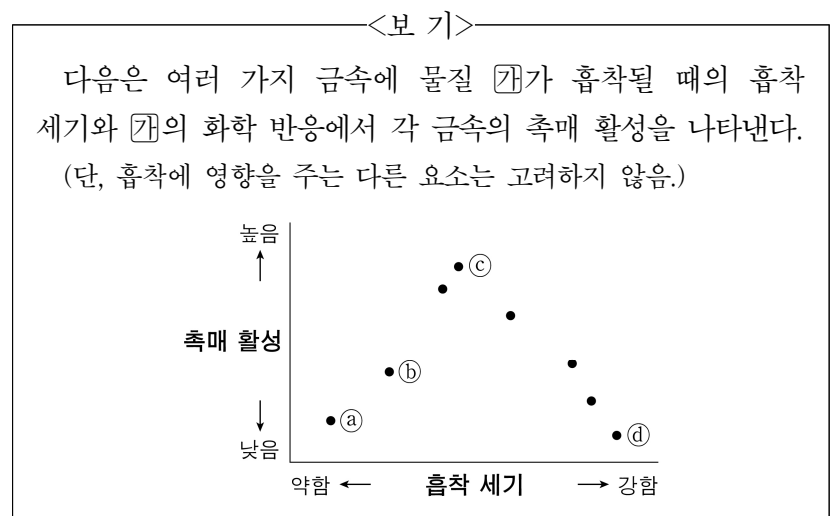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하여 에틸렌으로 변환된다.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한다.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이때, 촉매에 규소를 소량 포함시키면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되어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다. 또한 은을 소량 포함시키면 팔라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팔라듐 표면에 반응물이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되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

- ①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 ② 팔라듐은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 ③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 ④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 ⑤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금속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학 반응은 ㉠보다 ㉡를 활성 성분으로 사용할 때 더 느리게 일어난다.
- ② ㉠은 ㉠보다 ㉢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
- ③ ㉠은 ㉠보다 ㉣에 흡착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더 크다.
- ④ ㉠은 ㉡보다 ㉢에 더 약하게 흡착된다.
- ⑤ ㉠의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 성분은 ㉣이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찢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설(Searle)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에 ㉢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랜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나)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12.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와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은/는 같지 않다는 설(Searle)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 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

㉨

- | | |
|--------------|---------|
| ① 의식과 함수적 역할 | 내 몸의 체험 |
| ② 의식과 함수적 역할 | 물질적 반응 |
| ③ 의식과 뇌의 상태 | 의식의 판단 |
| ④ 의식과 뇌의 상태 | 내 몸의 체험 |
| ⑤ 입력과 출력 | 의식의 판단 |

13.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② 설(Searle)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고 볼 것이다.
- ③ 로랜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로랜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 ⑤ 로랜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14.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③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④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1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②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
- ③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감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④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 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 ①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이때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군.
- ②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군.
- ③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 ④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겠군.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
- ② ㉣: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 ③ ㉤: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
- ④ ㉢: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
- ⑤ ㉣: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십여 일이 지날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낭군께선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생이 슬피하며 느낀 바를 사실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말했다.
 “소인이 낭군을 위해 마루의 ㉠ 계책을 올릴 테니, 낭군께선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낭군께선 급히 주효(酒肴)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餞別)하려는 듯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 손님을 모셔 오라 하시면,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 식경 후에 돌아와 ‘손님이 오십니다.’라 하지요. 낭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 심히 취해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노라 하셨습니다.’라 하지요. 이때 낭군께선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그 주효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처음엔 고맙게 여길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할 것이며, 세 번째는 필히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은혜에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생각할 것이며, 의문이 생기면 하시고 싶은 바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흥금을 털고 말하신다면 일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생은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말했다.
 “내 일이 잘 되겠구나!”
 생은 그 계책에 따라 즉시 주효를 갖추어서 곧바로 그 집이 전별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략)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낮빛을 바꾸며 말했다.
 “이 몸이 할멈에게 후의(厚意)를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남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대략 십오륙 세에 푸른 적삼에 붉은 치마를 입었고, 백룡버선에 자색 신을 신었지. 진주 비녀를 꽂고 새하얀 옥 반지를 끼고, 홍화문 앞길을 지나 가고 있었다네.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을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른 곳이 곧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남자만 생각했다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가 자나 깨나 잊히지 않아 상심하며 애태우길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 할멈이 나를 보고 낮빛이 파리하다 했는데 왜 그랬겠나? 그래서 손님을 전별한 다며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노파가 이 말을 듣고 몹시 애처로워했으나 생이 마음에 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한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서 말했다.

“그런 애가 있습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字)는 난향이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한가?”

“이 애는 회산군 댁 시비예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자색(姿色)이 고운 것은 낭군께서 이미 보셨으니 굳이 말할 것 없지만 고운 마음이며 양전한 몸가짐은 양반집 규수와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음률과 문장을 알아 나리께서 어여뻐 여기시고 장차 소실(小室)로 맞으려 하셨지만,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 그렇게 못 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번 그 애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식 때를 맞아 그 애가 어미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려고 부인에게 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리께서 외출하신 터에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던들 낭군께서 어찌 얼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낭군께서 다시 만나시기는 참으로 어렵습죠. 참으로 어려워요!”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노파가 안타까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말했다.

“딱 한 가지 ㉡ 방법이 있습죠. 단오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이 몸이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에게 영영에게 반나절의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낭군께선 돌아가시어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

생이 기뻐하며 말했다.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생과 노파는 각각 만복을 기원하며 헤어졌다.

- 작자 미상, 「상사동기」 -

18.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 ②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 ③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준다.
- 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다.
- ② 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데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하였다.
- ③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언니의 딸인 것을 깨달았다.
- ④ 노파는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자신이 영영에 대해 아는 바를 알려 주었다.
- ⑤ 생은 천상의 일에 빚대어 영영을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숙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거름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거름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거름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드’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일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은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A] 정일은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은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은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은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은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은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 정일은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은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은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B]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은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활듯이 돌려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은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명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은 건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은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2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는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이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멩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④ ㉠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이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 ①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판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붙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뱀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숫이 되는 날까지
그 숫이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대 모두 이리 와 ㉠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대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대 봄은 지옥이다. ㉣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 오규원, 「봄」 -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쉽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입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백'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3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人의(聖人+의) ᄃᆞ치산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ᄃᆞ치산’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스’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스’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중애’(나중+애), ‘므래’(믈+애)에서처럼 ‘애/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에는 ㉠ ‘뉘예’(뉘+예)에서처럼 ‘예’가 쓰였다. 그런데 ‘애/에/예’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의/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ᄃᆞ[저녁], ㉡ ‘우ᄃᆞ[위], ‘밀’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ᄃᆞ’에는 ‘의’가 결합하여 ㉢ ‘나조ᄃᆞ의(나조ᄃᆞ+의)로, ‘밀’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ᄃᆞ(밀+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이그에’는 관형격 조사 ‘의’에 ‘그에’가 결합된 형태이고 ‘스기’ 역시 관형격 조사 ‘스’에 ‘기’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 ‘늑미그에’(늑+이그에)나 ‘어마ᄃᆞ기’(어마ᄃᆞ+스기)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늑’에는 ‘이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ᄃᆞ’에는 ‘스기’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이그에’와 ‘스기’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 ‘께’로 이어진다.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된다.
 - ②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회’가 된다.
 - ③ ㉢은 현대 국어로 ‘저녁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 ④ ㉣의 ‘이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분석된다.
 - ⑤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스’와 관련된다.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 료>

- ㉠ 수ᄃᆞ(수ᄃᆞ+스)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수ᄃᆞ의 신령이 길에 나와]
- ㉡ 늑미(늑+의) 말 드러사 알 씨라
[현대어 풀이: 늑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 世界스(世界+스) 일올 보샤
[현대어 풀이: 세계의 일을 보시어]
- ㉣ 이 사ᄃᆞ미(사ᄃᆞ+의) 잇는 方面을
[현대어 풀이: 이 사람의 잇는 方面을]
- ㉤ 孔子의(孔子+의) 기티신 글워리라
[현대어 풀이: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 ①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ᄃᆞ’에 ‘스’이 결합한 것이군.
- ② ㉡: ‘늑’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가 결합한 것이군.
- ③ ㉢: ‘世界(세계)스’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스’은 예외적 결합이군.
- ④ ㉣: ‘이 사ᄃᆞ미’가 ‘잇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 ⑤ ㉤: ‘孔子(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지요?
-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분류 전	㉠	㉡	㉢	분류 후
넓디넓다, 높푸르다, 늦깎이, 닭갈비, 썩대밭, 앞장서다, 읊다, 있다, 짓밟다, 흙빛	○	○	○	㉠
	○	×	○	㉡
	○	×	×	
	×	○	○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
×: 해당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 | | ㉠ | ㉡ | |
|---|------|------|--|
| ① | 짓밟다 | 늦깎이 | |
| ② | 넓디넓다 | 있다 | |
| ③ | 읊다 | 높푸르다 | |
| ④ | 흙빛 | 썩대밭 | |
| ⑤ | 닭갈비 | 앞장서다 | |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희철, 민수, 기영이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

희철: 애들아,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민수: 동해안으로 체험 학습 다녀왔다면? ㉠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인 어떻게 생각해?

기영: ㉡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수도 부를까?

희철: 그러자. ㉢ 저기 저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 줘. 전에도 헤맸잖아.

민수: 이제 아냐. ㉤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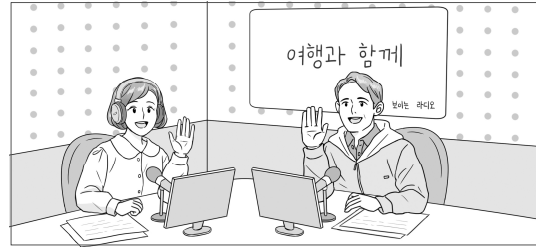
희철: 그렇구나. 어제 잘 ㉦ 왔었구나.

민수: 아, 기영아! ㉧ 우리는 회의 가야 돼. ㉨ 네가 ㉩ 우리 셋을 대표해서 정수에게 연락을 좀 해 줘.

- ①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 ②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 ③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 ⑤ ㉨은 ㉩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지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행가: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보을까요?

여행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가: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진행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르골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작고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볼게요.

(나)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새달: 행복도 등대나 기쁨항 등대와 같이 등대 스탬프가 없는 곳도 있다는데요. 그 등대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군요.

↳ **알콩:** 저는 일반적인 등대와는 달리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사슴:** 알콩 님 말씀과 같이 스탬프가 있긴 해요. 행복도 등대는 행복도 역사관 내에, 기쁨항 등대는 선착장 앞에 있어요. 모두 찾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 **새달:** 사슴 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풍요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 및 주의 사항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택1 하여 참가 신청하기

등대를 방문하여 스탬프 찍고 사진 촬영하기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원주 인증하기

- 인증은 스탬프가 아닌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
- 사전에 스탬프 위치 확인

△△ 등대 -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

특징: LED 조명이 만드는 이국적인 경관

주소: ▽▽도 ◇◇군 △△면

스탬프 위치: 등대 앞

볼거리: ◇◇ 철새 전시관, ◇◇산 전망대

먹을거리: 전복 라면, 복어 튀김, 소금 사탕

재밌거리: 자전거 여행, 조개 잡기 체험

-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종결 어미 ‘-니디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②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 ③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④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기기 구성 정보

전원 버튼, 액정 화면, 블루투스 연결 버튼, 측정 센서

2. 기기 연결 방법

- 1단계 [체중계] 전원 버튼을 눌러 체중계를 작동하세요.
- 2단계 [체중계]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 3단계 [휴대 전화] **설정-블루투스-기기 찾기**를 선택하세요.
- 4단계 [휴대 전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 체중계를 선택하세요.
- 5단계 [휴대 전화] ○○ 체중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 6단계 [휴대 전화] 앱에서 기록을 선택한 후 성별, 키 등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세요(기록한 정보는 개인 데이터 분석에 활용).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

4. 기타 안내

- 1) 앱 설치 바로 가기 : <https://jgsw.com/app>
- 2)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 : <https://jgsw.com/set>
- 3)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 <https://jgsw.com/exp001>

사용 설명서 정보 : 한국어 버전 2.1(2022. 10. 수정)

(나)

2023년 4월 15일

할머니 시윤아, 혹시 너도 이런 체중계 쓰니?

네!!!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시윤

할머니 잘됐다.

할머니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해서 하나 구입했어.

오! 할머니, 파이팅이에요! 시윤

할머니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아닌 거 같더라. 설명서를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너도 봐 볼래?

<https://jgsw.com/exp001>

이거 기능 정말 많아요. 시윤

4. 기타 안내에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시윤

2023년 5월 6일

할머니, 체중계 잘 쓰고 계세요? 시윤

할머니 어, 잘 쓰고 있지. 매일 아침 기록하고 있어.

혹시 예전처럼 달력에다 손으로 직접 쓰고 계세요? 시윤

그거 다 이렇게 자동으로 앱에 기록돼요. 시윤

할머니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서에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 <https://jgsw.com/exp001> 시윤

↳ [답장] 이게 저번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보내 주신 설명서 링크예요. 이거 다시 보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전화해서 알려 드릴게요.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
- ②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추어 안내했다.
- ③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
- ④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했다.
- ⑤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 ②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의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읽기는 듣기·말하기와 달리 영·유아가 글자를 깨치고 나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는 그 전에도 읽기 발달이 진행된다고 본다.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

여기서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렵듯이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자가 뜻이 있고 음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의 읽기 발달은 타인의 읽기 행위를 관찰하고 글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진행된다. 영·유아는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 책장을 넘기는 방식 등을 알게 된다.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가 책을 넘기며 중얼거리고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것,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 거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A]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활 속에서, 책을 자주 읽어 주며 생각을 묻는 등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대부분의 읽기 발달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 ② 영·유아의 의사소통 각 영역은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
 - ③ 영·유아는 글자와 소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게 된다.
 - ④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의 단계를 나눈다.
 - ⑤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에 선행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이 책을 읽어 줄 때 들었던 구절을 사용하여 말하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② 책에서 글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글자를 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③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소리 내어 글자를 읽는 행동이 관찰된다.
- ④ 책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내는 행위가 관찰된다.
- ⑤ 책을 볼 때 부모가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읽어 준 행동을 기억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된다.

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읽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듣기·말하기와 달리 읽기 발달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A]와 달리 <보기>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를 강조하는군.
- ② [A]와 달리 <보기>는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군.
- ③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군.
- ④ [A]와 <보기>는 모두 읽기 이후에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군.
- ⑤ [A]와 <보기>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물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A]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B]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 ② 교통 이용 내역이 집적·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 ④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5. [A], [B]의 입장에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입장에서, ㉢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라면, ㉤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B]의 입장에서, ㉣가 ㉥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에서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는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 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 ①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 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 ②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 ③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④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 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7. 문맥상 ㉠,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용이(容易)해져 | 근거(根據)하여 |
| ② 유력(有力)해져 | 근거(根據)하여 |
| ③ 용이(容易)해져 | 의탁(依託)하여 |
| ④ 원활(圓滑)해져 | 의탁(依託)하여 |
| ⑤ 유력(有力)해져 | 기초(基礎)하여 |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잴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①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 주파수: 진동이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또는 전압의 (+)와 (-) 극이 1초 동안, 서로 바뀌고 다시 원래대로 되는 횟수.

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압전체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압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
- ④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압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이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 ②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사용한다.
- ③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 ④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 ⑤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 ② ㉠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 ③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
- ④ ㉠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 ⑤ ㉠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든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 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단, 측정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 없음.)

- ①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있겠군.
- ②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 ③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賤役)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에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100냥으로 정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幼學)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 굳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非)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 준다.

* 직역: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

(나)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 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士)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 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 ②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다.
- ③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 ④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 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13.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② 유형원은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③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 ④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 ⑤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 ② ㉠은 호적상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 ③ ㉠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 ④ ㉠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이고, ㉡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려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 ⑤ ㉡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은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15.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士)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仁義)를 실천한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① 유형원은 ㉠과 ㉡에 동의하겠군.
- ② 유형원은 ㉡과 ㉢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유형원은 ㉡에 동의하지 않고, ㉢에 동의하겠군.
- ④ 정약용은 ㉡과 ㉢에 동의하겠군.
- ⑤ 정약용은 ㉠에 동의하고, ㉡에 동의하지 않겠군.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이를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군.
-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의 ‘양반’과는 다르군.
-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군.
-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라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군.
- 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관용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 ② 어젯밤 적당하게 내린 비로 대지가 더욱 굳어졌다.
- ③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어머니의 격려로 굳어졌다.
- ④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몸이 추위로 굳어졌다.
- 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쇼.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쇼.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젖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소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낭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㉔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㉕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20. ㉔~㉕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㉕: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㉔: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㉕: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㉕: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만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깡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훑날 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냇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였었다

- 김영랑, 「연 1」 -

* 아슴풀하다: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아슬아슬'의 방언.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요.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물결무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난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깊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뽕’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뉘’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이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이 ‘물을 보는 법’을 ‘썬 불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혜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킬킬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통명스러워졌다. ㉠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켜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쟁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썹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 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깜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기억 상실증인가 뭐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뻥뻥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 멸절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 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헬썹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펜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 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단전만 피우고 있었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 ②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 ③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 ④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⑤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2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와 ㉤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는 ㉤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는 ㉣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는 ㉦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30.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② ㉡: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뒀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평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술질 활활 활활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송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지나
 굶으나 굶으나 지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뺨은 움버들
 가지 와지근 딱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꺾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놀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래끼* 피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 구불구중: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홍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A]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뉘’는 ‘뉘싯대를 써서 하는 뉘싯질’을 뜻하는 ‘대뉘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敎生)’은 ‘교육(敎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뉘’와 ‘대뉘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 ②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군.
 - ③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 ④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 ⑤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있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형성된 단어	뜻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 흰자	알 속의 노른자위를 둘러싼 흰 부분	흰자위
㉡ 공수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공격, 수비
㉢ 직선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직접, 선거
㉣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	민간, 투자
㉤ 외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	외국, 영화

- ①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②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 ③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④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 ⑤ ㉤은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빗],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밝는[밤:는], 닭장[닥장]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벚꽃[번꽃]

- 이를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① ㉠: 재밌는[재민는], 엽매는[엽매는]
 - ② ㉡: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견닌력]
 - ③ ㉢: 똑같이[똑까치], 파문헌[파무친]
 - ④ ㉣: 읊조려[읍조려], 걸뉘어[건늘거]
 - ⑤ ㉤: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덧니버]

38.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능동·피동 표현과 주동·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 형이 동생을 업었다. ㉡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 나는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먼저 ㉠, ㉡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꿀 때, 서술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선생님: 맞아요. 그럼 ㉢나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선생님: ‘-(으)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 ㉡, ㉢의 서술어에서 ‘-었-’을 ‘-고 있-’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와 ㉡의 차이점이나 ㉠와 ㉢의 공통점을 말해 볼까요?

학생:

선생님: ‘-고 있-’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군요.

- ① ㉠: ㉠에서는 서술어에 ‘-으시-’를 넣어야 하지만, ㉡에서는 ‘-시-’를 넣지 않습니다.
- ② ㉣: ㉣에서는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고, ‘읽혔다’에 ‘-시-’를 넣어야 합니다.
- ③ ㉣: ㉣에서는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로 바꾸고,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합니다.
- ④ ㉣: ㉠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는 그럴 수 없습니다.
- ⑤ ㉣: ㉠와 ㉢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9.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 중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 나랏 말쑤미 中國에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生人의 소리 잇도소니 [생인(산 사람)의 소리가 있으니]
 ㉣ 나흔 子息이 양지 端正호야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여]
 ㉤ 내 널오리니 네 이대 드르라 [내가 이르러니 네가 잘 들어라]

<자 료>

<보기>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내, 하, 바, 나, 라, 하, 말, 쑤, 中國, 生人, 소리, 子息, 양, 즈, 나, 너
- 조사: 주격(이, ㅣ, ㅁ), 관형격(의, ㅁ), 부사격(에, ㅁ)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40~43]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 학생회 소식



접속자 수: 253명



진행자: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켰다, 공약’ 세 번째 시간 이죠.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요,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네요. ㉠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네, ㉡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근데 자리가 많지 않고 특별한 원칙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죠.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A] ㉢ 동주 맞아. 자리 말고 오느라 종래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였고.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고 학생회 소식

1.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512	10	14	536	617

2.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B] ㉤ 다예 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학생회, 힘내세요!
 ㉥ 재호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다예 학생, 감사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실 사용은 학생회에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학습실 사용은 학년별로 구분하되 3학년은 월·목, 2학년은 화·수, 1학년은 금요일에 사용합니다.

[C] ㉦ 현지 저는 1학년인데요, 금요일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그래요.
 ㉧ 연수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는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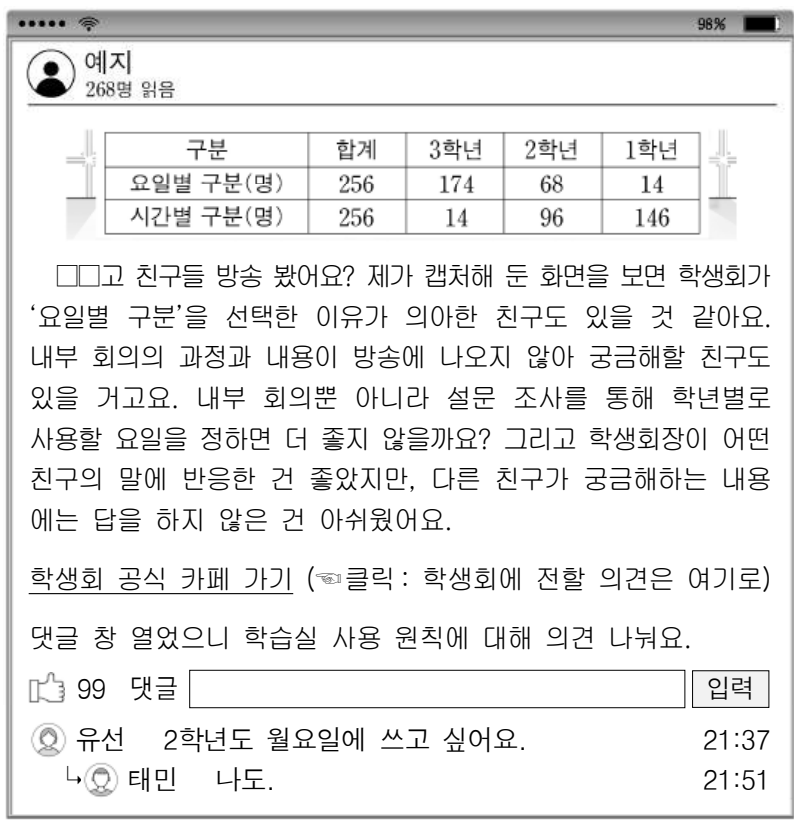


진행자: 그럼 ㉠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회장: ㉡ 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저희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카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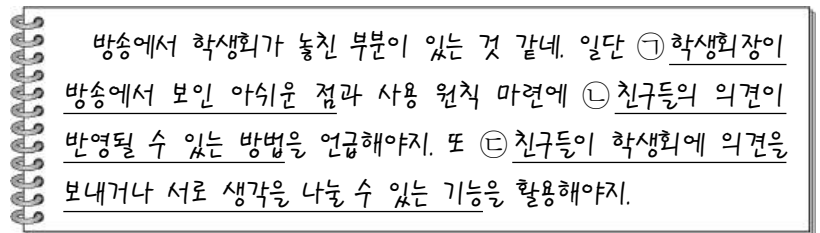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밝히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두 번째 방송과의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 ③ 학생회장은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학생회장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로 표를 제시하며,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B]: 다예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 ③ [B]: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④ [C]: 현지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였다.
- ⑤ [C]: 연수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42.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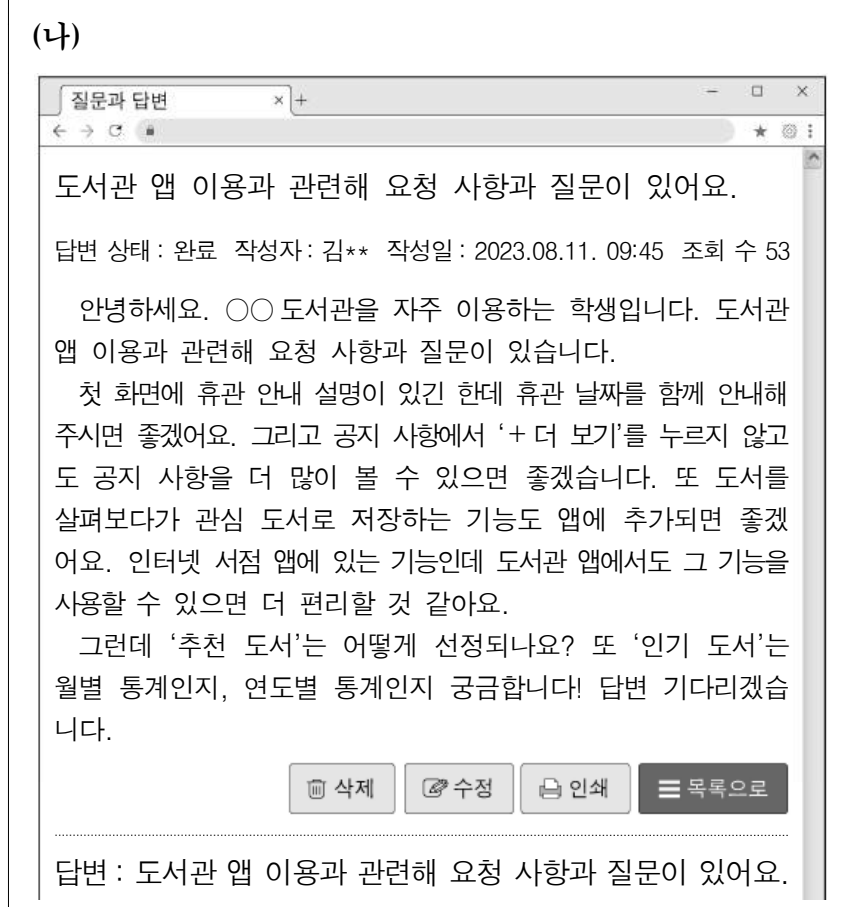


- ① ㉠: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 주었다.
- ② ㉠: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며 답을 들려주었지만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 하였다.
- ③ ㉡: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 하며,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④ ㉢: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 ⑤ ㉣: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 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어미 '-어서'를 사용하여,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이 질문은 학습실 사용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어미 '-면'을 사용하여,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춰져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44~45] (가)는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서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8.11. 15:53

안녕하세요. ○○ 도서관 사서입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관 안내에 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앱의 '추천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합니다. '인기 도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 도서'의 '+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사서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의 선정 방식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전략을 선택할 때 독서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② 독서 전략의 선택을 위해 개별 전략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③ 독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독자는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 ④ 독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⑤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선택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진행 중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독자 스스로 독서 진행의 문제를 점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독서 진행 중 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점검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
 - ③ 독서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④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은 독서 문제의 발생을 막는다.
 - ⑤ 독서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때에는 초인지의 역할이 필요 없다.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독서 중 떠올린 생각이다. ㉠~㉤과 관련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 처음 나왔을 때는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했으니, 문맥을 통해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 봐야겠어. …………… ㉠

↓

○ 더 읽어 보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시 찾아 읽든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든가,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 ……… ㉡

○ 검색을 하려면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겠네. …………… ㉢

○ 검색은 나중에 하고, 먼저 앞부분을 다시 읽어 봐야겠다. 그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봐야지. …………… ㉣

○ 그럼 일단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보자.

↓

○ 앞부분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네.

○ 이 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어. …………… ㉤

↓

○ 이제 이 용어의 뜻이 이해되네. 그럼 계속 읽어 볼까?

- ① ㉠: ㉠을 판단하여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② ㉡: ㉡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떠올렸다.
- ③ ㉢: ㉢을 고려하여 전략의 사용 조건을 확인했다.
- ④ ㉣: ㉣을 판단하여 전략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했다.
- ⑤ ㉤: ㉤을 판단하여 최적이라고 생각한 전략을 선택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선거 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 ③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5.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6.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7.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 후보	42%	38%	39%
	B 후보	32%	37%	38%
	C 후보	18%	17%	17%

-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과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에 모두 위배되겠군.
-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 나타내기 어렵다.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 대푯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 멀어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③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 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 ②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 ③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 ⑤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10. ㉠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①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 ②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 ③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 ④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형성(形成)하기
- ② ㉡: 누락(漏落)되어
- ③ ㉢: 도래(到來)한다
- ④ ㉣: 투과(透過)하는
- ⑤ ㉤: 소원(疏遠)하여

-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 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 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1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13.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1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15.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만물에 앞서서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16.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 ②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 ③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있다.
- ④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 ⑤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몸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누가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A]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설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 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빠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웁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웁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㉞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뵈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 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너를 불러 말하기를,

㉡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 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1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19.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 ① 서경태가 임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앓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건넨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렇게면 수양의 늘어진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편

[B]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읽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잇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잇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잇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잇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잇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잇는다.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잇는다.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잇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잇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잇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잇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잇어도 좋을 것은 잇고
자신의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지 않는다.”

- 유한준, 「잇음을 논함」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24.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잇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잇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잇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잇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2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 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잇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잇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순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애최에 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순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박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하고, 뽀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 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쨍, 쨍, 쨍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구 말구요. 씹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할…….’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순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못 해서, 그 [A] 더러운 뒷간 속에다 글썸 가뉘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러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 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뉘?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B]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쳤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 [C] 쳤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단 말예요? 듣구두 모른 채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순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쳐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순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뭘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이 되려 난다.
-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양금을 찢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30.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둬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빌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썸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B]

[C]

- 김인검,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설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난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었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약'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ㄱ→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중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중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ㄱ’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ㄱ’과 중성자 아음 이체자 ‘ㅇ’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ㄱ	노로	ㅍ(산)	ㅅ	ㅂ(뱀)		
가획자	ㅋ	뒤(띠)	벌	조(종이)			
		고티	파	체	부형		
이체자	리(너귀)					어름	아(아위)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톡/ㄷ리	물/그(기러기)	깃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재출자	쇼	남(거북의 일종)	슈(우산)
		덜	

〈중성자 용자례〉

8중성자	독	금(금병)	반(반뿔)	간(갯)
	범	섬(섬)	갯	벌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 ‘고티’(>고치)나 ‘덜’(>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 ‘섬’(>섬)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ㄷ리’(>다리)나 ‘톡’(>턱)처럼 ‘ㄷ’가 변한 유형, ㉢ ‘물’(>물)이나 ‘브(부)’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ㄱ>ㄱ’ 변화를 겪은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 ‘부형’(>부형)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 ‘갈’(>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ㅇ’으로 표기함.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중성에 쓰인다.
-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중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ㄱ’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중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리 딴’(>별이 진)의 ‘딴’은 ㉠에 해당한다.
- ② ‘서울 겨샤’(>서울 계셔)의 ‘서울’은 ㉡에 해당한다.
- ③ ‘풀 우희’(>풀 위에)의 ‘풀’은 ㉢에 해당한다.
- ④ ‘산 거미’(>산 거미)의 ‘거미’는 ㉣에 해당한다.
- ⑤ ‘닥 닙’(>닥나무 잎)의 ‘닥’은 ㉤에 해당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ㅎ’ 발음 용언의 활용 유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은 어간의 발음이 ‘ㅎ’인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화 적용 여부나 활용형의 줄어듦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불규칙 활용 유형		규칙 활용 유형	
㉠-1	노랑- + -아 → 노래	㉡-1	당- + -아 → 당아 (→ *다)
㉠-2	누렁- + -어 → 누레	㉡-2	농- + -아 → 농아 (→ 놉)
㉢	어떻- + -어 → 어때		

(*은 비문법적임을 뜻함.)

- ① ‘조그맣-, 이렇-’은 ‘조그맣, 이래서’로 활용하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② ‘꺼멩-, 뿌엥-’은 ‘꺼멩, 뿌엥’으로 활용하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③ ‘둥그렇-, 멀격-’은 ‘둥그랬다, 멀게’로 활용하므로 ㉢과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 ④ ‘낱-, 땅-’은 활용형인 ‘낱아서, 땅았다’가 “나서, *땀”으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 ⑤ ‘널-, 쌓-’은 활용형인 ‘널어, 쌓아’가 “너, *짜”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영민, 평화가 학교 앞에 함께 있다가 지혜를 만난 상황]
영민: 너희들,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평화: 응, ㉠6시 걸로 세 장 예매했어. 근데 너, 어디서 와?
지혜: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야. 너흰 안 가?
평화: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영민: 나는 4시 반이야.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지혜: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평화: 좋아.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지혜: 5시까지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평화: 왼쪽이면 편의점 아냐? 아,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볼 때는 ㉦오른쪽 맞지?
지혜: 그러네. 아참! 영민아, 너 상담 시간 됐다. 이때 늦지 않게 영화 ㉧시간 맞춰서 ㉨와.

- ① ㉠과 ㉡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
- ②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 ③ ㉤과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④ ㉧과 ㉨은 이동의 출발 장소가 동일하다.
- ⑤ ㉥과 ㉦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부사어는 부사, 체언+조사,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등이다. 일례로 ‘차가 간다.’의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잘’을 부사어로 쓰면 ‘차가 잘 간다.’가 된다.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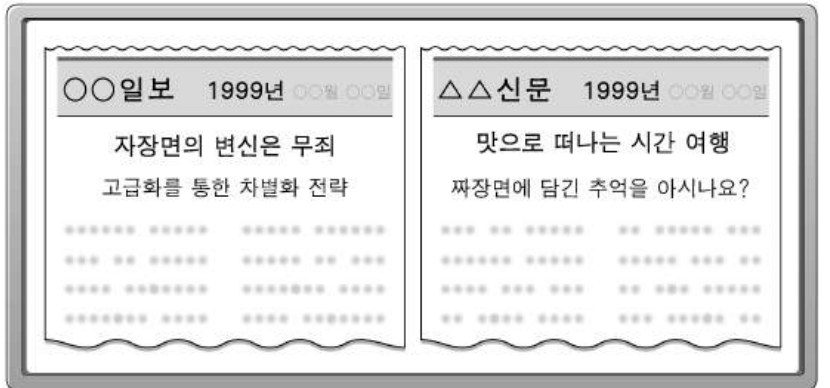
[조건]

- ㉠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체언+조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조건	수정 전 ⇨ 수정 후
① ㉠, ㉡	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 ⇨ 방긋이 웃는 아기가 참 귀엽게 걷는다.
② ㉠, ㉢	화가가 굵은 선을 짝 그었다. ⇨ 화가가 조금 굵은 선을 세로로 짝 그었다.
③ ㉢, ㉣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 그를 무척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④ ㉣, ㉤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 전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
⑤ ㉤, ㉥	영미는 그 일을 처리했다. ⇨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동아리 누리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식’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여 년간 대학에서 어문 규범을 가르쳐 오신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 짜장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짜장면이,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행자: ㉠아,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전문가: 네,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죠. ㉡짜장면은 2011년 8월 31일에서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에도 짜장면이 흔히 쓰이지 않았나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



진행자: 음, 화면을 보니 같은 해에 나온 기사인데도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쓰이고 있네요?
전문가: 네, 보시는 자료 이외에 다른 신문 기사에도 짜장면이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비교적 어문 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할 정도로, 일상에서 짜장면이 널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복수 표준어 선정을 위해 실시한 발음 실태 조사에서도,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인 자장면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군요.
전문가: 당시 언중들이 일상에서는 어문 규범과 달리 짜장면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진행자: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거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 온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짜장면이 자장면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짜장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어도 언젠가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있겠군요.

전문가: 맞습니다. ㉔ 표준어가 아닌 말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㉓ 말씀을 듣고 보니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말에 대한 상식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 고맙습니다.

진행자: 오늘 방송은 공식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오겠습니다.

(나)

언어 탐구 동아리 x +

[단비]님, 안녕하세요! 내 정보 나가기

공지 사항 활동 자료 **생각 나눔** 사진첩

생각 나눔

글 제목 (댓글 수)	작성자	작성일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 (3)	단비	2023. 10. 12.
'언어와 인간'을 읽고 (8)	준서	2023. 10. 05.
'언어학과 광고' 강연을 듣고 (13)	아림	2023. 09. 21.

< 1 2 3 4 > 글쓰기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 작성자: 단비

오랜만에 '생각 나눔'에 글 남겨요. '오늘, 상식'을 봤는데,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가 된 이유에 대해 어문 규범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믿음이 갔어요. 제가 본 이 내용이 동아리 부원들의 어문 규범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 둘게요.

'오늘, 상식' 10회 차 다시 보기 클릭

좋아요 누리 소통망 공유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쇄하기

좋아요(19) 댓글(3)

아림 나도 재밌게 봤어.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해 듣고 당시 사람들도 짜장면을 자장면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조사 기관이 언급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준서 나도 그 방송 봤는데,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성호 나는 방송에서 다룬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 자장면과 짜장면이 함께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 근데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널리 쓰였다고 해도 괜찮을까?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는 시청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 ② '전문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 ③ '전문가'는 방송의 첫머리에 '진행자'와 문답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 ④ '진행자'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방송 내용을 재확인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을 안내하였다.
 - ⑤ '진행자'는 방송의 취지를 밝히며 방송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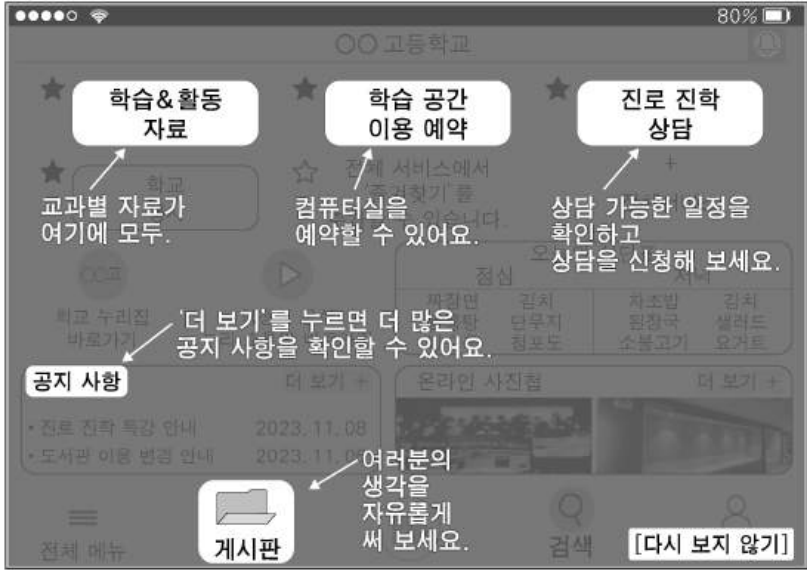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② 게시물에 반응할 수 있는 공감 표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③ 게시물을 누리 소통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④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범주가 항목별로 설정되어 있다.
 - ⑤ 게시물에는 다른 누리집에 있는 정보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42. (가)에 대해 (나)의 학생들이 보인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비'는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② '단비'는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이유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 '아림'은 발음 실태 조사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④ '준서'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성호'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다룬 내용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루는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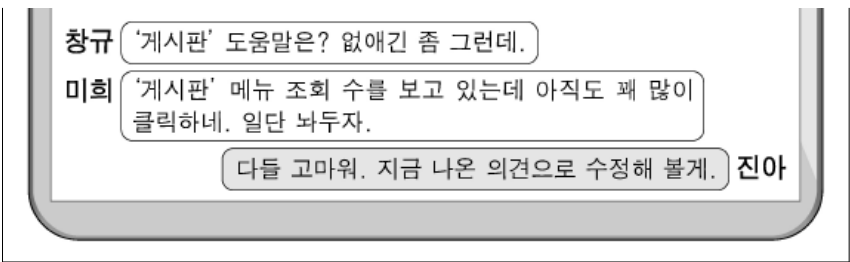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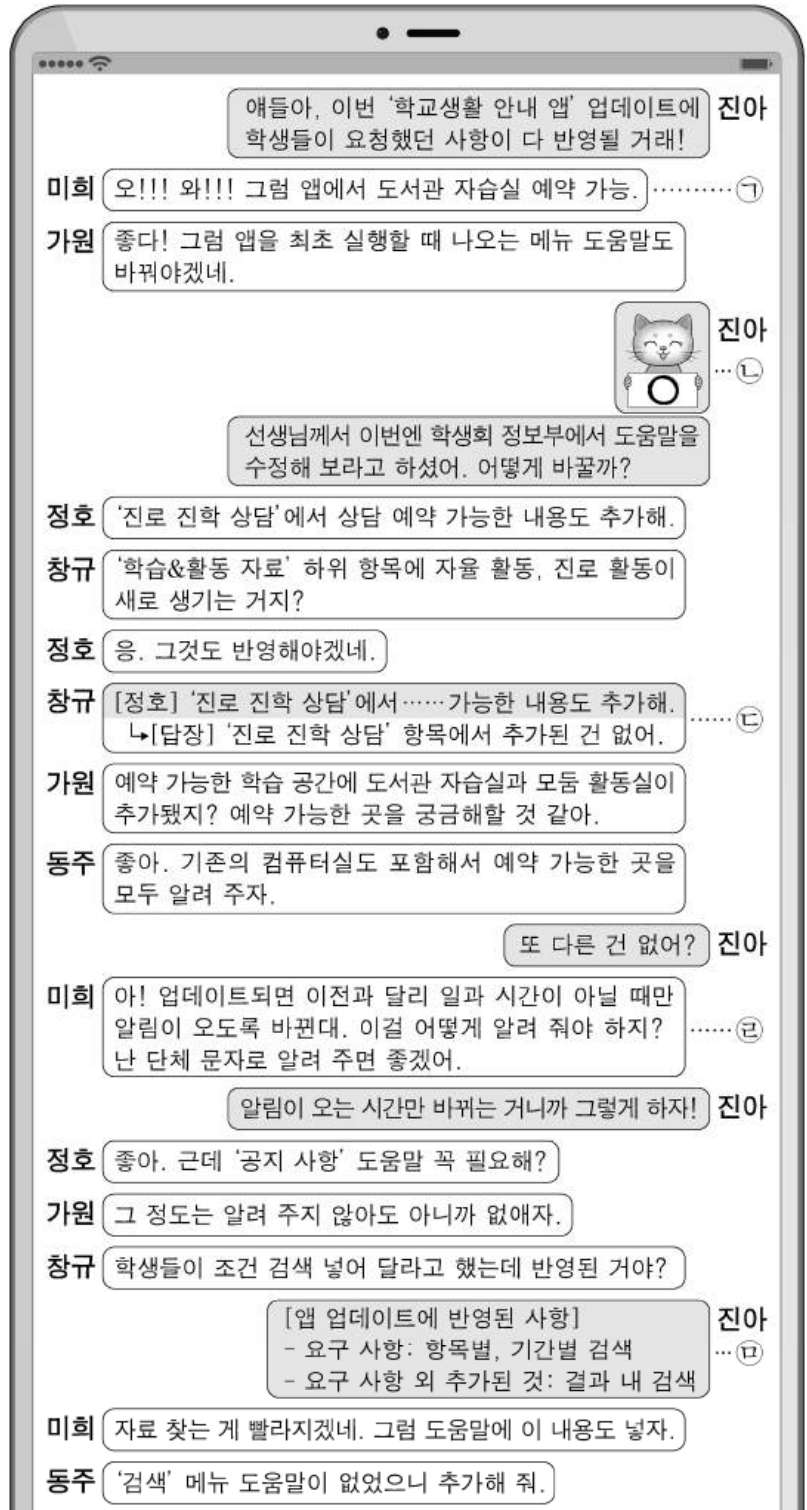
43.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직전 발화와 관련된 '진행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위의 대상인 짜장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㉓: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하여,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㉔: '-ㄴ 수 있다'를 사용하여, 표준어가 아닌 말이 표준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㉔: '-고 보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특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난 후임을 드러내고 있다.

[44~45] (가)는 ‘학교생활 안내 앱’을 최초 실행할 때의 화면이고, (나)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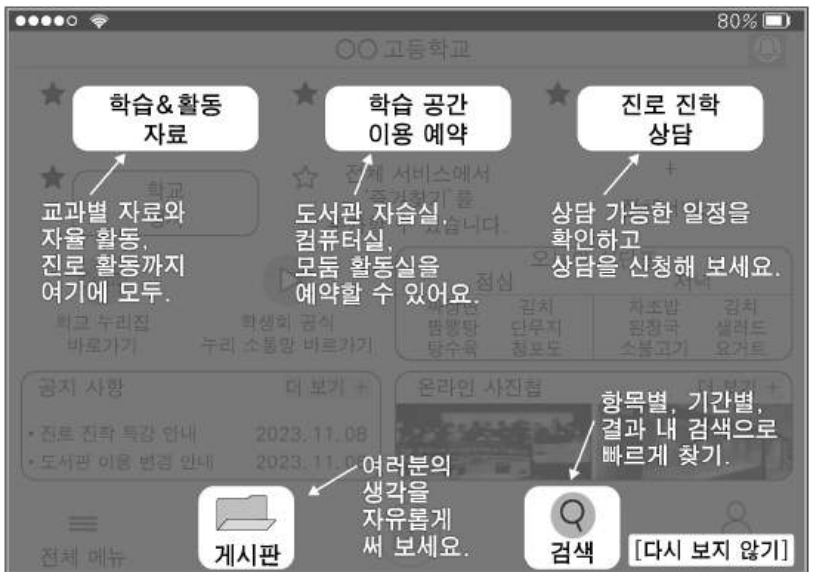


(나)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느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였다.
 - ②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를 표현하였다.
 - ③ ㉢: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였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변경된 알림 전송 시간대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⑤ ㉤: 줄을 바꾸는 방식으로 글을 입력하여, 변동 사항을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고 할 때, 수정한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습&활동 자료’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항목의 변화에 대한 ‘창규’와 ‘정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 ② ‘학습 공간 이용 예약’에 대한 도움말은 이용 예약이 가능한 공간 추가에 대한 ‘가원’과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 ③ ‘공지 사항’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도움말의 필요성에 대한 ‘정호’와 ‘가원’의 대화를 반영하여 삭제되었다.
- ④ ‘게시판’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이용 빈도에 대한 ‘창규’와 ‘미희’의 대화를 반영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 ⑤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미희’와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글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며 읽는 능력은 많은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궁금증 해소나 글쓰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 읽기를 할 때에 한 편의 글에 원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글을 읽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독자는 우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찾아야 한다. 읽을 글을 선정할 때에는 믿을 만한 글인지와 읽기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글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뢰성 평가는 글의 저자, 생산 기관, 출판 시기 등 출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그 글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 관련성 평가는 글의 내용에 읽기 목적과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읽기 목적을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평가해 가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글들을 선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한다. 이때 글의 정보는 독자가 이해한 의미로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한다. 이들 세 전략은 꼭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다.

선택하기란 읽은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연결하기란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화하며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글의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조직하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의 순서에 따른 글과 정보 나열의 글을 읽고, 읽은 글의 구조와는 다른 비교·대조의 구조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② 여러 글 읽기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③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읽기에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 ④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목적과 관련된다.
- ⑤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기보다 그 글을 반복해서 읽는다.

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 내용이 수행 과제와 관련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 ②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해 출판사의 공신력을 따지는 것은 ㉠을 고려한 것이다.
- ③ ㉡에서는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정보가 산재해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다.
- ⑤ 글 내용에 목적에 맞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에, 저자의 경력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에 관련된다.

3. 다음은 여러 글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독서록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동물이 그린 그림의 판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동물의 행동 사례를 열거하여 소개한 <동물은 예술가>라는 글에서 ㉠ '동물의 그림도 예술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동물에게의 유산 상속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경우를 비교·대조한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읽으며 ㉡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 이 정보를 <동물은 예술가>에서 추출한 정보와 연결하여 '동물의 그림에도 저작권이 있겠다'는 새로운 의미를 떠올렸다. 동물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저작권의 개념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저작권의 역사>라는 글을 읽고 저작권의 의미를 이해하여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세 글의 정보를 종합하여 '동물 저작권의 성립 요건'에 관해 인과 관계 구조로 정리하였다. 그러면서 동물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여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에서 ㉤ '동물 소유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 ① ㉠: <동물은 예술가>를 읽으며 선택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② ㉡: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연결하기 전략에 앞서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③ ㉢: <동물은 예술가>와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선택한 정보들로 연결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④ ㉣: 새로운 구조로 정리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기 전략을 활용했겠군.
- ⑤ ㉤: <동물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를 읽으며 선택하기 전략을 다시 활용했겠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이는 정치 조직에서만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외 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 ②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다.
- ③ 대립하는 유형을 들어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 ④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검토한다.
- ⑤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한다.

5.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 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②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 ③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⑤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6.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 ②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 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 ③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 ④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 ⑤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 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A: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B: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 ①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 ②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④ B는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⑤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한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 ②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 ③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 ④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 ⑤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 ②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 ③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 ④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 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간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 ①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②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로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③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군.
- ④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 ⑤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11.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
- ②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다.
- ③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
- ④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 ⑤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 펼쳤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꿀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꿀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꿀은 맛있다.’는,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12.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13.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③ ‘꿀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④ 화자는 꿀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꿀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14.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p>[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p>[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 행크스: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p>[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1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④ ‘굴은 맛있다.’가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색하는
- ② ㉡: 제시하지
- ③ ㉢: 전파했다
- ④ ㉣: 발산하는
- ⑤ ㉤: 공개하여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 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 그 글에 하였으되,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이되나이다. 오호 애재라!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흠향 하옵소서.’

하였더라.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흥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담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훈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 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회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 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담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옵미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특남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진진지연(秦晉之緣): 혼인의 인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② ㉡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 ④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19. [장 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복 도주했다.
-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2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과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은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은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 ② ㉠은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은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 ③ ㉠과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 ⑤ ㉠과 ㉡은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저 건너 ㉠ 공생원은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버 덕분에 돈천이나 가졌다니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 하였던가
 주재님께 아는 체로 ㉡ 음양술수(陰陽術數) 현혹되어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당대발복(當代發福) 예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울 적 갈 적 행로상에 ㉢ 처자식을 훌어 놓고
 유무(有無) 상관 아니하고 공것을 바라도다
 기인취물(欺人取物) 하자 하니 두 번째는 아니 속고
공납(公納) 범용 하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 없고
 뜬재물을 경영하여 경향출입 싸다닐 제
 재상가에 ㉣ 청질하다 봉변당해 물러서며
 남의 고을 결태 하다 혼금(閹禁)에 쫓겨 오기
 혼인 중매 선채* 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며
 가대* 홍정 구문 먹기 ㉤ 핀잔 듣고 자빠지고
 불의행실(不義行實)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송(非理好訟)
 부자나 후려 볼까 ㉥ 감언이설 피어 보자
 언막이에 보막이며 은광이며 금광이라
 큰길가에 색주가며 노름판에 푼돈 떼기
 남북촌에 뚜쟁이로 인물 초인(招引) 하여 볼까
 산진매 수진매로 사냥질로 놀아나기
 혼인 핑계 어린 딸이 백 냥짜리 되었구나
 대중손 양반 자랑 산소나 팔아 볼까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에게 손가락질
 부지거처(不知去處)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 작자 미상, 「우부가」 -

* 선채(先綵): 혼례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비단.

* 가대(家垔): 집이나 토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

경인년(庚寅年)에 큰 가뭄이 들어 정월부터 가을 7월에 이르기
 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봄에는 논밭을 갈지 못했고, 여름에는
김을 맬 수가 없었다. 들판에 있는 풀은 하나같이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도 모두 시들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편안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힘을 다하여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밭은 이미 갈라졌으나 김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짝이 이미 시들었어도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 게으른 농부는 말하기를,

“김을 매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을 것이다.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 모두
 무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들밭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물러나 앉아 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가을건이할 무렵 파산(坡山)의 들판에 가 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절반은 곡식이 성글게 달렸고 절반은 뻣뻣하게 달려 있었다.
 어떤 농부는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어떤
 농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마을 노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목을 뺏뺏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무익하다고 여겨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잘
 가꾸어져 뻣뻣한 곡식은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린 것이다. 한때의 편안함을 탐내었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괴로움을 참아 일 년
 내내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아, 열심히 일하여 얻고, 편안하게 놀다가 잃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인가?

㉡ 선비들은 젊었을 때에 학문에 뜻을 두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육경(六經)과 온갖 사서(史書)를 탐구하지 않음이 없고
 문장과 아름다운 글귀를 익히지 않음이 없다. 저마다 재주를
 품고 기이한 재주를 쌓아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 솜씨를 겨루어,
 한 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못마땅해하고, 두 번에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세 번에도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귀는 운명에 달려 있으니 역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동안 배운 것을 버리고 아울러 이전에 쌓아 온
 바를 버려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문(門)에 거의 다 이르렀다가 되돌아간다. 아홉 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힘을 마저 쏟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게을러서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오.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어 입과
 배를 채우는 것은 그 이로움이 적으나, 학문을 하여 명성을
 취하는 것은 그 이로움이 크다. 이로움이 작은 일도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군자는 도리어
 몸을 수고롭게 하는 소인이 끝까지 노력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지어 그들을 깨우치는 바이다.

- 성현, 「타농설」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해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집터나 밭자리를 통해 길운을 바라는 꿈생원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은 재물을 모은 꿈생원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는 대상이다.
- ③ ㉢은 재물을 경영하여 부를 증식하려는 꿈생원이 권력가의 권세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은 집이나 땅을 중개하여 이문을 취하려는 꿈생원이 흥정 과정에서 겪은 부정적 반응이다.
- ⑤ ㉣은 부자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꿈생원이 부자를 피는 수단이다.

2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박과 음주에 빠져 있고, ㉡는 파산의 들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 ② ㉠은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팔자를 원망하고, ㉢은 분수를 알아 자신의 배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은 혼인을 중매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여 창피를 당하고, ㉣은 과거 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수치를 당한다.
- ④ ㉡는 가뭄에 김을 매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은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여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 ⑤ ㉡는 김매기를 하여도 작물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 학문에 힘을 쏟아도 부귀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물음에 답하는 인물을 통해 글쓴이가 관찰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을 다른 상황으로 확장하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에 따라 삶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요행을 바라면서 책임감 없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 대한 경계가, (나)에서는 운명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고 있다.

- ① (가)의 ‘공것’과 ‘뜯재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태도를 알 수 있는 소재이군.
- ② (나)의 ‘비가 내리지 않’아 ‘김을 맬 수가 없’는 것을 보니, 농부들이 농경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문제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군.
- ③ (가)의 ‘공납’을 유용하려는 것에서 이익을 위해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의 ‘그냥 쉬는 것이 나을 것’에서 불행한 결과를 예단하는 운명론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가)의 ‘돈천이나 가졌더니’, ‘친구 대접 하였던가’에서 재물을 베푸는 데 인색한 물욕을, (나)의 ‘풀 뽑기를 쉬지 아니하여’에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일가’와 ‘친구’에게서 소외당한 꿈생원의 말로에서 무책임한 삶에 대한 경계가, (나)의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최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떨어질 듯이 들릴 듯이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혈뿔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옆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 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 언젠가 어머니의 **넓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 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싸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암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 **저것 봐라이.** ㉤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 **불현듯** 시야가 부영게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 **쭈부쟁이**와 **영경귀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웅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27.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 ②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④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 ⑤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28. 윗글에서 ㉦와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 ②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 ③ ㉦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 ④ ㉦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 ⑤ ㉦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 ② ㉠은 ㉡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 ③ ㉡는 ㉠과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 ④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 ⑤ ㉠과 ㉡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 ③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 관습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습결처럼
 ㉢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앎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이기철, 「청산행」-

(나)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호을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 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김현승, 「사실과 관습: 고독 이후」-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은 '호을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안에 대한 지향을, ㉡은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식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갈등을, ㉡은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을 내포한다.
- ⑤ ㉠은 사물들을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연민의 성격을, ㉡은 '달잡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위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이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은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시각화한 표현이다.
- ③ ㉢은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형상으로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호에 따른 주체적 행위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나'에 대한 현재의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되는 말은 지칭어,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은 호칭어라고 한다. 지칭어 중에는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에 그 형식은 다양하다. 단순하게는 ‘홍길동, 아버지, 당신, 여보’ 등과 같이 명사, 대명사, 감탄사 등의 단어로 실현된다. 또 그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접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도 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사람의 신분, 직위, 대화 참여자와의 사적·공적 관계 등에 따라 지칭어나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화자와 상대방 혹은 제삼자가 사적 관계에 있고 대화의 상황이 비격식적이라면 그 대상을 이름이나 친족어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예컨대 ㉡ ‘홍길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길동이, 삼촌, 아빠’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적인 대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을 공적인 직위나 지위 등을 사용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앞서 언급한 ‘홍길동’이 ‘이사’란 직위에 있다면 그를 ‘홍 이사, 홍길동 이사님’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또한 ㉤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나뉜다. 예컨대 ‘너희 학교는 어디야?’의 ‘어디’는 전자에, ‘어디 좀 가자.’의 ‘어디’는 후자에 해당된다. ‘어디 가?’의 ‘어디’는 맥락에 따라 전자와 후자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대명사 외에 명사, 관형사, 부사 등도 알지 못함이나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과일 한 상자에 ㉠ 얼마예요?
 - 그는 ㉡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 지리산은 ㉢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
 - 밖에 ㉣ 어떤 분이 오셨어요?

- ① ㉠, ㉡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 ② ㉠, ㉢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 ③ ㉠, ㉣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 ④ ㉡, ㉢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 ⑤ ㉡, ㉣는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36. 다음 ㉠~㉤를 통해 윗글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아들: ㉠엄마,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음, 그래! 그럼 주말에 이모에게 상담 좀 받아 볼까?
 딸: 엄마, ㉡이모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들: 아니야. 전에 사촌 누나가 그러던데 이모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시대.
 아빠: ㉢여보세요.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생각 좀 하시죠? 그리고, ㉤김수진 님! 본인 아드님 진로 상담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엄마: 김 부장님, 제가 언니한테 잘 부탁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아빠: 그럼 ㉠이모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상담도 집중해서 잘 받아라.

- ①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와 지칭어 ㉢를 통해 확인된다.
- ② ㉣는 지칭어 ㉣와 ㉤로도 확인되는데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 ③ ㉢는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인 호칭어 ㉢를 통해 확인된다.
- ④ ㉣는 지칭어 ㉣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로 실현된 데에서도 확인된다.
- ⑤ ㉤는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를 사용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37.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및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여객선이 도착한 항구엔 안개가 졌다.
- ②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 ③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
 [아버지는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 ④ [얼음으로 된 성이 나타났다.
 [그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 ⑤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언니는 간이역만 지나치는 기차를 탔다.

38.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한 단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이들 간에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먼저 일어난 음운 변동 결과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지요. 예컨대, ‘찾는’은 [찬는]으로 발음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예요. ㉠~㉣에서 이런 순서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 비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활용해 설명해 봅시다.

㉠ 실없네[시럽네]	㉡ 깊숙이[깍추기]
㉢ 짓밟지[진뺨찌]	㉣ 꺾는[깡는]
㉤ 훑고[훑꼬]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②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③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④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 ⑤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39. <탐구 활동>의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활동>

차자 표기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차자 표기된 한자는 한자의 훈이나 음으로 읽게 된다. 이때 한자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아래는 이러한 차자 표기 방식들을 ‘水(물-수)’로써 응용해 보인 것이다.

	훈으로 읽음	음으로 읽음
본뜻 유지	예) ‘水’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음 ㉠	예) ‘水’를 ‘물’의 뜻으로 ‘수’로 읽음
본뜻 무시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 없이 ‘물’로 읽음 ㉡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 없이 ‘수’로 읽음 ㉢

다음 한자(훈-음)를 이용해 차자 표기를 해 보고 그 방식을 설명해 보자.

火(불-화), 土(흙-토), 多(많다-다), 衣(옷-의), 乙(새-을)

예컨대, 고유어 표현 (㉠)의 밑줄 친 부분을 (㉡)로 표기하고 (㉢)(으)로 읽는다면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 | | ㉠ | ㉡ | ㉢ | ㉣ |
|---|-----------------|---|---|---|
| ① | 불 <u>빛</u> 이 일다 | 火 | 불 | ㉠ |
| ② | 진 <u>흙</u> 이 굳다 | 土 | 흙 | ㉠ |
| ③ | 옷 <u>음</u> 이 많다 | 多 | 다 | ㉡ |
| ④ | 시 <u>옷</u> 을 적다 | 衣 | 옷 | ㉡ |
| ⑤ | 찬 <u>물</u> 을 담다 | 乙 | 을 | ㉢ |

[40~43]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독도 바다사자를 아십니까? ㉠ 독도 바다사자는 예전에 독도와 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도 바다사자는 멸종된 지 오래 되어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 옛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이 바다사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지금 독도 인근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독도 바다사자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습니다. 하지만 ㉢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4년에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 동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도 옛 모습 찾기를 위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 독도 바다사자는 다른 멸종 위기 동물보다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독도 바다사자 복원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전문가들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복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독도 바다사자의 경우 동일 개체종이나 동일 개체군으로의 복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베링해 인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링해 등에서 개체군을 들여와도 문제없이 잘 서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기자: 지역 사회도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여 독도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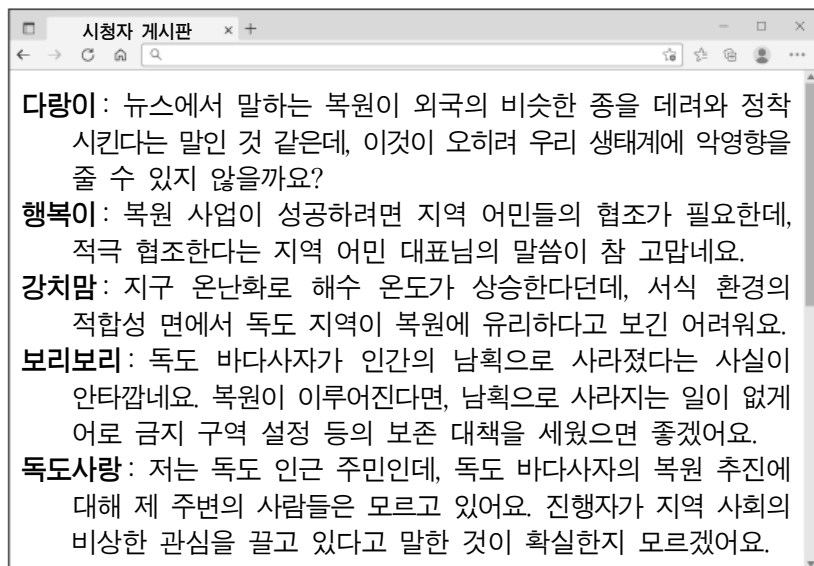
지역 어민 대표: 독도 바다를 누비던 독도 바다사자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해야지요.

기자: 일각에서는 동물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동물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는 정확한 실태 조사,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 독도 바다사자를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독도의 옛 모습을 찾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김◇◇ 기자였습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은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은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와 문자를 사용하여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 ㉡, ㉣은 보도의 주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화면 상단에 제시하고 있다.
- ⑤ ㉠, ㉡, ㉣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화면 하단의 자막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41. 다음은 위 뉴스에 대한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랑이'는 '전문가'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 ② '행복이'는 '지역 어민 대표'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강치맘'은 '관계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 ④ '보리보리'는 '기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 ⑤ '독도사랑'은 '진행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를 다른 지역의 바다사자와 비교한다.
- ② ㉡: 보조사 '만'을 사용하여, '1900년대 초까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표현한다.
- ③ ㉢: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개체 수의 감소 국면이 반전되었음을 표현한다.
- ④ ㉣: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 ⑤ ㉣: 피동사 '전망되다'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 복원의 주체를 숨기고 있다.

43. 위 뉴스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독도 옛 모습 찾기 캠페인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의 정보 제시 및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를 제시했다.
- ② 행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상위와 하위 항목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하여 제시했다.
- ③ 캠페인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 제목을 글 상자에 넣어 상단 중앙에 제시했다.
- ④ 독도 옛 모습 찾기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기 위해, 학생의 말풍선에 청유 형식의 문구를 제시했다.
- ⑤ 독도와 독도 바다사자가 함께하는 독도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독도를 배경으로 독도 바다사자가 헤엄치는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했다.

[44~45] 다음은 '졸업 앨범 앱' 시안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영: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할게. 근데 수민이가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할게. 다들 동의하지?
지현, 민진, 윤하, 서형, 은준: 그래, 알았어.

채팅 나영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귓속말 (1:1채팅)
은준 → 나영) 나영아, 근데 수민이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ㅠㅠ
나영 → 은준) 몸이 좀 아프대. 회의 끝나고 연락해 보자.

지현: '졸업 앨범 앱' 시안 제작을 위해 친구들이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해 주었어. 함께 검토해 보자. 게시판 주소를 보내 줄게.

채팅 https://www.○○고.kr/○○고학생회

민진: 많은 의견 중에 반영할 의견을 고르려면 사회의실을 만들어 진행해야 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나영: 좋은 생각이야. 회의실은 내가 만들어 줄게.

채팅 사회의실 회의가 시작되어 지정된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채팅 사회의실 회의가 종료되어 전체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나영: 자, 그럼 사회의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공유해 보자.
지현: 우리 모듈에서는 본인이 쓴,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 '나의 서재' 같은 메뉴를 추가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진: 그럼 메뉴는 우리가 처음 구상한 것에 '나의 서재'를 추가 해서 '나의 방', '나의 서재', '조별 사진', '단체 사진', '행사 사진'으로 하면 되겠다.
은준: 우리 모듈에서는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어. '나의 방' 메뉴에 계정 주소 입력 공간을 만들고 입력하게 하는 건 어때?
윤하: 좋아. 그러면 '친구 찾기' 메뉴도 만들어서 친구를 검색 하면, 입력된 친구 계정에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바로 가기'를 추가하자.
지현: 그럼, 추가한 '친구 찾기' 메뉴에 '쪽지 보내기' 기능을 넣어서, 친구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게 하면 어때?
은준: 우리도 '쪽지 보내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려 했었어. 발신자가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 휴대 전화에 알림이 가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니 함께 반영하자.
서형: '학교 누리집 바로 가기'를 넣어 달라는 의견도 있던데, 페이지로 연결은 간단하니 이것도 반영하는 걸로 하자.

윤하: 그래, 다양한 기능이 많이 생기겠다.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

민진: 좋은 생각이네. '행사 사진' 메뉴에 적용하면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기능이 실제로 가능한가?

서형: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봤어. 영상을 공유해 볼게.

채팅 서형님이 영상 공유를 시작합니다.

나영: 영상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 잘 반영해서 ㉠ 최종 시안이 나오면 다시 공유할게.

44. 윗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영'은 회의 참여가 불가능한 '수민'을 위해 회의를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저장했다.
- ② '지현'은 게시판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 주소를 전송했다.
- ③ '민진'은 게시판에 제출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회의실' 기능의 활용을 제안했다.
- ④ '은준'은 개인적으로 친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하여 '나영'과 대화했다.
- ⑤ '서형'은 '슬라이드 자동 넘김'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공유' 기능을 사용했다.

45. 위 회의를 바탕으로 ㉠을 아래와 같이 제작했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앱 이용 중에 학교 누리집에 접속할 필요가 있을 때, ㉡를 이용하면 편리하겠군.
- ② 사용자는 '친구 찾기'에서 친구가 ㉢에 입력해 둔 계정 주소를 통해 친구 계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겠군.
- ③ 학교생활 중에 썼던 글을 ㉣에 올려 두면, 저장한 글을 보고 싶을 때 다시 열어 볼 수 있겠군.
- ④ 학교 행사들을 추억하고 싶을 때 ㉤를 이용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행사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겠군.
- ⑤ ㉤를 사용하여 쪽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려면 수신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해야 하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문자 이외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접하곤 한다.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각 자료는 여백을 채우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 ②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
- ③ 독자가 시각 자료에 끌리다 보면 글을 읽는 목적을 잃을 수 있다.
- ④ 시각 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 ⑤ 독자는 낯선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의미는 글 내용과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문자 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상호 참조되어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③ 문자로만 구성된 글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면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었을 수 있다.
- ④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시각 자료의 관련성을 따지고 시각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3. <보기>는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 있었다.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 1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 2에서 그것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 ② 그림 1은 글 내용을 시각화해 보여 주면서 글 내용도 보완해 주는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 ③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여 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 ④ 그림 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그림 2와 3은 글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 대행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며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 ① 갑이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대신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겠군.
- ② 갑이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실험·검증하고 우수성을 추천·보증했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다면 갑은 부당한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겠군.
- ③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 ④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의 장점을 알리는 이용후기를 게시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겠군.
- ⑤ 병이 A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상품의 결점을 제시하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이용후기를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겠군.

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
- ② 나는 수영에 재미를 붙여 수영장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 ③ 그는 따뜻한 바다에 등을 붙여 잠깐 동안 잠을 청했다.
- ④ 나는 알림판에 게시물을 붙여 동아리 행사를 홍보했다.
- ⑤ 그는 숲에 불을 붙여 고기를 배부를 만큼 구워 먹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형과 비공개형으로 구분된다.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려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 ①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③
⋮	⋮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 ④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 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 ⑤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1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②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되기 때문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 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을 것이다.
- ②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질 것이다.
- ③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질 것이다.
- ④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을 것이다.
- 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을 것이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샷이 1~2분 이상 끊임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 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2.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 ②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 ③ 영화에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 ④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어떠한가?
- 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13.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 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②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샷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샷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④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샷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활용하여 광장의 군중을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이나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14.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 ①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 ③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 ④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⑤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15.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은 영화 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②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 ④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영화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바깥(A)의 관점과 (나)의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다. ㉠ **첫째 번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영화였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촬영되었고,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한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 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 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의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으름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③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과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과 ㉡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 ⑤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개선(改善)된 ② ㉡: 파괴(破壞)할
- ③ ㉢: 대면(對面)하는 ④ ㉣: 기용(起用)하는
- ⑤ ㉤: 해소(解消)한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

‘광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A]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洛水)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陽臺)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주글주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불러 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눈치 빠른 김한)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뭐 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꼭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 김한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남자 어디 있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중략)

김한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 한번 들어 보오.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남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오.”(기특한 김한)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

“남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내가 춘향 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지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 남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남자가 그대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오. 도련님께서 남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나?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남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남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 수산, 『광한루기』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19.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 ②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 ③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 ④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20.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 ⑤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A],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한루기』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① [A]에서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②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군.
- ③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쓸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 썸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 없이 떠도는데

㉥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나)

겨울 아침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히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망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 뻤 어린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놓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

(다)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백여 년은 된 것
 같다.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쪼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어서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름한 큰 집채 같았다. ㉠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열두 개이다.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이다. 좌우에 책을
 쌓아 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다. 썩썩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 안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다.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
 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 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다. 이제야 알겠구나.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
 자면 뿔을 잘라 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樞記)」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나’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
 내고 있다.

23. 태반과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생가에서 느꼈던 수치심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다.
- ④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화자의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⑤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생가는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는 공간이다.

24.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에서는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하여,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없다’와 그 앞에 열거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가를 회상한다.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 ①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 보고 있군.
- ②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화자는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하였군.
- ③ ‘젖을 갓 땀 어린것들이 ‘그네끼리 놀고’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 ⑤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여, 성년인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26.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는 글쓴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은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는 글쓴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는 ㉠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와 ㉡는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7. <보기>의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여러분, 『이문원노종기』는 이문원의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이문원노종기』를 다시 읽어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A]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홀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④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뿔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는 것은,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글쓴이가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 위원회를 결성해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직원들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 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에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힘약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 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 **아름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을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목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A]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 일하고 무슨 상관인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 **숨이 턱 막혀** 음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희길, 「날개 또는 수갑」 -

28.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9. ㉠의 의미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보아, 남자 사원들 중에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로 보아,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사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마저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총각 사원 하나'에 대한 아내의 반응으로 보아, 아내는 총각 사원이 ㉠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검정 콘택 일색'으로 보아, 체육 대회에 참석한 전체 사원이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④ ㉣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⑤ ㉤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꿈무늬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립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나)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영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눈
 내렸거늘 보았는가 입아 입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입이 짐작하소서
 - 정철의 시조 -

(다)
 아이야 구럭 망대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 <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회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가 <제4수>
 - 조준성, 「호아곡」 -

* 미늘: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작은 갈고리.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 성세궁경: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음.
 * 회황상인: 세상일을 잊고 한가하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을 이르는 말.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33.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와 <제2수>에서는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제1수> 종장과 <제3수> 종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종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④ <제1수> 종장과 <제3수> 초장에서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 종장은 첫 음보의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종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입'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인 품사 통용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가령 ‘그는 세계적 선수이다.’의 ‘세계적’은 관형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므로 ‘세계적’은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각각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으로’와 ‘이다’ 등과 같은 격 조사와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해 문장의 부사어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 조사와 결합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하나의 명사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관형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고,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다.’의 ‘바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다음으로 ㉡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 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본동사이고, ‘나는 고난을 견뎌 내었다.’의 ‘내다’는 본동사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없는 보조 동사이다.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그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
- ④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의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의 ‘그저께’는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과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인다.

㉠ 나는 급한 마당에 실수로 결제 서류를 휴지통에 버렸다.

㉡ 나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자전거 바퀴를 깨끗이 닦았다.

㉢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넓은 마당을 일곱 바퀴나 돌았다.

㉣ 산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꺼 가지고 경치가 좋아 보였다.

㉤ 나는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아주 급히 집으로 와 버렸다.

- ① ‘마당’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② ‘약간’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③ ‘바퀴’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 ④ ‘가지고’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 ⑤ ‘버렸다’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는 ㉠ 유음화, ㉡ ‘ㄹ’의 비음화, ㉢ 구개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같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있다. 대부분의 표준 발음에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가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료]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인류가	[일류가]	[인류가]
㉡ 순환론	[순환논]	[순환론]
㉢ 코끝이	[코꼬치]	[코꼬티]
㉣ 들녘을	[들녘클]	[들녘글]
㉤ 봄여름	[봄너름]	[보머름]

- ①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②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③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은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자료]의 밑줄 친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료]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妙光(묘광), 네, 燈明(등명), 然燈(연등), 스승, 釋迦(석가), 道(도), 나, 부터, 말씀
- 조사: 이, 을, 스, 를, ㅣ, 띄, 을

[자료]

- 妙光이 네 燈明을 돕스바 然燈人 스스이 드외시고 이제 釋迦를 돕스바 燈明人 道를 니스시며
[현대어 풀이: 묘광이 넌 등명을 도와 연등의 스승이 되시고 이제 석가를 도와 등명의 도를 이으시며]
- 내 부터의 말쓰물 흐스보디
[현대어 풀이: 내가 부처께 말씀을 드리되]

높임 표현	높이는 대상
드외시고(드외-+-시-+-고)	㉠
니스시며(닐-+-으시-+-며)	㉡
흐스보디(흐-+-습-+-오디)	㉢

- | | | |
|----------|--------|----|
| ㉠ | ㉡ | ㉢ |
| ① 妙光(묘광) | 妙光(묘광) | 부터 |
| ② 妙光(묘광) | 妙光(묘광) | 말씀 |
| ③ 스승 | 妙光(묘광) | 부터 |
| ④ 스승 | 스승 | 말씀 |
| ⑤ 스승 | 스승 | 부터 |

39.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조건]

-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날 것.
- 안긴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날 것.
-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것.

- ① 그는 한동안 차갑지 않은 음식만 먹었다.
- ② 그는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고 통보했다.
- ③ 나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 ④ 나는 그 버스가 제때 못 올 것을 예상한다.
- ⑤ 나는 그가 못 읽은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

[40~42]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학생회에서 발송한 뉴스레터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애들아, 안녕? 뉴스레터 8월 호 제작 회의를 시작할게! **희경** ... ㉠

오늘 회의는 '따끈따끈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사람을 만나다' 면담 대상자 및 기사 내용 선정, '학생회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순으로 진행할게.
먼저 '따끈따끈 소식'에는 어떤 기사를 담을까?

승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운동장 야영을 다루면 어때? 2학기는 8월에 신청하는데, 1학기에도 경쟁률이 정말 높았어.

한빛 좋아!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되니 선정된 학생들의 작성 비결을 다루면 좋겠어. ㉡

그래.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에 대해 다루자. 또 하나는? **희경**


정희 난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 고르기가 힘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 순위를 보고 빌려.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순위를 알려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느 반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그 순위도 궁금해할 거 같지 않아?

윤찬 그건 책을 고르는 것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출 순위만 알려 주자.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을 받아 놓은 게 있어. 찾아서 올려 줄게.

알았어. 그럼 '사람을 만나다'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희경**

재환 우리 반에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구독하는 학생들도 궁금해하니 그 친구는 어때? 학생들에게 인기라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해.

민하 맞아. 유○○을 말하는구나. 면담 대상으로 좋은 듯해. 대회에서 부른 노래, 대회 참가 소감을 다루면 좋겠네. 내가 대회 공식 영상 링크를 올려 줄게.



'제3회 ◇◇ 노래 대회' 우승.....
<https://gutds.com/yJdShG>

민하 <https://gutds.com/yJdShG> ㉢

한빛 정말 잘 부른다!

그러게. 이제 한 명만 남았네?? 누구에 대해 다루는 게 좋을까?? **희경** ... ㉣

범석 이번 호에는 박□□ 선생님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어떨까?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셔서 9월부터는 학교에서 볼 수 없으니 학교에 계실 때 뵙고 이야기를 나누자.

수민 좋은 생각이야. 이제 교단을 떠나시니 교사로서의 삶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윤찬 1학기 도서 대출 현황.pdf ㉤

빌린 책 순위가 여기 나와 있어. 이걸 활용해서 기사를 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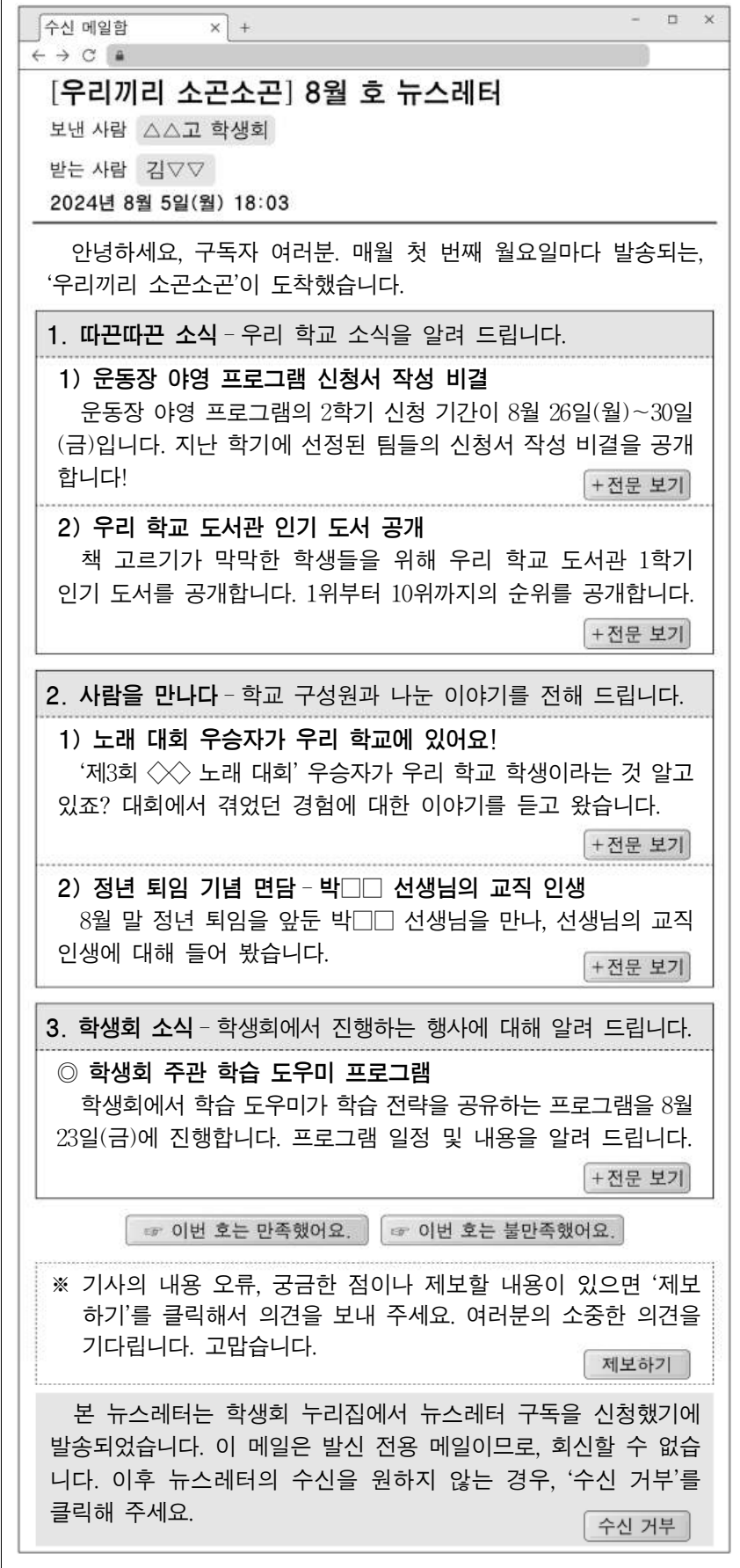
좋아. 박□□ 선생님과 면담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자. 윤찬아, 확인했어. 그 내용으로 하자. 이제 '학생회 소식'에서 다룰 내용을 정해야 돼. **희경**

혜정 8월의 학생회 행사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이야. 23일에 하는데, 1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기사를 쓰면 어때?

지호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을 안내해 주면 참가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 내용으로 기사를 쓰자.

좋아. 이제까지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뉴스레터를 만들자. **희경**

(나)



40. (가)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회의할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대화 참여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었다.
- ② ㉡: '승민'의 발화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 ③ ㉢: 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재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④ ㉣: 물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한빛'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 ⑤ ㉤: 파일을 전송하여, '희경'이 자신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을 통해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발송된다.
- ② 뉴스레터는 구독자에게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발송된다.
- ③ 뉴스레터 구독자는 '전문 보기'를 통해 이전 호 뉴스레터를 볼 수 있다.
- ④ 뉴스레터 구독자는 '제보하기'를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 ⑤ 뉴스레터 구독자는 이번 호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

42. (가)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제작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 관심사에 대한 '승민'과 '한빛'의 대화를 반영하여,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 비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②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희'와 '윤찬'의 대화를 반영하여,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③ '사람을 만나다'에는 면담 대상자의 화제성에 대한 '재환'과 '민하'의 대화를 반영하여, 노래 대회 참여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④ '사람을 만나다'에는 면담 시기의 시의성에 대한 '범석'과 '수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정년 퇴임을 앞둔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 ⑤ '학생회 소식'에는 기사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혜정'과 '지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43~45] 다음은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준호의 일상 블로그**
준호 님, 반갑습니다.

공지 사항
나의 일상
나의 영상
유용한 정보

제목: 나의 스마트폰 사용 이야기
2024.09.02. 19:35

스마트폰을 얼마나,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용 시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스마트폰 사용 현황 및 분석»
아래는 일주일간 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료예요.

(시간) 8월 26일(월)~9월 1일(일)

요일	영상	게임	누리소통망	기타
월	0.5	0.5	0.5	0.5
화	0.5	0.5	0.5	0.5
수	1.0	1.0	1.0	1.0
목	0.5	0.5	0.5	0.5
금	0.5	0.5	0.5	0.5
토	3.0	2.0	1.0	1.0
일	3.0	2.0	1.0	1.0

지난주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3시간 정도**였어요.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토요일 ㉠ 및 일요일에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 주로 영상 시청과 게임을 했더라고요. 주말엔 영화도 보고, ㉢ 최근 요리사로 진로를 정하고 자격증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많이 봐 그런 것 같아요. ㉣ 게다가 주말에 몰아서 게임을 해서 주말 사용 시간이 많은 듯했어요. 반면에 영상이나 게임에 비해 누리소통망 사용 시간은 적은 편이었어요. 누리소통망을 주변 사람과만 사용해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
사용 시간 자료를 보니,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취미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진로를 위해서도 사용하려고 실천 방안을 세웠어요.

‘요리 공부 시간 늘리기’
‘요리 연습 영상 일지 올리기’
‘요리로 소통 넓히기’

첫째, 요리 공부 시간 늘리기. 요리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뿐 아니라 요리하는 영상도 보려고요. 둘째, 요리 연습 영상 일지 올리기. 음식을 취미로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리법에 맞게 제대로 요리해 볼 생각이예요. 또 요리하는 영상 일지를 블로그에 올려 요리 실력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셋째, 요리로 소통 넓히기.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들과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조리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볼까 해요. 잘할 수 있겠죠?

🗨️ 댓글 3
❤️ 좋아요 8

댓글 쓰기

좋아요

↳ **친하리** 저도 사용 시간을 확인하니, 일일 평균이 2시간이고, 준호 님과 달리 평일에 더 썼네요. 평일엔 공부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보는데, 주말엔 봉사 활동을 해서 스마트폰을 쓸 틈이 없었어요.

↳ **역사랑**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은 스포츠 분야만 봤어요.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이제부터 역사에 대한 영상도 볼 거예요. 그리고 누리소통망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에만 썼어요. 누리소통망은 준호 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해 볼 생각이예요.

↳ **꿈자람** 스마트폰을 진로와 취미에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것과 일지를 쓰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글 내용에 공감했어요. 전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일지를 작성해 올릴 거예요. 상황에 따라 촬영 방법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쓰면 사진 찍는 기술이 향상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취미인 전자책 읽기도 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 보려고요.

43. ‘준호’의 글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제목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화살 모양의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현황의 일부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44. ‘준호’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하리’는 자신이 평일보다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이유를 드러내었다.
- ② ‘준호’가 언급한 영상 시청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른 영상을 추가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 ③ ‘준호’가 언급한 누리소통망 활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누리소통망으로 자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 화제를 드러내었다.
- ④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 ⑤ ‘준호’가 언급한 일지 작성의 효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드러내었다.

4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② ㉡: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가운데 영상 시청과 게임이 중심이 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 요리사로서의 꿈을 꾸게 된 때가 자격증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된 때보다 나중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 스마트폰으로 주말에 영상 시청과 게임 중 더 많이 한 일이 무엇인지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⑤ ㉣: 누리소통망을 주변 사람과만 사용해서 누리소통망 사용 시간이 적은 것이 당연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밑줄 긋기는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다. 밑줄 긋기는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로 하여금 표시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고,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뿐 아니라 학습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또한 밑줄 긋기는 방대한 정보들 가운데 주요한 정보를 추리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표시한 부분이 일종의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하여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에도 용이하다.

통상적으로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밑줄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밑줄 긋기의 효과가 줄어든다. 또한 밑줄 긋기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표시한 밑줄을 삭제하기 위해 되돌아가느라 독서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밑줄 긋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밑줄 긋기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글을 읽는 중에는 문장이나 문단에 나타난 정보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할 때까지 밑줄 긋기를 잠시 늦추었다가 주요한 정보에 밑줄 긋기를 한다.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자신만의 밑줄 긋기 표시 체계를 세워 밑줄 이외에 다른 기호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긋기 표시 체계는 밑줄 긋기가 필요한 부분에 특정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기로 독자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는 정보들에 동일한 기호를 붙이거나 순차적인 번호를 붙이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기본적인 밑줄 긋기를 확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밑줄 긋기는 어떠한 수준의 독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습 없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밑줄 긋기는 주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다. ㉠ 밑줄 긋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 ② 밑줄 이외의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 ④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 ⑤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2.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다시 읽을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하며 읽는다.
- ②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 ③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밑줄 긋기를 한 후 잘못 그은 밑줄을 삭제한다.
- ④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 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 ⑤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목적]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
[표시 기호] □, 1), 2), √, ~~~

[독서 자료]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 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1)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 주며, 2) 어미들은 새끼들을 정성껏 보호한다.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 대체로 몸길이는 1.3m에서 30m에 이른다. √ 피부에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고, 헤엄칠 때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고래는 폐로 호흡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분수공으로 내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수한다. 작은 고래들은 몇 분밖에 숨을 참지 못하지만, 큰 고래들은 1시간 정도 물속에 머물 수 있다.

- ①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②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1)', '2)'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로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③ 2문단에서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요 어구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 ④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2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에 '√'를 누락하였군.
- ⑤ '~~~'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3문단 내에서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하였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권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 ②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 ③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 ④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⑤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5.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6.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⑤ (나)에서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9. ㉠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원하는 값만 들어 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첫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 학습 중에서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에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확산 이미지에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10.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 ②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 ③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었다.
- ④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 ⑤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 ②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③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 ④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 ⑤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든다.

12.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 ②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 ③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 ⑤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 한 단계이다. ㉠은 원본 이미지이고, ㉡은 확산 이미지 중의 하나이며, ㉢은 노이즈 이미지이다. (가)는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미지가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다.

(가) ⇨ A 단계 ⇨ (나)

- ①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 노이즈를 더하겠군.
- ②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 ③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 ④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이 입력된다면,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에서 노이즈를 빼겠군.
- ⑤ 역확산 과정에서 (나)에 ㉡이 출력된다면, A 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의 자기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 나타난다고 본다.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게임 아이디,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 넘쳐 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ID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인터넷 ID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따르면, 생성·변경·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ID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인터넷 ID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고, 인터넷 ID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서 ㉩ 다수 의견은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인터넷 ID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다.
- ②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
- 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
- ③ ㉧은 ㉦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을 한다고 보겠군.
- ④ ㉧은 ㉦과 달리 인터넷 ID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
- ⑤ ㉦과 ㉧은 모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A의 해설에 대한 후기

↳ b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

↳ a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

↳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

(단,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은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과 ㉡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④ ㉡와 ㉢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군.
- ⑤ ㉠, ㉡, ㉢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완성(完成)된다고 ② ㉡: 요청(要請)하여
- ③ ㉢: 표출(表出)된다고 ④ ㉣: 기만(欺瞞)하고
- ⑤ ㉤: 확충(擴充)되는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총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견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①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② “처음에 그놈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줄을 잡아들여 업히 문왈

“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줄이 급히 여쭙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 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북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않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꿰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웁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18.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묻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19.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20.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정을선전』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용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총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 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회화화된다.

-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③ 왕비가 ‘양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총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회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계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킁킁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움의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함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밝힌 풀의 흠으로 돌아감 당신……,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킁킁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킁킁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킁킁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병을 다스림.
 * 환후: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뻗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2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 ② '뵈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계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24.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 ②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 ⑤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써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 ① '킁킁'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 ② '상처에 기대, 나 킁킁……,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③ '킁킁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 ② ㉠은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 ③ ㉡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 ④ ㉡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 ⑤ ㉠과 ㉡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 ⑤ '자신의 비루함을 뺏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불편스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해 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남 앞에 감쪽같이 숨겨 나갈 수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 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 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 봐도 성인의 배꼽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이었다.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 —그깟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음 어때.

그쯤 체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배꼽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려 했다. ㉢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 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바라 마지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아무리 일상생활에선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해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지곤 했다. 있느니라 여기고 지낼 때는 것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식의 끈을 건드려** 오자 허원의 상념은 잠시도 그 잃어버린 배꼽에서 떠나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신통하게도 **늦잠 버릇**이 깨끗이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배꼽에 관한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허원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아무 곳에도 발이 닿아 있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허망감을 쫓기 위해 자신의 배꼽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치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아내고, 그것으로 그 **실물**을 대신해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런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머니로부터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우주의 한 단자(單子)로서 고독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그 탯줄의 기억을 잊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언제까지나 그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지려 하고, 또다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탯줄과 이어져 나가면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근원을 밝혀 나가며, 마침내는 마지막 어머니의 탯줄이 이어지는 우리들의 **우주와 만나**게 된다…… 우리의 배꼽은 우리가 그 마지막 우주와 만나고자 하는 향수의 표상이며 가능성의 상징이며 존재의 비밀로 나아가는 형이상학이다. 그 비밀의 문이다……

그는 어느덧 배꼽에 대해 당당한 일가견을 이룬 배꼽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였다. 그는 물론 배꼽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 아직도 완전한 익숙해지질 못하고 있었다. **그의 사념** 역시 언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허원은 이제 그 자신의 **배꼽론**에 대해선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 즈음이었다. 허원은 문득 **세상 사람들이** 수상쩍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때부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이 인간 장기의 한 조그만 흔적에 대해 **심상찮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배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기왕부터 있어 온 것을 여태까지 서로 모르고 지내 오다가 비로소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내보이게 할 만한 무슨 우연찮은 계기가 마련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사실**이었다. 주의를 기울여 보니 관심의 정도도 여간이 아니었다. 한두 사람, 한두 곳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듯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의 기미를 엿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호로 아무 흥허물 없이 터놓고 지껄이거나 신문, 잡지 같은 데서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을 삼기도 하였다. ㉤ **배꼽에 관한 논의**가 그렇듯 갑자기 시중 일반에까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묘한 현상이었다.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28.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 ②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9. [비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 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 ②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 ③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 ④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 ⑤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30. '허원'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원'은 '실물'과 관련하여 시작된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 ② '허원'은 '실물'이 몸에서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단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 ③ '허원'은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④ '허원'은 '심상찮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⑤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그간 이어 온 '사념'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회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진다.

- ①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배꼽'을 '땃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 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허리 위로 불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없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畬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혈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승*인들 당할쏘냐

- 작자 미상, 「갑민가」 -

- * 돈피: 담비 가죽.
- * 갑민: 갑산의 백성.
- * 석승: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나)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주렴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매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다래끼: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 서주: 서쪽 밭.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희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 지는군.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훈민정음』(해례본)의 팔중성가죽용, 즉 ‘ㄱ, ㅀ, ㄷ, ㄴ, ㅂ, ㅍ, ㅅ, ㄹ’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ㅇ’일 때 ‘중의’(중의)처럼 [A] 이어 적기도 하고, ‘중으란’(중은)처럼 끊어 적기도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ㅇ, ㄴ, ㅁ, ㄹ, ㅅ’일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ㄴ, ㅁ’일 때 끊어 적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다만, ‘뿌늘’, ‘말쓰물’, ‘우수물’에서는 이어 적기가 보인다.

사잇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ㄱ, ㄷ, ㅂ, ㅅ, ㅇ, ㅅ’을 썼는데, 이 가운데 ‘ㅅ’은 ‘나라 일흠’(나라의 이름), ‘님굽 밍슴’(임금의 마음), ‘바궤 우회’(바다의 위에) 등과 같이 모음 및 ‘ㄴ, ㅁ, ㄹ’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보상절』은 사잇소리 표기에 ‘ㅅ’을 썼지만 ‘ㅅ’ 대신 ‘ㄱ, ㄷ, ㅇ’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문헌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 국어에서 ‘촛불’의 ‘ㅅ’처럼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

한편 『용비어천가』는 ‘봉’을 가진 ‘드뵤다’(되다), ‘호뵤사’(혼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은 ‘드뵤다’는 ‘드뵤다’나 ‘드외다’로 썼고 ‘호뵤사’는 ‘호오사’로만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드외다’, ‘호오사’로만 썼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높고’와 ‘빛’은 팔중성가죽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 ② ‘오늘’(오늘)과 ‘날’ 사이의 사잇소리 표기는 『용비어천가』에서는 ‘ㅅ’, 『월인천강지곡』에서는 ‘ㅅ’을 썼다.
 - ③ 현대 국어 ‘바닷물’의 ‘ㅅ’ 표기는 중세 국어 사잇소리 표기에서 유래하였다.
 - ④ 중세 국어 한자음이 ‘턴’인 ‘天’은 『석보상절』에서 ‘天뵤’, 『월인천강지곡』에서 ‘턴天’으로 적었다.
 - ⑤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 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나타난다.

36.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 더녁 ㉠ ㄱ새(ㄱ+애) 건나가샤 - 『석보상절』
[저쪽 가에 건너가시어]
- 궤화 그르세 ㉡ 답아(답+아) - 『월인천강지곡』
[모아서 그릇에 답아]
- ㉢ 누네(눈+에) 빗 봄과 - 『석보상절』
[눈에 빗 봄과]
- 쏜 살이 세 날 ㉣ 뽕뽕(뽕+뽕) 빼어디니 - 『월인천강지곡』
[쏜 화살이 세 개 북만 빼어지니]
- 너희 ㉤ 스승니물(스승+님+을) 보습고져 호노니 - 『석보상절』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① ㉠은 『용비어천가』에서 ‘ㄱ새’로 적혀 있겠군.
- ② ㉡은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겠군.
- ③ ㉢은 『월인천강지곡』에서 ‘눈에’로 적혀 있겠군.
- ④ ㉣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뽕을’로 적혀겠군.
- ⑤ ㉤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스스이’나 ‘스승이’로 적혀겠군.

37.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 동음이의어 관계(예 단풍 철: 철 성분)나 연관성이 있는 ㉡ 다의어 관계(예 머리를 깎다: 배의 머리)에 놓인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것인데, 이때 그 구체적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유의어나 ㉣ 반의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다.

- ① ㉠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 ② ㉡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구슬 치는 아이가 있다.]
- ③ ㉢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
- ④ ㉣ [배우가 얇은 화장을 했다.
아이가 얇은 잠에 들었다.]
- ⑤ ㉤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 덧쌓는[덧싼는] ㉡ 속력도[송녀또] ㉢ 읽었고[일견꼬]
- ㉣ 겉옷만[거돈만] ㉤ 맞붙임[만뿌침]

- ① ㉠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② ㉡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 ④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예 보는구나 → 본다고).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자 료>

○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 ① ㉠은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② ㉠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③ ㉡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 ④ ㉡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
- ⑤ ㉢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근: 안녕하세요?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 오늘은 공학 박사이신 전선 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선: 안녕하세요! 전선입니다.

푸근: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전선: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근: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현지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휴대 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어요.

전선: 그랬군요. 우리나라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차이가 있죠.

[A] 가을비 전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요.

푸근: 가을비 님, 맞아요. 번거롭죠. 전선 님,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가요?

전선: 일본은 전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띄워 주실래요?

푸근: 네. 화면을 나눠서 이미지를 띄울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올려 주세요.



전선: 화면에 나오는 A형, B형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C형, F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B] 아침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왜 그렇죠?
풍경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침 님, 풍경 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1986년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N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이미 독자적으로 표준을 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국제 표준 규격을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푸근: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원래 A형을 쓰지 않았나요?

전선: 네. 110V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A형을 썼었어요. 그러다 열악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서 110V에 비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은 220V로 바꾸는 송압 사업을 197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플러그와 콘센트'도 C형, F형으로 바꿨죠.

[C] **눈썹달** 220V로 전압을 높이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본은 왜 220V로 안 바꾼 거죠?
해맑음 1991년쯤, 저희 집 콘센트를 220V용으로 바꾼 기억이 나요. 그럼 A형에서 C형이나 F형으로 바뀐 거죠?

전선: 해맑음 님, 맞습니다. 눈썹달 님, ㉠ 한 나라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서요. 우리도 30년 넘게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푸근: ㉡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전선 님 일정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환아빠 근데 '플러그와 콘센트'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요? 처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였나요?

전선: 감사합니다.
푸근: 지환아빠 님, 방금 올리신 질문과 관련된 자료는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로 대신할게요. 바로 올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푸근 [자료] - '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 (링크 주소: <https://k34imj1.co.kr/lfg>)

㉢ 오늘 영상은 제 채널의 '다시 보기'에 올려 두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나)

(국제 표준 규격의 사례 - A열 용지)
 '푸근의 지식 창고' 실시간 방송에서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규격이 사용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채널에 있는 '다시 보기' 영상 56화의 '1분 5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방송 후, 국제 표준 규격이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A열 용지가 있었어요.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본 자료는 하단에 파일을 첨부해 뒀어요.)

1. A열 용지의 비율
 A열 용지의 가로와 세로 비율은 1 대 $\sqrt{2}$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크기가 달라도 비율이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 제정과 그 이유
 독일공업규격위원회에서 A열 용지의 표준 규격을 정했고, 이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정했어요. 종이를 반으로 자를 때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 국제 표준으로 정했다고 해요.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자료.pdf 다운로드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채널 이름이 화면의 좌측 상단에 제시되었다.
 - ② ㉡: 실시간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드러내는 자막이 제시되었다.
 - ③ ㉢: 실시간 방송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이 보이도록 제시되었다.
 - ④ ㉣: 실시간 방송의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분할된 화면이 제시되었다.
 - ⑤ ㉣: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남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가 제시되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가을비'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드러내었다.
- ② [B]: '아침'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대한 배경지식을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의 규격이 국가에 따라 다르기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 ③ [B]: '풍경'은 국제 표준 규격 제정의 효과를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다.
- ④ [C]: '눈썹달'은 220V로 승압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220V로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 ⑤ [C]: '해맑음'은 승압 사업에 따른 경험을 언급하며 승압으로 인해 바뀐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42. (나)의 정보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소제목을 붙여 제시하였다.
- ②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를 글자를 기울여서 제시하였다.
- ③ A열 용지의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열 용지 규격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 ④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을 제시하였다.
- ⑤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임을 나타낸다.
- ② ㉡: 보조 용언 구성 '-다 보다'와 연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플러그와 콘센트' 모양의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을 나타낸다.
- ③ ㉢: 조사 '밖에'와 형용사 '없다'를 사용하여, 승압 사업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큼을 이중 부정을 통해 강조한다.
- ④ ㉣: 종결 어미 '-네'를 사용하여, 승압 사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보조 용언 구성 '-어 두다'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44~45] (가)는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24학년도 OO고 참별빛제
(일자: 2024년 12월 20일(금))

참별빛제 일정 안내

동아리 부스 (09:00~12:00)

↓

토론 한마당 (13:00~14:30) 세계 음식 체험 (13:00~14:30)

↓

댄스 공연 (14:40~16:30)

행사별 장소 안내

동아리 부스	강당
토론 한마당	시청각실
세계 음식 체험	가사실
댄스 공연	강당

동아리 부스 행사 안내

◎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 보고서 발표: 독서, 신문 동아리
- 작품 전시: 미술, 사진 동아리
- 체육 이벤트: 농구, 탁구 동아리

QR 코드를 찍으면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유의 사항 안내

행사	유의 사항
동아리 부스	작품이나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토론 한마당	출입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세계 음식 체험	조리 기구 사용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댄스 공연	무대 앞으로 물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나)

애들아, 참별빛제 팸플릿 보낼게. 이걸 보고 '미리 보는 참별빛제' 게시판을 만들어 보자. '동아리 부스'는 학생회 주관이니 제외하고, '세계 음식 체험'부터 얘기해 줘.

참별빛제 팸플릿.jpg

서은

종우: 2개 음식 중 1개를 선택해서 체험하는 거니까 음식 이미지를 보여 주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혜린: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겠다! 음식 설명까지 해 주면 어떤 음식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승윤: 또 조리법 파일을 올려서 애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음식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경: 맞아. 작년에 체험에 참여했었는데 음식 만들기 직전에 조리법을 받았더니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니 게시판에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 반영할게. 이제 '토론 한마당'에 대해 얘기해 보자.

서은

승윤: 본선 진출 팀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진출한 팀을 알려 주면 관심을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혜린: 맞아. 관전하러 온 애들이 많으면 본선에 진출한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럼 어떤 팀이 맞는지 알 수 있게 본선 대진표를 올려 두자.

나경: 우승 팀 예상 투표를 진행하는 건 어때? 예선전 영상을 보여 주고 투표하게 하면 토론을 많이 보러 올 거 같아.

근수: 좋아! 자기가 투표한 팀이 우승하는지 보러 많이 올 듯해.

찬성! 투표 제목은 '우승 팀을 맞혀라!'가 괜찮겠어. 의견이 더 없으면 '댄스 공연'으로 넘어가자.

서은

근수: 애들은 '댄스 공연'을 제일 기대해.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지 팀별 연습 영상을 올리면 애들이 좋아할 거 같아.

종우: 맞아! 누가 나가는지도 궁금해하더라. 참가 신청할 때 받아 둔 팀 소개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거야.

고마워. 지금까지 나는 이야기를 반영해서 학생회 누리집에 '미리 보는 참별빛제' 게시판을 만들게.

서은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 ② 안전을 위한 행사별 유의 사항을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아리 부스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각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의 기호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동아리 부스 행사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활동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세계 음식 체험'에는 음식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종우'와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하였다.
- ② '세계 음식 체험'에는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에 대한 '승윤'과 '나경'의 대화를 반영하여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 두었다.
- ③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진출 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승윤'과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본선에서 겨루는 팀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진표를 제시하였다.
- ④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관전 유도 방안에 대한 '나경'과 '근수'의 대화를 반영하여 예상 우승 팀에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 ⑤ '댄스 공연'에는 영상 제공 효과에 대한 '근수'와 '종우'의 대화를 반영하여 팀별 소개 영상 및 연습 영상을 올려 두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의 내용을 들려주기에 가장 적절한 친구는? [1점]

- ① 매사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친구
- ②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친구
- ③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친구
- ④ 기본을 다지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친구
- ⑤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

2. (물음) 이 프레젠테이션을 수정,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 ① (가) 화면의 '1'에 관련 화가들의 이름을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 ② (나)를 설명할 때 종이, 슝 외에 파스텔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도구도 설명하면 좋겠어.
- ③ (다)를 설명할 때 밀레와 드가가 파스텔을 사용한 이유를 밝히면 좋겠어.
- ④ (라)를 설명할 때 '그리는 중'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어.
- ⑤ 주제를 계속 환기할 수 있게 (가)~(라) 화면의 상단에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을 표시하면 좋겠어.

3. (물음) 강연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전되었을 때 특히 위험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 ② 감전 시 전압이 몇 볼트나 되어야 우리 몸이 피해를 입을까?
- ③ 정전기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④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⑤ 9볼트 건전지를 혀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우리 팀'의 홈페이지에 두 학생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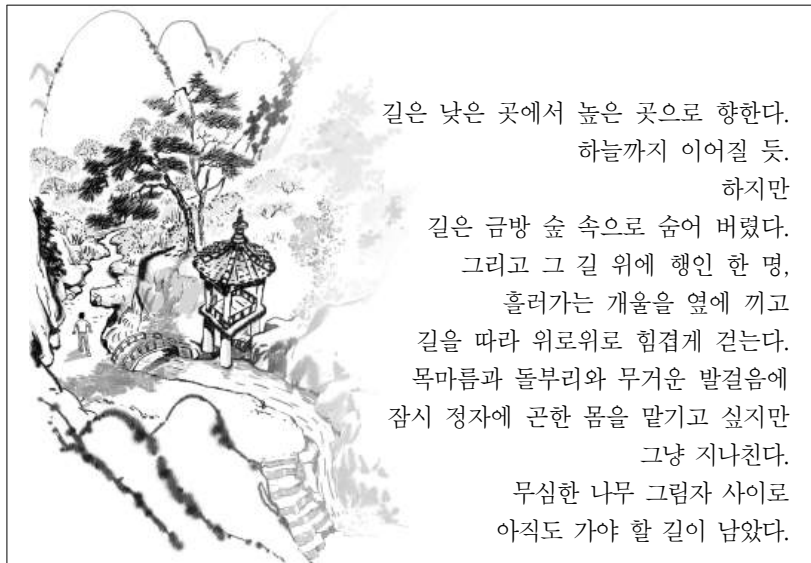
- ①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
- ② 팬을 위한, 팬에 의한, 팬의 축구!
- ③ 축구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 ④ 감독의 전술은 팀의 승패로 직결됩니다.
- ⑤ 우리는 오직 이기기 위해 경기장에 간다.

5.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주장 일부를 확대 해석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주장을 간추리면서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기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이 지닌 모순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다음 그림 에세이를 보고 <보기>의 내용을 이끌어 낸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금도 힘겹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과 이 그림 에세이를 함께 보고 싶다. 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 ② 당장은 보이지 않는 우리네 삶의 목표, ③ 그래도 꿈이 있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④ 목표를 잃은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도 이겨 내려 한다.

7. 다음 공모에서 요구한 표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공 모 -

아직도 연주회장에서 휴대 전화의 벨 소리가 울려 연주와 감상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 예술 회관에서는 연주회장 입구에 게시할 문구를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문구에는 휴대 전화의 벨 소리와 연주회의 음악을 대비하고, 다른 관객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 전화를 끄도록 요청하는 표현도 포함해 주십시오.

- ① 전화로 나누는 대화는 이제 그만입니다. 연주회장에서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② 기계의 울림보다 악기의 울림이 더 아름답습니다. 바쁜 일상 일지라도 잠시 여유를 갖고 감상하는 음악이 더 아름답습니다.
- ③ 당황스러운 벨 소리보다 이웃과 공감하며 듣는 음악이 더 소중한입니다. 잠시 휴대 전화를 재워 두실 때 우리의 연주회는 아름답게 빛납니다.
- ④ 마음을 울리는 선율은 주머니 속이 아니라 무대 위에 있습니다. 휴대 전화의 전원을 내려 두는 작은 실천이 음악의 감흥을 더 크게 자아냅니다.
- ⑤ 관객들은 벨 소리와 음악 소리의 부조화가 아니라 음악과 갈채의 조화를 즐기기 위해 연주회장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관객 중의 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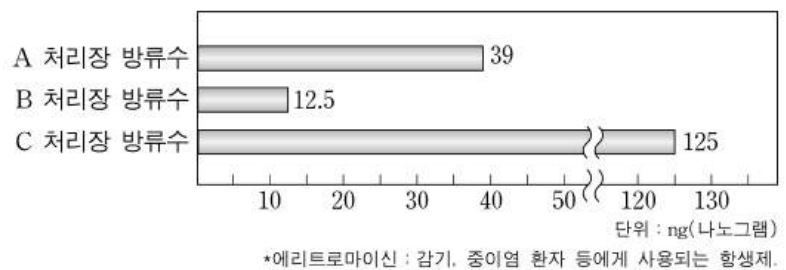
8.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가)~(다)를 통해 글감을 이끌어 낸 뒤 관련 자료를 더 찾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신문 기사 자료

○ 안 모 씨(45세)의 집에는 70여 가지 약이 쌓여 있었다. 안 씨 집에서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정체불명인 약들을 모두 수거하니 5리터가 넘었다. 안 씨는 오래된 약들을 처리할 때 보통 쓰레기통이나 개수대에 버린다고 한다. 의약품은 그냥 버리면 안 되지만, 약 포장지에도 처리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다.
- ○○ 신문, 2009년 6월 ○일 -

(나) 보고서 자료

○○강 방류수에서의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 검출 결과



- ○○ 연구소, 2009년 6월 -

(다) 인터뷰 자료

○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 대학교 송○○ 교수 -

○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을 벌여 3개월 동안 7톤 가량의 폐의약품을 수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쓰고 남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약은 약국으로 돌려주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약사회 허○○ 실장 -

- ① (가)와 (나)를 통해, 가정에서 버리는 의약품 중 일부가 강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주택 밀집 지역과 다른 지역의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 ② (가)와 (다)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약품의 포장지에 폐의약품 회수 정보를 안내하도록 한 유럽의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시행 후에 나타난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찾아본다.
- ③ (가)와 (다)를 통해, 가정에서 적절한 처리 방법을 몰라 임의로 폐의약품을 버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의 후속 조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다.
- ④ (나)와 (다)를 통해, 강물에서 검출된 항생제가 자연에 미치는 부작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항생제의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다.
- ⑤ (나)와 (다)를 통해, 폐의약품에 오염된 강물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 처리장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정화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찾아본다.

[9~10] '온라인 환경에서의 독서 문화'에 관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두 학생이 개요 (가)와 (나)를 따로 만든 후, 이를 발전시켜 개요 (다)를 작성하였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온라인 환경에서의 독서 문화

(가)	(나)
<p>I. 서론 - 온라인 독서 문화의 확산</p> <p>II. 본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모임의 확산 독자와 저자의 대화 활성화 도서 정보 활용의 증대 <p>III. 결론 -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p>	<p>I.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충 읽기'식 독서 확산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나홀로 독서' 만연 도서 정보의 상업적 이용 지역 중소 서점의 경영 악화 <p>II.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서점 보호 정책 수립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다)

I. 서론

II. 현황

- 온라인 서점을 통한 도서 구입 증가
- 독자와 독자, 독자와 저자 간의 소통 확대 ㉠
-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서 정보의 이용 증대 ㉡
- 전자 도서 이용자 증가 ㉢

III. 과제

- 바람직한 온라인 독서 방법의 개발과 교육 ㉣
- 지역 중소 서점과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오프라인 독서 진흥책 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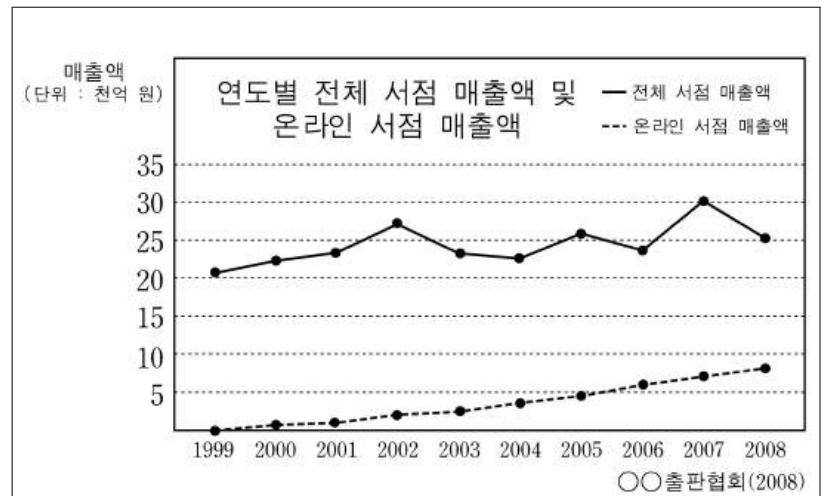
IV. 결론

9. (가)와 (나)를 통합하기 위해 세운 전략 중, ㉠~㉤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가)의 '본론'과 (나)의 '현황'에서 서로 배치되는 내용 중, 논지의 일관성을 위해 한쪽을 선택하여 기술한다.
- ② ㉡: (가)의 '본론'과 (나)의 '현황'에서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르게 평가한 내용의 차이점을 부각한다.
- ③ ㉢: (가)의 '본론'과 (나)의 '현황'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필요하면 새로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한다.

- ④ ㉣: (나)의 '현황'에서 지적한 문제의 일부에 대해 (가)의 '결론'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 ⑤ ㉤: (나)의 '과제'에서만 언급하고 (가)에는 없는 내용이라도, 필요하면 발전시켜 과제로 포함한다.

10. 다음은 개요 (다)의 'II-1'을 구체화한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해 검토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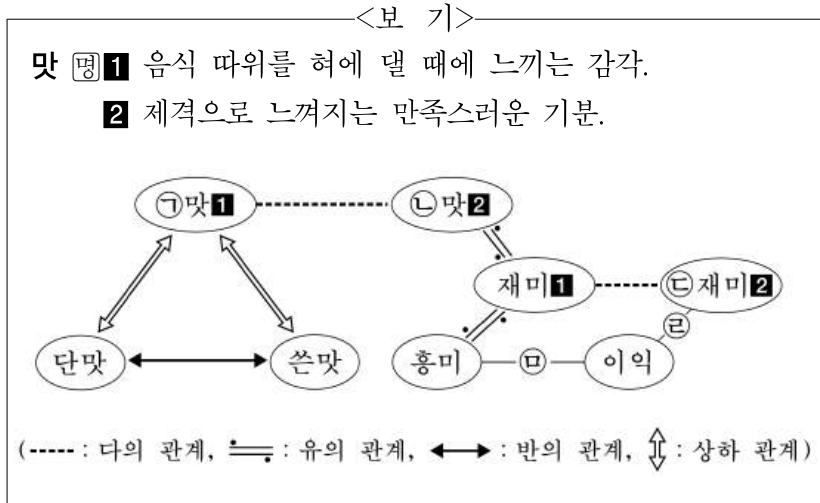


국내에서 온라인 서점이 처음 문을 연 해는 1999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서점의 2008년 매출액은 전체 서점 매출액의 34%에 이른다. ㉠ 판매한 책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백두산과 한라산을 2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한다. ㉡ 전체 서점의 매출액은 매해 증가해 왔으며, 온라인 서점의 매출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이 편리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굳이 힘들게 서점까지 나가지 않아도 안방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보다 책값이 저렴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 인터넷 서점으로 몰려들었다. ㉤ 또한 전자 도서를 이용하는 독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함께 발달하고 있다.

- ① ㉠: '판매한 책'의 양이 누적 판매량인지 한 해 동안의 판매량인지 독자가 모를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하여 분명하게 한다.
- ② ㉡: 그래프와 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래프를 확인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한다.
- ③ ㉢: 내용 연결이 어색하므로, 앞뒤의 문맥을 고려하여 바로 뒷문장과 위치를 맞바꾼다.
- ④ ㉣: 하나의 글 안에서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문맥을 고려하여 하나로 통일한다.
- ⑤ ㉤: 개요 (다)의 'II-1'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이 내용을 다루어야 할 곳으로 옮긴다.

1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제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느’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12.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뭐,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글썄, 사 줘야 되나?
아 들: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호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글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쪼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쫄고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매죽나무와 매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는 지리학의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언어 지도가 있다.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이것은 ㉠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역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 동일한 형태의 한 단어가 지역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는가 등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언어 지도는 현재 언어 상태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 주고,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 주며,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반영하여 민속학적, 문화사적 연구에 도움을 준다. 또 지도에 담긴 방언형을 통해 이전 시기의 언어를 재구성하거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언어 지도는 자료를 기입해 넣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 한 분류법이 진열 지도와 해석 지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자가 원자료를 해당 지점에 직접 기록하는 기초 지도라면, 후자는 원자료를 언어학적 관점에 따라 분석, 가공하여 지역적인 분포 상태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지도를 말한다.

진열 지도는 각 지점에 해당하는 방언형을 지도에 직접 표시하거나 적절한 부호로 표시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비슷한 어형은 비슷한 모양의 부호를 사용한다. 가령 '누룽지'의 방언형으로 '누렁기, 누룽지, 소데끼, 소디끼' 등이 있다면, '누렁기, 누룽지'와 '소데끼, 소디끼'를 각각 비슷한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해석 지도는 방언형이 많지 않을 때 주로 이용하며, 연속된 지점에 동일한 방언형이 계속 나타나면 등어선(等語線)을 그어 표시한다. 등어선은 언어의 어떤 특징과 관련되느냐에 따라 그 굵기에 차이를 두어 표시하기도 한다. 이때 지역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이질적인 방언형은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17. 위 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② 언어 지도를 이용하면 문헌을 통한 통시적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언어 지도를 통해 성별이나 세대 차의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방언형을 알아볼 수 있다.
- ④ 여러 방언형 중 하나를 표준어로 정할 때, 방언형의 분포를 보여 주는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언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 대상자로는 외지 경험이 적은 순수한 토박이 화자가 적합하다.

18. ㉠,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a. '박쥐'를 어떤 지역은 '빨쥐', 어떤 지역은 '뿔쥐'라고 하는군.
 b. '아버지의 남동생'을 뜻하는 '아재'가 우리 지역에서는 '고모'나 '이모'를 뜻해.
 c. 언어 지도 '부추' 항목을 찾아보니, '술, 줄, 정구지' 등의 어형이 나타나는군.
 d. '진달래'를 우리 아버지는 '참꽃'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웃 할아버지는 '연달래'라고 하셔.

- | | |
|-----------|---------|
| ㉠ | ㉡ |
| ① a, c, d | b |
| ② b, d | a, c |
| ③ b, c | a, d |
| ④ a, c | b, d |
| ⑤ a | b, c, d |

19. 표준어 '노을'로 <보기>와 같은 가상의 언어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 위 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노을'의 방언형

노을 □	노오리 ◻
나불 ◇	나부리 ◊
복새 ☆	

<지도 A>

<지도 B>

* 점선은 임의의 행정 구역을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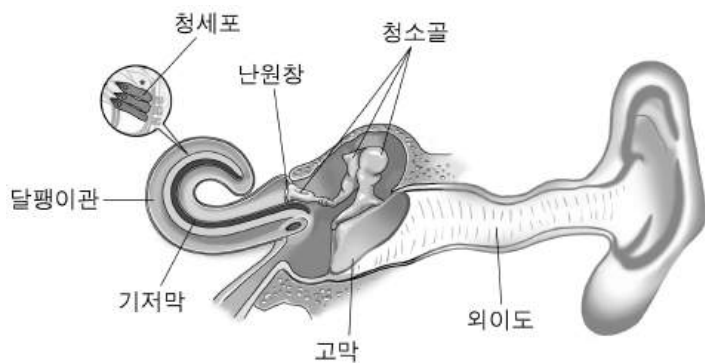
- ① '노을'과 '노오리'가 형태적으로 유사하니까 비슷한 형태의 부호 □, ◻를 사용한 것이로군.
- ② '복새'의 부호 ☆가 □, ◊와 유사성이 없는 것은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반영한 것이로군.
- ③ 지도 A에서는 특정 지점의 방언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군.
- ④ 지도 B를 만들 때 방언형이 같은 여러 지점을 묶어서 등어선을 표시했군.
- ⑤ 지도 A에 표시된 이질적인 방언형이 지도 B에서 표시되지 않은 것을 보니 지도 B에는 지도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갔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f_1 과 f_2 , $f_1 < f_2$)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 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f_x = 2f_1 - f_2$, $x = \text{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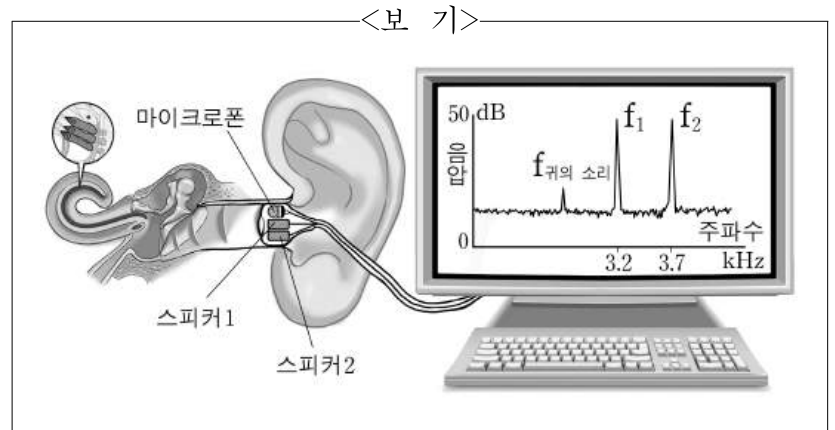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20.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에서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측정된다.
- ②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
- ③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 ④ ‘귀의 소리’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다.
- ⑤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21.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의 소리’는 f_1 ,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 소리, ‘귀의 소리’이다.
- ④ f_1 이 3.2kHz, f_2 가 3.7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 kHz에서 가장 크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22. ㉡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을 할 경우
- ②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을 찾아내려 할 경우
- ③ 청력 측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계를 만들 경우
- ④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의 청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 ⑤ 청세포가 파괴되어 인공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의 청력을 평가할 경우

24.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시제의 변화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 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25.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②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나’가 소설을 옮겨 적으며 스스로 위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대해 보이는 애착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26. [D]는 작품 창작의 동기를 작품에 직접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D]와 성격이 유사한 것은?

< 보 기 >

목중: 오랜만에 나왔으니 예전에 하던 소리나 한번 해 보자.
어어으 아-.

음중: (뒤에서 달려 나와 탁 치며) 야, 이놈아!

목중: 이크, 이게 웬 일이냐. 어느 광대 놈이 나오자마자 사람 부터 쳐. ①

음중: 송아지 풀 뜯어 먹고 올 듯이 ‘어어으 아’ 하면서 나왔 다니 거 무슨 말이야? ②

목중: 내가 나오기는 부모 배 밖에 이제 나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놀이판에 나오길 이제 나왔단 말이야. ③

음중: 옳지. 그럼 우리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 보자. ④

목중: 너 그러나 저러나 그 쓴 게 뭐냐?

음중: 쓰긴 내가 뭘 써. 일수(日收)를 써 월수(月收)를 써? ... ⑤

- '양주별산대놀이' 개작 -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전기 조선군의 전술에서는 기병을 동원한 활쏘기와 돌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병의 다양한 화약 병기 및 활의 사격 지원을 중시했다. 이는 여진족이나 왜구와의 전투에 효과적이었는데, 상대가 아직 화약 병기를 갖추지 못한 데다 전투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일본군의 조총 공격에 의해 상쇄되었다.

(나) 16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된 조총은 다루는 데 특별한 무예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분이 낮은 계층인 조총 무장 보병이 주요한 전투원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의 절강병법은 이러한 일본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전술로, 조총과 함께 다양한 근접전 병기를 갖춘 보병을 편성한 전술이었다. 이 전술은 주력이 천민을 포함한 일반 농민층이었는데, 개인의 기량은 떨어지더라도 각각의 병사를 특성에 따라 편제하고 운용하여 전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근접전용 무기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용되었다.

(다) 조선군의 전술은 절강병법을 일부 수용하면서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조총병인 포수와 각종 근접전 병기로 무장한 살수에 전통적 기예인 활을 담당하는 사수를 포함시켜 편제한 삼수병 체제에서 보병 중심 전술이 확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총의 신뢰성과 위력이 높아지면서 삼수 내의 무기 체계의 분포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대적으로 사격 기술을 익히기 어렵고 주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활 대신, 조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했다.

(라) 조선에서의 새로운 무기 수용과 전술의 변화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수반하였다. 군의 규모는 관노와 사노 등 천민 계층까지 충원되면서 급격히 커졌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졌다. 성인 남성에게 이름과 군역 등이 새겨진 호패를 차게 하였으며, 거주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관가에 보고하게 하였다. 대규모 군사력의 운용으로 국가 단위의 재정 수요도 크게 증대했는데, 대동법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이기도 했다. 선혜청에서 대동법의 운영을 전담하면서 재정권의 중앙 집중화가 시도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조정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가호(家戶)를 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을 농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무명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논밭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본이 중국이나 조선보다 먼저 조총을 실전에 사용했다.
- ② 조선과 중국에서는 조총을 받아들이면서 전술이 변화되었다.
- ③ 조선이 조총을 도입한 뒤 구성한 보병의 무기 체계는 중국과 달랐다.
- ④ 조선에 조총이 보급된 뒤에도 원거리 무기인 활의 사용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 ⑤ 조선·중국·일본에서는 조총의 도입으로 하위 신분의 군사적 비중이 높아졌다.

28.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참고 자료로 제시할 때, (가)~(다)에 적절한 자료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3점]

<보 기>

ㄱ. 화포가 적에 대응하는 데에는 그 이익이 크니, 왜구나 야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ㄴ. 기병은 평지에서 이롭고 보병은 험지에서 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릉이나 논이 많아 진실로 보병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ㄷ. 지방의 군사 제도는 지극히 허술하다. 수령의 휘하에 한 명의 군졸도 없으니 만약 급박한 일이 생겼을 경우 실로 방어할 도리가 없다.

ㄹ. 낭선은 가지를 다 자르지 않은 대나무에 창날을 꽂아 만들고, 당파는 작살을 개량해 만든다. 나이가 장성하고 얼굴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낭선을 다루고, 살기와 담력이 있는 자가 당파를 다룬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ㄱ | ㄴ | ㄷ |
| ③ | ㄴ | ㄷ | ㄱ |
| ④ | ㄴ | ㄷ | ㄴ |
| ⑤ | ㄷ | ㄴ | ㄴ |

29. (라)를 통해 추론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노: 양민들이 담당하던 군역을 이제는 우리도 맡게 되었군.
- ② 양반: 집안에서 부리는 종놈은 개인 재산인데, 군대에 끌고 가니 너무한걸.
- ③ 양민: 호패를 늘 차야 하는 데다 이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니 귀찮네그려.
- ④ 지주: 집집마다 내던 공물을 논밭의 면적에 따라 내도록 하니 우리만 불리해졌어.
- ⑤ 수령: 백성들을 단속하는 업무가 늘었지만 고을의 재정 형편은 훨씬 나아지게 되었군.

30. ㉠을 표준 발음으로 읽을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보 기>

•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변동 이전		변동 이후	
㉡	XaY	→	XbY	(교체)
㉢	XY	→	XaY	(첨가)
	XabY	→	XcY	(축약)
	XaY	→	XY	(탈락)
	XabY	→	XbaY	(도치)

• ‘못한 $\xrightarrow{\text{㉡}}$ [] $\xrightarrow{\text{㉢}}$ []’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 | | | | |
|-----|---|-----|---|
| ㉡ | ㉢ | ㉡ | ㉢ |
| ① a | c | ② a | d |
| ③ b | d | ④ b | e |
| ⑤ c | e | | |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난 듯,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달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쪼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짐을 짊어 지은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 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짙고 옅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 않는 않았다.

또 4, 5백 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A]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 홍인우, '관동록' -

* 요령: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36~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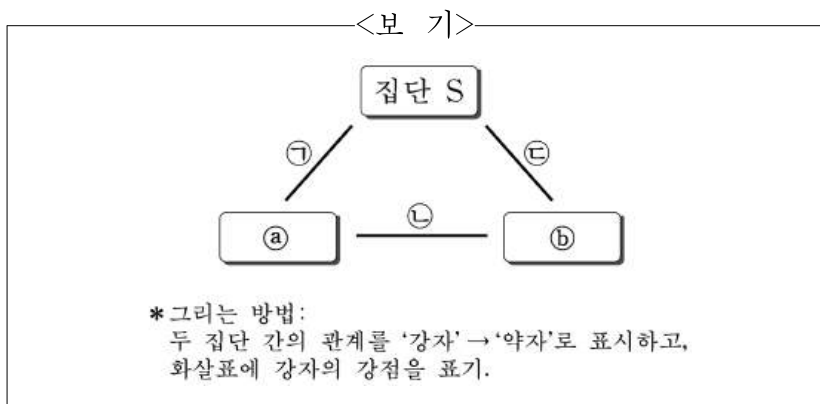
가위, 바위, 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서로의 승패는 확연히 갈리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서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눈길을 끈다.

[A] 한 연구팀은 동물의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중 서로 다른 세 집단 간의 증식 경쟁에서 가위바위보의 관계를 관찰했다. ‘집단 C’는 콜리신이라는 독소를 생산하고, ‘집단 S’는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식하지만 콜리신에 의해 증식이 억제된다. ‘집단 R’은 ‘집단 C’보다 빠르고 ‘집단 S’보다 느린 증식 속도를 가진 반면 콜리신에 저항성을 지닌다. 세 집단 중 두 집단씩을 각각 섞어 배양하면 증식 속도의 차이로 인해 집단 간 증식 경쟁에 따른 승패가 확실하다. 반면 세 집단을 서로 인접시켜 배양하면, 각 두 집단 간의 경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의 관계처럼 서로 물고 물리는 삼자 간의 공존 관계가 관찰된다.

다른 연구팀은 생쥐들의 장내에 세 대장균 집단을 투여한 후 각 집단 간의 증식 경쟁을 살폈다. 그 결과 한 시점에는 생쥐 개체별로 어느 한 집단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서로 격리된 여러 공간에서 세 집단이 동시에 우세 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 사례는 생태계에서 절대 강자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거론된다. 생물 간 경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승패가 명확한 양자 간의 관계에 비해, 삼자의 병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는 생물 다양성의 설명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36.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그렸을 때, ㉠~㉣과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화살표의 방향 설정	강점	집단
①	모두 시계 방향	㉠: 콜리신 생산	㉡: 집단 R
②	모두 시계 방향	㉠: 증식 속도	㉡: 집단 C
③	모두 시계 방향	㉡: 저항성 및 증식 속도	㉡: 집단 R
④	모두 반시계 방향	㉡: 콜리신 생산	㉡: 집단 C
⑤	모두 반시계 방향	㉣: 증식 속도	㉡: 집단 C

37. 위 글의 대장균에 대한 실험 결과를 검토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장균 세 집단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배양한다면, 콜리신을 생산하는 집단이 가장 먼저 우세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되겠군.
- ② 독소의 생산에 따른 저항성 집단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면, 독소의 생산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생쥐 실험 내용이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토끼 등을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군.
- ④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생쥐의 수를 늘려 실험한다면, 각 대장균 집단의 우세가 균등하게 분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군.
- ⑤ 생쥐 내장이란 격리된 공간에서 우세한 집단이 일정한 순서로 바뀐다면, 그 변화 순서는 가위바위보의 관계로부터 예측이 가능하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38.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39.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40.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41.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42.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② 엇그제 비가 흡족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①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겨
 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여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
 머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
 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
 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아.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결
 (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
 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A]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
 라내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
 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즙치’를 하나 주십니다.”

“아니 무엇, ‘의사즙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꼭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
 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
 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즙치’ 좀 나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봐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봐 주시오. 아, 닿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졌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
 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
 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
 서 날아가거라.”
 [B]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
 가 살아났으니 ‘의사즙치’라 하는 것이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 칠종칠금: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 용봉: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③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 ④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 ⑤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44.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징하고 있다.

45. ㉠에 담긴 ‘용왕’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대단하군.
- ②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 ③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해 주지.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 주어야 하다니.

46. 위 글의 ‘의사중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다.
- ③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데에는 그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약하다. 그런데 영화의 출발이 시각 예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추상적인 의미 표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에이젠슈테인은 여기서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한다. 한자의 육서(六書) 중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다. 상형 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본뜬 문자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 ‘실 휴(休)’는 ‘사람 인(人)’과 ‘나무 목(木)’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人’에도 ‘木’에도 들어 있지 않다. ㉠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젠슈테인이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이러한 원리가 영화의 시각적인 의미 표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들이 상형 문자라는 점이다.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중립적인 상형 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shot)들의 특성에 상응한다. 회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들을 특정하게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묘사할 수 없는 것, 추상적인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개별 장면들의 시간적 병치를 통해서 이루어 낸 추상적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구성해 내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게 된다.

47.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이 된다.
- ② 영화의 개별 장면과 회의 문자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
- ③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는 개별 장면들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 ④ 영화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를 풍부하게 이용해야 한다.
- ⑤ 영화 외의 영역에서도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방송의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 ②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 ③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 ④ 끊임없는 도전만이 성공을 위한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⑤ 일의 성패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 (물음) 발표자가 전달하려는 핵심적인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탄소발자국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여 개인의 실천 의지를 강조한다.
- ②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약에 정부가 적극 참여 하도록 촉구한다.
- ③ 탄소발자국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 ④ 탄소발자국 제도 도입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인 기업이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 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3. (물음) '부탁하는 말하기' 방법 중, 여학생이 든 사례에서 활용된 것은?

- ① 쉬운 부탁 먼저 하기
- ② 어려운 부탁 먼저 하기
- ③ 호의 베풀기
- ④ 선택하도록 하기
- ⑤ 긍정 대답 유도하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다음의 평가 항목에 따른 면접관의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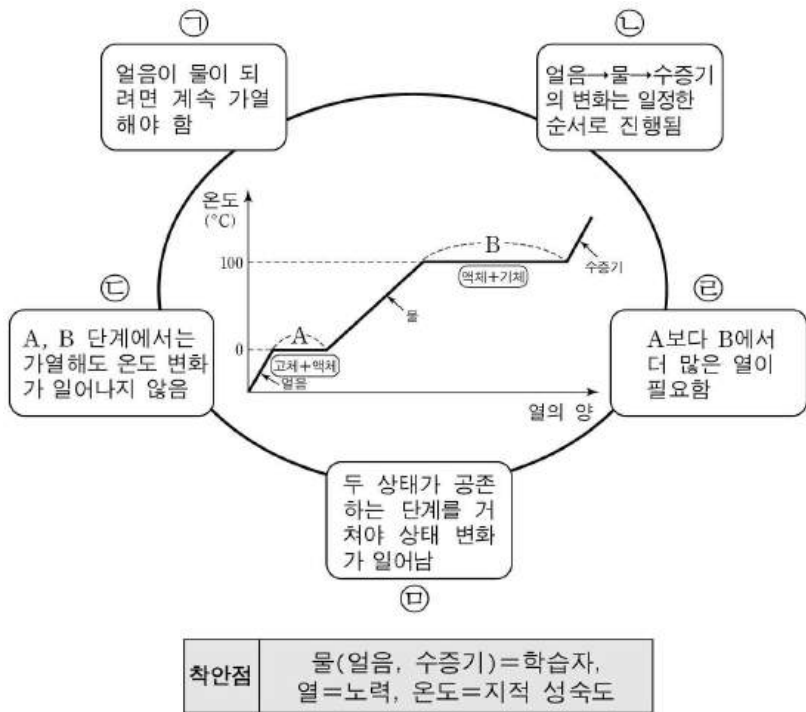
평가 항목	남		여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자기 의사로 동아리에 지원하였는가?	√		√		①
2. 지원자의 성격이 동아리 특성에 적합한가?	√		√		②
3. 동아리 활동 계획이 구체적인가?		√	√		③
4.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체계적인가?	√		√		④
5. 동아리 부원들과 화합하려는 자세가 있는가?	√			√	⑤

5. (물음)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심에서 벗어난 대답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다.
- ②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면접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 ③ 지원자의 답변을 요약하여 지원자의 발언을 재확인하고 있다.
- ④ 보충 질문을 통하여 지원자에게 발언을 구체화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 ⑤ 질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 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고, '지적 성숙의 과정'에 대해 연상한 것이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적 성숙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② ㉡: 학습자의 지적 성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③ ㉢: 노력을 계속해도 지적 성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때도 있다.
- ④ ㉣: 높은 단계의 지적 성숙은 이전 단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⑤ ㉤: 지식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지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7. <보기>는 체육 대회 때 사용할 현수막 문구에 대한 학급 회의 결과이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 기>
- 협동심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자.
 - 현수막에 넣을 색채 이미지의 특성을 살리자.
 - 자연물을 이용해 비유하자.

	<색채 특성>	<문구>
①	정열 (붉은색)	우승을 향한 나의 일념 뜨겁게 불타오르는 가슴!
②	생명 (초록색)	한 그루 두 그루 모여 초록 숲 신록처럼 넘실대는 우리들의 함성!
③	희망 (파란색)	바다 위를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처럼 드넓은 운동장에서 펼치는 승리의 날개!
④	순수 (하얀색)	맑고 깨끗한 흰 구름처럼 정정당당하게 높은 곳을 향하여!
⑤	승리 (노란색)	나 혼자 승리하면 은메달! 우리가 승리하면 금메달!

[8~9] 다음은 교복선정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글의 개요와 그에 대한 검토 사항이다. 8번과 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제목: 교복 디자인 선정에 관한 제안

I. 도입 ㉠
- 시대 변화에 따라 교복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

II. 전개

가. 교복 착용의 실태 ㉡
1. 변형된 교복 착용 및 교복 미착용

나. 실태의 원인

1.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무시
2. 교복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3. 교복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 미흡

다. 해결 방향 ㉢

1.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반영
2. 교복 디자인 선정 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
- 설문 조사(재질·색채·스타일), 공모전, 시범 착용 등
3.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생활 지도 ㉣

III. 정리

- 제안 및 요청 ㉤

<검토 사항>

[수정·보완 의견]

- 도입: 주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 내용 추가
- 전개: 실태를 구체화하여 제시
실태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향 제시
논지와 관련 없는 내용 삭제
- 정리: 요청 내용을 상세화하여 제시

[자료 활용 의견]

- 글을 쓸 때 다음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음.

(가) 교복 구매의 기준 (%)

구분	치수	내구성	상표	기타
교복 첫 구매 기준	26.3	12.4	28.1	33.2
교복 재구매 기준	52.0	21.5	14.3	12.2

(나) 교복 변형의 실태 (%)

변형 경험 있음	변형 이유	
74.8	디자인	38.3
	치수	28.8
	유행	22.9
	기타	10.0

(다) 연구 자료

-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의복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상징물로서의 옷차림을 통해 사회적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8. [수정·보완 의견]에 따라 위 개요를 수정·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교복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을 보충한다.
- ② ㉡에는 ‘교복 구입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③ ㉢에는 ‘교복 디자인 선정 과정 시 전문가 참여’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④ ㉣은 논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⑤ ㉤에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건의함’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상세화한다.

9. [자료 활용 의견]에 제시된 자료를 위 개요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내구성’ 항목의 수치 변화로 보아, 교복 디자인 선정 시 옷감의 소재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밝힌다.
- ② (가): 교복 재구매 시 ‘치수’ 항목의 수치가 큰 것으로 보아, 교복 디자인 선정 시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밝힌다.
- ③ (나): 변형 이유 중 ‘디자인’과 ‘유행’ 항목을 활용하여, 교복 착용 실태의 원인 중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④ (가) + (다): 교복 첫 구매 기준의 ‘상표’ 선호 경향으로 보아, 교복 디자인 선정 시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의 개성 표현 욕구를 반영해야 함을 밝힌다.
- ⑤ (나) + (다): 소속감 형성이라는 교복의 상징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성 표현이 가능하도록 교복 디자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10. 다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글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이
왜 ‘슬기ㄴ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이러한 책들과 만나게 해 주는 장소입니다. ㉠ 그리고 도서관 이름을 ‘슬기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슬기’가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 가는 능력’이라는 순 우리말이고, ‘ㄴ름’은 ‘강’의 순 우리말로써 인간이 모여 생활을 유지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온 ㉡ 터전입니다. ㉢ 강은 인간에게 혜택도 주지만 피해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ㄴ름’은 도서관이 ‘슬기를 얻는 터전’, 그것도 작은 시내나 샘보다는 강처럼 우리에게 많은 슬기를 주는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슬기ㄴ름’에 자주 ㉣ 들려 ‘슬기의 강’을 헤엄치면서 지혜에 대한 ㉤ 갈증이 해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① ㉠: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래서’로 고친다.
- ②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터전이라는 뜻입니다’로 고친다.
- ③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 단어의 기본형을 고려하여 ‘들러’로 고친다.
- ⑤ ㉤: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갈증을 해소하기를’로 고친다.

11.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A+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 2>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ㄷ.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이다
 ㄹ. ㉠ 닭 잡아먹고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오리발을 내밀다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 ⇒ ㉡는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1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양에서 ‘천(天)’은 그 함의가 넓다.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 데도 그것의 이치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 짝었다. 그래서 천은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自然天)’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천 개념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上帝)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상제천(上帝天)’ 개념이 자리 잡았다. 길흉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天命)’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자만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 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 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이 현실화되었다.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 의미로서 ‘의리천(義理天)’ 개념이 자리하였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재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이어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 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 천의 도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 의식의 변화와 확장된 천 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졌고, ㉡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어 인간 삶의 중요한 근거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천명 의식은 농경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 ② 천은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 ③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④ 천은 인간에게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었다.
- ⑤ 내면화된 천은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다.

14.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특정한 사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 개념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 개념의 의미 변천, ㉢ 해당 개념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 현대적 적용 양상을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개념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 사상사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층위도 고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부각된다.
- ② ‘상제천’에서 인간 행위의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③ ‘의리천’에서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잘 발휘되면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천 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 ⑤ 천명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16. 위 글의 천 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하는 변화는 다함이 없다.

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재하고 운용하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ㄷ.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거스르고 천을 따르는 자는 없고, 사람을 따르고 천을 거스르는 자도 없다.

ㄹ.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 가도록 맡겨 둔다.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①	ㄱ	ㄴ, ㄷ	ㄷ
②	ㄴ	ㄱ	ㄷ, ㄹ
③	ㄷ	ㄴ	ㄱ, ㄷ
④	ㄱ, ㄷ	ㄴ	ㄷ
⑤	ㄱ, ㄷ	ㄷ	ㄴ

17.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질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 ② 질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질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질게 풍겨 온다.
- ⑤ 해가 지고 어둠이 질게 깔렸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심해저의 다양한 퇴적물 중에서 생물의 골격과 그 파편 등에 의해 생성된 것을 생물기원퇴적물이라 한다. 심해저의 가장 흔한 생물기원퇴적물은 ㉠ 연니(軟泥, ooze)이다. 이는 주로 죽은 부유생물의 껍질, 골격 등과 바람이나 유수에 의해 육지로부터 멀리 운반된 점토류가 섞여 형성된다. 심해저에서 연니를 형성하지 않는 점토류는 1,000년에 걸쳐 2mm 정도가 퇴적되는데 비해, 연니는 1,000년 동안 약 1~6cm가 퇴적된다. 연니는 표층수에 사는 부유생물의 양이 많을수록, 해저에서 형성된 후의 용해 속도가 느릴수록 많이 퇴적된다.

코콜리스나 유공충과 같이 탄산염으로 구성된 석회질의 생물체 잔해가 적어도 30% 이상 포함된 퇴적물을 ‘석회질연니’라고 하고, 규소를 함유한 규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생물체의 잔해를 30% 이상 포함한 퇴적물을 ‘규질연니’라 부른다.

석회질연니는 비교적 따뜻하고 얕은 곳에 분포한다. 왜냐하면 차가운 해수는 탄산염을 용해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포함하므로,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는 탄산염 성분으로 구성된 생물체의 골격이나 잔해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해저 표면의 약 48%를 덮고 있는 석회질연니는 대서양 중앙 부분과 동태평양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심해저 표면의 약 14% 정도를 차지하는 규질연니는 탄산염이 녹는 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용승 현상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규질연니가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 규질연니를 구성하는 부유생물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승이 일어나고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남극 부근에서는 용승 현상으로 규조류가 많이 서식하므로 심해저에서 규질연니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또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길게 분포하는 용승 지역에 규질연니가 많이 형성된 것도 규질 생명체 중 하나인 방산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이다.

연니의 형성과 분포, 그리고 구성물의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퇴적물이 쌓일 당시의 고해양 환경, 생물의 서식 분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연니는 과거의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데 열쇠 구실을 한다.

* 탄산염보상수심: 탄산염의 공급량과 용해량이 같아지는 수심. 평균적으로 약 4,500m 임.

18. ㉠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니는 죽은 생물체의 잔해와 점토류가 섞여 생성된다.
- ② 유공충의 잔해가 40% 포함된 퇴적물은 석회질연니이다.
- ③ 표층수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양과 연니의 양은 비례한다.
- ④ 규질연니는 탄산염보상수심보다 깊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 ⑤ 연니의 퇴적 속도는 심해저 점토류의 퇴적 속도보다 느리다.

19. 위 글에 제시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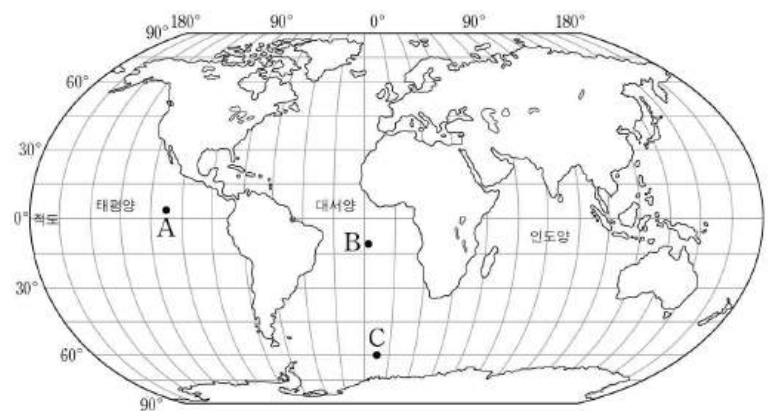
ㄱ. 연니의 생성 시기
ㄴ. 연니의 유형
ㄷ. 연니의 지리적 분포
ㄹ. 연니의 시추 방법
ㅁ. 연니 연구의 효용성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 위 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지도에서 시추 지점을 바르게 추정할 것은?

<보 기>

시추 지점 조사 항목	(가) 지점	(나) 지점	(다) 지점
수 심	약 5,000 m	약 2,500 m	
표층 수온 (상대적 비교)	낮 음		높 음
기타 사항	해수의 수직 운동이 활발함	탄산염 성분의 퇴적물로 구성됨	표층수에 방산충이 많이 분포함



- | | (가) 지점 | (나) 지점 | (다) 지점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니어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땀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찌라

- 이육사, 「소년에게」 -

* 진준가: 진주인가.
*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뉘'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스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 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6. (다)의 ㉠과 ㉡을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은 그와 이별 후 백운 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강남홍이 옥 같은 손을 들어 화살을 쏘니 시위 소리와 동시에 동초와 마달 두 사람의 갑옷이 쟁그랑하고 깨졌다. 두 장수가 더 싸울 뜻이 없어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뇌천풍이 투구를 주워 다시 쓰고 벽력부를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작은 재주만 믿고 무례히 굴지 말라.” 그러고는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홀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14회 옥피리는 자웅(雌雄)의 음률을 주고받으며, 거문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A] 각설. 뇌천풍이 분기탱천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강남홍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부용검을 들고 서서 꼼짝도 않았다. 뇌천풍은 더욱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며 힘을 다해 강남홍을 공격했다. 순간 강남홍이 쌍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몸을 솟구쳤다. 뇌천풍이 허공을 쳐다보며 급히 도끼를 거두어들여는데 갑자기 쟁그랑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날아온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투구를 쳐서 깨뜨린 것이었다. 뇌천풍이 황망하여 몸을 뒤틀며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강남홍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칼을 거뒀다. 원래 강남홍의 검법은 깊고 얇음이 있어서 다만 투구만 깨뜨릴 뿐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뇌천풍은 이미 ㉠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자기 머리가 없음을 의심하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자신의 진영으로 달아났다.

(중략)

강남홍은 백운 도사가 준 옥피리를 가지고 손삼랑과 연화봉으로 올라갔다. 멀리 명나라 진영을 바라보니 조용히 등불만 깜빡이는데,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강남홍이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희롱했다.

이때 서풍은 쓸쓸히 불고 별과 달은 하얗게 빛나는데 원숭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타향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시름을 돕는다. 찬 이슬은 옷깃에 가득 내리고 밝은 달은 진영을 환히 비춘다. 어떤 이는 창을 베고 누워 잠이 들고 또 다른 이는 칼을 치며 근심스럽고 슬프게 앉아 있던 때였다. 갑자기 바람결에 옥피리 소리가 아련히 반공에 퍼졌다. 처량한 곡조는 쇠와 돌도 녹이고, 흐느끼는 소리는 산천의 빛도 바꾸게 할 듯했다. 이때 명나라 십만 대군이 일시에 잠을 깨어 늪은이는 처자를 그리워하고 젊은이는 부모를 생각하여 흑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일어나 서성거렸다. 군중이 자연히 소란해지면서 부대의 대오가 어지러워졌다. 소유경이 깜짝 놀라 동초와 마달을 불러 군중을 단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장수 역시

기색이 처량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했다. 소유경이 급히 양창곡에게 알렸다.

마침 양창곡은 병서를 베고 잠을 자려던 참이었다. 정신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늘에 올라 남천문에 들어가려 하니 한 보살이 백옥 여의를 들고 길을 막았다. 양창곡이 노하여 칼을 뽑아 여의를 치니 쟁그랑하고 땅에 떨어져 한 송이 꽃이 되어 붉은 빛과 기이한 향기가 천지에 진동했다. 양창곡이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심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소유경이 황망히 군막 안으로 들어와 군중의 동정을 보고하였다. 양창곡이 놀라 군막 밖으로 나가 시간을 물어보니 벌써 4, 5경이나 되었다. 삼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영이 들끓고 서풍은 손에 든 깃발을 불어 흔든다. 바람결에 들리는 옥피리 소리는 애원하는 듯 처절하여 영웅의 마음으로도 비감해지는 것을 어찌지 못할 정도였다.

양창곡이 귀 기울여 들어 보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옛날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통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를 흠어 놓았다더니 누가 이 곡조를 부는지 모르겠구나. 내 어렸을 적 옥피리 부는 것을 배워 곡조를 기억한다. 이제 한번 시험하여 군사들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케 하겠다.”

그는 상자에서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호방하여 마치 천 리에 펼쳐진 봄날의 물이 장강에 흐르는 듯, 삼월 조화로운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했다. 그러자 처량했던 마음은 절로 풀렸으며 다시 한 곡을 불자 호탕한 마음이 무럭무럭 생겨나 군중이 평온해졌다. 양창곡은 다시 음률을 바꾸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웅장하면서도 기상이 커서 군사들의 기세가 늠름해졌다. 이에 군사들은 북을 쓰다듬고 칼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고자 하였다.

- 남영로, 「옥루몽」 -

2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강남홍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여유를 보이고 있다.
- ② 강남홍은 손삼랑과 함께 명나라 진영으로 잠입하였다.
- ③ 양창곡은 꿈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 ④ 양창곡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과시하고 있다.
- ⑤ 양창곡은 적이 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였다.

28. ‘옥피리’ 연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의 연주는 군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 ② 강남홍이 연주한 곡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 ③ 양창곡의 연주는 강남홍의 연주와 달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 ④ 두 사람의 연주는 전쟁 상황에 신비감을 불어넣고 있다.
- ⑤ 두 사람이 연주한 곡조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묘사되었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봄	불	하나	
A 언어	tom	tel	tark
B 언어	som	sel	sark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ár
라틴어	pater
고대 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ātē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3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확인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 ②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③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에 해당한다.
- ④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 ⑤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간에 음운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34. ㉠보다 ㉡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b.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c.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a, c

35. 위 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	pom(봄)	pul-(불다)	pil-(빌다)
만주어	fom(계절)	fulgije(불다)	firu-(빌다)
몽고어	hon(년)	hülie-(불다)	hirüer-(빌다)

- ① 국어의 ‘pom’과 몽고어의 ‘hon’을 보니 그 조어는 ‘phom’이겠군.
- ②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국어의 ‘pil-’과 만주어의 ‘firu-’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ru/에 대응하는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만주어의 /m/이 몽고어의 /n/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겠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우편물들은 발송 지역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편물 분류 작업은 우편번호 숫자를 인식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때 자동분류기는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경험적인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자동분류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여 스스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필기체 숫자	5 5 0 0	5
입력 특징		
목표치	5 5 0 0	

우편번호 자동분류기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편번호 숫자를 하나씩 분할하고, 0부터 9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입력 특징을 찾아야 한다. 위 그림은 필기체 숫자를 가로, 세로 8등분하여 연필이 지나간 자리를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어, 입력 특징을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추출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분류기에 목표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감독할 수 있다. 즉, 입력 특징에 대한 목표치가 제시되면 분류기는 데이터를 제시된 목표치로 분류하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이용하는 학습을 ㉡ 감독학습이라 한다. 숫자 분류기에 0부터 9까지 각각의 숫자에 대한 목표치가 제공되면, 분류기는 감독학습을 수행한다. 위의 그림에서 분류기는 네 개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징과 목표치를 통해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통해 두 개의 '5'와 두 개의 '0'을 각각 같은 숫자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5'와 '0'을 서로 다른 숫자로 분류해 내는 함수를 만든다. 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그림의 실험 데이터는 숫자 '5'로 인식된다.

그러면, 목표치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할까? 목표치가 없을 때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특징들의 유사성을 찾아 군집화한다. 이와 같이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는 학습을 무감독학습이라고 한다. 예컨대 위 그림에서 네 개의 필기체 숫자에 대한 입력 특징만 주어지면, 무감독학습은 비슷한 입력 특징을 가진 숫자들을 ㉢ 모아 '5' 또는 '0'에 대해 군집화하는 함수를 만든다. 무감독학습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하였다면, 실험 데이터는 '5'의 군집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학습된 자동분류기는 실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그 성능이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우편물을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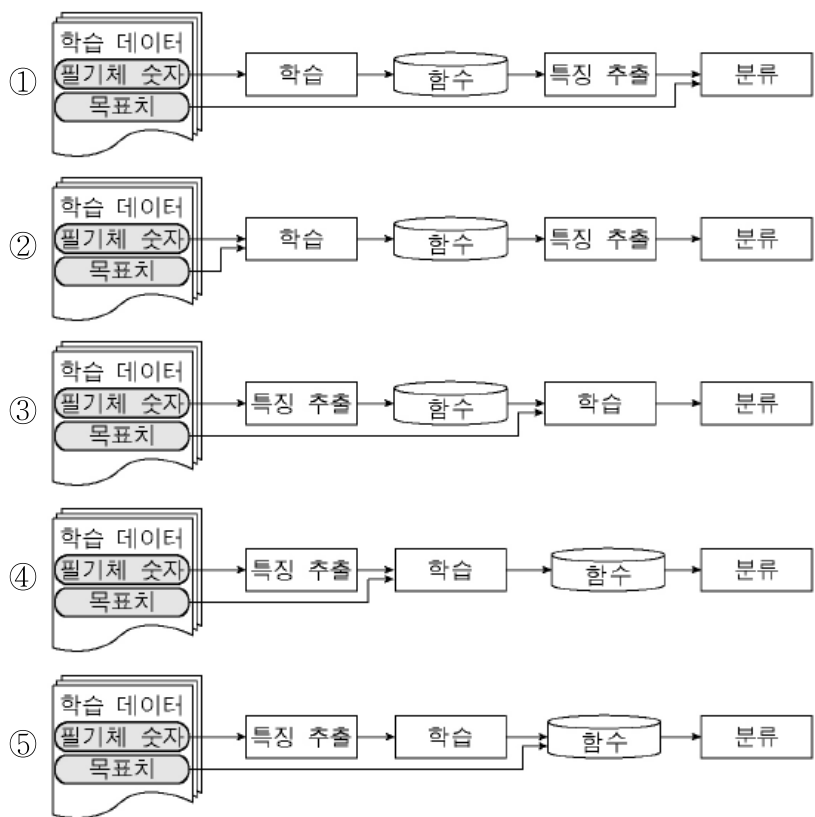
36. 위 글의 '우편번호 자동분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우리나라 우편번호 자동분류기는 총 6종류의 목표치를 이용한다.
- ③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일정한 종류의 필기체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 ④ 자동분류기는 0부터 9까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입력 특징을 사용한다.
- ⑤ 자동분류기의 학습은 필기체 숫자의 목표치가 없으면, 유사한 입력 특징을 가진 것끼리 모은다.

37. 휴대 전화의 기능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의 기능을 담은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화가 걸려 오면 등록된 수신 거부 목록과 일일이 대조하여, 목록에 있는 번호이면 수신을 거부한다.
- ② 휴대 전화를 든 손으로 등록된 단축 번호를 공중에 쓰면, 전화기가 숫자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건다.
- ③ 사용자의 음성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자와 타인의 음성을 분류하면, 사용자의 음성으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휴대 전화에 닿는 형태를 유형화하여 접촉과 비접촉을 구별하면, 전화벨이 울리는 중에 휴대 전화에 손이 접촉할 경우 진동으로 전환된다.
- ⑤ 휴대 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영상들에서 색상값과 얼굴 형태 정보를 이용하여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 사람이 움직여도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38. ㉡을 이용한 필기체 숫자 분류기의 구성도로 옳은 것은?



39.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취합(聚合)하여 ② 융합(融合)하여
- ③ 조합(組合)하여 ④ 규합(糾合)하여
- ⑤ 결합(結合)하여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 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 꿈에 행복하시지요.

㉠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얄은 소갈머리가 가없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너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너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날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겐 또 한 가지 ㉠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깃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풍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풍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어둠 속 어느 방향으론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째게 꺼 없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켜올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 분별없는 행동이 희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가막소: 교도소.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4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든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43.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차 안에서처럼 두 개의 의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스크린이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다. 관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 대화 속의 단어들에 상응하는 이미지들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 입체적 영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소머리와 미그노뉴의 디지털 아트 작품인 「인터넷 타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이 예술을 상호 작용 공간으로 만들 경우 미적 해방 공간마저 일상적 삶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예술 이외의 관심과 욕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인가? 넓게 보자면 인간은 세상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란 세상과의 ㉧ 부단한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상호 작용이 외적·내적 요인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낳을 때, 인간의 경험은 대립과 분열 속에 빠지며, 이것이 지속될 때 삶은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각각의 상호 작용의 고유성이 보호되면서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 속에서 통일될 때 인간의 삶은 ㉨ 극치를 이룬다. 존 듀이는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체험을 ㉩ 미적 체험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미적 체험은 현실적 삶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오히려 이것은 예술 작품 속에서 상이한 요소, 행동, 사건, 주체들이 고유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의 신성화가 아니라, 예술의 세속화를 원한다.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수많은 상호 관계와 경험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예술적 시도가 이러한 미적 체험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장을 만든다면, 이는 예술 작품을 넘어 삶 속에서도 미적 체험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수용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예술 작품을 예술가만의 창작 결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② ㉡: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면서 이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실용적, 윤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 혹은 과학적 호기심 등 예술 작품 자체를 향유하려는 것 이외의 관심과 욕구를 말한다.
- ④ ㉣: 사람들이 삶의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술 작품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 한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삶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45. <보기>의 입장에서 '예술의 세속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리일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① 예술의 세속화는 자기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 ② 예술의 세속화는 상호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예술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 ③ 예술의 세속화는 역으로 예술을 인간의 맹목적 충동에 종속시킬 위험성을 갖는 것은 아닐까?
- ④ 예술의 세속화는 오히려 인간이 현실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아닐까?
- ⑤ 예술의 세속화는 미적 관조를 현실 세계로 확산시키므로 삶의 통일성에 대한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

46. 위 글의 「인터넷 타기」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 중, ㉡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전화기라는 단어를 말했다. 수많은 종류의 전화기가 실제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나타났다. 아마 작가는 영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생생함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았다.
- ② 얼굴이란 단어를 말하자 수많은 얼굴 모습이, 인간을 말하자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미지가 나타났다. 한순간이나마 세상의 관심과 욕구에 초연한 채 바로 내가 순수한 예술가가 된 것 같았다.

- ③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영상으로 나타났고, 스크린을 만지니 영상이 정지하기도 했다. 나는 이 단어, 저 단어를 말하며 다양한 영상을 보았다. 컴퓨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감탄했다.
- ④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인터넷 검색하듯이 대화 속의 단어에 상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스크린에 이미지로 등장한 사물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와는 달리 무언가 신비스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 ⑤ 생활이 어려워 결혼반지를 팔았던 일을 아내가 이야기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없지만, 반지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옛일을 회상했다. 삶과 작품 공간이 하나가 되고, 이 속에서 아내와 나도 하나 되는 느낌을 받았다.

47. ㉠~㉣의 사전적 의미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② ㉡: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③ ㉢: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 ④ ㉣: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
- ⑤ ㉤: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취나 경지.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계에 엎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훔날리는 초설(初雪)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랑*을 걸머지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초부 (지계를 지고 일어서며) 지금 그 종 네가 쳤니?
 도념 그러네요. 언젠 내가 안 치구 다른 이가 쳤나요?
 초부 밤낮 나무해 가지구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엔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일어서다가 도념의 옷차림을 발견하고) 아니, 너 닷다가* 바랑은 왜 걸머지구 나오니?
 도념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초부 왜? 스님이 동냥 나가라구 하시든?
 도념 아아니요. 몰래 나가려구 해요.
 초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잘 데두 없을 텐데. 어딜 간다구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도념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초부 아예, 그런 생각 말구,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구 있거라.
 도념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구 별렀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구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초부 어머니 아버질 찾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두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구,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도념 꼭 찾을 거예요. 내가 동냥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구 웬 부인이 쌀을 퍼 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구 있드니 별안간 ‘도념아, 내 아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 내려오든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초부 가려거든 빨리 가자. 꺾꺾 쏟아지기 전에. 이 길루 갈 테니?

도념 비탈길루 가겠어요.

초부 그럼 잘—가라. 난 이 길루 가겠다.

도념 네, 안녕히 가세요.

초부, 나무를 지고 내려간다. ㉠도념,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소리. 발을 멈추고, 생각난 듯이 바람에서 표주박을 꺼내 잣을 한 움큼 담아서 산문 앞에 놓는다.

도념 (무릎을 꿇고) 스님, 이 잣은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등걸 구멍에다 파 둔 것을 제가 아침이면 몰래 꺼내 뒀었어요.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구요.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 (산문에 절을 한 후)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정적.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염불 소리만 청정히 들릴 뿐. 눈은 점점 꺾꺾 내리기 시작한다. 도념,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을 내려간다.

- 함세덕, 「동승」 -

- * 바람: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 * 깽매기: ‘깽과리’의 전라도 방언.
- * 닳다가: 난데없이.

4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사에는 대화, 방백, 독백 등이 있다. 대화는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는 대사로, 인물들의 관계를 알려 주고 사건을 진행시키는 기능을 한다. 방백이 관객을 청자로 상정한 대사라면, 독백은 배우가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촉발된 혼잣말이다. 독백은 사건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우가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연극의 서사에 시적 분위기를 첨가하는 기능을 한다.

- ① 두 사람의 대화는 초부와 도념이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초부가 도념의 결심을 헤아리고 도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도념이 초부와 헤어진 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독백을 한 것이군.
- ④ 도념의 독백은 절을 떠나는 사건을 지연하고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⑤ 독백 후 도념은 말을 가급적 억제하고, 한숨이나 시선 혹은 신체 연기를 활용하여 심리적 정황을 전달하는군.

49. ㉠~㉣의 음향 효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관객은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다.
- ② ㉡에서 초부는 관객들이 음향 효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기하고 있다.
- ③ ㉢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
- ④ ㉣에서는 음향이 생성되면서 도념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⑤ ㉤에서는 음향이 도념과 주지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며 심리적 여운을 증폭한다.

50. 위 글의 ‘비탈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속성	이해
①	갈라짐	초부와 헤어져 홀로 길을 떠나야 하는 도념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②	내려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념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③	벗어남	도념이 절에서 살았던 지난날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려 준다.
④	시작됨	도념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임을 알려 준다.
⑤	가파름	도념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출수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배우가 관객을 웃게 만든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해서
- ② 자신의 심정을 과장하여 말해서
- ③ 재치로 관객의 예상을 깨뜨려서
- ④ 특이한 표정과 몸짓을 활용해서
- ⑤ 동음이의어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2. (물음) 학생이 민요를 채록할 때, 마을 주민에게 해야 할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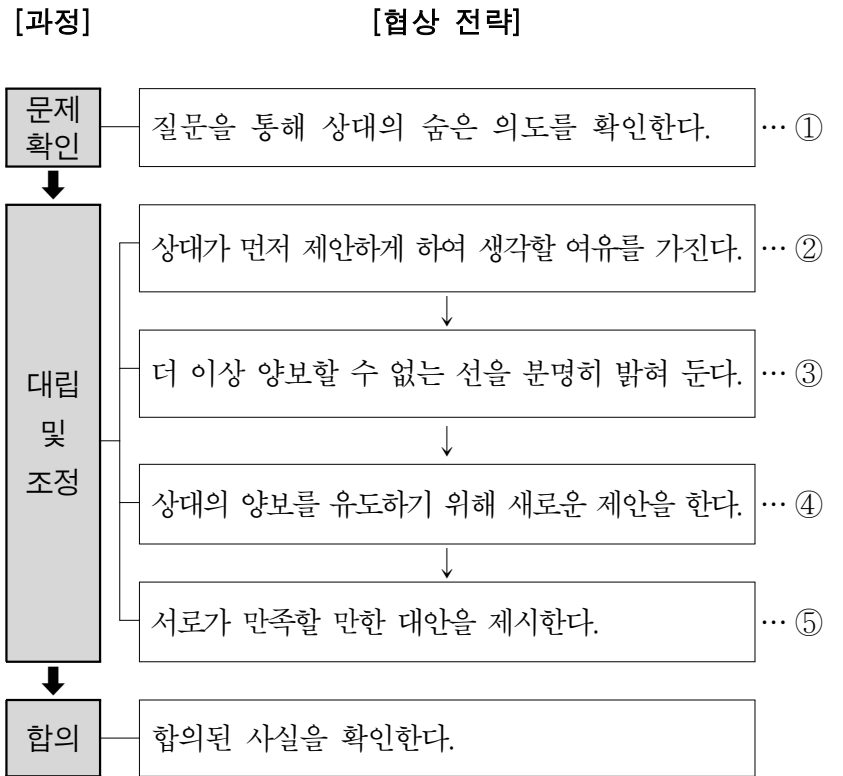
- ① 이 민요의 민속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 ② 이 민요는 어떤 때, 무엇을 하며 불렀나요?
- ③ 이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 ④ 옛날부터 이 마을에 전해 오는 특별한 이야기나 풍속은 없나요?
- ⑤ 이 민요 말고 예전에 부르시던 다른 민요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3. (물음) '서원'을 검색하면서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별 서원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살펴볼 수 있네.
- ② 서원과 그 주변 마을의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네.
- ③ 서원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네.
- ④ 서원과 당시 정치 상황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네.
- ⑤ 현재 남아 있는 서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학생이 활용한 협상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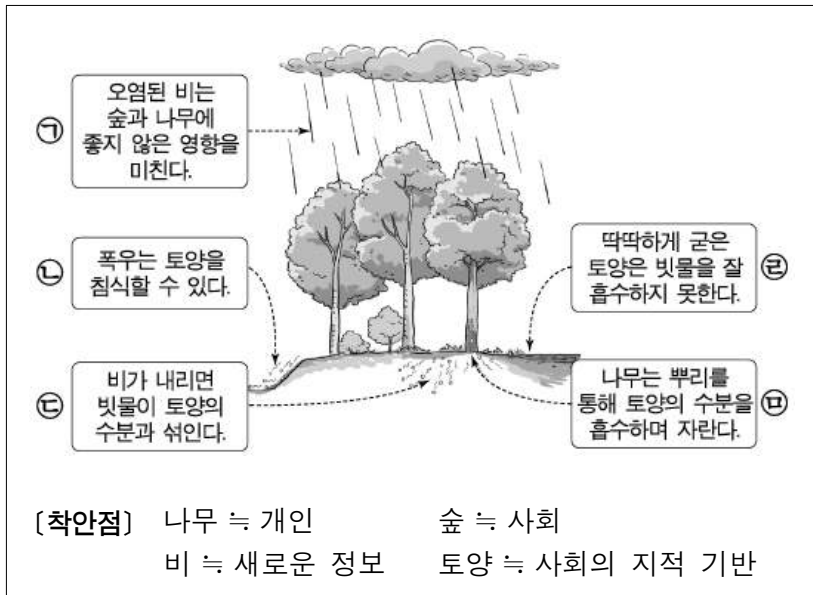


5. (물음) 협상 결과에 따라 남학생이 속한 동아리가 발표회에서 하게 될 일은?

- ① 별관 꼭대기 층 교실에서 시화전을 한다.
- ② 별관 꼭대기 층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한다.
- ③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시화전을 한다.
- ④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한다.
- ⑤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숲에 내리는 비를 보고 '정보의 수용'에 대해 연상한 것이다.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릇된 정보가 유입되면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 ② ㉡: 새로운 정보가 지나치게 유입되면 개인 간 갈등이 유발된다.
- ③ ㉢: 새로운 정보는 사회의 기존 정보와 합쳐져 그 일부가 된다.
- ④ ㉣: 지적으로 경직된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쉽지 않다.
- ⑤ ㉤: 개인은 사회의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한다.

7.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제문: 학교에 옥외 쉼터를 조성하자.

I. 서론: 학교 휴식 공간의 실태와 문제점

II. 본론

1. 조성의 필요성
 - 가. 학생들의 여가 활용 시간 부족 ㉠
 - 나. 자연 친화적 성격의 공간 요구
2. 조성의 장애 요인
 - 가. 학교 휴식 공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 나. 자연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 수립 ㉡
 - 다. 재원 확보의 어려움
3. 해결 방안 ㉢
 - 가.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 나. 학교 옥외 공간의 활용 방안 부재

III. 결론: 학교 공간에 대한 발상 전환의 촉구 ㉤

- ①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휴식 및 친교 기능의 공간 요구'로 바꾼다.
- ②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3-나'와 위치를 바꾼다.
- ③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④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서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학교 옥외 쉼터의 조성 제안'으로 바꾼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신장'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보도 내용
 '인터넷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과제물인 것처럼 제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9.1%에 이른다. 그 주된 이유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해서' 등을 들었다.

(나) 통계 자료

1. 1인당 독서량

2. 독서량과 글쓰기 자신감

3. 체험 활동 경험

(다) 연구 자료

1. 체험 활동은 배경 지식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력 및 사고력 신장에 큰 도움을 줌.
2. 글쓰기에는 자신감, 사고력, 어휘력, 글쓰기 경험, 글쓰기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침.

- ①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잘못된 글쓰기 태도를 지적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② (가)와 (나)-1, 2를 활용하여, 독서량 감소가 글쓰기 능력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야겠어.
- ③ (나)-3과 (다)를 활용하여, 체험 활동 경험이 늘어나면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④ (나)-1과 (다)-2를 활용하여, 어휘력 부족이 독서 기피의 한 원인임을 밝혀 어휘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⑤ (나)-2와 (다)-2를 활용하여, 글쓰기에 필요한 자신감을 신장시키기 위해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임을 제시해야겠어.

9. 다음은 체험 활동을 하고 난 후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 간이역을 다녀와서

이제까지 간이역은 사진으로만 보아 왔다. 사람들은 흔히 '추억의 간이역'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 나는 그 이유를 이번에 다녀온 ○○역 대합실 안의 물건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합실 밖으로 나가 플랫폼에 서서 잠시 상념에 잠겨 보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안고 이 역을 찾았을까?' 간이역에 얽힌 이웃들의 사연은 ㉡ 마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웃들의 사연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 생각다 못해 지난날의 삶의 추억에 아련히 젖어 들었다.

대합실 안에는 손때 묻은 나무 의자와 빛바랜 열차 시간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고 삐걱거리는 문, ㉣ 오래된 모퉁이에 세워진 난로 등 할머니의 사진첩에서나 봤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처럼 추억 속 물건이 가득한 간이역은 지난날을 ㉤ 회상하게 한다.

- ① ㉠의 내용을 고려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 ② ㉡은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루'로 바꾼다.
- ③ ㉢은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모퉁이에 세워진 오래된 난로'로 고친다.
- ⑤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회상한다'로 고친다.

10. 대출 도서에 붙일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의도 : 대출 도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표현 : 의인화와 대구를 활용함.

- ① 책과 함께 하는 세상
남과 함께 사는 세상
- ② 책에 흔적을 남기기보다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흔적을
- ③ 제 몸 곳곳에 늘어나는 상처
당신의 양심에 새겨지는 낙서
- ④ 지나친 손길로 얼룩져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
- ⑤ 늘어나는 책꽂이의 빈자리
나눌 줄 모르는 당신의 빈 가슴

11. <보기 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보기 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 2>

a. [설렁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렁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b. [그 티미 이연패를 헨따]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ㄱ	ㄴ	ㄷ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ㅂ시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知)와 행(行)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知行並進)’이었다.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先後)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相資互進)’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면서도, 도덕적 수양 외에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 지는 도덕 법칙만이 아닌 실용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행이 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는 행을 생리 반응, 감각 활동, 윤리 행동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지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천적인 지식이 따로 없고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된다고 보아 ‘선행후지(先行後知)’를 제시하고, 행이 지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한기에게 지와 행의 대상은 인간·사회·자연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는 행을 통한 지의 형성, 그 지에 의한 새로운 행, 그리고 그 행에 의한 기존 지의 검증이라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지식론을 제시하였다. 그가 경험으로서의 행을 중시한 것은 자연 세계에는 일정한 원리인 물리(物理)가 있지만 인간 세계의 원리인 사리(事理)는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탐구하여 물리를 인식함으로써 사리가 성립되고, 이 사리에서 인간의 도덕인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수양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실학자들은 피폐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학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최한기가 행을 앞세운 것은 변화하는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

13.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행후지의 현대적 의미 ② 지와 행의 개념과 그 한계
③ 도덕규범의 실천과 지행론 ④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⑤ 삶에서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14.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외부 세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다.
② 홍대용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했다.
③ 홍대용과 최한기는 행보다 지를 우선시했다.
④ 최한기는 학문의 목적을 도덕적 수양에서 찾았다.
⑤ 최한기는 선천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15. <보기>는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하나이다.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언어 지식이 전혀 없이 태어난 아기는 성장하면서 몇 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다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 ① 다양한 시행착오는 행에 의한 기존 지식의 검증을 말하는 것이군.
②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지에 의해 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 주는군.
③ 완전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군.
④ 아이가 배운 말을 표현하려는 것은 주관적인 지식을 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⑤ 불완전한 언어 표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엿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술, 과일 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앓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중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齋)를 울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16.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 ②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 ③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④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다.
- ⑤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

17.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 ③ ㉠은 제의성이, ㉡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인연을 맺는, ㉡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⑤ ㉠은 현실 속에, ㉡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18.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③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19.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점]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 ⑤ 독야청청(獨也青青)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지위를 ㉡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에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 관건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합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도 종료된다.

반면에 결합이 성립된다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 확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 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확정할 것인지인데,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 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에 대해 대체재,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일 가능성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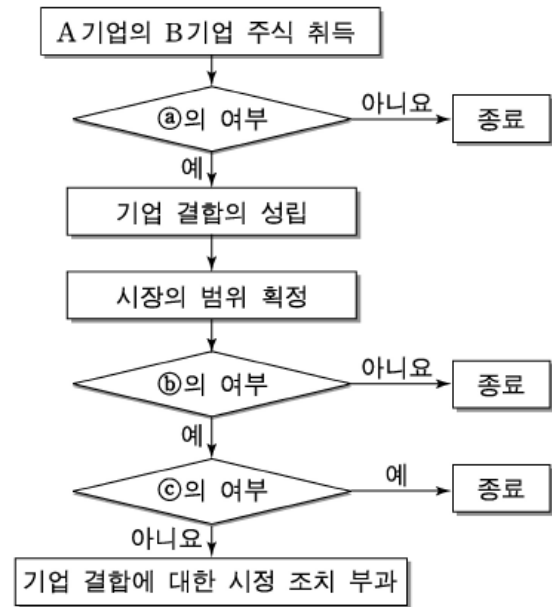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에 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시정 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 위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②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기업 결합을 통한 기업의 확장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기업 활동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 ⑤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21. 위 글에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 | |
|---------------------|-----------|-----------|-----------|
| | ㉠ | ㉡ | ㉢ |
| ①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경쟁 제한 | — 경쟁 제한 |
| ② A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경쟁 제한 |
| ③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경쟁 제한 | — 항변의 타당성 | — 항변의 타당성 |
| ④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대체재 존재 | — 항변의 타당성 | — 항변의 타당성 |
| ⑤ B 기업에 대한 지배 관계 형성 | — 항변의 타당성 | — 경쟁 제한 | — 경쟁 제한 |

22. <보기>는 어느 지역의 4가지 음료수 A~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반응은?

<보 기>

가격 인상 \ 판매량	A의 판매량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D의 판매량
A 가격 10% 인상	20% ↓	15% ↑	5% ↑	변화 없음
B 가격 10% 인상	15% ↑	20% ↓	3% ↑	2% ↑
C 가격 10% 인상	3% ↑	2% ↑	20% ↓	15% ↑

* 이 지역에는 4개의 회사만이 각각 한 종류의 음료수를 생산하며, 이들 회사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다. (↑: 증가, ↓: 감소)

- ① A의 소비자들은 B보다 C를 대체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B와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품은 A이군.
- ③ 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B이군.
- ④ A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수평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 ⑤ C 생산 회사와 D 생산 회사가 결합한다면 혼합 결합으로 볼 가능성이 크군.

23. ㉠~㉣의 사전적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 ① ㉠: 사라져 없어지게 함.
- ② ㉡: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
- ③ ㉢: 폐단으로 생기는 해.
- ④ ㉣: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
- ⑤ ㉤: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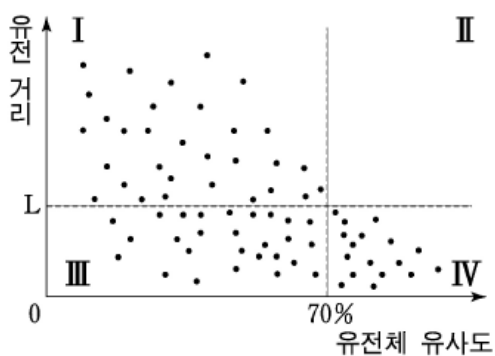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나)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 거리’라 한다. 유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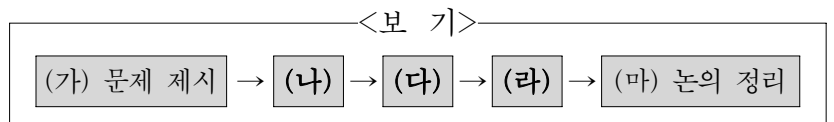


그림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L) 미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하는 미생물 종의 정의가 도출된다.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4. <보기>는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나)	(다)	(라)
①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의 한계	보완 방법
②	주장 제시	예상 반론 제시	반론 비판
③	개념 설명	사례 제시	개념 재정립
④	가설 제시	가설 검증	이론 도출
⑤	관점 확인	근거 제시	사례 설명

2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 ④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 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다.

26. 위 글의 ‘그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이상이고 유전체 유사도가 70% 미만이므로 같은 종이 아님을 나타낸다.
- ② II 영역에 점이 없는 것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인 경우 L 미만의 유전 거리만을 보이기 때문이다.
- ③ III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 거리가 L 미만이라도 유전 거리만으로는 종의 경계 구분이 어려움을 나타낸다.
- ④ IV 영역은 두 미생물 간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인 경우 유전 거리도 L 미만이어서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⑤ I~IV 영역은 유전 거리를 알면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8. 동만네 집 전경(밤)

동만 모의 진한 핏빛 울음소리 들리는데 빗속에 누워 있는 동만네 집 전경. 끝없이 쏟아지는 ㉠ 장맛비. 장맛비. (F.O.)

29. 건지산 전경

(F.I.) 한고비 숨을 돌려 보슬비 뿌리는 하늘. 멀리 회색빛 웅자를 자랑하는 ㉡ 건지산의 자태.

30. 동만네 마당

㉢ 완두콩 소쿠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뒷마루에 나와 앉은 외할머니. 부엌에서 이모가 ㉣ 밥상을 들고 힘겹게 나온다. 일손 멈추고 멍하니 건지산을 바라보는 외할머니.

이모(길자) 진지 드세요.

친할머니 (밥상 받으며) 사부인은 좀 드셨는가?

이모 통 안 드셔요. 한 숟갈두…….

친할머니 에휴 쫓쫓…….

(밥상을 받고 사르르 문을 닫는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또 한상 들고 나오는 이모.)

이모 (외할머니 앞에 멎더니) 그래 진지 안 드셔요?

(그저 넋 나간 듯 앉아 있는 외할머니. 이모 밥상을 들고 건넌방으로 간다.)

31. 안채 건넌방

머리를 질끈 동이고 자리에 누운 동만 모. 밥상 들고 들어오는 이모 길자.

길자 언니 식사해요.

(엉거주춤 일어나 앉은 동만 모. 금세 눈물이 또 쏟아지며)

동만 모 에유! 우리 길준이 따뜻한 밥 한 그릇 몇몇하게 끓여 주도 못하고.

(밥상머리에 앉아 눈물을 찔끔찔끔 잔다.)

길자 인제 고만 좀 해 뒤요. 몸도 생각해야지.

동만 모 에유! 느이 오라비 불쌍한 길준이…… 전쟁터에서 죽다니…….

(방문 벌럭 열리며 뛰어드는 동만.)

동만 밥 쥐, 배고파.

길자 어서 먹어라. 언니두 한술 떠요.

(마지못해 밥숟갈을 드는 동만 모. 동만이는 벌써 아구아구 입에 퍼 넣고 있다.)

동만 모 넌 좀 안 드냐?

길자 생각 없어요.

동만 모 엄니는?

길자 통 안 잡수셔요.

동만 모 에휴! 큰일인지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길자 …….

동만 모 나야 괜찮지마는 엄니가 얼마나 상심하실 것이냐? 삼대독자 외아들을 잃었으니…….

(다시 눈물을 찔끔거리다가)

동만 모 어서 누구를 양자로 데려다가 끊어진 대를 이어야지. 저리 큰일 아니냐.

길자 …….

(꽂보리밥 한 그릇을 우걱우걱 비우며)

동만 모 동만 아버지 점심 안 하셨제?

길자 형부는 밭에 나가 계세요. 점심 내다 드려야죠.

동만 모 내 대신 니가 고생이다. 에휴 에휴…….

(밥숟갈 놓으며 다시 눈물 찔끔거리면서 드러눕는다.)

32. ㉤ 마당

뒷마루에 고정된 물체처럼 먼 산 바라보고 앉은 외할머니. 동만이가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간다. 건지산을 향한 채 미동도 없는 외할머니의 눈길. 동만 손바닥을 펴서 외할머니 눈앞에 대고 뱅글뱅글 원을 그려 본다. 그제야 눈길 스르르 움직여 동만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버릇처럼 완두콩을 다시 까기 시작한다. 부엌에서 이모가 대소쿠리에 점심을 담아 이고 사립문을 나간다. 냇다 따라 나가는 동만.

33. 들길

보슬비 뿌리는 들길. 포플러 나무 우뚝우뚝 치솟은 발독길을 나란히 가는 동만과 이모.

동만 이모.

길자 응.

동만 우리 외삼촌 죽었제?

길자 ……그래 전사하셨다.

동만 전사란 게 군인이 나가 죽었다는 거제?

길자 ……그래.

동만 왜 좀 더 숨어 있덜 았구 군인 나가 죽어?

길자 무어?

동만 외삼촌이 뒤란 대나무밭에 숨어 있지 았았능감? 피난 와서 내내 숨어 있덜 았았능감? 현디 왜 좀 더 숨어 있덜 았고 군인 나가 죽어 뿌리능감?

길자 그건……그게 아냐.

동만 그게 아니라께 뭐가 아냐? 외삼촌이 대숲에서 한 달 동안 잘 숨어 있덜 았았디야?

(무어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한 길자. 따라가며 고개를 갸웃해 보는 동만.)

- 윤삼육 각색, 「장마」 -

27.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와 대화하기 싫어서 말문을 닫고 있다.
- ② 동만 모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 ③ 동만은 이모 길자를 통해 외삼촌의 사연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 ④ 이모 길자는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고 싶어서 일부러 외출했다.
- ⑤ 친할머니는 사돈댁이 겪은 참담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8.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울음소리’와 뒤섞이며,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은 원경으로 제시되어, 배경이 되는 공간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군.
- ③ ㉢을 소품으로 먼저 제시한 이후, 이것을 다듬는 연기를 통해 외할머니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은 카메라의 이동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여, 가족들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포착되도록 돕고 있군.
- ⑤ ㉣은 같은 공간에 위치한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소통 부재의 상황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군.

29. <보기>를 바탕으로 #28~#32를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정한다. 매개 요소란 장면 A의 말미와 다음 장면 B의 서두를 이어 주는 ‘형식적 고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개 요소는 두 장면 사이의 공통성이나 대립성을 활용한다. 공통성과 대립성은 인물의 성격, 연기(행위), 대사, 빛과 음향,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 ① #28에서 #29로 바뀔 때, 장맛비의 긴장과 보슬비의 이완을 대립적인 매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 ② #28에서 #29로 바뀔 때, 빛의 어두워짐과 밝아짐이라는 대립적 매개 요소를 활용하여 시간을 자연스럽게 전환하고 있다.
- ③ #30 말미에서 앉아 있는 외할머니와 #31에서 누워 있는 동만 모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30과 #31에서 식사를 권유하는 대사를 반복하여, 외할머니가 있는 공간에서 동만 모가 있는 공간으로의 장면 전환을 매끄럽게 한다.
- ⑤ #31에서 #32로 바뀔 때, 이모 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매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A→B/___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3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_ C

【실례】 ㄱ → ㅇ / ___ ㅁ 국물 [궁물]
 ㄷ → ㄴ / ___ ㅁ 만머느리 [만머느리]
 ㅂ → ㅁ / ___ ㄴ 읍내 [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빠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빠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빠꾸새가** [A]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빠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올던 한 마리 빠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빠꾸새」 -

* 길뜰: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락 내리락 모이락 홀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으니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B]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양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양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양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양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다른 눈썰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시늉이 없었고, 손속 또한 유별났으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음식 맛깔과 바느질 솜씨는 어머니도 나무랄 수 없음을 진작에 선언한 정도였다.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개밥을 주어도 구유가 좁게 손이 컸다.

“저것이 저리 손이 크니 시집가면 대번 시에미 눈 밖에 나리…….”

어머니의 걱정처럼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잡은 짓을 가장 싫어했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뒤통을 싸워 주며, 부지런하려 들기도 남보다 뒤처짐이 없었던 것이다.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징발됐던 것도 남의 집 뒷수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음이니, 온갖 일의 들무새요 안머슴이었던 것이다.

“말꼬랑지 파리가 천 리 가더러구 웅쩍이가 그렇당께.”

부락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녀대로 그런 말 듣게 된 자신을 대견스레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가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안팎 동네의 머슴이나 품일꾼, 그리고 어리전이나 드팀전을 보아 제 몫은 하던 장돌뱅이 총각들의 눈독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총각들은 장차 그녀를 아내로 맞고 싶어서 그러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았다.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머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끄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轎前婢)*와 난봉난 행랑 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뒤통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중략)

관촌 부락에서 등성을 끼고 돌면 요까티라는 작은 부락이 있었다. 원래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여섯 가구뿐으로 일 년 내내 대사 한 번 치르지 않아 사는 것 같지 않던 동네였으나, 해방 이듬해부터는 금융 조합 창고 같은 연립 주택이 몇 채 들어서고 한 채에 여남은 가구씩, 북해도에서 왔다는 전채민들을 들여 정착시키자, 밤낮 조용한 날이 없게 시끄러운 마을로 변하면서 전채민촌이라는 새 이름이 붙은 곳이 되었다. 읍내의 지계꾼, 신기료장수, 리어카꾼과, 주체꼴이 남루한 낫선 사람은 모두 전채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 전채민촌이란 이름은 차츰 도둑놈 소굴이라는 뜻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갔다. 관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거나, 논밭에 심은 것이 축난 듯싶으면 으레 전채민촌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 버릇했고, 서툰 임고리장수가 들어서도 전채민촌 사람으로 판단, 물건을 갈아주기보다 집어 가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려는 도사림으로 냉대해 보내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웅쩍이는 조금 달랐다. 그네들의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었던 거였다. 굶다 못해 이불솜을 빼다 팔아 겨울에도 흠이 불을 덮는다든가, 변변한 옷가지는 죄 팔아먹어 주체꼴이 것처럼 비렁뱅이 꼴이라는 거였다. 그렇다면서 전채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A] “옥상, 오희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 전디겼슈.”

웅쩍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웅쩍이는 서슴지 않고,

“죽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륙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가운데서 내가 가장 깨닫기 수월했던 말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 운운하던 단어들이었다. 어떡하는 것이 주체 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함에 예사이고, 말을 얹으면 병신 대접 받기 십상인 줄 모르지 않으나, 주체 의식이나 주체성이란 말을 외래어보다도 막

[B] 연하게, 개나 걸이나 지껄여 대지 않으면 행세를 못하는 줄 알던 많은 사람을 보아 온 터여서, 그 천한 말을 웅쩍이는 일찍이 내게 행동으로써 보여 준 셈이라고 장담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한 번 더 다짐해 두지만, 그 무렵 웅쩍이의 태도를 주체 의식, 또는 주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면, 나는 그녀만 한 정신 자세를 가진 인간을, 내가 이 사회에 나와 벌어먹게 된 뒤로는 몇 사람 외에 구경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향품배: 지방의 낮은 벼슬아치들.

* 교전비: 혼례 때에 신부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3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여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사회 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9. 위 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 웅점이가 솜씨는 나무랄 데 없지만 통이 너무 커서 앞날이 걱정이야.
- ② 웅점이 자신: 나보고 오지랖이 넓다고들 하는데, 나 없으면 동네 큰 잔치는 누가 준비하지?
- ③ 장들뱅이 총각: 웅점이가 가난하지만 얹으면 색시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 ④ 근동 사람: 웅점이네 속사정을 잘 하는데, 웅점이가 사람만 놓고 보면 커다란 흠은 없지.
- ⑤ 절름발이 늙은이: 관춘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웅점은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주지.

40.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춘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계층 간 위계 의식이 남아 있는 공간이다.
- ② 전재민촌은 강한 내적 결속력을 가진 폐쇄적인 공간이다.
- ③ 관춘은 역동적인 공간임에 비해 전재민촌은 한적한 공간이다.
- ④ 관춘은 전재민촌과 달리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공간이다.
- ⑤ 관춘과 전재민촌은 모두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41. 위 글을 <보기>에 비추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관춘수필』은 전(傳)을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행적을 짚막하게 서술한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이다. 대개 ㉠ ‘인물 소개 - 주요 행적 - 인물평’의 순서로 구성된다. ㉡ 서술 대상은 주로 충신, 효자 등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중에는 하층민도 포함되어 있다. 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물평인데, 인물의 행적 요약, ㉢ 본받을 만한 덕목 제시, 작가의 최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 세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덧붙여지곤 한다. 인물평은 ㉤ 행적 부분과 구별되는 진술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A]는 ㉠의 ‘주요 행적’ 중 하나에 해당한다.
- ② 웅점이가 ㉡이 된 이유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다.
- ③ 서술자는 ㉢을 ‘주체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 나타난 세대 비판적 태도에서 ㉣을 엿볼 수 있다.
- ⑤ [B]의 어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은 연주를 통해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18세기의 바흐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음악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악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악보에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기호는 음높이를 나타내는 5선과 음자리표, 음길이를 나타내는 음표와 박자표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는 음악이 표현해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선은 음높이를 표시하는 실용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9세기경에는 선을 사용하지 않고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들 간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기 때문에 정확한 높낮이는 재현할 수 없었다. 이후 11세기경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을 기록했고, 현재 사용하는 5선 악보는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또한 11세기경부터 사용된 음자리표는 고정된 음높이를 명시하는 기능을 해, 음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는 13세기 말 ‘프랑코 기보법’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기보법에서는 네 종류의 음길이를 ㉠ 정하고, 이를 가장 긴 두플렉스통가부터 가장 짧은 세미브레비스까지 네 가지의 음표로 표기했다.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다양해졌다. 특히 다성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선율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구별되었는데, 여러 가지 음길이의 음표는 이를 표시하는 데 유용했다.

이름	두플렉스통가	통가	브레비스	세미브레비스
음표	■	■	■	◆

음길이의 표현인 리듬이 일정한 패턴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박자가 형성되며, 이를 표기한 것이 박자표이다. 음악의 흐름에는 강과 약의 박이 있다. ‘강-약’,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묶은 것이 각각 2박자, 3박자이다. 이렇게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 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14세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수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하였는데, 14세기가 되면서 불완전 분할인 2분할도 동등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 3분할과 2분할은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음높이는 5선과 음자리표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음길이는 음표와 박자표로 다양한 리듬과 규칙적인 박을 보여 주면서, 소리는 악보를 통해 그 의미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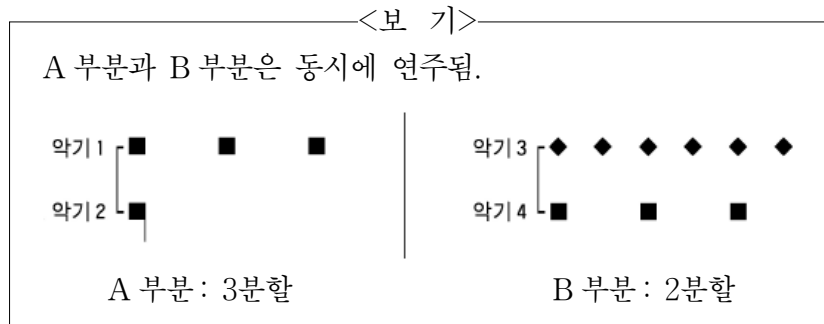
42. 위 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규칙적인 박을 표기한 후에 가능했다.
- ② 14세기의 악보에서는 음높이와 음길이의 표시가 가능했다.
- ③ 음자리표와 박자표는 모두 리듬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 ④ 9세기에는 가사에 맞는 상대적인 음길이를 표시했다.
- ⑤ 2선과 4선 악보에서는 음자리표를 볼 수 없다.

43. 위 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대조하여 진술한다.
- ②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 ④ 권위 있는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⑤ 대상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44. <보기>는 ‘프랑코 기보법’을 활용하여 ㉠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높이보다는 음길이에 관한 표현이군.
- ② A 부분은 완전 분할된 리듬을 보여 주는군.
- ③ A와 B 부분에서 악기 3의 리듬이 가장 빠르겠군.
- ④ A는 ‘강-약’으로, B는 ‘강-약-약’으로 연주될 수 있겠군.
- ⑤ A의 룡가 1개는 B의 세미브레비스 6개와 연주 시간이 같겠군.

45.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개정(改定)하고 ② 판정(判定)하고
- ③ 인정(認定)하고 ④ 추정(推定)하고
- ⑤ 설정(設定)하고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 B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r=0.9$)와 부품 2의 신뢰도($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 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0.1 \times 0.2 = 0.02$)을 빼서 얻은 0.98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중중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 중 k’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개의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점의 최줄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점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사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그 부품의 신뢰도)

46. ‘신뢰도 구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직렬 구조에서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②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 ③ $k=n$ 일 때, ‘n 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 ④ 2개의 부품이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 구조보다 직렬 구조에서 더 많다.
- ⑤ 신뢰도 0.98은 100번 작동에 98번 꼴로 고장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7. <보기>가 ㉠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본 카메라를 무상으로 ㉠ 보증하는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카메라는 ㉡ 0℃~40℃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 직사광선에 정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강한 전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 손실된 녹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8.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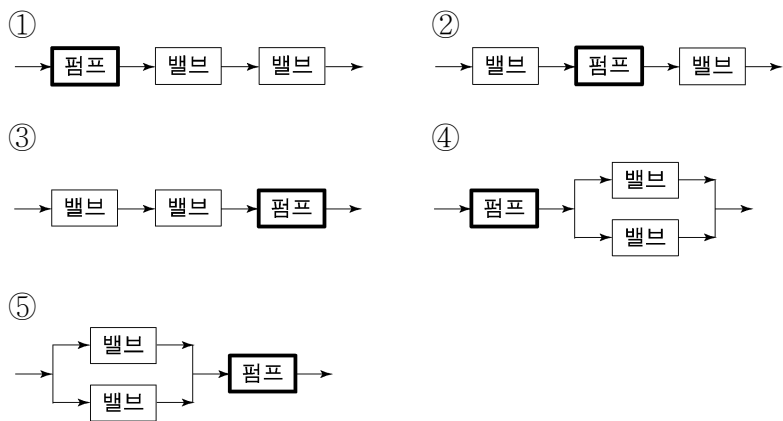
- ①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 ② 2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작동을 멈춘 청소기에 새 퓨즈 1개를 교체해 넣으니 다시 작동하였다.
- ③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
- ④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
- ⑤ 이중 제동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에서 제동 장치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하였다.

49.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보 기>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 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5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장미는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 ② 어떤 아이가 두 사람 가운데로 불쑥 끼어들었다.
- ③ 민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산다.
- ④ 진수는 반에서 키가 가운데는 된다.
- ⑤ 호수 가운데 조각배가 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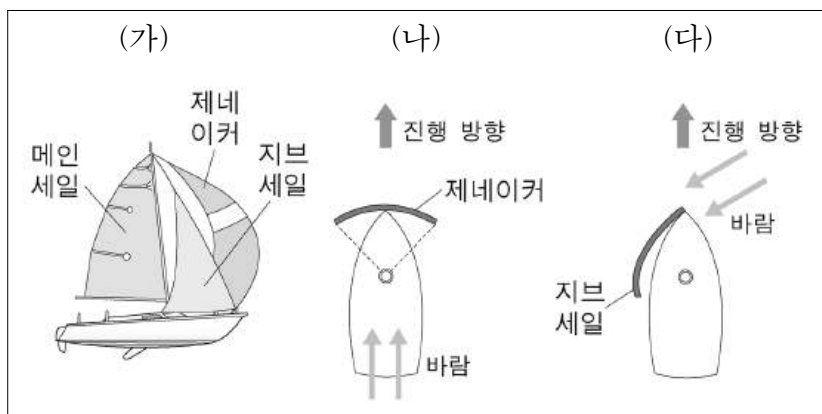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발표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오미자차’의 효능
- ② ‘오미자차’를 만드는 방법
- ③ ‘오미자차’를 마실 때의 유의점
- ④ ‘생맥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 ⑤ ‘생맥산’ 음료를 만드는 방법

2. (물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항해 중에는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메인세일’을 펼쳐 놓는군.
- ② 순풍이 불면 ‘제네이커’를, 역풍이 불면 ‘지브세일’을 이용하는군.
- ③ 부푼 ‘지브세일’의 앞쪽은 바람이 지나는 속도가 느리고 뒤쪽은 빠르군.
- ④ ‘지브세일’의 볼록한 앞쪽은 기압이 낮아지고 뒤쪽은 높아지는군.
- ⑤ 역풍에도 전진하는 요트의 비밀은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와 같군.

3. (물음)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발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 ① 들을 사람의 특성을 분석한다.
- ②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 ③ 발표 내용의 순서를 짜 본다.
- ④ 발표할 내용을 숙지한다.
- ⑤ 발표 연습을 해 본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김 교수가 소개한 두 지역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알맞은 것은?

목련동	장미동
① 다문화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② 다문화 센터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③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다문화 축제 지원 사업
④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⑤ 다문화 관광 특구 지정	외국인 취업 알선 센터 운영

5. (물음) 인터뷰에 적용된 진행자의 역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청취자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점을 질문한다.
 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할 기회를 준다.
 ㄷ. 화제를 의도적으로 전환하려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한다.
 ㄹ.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화제로 인터뷰를 시작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다음은 십자말풀이에서 떠올린 내용에 착안하여 ‘책 읽기’에 대해 편지를 쓴 것이다. ㉠~㉥ 중, 떠올린 내용으로부터 연상한 결과가 아닌 것은?

[십자말풀이]

1	감	칠	맛		3	형
	꼭					광
2	지	2	개	미		물
	시			3	소	질

가로 열쇠
1....
2....
3....

세로 열쇠
1....
2....
3....

[떠올린 내용]

십자말풀이를 할 때는,

- 쉬운 단어부터 풀어 나갈 수 있다.
- 풀어진 단어를 실마리로 삼아, 연결된 단어를 풀 수 있다.
- 잘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풀기도 한다.
- 글자 수가 같은 여러 단어를 넣어 본다.
- 십자말풀이를 다 끝내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착안점
십자말풀이책 도서 목록
한 단어씩 책 한 권

○○에게

이번 여름 방학에 과제로 읽어야 할 도서 목록을 받고 네가 걱정스러워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 어떤 말을 해 주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 네가 좋아하는 십자말풀이를 떠올렸단다.

십자말풀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떠올려 보렴.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렴. 그렇게 ㉡ 한 권의 책을 읽어 내면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야. ㉢ 책을 읽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찾아 도움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해 보는 방법도 있겠지. 나도 도와줄게. 분량이 많은 책을 읽어야 할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 하루에 읽을 분량을 일정하게 나누어 규칙적으로 읽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네가 ㉤ 방학 동안 읽어야 할 책을 모두 읽게 된다면 분명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거야.

- ① ㉠ ② ㉡ ③ ㉢
- ④ ㉣ ⑤ ㉤

7. 다음은 ‘습지 보전’을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상세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본문>에 들어갈 내용

1. 습지 보전의 장애 요인
가.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부족
나. 습지 보전 정책 미비

2. 습지 보전의 장애 요인 극복 방안
가. 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나. 습지 보전 정책의 보완
다. 습지 보전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 및 해소 노력

<보 기>

자료 A: 습지 보전에 대한 지역 주민 인터뷰

“해마다 습지를 찾는 철새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요. 습지 때문에 인근 지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습지 보전에 찬성하겠지만, 저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자료 B: 습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연구원(2008) -

자료 C: 습지 보전 사례

○○시에서는 습지 보전에 관한 지역민의 엇갈린 여론을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훼손되고 있던 습지를 생태 보전 지역으로 특화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습지 생태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소득 또한 늘게 되었다.

- ① ‘1’의 하위 항목으로 ‘습지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을 추가하고, A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습지 보전에 장애가 됨을 지적한다.
- ② ‘1-가’에 A와 B를 활용하여, 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습지 보전의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 ③ ‘2-가’를 ‘교육과 홍보로 습지 보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구체화하고, B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이 장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④ ‘2-나’에 C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습지 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한다.
- ⑤ ‘2-다’에 A와 C를 활용하여, 습지 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8. '중고 물품 교환 활성화'를 주제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목적	○ 정보 제공 및 설득을 통한 동참 유도
예상 독자	○ 검색을 통해 방문하는 사람, 주변 사람
자료 수집	○ 중고 물품 재활용 실태와 개선에 관한 설문 및 통계 자료 ○ 중고 물품 교환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
내용 선정	○ 중고 물품 교환을 위한 여건 미비 및 의식 부족 ○ 중고 물품 교환 장소와 이용 방법
조직	○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활성화 방안
매체 활용	○ 글의 내용에 어울리게 사진, 동영상 배치 ○ 설문 결과, 통계 자료의 다운로드 기능 제공

- ① [자료 수집] 네티즌이 활용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 물품 교환 사이트 목록'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내용 선정]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중고 물품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③ [내용 선정]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중고 물품 교환을 위한 일일 시장 개설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조직]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참 제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⑤ [매체 활용] 주제를 고려하여, '취미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 소개 및 주소 연결'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9. <보기>의 조건에 따라 졸업 앨범에 '친구들에게 남길 말'을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비유법과 생략법을 활용하기 ○ 친구들과의 추억을 내용으로 담기

- ① 너희들과 함께 먹던 순대, 떡볶이가 맛있었어.
언제나 웃으며 맞아 주던 매점 아줌마도 그리울 거야.
친구들아, 기억하렴, 보름달 같은 내 얼굴을.
- ② 나야, 농구대. 친구들아, 사랑해.
우리들의 앞날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어디서 무엇이 되든 꼭 다시 만나자.
- ③ 친구들아, 잘 지내라.
앞으로 멋진 날들을 만들었으면.
너희들의 친구, 이 고구마가 너희들의 행운을 빌게.

- ④ 잊지 말자, 우리들의 우정을.
우리가 함께 했던 나날들을.
언젠가 이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길.
- ⑤ 나야 나, 마른 장작. 잊지 않겠지?
너희들과 함께 뛰놀던 운동장이 생각날 거야.
졸업이 흩어지는 구름처럼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길.

10. 다음은 해외 탐방 참가자 공모를 보고 작성한 신청서의 일부이다. 고쳐 쓰기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신청 동기와 사전 준비 정도

올해의 탐방 참가자 공모를 보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 저를 선발해 주신다면 탐방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외 탐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방 지역으로 발표된 페루는 문화인류학에 관심 있는 제가 평소 가 보고 싶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잉카 문명에 대한 제 관심은 세계사 수업을 통해 싹틔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문헌들과 사진 자료들을 살펴보고 ㉢ 잉카 문명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탐방 예정지인 페루의 옛 도시 쿠스코와 마추픽추를 포함한 잉카 문명 유적지들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문화인류학적 가치가 큰 유적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직접 방문하여 당시 사람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보고 싶다는 ㉣ 소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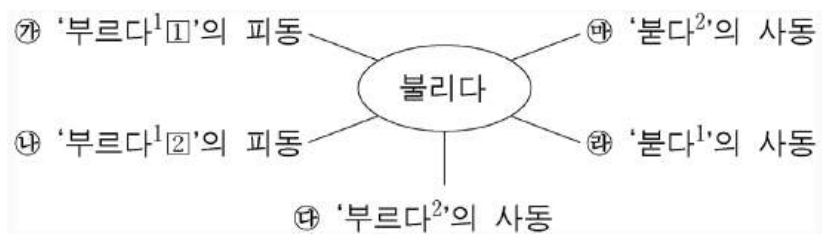
저는 탐방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미 잉카 문명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 조사했더니, 첨부한 계획서와 같이 이번 탐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심화 학습할 주제와 탐구 계획도 정해 놓았습니다.

- ① ㉠은 글의 소재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첫째 문단보다 둘째 문단에 어울리므로 둘째 문단의 처음으로 옮긴다.
- ③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잉카 문명에 매료되었습니다'로 수정한다.
- ④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로 고친다.
- ⑤ ㉤은 뒤에 이어진 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했으므로'로 대체한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부르다¹ ㉠ 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②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² ㉡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¹ ㉣ ㉤ 팔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² ㉥ ㉦ 환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①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부렸다.
- ② ㉡: 반장이 가장 먼저 부러 갔다.
- ③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부릴 수는 없었다.
- ④ ㉣: 그는 요즘 재산을 부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부려야 한다.

12. <보기>의 [A]에 들어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으로 구분하여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구나."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구나'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더라."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더-'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들이다.

[A]

- ① 딸: 오늘 날씨 어떻대요?
아버지: 눈이 아주 많이 온대.
- ② 여학생: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남학생: 나는 조금 있다가 먹을래.
- ③ 학생 1: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러서.
학생 2: 어찌지? 철수가 아직도 안 왔네.
- ④ 김 대리: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이 대리: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 ⑤ 아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어머니: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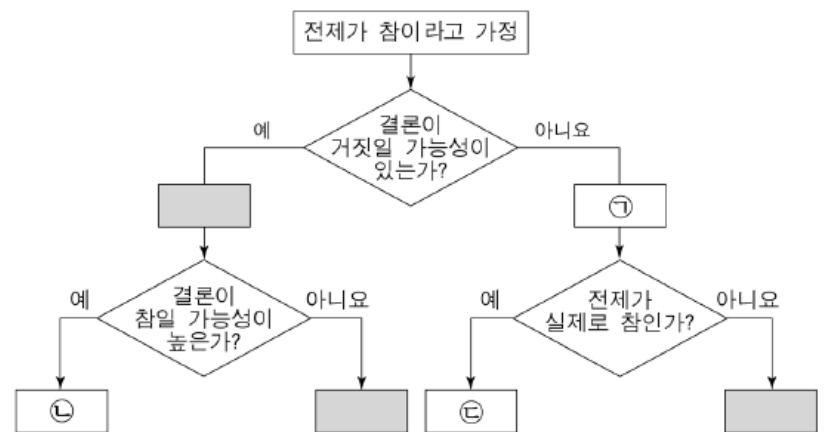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추론 1]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추론 2]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혹시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 추론은 '건전한'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한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13. 위 글에 따라 추론을 구분하는 과정을 도식화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 |
|--------------|------------|------------|
| <u>㉠</u> | <u>㉡</u> | <u>㉢</u> |
| ① 타당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건전한 추론 |
| ② 건전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타당한 추론 |
| ③ 타당한 추론 | 건전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④ 건전한 추론 | 타당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⑤ 개연성이 높은 추론 | 타당한 추론 | 건전한 추론 |

1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남자: 이 책에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다고 쓰여 있어.
 여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우유를 많이 마셔.
 남자: 맞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거야.
 여자: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가 큰 사람보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 ① 남자의 추론은 '추론 1'과 달리 전제가 실제로 참이므로 건전하다.
- ②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추론 2'와 달리 개연성이 낮다.
- ③ 여자는 남자의 추론에서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④ 남자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론 2'와 같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 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신제3기: 신생대 제3기 후반.
 * 고지자기: 과거 지구 자기장.

1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
-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
-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16. [A]에서 사용된 ㉦의 검증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한다.
 ㉧.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 경쟁 가설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비교한다.
 ㉩.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 ① 대기 대순환 ② 대륙의 크기 ③ 산맥의 높이
- ④ 해수의 온도 ⑤ 해양과의 거리

18. ㉠~㉣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 ② ㉡: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 ③ ㉢: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 ④ ㉣: 길러서 번식하게 함.
- ⑤ ㉧: 솟아올라 높아짐.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싸한 냄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디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계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

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①**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②**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3.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2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25. 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 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26.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 때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인다.

27.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摠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거조차 한 그녀의 낯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은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였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또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드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젠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걷히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 햇볕 속으로 나온 음지 식물처럼 삽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늘 늘한 콧물을 후룩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얻어 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은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젠 어머니의 그 야윈 손길마저도 아무런 ㉢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 우야이. ㉤ 꼬두메로 핑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귓전에서 맴을 돌았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열토당토않게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지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앳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곤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버렸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며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충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0. ㉤ 꼬두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다.
-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직했던 기간
- ② ㉡: 세상의 따뜻한 인정
- ③ ㉢: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
- ④ ㉣: 삶을 지탱해 주거나 도와줌
- ⑤ ㉤: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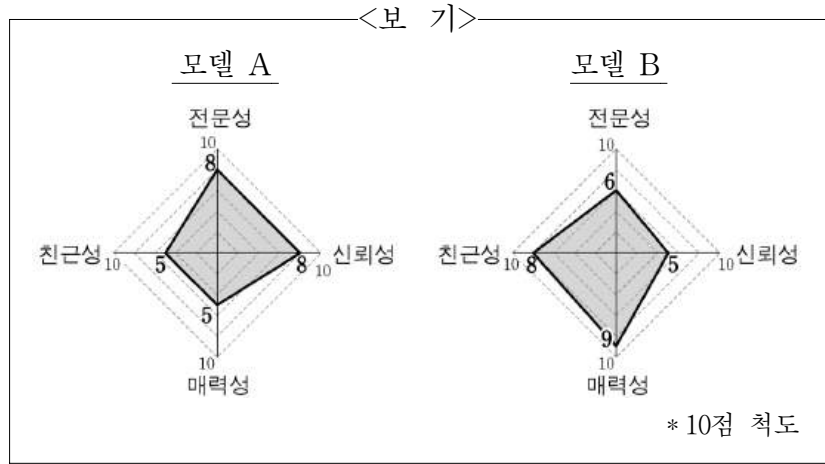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외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33. 위 글의 글쓴이의 입장에 따라 <보기>의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효과를 예상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델 A가 특정 카메라 광고에 계속해서 등장할 때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모델 A가 자동차, 보석 광고 등에 중복 등장할 때 기대했던 만큼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③ 모델 B가 치약 광고와 여행 광고에 등장할 때 두 광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④ 초콜릿 광고의 경우 모델 A보다 모델 B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 공기 청정기 광고의 경우 모델 B보다 모델 A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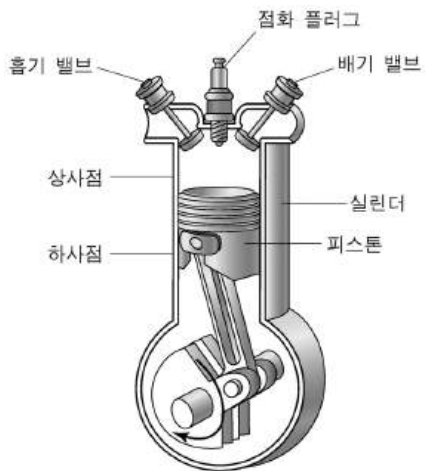
34. 위 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에 적합해야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② 유명인을 등장시킨 광고의 효과가 기대 이하여서 광고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광고 효과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 ③ 유명인 광고 모델이 현실에서의 비리나 추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광고하는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
 - ④ 광고를 많이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동시에 할 경우 광고의 효과가 커졌다는 사례가 있다.
 - ⑤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하면,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광고 횟수가 적어도 효과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5.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 ②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나온다.
 - ③ 하루 종일 찾던 지갑이 세탁물 속에서 나왔다.
 - ④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빨래를 못 했다.
 - ⑤ 며칠 전 씨를 뿌린 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 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흡기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유입되는데, 흡입되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공기와 함께 연료를 섞어 넣는다. 압축 행정에서는 ㉠ 실린더를 밀폐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폭발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일으켜 압축된 혼합 기체를 연소시킨다. 압축된 혼합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발생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남아 있는 압력에 의해 연소 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빠져나간다.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흡기 때와는 반대로 부피가 줄면서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높아지므로 잔류 가스가 모두 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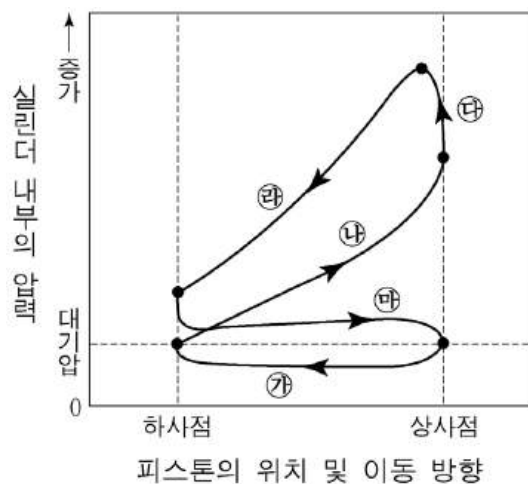
이러한 엔진의 동력 발생 주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연료의 혼합비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 일정 질량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한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이동으로 흡입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므로,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주기 동안 완전 연소 가능한 연료량의 최대치는 일정하다. 즉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와 연료의 적절한 혼합비는 이론적으로는 일정하다. 혼합비가 적절하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면서 유해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정 혼합비보다 혼합 기체에 포함된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공기 과잉으로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잔류한다.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대기압, 엔진의 회전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4 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된다.
- ②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 ③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④ 혼합 기체의 흡입과 연소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혼합 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37. 다음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에 해당하는 구간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해발 고도가 5,000 m 정도인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한 주기 동안 분사되는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①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 ②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③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된다.
- ⑤ 동일 양의 연료에서 얻는 출력이 커진다.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쾌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건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오마 ㉠ 웁은 내 물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년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찼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 살림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였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호수: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
 (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
 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
 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어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
 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
 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
 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
 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
 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
 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
 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
 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
 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말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뿔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쓰나
 아마도 겉 회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③ 나비아 청산 가자 뽕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 ⑤ 장공에 뺏는 술개 눈 살핍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옷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43.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삼가 성상께 글을 올리옵니다. 성상의 바른 다스림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살아갈 수 있었사옵습니다. ① 성상께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성상의 뜻과는 달리 ②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사옵습니다. 또한 ③ 지방관들은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서리나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사옵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사옵습니다. ④ 백성이 있어야 성상께서도 군주가 되시옵고, 벼슬아치들도 살 수 있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느르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생世尊尊’에서처럼 ㉠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생尊尊’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에’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했다.
-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4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보 기>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① London에 살아요.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46.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보기>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ㅇ'을 사용하여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된다.
-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 ⑤ 영어의 file을 '퐁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이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변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

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풀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계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왓,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왓,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왓,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왓,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줄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나라의 수도.

47.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4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5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학생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점]

- ① ‘꽃불’의 개념
- ② 개화 시간의 결정 요인
- ③ ‘별’을 배치하는 순서
- ④ 불꽃의 색깔 변화 원리
- ⑤ 불꽃 연출 효과의 종류

2. (물음) 세 학생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대학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건물이나 시설이 좋은 대학
- ②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주는 대학
- ③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주는 대학
- ④ 진로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주는 대학
- ⑤ 소외된 이들에 대해 나눔을 실천하는 대학

3. (물음) 강연자의 설명과 제안에 따라 여학생이 해야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썸,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지. 네가 늦으면 끝나는 시간도 늦어지고, 모두들 하루 계획이 엉망이 되잖아.
- ② 바쁘는데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면 정말 속상하지. 그래도 약속 시간을 어긴 건 어긴 거야. 그리고 넌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아.
- ③ 뛰어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숨이 가쁘구나. 하지만 네가 자꾸 약속 시간을 어기니까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나는 좀 화가 나.
- ④ 이렇게 자꾸 지각하면 친구들한테 비난을 들어 너도 기분 상할 거야. 나도 바쁘는데, 네가 늦으니까 연습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해서 좀 화가 나.
- ⑤ 네가 연습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성실해서 참 좋아. 그런데 네가 자꾸 늦으니까 솔직히 너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학생이 언급한 기부 문화 정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② 기부금 모금 행사에 대한 홍보
- ③ 일반 대중의 정기적인 기부 독려
- ④ 봉사를 통한 청소년 기부 활성화
- ⑤ 기부금 모금 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

5. (물음) 남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상대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
- ② 권위자의 이론에 기대어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상대의 의견과 절충하여 타협점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의 (가)~(다)를 활용하여 각 주제에 따라 쓸 내용을 연상하였다. 연상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잘 알려진 시장은 경쟁이 심해서 이익을 내기 어렵다. 그러나 새로운 발상과 기술로 개척된 시장은 잘 알려지지 않아 경쟁이 덜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나) 엄마가 두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 줄 때, 한 아이에게 피자를 자르게 하고 다른 아이에게 먼저 고르게 하면 좋다. 피자를 자른 아이가 피자를 나중에 선택한다는 걸 알면, 그 아이는 최대한 공평하게 자를 것이다. 피자를 자르지 않은 아이도 먼저 선택하므로 불만이 없다.

(다) 펭귄들은 바다에서 먹이를 구해야 하지만 바다로 뛰어 들기를 머뭇거리다. 바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천적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먼저 몸을 던지면 나머지 펭귄들도 뒤따라 뛰어들어 먹이를 잡는다.

활용 자료	주제	연상 내용
(가)	직업 선택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일지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다면 성공할 수 있다. ①
	효과적인 학습법	단순 암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과목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이다. ②
(나)	공동 생활의 지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추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③
	갈등 조정 방안	이해관계로 인한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려 할 때 지도자는 특정인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다)	사회 변화의 힘	잠재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머뭇거리는 대중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7~8] <보기>는 '청소년 상담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7번과 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자료 1> 통계 자료: 청소년의 고민 내용

구분	비율
공부	35%
진로	29%
외모	19%
환경 (학교, 학원, 가정 등)	11%
기타 (이성 친구, 용돈 등)	6%

<자료 2> 설문 조사: 청소년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점

구분	명수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까지 다시 말씀하신다.	128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부모님 생각만 말씀하신다.	116
부모님과 나는 서로의 잘못을 탓한다.	84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신다.	38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22

<자료 3> 연구 자료

청소년 대부분은 일상적인 고민을 방치하거나 혼자 해결하고 있다. 고민을 털어놓더라도 상대는 주로 친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자료 4> 보도 자료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상담 기관의 주요 사업은 가출, 폭력, 약물 중독과 같은 '위기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공부, 진로 등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에 대한 상담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7.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 <자료 3>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은 공부나 진로 등 일상적인 고민을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부모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이 고민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부모로부터 얻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자료 1>, <자료 4>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상적인 고민에 대해서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 ④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일상적 고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와 친구의 태도 변화를 제안한다.
- ⑤ <자료 4>를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 기관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영역도 확대해야 함을 제안한다.

8.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 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표지에 인상적인 문구를 넣으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상담을 바라는 청소년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할 것
- 비유를 써서 대조적으로 표현할 것

- ① 소나기만 문제는 아닙니다. 가랑비에도 옷이 젖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의 우산을 씌워 주세요.
- ② 방황하는 미운 오리도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 ③ 우리는 사랑의 햇볕을 받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되어 주세요.
- ④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반딧불이처럼 마음에 있는 빛을 지켜 가세요.
- ⑤ 엄격한 가르침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9. 문화재 답사를 다녀온 후 보고서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메모하였다. 메모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고서의 목적: 우리 지역 문화재를 조사하여 그 가치를 학우들에게 알린다.

○ 작성 시 유의할 점

1. '처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것
2. '중간' 부분의 구성과 내용
 - (1) 답사 경로가 드러나도록 구성할 것
 - (2) 문화재를 소재목으로 구성할 것
 - (3) 포함할 내용
 - 역사적 사실 정보
 - 문화재의 가치
 - 현장 답사 자료
3. '끝' 부분에 학우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할 것

- ①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시작해야겠다.
- ② 답사 순서에 따라 문화재들을 소재목으로 하고 각각의 제작 연대, 형태적 특징, 유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겠다.
- ③ 우리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역사적 가치, 미적 가치, 실용적 가치 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서술해야겠다.
- ④ 우리 지역 주민의 인터뷰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문화재 분포 지도를 포함하여 내용을 서술해야겠다.
- ⑤ 문화재 보존 정책 방안으로 훼손 문화재 복원 사업을 추진을 결의하면서 글을 끝맺어야겠다.

10. 독서반 학생이 독서 일기에 쓴 글이다. 친구들이 덧붙인 의견을 보고 글쓴이가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제목: 흥부전

고전을 읽는 이유는 고전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준다. 흥부전은 권선징악의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흥부와 놀부라는 인물 유형을 통해 바람직한 삶과 행복의 조건에 대해 끊임없이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고전에 나타난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사회, 교육 등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 시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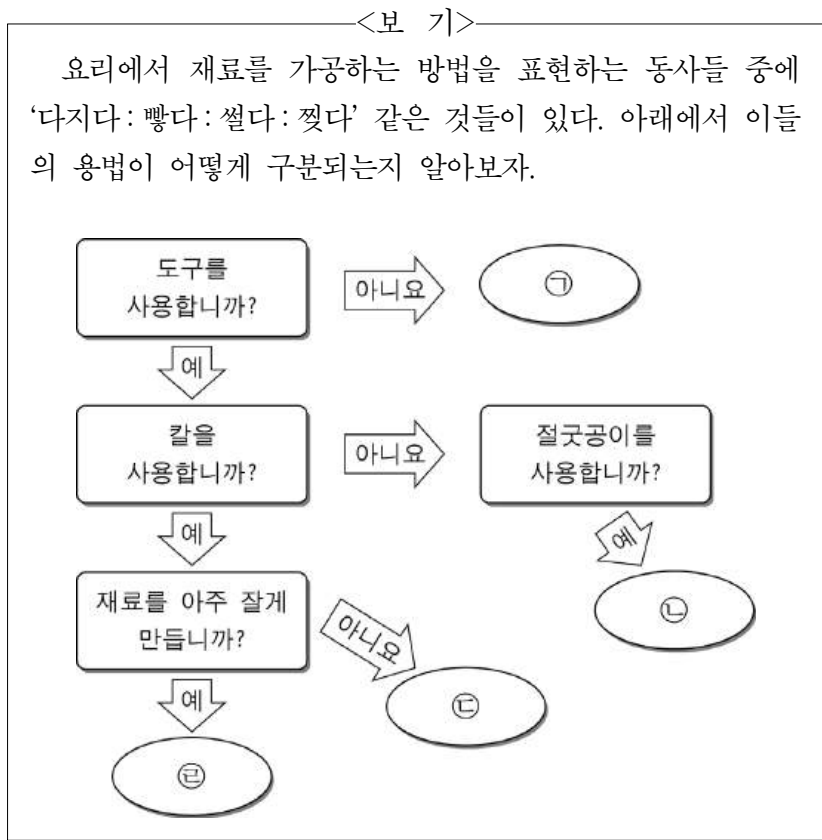
고전은 왜 읽는가? 컴퓨터만 켜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현실에서, 힘들여 고전을 읽는 일이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가 쌓아온 지혜의 보물 창고인 고전에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도 한 마 디	A: 제목만 보고는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B: 첫 번째 문장이 어딘지 어색하지 않아? C: 세 번째 문단이 다른 문단처럼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D: 난 흥부전이 고전으로서 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E: 그럼 옛날 책은 다 고전인 거야?
-----------------------	-----------------------------------------------------------------------------------------------------------------------------------------------------------------------

- ① A를 보니, 제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고전의 가치-흥부전을 읽는 이유'로 바꿔야겠어.
- ② B를 보니,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 '고전을 읽는 이유는 고전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로 바꿔야겠어.
- ③ C를 보니, 세 번째 문단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문단으로 옮겨야겠어.
- ④ D를 보니, 내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어. 흥부전에서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⑤ E를 보니, 고전의 개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고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읽을 만한 좋은 책을 뜻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① | 빵다 | 썰다 | 찢다 | 다지다 |
| ② | 빵다 | 썰다 | 다지다 | 찢다 |
| ③ | 찢다 | 빵다 | 썰다 | 다지다 |
| ④ | 찢다 | 빵다 | 다지다 | 썰다 |
| ⑤ | 다지다 | 찢다 | 빵다 | 썰다 |

12.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맑-도록 [기]	늡-지 [기]	읽-지 [기]
㉡	맑-게 [리]	늡-고 [리]	읽-거나 [리]
㉢	닭-같이 [기]	흙-과 [기]	춤-과 [기]
㉣	얹-도록 [리]	넓-지 [리]	밟-도록 [비]
㉤	얹-게 [리]	넓-고 [리]	밟-게 [비]

-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리'의 발음은 'ㄷ'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 ㉢를 보니, '리'의 발음은 'ㄷ'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 ㉣를 보니, '리'의 발음은 '기'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래'의 발음은 '얹-', '넓-'의 경우와 '밟-'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래'의 발음은 'ㄷ'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기'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발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발에 빠꾸기 소리
잔술발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별로 오면 별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별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별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랏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별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별’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별’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별’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별’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별’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광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7.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에 수립된 ㉠ 뉴턴의 역학 체계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취급하였는데 공간 좌표인 x, y, z 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즉,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물리량이며 모든 우주에서 동일한 빠르기로 흐르는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은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시간의 절대성 개념은 ㉡ 아인슈타인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대성 이론을 수립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광속을 c 라 하고 물체의 속도를 v 라고 할 때 시간은 $\frac{1}{\sqrt{1-(v/c)^2}}$ 배 팽창한다. 즉, 광속의 50%의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약 1.15 배 팽창하고, 광속의 99%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7.09 배 정도 팽창한다. v 가 c 에 비하여 아주 작을 경우에는 시간 팽창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v 가 c 에 접근하면 팽창률은 급격하게 커진다.

아인슈타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별개의 물리량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인 양이다. 따라서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지연이 생긴다.

19. ‘시간 팽창’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 바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계 바늘보다 빨리 움직인다.
- ②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 여행할 때, 지구에 정지해 있을 때보다 천천히 늙는다.
- ③ 사고로 갇혀 있는 조난자는 갇히기 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다.
- ④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평소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
- ⑤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별의 폭발 장면이 지금 지구에서 관측된다.

20. ㉠의 입장에서 ㉡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은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적이지 않다.
- ② 상대 시간 개념으로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 ③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이므로 우주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④ 시간과 공간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관련성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 ⑤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반대로 흐를 수 있으므로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꿀욕**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은데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은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은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 “네가 어이하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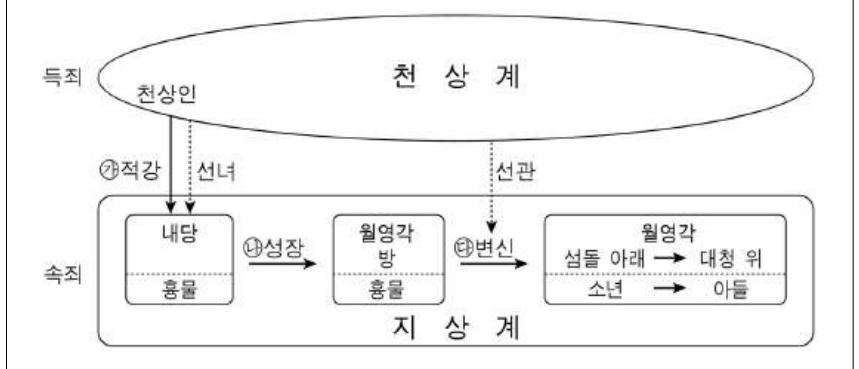
2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홍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홍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홍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흥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위 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라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택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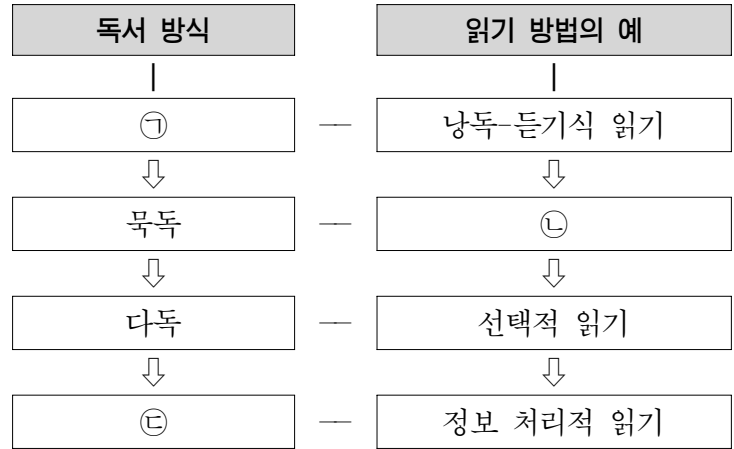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 필경사: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5. 위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① 음독 | 비판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② 음독 | 분석적 읽기 | 검색형 독서 |
| ③ 음독 | 분산형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④ 정독 | 분석적 읽기 | 집중형 독서 |
| ⑤ 정독 | 비판적 읽기 | 분산형 독서 |

2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 고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지녔다.
- ② 책자형 책의 여백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재독하는 등 읽기가 끊기는 현상은 낭독의 확산을 도왔다.
- ③ 묵독의 시대에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없었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과 관련된 책이 등장했다.
- ④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어형(語形)은 물론 절이나 문장의 배치를 빠르게 인식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⑤ 인쇄술의 보급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독자들의 요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었다.

27. [A]의 독서 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모티콘, 구어체의 축약 표기, 동영상 텍스트의 출현은 묵독 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이해돼.
- ② 텍스트를 잘라 붙이는 행위를 통해 원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읽기와 쓰기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원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정보를 복사하여 사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거나 저작권법을 어기기 쉬웠어.
- ④ 기존의 종이 책이나 고문헌 자료들을 전자 문서로 전환함으로써 지식의 검색과 활용의 범주가 확장되었어.
- ⑤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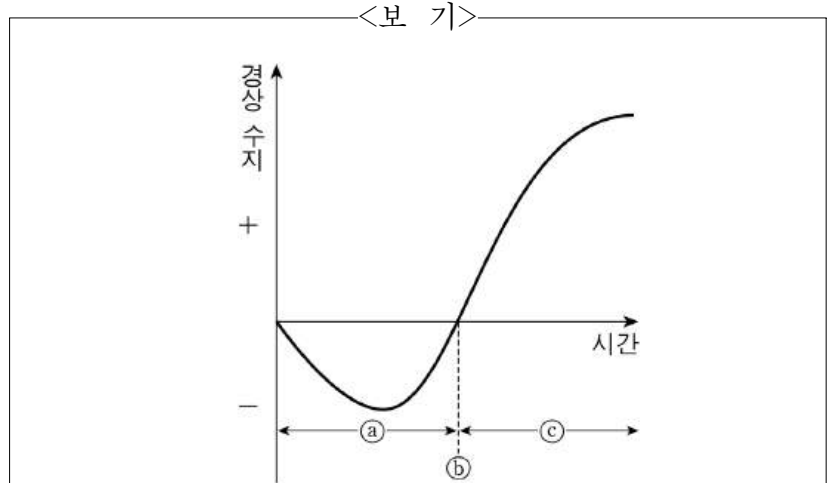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28.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31.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②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궁에서 쫓겨난 평강 공주는 대사와 함께 절로 가던 길에 온달을 만나 결혼한다. 10년 후 온달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온달이 장군이 되도록 돕는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주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닫던 별판이라 하나,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라.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합시다. 자, 돌아가십시오. (손짓을 한다.)

의병장들, ㉡관 뚜껑을 닫고 관을 올려놓은 반침의 채를 감는다.

공주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공주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살살이 가려내어 목을 베이리라. (공주, 움직인다.)

공주, 시녀, 관, 군사들, 서서히 퇴장.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장수1 (부장에게) 공주의 노여위하심이 두렵습니다.

장수2 필시 무슨 기미를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장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장수3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부장 어떻게 알았을까? (둘러보고) 너희들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금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는 생각 말아라.

장수들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부장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투구를 벗는 다. 머리를 쳐했다. 피가 배어 있다.)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이토록 신라 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음험한 웃음)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장수들 (비위 맞추는 너털웃음)

부장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략)

장교 (공주에게) 자, 걸으시오.

공주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장교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공주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이냐? 정 그렇다면 근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장교 정 안 가지겠소?

공주 (분을 누르며)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타이르듯)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들은 채를 얹고) ㉣정 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 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공주 어머니.

장교 편하게 해 드러라.

[A]

병사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서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눕는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2, ㉤큰 비단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싼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儀典)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대사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남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 장군: 온달.

* 온모: 온달의 어머니.

32.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주는 장군의 죽음에 반역자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
- ② 장수들은 부장의 머리 상처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부장은 공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④ 장교는 부장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다.
- 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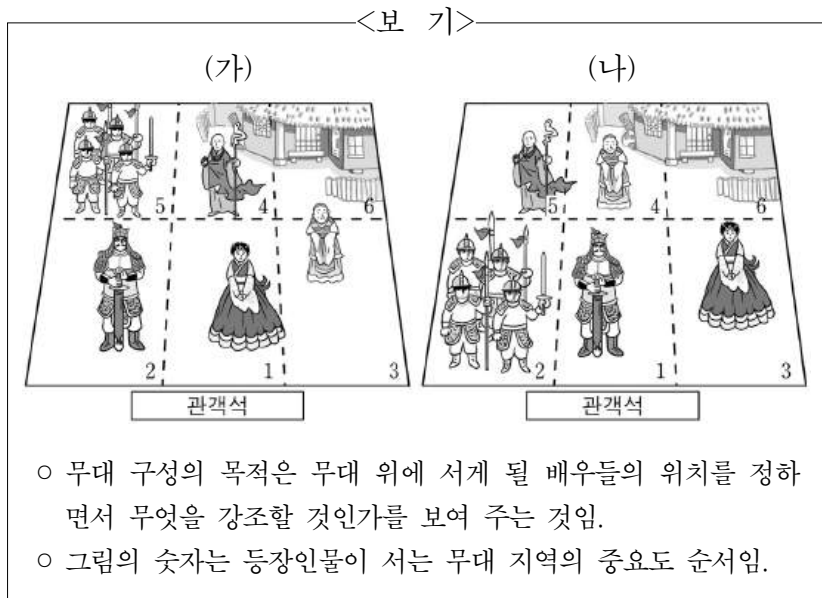
33.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고전 비극의 형식을 모방하여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이야기'를 재창작하면서 설화가 지니는 비현실적 요소를 여전히 남겨 놓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4. [A]를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두 명의 연출가가 [A]의 첫 장면의 무대 구성을 <보기>와 같이 짜 보았다. 연출 의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인물의 배치만 고려할 것) [3점]



- ① (가)에서는 대사를 공주와 가깝게 배치하여 (나)에 비해 대사와 공주와의 친밀도를 더 부각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는 장교를 2번 지역에 배치하여 (나)에 비해 장교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겠군.
- ③ (가)에서는 장교·병사들과 공주·대사·온모를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여 (나)에 비해 두 집단의 갈등 관계를 더 강조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는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온모를 다른 인물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는 온모의 역할을 (나)에 비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는 병사들을 2번 지역에 배치하여 (가)에 비해 위압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겠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이시다 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까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뱉으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

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행동하란 말이에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중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행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얘길 했더랬어. 전생애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네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루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중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 집 안방과** 다들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켈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했수로 일 년 넘기는 긴데, 헤헤. 그렇게 했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 푯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

다. 구레나룻 시커면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점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이면 ㉡ 맞춤 중학 교복을 입고 뽀넬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판 봐여.”
 - 김원일, 「잠시 눕는 풀」 -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36.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중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37. ㉠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 ⑤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39~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악사학자들은 서양 음악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 찾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이 향유하던 음악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 실체를 밝힐 문헌 자료가 충분치 않고, 현존하는 자료의 대부분이 음악 그 자체보다는 이론이 어떠했는지의 정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에게 음악은 기에 영역이라기보다 학문적 영역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에 ㉠ 내재한 수학적 사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음악에서 수학적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 “만물은 수(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하여, ㉣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가 ㉤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도와 한 옥타브 위의 도’는 2:1, 도와 솔의 5도는 3:2, 솔과 그 위 도’의 4도는 4: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이 그것인데, ㉥ 5도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 하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기도 하다.

(다) 음악을 수학의 눈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음악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음악관을 비판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음악을 바라본다. 그는 '감각적 지각'이 수적 비율보다 음악을 판단하는 데에 더 근본적이라 주장하며, 이를 미적 체험의 바탕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5도를 아름답다고 들었을 때, 그것이 왜 아름답게 들리는지를 수리적 추리를 통해 이해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로 지각된 소리를 근거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이고 현상론적인 입장에서 오늘날 서양 음악의 기초가 되는 리듬과 멜로디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당시 통용되던 음악 현상들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였다. 논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의 학문 성향은 **음악주의자**라고 불리는 후대의 많은 이론가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음악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려는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는 비판받았다.

(마) 고대 그리스 음악 이론의 두 전통은 논리이나 경험이나의 대조적인 사유의 두 축을 이루며, 서양 음악 이론의 맥을 형성하였다. 이 두 전통에 **배어** 있는 대립적 성향은 비단 이론뿐 아니라, 창작·연주·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평가하는 잣대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9.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가): 비유적 진술을 통해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③ (다): 관점의 차이를 부각하며 다른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앞 단락의 내용과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마):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40. <보기>를 읽고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의 음악 이론가 보이티우스는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가장 높은 단계의 ㉠ **뮤지카 문다나**는 천체나 지구가 만들어 내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수(數)적 조화를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인 ㉡ **뮤지카 휴마나**는 우주 질서의 영향을 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의 조화를 일컫는 말이다. 이 두 단계의 음악이 귀로 들을 수 없는 정신적 상태를 뜻한다면, 세 번째 단계인 ㉢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인간의 목소리를 포함한 악기들의 물리적인 소리들이 음향학적 원칙들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 ① ㉠의 생각은 ㉡로 전승되었군.
- ② ㉢의 행위에 의해 ㉡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이 구현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④ ㉢이 음향학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의 차원이겠군.
- ⑤ ㉢을 구현하면 ㉡가 되겠군.

41. **음악주의자**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첼리스트 카잘스는 연주 전, 악곡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음악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였다.
- ② 음악 애호가 영수는 음악을 감상할 때 음악 요소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탐구하였다.
- ③ 성악가 수희는 독창회 준비 과정에서 음반을 들으며 악곡의 분위기를 익혔다.
- ④ 음악 이론가 베빗은 베베른의 음악에서 대칭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 ⑤ 작곡가 노노는 악곡 설계 과정에서 피보나치수열을 적용하였다.

4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첼로를 전공하는 윤지는 음향학 시간에 배운 음정의 원리를 C현에 적용하고 있다. 윤지는 도가 소리 나는 이 C현을 12등분하여, 확장된 비례식 12:9:8:6을 가지고 옥타브 안에 존재하는 5도, 4도, 온음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① [도-솔]과 [파-도']의 음정은 같겠군.
- ② 옥타브는 5도와 4도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옥타브는 두 개의 4도와 한 개의 온음으로 구성되겠군.
- ④ 현 길이의 비가 12:8인 두 현을 켜면 4도가 소리 나겠군.
- ⑤ 현 길이의 비 9:8은 5도와 4도의 차이인 온음에 해당하겠군.

43. ㉠과 ㉢을 공통으로 대치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겹쳐 있는 ② 들어 있는 ③ 쏠려 있는
- ④ 안겨 있는 ⑤ 얹혀 있는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인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을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될 행복의 양들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은 더 위험하다. ㉡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을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44. <보기>의 '갑'의 행동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선하다고 평가할 때,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몸살로 집에 누워 있는 친구를 간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다친 운전자를 목격했다. '갑'은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그를 급히 응급실로 옮겨서 다행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갑'은 친구를 간호할 수는 없었다.

- ① '갑'은 전체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동했군.
- ② '갑'은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이 행복해진다고 판단했겠군.
- ③ '갑'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군.
- ④ '갑'은 몸살 환자보다 다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한다고 판단했겠군.
- ⑤ '갑'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선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했겠군.

45. ㉠에 대해 [반공리주의자]가 예상하는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할 것이다.
- ② 증언의 결과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 ③ B 집단의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킬 것이다.
- ⑤ 가해자에 관한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46. [A]의 규칙 공리주의자와 <보기>의 의무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의무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산출되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어.
- ② 의무론자는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
- ③ 의무론자와 규칙 공리주의자는 모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 ④ 의무론자는 규칙의 절대성을,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를 강조했어.
- ⑤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했어.

47. 밑줄 친 부분이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1점]

- ①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
- ② 누구라도 나를 잘 따르면 귀여워할 수밖에 없다.
- ③ 누구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 ④ 네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르면 좋은 요리사가 될 거다.
- 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맞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10^{-9} m)에서 수 마이크로미터(10^{-6} m)인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이다. 응답 감도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 저항값(R_s)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서 측정된 저항값(R_{air})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는 감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한편,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정상 상태로 흡착돼 있는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탈착되는 데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흡착: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가 달라붙는 현상.
* 탈착: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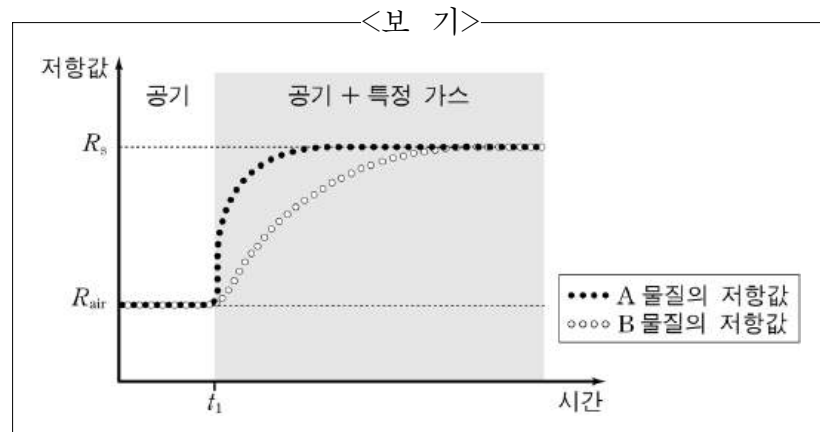
4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가스 흡착 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
- ② 인간은 후각을 이용하여 유해 가스 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회복 시간이 길어야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
- ⑤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의 탈착 전후에 변화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49.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 ② 체육 시간에 안정적인 자세로 물구나무를 서서 박수를 받았다.
- ③ 모형 항공기가 처음에는 맞바람에 요동쳤으나 곧 안정되어 활강하였다.
- ④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며 공을 던졌으나 50m 이상 날아가지 않았다.
- ⑤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걸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 항상 분당 128~130 회였다.

50. 산화물 반도체 물질 A와 B를 각각 이용한 두 센서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여 <보기>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 가스이다.
- ②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③ 응답 시간은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④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에는 공기 중에서 A와 B의 저항값이 같다.
- ⑤ t_1 직후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크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출수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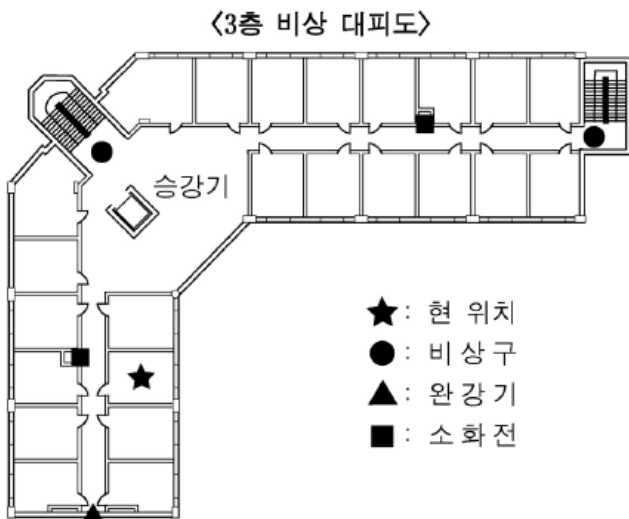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 ②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
- ③ 인격 도야를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④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2. (물음) 방송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글로워를 통과한 피는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흐른다.
- ② 글로워는 추울 때 피부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 ③ 글로워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면서 열린다.
- ④ 글로워는 동정맥문합이라 불리며 피부 가까이 분포해 있다.
- ⑤ 글로워는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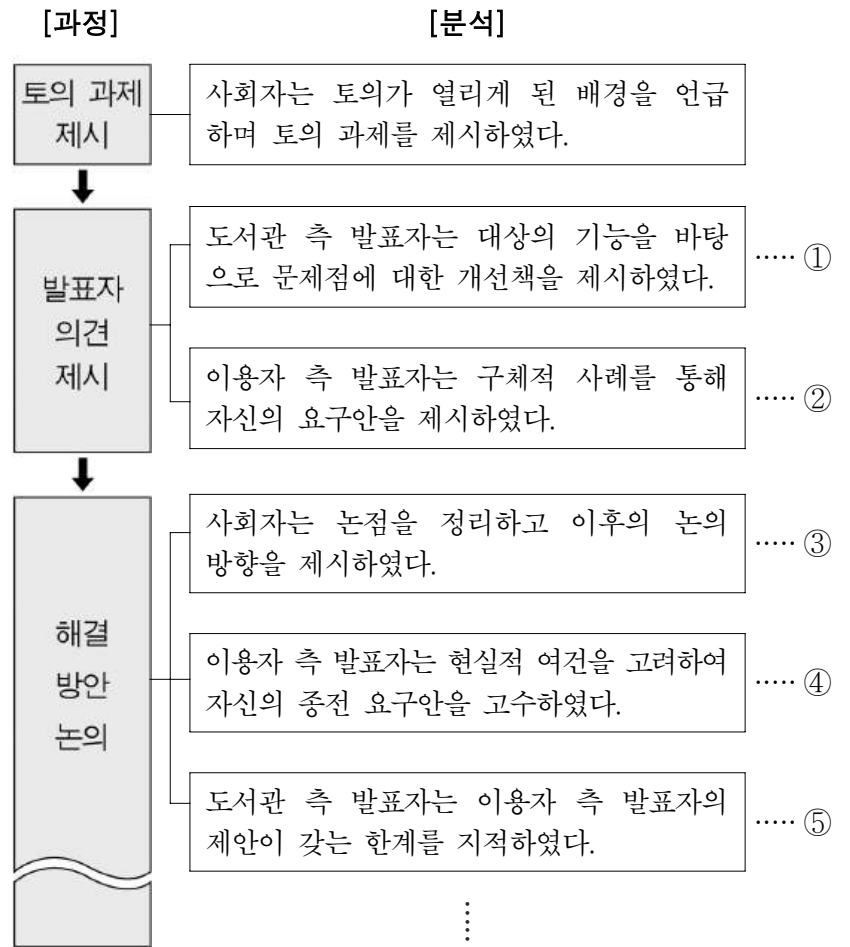
3. (물음) 아빠의 말에 근거하여 현 위치에서 딸이 비상시에 취할 수 있는 행동 요령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불이 나면 승강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비상문으로 나간다.
- ② 피난 기구를 이용하려면 건물 끝 비상구 쪽 2층으로 간다.
- ③ 옥상으로 가려면 객실 앞 복도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과 반대쪽으로 간다.
- ④ 비상경보를 울리려면 객실 맞은편 벽에서 발신기를 찾는다.
- ⑤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찾으려면 완강기가 있는 쪽으로 간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토의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물음) 도서관에 접수된 건의 사항 중 도서관 측 발표자가 이번 토의에 반영한 것은?

- ① 개가식 열람실의 좌석을 늘려 주세요.
- ②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많이 비치해 주세요.
- ③ 개인 사물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 ④ 일반 열람실의 주말 개방 시간을 연장해 주세요.
- ⑤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료 구입을 신청하게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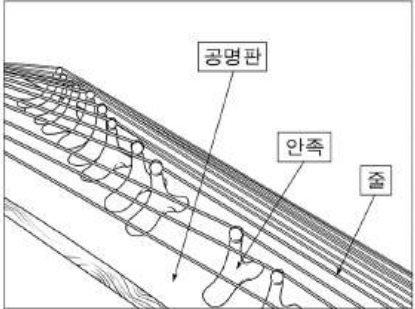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에 착안하여 ‘좋은 문학 작품의 창작’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야금은 공명판, 줄, 안족(雁足)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야금이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공명판이 될 만한 좋은 나무를 골라 오랜 기간 잘 건조시켜야 하고, 줄과 안족도 좋은 재료를 골라 잘 손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야금에서 이들 각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자기 자리를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소리가 맑고 선명하게 울리는 명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만드는 사람의 음감도 중요합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악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 가야금 장인 ○○○ 씨와의 대담 -



착안점	가야금 ≙ 문학 작품
-----	-------------

- ① 의도대로 작품이 창작되었는지 예상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감동적인 작품을 쓰려면 작가는 문학적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 ③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감을 선별해야 한다.
- ④ 작품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글감을 다듬어야 한다.
- ⑤ 작품의 요소들끼리 긴밀한 짜임새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7. ‘리셋 증후군’의 증상과 예방에 대한 글을 교지에 신고자 할 때,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기사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 현실에서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버튼을 눌러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증상을 ‘리셋 증후군’이라 한다. 이 증후군은 컴퓨터를 ‘리셋’하듯, 힘든 일에 부딪힐 때 책임감 없이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쉽게 맺고 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 현실과 가상 세계를 혼동해 극단적인 일을 실제로 저지르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 ○○ 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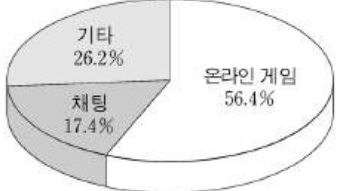
(나) 인터뷰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기회가 없다 보니,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온라인 게임에 쉽게 빠져 들고 이로 인해 리셋 증후군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게임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 목적이나 시간을 스스로 정해 적절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 청소년 상담 센터 ○○○ 소장 -

(다) 통계 자료

1. 우리나라 중고생의 99% 이상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소년 인터넷 이용 유형



- ① (가)를 활용하여, 리셋 증후군의 증상으로 무책임한 태도, 인간관계 소홀, 극단적인 행동이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 생활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마련하는 일이 리셋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됨을 제시한다.
-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처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리셋 증후군이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리셋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 가운데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형이 가장 많음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온라인 게임 위주의 이용이 리셋 증후군 유발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8. <보기>는 ‘우리 학교 직업 체험 활동의 내실화’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검토 내용과 수정 방안이 모두 적절한 것은?

<보 기>

I. 직업 체험 활동의 의의	
1. 직업 체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증대 ㉠	
2. 직업 탐색을 통한 진로 선택 기준 제공 ㉡	
3. 직업과 관련한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유발 ㉢	
II. 우리 학교 직업 체험 활동의 문제점 ㉣	
1. 간접 체험 위주의 활동	
2. 학생들의 적성 미반영	
3.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중복	
III. 우리 학교 직업 체험 활동의 개선 방향 ㉤	
1. 직접 체험의 비중 강화	
2. 학생들의 적성 검사 결과 반영	
IV. 실질적인 직업 체험 활동으로의 전환 촉구 ㉥	

	검토 내용	수정 방안
①	㉠은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이 떨어짐.	‘직업 체험 활동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수정한다.
②	㉡과 ㉢은 내용이 서로 중복됨.	㉡은 남기고 ㉢은 삭제한다.
③	㉣은 하위 항목들을 포괄하지 못함.	‘우리 학교 직업 체험 활동의 과정’으로 바꾼다.
④	㉤은 II의 하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용의 보충이 필요함.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차별화’를 하위 항목으로 넣는다.
⑤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임.	‘직업 선택 기준에 관한 발상의 전환 촉구’로 바꾼다.

[9~10] 다음은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들이 출시되면서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폐휴대전화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폐휴대전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소중한 금속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을 ㉡ 낮추는 데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폐휴대전화 속에는 금, 은 등의 귀한 금속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 한편 폐휴대전화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속에 ㉣ 파묻히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 이들 자원을 폐휴대전화에서 추출하여 재활용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첫째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 ② ㉡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줄이는’으로 바뀌어야겠어.
- ③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므로 ‘파묻히면’으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셋째 문단의 문맥을 고려할 때 ㉤으로 옮겨야겠어.
- ⑤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10. 위 글을 고쳐 쓴 후, 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보 기>

○ 폐휴대전화의 양면성을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할 것
○ 활용의 방식으로 표현하여 호소력을 높일 것

- ①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
우리에게 맡기세요, 폐휴대전화. 지구가 아프지 않게.
- ② 우리에게 버리세요, 꼭꼭 숨어 있는 폐휴대전화.
환경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③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오랜 친구 폐휴대전화.
한데 모아 다시 쓰면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 ④ 관심만 있다면 쓰레기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자는 폐휴대전화, 다시 써서 깨끗한 세상 만들어요.
- ⑤ 버리면 해로운 쓰레기가 되지만,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요.
폐휴대전화 수거에 동참하세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11.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감기가 <u>들다</u> .	ㄴ. 가방을 <u>들다</u> .
ㄷ. 단풍이 <u>들다</u> .	ㄹ. 고개를 <u>들다</u> .
ㄹ. 반기를 <u>들다</u> .	ㅁ. 보험을 <u>들다</u> .

- | A | B |
|--------------|------------|
| ① ㄱ, ㄷ | ㄴ, ㄹ, ㅁ, ㅂ |
| ② ㄱ, ㄷ, ㅁ | ㄴ, ㄹ, ㅂ |
| ③ ㄱ, ㄷ, ㅂ | ㄴ, ㄹ, ㅁ |
| ④ ㄱ, ㄹ, ㅁ | ㄴ, ㄷ, ㅂ |
| ⑤ ㄱ, ㄷ, ㄹ, ㅂ | ㄴ, ㅁ |

12.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흠이불

- ① ㉠을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뽕’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깍뚜기’가 아니라 ‘깍뚜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뻐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리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 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 정: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17.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
- ②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 ③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
- ④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영향
- ⑤ 자산이 단행한 개혁에 대한 계승

18. 위 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백성: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군.
- ② 백성: 법을 알기 위해 우리도 글을 배워야겠군.
- ③ 백성: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겠군.
- ④ 귀족: 백성도 토지를 소유하니 우리 입지가 약화되겠군.
- ⑤ 귀족: 중간 계급의 정치력 강화에 맞서 법치 전통을 세워야겠군.

19.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게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20.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
- ② ㉡: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 ③ ㉢: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 ④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A. L. 웨버는 대표작 <캐츠>의 일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 최근의 관점

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이지 않을 때,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체계 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
- ② ㉡은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다.
- ③ ㉠과 ㉡이 적용되는 예술 장르는 서로 다르다.
- ④ ㉡은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 이론이다.
- ⑤ ㉡은 ㉠에 비해 더 진지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다.

22. <캐츠>에 대한 감상 중 ㉣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 ② 감독이 고양이들의 등장 장면에서 채택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오히려 방해해서 실망했어요.
- ③ 늙은 암고양이의 회한이 담긴 노래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요.
- ④ 기발한 조명과 의상이 사용된 것을 보고,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 ⑤ 의인화된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이 노래들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2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종합 예술의 기원인 ㉤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 ① ㉤는 즐거움의 제공을, ㉥는 교훈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군.
- ② ㉤는 자기 연관적이지만, ㉥는 외적 연관에 의해 지배되는군.
- ③ ㉤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는 미적 유희를 추구하는군.
- ④ ㉤와 ㉥는 모두 고전적 기준에 따라 높이 평가될 수 있군.
- ⑤ ㉤와 ㉥는 모두 각각의 시대에 걸맞은 ‘레뷰’라고 볼 수 있군.

24.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멸시(蔑視)한다면
- ② 천시(賤視)한다면
- ③ 등한시(等閑視)한다면
- ④ 문제시(問題視)한다면
- ⑤ 이단시(異端視)한다면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포인터:	저장소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0000:	산 이름 다음 포인터
1000:	백두	1000:	백두 1008
1001:	설악	1002:	㉠ ㉡
1002:	지리	1004:	지리 1006
1003:	한라	1006:	한라 ----
1004:		1008:	설악 ㉢1004
:		:	

<그림 1> 배열 <그림 2> 연결 리스트

㉡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은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와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2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
- ② 자료 접근 과정은 사용하는 자료 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 ③ ‘배열’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
- ④ ‘연결 리스트’는 저장되는 전체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할 때 편리하다.
- ⑤ ‘이중 연결 리스트’의 한 저장소에는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26. ㉠~㉢에 대해 <보기>의 실험을 한 후 얻은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동일 수의 자료를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차례로 실행하였다.

* 단, 충분히 많은 양의 자료로 충분한 횟수만큼 실험을 하되,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자료의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함.

- ① ㉠은 ㉡에 비해 삭제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②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③ ㉡은 ㉠에 비해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④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⑤ ㉢은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A]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살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B]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꺾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흘던질 제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C]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 라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불거리에 구속되어 큰 불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30.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31. ㉡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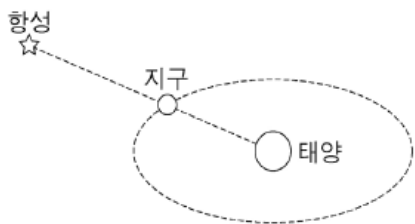
- ① 휴양림을 늘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별곡」을 읽어야 해.
-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 ⑤ 내가 한라산을 가 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이기 때문이야.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A]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33.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36.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딛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그리고 ㉦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스'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3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38.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5세기] 그 새 겨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겨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겨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겨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39.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 가락 ○ 빼빼하다 ○ 연필	㉠	가락연필 ①
		㉡	빼빼한연필 ②
스캔하다	○ 읽다 ○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③
스파게티	○ 부드럽다 ○ 새콤달콤하다 ○ 국수	㉣	부드럽국수 ④
		㉤	새콤달콤국수 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쭉,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겠이야이.”

㉡ “……”

“난 원래 다리에 ㉢ 담즙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춥다.”

㉤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헌 것 같아야이.”

㉥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별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걸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쭉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고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호호호.”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낫색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뼈득대? 뼈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 ②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 ④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42. 위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고자 할 때, ㉠~㉣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② ㉡에서는 ‘놀라 돌아다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에서는 춤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④ ㉣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에서는 ‘부러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43.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④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 준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 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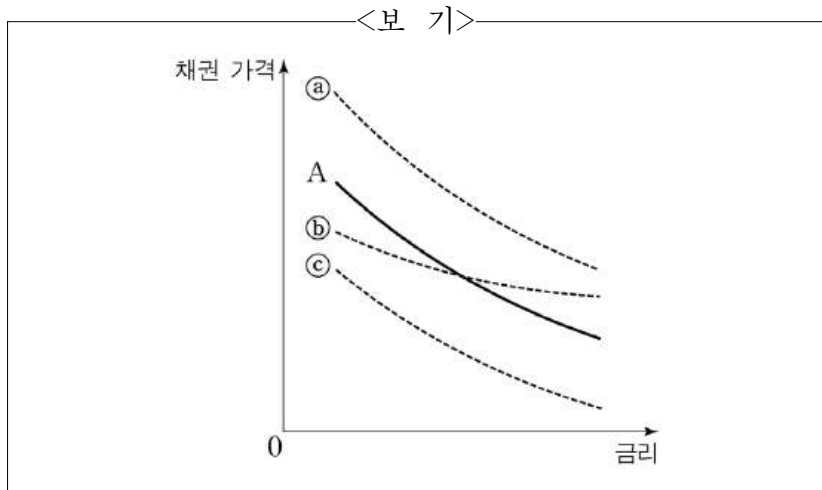
44.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45.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 |
|---|---|---|
| | ㉠ | ㉡ |
| ① | a | c |
| ② | b | a |
| ③ | b | c |
| ④ | c | a |
| ⑤ | c | b |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이 꾀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 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 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 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 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 나면 길(吉)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 길에 올라 조정에 섰을 때 마음 씩씩이가 어떠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엄히 갖춘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
 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피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씻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초사: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4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했다.
- ② ‘특’은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 ③ ‘맹인의 이웃’이 들은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갔다.
- ④ ‘대군’은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했다.
- ⑤ ‘은섬’은 억울해 하면서도 다른 궁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48.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 ②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③ 담 안의 궁녀들은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
- ④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⑤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는 공간이다.

49.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 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을 억압하는 ‘대군’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반면, 음모를 꾸민 ‘특’은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된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위기도 어느 고전 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띠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드러낸다.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군.
-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나는군.
- 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 밖에 없었다는 ‘은섬’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50. ‘특’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이었으나 겨우 도망했습니다.”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 ② 명재경각(命在頃刻)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을 들려주기에 가장 적절한 친구는? [1점]

- ① 노력 없이 성공하여 자만하는 친구
- ② 어려운 상황에 처해 괴로워하는 친구
- ③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친구
- ④ 자기만 생각하고 배려심이 부족한 친구
- ⑤ 성과를 얻었는데도 더 욕심을 내는 친구

2. (물음) 강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1920년대에도 3D 영화가 제작된 적이 있다.
- ② 사람은 두 눈의 시차 때문에 입체감을 느낀다.
- ③ 3D 영상을 만들 때에는 시간을 두고 두 번 촬영한다.
- ④ 셔터 방식은 화면에 두 가지 영상을 번갈아 표시한다.
- ⑤ 필터 방식은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낸다.

3. (물음) 인터뷰를 듣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 ① 스포츠마케팅의 목적
- ②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
- ③ 스포츠마케팅의 향후 전망
- ④ 스포츠마케팅이 적용된 사례
- ⑤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능력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다음은 학급 회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각 발언자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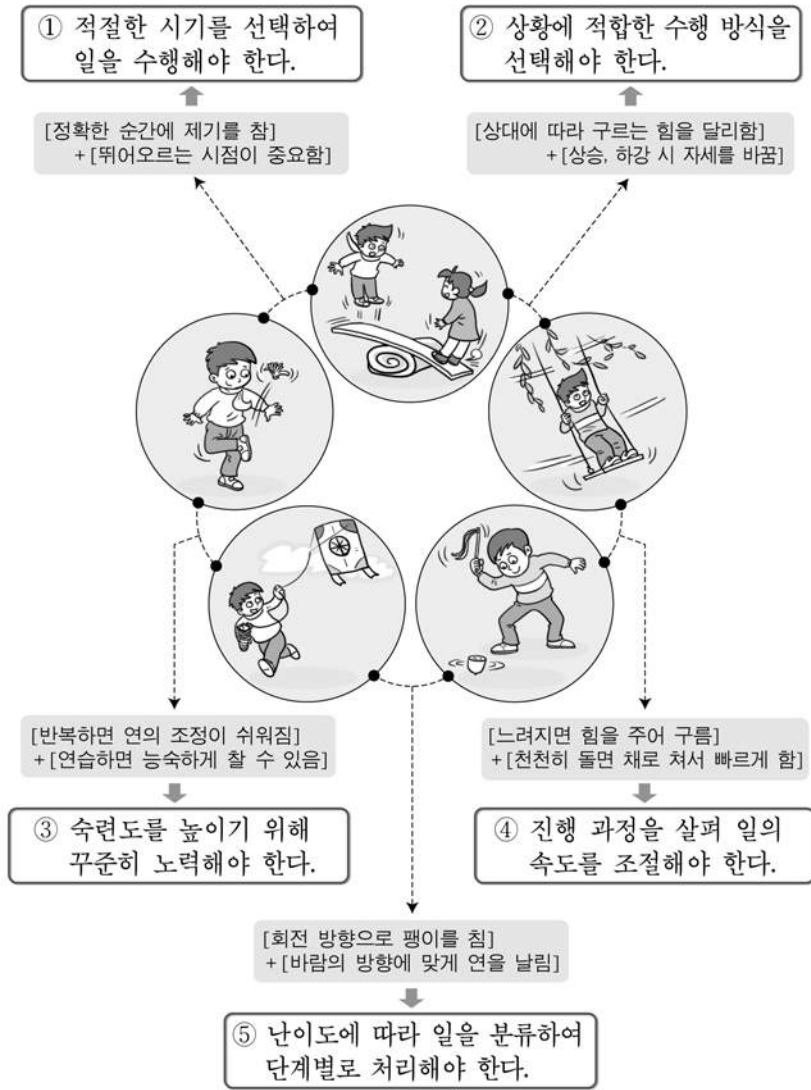
발언자	발언 내용
의장	학급 여행지 선정 투표 방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함.
제안자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하고 설명함. ①
반대자	처음에 1순위 표가 많았던 후보지가 선호도 투표로 인해 탈락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함. ②
제안자	과반수가 동의하더라도 나머지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주장함. ③
반대자	1, 2, 3순위 표의 가치가 달리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함. ④
제안자	선호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자고 수정 제안함. ⑤

5.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②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 ③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며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④ 자신의 입장이 다수를 대변하고 있음을 들어 주장을 펴는다.
- ⑤ 주장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민속놀이'에 착안하여 '일을 수행하는 원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보기>는 '화가 김홍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여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주제
 - 당대의 사회 풍속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
- 제시 내용 및 전달 방식
 -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자.
 - 발표자의 경험과 작품을 연계하여 표현하자.
 - 시대적 특징과 관련하여 화풍의 특징을 발표하자.

- ① '해학으로 시대를 그려 낸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제목으로 제시한다.
- ② 현대 미술 작품과 김홍도의 작품을 비교하여 전통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
- ③ 작품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김홍도를 소재로 한 드라마 장면과 신문 비평의 일부를 보여 준다.
- ④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이 주는 재미와 교내 씨름 대회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관련지어 설명한다.
- ⑤ 당대 사회의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작품의 소재와 기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8~9]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8번과 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8. <보기>는 협동 작문 과정에서 개요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조하여 <개요>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우유 팩 재활용 실태

(단위: %)

재활용률	
일반 폐지	71.8
우유 팩	27.4

<국가별 우유 팩 재활용률> <국내의 폐지 재활용률>

<자료 2> 우유 팩 폐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우유 팩은 양쪽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붙어 있어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할 때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킨다.

- 연구 보고서

<자료 3> 우유 팩 재활용 사업 부진

"우유 팩은 재활용되면 고급 재생지가 될 수 있어 원료비도 절감하고 산림자원도 보존할 수 있는데,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어 재활용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재생지 산업체 관련자 인터뷰

<개 요>

I. 서론 ㉠
- (문제 제기)

II. 본론

1. [실태 분석] ㉡
가. 경제적 측면: 재생지 원료비 증가로 인한 재활용 사업 부진
나. 사회적 측면: 재생지 재활용 사업에 대한 관심 미흡
2. [원인 진단] ㉢
가. 우유 팩 재생지 산업체의 어려움
나. 우유 팩 재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
다. 우유 팩 재생 공정 시 환경오염 물질 발생
3. [해결 방안] ㉣
가. 우유 팩 재생지 산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나.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
다. 우유 팩 재생 공정 시 유해 물질의 처리 기술 혁신

III. 결론 ㉤
- (요약 및 전망)

- ① ㉠: 문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자료 1>을 참조하여 우유 팩 재활용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 ② ㉡: 주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 <자료 2>를 참조하여 '환경적 측면: 우유 팩의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③ ㉢: 문제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위해, <자료 3>을 참조하여 '나' 항목을 '우유 팩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수정한다.
- ④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자료 2>와 <자료 3>을 참조하여 '폐기물 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 본론을 요약하고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자원 보존'을 결론의 중심 내용으로 삼는다.

9.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표어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1점]

<보 기>
○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점층적으로 드러낼 것.
○ 비유와 대구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우리가 살린 우유 팩, 나무를 지키고
우리가 지킨 나무, 지구를 살립니다
- ②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우유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우유 팩
- ③ 당신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우리의 자연이 상처 입습니다
- ④ 환경을 위한 당신의 작은 손길
등불 되어 어두운 세상 밝힙니다
- ⑤ 우유 팩 모으기, 생각으로 부족합니다
산림 보호,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10.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감기는 겨울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여름에도 감기에 걸린다.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냉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 감기를 순 우리말로 고뽀이라 한다.
여름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찬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하고 냉방기에 장시간 ㉡ 노출되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발을 꼭 씻어야 한다.
만약 감기에 걸렸다면 탈수로 인한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감기로 인해 ㉣ 열이나 기침을 할 때에는 따뜻한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 소량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노출되는'으로 수정해야겠어.
- ③ ㉢은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그러므로'로 바꾸어야겠어.
- ④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할 때'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의미가 겹치므로 '소량으로'를 생략해야겠어.

1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이다. ㉠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한다. 가령 ㉡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반의어에는 ㉢ '금속', '비금속'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어, ㉣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어, ㉤ '형', '아우'와 '출발선',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어가 있다.

- ① ㉠: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② ㉡: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 ③ ㉢: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이므로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④ ㉣: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이다.
- ⑤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방향 반의어에 포함된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 기>
○ 들⁵ 【조사】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⁹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좀 전에 ㉡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그래요. 그런데 ㉢ 아이들은 어디 보냈나요?
어머니: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화야! 빨리 ㉣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화: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 많이들 컸구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인과적 사고는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밝혀내고자 한 사람으로 19세기 중엽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그는 원인을 찾아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치법과 차이법이다.

㉠ 일치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가] 가령 수학여행을 갔던 ○○고등학교의 학생 다섯 명이 장염을 호소하였다고 하자. 보건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불러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았다. 다섯 명의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본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유일한 음식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선생님이 돼지고기가 장염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일치법을 적용한 예이다.

a b c d → X
a c e f → X
a d e f → X
∴ a → X

일치법은 왼쪽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X는 원인을 알고 싶은 결과이고, a, b, c, d, e, f는 여러 가지 선행하는 요소를 뜻한다. a는 X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유일한 요소이므로 a가

X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 차이법은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인도네시아의 연구소에 근무하던 에이크만은 사람의 각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닭의 질병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에 걸린 닭들 중에서 병이 호전된 한 마리의 닭을 발견하고는 호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병이 호전된 닭과 호전되지 않은 닭들의 모이에서 나머지는 모두 같았으나 유일한 차이가 현미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병이 호전되지 않은 닭들은 채소, 고기, 백미를 먹었으나 병이 호전된 닭은 추가로 현미를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이의 차이를 통해 닭의 병이 호전된 원인을 현미에서 찾은 에이크만의 사례는 바로 차이법을 적용한 예이다.

일치법과 차이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원인 식별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 누락된 요소 또는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는 없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우연히 선후 관계로 일어난 현상을 인과 관계로 오해하거나, 하나의 원인이 야기한 두 가지 현상을 각각 원인과 결과로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에 따라 원인을 찾아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아침에 두꺼비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장대비가 내렸다. 따라서 두꺼비의 울음이 장대비의 원인이다.
- ② 아이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반점이 생기기 전에는 열이 있었다. 따라서 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다.
- ③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직장인이 그 원인을 따져 보니 평소와 달리 그날 저녁에만 커피를 마신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커피가 불면의 원인이다.
- ④ 신장 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이 먹은 음식을 모두 조사해 보았더니 유일한 공통 요소는 A사의 분유였다. 따라서 A사의 분유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다.
- 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시간은 평균 30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기간에 학력은 평균 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컴퓨터 게임 시간이 증가한 것이 학력 하락의 원인이다.

14. ㉡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X'는 'X'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함.)

- ① a b c d → X
b c d → -X
∴ a → X
- ② a b c d → X
b e f → -X
∴ a → X
- ③ a b c d → X
a c d → X
a d e → X
∴ a → X
- ④ a b c d → X
b e f → X
c d e → -X
∴ a → X
- ⑤ a b c d → X
a b d → -X
b d f → X
∴ a → X

15. ㉢에 유의하여 [가]의 판단을 검토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 ②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 ③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음식이 있지는 않은가.
- ④ 학생들이 먹은 돼지고기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담은 그릇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 ⑤ 다른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은가.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혁신의 확산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리학에서는 혁신의 확산이 시공간적인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 과정을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설명한다. 혁신의 발생기에는 혁신 발생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면, 먼 지역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확산기에는 초기의 혁신 수용 지역에서 먼 지역까지 혁신의 확산이 일어난다.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진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된다. 혁신 발생원과 잠재적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혁신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전염 확산이다. 발생원과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면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혁신의 확산이 ㉠ 대중 매체보다 주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계층 확산이다. 계층 확산에 의해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령 거대 도시에서 발생한 혁신은 먼 거리의 대도시로 전파되면서 동시에 거대 도시 주변의 중소 도시에도 전파될 수 있다.

혁신의 수용자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혁신 수용자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는 개별 수용자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 즉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소수의 혁신자, 일정 기간 심사숙고하여 혁신을 수용하는 다수의 전기 수용자,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가 그것이다.

16. **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의 수용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 ②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혁신의 수용자 중에는 소극적인 수용자들도 있다.
- ④ 수용자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 ⑤ 심화·포화기의 수용률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17.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신 미용 기법이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주로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을 통해 전파되었다.
- ② 새로 출시된 금융 상품의 가입자가 경제 뉴스가 아닌 직장 동료들의 추천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다.
- ③ 신개발 농산품의 구매자 수가 증가한 것은 신문 광고가 아니라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 소문에 의한 결과였다.
- ④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 폭주는 주 고객층에 초점을 맞춘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의 결과였다.
- ⑤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한 전문 식당의 분점이 급속히 퍼진 것은 라디오 광고보다 주로 손님들의 호평 덕택이었다.

18.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서 타당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ㄱ. 한 미술관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은 혁신 확산의 예이다.

ㄴ. 거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로 전파된 것은 계층 확산의 예이다.

ㄷ. 대도시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전화기가 이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것은 전화기의 확산이 심화·포화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ㄹ.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전기 수용자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넓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A]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
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
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이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슬러 어
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
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
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 2 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B]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 ②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의 입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울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꼬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흰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나…….”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짙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짙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짙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러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죤 때 문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묵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폐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높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흰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택이는 자꾸만 쓸쓸했다. 빛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거 조면*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택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A] 빈대 피가 땀처럼 굵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쭉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택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나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놓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메뉴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스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먹고 여태껏 땅 한 뼘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먹고.’ 화산택이는 눈꼬리만 따잡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땡기더니.’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썰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택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택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택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섰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택이」 -

* 저거 조면: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하리갈레: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적산집: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5. ‘화산택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 ③ 예의가 없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26.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 ②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 ③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화산택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 ① 짚세기 : 고무신
- ② 초가집 : 적산집
- ③ 토벽 : 흰가루 벽
- ④ 갈자리 방 : 다다미방
- ⑤ 수채 : 뒷간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883년 백열전구를 개발하고 있던 에디슨은 우연히 진공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것은 플레밍이 2극 진공관을 발명하는 ㉠ 토대가 되었다. 2극 진공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필라멘트와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는 고온으로 가열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이때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정류라 한다. 이후 개발된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의 필라멘트와 금속판 사이에 '그리드'라는 전극을 추가한 것으로, 그리드의 전압을 약간만 변화시켜도 필라멘트와 금속판 사이의 전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3극 진공관의 증폭 기능이다.

진공관의 개발은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출현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나 진공관 자체는 문제가 많았다. 진공관은 부피가 컸으며, 유리관은 깨지기 쉬웠고, 필라멘트는 예열이 필요하고 끊어지기도 쉬웠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이르러 게르마늄(Ge)과 규소(Si)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순수한 규소는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가 4개이며 최외각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그러나 그림 (가)와 같이 최외각 전자가 5개인 비소(As)를 규소에 소량 첨가하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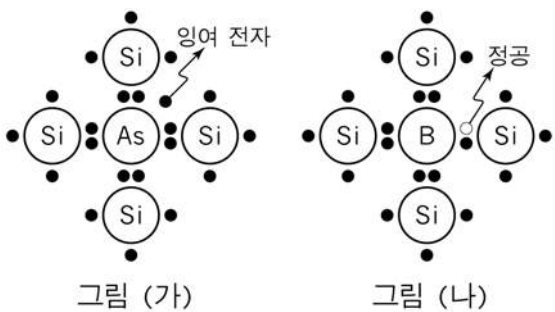
1개의 잉여 전자가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 준다. 이를 n형 반도체라고 한다.

한편 그림 (나)와 같이 규소에

최외각 전자가 3개인 붕소(B)를 소량 첨가하면 빈자리인 정공(+)이 생기게 된다. 이 정공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 준다. 이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

p형과 n형 반도체를 각각 하나씩 접합하여 pn 접합 소자*를 만들면 이 소자는 정류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p형에 (+)전압을, n형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는 반면, 이와 반대로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한편 n형이나 p형을 3개 접합하면 트랜지스터라 불리는 pnp 혹은 npn 접합 소자를 만들 수 있다. 이때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진공관의 그리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을 한다. 이렇듯 반도체 소자는 진공을 만들거나 필라멘트를 가열하지 않고도 진공관의 기능을 대체했을 뿐 아니라 소형화도 이룰 수 있었다. 이로써 전자 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 소자: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낱말의 부품.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pnp 접합 소자는 그리드를 사용한다.
- ② 진공관은 컴퓨터의 출현에 기여하였다.
- ③ 2극 진공관은 3극 진공관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 ④ pn 접합 소자는 2극 진공관과 같이 정류 기능을 한다.
- ⑤ 진공관 내의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전자가 방출된다.

30. 그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잉여 전자는 원자 간 결합에 참여한다.
- ② 순수한 규소는 (나)에 비해 전류가 더 잘 흐른다.
- ③ 순수한 규소를 (가)로 변형시킨 것이 p형 반도체이다.
- ④ (가), (나), (가)를 차례로 접합하여 증폭 기능을 하는 소자를 만들 수 있다.
- ⑤ (가)와 (나)를 접합한 후 (가)에 (-)전압을, (나)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31. 위 글과 <보기>를 읽고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보청기는 음향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마이크로폰, 전기 신호를 크게 만드는 증폭기, 증폭된 전기 신호를 음향으로 환원하는 수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는 1920년대에 개발되었고,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는 1950년대에 개발되었다.

- ① 예열이 필요 없게 되었겠군.
- ② 진공관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줄어들었겠군.
- ③ 트랜지스터가 증폭 기능을 위해 사용되었겠군.
- ④ 내구성을 위해 보청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었겠군.
- ⑤ 순수한 규소나 게르마늄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었겠군.

32.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준이 되었다
- ② 기초가 되었다
- ③ 기틀이 되었다
- ④ 바탕이 되었다
- ⑤ 발판이 되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에서 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이다. 당시 유행하였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내용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을 의미했는데, ㉠이 시기의 연주는 그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작곡자들은 악곡 속에 그 감정들을 담아내었고, 연주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은 드러내기보다는 작품이 갖고 있는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즉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으며, 당시에 청중들은 연주를 통하여 작곡자가 제시한 감정을 감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주의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영향미학이 작품미학으로 전환되면서 바뀌게 된다. 작품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 작품미학의 영향에 따라 작곡자들은 음악이 내용을 ㉡지시하거나 표상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음악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갖는 절대음악을 탄생시켰다. 작곡자들은 어떤 내용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동기, 악구, 악절, 주제의 발전과 반복 등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작곡함으로써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음악에서 지시하는 내용이나 감정이 없어지자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려 했고, 이에 따라 연주는 해석으로 이해되었다. 실례로, 당시 베토벤 교향곡의 관현악 편성을 변형시켜 연주했던 바그너나 말러 등의 연주는 청중들에게 연주자가 해석한 작품을 ㉣감상하게 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구체화된다.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음악에 ㉥중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음악의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하게 분리되었고, 연주자 가운데에서도 장르나 시대 또는 작곡자에 따른 전문 영역이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한 작품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음반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연주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다른 연주자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연주자는 작품을 보다 더 다양하면서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제 연주에서는 작품 자체의 충실한 해석에 의해 음악적 의미를 재구성했던 19세기와는 달리,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연주될 때,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며, 이때 청중에게 감상은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33.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있다.
- ③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사례를 동원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⑤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34. 위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서 강조된 것은?

- ① 연주자의 생각과 주관
- ② 작곡자와 연주자의 분리
- ③ 작품의 의미에 대한 재구성
- ④ 형식을 강조한 음악의 아름다움
- ⑤ 작곡자가 의도한 객관적 감정의 전달

35.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에 대한 감상 중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에서 베토벤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 ② <월광> 소나타를 반복해서 들으니 이 곡이 왜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
-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악곡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 ④ 제목 '월광'처럼 음악을 듣는 동안 달빛 어린 잔잔한 세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
- ⑤ 빠르기와 썸머림이 본래 악곡과 달라 베토벤의 음악에서 연주자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어.

36.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가리켜 보임.
- ②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③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함.
- ④ ㉤: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 ⑤ ㉥: 어떤 일을 일삼아서 함.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29 궁궐 외곽의 작은 문(밤)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 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S# 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꿰러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고 상궁: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

(중략)

S# 47 암자 안(밤)

들어오는 천수, 보면 박 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약질을 하고 있다. 천수, 얼른 들어와,

㉡ 천수 : 막지 마시오! 토약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 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 주며 토약질을 돕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잠시 토약질을 멈추는 박 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 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 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 나인, 받아 들어 펴 본다. 수라간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 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 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 나인 : (E*) 명이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S# 48 수라간(회상*, 밤)

급히 들어오는 한 나인. ㉢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 나인 : (E)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S# 49 암자 안(밤)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는 박 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 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복잡하다.

한 나인 : (E)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S# 50 수라간(회상, 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 나인의 모습. ㉣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한 나인 : (E)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해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나를 벌해 다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명이야…….

S# 51 암자 안(밤)

박 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천수, 조용히 나오고.

- 김영현, 「대장금」 -

* E: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를 가리킴.

* 회상: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지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찰 내용의 재현을 가리킴.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 ②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8. [서찰]과 관련지어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나인'은 '박 나인'의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 ②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벌을 당했다.
- ③ '한 나인'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하여 '박 나인'이 결백하다고 보았다.
- ④ '박 나인'이 '한 나인'에게 알려 준 정보 덕분에 '박 나인'이 살 수 있었다.
- ⑤ '한 나인'은 '박 나인'을 살리려는 시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했다.

39.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양각(仰角, Low-angle):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하랴.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단옷에 화용월태 고운 얼굴 다 각기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 압전하게 차린 시녀, 천성으로 고운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니, 상당에는 비단 백 필, 하당에는 진주 서 되었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조심이 각별했다.

이때 무릉촌 장 승상 태 부인이 심 소저의 글을 벽에 걸어 두고 날마다 징협하되 빛이 변하지 아니하더니, 하루는 ㉠글 죽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 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무수히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이윽고 물이 건히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괴이히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아났는가?’ 하며 심분 의혹하나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

그날 밤에 장 승상 태 부인이 제물을 갖추어 강가에 나아가 심 소저를 위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 마음먹고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첩첩이 쌓인 안개 산골짜기에 잠겨 있고, 첩첩이 이는 연기 강물에 어리었다. 편주(片舟)를 흘리저어* 중류에 띄워 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이 친히 잔을 부어 오열하며 소저를 불러 위로하니,

“아아! 슬프다, 심 소저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거워 함은 인정에 당연커늘 일편단심에 양육하신 부친의 은덕을 죽음으로써 갚으려 하고, 한 가닥 쇠잔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니, 고운 꽃이 흩어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드니 어찌 아니 슬플쏘냐.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응당 소저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속히 와서 흠향함을 바라노라.”

하며 눈물 뿌려 통곡하니 천지 미물인들 어찌 아니 감동하리. 뚜렷이 밝은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있고, 사납게 불던 바람도 고요하고, 용왕이 도왔는지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에 놀던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꾸루룩 소리 하며, 심상한 어선들은 가던 돛대 머무른다. 뜻밖에 강 가운데로부터 한 줄 ㉢맑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며 날씨가 화창해지거늘, 부인이 반겨 일어서서 보니 가득히 부었던 잔이 반이나 없었으므로, 소저의 영혼을 못내 슬퍼하더라.

하루는 광한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수궁이 뒤늦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했다. 원래 이 부인은 심 봉사의 처 곽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더니, 그 딸 심 소저가 수궁에 왔다는 말을 듣고, 상제께 말미를 얻어 모녀 상봉하려고 온 것이었다.

심 소저는 누신 줄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따름이었다. 오색구름이 어린 오색 가마를 옥기린에 높이 싣고 벽도화 단계화를 좌우에 벌여 꽃고, 각 궁 시녀들은 옆에서 모시고, 청학 백학들은 앞에서 모시며,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는 말을 전하는데, 보던 중 처음이더라.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 섬돌에 올라서며,
“내 딸 심청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인 줄 알고 왈각 뛰어 나서며,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었으니 지금까지 십오 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끝없이 깊은 한이 겹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야 어머니와 만날 줄을 알았더라면, 오던 날 부친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쭙었다라면 날 보내고 설운 마음 적이 위로했을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 보니 좋지만은 외로우신 부친은 누를 보고 반기시리까. 부친 생각이 새롭습니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잃은 설움에다 비길쏘냐. 문노라. 너의 부친 가난에 절어 그 모습이 어떠하냐. 응당 많이 늙었으리라. 그간 십수년에 흠아비나 면했으며, 뒷마을 귀덕 어미 네게 극진하지 않더냐?”

얼굴도 대어 보며, 수족도 만져 보며,
“귀와 목이 희니 너의 부친 같기도 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 아니 내 딸이랴. 내 끼던 ㉥옥지환도 네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녕’,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춤치 청홍당사 벌매듭도 애고 네가 찻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다 갖추기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광한전 맑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하나 내 맘대로 못 하니 한탄한들 어이할쏘냐.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 만류하지 못하고 따를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더라.

이때 심 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근근이 살아갈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 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겼으며,

앞 못 보는 아버지 위해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용궁에 갔네.
안개 어린 먼 바다에 마음도 푸르니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

강가를 오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가 없고, 심 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더라.

- 작자 미상, 『심청전』(완판본, 71장) -

* 흘리저어: 배 따위를 흘리가게 띄워서 저어.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41.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이다.
- ② ㉡: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③ ㉢: 장 승상 댁 부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④ ㉣: 심청이 자신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간이다.
- ⑤ ㉣: 심청과 옥진 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징표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 완판본(71장)에는 장 승상 댁 부인의 등장, 수궁에서의 모녀 상봉, 삼입 시 등과 같이 경판본에 없는 대목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의 성격 구현, 주제 의식의 발현 등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다.

- ① 옥진 부인의 등장은 심청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장 승상 댁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군.
- ③ 비석에 새겨진 시는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세간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심청과 옥진 부인이 만나는 대목은 혈연의 친밀감을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군.
- ⑤ 옥진 부인이 심청에게 하는 말은 딸을 물에 빠지게 한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군.

43.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천우신조(天佑神助)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인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밥’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인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밥’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오체’나 ‘해오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석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44. 위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의 선택을 통해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높임 표현이 선택될 수 있다.
- ③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④ 한자어는 의미가 비슷한 고유어보다 일반적으로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
- 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화 상대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5. ㉠~㉣과 동일한 유형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① 술 - 약주 | 말 - 말씀 | 묻다 - 여쭙다 |
| ② 이 - 치아 | 사망 - 별세 | 있다 - 계시다 |
| ③ 딸 - 따님 | 마누라 - 부인 | 자다 - 주무시다 |
| ④ 엄마 - 어머니 | 책방 - 서점 | 먹다 - 잡수다 |
| ⑤ 속옷 - 내의 | 너 - 당신 | 가난하다 - 빈곤하다 |

46.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시장이 과장에게)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내일까지 끝내 주세요.

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형, 오늘은 제가 내려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ㄷ. (사장인 어머니에게) 엄마, 저녁을 함께 못 해 미안해요.
/ 사장님,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ㄹ. 부장: 사장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장: 남 부장, 내가 오히려 미안했네.

ㅁ. (약속 시간에 늦어서 친구에게)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정말 미안해.

- ① ㄱ: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대신 '미안하다'는 쓸 수 없군.
- ② ㄴ: 친한 사이의 상위자에게는 '미안하다'도 쓸 수 있군.
- ③ ㄷ: 같은 상대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바꿔 쓸 수 있군.
- ④ ㄹ: 상대의 지위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구별하여 사용했군.
- ⑤ ㅁ: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 대신 '죄송하다'는 쓸 수 없겠군.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학생이 ㉠가볍게 걷다가 빠르게 뛰라고 하자. 여기에는 어떤 운동생리학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운동을 수행할 때 근육에서 발현되는 힘, 즉 근수축력은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학생이 뛰는 속도를 높이면, 다리 근육의 근수축력은 그에 따라 증가한다.

다리 근육을 포함한 골격근*은 수많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근섬유들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되는데, 이때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의해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부른다.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크게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구분된다. 지근섬유는 근육 내 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고 있어 적근섬유라고 부르며, 상대적으로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띠는 속근섬유는 백근섬유라고 한다. 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 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은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가 훨씬 강한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한편 근섬유들은 종류에 따라 수축력, 수축 속도,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속근섬유는 세부적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시 a형과 b형으로 나뉜다. b형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 빨리 피로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신속하고 폭발적인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a형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와 b형 속근섬유의 중간 속성을 가지고 있어 지근섬유보다 수축 속도가 빠르며, 동시에 b형 속근섬유보다 높은 피로 저항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육의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반면에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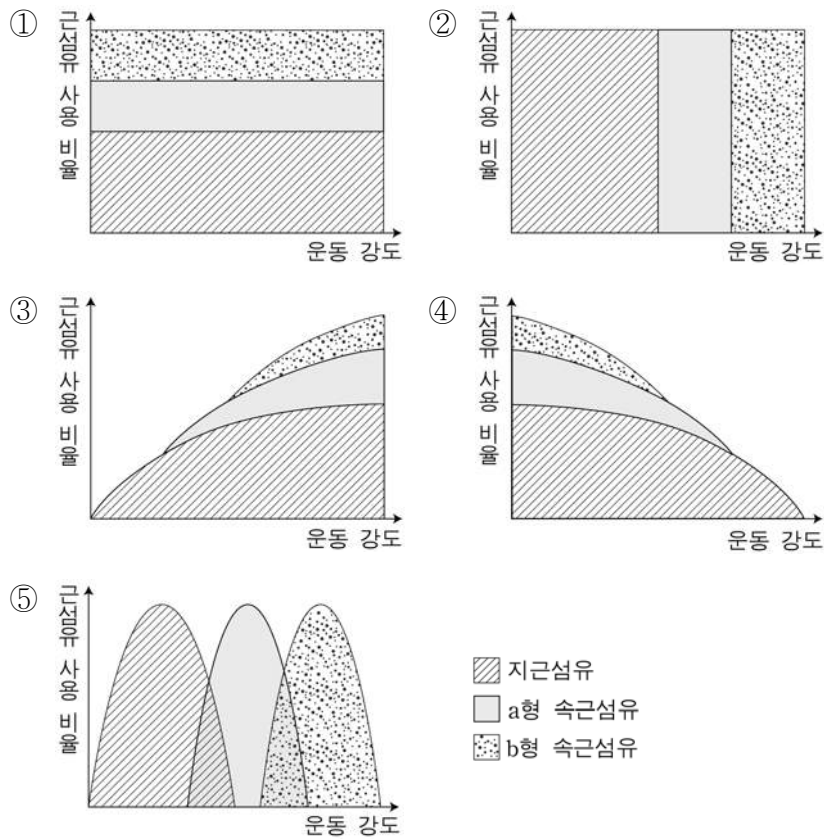
운동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 근육의 수축력도 이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 중의 하나가 ㉡크기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단위는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저강도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작은 크기의 운동 단위를 가지는 지근섬유가 동원된다. 이후 운동 강도가 증가되면 더 큰 운동 단위를 가지는 속근섬유의 운동 단위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저강도의 '걷기'에서는 대부분의 다리 근력에 지근섬유가 동원되고, 중강도의 '달리기'에서는 지근섬유에 a형 속근섬유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또한 고강도의 '전력 질주'에서는 지근섬유와 a형 속근섬유에 b형 속근섬유가 추가적으로 활성화된다.

* 골격근: 중추 신경의 지배에 따라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
* 근섬유: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수축성을 가진 섬유상 세포.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운동 단위는 운동 신경과 근섬유로 구성된다.
- ② 속근섬유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띤다.
- ③ 다리 근육을 포함하는 골격근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된다.
- ④ 하나의 운동 신경에 결합하는 근섬유 수가 많으면 근수축력이 높아진다.
- ⑤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 수는 지근섬유가 속근섬유보다 많다.

48. ㉠을 표현한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49.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운동선수 A, B, C의 장딴지 근육은 속근섬유 비율이 각각 20%, 50%, 80%이다.

* 단, 세 선수의 장딴지 근육의 운동 단위 수는 같으며, a형, b형 속근섬유의 비율 및 다른 생리학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는 B보다 장딴지 근육의 피로 저항력이 낮다.
- ② B는 C보다 장딴지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리다.
- ③ C는 A보다 근육의 수축력이 낮다.
- ④ 100 m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B이다.
- ⑤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C이다.

50.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가벼운 이불을 준비했다.
- ② 나는 용돈을 탄 지 오래 되어서 주머니가 가볍다.
- ③ 철수는 입이 가벼워서 내 비밀을 말해 줄 수가 없다.
- ④ 아직 병중이니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 ⑤ 사태를 가볍게 보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귀에 거슬리는 말일수록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한다.
- ②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한다.
- ③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중시해야 한다.
- ④ 남의 잘못을 받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 ⑤ 당장의 도움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물음) 여학생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군요.
- ② 물리적 인과 관계에 따라 목적을 정한다는 거군요.
- ③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는 거군요.
- ④ 목적이 없어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⑤ 목적이 정해지면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군요.

3. (물음) 학생의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우주 기지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모형을 연구하였다.
- ② 과학자들은 자족적 환경 모형을 만들어 그 실현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 ③ 자족적 환경 모형 연구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상품이 만들어 졌다.
- ④ ‘에코스피어’는 지구의 바다, 땅, 대기, 생물에 해당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⑤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순환의 균형이 깨지면 유지되지 못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전시회 포스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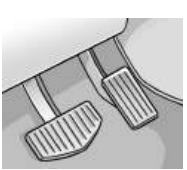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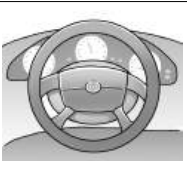


- ① 어느 민속학자의 그림,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다
- ② 옛 그림으로 감상하는, 개화기 조선인의 삶의 모습
- ③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가, 풍속화가로 성공하다
- ④ 순수 미술의 극치를 이룬, 조선 화단의 자존심
- ⑤ 사진보다 선명한 그림, 시대를 고발한 화가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답변을 요약하고 있다.
- ②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을 묻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 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자동차 구성 요소의 기능'에 착안하여 '동아리 대표의 역할'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연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점		연상한 내용
착안 대상	대상의 주된 기능	
①  <엔진>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만들어 냄.	동아리가 원활히 운영 되도록 추진력을 발휘한다.
②  <브레이크 및 액셀>	상황에 맞게 주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함.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 낸다.
③  <핸들>	계획한 경로에 따라 주행 방향을 조정함.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 방향을 조정한다.
④  <바퀴>	지속적으로 회전하여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함.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한다.
⑤  <전조등>	야간에 원활한 주행을 가능하도록 시야를 확보해 줌.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7. 다음은 여행 중 작성한 일기의 일부이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시구를 넣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인생의 첫 도보 여행. 청명한 10월 하늘을 머리에 이고 나는 시골길을 걸었다. 수확을 기다리는 벼들이 시원한 가을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길가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다.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는, 미소 지으며 손 흔드는 친구처럼 반가웠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다정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시구가 떠올랐다.

㉠


<보 기>

- 앞부분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포함할 것.
- 의인법과 도치법을 활용할 것.

- ① 노란 벼 이삭과 함께 미소 짓는 코스모스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 ② 하늘은 높아 가고 벼들이 익어 가네
반가움 때문인가 내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 ③ 무리 지어 피어서 더 아름다운 꽃들
붉은 단풍보다 더 붉은 꽃들의 향연
- ④ 내내 뿔어오르던 내 마음을 식히며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 바람은
- ⑤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았네

8. 다음은 독서 모임 게시판에 올릴 글의 일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맥락'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참된 의미는 그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 이해 되어질 수 있지요.

 원편의 그림을 볼까요? 여기 있는 '○'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0123...', '...日入○夕...', '...NOPQ...', '□○△◇'처럼 여러 가지 맥락을 상상해 보고, 그 속에서 '○'의 의미를 발견해 갑니다. ㉡ '○'는 그 맥락에 따라 숫자 '0', 한글 '○', 알파벳 'O', 도형 '○'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의 안도 밖도 아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락이지요. ㉢ 글을 쓸 때도 예상 독자의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 정확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다른 것들과 맺고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맥락을 통해 글의 참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맥락 읽기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 그러나 이번 모임에서는 맥락 읽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 ①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이해될'로 고친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앞에 '우리가'를 추가한다.
- ③ ㉢은 글 전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수식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으로 고친다.
- ⑤ ㉤은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로 바꾼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보 기>

청자에게 명령·요청·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명령문 대신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효과는 ㉠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얻을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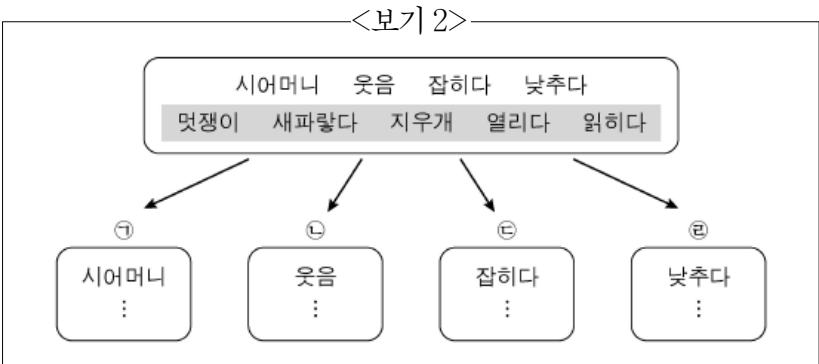
- ㉠ 가는 길에 이 편지 줄 부쳐 주세요.
- ㉡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동네에는 꽃집이 영 없을 것 같지?
- ㉣ 이게 몸에 좋다니 한입에 죽 들이켜라.
- ㉤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니?

1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 ㉠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용팔과 천달에게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얗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갔다 대 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낮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게?”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능게?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카능게? 부러 카능게?”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댕기는 사람인 줄 아능게? 허허…….”

“하아,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 물리지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능교, 편지? 배(裵)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 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가?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꿰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뼈다귀가 뭐 어찌고 어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 밝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꿰일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양? 엄마.”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양?”
 “.....”

[A]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 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하부이! 우리 머 하로 가노?”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별그레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 별건 불길 이 구름을 태우며 온 별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 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중략)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샘보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갑분이의 탐스런 얼굴에도 그들이 서리었고, 두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철이만은 입 언저리에 알 곳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뼈다귀라 그 말씀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뺨들뺨들한 살점이 곤장 실룩거리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 킁킁 짓어 댈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견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찢끔찢끔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웃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짓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철이는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머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갈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⑤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 ② ㉡: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녀의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5.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군.
- ② 철없는 아이와 권위적인 어른들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군.
- ③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지속적으로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를 통해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군.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쟁 소설은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특히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 ① 군수의 편지, 유골 상자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군.
- ② 하나만 남은 두철의 눈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겠군.
- ③ 천달의 유골을 보며 중얼거리는 두철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천달의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가 들끓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천달의 유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두철의 모습은 그가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낳을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1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천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 ⑤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18.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은 항상 참이다.
- ② 우리의 감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③ 우리는 사물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의 주관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우리의 감각적 지각 능력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19. 위 글에서 <보기>의 ㉡와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보 기>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 판단을 내렸다.

- | ㉡ | ㉢ |
|-------|-----|
| ① 대응설 | 정합설 |
| ② 대응설 | 실용설 |
| ③ 정합설 | 대응설 |
| ④ 정합설 | 실용설 |
| ⑤ 실용설 | 정합설 |

20. 위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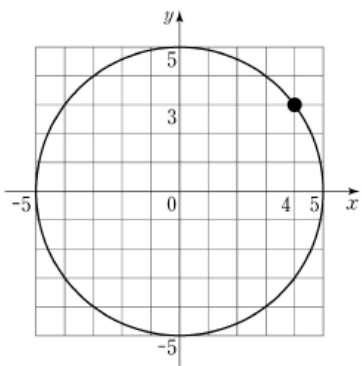
- 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는 발생한다.
- ②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③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존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④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⑤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 데카르트는 수학 분야에서도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방법서설』의 부록인 ‘기하학’에서 데카르트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좌표’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으로 그는 해석(解析) 기하학의 토대를 놓았고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수학자 라그랑주는 이에 대해 “기하학과 대수학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는 두 학문의 발전이 느렸고, 적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학문이 길동무가 되어 함께 가면서 서로 신선한 활력을 주고받으며 완벽을 향해 빠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데카르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를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른다. 통상적으로 이 좌표계의 가로축은 ‘ x 축’, 세로축은 ‘ y 축’이라고 하며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한다.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x 축과 y 축을 포함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 z 축’을 세우면 된다. 데카르트는 방 안에 날아다니는 파리의 순간적인 위치를 나타낼 방법을 찾다가 이 좌표 개념을 생각해 냈다고 한다.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을 때, “동쪽으로 세 블록, 북쪽으로 두 블록 가시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좌표 평면의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면 원이 얻어진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 는 원의



방정식 $x^2 + y^2 = 5^2$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 원 위의 $(4, 3)$ 이라는 점은 $4^2 + 3^2 = 5^2$ 이므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 상황에서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자 직선, 원, 타원 등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였다.

21.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점]

- ① 어떤 점의 좌표로 그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좌표 평면 위의 원은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좌표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찾을 수 있다.
- ④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원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다.
- ⑤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좌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22. ㉠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정식의 해법을 수학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켰다.
- ② 도형 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 ③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연역적 증명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 ④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주었다.
- ⑤ 그림을 그리지 않고 대수학을 푸는 보편적인 원리를 구축했다.

2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림과 같은 건물에 있는 31개의 사무실에 **데카르트 좌표계**를 활용하여 호수를 지정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사무실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임을 주목한다. 건물의 모퉁이 O점을 원점으로 삼고 k 축은 위쪽, l 축은 북쪽, m 축은 서쪽으로 향하도록 설정한다. 각 사무실의 8개의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 (k, l, m) 을 세 자리의 수 ‘ klm ’으로 만들어 그 사무실의 호수로 정한다. 가령, 원점에 접한 사무실은 111호, 그 위층은 211호이다. 그 밖의 몇 개의 사무실의 호수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 ①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들로 구성된 데 착안하여 데카르트 좌표계를 활용하기로 하였군.
- ② k 축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니 사무실의 층이 사무실 호수의 백의 자릿수가 되었군.
- ③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의 호수가 정해지는군.
- ④ A 사무실의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는 $(5, 3, 3)$ 이군.
- ⑤ 벽면이 맞닿은 두 사무실은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수 중 두 개가 같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그가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곳을 우연히, 그리고 매우 쉽게 찾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상 어느 관객도 그와 함께 차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을 삽입하는 것,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사실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함을 뜻한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고 한다.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돼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확립된 관습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불필요한 사건을 개입시켜 극의 전개를 느슨하게 만들거나, 단서나 예고 없이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 사건의 인과 관계를 ㉤교란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다.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이는 흥행을 목적으로 오락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누벨바그의 관습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근래 액션 영화의 감독들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처음 이러한 관습 비틀기를 접한 관객들은 당혹스러웠겠지만, 일단 여기에 익숙해지면 느긋하게 ‘악당의 귀환’을 기대하게 된다.

파괴된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적 관습은 관객과 감독이 소통하는 데 기여한다.
- ② 영화 속 현실은 영화 고유의 재현 방식을 통해 변형된 현실이다.
- ③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 ④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에 익숙해진다.
- ⑤ 새로운 재현 방식의 시도와 수용은 영화적 관습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영화의 현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
- ② ㉨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 ④ ㉨은 ㉧과 달리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였다.
-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 83 거리(낮)
지연, 설레는 표정으로 뛰어온다. ㉧지연이 큰길가로 나오자마자 택시가 와서 선다.

S# 84 놀이 공원 인근(낮)
㉨준호,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준호를 급히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카메라, 흔들리며 상황을 보여 준다.)

S# 85 놀이 공원 입구(늦은 오후)
지연,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한 얼굴로 서성인다. ㉤공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입구가 닫히고, ‘폐문’이란 안내판이 걸린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중략)

S# 107 병실(낮)
지연, 꽃병에 탐스러운 장미꽃을 꽂고 있다.
지연: (꽃을 꽂으며) 며칠 있으면 퇴원이네.
준호: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고마워, 지연아.

준호, 지연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다. ㉮마주 잡은 두 손이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워 주는 두 손과 중첩된다.

S# 108 몇 개월 후 결혼식장(오후)
지연과 준호, 하객들의 축복 속에 활짝 웃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퇴장한다. (카메라, 점점 위로 올라간다.)

- ① ㉧은 현실에서는 우연에 해당하지만 영화에서는 당연시 되는 설정이군.
- ② ㉨은 극적인 전개를 위해 현실에서 자주 겪기 힘든 상황을 설정한 것이군.
- ③ ㉣는 긴박한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제시하기 위한 카메라 기법이군.
- ④ ㉤는 등장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삽입한 것이군.
- ⑤ ㉮는 장면 연결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을 생략한 것이군.

2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 ②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③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 ④ ㉣: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뒤흔들어서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
- ⑤ ㉤: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이라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 중간 언어라고 한다.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한국어가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를 이른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의사소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일한 랑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중간 언어는 L2를 목표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자마다 개별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정할 수 없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는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이는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 이지 중간 언어가 같아서 아니다.

L2 학습자는 오류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 L2 학습자의 오류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한다. 많은 경우 오류는 L1의 부정적 간섭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류 중에는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는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우리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유아의 언어 체계도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는 점에서는 중간 언어와 같다. 하지만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다. 또한 유아의 언어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하지만,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는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L2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중간 언어가 형성될 수 있다.
- ② 중간 언어는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 ③ L1이 같은 언어 집단은 동일한 랑그를 가지고 있다.
- ④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 ⑤ 유아는 L2 학습자와 달리, 배우는 언어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습득한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L2 학습자에게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L2 학습 과정에서 자연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④ L2의 학습 기간이 같은 학습자들에게서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⑤ L1과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간섭의 요인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0. <보기>의 ㉣를 ㉠, ㉡와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세기 말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늘어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하였다. 이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함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졌다. ㉣ 이 언어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된 제3의 언어였다. 초기에는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였으나, 이들은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도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언어에 비해서는 단순했다.

- ① ㉣와 ㉠은 혼종된 언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② ㉣는 정교화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와 같다.
- ③ ㉣와 ㉡는 단순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④ ㉣는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는 점에서 ㉡와 다르다.
- ⑤ ㉣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와 같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A]

[B]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쫓아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C]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D]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E]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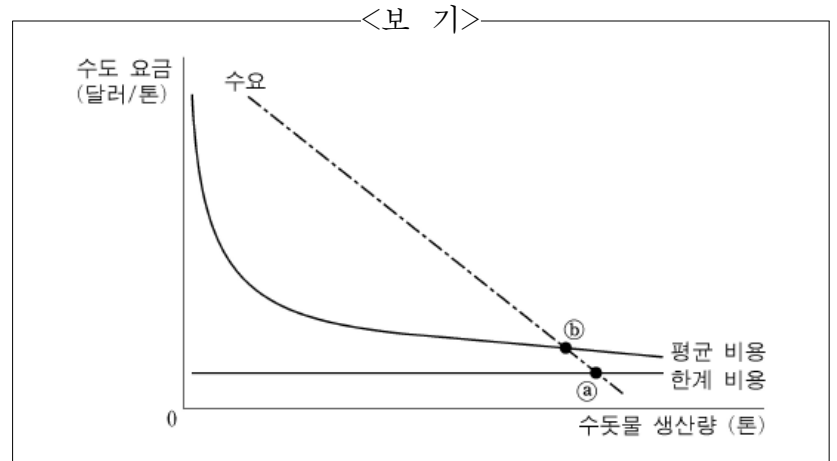
예전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A]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a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b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a에서 b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투입(投入)되는
- ② ㉡: 초래(招來)한다
- ③ ㉢: 추정(推定)하면
- ④ ㉣: 지급(支給)하는
- ⑤ ㉤: 감소(減少)하는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쓸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찌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냇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셨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시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옳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

* 수려기: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참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술술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술술 녹네

[A]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 황연대각: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B]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냇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40.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텐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1.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윽고 백 소부가 백 소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을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
었도다. 아버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

하니,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선지 한 폭에 ㉠ 오언 절구 두 수를 쓰더라.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왔거늘
깃들인 곳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여!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백 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 후에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렵노라.”

이때 김소선은 대면한 백 소저의 용모를 보지는 못하나, 시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
하더라. 백 소부가 김소선의 시를 화선지에 베껴 백 소저에게
주며 가로되,

“반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信物)을 삼
으라.”

하고, 또 소저의 쓴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맹약을 잊지 마시게.”

하니, 소선과 소저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줄거리]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
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외삼촌
석 시랑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백 소부는 단호히 거절한다.

석 시랑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득량에게 가
백 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득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연령
에게 간청하여 세력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하더라. 배연령이
평소 득량을 가장 사랑한 고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니, 이에 석 시랑을 불러 가로되,

“우리 집이 그대의 제부와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벌도 서로 걸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그대는 나를 위해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이다.”

시랑이 이튿날 다시 백 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A] “누이 말을 들은즉 생질녀와 정한 배필은 눈먼 폐인이라 하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폐인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 이는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 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 생질녀의 어짙을 듣고 그 아들 득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가로되,
“어찌 식견 없는 말을 내는고?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울일 수완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은즉, 폐인이며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 없이 자네가 간여할 바가 아니로다.”

사랑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연령을 뵈어 가로되,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거늘 연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현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드디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현이 비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꾀한다고 무고(誣告)하게 하니, 천자가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쳐 장차 죽이고자 하더라.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하니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서 소부의 작위를 거두고 애주 참군으로 강등시켜 당일로 압송케 하니라. 조명(詔命)*이 한번 내리매 만조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간하지 못하고, 백 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시참: 우연히 지은 시가 이상하게도 뒷말과 꼭 맞는 일.
* 조명: 천자의 명령을 적은 문서.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모의 개입 없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와 관련되고 있다.
- ③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 ④ 대신들 간의 다툼으로 천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⑤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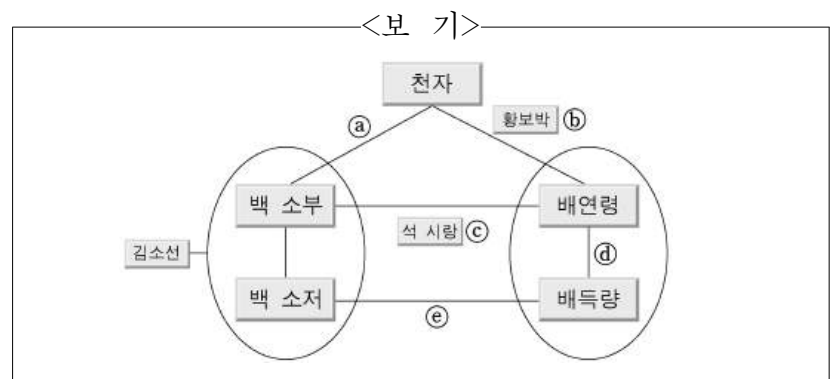
44. ㉠과 관련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 ②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백 소저가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에 대한 백 소부의 평으로 보아 백 소저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 소부가 김소선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장차 백 소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5.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 시랑은 생질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② 석 시랑은 생질녀와 혼약을 맺은 상대를 폄하하고 있다.
- ③ 석 시랑은 비유를 활용하여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하고 있다.
- ④ 석 시랑은 권력자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그에 편승하고 있다.
- ⑤ 석 시랑은 장차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46. 위 글의 인물 간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백 소부는 천자의 노여움을 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② ㉡: 황보박은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다.
- ③ ㉢: 백 소부와 배연령은 석 시랑을 통해 막역지우(莫逆之友)가 되었다.
- ④ ㉣: 배득량은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 ⑤ ㉤: 배득량은 백 소저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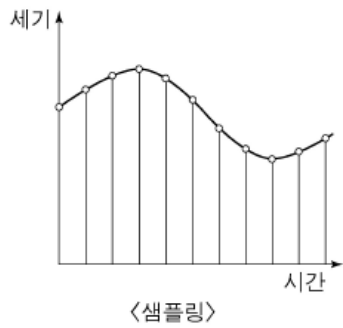
디지털 ㉠피아노는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 컴퓨터가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악기이다.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하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둘은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첫 센서에 의해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내장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가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건반을 누르는 세기에 따라 음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 두 센서를 이용한다. 강하게 누르면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져 두 번째와 세 번째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 간격이 줄어든다. CPU는 두 센서가 작동하는 시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음의 크기가 커지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가 끝난 소리 데이터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 변환 장치(DAC)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고 앰프와 스피커를 통해 피아노 소리로 재현된다.

그렇다면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건반의 소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로 바뀐 것일까? ㉣각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녹음

된다.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이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 하지만 각 주기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되기 때문에 샘플링 주기가 짧아지면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데이터도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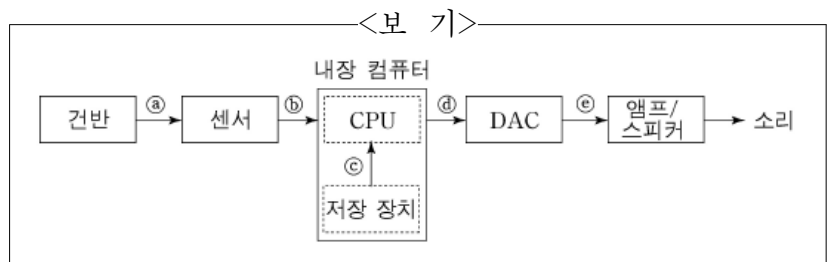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된 표이다.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하나의 부호를 3자리의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000~111까지의 부호가 할당된 8개가 된다. 즉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8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데이터의 양은 커진다. 이렇게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된다.

4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로 미리 녹음되어 저장된다.
- ② 각 건반에는 같은 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 ③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된다.
- ④ 소리 파동 모양의 정보는 샘플링을 통해 얻는다.
- ⑤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부호는 서로 다르다.

48. <보기>는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건반의 눌림과 움직이는 속도
- ② ㉡: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
- ③ ㉢: 해당 건반의 소리 데이터
- ④ ㉣: 처리된 소리 데이터
- ⑤ ㉤: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

4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 파동의 모양은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② 부호의 자릿수는 소리 표현의 세밀한 정도를 결정한다.
- ③ 부호의 자릿수는 양자화 구간의 개수를 결정한다.
- ④ 샘플의 측정값은 양자화를 통해 부호로 바뀐다.
- ⑤ 샘플링 주기는 재생되는 음질에 영향을 준다.

50. ㉠과 ㉡의 의미 관계를 A, ㉢과 ㉣의 의미 관계를 B라고 할 때, A와 B의 예로 옳은 것은? [1점]

	A	B
①	동물 : 개	나라 : 국민
②	비행기 : 날개	북송아 : 과일
③	버스 : 택시	구두 : 신발
④	고양이 : 꼬리	사람 : 인간
⑤	아들 : 딸	옷장 : 가구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출수형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방송을 들은 사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보리에 관한 옛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겠군.
 - ② 보리 재배는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군.
 - ③ 보리는 씹는 느낌과 맛이 좋아 주요 곡물로 재배되었겠군.
 - ④ 보리는 영양소와 섬유소가 풍부해서 건강에 이롭겠군.
 - ⑤ 보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겠군.

2. (물음)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보기>에 따라 정리할 때, ㉠에 들어갈 것은?



<보 기>

남성들이 쓰나요?	아니요 →	○
예 ↓		
양반들이 쓰나요?	아니요 →	○
예 ↓		
말총이 재료로 쓰이나요?	아니요 →	○
예 ↓		
주로 외출할 때 쓰나요?	아니요 →	㉠
예 ↓		
○		

- ① 갓
- ② 유건
- ③ 전모
- ④ 탕건
- ⑤ 패랭이

3. (물음)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이군요.
 - ② 첨단 과학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고급 기술이군요.
 - ③ 감성을 자극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술이군요.
 - ④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기술이군요.
 - ⑤ 전 세계인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기술이군요.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남학생이 ‘뛰어난 리더’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리더 자신보다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ㄴ. 구성원을 존중하여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낸다.
- ㄷ.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
- ㄹ.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5. (물음) 두 학생의 공통적인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자료를 열거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8. 수집한 글감을 바탕으로 <보기>의 글쓰기 구상을 보완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주제: 우리 지역의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
- 예상 독자: 우리 지역 관청의 관계자 및 지역 주민
- 기고 매체: 지역 신문
- 주요 내용

의의	• 도서 접근 기회의 확대와 헌책의 가치 재발견
↓	
방안	• 헌책 교환을 위한 인터넷 게시판 개설 및 활용
↓	
기대 효과	• 도서 구입 비용 절감 •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

<글 감>

- 주민들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버리는 헌책이 많음.
- 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책을 주민들이 가져오면 이를 반값에 사서 마을문고로 활용하는 자치 단체가 있음.
- 유럽에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다양색의 헌책 마을이 곳곳에 있으며, 지역을 넘어 문화적 명소가 된 곳도 있음.
- 우리나라에도 헌책 베풀시장이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상설화된 후 지역 명물이 된 사례가 있음.

- ①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지역 관청의 홈페이지'를 '기고 매체'에 추가하자.
- ② 지역 주민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헌책 베풀시장 개설'을 '방안'에 추가하자.
- ③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헌책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방안'에 추가하자.
- ④ 헌책 교환 행사의 정착은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하므로, '출판 시장에 활력 부여'를 '기대 효과'에 추가하자.
- ⑤ 지역 특성을 살린 헌책 교환 행사가 정착되면 지역이 문화적 명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적 위상 제고'를 '기대 효과'에 추가하자.

[9~10] 다음은 문화재 답사기를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내소사의 역사 소개 → 대웅보전의 꽃살문 묘사(전체에서 부분으로) → 꽃살문의 의의 서술 → 감상'의 순서로 전개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
-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상'을 쓰되,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

답사 둘째 날, 꽃살문으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로 향했다. 경내에 들어서니 유서 깊은 대웅보전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 꽃살문에서 꽃문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 꽃살문에는 연꽃, 모란, 국화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꽃잎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특히 왼쪽에서 셋째, 여섯째 문은 다른 문들과 꽃문양의 배치가 달라 눈길을 끌었다. ㉡ 아래쪽에는 꽃봉오리가, 위쪽에는 활짝 핀 꽃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보면 대웅보전에는 가운데 칸에 네 짝, 좌우 칸에 각각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모든 문의 문살은 빗살이 교차된 모양이며, 각 교차점 위에 꽃들이 얹혀 있는 듯했다. 꽃살문은 전체적으로 나무색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소박하고 단아해 보였다.

불가에서 꽃은 깨달음을 상징한다고 한다. 특히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새긴 꽃살문은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 주는 것 같았다. ㉢ 더구나 모란의 꽃말은 '부귀'라고 한다. 꽃살문은 문의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장식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9. 글쓰기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째 문단에 '내소사의 창건과 변모 과정'을 추가한다.
- ②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꾼다.
- ③ ㉠은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 부분으로 옮긴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사진은 '꽃살문'이 잘 드러난 것으로 바꾼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소사의 꽃살문은 고운 자태로 마음속에 품은 뜻을 내게 말해 주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문화재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②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 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던데, 앞으로 우리나라 자연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자주 해야겠다.
- ③ 내소사의 꽃살문에는 장식과 상징의 기능이 모두 있었다. 꽃살문처럼 조상들의 미의식과 지혜가 담겨 있는 '일석이조'의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대에 계승해야겠다.
- ④ 내소사의 꽃살문은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엄숙하게 꾸짖고 있었다. 문화재에 담긴 조상들의 여유와 넉넉함을 본받으며 살아야겠다.
- ⑤ 내소사의 꽃살문으로부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거운 짐’은 ‘무거운’ 대신 ‘가벼운, 큰’ 등이 쓰일 수 있고, ‘짐’은 ‘돌, 책임’ 등과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그러나 ‘무거운 침묵’은 ㄴ과 같이 ‘가벼운, 큰’ 등이 ‘무거운’을 대신하여 쓰이기 어렵고, ㄷ에서 확인되듯이 ‘무거운 짐’과 달리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즉, ㉠ ‘무거운 침묵’은 고정된 형식으로 ‘정적이 흐르는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 ㄱ. {무거운/가벼운/큰……} {짐/돌/책임……}
 ㄴ. {무거운/*가벼운/*큰……} 침묵
 ㄷ. 짐이 무겁다./침묵이 *무겁다.
 *는 부자연스러운 어휘.

- ① 꽃다운 나이, 높다란 나무
 ② 진정한 친구, 싹누런 들판
 ③ 차가운 공기, 막다른 골목
 ④ 뜨거운 눈물, 새파란 젊음이
 ⑤ 팽팽한 대결, 가벼운 발걸음

12.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것, 염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늘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
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려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
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밭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
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
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현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13. 위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1점]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학과’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주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7.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18. 위 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19.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언어: 세계
- ㉡. 명제: 사태
- ㉢.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 ㉣. 형이상학적 주제: 경험적 세계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일까?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 내지만,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 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그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도 크다. 음원까지의 거리는 목소리 같은 익숙한 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음원이 청자의 정면 정중앙에 있다면 음원에서 두 귀까지의 거리가 같으므로 소리가 두 귀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없다. 반면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으로 ㉡ 치우치면 소리는 오른쪽 귀에 먼저 도착하므로, 두 귀 사이에 도착하는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때 치우친 정도가 클수록 시간 차이도 커진다.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음원이 청자의 오른쪽 귀 높이에 있다면 머리 때문에 왼쪽 귀에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이러한 현상을 ‘소리 그늘’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주파 대역에서 ㉣ 일어난다. 고주파의 경우 소리가 진행하다가 머리에 막혀 왼쪽 귀에 잘 도달하지 않는 데 비해, 저주파의 경우 머리를 넘어 왼쪽 귀까지 잘 도달하기 때문이다. 소리 그늘 효과는 주파수가 1,000 Hz 이상인 고음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현상은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데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소리는 귓구멍에 도달하기 전에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의 상호 작용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고, 반사된 소리 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킨다. 같은 소리라도 소리가 귀에 도달 하는 방향에 따라 상호 작용의 효과가 달라지는데, 수평 방향 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의 차이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 의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기는데, 이는 간섭에 의해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 작아지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는 커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음원의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2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람의 귀는 소리의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는 감각 기관이다.
- ② 청각 체계는 여러 단서를 이용해서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
- ③ 위치 감지의 정확도는 소리가 오는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 ④ 소리 그늘 현상은 머리가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 ⑤ 반사된 소리의 간섭은 소리의 주파수 분포에 변화를 일으킨다.

22.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두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 차이를 감지했다면 생소한 소리라도 음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 ② 이어폰을 통해 두 귀에 크기와 주파수 분포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 수평 방향의 공간감이 느껴진다.
- ③ 소리가 울리는 실내라면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 해져서 음원의 방향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 ④ 귓바퀴의 굴곡을 없애도록 만드는 보형물을 두 귀에 붙이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지각할 수 없다.
- ⑤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음원의 수평 방향 지각에서 소리 그늘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23. <보기>에서 ㉠~㉥의 합성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은영이는 이어폰을 이용한 소리 방향 지각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컴퓨터가 각각 하나의 원리만을 이용해서 합성한 소리를 들려준다. 은영이는 ㉠ 멀어져 가는 자동차 소리, ㉡ 머리 위에서 나는 종소리, ㉢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 ㉣ 오른쪽에서 나는 저음의 북소리, ㉤ 왼쪽에서 나는 고음의 유리잔 깨지는 소리로 들리도록 합성한 소리를 차례로 들었다.

- ① ㉠은 소리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점점 작아지도록 했겠군.
- ② ㉡는 귓바퀴와 머리 측면의 상호 작용이 일어난 소리가 두 귀에 들리도록 했겠군.
- ③ ㉢는 같은 소리가 두 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리도록 했겠군.
- ④ ㉣는 특정 주파수 분포를 가진 소리가 오른쪽 귀에 먼저 들리도록 했겠군.
- ⑤ ㉤는 오른쪽 귀에 소리 그늘 효과가 생긴 소리가 들리도록 했겠군.

24. ㉠~㉥을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취(聽取)하면 ② ㉡: 치중(置重)하면
- ③ ㉢: 파악(把握)하는 ④ ㉣: 발생(發生)한다
- ⑤ ㉤: 감소(減少)하고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 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열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늉을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달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찌르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발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걸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러.”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법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⑤ 전전공공(戰戰兢兢)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 한다.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 공장의 제품 생산이 강물을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과수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a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익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익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익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Q_a 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 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29.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경제 주체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 ②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외부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 ③ 전통적인 경제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회적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 ⑤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 손익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부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30. ㉠의 사례를 [A]처럼 설명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 기>

공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_b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_b 보다 (㉡) 공장의 이익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익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 생산량을 Q_b 보다 (㉣)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 | | | |
|---|-----|-----|-----|
| | ㉡ | ㉢ | ㉣ |
| ① | 줄이면 | 크다면 | 줄이는 |
| ② | 줄이면 | 크다면 | 늘리는 |
| ③ | 줄이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④ | 늘리면 | 작다면 | 줄이는 |
| ⑤ | 늘리면 | 작다면 | 늘리는 |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A]

[B]

[C]

[D]

[E]

- 곽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꿨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영: 고개.

(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과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져*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 꿈을 둘러 상시과져: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 학발자안: 머리가 하얗게 썬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 안족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푹푹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미,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 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끔힐끔 운다.

간(間)

처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미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꺾습디다.

처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첨지가 양편에서 꼭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놈.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첨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 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첨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푹푹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첨지…….

윤 첨지 …….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 팽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깽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팽이를 잡아 뺏으며) 이 팽이가 무슨 팽인 줄 알어?

노어부 (덤비려다가 처의 너무도 험쭉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처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녕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쭉 뻗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갯빛 같은 고기가 쭉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A]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레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 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뭘 때문에 울어들? (팽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첨지, 복망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텔 가요?

분 어미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썩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 가듯 획 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첨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미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됐자 가슴만 줄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울면서 등장) ㉤ 어머니가 갯가에서 팽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였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푹푹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첨지 ㉥ 먼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 졌지. 자네 한 잔 쭉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엿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함세덕, 「산허구리」 -

37.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 ② '석이'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윤 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④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 ⑤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38. ㉠~㉥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② ㉡과 상반된 ㉢의 정보로 인해,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 ③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 ⑤ 관객은 ㉥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보기>의 ㉠~㉥ 중 [A]의 **괘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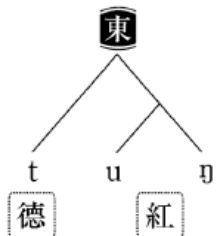
<보 기>

괘이는 '복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진행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도구이다. 처음에 괘이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부엌 뒤에 놓여 있었는데, ㉠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후 괘이는 ㉡ '처'가 '노어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을 하며, ㉣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 관객들은 괘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지켜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韻書)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東'(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는 반절법에 의해 '德'(덕)의 초성 [t]와 '紅'(홍)의 중·종성 [uŋ]을 이용해 표시했다. 이때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 이러한 발음 표시 방식은 조선의 역관들이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 『사성통해』에서는 한자 '東'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표음성을 이용해 중국의 한자음을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절법과 달리 한자의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 이를테면 '부부[pubu]'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 [p]와 유성음 [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ㅂ'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가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ㄱ', '다도'의 'ㄷ'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한글의 표음성은 국어 화자들의 '예민한 귀'보다는 '지혜로운 머리'에 맞춰진 합리성을 보여 준다.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었다.
- ②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 ④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41.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②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4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고 궁 이 크 다]
B: [koguŋik^hida]

-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군.
-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군.
-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군.
-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군.
-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군.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 들여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43.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체적 증거를 활용하여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예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으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로크 시대의 기악은 악기가 발달하고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면서 발전하였다.
 - ② 정서론과 음형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 ③ 부어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형론의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 주었다.
 - ④ 마테존은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⑤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 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래는 은비가 습작한 바로크 양식 성악곡의 일부분이다.

㉠ 리단조

㉡ 스타카토

㉢ 올라가는 가락

대 지를 적시는 눈물 열리는 신 의 하늘 모 두가

㉣ 온힘표

㉤ 다장조로 조바꿈

아—무말— 없네 내 맘에 환 희 녘 치네

- ① ㉠: 경건하고 웅장한 분위기 설정을 위한 것이겠군.
- ② ㉡: 푹푹 떨어지는 ‘눈물’을 묘사한 것이겠군.
- ③ ㉢: ‘하늘’이 높다는 의미를 염두에 둔 것이겠군.
- ④ ㉣: 말의 장단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겠군.
- ⑤ ㉤: 기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겠군.

46. ㉠과 관련하여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A) 시작하자, 그는 채로 장구를 (B) 시작했다.

- | | | |
|---|----------|----------|
| | <u>A</u> | <u>B</u> |
| ① | 뜯기 | 치기 |
| ② | 치기 | 켜기 |
| ③ | 타기 | 통기기 |
| ④ | 켜기 | 두드리기 |
| ⑤ | 통기기 | 타기 |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쳐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려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책이나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 나갔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 ‘전자를 보는 것’은 ㉢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 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47.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 ②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 ③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 ④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촬영 대상에 광양자를 쏘는 것이다.
 - ⑤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48. 위 글에서 ㉣과 구별되는 ㉤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 ② 대상을 매개물 없이 직접 지각할 수 있다.
 - ③ 대상이 너무 작아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 ④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 ⑤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4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정한 전압에 의해 가속된 전자 빔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자 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측정한 전자의 운동량은 ㉠ $1.87 \times 10^{-24} \text{ kg} \cdot \text{m/s}$ 였다. 그 측정 오차 범위는 ㉡ $9.35 \times 10^{-27} \text{ kg} \cdot \text{m/s}$ 보다 줄일 수 없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해 보니 이때 전자의 x축 방향의 위치는 ㉢ $5.64 \times 10^{-9} \text{ m}$ 의 측정 오차 범위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 없었다.

- ①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이 ㉠이겠군.
- ② 전자의 질량을 알면 ㉠로부터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
- ③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보다 커질 수 있겠군.
-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 범위는 ㉡보다 커지겠군.
- ⑤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를 ㉢보다 줄일 수 있겠군.

50.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단위를 10개로 잡을 때 200개는 20단위이다.
 - ② 수확량을 대충해 보니 작년보다 많겠다.
 - ③ 바지 길이를 대충 재어 보고 샀다.
 - ④ 운동장의 넓이를 가늠할 수 없다.
 - ⑤ 건물의 높이를 어림하여 보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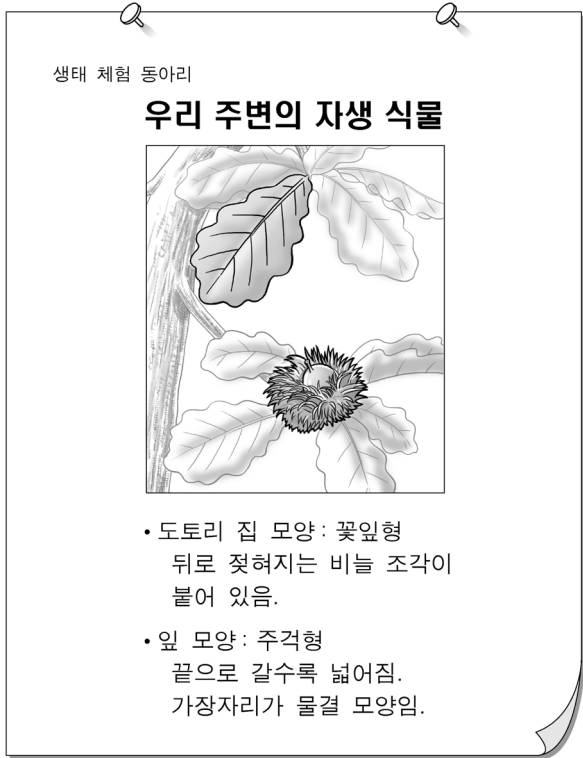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사에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 ③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갖춰야 한다.
- ④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물음) 발표를 위해 만든 그림판 초안이다. 대화에서 언급한 수정·보완 사항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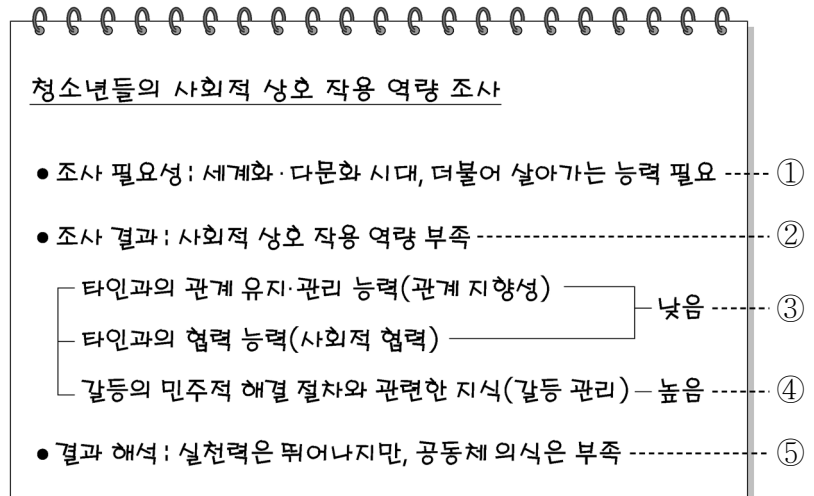
- ① 발표할 내용에 맞게 제목을 수정한다.
- ②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 ③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삽입한다.
- ④ 그림 아래에 있는 정보의 순서를 조정한다.
- ⑤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린다.

3. (물음) 뉴스를 듣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칩 위의 약국’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군.
- ② 컴퓨터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게 되었군.
- ③ 장기간에 걸쳐 적정량의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투약 효과가 높아지겠군.
- ④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겠군.
- ⑤ 약물의 조절이 필요할 때 몸 밖에서 신호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더 편리하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인터뷰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5. (물음) 인터뷰 내용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을 평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천적 관점에서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② 부정적 태도를 취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한다.
- ③ 중립적 자세로 내용을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 준다.
- ④ 공감적 태도를 보이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⑤ 조사 결과는 수용하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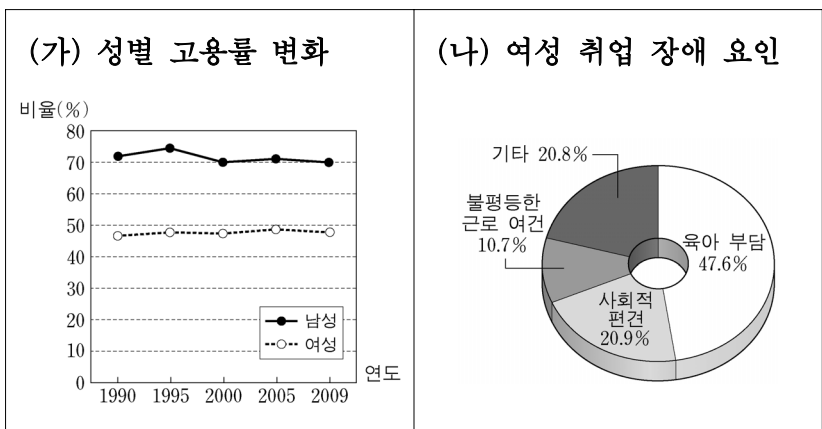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다음 인터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Q.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우승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위력적인 전진 속공이 강점인 ○○○ 선수와 팀을 이룬 것이겠죠. 견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유도하는 저와는 찰떡궁합이었던 셈입니다.
 Q. 그렇군요.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요.
 A. 까다로운 강팀들의 경기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습 경기 파트너로 △△ 팀을 선택했는데요,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최적의 상대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출전을 앞두고는 감독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연습 경기에서 나타났던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습니다.

- ①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친구와 팀을 꾸린다.
- ② 상대 팀이 약체로 판단되어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전력을 분석한다.
- ③ 상대 팀의 예상 논거를 분석하여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
- ④ 모의 토론을 통해 토론 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전 대응력을 키운다.
- 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

7. '여성 고용 촉진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전문가 의견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전적 지원, 휴가 정책, 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을 통해 직업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결과 노동 시장에서 여성 고용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최근 20년간 여성 고용률과 남성 고용률의 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을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고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8.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I. 서론

1. 청소년기 문화·예술 체험의 중요성
2.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 ㉠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필요성

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

1.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 ㉡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만족도

III.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문제점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 ㉢
2.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
3.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

IV.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 ㉣

1.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2.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

V. 결론

- ① ㉠: 논지 전개상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수정한다.
- ③ ㉢: IV-1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확대'로 대체한다.
- ④ ㉣: III-3을 고려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⑤ ㉤: 주제와 III을 고려하여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한다.

[9~10] 다음은 사진전을 관람한 후 작성한 소감문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전에 다녀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진전에 다녀왔다. 그 곳에서는 '빛 공해'의 실태를 보여 주고 적절한 조명을 권장하는 취지에 ㉡ 걸맞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빛 공해'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동식물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를 말한다.
 ㉢ 어두워야 할 밤에 지나친 조명을 받으면 인체의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생체 리듬이 깨지며, 식물의 성장에도 장애가 된다고 한다.
 나는 여러 작품 중 특히 도시의 건물 사이에 넘쳐 나는 조명을 용암처럼 표현한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무심코 켜 놓은 불빛들이 모여 도시를 끓게 하고 있었다니 ㉣…….
 관람을 마치고 나오니 '빛 공해'를 주제로 한 표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진전에서 받은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나도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어를 ㉤ 제기 하고 돌아왔다.

9.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전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은 '빛 공해 사진전에 다녀와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은 '걸맞은'으로 바꿔야겠어.
- ③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앞 문장과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어.
- ④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은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로 생략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좋겠어.
- ⑤ 문맥에 적합하도록 ㉤은 '제출하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10. <보기>는 '표어 대회'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작성한 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지는 내용을 담을 것.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할 것.

- ①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조명의 불빛
하늘을 슬프게 해매는 새들의 눈빛
- ② 무심코 불을 켜면 한숨 쉬는 나무들
당신이 불을 끄면 미소 짓는 나무들
- ③ 거리의 환한 조명으로 잠 못 드는 사람들
당신의 손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 ④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들의 아름다운 향연
화려한 조명들이 선물하는 사진 속의 예술
- ⑤ 별빛마저 삼켜 버린 솔잎같이 따가운 불빛
아아 그림구나! 깜깜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11.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동일한 '체언 +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12.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보 기>

밤중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원형으로 젓고)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뚝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뒤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띄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 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건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앓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러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衾)***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뚱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뚱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뚱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뚱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뚱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뚱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 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입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④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21.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멍들다 ② 빛내다 ③ 힘쓰다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는 파스칼(Pa, 1 MPa=10⁶ 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 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 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 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

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②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③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④ 증산 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물기둥에 장력이 발생한다.
 ⑤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관부 내의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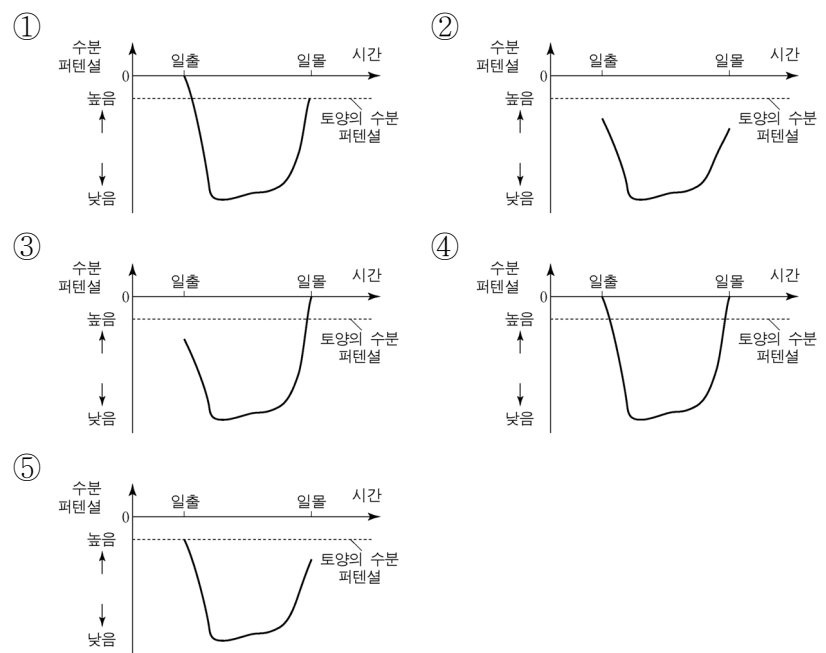
24.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한다.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한다.
 ㉢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퍼텐셜이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진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잎’의 수분 퍼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찌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맨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턱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신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꼬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도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건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긁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밑천을 뽑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씌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던,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 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 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②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쉘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 조성(造成)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영화는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온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작가의 의도는 현실을 화면에 담는 촬영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 ②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 ③ 이차 프레임의 시각적 효과는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④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 ⑤ 이차 프레임은 액자형 서사 구조의 영화에서 이야기 전환을 알리는 데 쓰이기도 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는군.
- ② ㉠가 없다면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강조되었군.
- ③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에 시선이 유도되는군.
- ④ ㉠ 안의 인물은 멀리 있어서 ㉠가 없더라도 작품 내 존재감이 비슷하겠군.
- ⑤ ㉠가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뀌더라도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겠군.

32.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한 그림에서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이 인물을 가두고 있는데, 팔과 다리는 틀을 빠져나와 있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 ②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은 항상 닫혀 있는데, 이는 주인공의 폐쇄적인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③ 한 그림에서 문이라는 이차 프레임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 뒤, 정작 그 안은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하여 관객에게 혼란을 준다.
- ④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앞집의 반쯤 열린 창틈으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목격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틈이 한 가정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⑤ 한 영화는 자동차 여행 장면들에서 이차 프레임인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하여, 외부 풍경을 보여 주며 환경과 인간의 교감을 묘사하는 로드 무비의 관습을 비튼다.

33.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결성(結成)되기도 ② 구성(構成)되기도
- ③ 변성(變成)되기도 ④ 숙성(熟成)되기도
- ⑤ 형성(形成)되기도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버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용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배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뒀듯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구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리이다.”
 ㉠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떨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향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향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훈(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 나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신: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흥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흥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해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 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 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공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 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흥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흥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흥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 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오.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흥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꼭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흥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39.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흥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간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산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를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를 계기로 ㉡에 이르러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룰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룰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 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41. 위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리고 보니 ㉡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어, 저기 ㉣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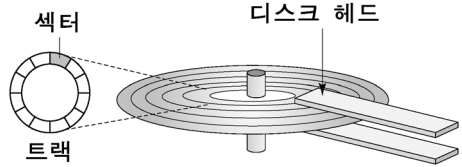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밑줄 친 단어들이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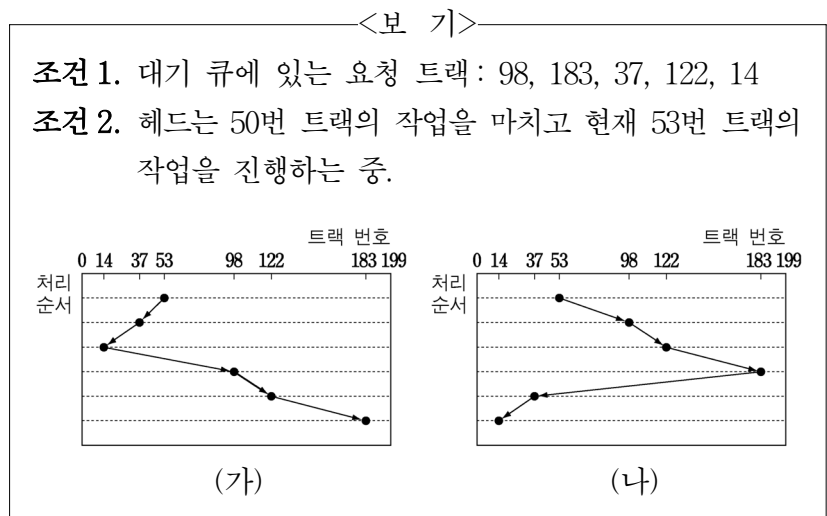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 ②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 ③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 ④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45. <보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에서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스케줄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가) | (나) |
| ① | FCFS | SSTF |
| ② | SSTF | SCAN |
| ③ | SSTF | LOOK |
| ④ | SCAN | LOOK |
| ⑤ | LOOK | SCAN |

46.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3점]

- ①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SSTF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작다.
-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 ⑤ 요청된 트랙 번호들에 끝 트랙이 포함되면,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 ㉡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학생의 발표 주제로 적절한 것은?

- ① 택견의 유래
- ② 택견 동작의 멋
- ③ 택견의 전승 과정
- ④ 택견 수련의 절차
- ⑤ 택견 보유자의 조건

2. (물음) 대화에서 다룬 그림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일상의 체험에서 받은 인상이 드러난 그림
- ② 소재가 지닌 특징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
- ③ 감상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그림
- ④ 그림에 대한 동서양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그림
- ⑤ 실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

3. (물음) 강연자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도	표정
첫 번째 자료	감정을 드러내려 함	감정이 드러남
두 번째 자료	㉠	㉡

- | ㉠ | ㉡ |
|--------------|----------------|
| ① 감정을 숨기려 함 | 감정이 드러남 |
| ② 감정을 숨기려 함 | 감정이 드러나지 않음 |
| ③ 감정을 드러내려 함 | 감정이 드러남 |
| ④ 감정을 드러내려 함 | 본래와 다른 감정이 드러남 |
| ⑤ 감정을 드러내려 함 | 감정이 드러나지 않음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책의 판매량 증가 여부
- ② 전자책의 장점
- ③ 남녀별 선호하는 전자책의 분야
- ④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의 종류
- ⑤ 전자책 구매량의 연령층 순위

5. (물음) 남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인 통념을 비판하며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낯선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사람을 사례로 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에 착안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기 장인은 먼저 무엇을 위해 옹기를 만드는지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흙을 골라 채취한다. 그다음에는 흙을 매만지고 반죽하여 흙가래를 만든다. 이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 서로 연결되도록 두드리며 몸체를 만든다. 이때 구조상 각 부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쉽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각 부분이 잘 연결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몸체를 만든 후에 장인은 옹기를 전체적으로 살펴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 장인들은 옹기에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무늬를 새겨 넣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좋은 옹기는 장인의 솜씨와 정성이 깃들어 기능성과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것이다.

착안점 흙 ≍ 글감, 옹기 ≍ 글, 장인 ≍ 글쓴이

- ①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
- ②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
- ③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 ④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
- ⑤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

7. '응급 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학생 대상의 응급 처치 교육을 활성화하자.

I. 서론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대처 능력 부족

II. 응급 처치의 한계㉠

1. 인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임.
2. 회복 및 치료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됨.

III. 응급 처치 교육의 문제점

1. 응급 처치 교육 기회 부족
2. 응급 처치 관련 교육 자료의 부족
3. 강사의 시범 보이기에 그친 교육 내용㉡

IV.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

1. 응급 처치 교육 기회 확대
2. 학생 체험을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
3. 유행성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 강화㉣

V. 결론
응급 상황의 종류와 발생 빈도㉤

- ① ㉠: 하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응급 처치의 의의'로 수정한다.
- ② ㉡: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V-2'와 맞바꾼다.
- ③ ㉢: 'III-2'를 고려하여 하위 항목에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을 추가한다.
- ④ ㉣: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⑤ ㉤: 글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촉구'로 대체한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교내 학생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학생의 고민 내용 조사

순 위	내가 선호하는 상담자	내게 도움이 되는 상담자
1	친구	교사
2	선배	선배
3	교사	친구

(나) 희망 상담자에 대한 학생의 요구 조사

(다) 연구 보고서

- 상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일회에 그친 상담보다 서로에 대한 공감과 신뢰가 쌓이면서 상담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배와 후배를 연결해 서로 상담할 경우, 선배는 학습 동기를 심어 주고, 학습 방법 습득에 도움을 주어 후배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가): 학생들이 주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들어 학업이나 진로와 같은 고민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을 밝힌다.
- ② (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음을 들어 상담자 선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③ (다): 일회적인 만남보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담 효과가 커짐을 들어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다.
- ④ (가), (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인식함을 들어 교사를 상담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⑤ (가), (다):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은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학습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들어 선배를 상담자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9.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청산도의 바다

하늘과 바다, 산이 모두 푸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청산도’. 그곳은 산비탈을 따라 놓인 논과 밭, 푸른 바다와 어울리는 나지막한 집들과 돌담길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섬이었다. ㉡ 나는 먼저 구들장 논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전체에 구불구불한 돌담이 이어져 있는 상서리로 갔다. ㉢ 상서리 사람들은 매우 바빠 보였다. 층층이 쌓아 올린 돌담은 소박하게 지어진 농가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구들장 논은 청산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풍경이다. 구들장 논은 산비탈을 깎아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안에 돌을 넣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 ㉣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 흙을 깔아 구들장처럼 만든 것이다. 이는 흙이 귀한 섬에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한 섬사람의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풍경과 정취를 내게 선사한 곳이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시 가 보고 싶다.

- ① ㉠은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꿔야겠어.
- ② ㉡의 내용을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③ ㉢은 문단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문장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그 위에’로 바꿔야겠어.
- ⑤ ㉤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맨 앞에 ‘청산도는’을 추가해야겠어.

10. 작문 시간에 ‘친구를 칭찬합니다’를 주제로 간단한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대상이 되는 친구의 행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을 것.
○ 역설법을 활용할 것.

- ① 시각 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김○○을 칭찬합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② 토요일마다 경로당에 가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장○○을 칭찬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웃음꽃, 할머니의 마음에는 행복꽃. 이번 기회에 우리도 힘을 보탭시다!
- ③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박○○을 칭찬합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그림 덕분에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이 환해졌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녀가 예쁘게 보입니다.

- ④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정○○을 칭찬합니다.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 문화재를 알리는 일에 당신도 함께하세요.
- ⑤ 사회 복지 시설에서 과학 실험 봉사를 하는 최○○을 칭찬합니다. 아직은 아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해 힘들어 하지만, 당신이 돕는다면 친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1.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나, 키, 나, T, -’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해, 켜, 나, 기, -’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해, 켜’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됐다

- | | | | |
|---|-----|----|-----|
| | ㉠ | ㉡ | ㉢ |
| ① |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 패다 | 팬 | 패였다 |
| ③ | 패다 | 패인 | 패였다 |
| ④ |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 패이다 | 패인 | 패였다 |

1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허를 내들렸다. (→ 안쓰러워하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자가 살았던 춘추 시대는 주나라 봉건제가 무너지고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일삼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자는 예(禮)를 제안하였다.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는 정명(正名)에서 시작한다고 하며, 정명을 실현할 주체로서 군자를 제시하였다. 정명이란 '이름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주는 군주다운 덕성을 갖추고 그에 ㉠ 맞는 예를 실천해야 하며,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부모 자식도 그러해야 한다. 만일 군주가 예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과 형벌에 ㉡ 기대어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공자는 보았다.

공자가 제시한 군자는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예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원래 군자는 정치적 지배 계층을 ㉢ 가리키는 말로 일반 서민을 가리키는 소인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공자는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여 군자와 소인을 도덕적으로도 구별하였다. 사리사욕에 ㉣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소인과 도덕적 수양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자를 도덕적으로 차별화한 것이다. 군자는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군주는 군자다운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자가 당시 지배 계층에게 도덕적 본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근거한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자는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명을 통한 예의 실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이 참되고 미더운 상태가 되도록 자신의 내면을 잘 ㉤ 살피라고 하였다. 이렇게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옛 성현의 책을 읽고 육예(六藝)를 고루 익혀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가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독려했다.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성인(聖人)이다. 공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를 가리키는데 언제 어디서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지속적인 도덕적 수양을 통해 혼란스러운 당시의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이끌고자 하였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제후국의 패권 경쟁이 심하던 시대였다.
- ② 공자는 군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하였다.
- ③ 공자는 예에 기반을 둔 정치를 실현할 주체로 군자를 제시하였다.
- ④ 공자는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군자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 보았다.
- ⑤ 공자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법과 형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4. 위 글에 나타난 '예(禮)'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 ②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 ③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다.
- ④ 사회 구성원의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하는 규범이다.
- ⑤ 모든 계층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규범으로 강조되었다.

15.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소인이 군자가 되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다.
- ㄴ. 군자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유학에서 목표로 삼는 대상이다.
- ㄷ. 소인도 도덕적 수양을 하고 학문적 소양을 갖추면 군자가 될 수 있다.
- ㄹ. 군자와 성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도덕적 본성의 완성 여부를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6. ㉠~㉤를 한자어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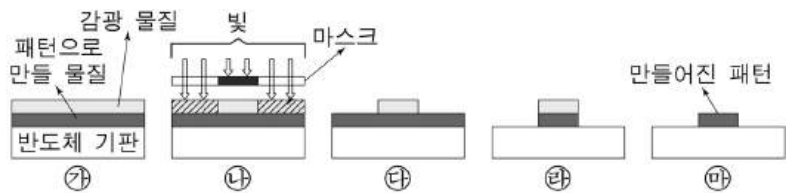
- ① ㉠: 합당(合當)한
- ② ㉡: 의거(依據)하여
- ③ ㉢: 지칭(指稱)하는
- ④ ㉣: 매수(買收)되어
- ⑤ ㉤: 성찰(省察)하라고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는 반도체 소자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줄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 원판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판화를 종이 위에 찍어 낼 수 있듯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제작한 후,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 판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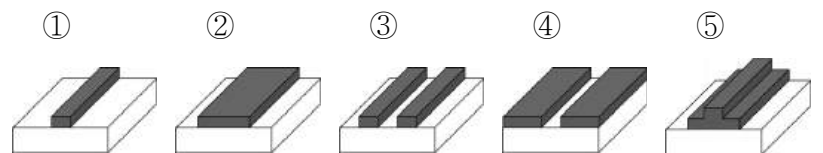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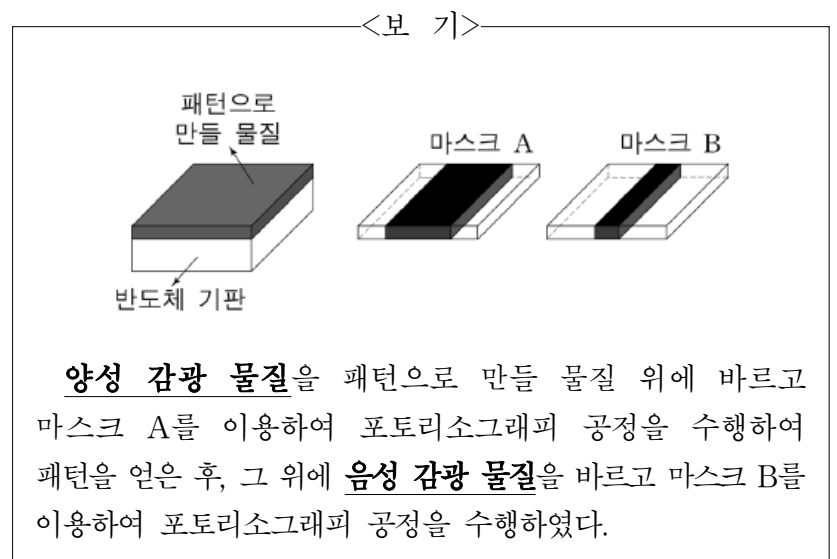
먼저 ㉑와 같이 패턴으로 만들 물질이 코팅된 반도체 기판 위에 감광 물질을 고르게 바른 다음, 감광 물질이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말한다. 두 번째로, ㉒와 같이 마스크 위에서 빛을 쬐어 준다. 마스크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 빛은 마스크의 패턴을 제외한 부분만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세 번째로, ㉓에서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하면 ㉔와 같이 된다.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을 양성 감광 물질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쓰는 감광 물질을 음성 감광 물질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㉔에 남아 있는 감광 물질을 보호층으로 활용하여 감광 물질이 덮여 있지 않은 부분만을 제거하면 ㉕와 같은 모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㉕와 같이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한편,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㉑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하게 마스크에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1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도체 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② 포토리소그래피에 쓰이는 마스크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 ③ 마스크에 패턴을 새겨 넣는 레이저는 판화의 조각칼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④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보다 작다.
- ⑤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

18. <보기>의 모든 공정을 수행했을 때,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될 패턴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9. ㉑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 ②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③ 빛을 사용하지 않고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의 발명을 위해
- ④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
- ⑤ 반도체 소자 생산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A]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
 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땡땡 치는구나. 향단은 미음상 이고 등
 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
 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
 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
 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르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B]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
 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絶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
 [C] 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
 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
 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
 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
 하여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
 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린 입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 자나 누우나 입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입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
 하라.
 [E]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
 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걸어 엎고 이리 비
 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삼군인 척 달려들
 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
 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지도 둘라 말고 육
 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엮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
 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 수절원사: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22. [A]~[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 ② [B]: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춘향 모친’은 비꼬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조변석개(朝變夕改)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붕어빵’을 팔던 가게에서 붕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 ‘붕어: 붕어빵=잉어: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붕어와 붕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붕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붕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 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위 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
- ②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 ③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외에 어떤 단어 형성 방식이 있는가?
- ④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가?
- ⑤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25.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로 알맞은 것은?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	떠올린 단어	근거로 삼은 단어	만든 단어
①	수정으로 만든 반지	결혼반지, 금반지	금반지	수정반지
②	인삼 가루를 탄 물	바닷물, 설탕물	바닷물	인삼물
③	회갑을 기념하는 떡	생일떡, 호박떡	호박떡	회갑떡
④	비닐로 만든 옷	겨울옷, 비단옷	겨울옷	비닐옷
⑤	돌로 만든 잔	유리잔, 우유잔	우유잔	돌잔

2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운탕’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싱건탕’을 제안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건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언중들은 ‘싱겁다’란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매운탕’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탕’의 국물 빛깔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맑은국’에서 유추한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싱건탕’이 ‘맑은탕’보다 국어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겠군.
- ② ‘싱건탕’과 ‘싱건김치’ 간에는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겠군.
- ③ ‘맑은탕’은 ‘탕’의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겠군.
- ④ ‘싱건탕’과 ‘맑은탕’은 모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방식으로 만들었겠군.
- ⑤ 언중들이 ‘싱건탕’을 짜지 않은 탕으로 해석한 것은 ‘싱겁다’의 의미에 이끌렸기 때문이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짚는다.

어둠을 짚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떤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B]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C]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D]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E]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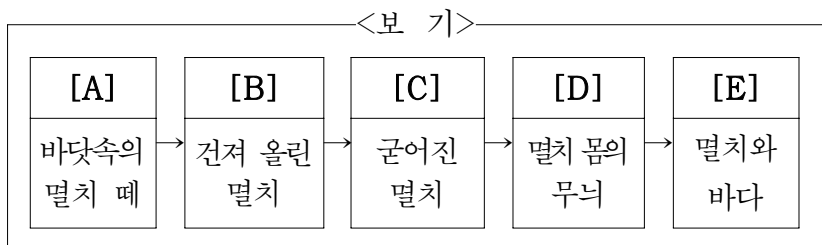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했던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 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속된 과정이다.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한다. 이런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이지만 여행사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의 손 안에 가져다준다.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다.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인터넷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자 송신자로 활동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31. 위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두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② 필자의 관점을 명시한 후 다른 관점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개념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3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제의와 집단적 놀이가 결합되어 있었다.
- ② 고대 사회에서는 희생 제의를 통해 자연을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 ③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휴식이 상품 소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④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이가 상품화되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되었다.
- 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 충족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33.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회사원 A 씨는 축구를 좋아한다. 최근 A 씨는 근무 중 틈틈이 ㉠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축구 경기 동영상을 즐겨 본다. 회사에서는 ㉡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를 허용한다. 주말이나 휴일 아침에 A 씨는 ㉢ 친구들과 모여 축구 시합을 하고, 저녁에는 ㉣ 경기장에 직접 가서 프로 축구 경기를 관람한다. 가끔 새벽에는 ㉤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인터넷 축구 방송을 보면서 친구들과 댓글을 달며 같은 팀을 응원하기도 한다.

- ① ㉠은 쌍방향적 놀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군.
- ③ ㉢은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은 놀이의 구경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은 친구들 사이의 연대감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3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집에 도착하거든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 ②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
- ③ 마음을 바로 써야 복을 받는다고들 한다.
- ④ 우리는 국기를 바로 다는 방법을 배웠다.
- ⑤ 학생들은 모자를 바로 쓰고 단정히 앉았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강호 한 꿈을 꾸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사
 훌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진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련만
 두세 이랑 발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A]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소 빌 이: 소 빌리는 일.
- * 빈이무원: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나) 천심절벽(千尋絕壁)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B]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야.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C]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제4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어조 생애: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 백조: 모든 새.
- * 내곳: 내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개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 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혹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鱖)로 벗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蓬蓜)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 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회멸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한묵: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6.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④ (가)의 '풍월 강산'과 (나)의 '세간'은 풍류의 공간이다.
- ⑤ (나)의 '광풍'과 (다)의 '소식'은 화자를 번민하게 한다.

37.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년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살았나

* 원헌: 춘추 시대에 청빈(淸貧)하게 산 학자.
* 석숭: 진(晉)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8. [B]와 [C]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B]와 [C]의 중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다)의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암조어(寒巖釣魚)」

이 그림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고 있는 어옹(漁翁)을 그린 것이다. 어옹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상사를 넘어서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 명리(名利)를 떠나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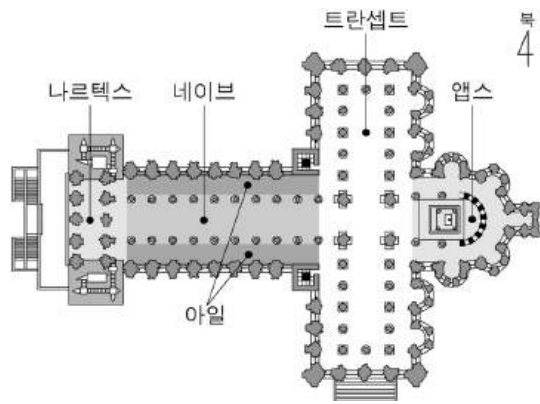
- ①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③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것을 원하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여러 시대에 걸쳐 유럽의 성당은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그 기본은 바실리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형식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나 재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서쪽 끝 부분에는 일반인들의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나르텍스가 있다. 나르텍스를 지나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네이브가 있고, 네이브의 양 옆에는 복도로 활용되는 아일이 붙어 있다. 동쪽 끝 부분에는 신성한 제단이 자리한 앱스가 있는데, 이곳은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직자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실리카



식 성당은 앱스 앞을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트란sept라는 공간이 추가되어 ㉠열십자 모양의 건물이 되었다.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는데, 네이브의 폭도 넓어지고 나르텍스에서 앱스까지의 길이도 늘어났으며 건물의 높이도 높아졌다.

절정기의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 이는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는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기도 하고,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특히 벽면에는 스테인드글라스로 구성된 커다란 창을 사람의 키보다 높게 설치하여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내부 공간에 풍부하게 퍼지도록 하였다. 이는 서양의 중세인들이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중심으로 조각, 회화, 공예 등이 한데 어우러져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40. 바실리카식 성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건축물이다.
- ② 4세기경에 출현하여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 ③ 종교적 기능을 가진 로마 시대의 건축에서 유래했다.
- ④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웅대해지고 화려해졌다.
- ⑤ 실내의 벽과 천장을 종교적 예술 작품으로 장식하였다.

41. ㉣의 실내 공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일은 현관문으로 건물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 ② 나르텍스는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이다.
- ③ 트란sept는 종교 의식이 확대되면서 추가된 공간이다.
- ④ 앱스는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통로이다.
- ⑤ 네이브는 제단이 놓인 곳으로 성당 내에서 제일 신성한 곳이다.

42.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건물 각 부분의 공간 구성에는 인체 비례가 적용되었고, 지붕에 있는 신들의 조각에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외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며, 길게 뻗은 기단 등을 주로 활용하여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다.

- ①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건물에 조각 장식을 새겨 넣지 않았군.
- ② 파르테논 신전은 바실리카식 성당과는 달리 외부에서 보면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주는군.
- ③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빛을 통해 건물의 내부를 강조했군.
- ④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군.
- ⑤ 파르테논 신전과 바실리카식 성당은 모두 당대의 미의식이 건물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군.

43.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시대나 부류에 따라 각기 독특하게 지니는 문학, 예술 따위의 형식.
- ② ㉡: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 ③ ㉢: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 ④ ㉣: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짐작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
- ⑤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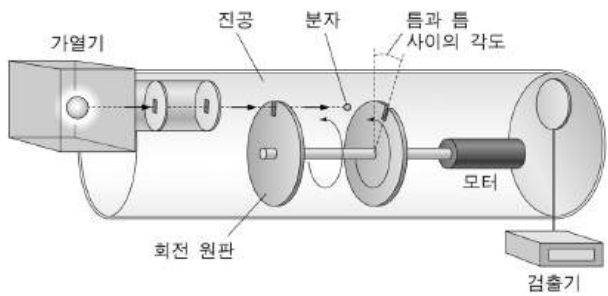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온에서 대기압 상태에 있는 1리터의 공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질소, 산소 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산소 분자 하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며, 충돌을 할 때마다 이 분자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어떤 구간의 속력을 가진 분자 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분자들의 속력 분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태에 있는 산소처럼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 우리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 경우에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게 된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는 맥스웰의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로축을 속력, 세로축을 분자 수 비율로 할 때 종(鐘)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속력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꼭짓점 부근에 해당하는 속력을 가진 분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은 온도와 기체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온도만 올리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빠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는데, 이는 전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자 수와 온도는 같은데 분자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느려져서 분포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동하며, 분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그림은 맥스웰 속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 밀러와 쿠슈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기와 검출기 사이에 두 개의 회전 원판이 놓여 있다. 각각의 원판에는 가는 틈이 있고 두 원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원판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가열기에서 나와 첫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을 지나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특정한 속력 구간보다 더 빠른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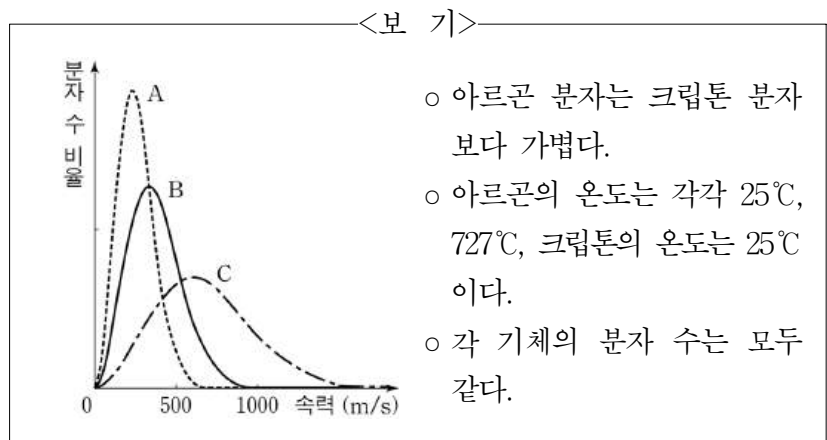
자들은 두 번째 틈이 꼭대기에 오기 전에 원판과 부딪치며, 느린 분자들은 지나간 후에 부딪친다.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 이 각도를 고정하고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되는 다른 속력을 가진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온도에서 특정한 기체의 속력 분포를 알아보았더니, 그 결과는 맥스웰의 이론에 부합하였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분자들의 충돌은 개별 분자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② 대기 중 산소 분자 하나의 운동 궤적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
- ③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
- ④ 분자의 충돌에 의해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 ⑤ 대기 중에서 개별 기체 분자의 속력은 다양한 값을 가진다.

45. <보기>의 A, B, C는 맥스웰 속력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기체와 그래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아르곤(25℃) 아르곤(727℃) 크립톤(25℃)

- | | | |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C | A |
| ④ | B | A | C |
| ⑤ | C | B | A |

46. ㉠과 연관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맥스웰 속력 분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② 첫 번째 회전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검출기에 도달한다.
- ③ 첫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다양한 값의 속력을 가진다.
- ④ 원판의 회전 속력은 같고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빠른 분자들이 검출된다.
-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이 두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는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 쪽 꺾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꺾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다.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 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 빠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뺑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 향라 적삼: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윗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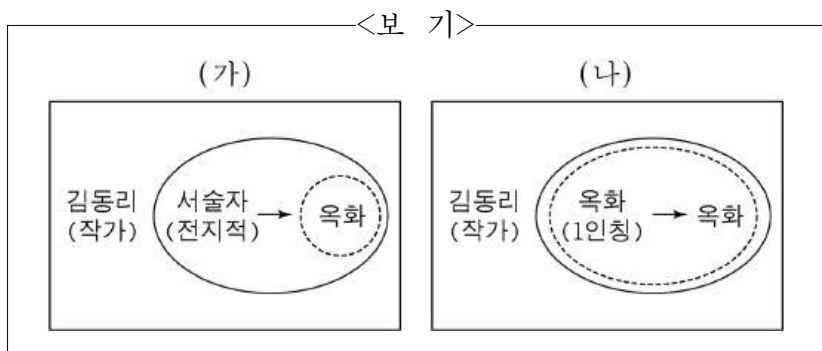
* 통정: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4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9. ㉠과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항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언어 영역

홀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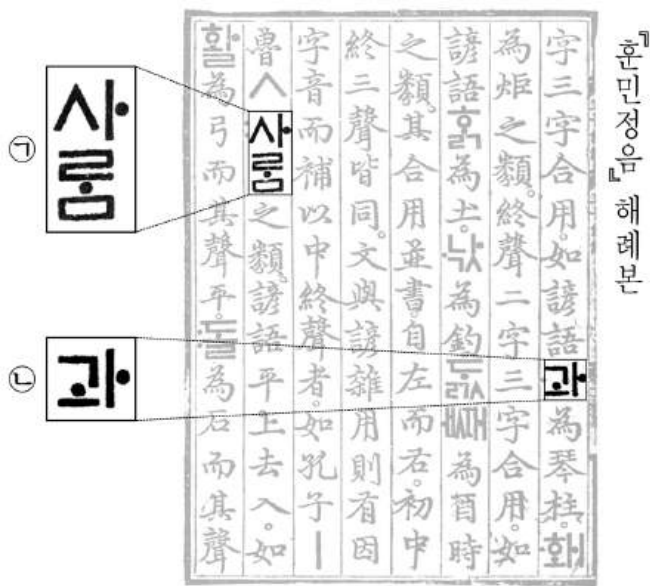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젊은 국악인들이 보여 준 ()을/를 배워야겠어요.

- ① 이타심
- ② 집중력
- ③ 실험 정신
- ④ 절제하는 자세
- ⑤ 순수 지향적 태도

2. (물음) ㉠과 ㉡이 『월인석보』에 쓰였을 경우, 그 서체에 해당하는 것은?



	①	②	③	④	⑤
㉠...	사	사	사	사	사
	름	름	름	름	름
㉡...	과	과	과	과	과

3. (물음)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자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이다.
- ② 원자시계에서 시계추의 움직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원자의 진동이다.
- ③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지구의 자전 주기와 원자시계의 24시간은 정확히 일치한다.
- ⑤ 윤초를 삽입하여 원자시계의 시각을 조정하기도 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다음은 청취자가 대담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대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담 내용

- 정책의 추진 목적 ①
- 정책의 추진 사례 ②
- 정책의 추진 절차 ③
- 정책에서 보완할 점 ④
- 정책 추진의 어려움 ⑤

5.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궁금한 점을 제시하며 추가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설명을 보완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게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해 화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 ① (가) 'I-1'은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나) 'II'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야겠어.
- ② (가) 'I-2'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III'에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야겠어.
- ③ (가) 'II'의 하위 항목들을 (나) 'I'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켜 생활 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타 지역의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나) 'III-2'의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 ⑤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나) 'IV'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바꿔야겠어.

[9~10] 다음은 신입생에게 기타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기타 동아리 '소리샘'입니다. '소리샘'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솟아나는 ㉠ 샘이므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타를 배우고 연주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데 기타를 전혀 못 쳐서 ㉡ 망서리 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아리에 오시면 선배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립니다. ㉢ '소리샘'에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기타가 많이 있으니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동아리에 들러 선배들을 찾아 주세요.

우리 동아리는 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해 자율적인 연습을 하고 매년 정기 공연을 합니다. ㉣ 자율성은 책임 의식을 갖게 하므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와 공연만 하는 다른 음악 동아리와 달리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열고 성금을 기탁하는 활동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9.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뒤 절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을 '샘이라는 뜻으로'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망설이시나요'로 수정한다.
 - ③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여 ㉢에 '악보를 읽을 줄 모르 시나요?'를 추가한다.
 - ④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⑤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을 맞바꾼다.

10. 초고의 내용을 활용한 홍보 문구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3점]

—<보 기>—

- 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드러낼 것.
- 다른 음악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밝힐 것.
-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마무리할 것.

- ① '소리샘'으로 오세요. 기타 연주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동아리는 '소리샘'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소리샘'의 멋진 기타 연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② 고민하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 '소리샘'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③ 기타 연주는 나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즐거움을 줍니다. '소리샘'은 다른 동아리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음악 동아리입니다.
- ④ 외롭고 우울한 날, 그날의 분위기에 맞는 곡을 연주해 보세요.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소리샘'의 아름다운 선율은 오늘도 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 ⑤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세요. 음악과 사회봉사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입니다. '소리샘'에서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세요.

11.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12.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빼다	주차장에서 차를 <u>빼다</u> .	대다
	(가)	넣다
	적금을 <u>빼서</u>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u>빼다</u> .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u>빼다</u> .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u>빼다</u> .	찾다
④	새집 냄새를 <u>빼다</u> .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u>빼다</u> .	들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막 씨 출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 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닳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 항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찼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흡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뇌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 하소서.”

[A]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쪼오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례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 산점: 해산의 기미.
- * 정문: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 월음: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 수말: 일의 처음부터 끝.

1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6.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A]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곁알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 어린이의 마음은 건잡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B]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육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댄,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딸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뻘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깍정이: 거지.

1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19. ㉠~㉣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함께 ㉢, ㉣을 조롱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을 무시하고 있다.
- ③ ㉢은 ㉡에 기대어 ㉣에게 조언하고 있다.
- ④ ㉢은 ㉡이기는 하지만 ㉣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 ⑤ ㉢은 ㉠, ㉡, ㉣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줄기를 이룬다.

- ① ‘창수’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 의미에서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움직임의 유무일 것이다. 영화는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 즉 시간을 재현한 예술 장르이다. 반면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을 알고 있다.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에 따라 공간적으로 나열된 것이 만화이기 때문이다. 만일 만화에도 시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읽기의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사후에 생성된 것이다. 독자는 정지된 이미지에서 상상을 통해 움직임을 끌어낸다. 그리고 인물이나 물체의 주변에 그어져 속도감을 암시하는 효과선은 독자의 상상을 더욱 부추긴다.

만화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한다. 영화 화면의 테두리인 프레임과 달리, 만화의 칸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또한 만화에는 한 칸 내부에 그림뿐 아니라, ㉠ 말풍선과 인물의 심리나 작중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독자의 읽기 시간에 변화를 주게 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가 일정하여 감상의 속도가 강제된다.

영화와 만화는 그 이미지의 성격에서도 대조적이다. 영화가 촬영된 이미지라면 만화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필름에 착상되는 사진적 원리에 따른 영화의 이미지 생산 과정은 기술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영화 이미지 내에서 감독의 체취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에 비해 만화는 수작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해석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그림의 스타일과 터치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만화 이미지는 ‘서명된 이미지’이다.

촬영된 이미지와 수작업에 따른 이미지는 영화와 만화가 현실과 맺는 관계를 다르게 규정한다. 영화는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어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된다. 이 기록의 과정에는 촬영장의 상황이나 촬영 여건과 같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촬영된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에서 합성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하는 ㉡ 디지털 특수 효과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만화의 경우는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가 현실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화 이미지는 그 제작 단계가 작가의 통제에 포섭되어 있는 이미지이다. 이 점은 만화적 상상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기에 작가의 상상력에 이끌려 만화적 현실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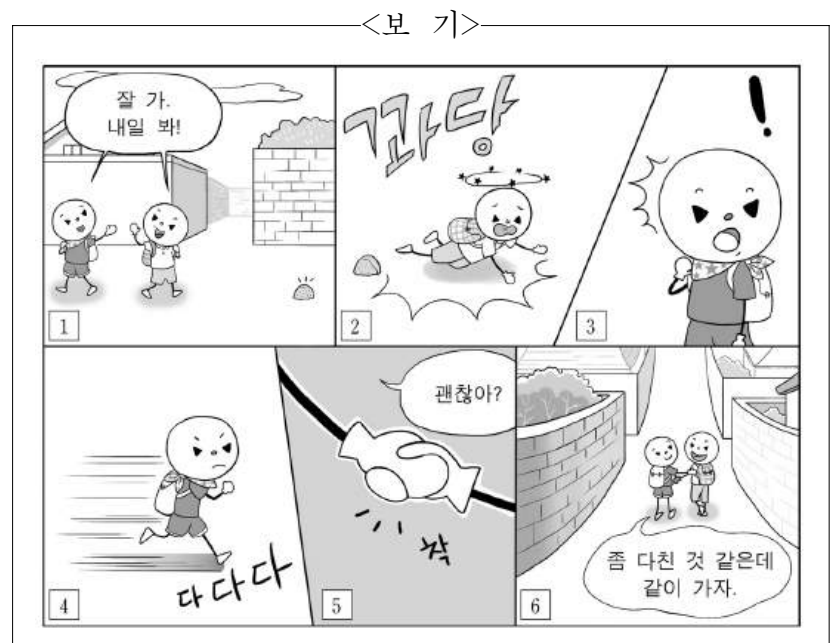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영화는 사물의 움직임을 재현한 예술이다.
- ② 만화는 물리적 시간 재현이 영화보다 충실하다.
- ③ 영화에서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 ④ 만화 이미지는 사진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다.
- ⑤ 만화는 사물을 영화보다 더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26.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작 주체가 이미지를 의도대로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겠군.
- ② 영화 촬영장의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겠군.
- ③ 촬영된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제작 방식의 비중이 늘겠군.
- ④ 실제 대상과 영화 이미지 간의 인과 관계가 약해지겠군.
- ⑤ 영화에 만화적 상상력을 도입하기가 더 힘들어지겠군.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칸 ①부터 칸 ⑥에 이르기까지 각 칸에 독자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유동적이다.
- ② 칸 ②는 언어적·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작중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칸 ④에서 효과선을 지우면 인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진다.
- ④ 인물들의 얼굴과 몸의 형태를 통해 만화 이미지가 ‘서명된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을 통해 영화의 프레임과 차별화된 만화 칸의 유연함을 알 수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의 ㉠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1점]

<보기>
㉠는 ‘만화에서 주고받는 대사를 써넣은 풍선 모양의 그림’을 뜻한다. 원래 ‘풍선’에는 공기만이 담길 수 있을 뿐, ‘말’은 담길 수 없다. 따라서 ㉠는 서로 담고 담길 수 없는 것들이 한데 묶인 단어이다.

- ① 국그릇 ② 기름통 ③ 피주머니
- ④ 물병 ⑤ 쌀가마니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한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 이와 같이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P), 온도(T), 부피(V)의 상관관계를 1몰*의 기체에 대해 표현하면 $P = \frac{RT}{V}$ (R: 기체 상수)가 되는데, 이를 ㉠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 한다. 여기서 이상 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체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들어진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하지만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이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

이제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들어 있는 1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 보자. 이때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 하면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만큼 줄어든 V-b가 된다. 한편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 작용으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므로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비례 상수 a가 포함된 $\frac{a}{V^2}$ 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에 비해 $\frac{a}{V^2}$ 만큼 줄게 된다.

이와 같이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 부피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압력 변화를 고려하여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하면 $P = \frac{RT}{V-b} - \frac{a}{V^2}$ 가 된다. 이를 ㉡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라 하는데, 여기서 매개 변수 a와 b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반데르발스가 1910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은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다.

* 1몰: 기체 분자 6.02×10^{23} 개.

29.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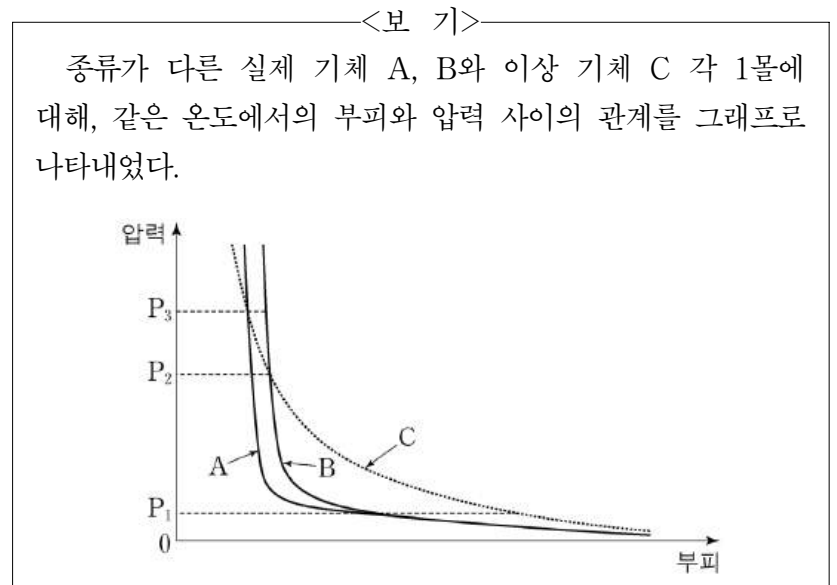
- ① 이상 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한다.
- ② 이상 기체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는 가상의 기체이다.
- ③ 실제 기체에서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기체 압력에 영향을 준다.
- ④ 실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 ⑤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모두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② ㉠과 달리 ㉡에서는 기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기체의 부피에 따라 달라짐을 반영한다.
- ③ ㉠으로부터 ㉡이 유도된 것은 단순한 모형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수정한 예이다.
- ④ 매개 변수 b는 ㉠을 ㉡으로 보정할 때 실제 기체의 자체 부피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이다.
- ⑤ 용기의 부피가 같다면 ㉠에서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에서보다 작다.

31.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것은?

[3점]



- ① 압력이 P₁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압력이 P₁과 P₂ 사이일 때,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③ 압력이 P₂와 P₃ 사이일 때,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④ 압력이 P₃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
- ⑤ 압력을 P₃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A, B, C 모두 부피가 0이 되겠군.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쉼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왓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굶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열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 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④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⑤ (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34.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폭포'의 낙하가 지닌 항상성을 나타낸다.
- ② ㉡: '폭포'가 지닌 긍정적 속성들이다.
- ③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 ④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 ⑤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었습니다, 읽었느냐,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떡-'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떡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떡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36.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들을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심 대상과 다른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3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
- ③ 어미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용언은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⑤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38. <보기>의 ㉠~㉣를 ㉠~㉣의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훈: 어제 집 앞에서 ㉠ 지나가는 선우를 ㉡ 만났어. ㉢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 많이 좋아졌다.

수진: 정말? 이제 마음이 ㉣ 놓이네. 계속 ㉤ 걱정하고 있었거든.

- ① ㉠: 문장 내에서 '선우'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② ㉡: 어간인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 조사 '에'는 생략 가능하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 동사 어간 '놓이-'는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 '걱정하-'에 어미 '-고'가 결합한 '걱정하고'는 쓰일 수 있으나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걱정하이-'는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금 제도의 목적은 나이가 많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의 사적 연금이나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부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 제도들과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가 낳는 부작용 때문이다. 사적 연금에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므로,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회사는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한 사적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공공 부조는 도덕적 해이를 ㉡ 야기할 수 있다. 무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므로, 젊은 시절에는 소득을 모두 써 버리고 노년에는 공공 부조에 의존하려는 ㉢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한 뒤, 적립된 연금 기금을 국가의 책임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은퇴한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 제도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과 비슷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 세대의 보험료로 부모 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이처럼 사회 구성원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록, 이 비판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은 요사이 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가입자들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맡긴 신탁 기금으로 보고,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대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에서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연금 기금을 일종의 신탁 기금으로 규정해 온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 확충하는 데 이 막대한 돈을 직접 활용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 공공 부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

3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 ② 공적 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연금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는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한다.
- ④ 공공 부조가 낳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 ⑤ 공적 연금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본다.
- ② ㉣에서는 연금 기금을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 ③ ㉣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금 기금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
- ④ ㉤에서는 사회 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
- ⑤ ㉤에서는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데 연금 기금을 직접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그중 상당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30~4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 공적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아 누적 체납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 ① (가)를 보니, 공적 연금 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 경제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군.
- ② (나)를 보니, 공적 연금 제도에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겠군.
- ③ (나)를 보니, 고의 체납으로 인해 공적 연금 제도에도 역선택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군.
- ④ (가)와 (나)를 보니, 적립된 공적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군.
- ⑤ (가)와 (나)를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공적 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해야 하겠군.

4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 옴.
- ②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③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④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
- ⑤ ㉤: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다.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 패턴’으로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만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음성 신호를 하나의 음소로 판단되는 구간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꾸어 준다. 그런데 음성 신호를 음소 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이 단위 구간 하나만으로 또는 연속된 단위 구간을 이어 붙여 음소 추정 구간들을 만든다.

음성의 비교는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음소 추정 구간에 해당하는 음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하는 특징 벡터는 1개이다. 특징 벡터는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음소 추정 구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1개로만 추출된다.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음성을 인식하려면 ㉠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소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그리고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 입력된 음성 신호를 S_1, S_2, S_3 3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눈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 입력 패턴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S_1, S_2, S_3]$ 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일대일 대응시키고 각각의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한 뒤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패턴 거리’를 구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S_1, S_2 \sim S_3], [S_1 \sim S_2, S_3]$ 로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1개의 기준 패턴에 대해 여러 개의 입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고, 그중의 최솟값을 그 기준 패턴에 대한 패턴 거리로 정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준 패턴에 대해 패턴 거리를 구하고 그중 최솟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4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성 인식에서 말소리는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본다.
- ②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신호를 추출한다.
- ③ 개인의 독특한 목소리는 음성 인식을 위한 특징 벡터로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 ④ 입력 패턴은 음소 추정 구간의 특징 벡터들을 구간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 ⑤ 패턴 거리가 최솟값인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44. 하나의 기준 패턴에 대해 ㉠을 ㉡에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입력 패턴에 들어 있는 특징 벡터는 3개이다.
- ②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산출되는 패턴 거리는 1개이다.
- ③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1개이다.
- ④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은 2개이다.
- 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4개이면 패턴 비교가 불가능하다.

45. ㉢의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정보의 가짓수의 감소
- ② 기준 패턴을 구성하는 음소 개수의 감소
- ③ 저장된 기준 패턴 가짓수의 감소
- ④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 ⑤ 음소 추정 구간 개수의 감소

4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한기'에서 '성현',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 ② '시운'이 '일락배락' 하는 것에서 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
- ③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다.
- ④ '손'과 '주인'이 어울려 '풍입송'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 ⑤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48.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 중 시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문관-작자-또 다른 인물-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회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제3수의 중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0.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권'은 신록을 누리는 글쓴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군.
- ② 신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보아야겠군.
-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의 속성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부각한 것이군.
- ④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군.
- ⑤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수미가 발표를 하기 전에 친구들과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수미: 과학 시간에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경완: 재미있는 주제네. 추운 겨울에 연못 표면은 얼어도 그 아래쪽은 얼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발표 시작할 때 이런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 주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수미: 그래.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해야겠어. 이때는 특정 온도 구간에서 나타나는 물의 특성이 다른 물질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해야겠다.
 지현: 연못 말고 다른 사례를 찾아서 소개해 줘도 좋을 것 같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그리고 이 원리를 알아 두면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덧붙이면 좋겠어.
 경완: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지.
 지현: 마무리할 때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질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참,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 잊지 말고.
 수미: 고마워. 너희들 얘기가 큰 도움이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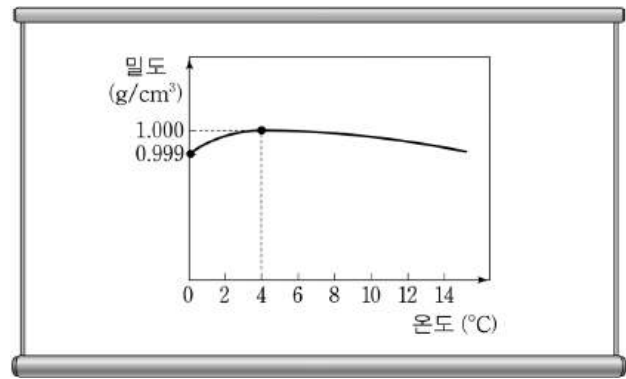
1. 다음은 수미가 작성한 발표 계획이다. 대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도입
 - 주제 제시
 - 사진과 함께 구체적 사례 제시
 - ㉠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임을 강조
- 전개
 - ㉡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의 원리 설명
 - 물과 다른 물질의 차이점 언급
 - ㉢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제시
 - ㉣ 원리를 알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점 제시
- 정리
 - ㉤ 질문을 통한 청중의 이해도 점검
 - 발표 내용 요약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다음은 수미가 한 발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그럼 물이 표면부터 어는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여 준다.)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보여 줍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일반적으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것을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물은 4°C에서 0°C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 물이 표면에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물 표면의 온도가 4°C보다 낮아지면 위쪽 물의 밀도가 아래쪽 물의 밀도보다 작아지므로 밀도가 작은 물은 위쪽에, 밀도가 큰 물은 아래쪽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표면의 물이 0°C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 물은 표면부터 얼게 되는 겁니다.

<보 기>

- ㉠ 전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준 것 같아.
- ㉡ 실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인 것 같아.
- ㉢ 원리와 관련된 그래프를 활용함으로써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 같아.
- ㉣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함으로써, 설명하려는 현상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 같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댓글에 나타난 청취자의 반응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진행자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오늘 문화 초대석에는 벽화 마을로 화제가 되고 있는 ○○ 마을의 박△△ 대표를 모셨습니다. ○○ 마을이 문화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고요?
 박 대표: 네, 저희 마을은 주거 환경이 열악했는데 올해 초 예술 재능 기부자들께서 벽화 30여 점을 그려 주신 덕에 마을 전체가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진행자: ○○ 마을이 관광 명소로도 유명해졌지요?
 박 대표: 네,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다 보니 주민들도 마을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진행자: 마을의 긍정적 변화가 느껴지네요. ○○ 마을이 예술 마을로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청취자들의 실시간 댓글을 살펴본 후에 이야기를 나눠 보죠.

번호	내용
759	신문 기사를 보니 그림을 보러 와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758	친구랑 구경 갔을 때 거기 사는 분이 시끄럽다고 화내셔서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해 보니 주민들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757	예쁜 그림을 오래 볼 수 있으려면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이 그림에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756	어제 다녀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림이 잘 보존되고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을지 걱정되네요.

진행자: 올라온 댓글들로부터 ○○ 마을의 당면 과제들을 끌어낼 수 있겠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종합해서 한 마디만 여쭙 보겠습니다.
 [(가)]

- ① 마을 벽화의 훼손 실태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② 벽화를 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 ③ 마을 주민들이 예의를 지키며 마을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 ④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벽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 ⑤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연: 영화 어땠니?
 창완: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소연: 그래, ㉠ 정말 멋지던데.
 창완: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소연: ㉡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창완: 부자간에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소연: ㉢ 괜찮아, 말해 봐.

창완: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주 떠오르더라고.

소연: 그래? ㉣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창완: 사실, 어제 아버지께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거든. 난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은데……. 평소에는 큰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젠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소연: ㉤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텐데…….

소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네 맘을 표현해 봐.

창완: 난 말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④ ㉣: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창완의 마지막 말에 대한 소연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 ①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②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③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④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⑤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6. 다음 작문 일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작문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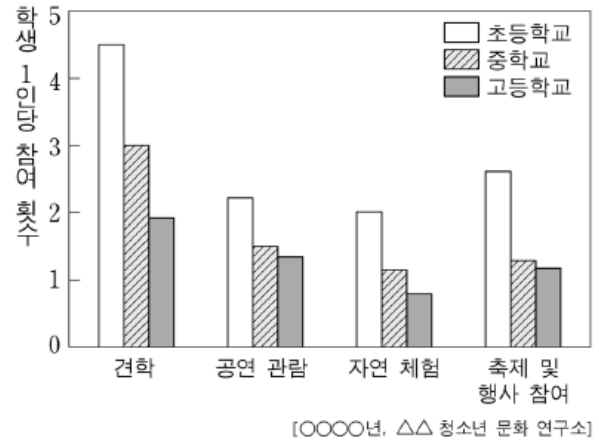
오늘 작문 과제는 ‘가족에 대한 글쓰기’였다. 가족은 친숙한 소재라 쉽게 쓸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였다. 고민 끝에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기로 했다. ‘가족 여행, 어머니의 사랑, 우리 집, 영화, …….’ 무작정 떠오른 생각들을 나열해서 쓰다 보니 주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 글을 쓰다 보니 그간 어머니를 오해해서 빚어진 갈등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사랑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였다. ‘어떤 내용에 관심을 보일까?’, ‘내 글에 공감할까?’ 나는 마치 예상 독자가 곁에 앉아 있는 듯, 스스로 묻고 답하며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 다음, 글의 주제가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쓴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고 나니, 글이 완성될 때까지 힘은 들었지만 글은 훨씬 나아진 것 같았다.

- ① 글쓴이는 예상 독자인 어머니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을 썼다.
- ② 글쓴이는 필요에 따라 글의 표현과 내용, 개요 등을 고쳐 가며 글을 썼다.
- ③ 글쓴이는 글의 주제에 따른 통일성이 잘 실현되었는지 점검하며 고쳐 썼다.
- ④ 글쓴이는 내용 생성과 관련한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상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⑤ 글쓴이는 가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린 후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교 급별 체험 활동의 연간 참여 현황



(나) 고등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순위	체험 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	비율
1	시간이 없어서	53.5%
2	비용이 부담되어서	42.9%
3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38.5%
4	필요 및 흥미를 못 느껴서	31.4%

* 복수 응답 반응 조사

(다) 전문가 의견

청소년 체험 활동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체험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 단체의 비용 지원 및 학교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7.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체험 활동이 청소년기의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자치 단체, 학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8. 고등학생에게 체험 활동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홍보 문구를 작성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나)의 자료에 제시된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반영할 것.
- 문답법을 사용할 것.

- ① ○○지역 문화 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체험 활동 무료 프로그램들의 정보를 첨부하오니 바로 확인하세요.
- ② ○○복지 회관에서 학생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험 활동 프로그램들을 소개할게요.
- ③ 체험 활동의 여러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해결! ○○청소년 상담 센터 홈페이지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 ④ ○○시청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경제적 어려움을 성심껏 도와드려요.
- ⑤ 유익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 구청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나 보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모든 것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을 때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

㉠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이때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그 내용이 2~3배는 더 강력하게 ㉣ 저장되어진다고 한다.

㉤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 ㄴ. 화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를 들며 글을 시작한다.
- ㄷ.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 ㄹ.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 ③ ㉢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으로 고쳐 쓴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저장된다고'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 창

-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②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ㄹ, ㅂ'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뱃'과 '밑'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1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쩍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별에 띄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라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780 nm* 정도인데 보라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라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작다.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직경 0.1~1 nm 정도), 먼지 미립자, 에어로졸*(직경 1~100,000 nm 정도) 등과 부딪치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 한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이리(Rayleigh) 산란'과 '미(Mie) 산란'으로 구분된다.

레이리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보다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그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 대기의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따라서 맑은 날에는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이리 산란이 일어나서 보라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되는 반면 붉은빛이나 노란빛은 약하게 산란된다.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라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우리 눈은 보라빛보다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만약 태양 빛이 공기 입자보다 큰 입자에 의해 레이리 산란이 일어나면 공기 입자만으로는 산란이 잘 되지 않던 긴 파장의 빛까지 산란되어 하늘의 파란빛은 상대적으로 옅어진다.

미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보다 큰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주로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 크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 산란으로 설명된다. 구름 입자(직경 20,000 nm 정도)처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이 산란된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면 모든 무지갯빛이 혼합되어 구름이 하얗게 보인다.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나노미터: 물리학적 계량 단위. 1 nm = 10⁻⁹ m.

* 에어로졸: 대기에 분산되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

16.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란의 원리와 유형
-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
-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 ④ 미 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
- ⑤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광선의 파란빛은 보라빛보다 진동수가 작다.
- ②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 ③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이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빛의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레이리 산란의 세기는 16배가 된다.
- ⑤ 달의 하늘에서는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의 산란 현상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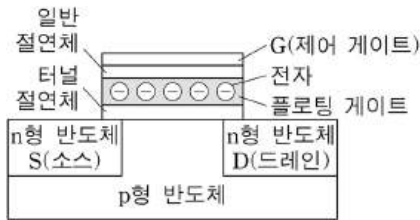
- (가) A 도시에서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비가 오기 전 대기에서는 직경 10~20 nm의 먼지 미립자들이 균질하게 분포하였는데, 비가 온 후에는 그것이 관측되지 않았다.
- (나) B 도시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은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그곳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올라 높은 하늘을 보니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 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 ① A 도시에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인 것은 미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겠군.
- ②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미 산란이, 비가 온 후에는 레이리 산란이 일어났겠군.
- ③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 산란 때문이겠군.
-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구름이 희게 보인 것은 레이리 산란 때문이겠군.
- ⑤ A 도시의 비가 온 후의 하늘과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모두 미 산란이 일어났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은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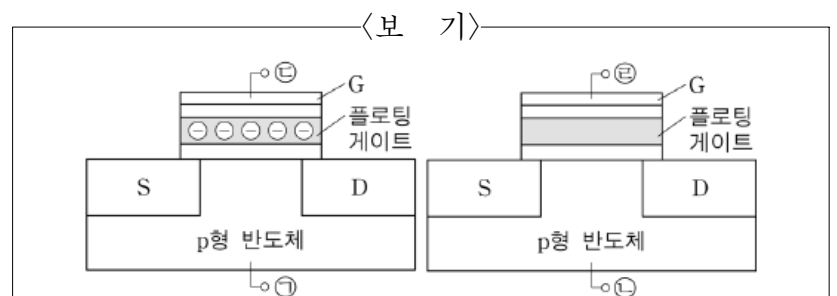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 윗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21. 윗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 두 개의 셀이 하나의 블록을 이룬다.
* 그림은 데이터 <10>을 저장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 ㉠~㉤은 20V의 양의 전압이 가해지는 위치이다.

	1단계	2단계
①	㉠	㉤
②	㉡	㉢
③	㉠과 ㉢	㉤
④	㉢과 ㉡	㉤
⑤	㉡과 ㉤	㉢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및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개된 제한적 대결 상태를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냉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이는 단순히 냉전의 발발 시기와 이유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그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하는 와중에 냉전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의 봉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결과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을 가한 ㉡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전후 세계를 자신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쟁 중에 급증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을 얻기 위해 세계를 개방 경제 체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므로 미국 정책 수립의 기저에 깔린 것은 이념이 아니라 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으므로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수정주의의 기본적 입장이었다. 오히려 미국이 유럽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수행했고, 소련은 이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냉전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주장인 ㉢ 탈수정주의는 위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절충적 시도로서 냉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냉전은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를 중심으로만 냉전을 보아서는 안 되며 안보 문제 등도 같이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련의 목적은 주로 안보 면에서 제한적으로 추구되었는데, 미국은 소련의 행동에 과잉 반응했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충적 시각의 연구 성과는 일견 무난해 보이지만,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지만, 중심적 경향성은 존재하고 이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본령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주의에 따르면 소련의 팽창 정책은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수행된 것이었다.
- ②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적 동기가 냉전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③ 수정주의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 정책은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 ④ 탈수정주의 출현 이후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연구보다 구체적 정책 연구가 강조되었다.
- ⑤ 탈수정주의는 절충적 성향을 가져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27. <보기>의 (가)~(다)와 부합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 대응 조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게 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의 대응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곳에서는 소련이 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미국이 좀 더 일찍 그리고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추구했다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미국은 세계 철강 총생산량의 54%, 소련은 12%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소비량의 경우는 미국이 49%, 소련이 12%였다. 이런 예들은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 힘의 우위를 지녔다는 것을 알려 준다.

- | | (가) | (나) | (다)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법률 효과와 함께 그것을 일으키는 요건을 규율한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은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바로 그 위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이른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입증은 주장하는 사실을 법관이 의심 없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가운데 누군가는 패소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는 입증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 책임이라 부른다.

대체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면, 쉬운 쪽에 지우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소송에서 원고가 되어, 앞의 민법 조문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요건 가운데 인과 관계는 그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해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다. 공해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공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하나하나의 연결 고리까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면, 사실상 사법적 구제를 거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해 소송에서도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인 원고에 있다. 판례도 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한다. 곧 공해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과 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의심 없는 확신의 단계까지 요구하지 않고, 다소 낮은 정도의 규명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가해자인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책임을 면해야 한다.

28.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고려가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원리에 작용한다.
- ② 원칙적으로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입증이 성공하였다고 본다.
-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에서 피고에게 있다.
- ④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⑤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는 쪽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어느 공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공장의 폐수 방류 때문에 양식 중이던 김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폐수의 방류 때문에 김이 폐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폐수가 해류를 따라 양식장에 이르렀다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피해자인 어민들이 원고로서 겪게 되는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 시켜 주려 한 것이다.
- ②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연결 고리가 존재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③ 공장 폐수가 김 양식장으로 흘러들었다는 사실을 어민들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 ④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데 대한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⑤ 공장 폐수 속에 김의 폐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회사 쪽에서 입증하라고 한 것이다.

30.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학 숙제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 나는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야겠어.
 우선 목차를 읽어 봐야겠어. (목차를 읽는다.) 이 책은 ‘역사가와 그의 사실’이라는 장으로 시작되네. 아마 역사가가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썼을 것 같아. 조금 어렵겠지만 재미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 봐야지. (책을 읽다가 멈춘다.) ‘역사적 사실’. (밑줄을 긋는다.)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구나. 그래, 이건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읽어야겠어. 그러면 나중에 메모를 보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
 (읽기를 잠시 멈추고 메모한 내용을 훑어본다.) 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간략히 하면, 역사책을 읽을 때는 일어났던 일보다 그 일을 기록한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걸까? 중요한 사건은 어느 역사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 ①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
- ② 글쓴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고 있다.
- ③ 중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며 읽고 있다.
- ④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 ⑤ 책을 읽는 목적과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하였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A]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랏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 ②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와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4연에서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⑤ ‘오랩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속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 물려 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물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족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옳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힐! 그놈에 경제젠 다 어디루 가 뒤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퀘짜 어깨에 멘 채 활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중략 줄거리] 영어 실력 덕에 미군 통역관이 된 방삼복은 권력을 얻는다.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 주사는 방삼복을 만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덤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 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 라면야 코빼뜰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섭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구. 꿰어얏히구 항복 받구. 그리구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 놓니다, 쑥발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덩속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렵하겠나.”
 “훤말이 아니라 참 ○○○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 꿀쩍 양치를 한다. ㉥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 ② ㉡: 치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인물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 ③ ㉢: 물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다.
 - ④ ㉣: 전통 윤리를 회복해 타락한 세태를 견뎌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⑤ ㉤: 새로운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

36. 다음 학습 활동에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감상의 길잡이 이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아보자.
- 해방 직후의 서울
2. 작중 인물의 태도를 살펴보자.
- 방삼복은 해방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몰락을 가져온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갑자기 출세한 방삼복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임.
3. 작중 인물과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

[A]

- ① 방삼복의 출세를 통해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② 백 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③ 현실에 대한 백 주사의 부정적 태도를 통해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④ 현실에 대한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그의 현실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⑤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꿩 먹고 알 먹는다.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④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넬까. [A]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배갓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38.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40.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날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과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변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正道(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豐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
 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풍도옥: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입상: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신평: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흙결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싹이 움 돌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 흐른다. 미구에 잎이 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우리 시의 관광 산업이 위축돼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청 관광진흥과 정○○ 과장님, 한국 대학교 관광학과 김△△ 교수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 과장님께서 지역 관광 산업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 과장: 우리 시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자연 경관이 빼어나서 관광지로서 매력적이지만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에서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말씀을 들어 보니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에 [A] 서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서원을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 과장님,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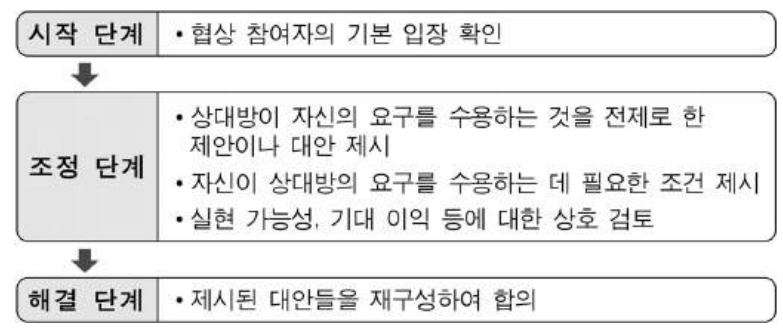
정 과장: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및 거주인과 고택 개방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주세요. (방청객을 확인한다.) 제일 앞줄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고택 주인: 정 과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처럼 중가 고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택이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조상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걸 개방하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하략)

- [A]의 흐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대안 비교 분석 → 최선의 해결책 선택
 -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대안 비교 분석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방안의 장단점 비교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대안 비교 분석 → 최선의 해결책 선택
- 위 토의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사회자는 발언자가 말한 의도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 사회자는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 하였다.
 - ‘정 과장’은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였다.
 - ‘김 교수’는 발언의 요지를 제시한 후 사례를 들어 뒷받침 하였다.
 -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설의적인 질문을 하였다.
-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정 과장’과 ‘고택 주인’이 고택 개방을 쟁점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 보자.



- | | |
|------------------|------------------------------------------------------------|
| 정
과
장 | ○ ‘고택 주인’에게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① |
| | ○ ‘고택 주인’에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② |
| | ○ ‘고택 주인’에게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 ③ |
| 고
택
주
인 | ○ ‘정 과장’이 고택 개방을 전제로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④ |
| | ○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개방 방법을 요구한다. ⑤ |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연: 영화 어땠니?
 창완: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소연: 그래, ㉠ 정말 멋지던데.
 창완: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소연: ㉡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창완: 부자간에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소연: ㉢ 괜찮아, 말해 봐.
 창완: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주 떠오르더라고.
 소연: 그래? ㉣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창완: 사실, 어제 아버지께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거든. 난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은데……. 평소에는 큰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젠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소연: ㉤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텐데…….
 소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네 맘을 표현해 봐.
 창완: 난 말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④ ㉣: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창완의 마지막 말에 대한 소연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 ①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②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③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④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⑤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6~7] 다음은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설문을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 ㉠

I. 서론 ㉡

II. 본론

- 1. 현황 분석
 - 가. 청소년의 금융 지식 부족의 원인 ㉢
 - 나. 또래 집단이 선호하는 유명 상표의 상품 동조 구매다. 상품 광고의 영향을 받은 충동구매
- 2. 문제 원인 분석
 - 가. 상품 가치에 기대어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심리 ㉣
 - 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다. 상품 광고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 태도
- 3. 문제 해결 방안
 - 가. 내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자아 존중감 확립
 - 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
 - 다.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

III. 결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 개선 촉구 및 제언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로 바꾼다.
- ② ㉡은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심리’로 수정한다.
- ⑤ ㉤은 ‘II-2-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또래 집단 내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에 대한 인식 제고’로 내용을 보완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II-3-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전문가 의견>

청소년에게는 또래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상품의 기능이나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하려 한다.

<자료 2: 학급 설문 조사>

(가)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영향을 받는가?

응답	비율
예	72%
아니오	28%

(나) 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의 요인은?

순위	광고의 요인
1	유명 연예인
2	유명 상표
3	상품의 기능

- ① 청소년의 충동구매로 빚어지는 소비 문제는 참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진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소비 문제는 광고를 통해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③ 유명 연예인이 자주 출연한 광고가 상품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문제는 청소년이 그런 광고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④ 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라 광고에 대한 접근과 유명 상표의 상품 구매가 쉬워짐으로써 발생하는 청소년 소비 문제는 청소년들의 정보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 ⑤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는 청소년의 소비 문제는 광고 속 상품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8.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 ㉠ 답사 참여자의 선정 과정을 밝혀 답사의 취지를 드러내자.
- ㉡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하며 보고서의 의의를 밝히자.
- ㉢ 답사 목적과 함께 답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 ㉣ 답사 대상을 언급하며 사전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자.
- ㉤ 최근 기사를 활용하여 답사 동기를 제시하자.

<답사 보고서>

*제 목: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다녀와서
 *작성일: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고등학교 지리 답사반

1.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

얼마 전 00신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우라지 베개 용암이 천연기념물 542호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친구들이 베개 용암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에 대해, 그리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베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그곳의 특이한 지형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 베개 용암은 용암이 물과 접촉할 때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베개 모양의 형태로 굳은 용암을 일컫는다.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개 용암은 해저 산맥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잘 발달하는 것이어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문 것이라고 한다. 베개 용암의 형성 과정, 구성 성분 등과 같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p>“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모든 것들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을 때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p> <p>㉠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p> <p>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 <u>들여야</u> 한다고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데, 이때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 <u>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그 내용이 2~3배는 더 강력하게</u> ㉣ <u>저장되어진다고</u> 한다.</p> <p>㉤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p>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가.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나. 화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를 들며 글을 시작한다. 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리.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① 가, 다 ② 가, 리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나, 다, 리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쳐 쓴다.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③ ㉢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으로 고쳐 쓴다.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저장된다고'로 고친다.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꺄]와 같아진다.
- '예, 례' 이외의 '꺄'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는 항상 [ㄱ]로 발음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금꺄'를 [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꺄'를 [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비꺄다'와 '비치다'를 모두 [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 | (가) | (나)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u>아니오</u>,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슴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 단어, 어떨 어찌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을】 별에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 보 기 >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
| ①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사슴 > 사슴 | 꺾장 > 가장 |
| ③ 혼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사롬 > 사람 | 드리 > 다리 |
| ⑤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 한다. ㉡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평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평’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평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러나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은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자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0.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21.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②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③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④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⑤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22. ㉠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②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③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 ①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②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③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⑤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었겠군.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 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 ③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 ④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
- ⑤ 새가 단안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 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 ①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안 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 ④ (나)는 결 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⑤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

30.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황, 「독서」 -

(나)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祖)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祖)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祖)’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사전(字典)*을 꺼내 ‘조(祖)’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피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

* 사전 :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

-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는다.
- ②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며 읽는다.
-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 ④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⑤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뭇덥까. [A]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짘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31.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지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탄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옹이 엿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大驚) 왈,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왈,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삽나이다.”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 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희(大喜) 왈,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 왈,
 “장 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으리오?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느냐? 죄 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 마라.”
 하며 다시 그 동안의 일과 장 소저 가문을 물으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제승(諸僧)이 다 듣고 기이히 여겨 칭하(稱賀) 왈,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은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
 부인이 칭찬 왈,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일일은 웅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지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왈,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송이 알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왈,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리오?”
 하고 웅에게 왈,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중략 줄거리] 조옹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위를 찬탈한 이 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수가 창으로 찌며 삼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접전하니 삼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늘 원수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삼대가 크게 의심 왈,

“조옹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괴이하도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강백더러 왈,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輕敵)*지 말라.”

하더라.

이튿날 삼대가 창을 들고 말을 내달아 크게 외치며 왈,

“오늘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

하고 진전(陣前)에 횡행하거늘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서며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삼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갇히어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삼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울 것이니 가공한 혼백을 놓아 주옵소서.’ 하며 주야로 가공한 소리 진중에 낭자하거늘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오?”

[B]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어드는 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였으나 강장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을 찢러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옹전』 -

* 경적: 적을 알뜰.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 ② ‘조옹’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
- ③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옹’의 방심을 유도했다.
- ④ ‘부인’은 ‘조옹’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 ⑤ ‘월경 대사’는 ‘조옹’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옹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프와 ‘군담’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담’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조옹’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은 ‘조옹’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③ ‘월경 대사’는 ‘조옹’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옹’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이겠군.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옹’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37.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혼비백산(魂飛魄散)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 내임: 냄. '배웅'의 평안 방언.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꺾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중오, 「동승」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밧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엮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에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께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께께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깡살릴* 것 다 깡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깡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훌겁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싹이 움 돌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 흐른다. 미구에 잎이 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 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 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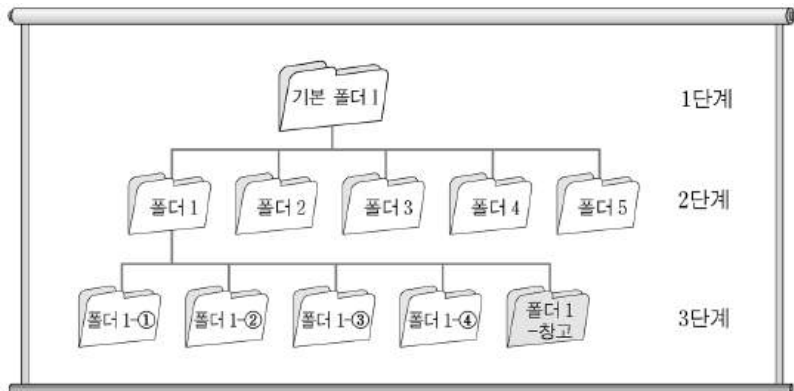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컴퓨터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혹시 중요한 파일을 아무 폴더에나 저장해 두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의 컴퓨터 파일 정리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탕 화면에 너무 많은 폴더나 아이콘을 두면 파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바탕 화면에는 기본 폴더들과 자주 쓰는 아이콘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파일은 성격에 따라 폴더별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고 자주 쓰는 아이콘은 바탕 화면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의 파일 정리 방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바탕 화면 위치에서 1단계로 기본 폴더를 만들고, 기본 폴더의 성격에 따라 3단계까지 하위 폴더를 생성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파일을 3단계로 분류할 때 관리하기 가장 쉬웠고 단계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파일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폴더 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파일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폴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은 바로바로 삭제하고, 활용도는 낮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파일들은 3단계의 '참고' 폴더에 따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이 파일들도 이미 상위 폴더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때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더군요.

이와 같이 폴더는 3단계까지 생성하고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로 유지하는 것이 제 파일 정리 방법의 핵심입니다. 사용 환경이 다른 컴퓨터에 이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하게 응용만 한다면 파일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발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번 발표 과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였지? 선생님께서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가 반영되고 듣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발표하라고 하셨으니까 ㉠ 내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야겠어. 친구들이 대체로 파일 정리를 귀찮아 하니까 내 발표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먼저 친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파일 정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 파일 정리 방법은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 발표를 정리할 때는 친구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 ㉠ ㉠
- ㉡ ㉡
- ㉢ ㉢
- ㉣ ㉣
- ㉤ ㉤

2.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 ② 발표자는 폴더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발표자는 파일을 분류하는 단계가 많을수록 파일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군.
- ④ 발표자는 사용 환경이 다른 컴퓨터에서도 자신이 제시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군.
- ⑤ 발표자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군.

3. 다음은 대담의 일부이다. ‘학생’과 ‘연구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신문부 기자 ○○○입니다. 교내 신문에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이란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조사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연구원: 우주인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음료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죠?

학생: 네.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연구원: 그런 영상에서처럼 물 같은 음료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대를 사용한답니다.

학생: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그럼 액체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먹나요?

연구원: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 과자를 먹다 부스러기가 생겨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주 정거장 안은 첨단 장비들이 많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먹는 음식물은 가능한 한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요, 먹을 때에도 매우 조심한답니다.

학생: 부스러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순 없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떠다니는 상황에서 샤워는 가능한가요?

연구원: 네, 지구에서 하던 것처럼은 불가능하지만 물에 젖은 스펀지나 목욕 수건, 젖은 화장지 등을 사용하죠. 양치를 할 때는 삼키는 치약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 ① 학생은 연구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학생은 이해하지 못한 용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학생은 연구원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설명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연구원은 답변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상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연구원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지구에서의 생활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민: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혜경: ㉠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성민: ㉡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경: 병수야! 너도 좋았어?

병수: ㉢ 글썄…….

혜경: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고 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성민: ㉣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경: ㉤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병수: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 [_____ ㉥ _____]

병수: 맞아, 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 ② ㉡: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 ③ ㉢: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 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① 네가 혼자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네 주변의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때?
- ② 네가 인생 경험이 짧는데 혼자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인생 경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해.
- ③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다. 그런데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 ④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 ⑤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야.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관한 글을 교지에 싣고자, (가)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나)를 썼다.

(가) 개요의 초안

주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내용 구성	○ 처음: 청소년기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 실태 조사 의 이유를 밝힘 ㉠
	○ 중간: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1.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 2.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은 이유를 제시함 ㉢ 3. 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관한 실태를 제시함 ㉣ 4.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도서를 주로 읽는 이유를 제시함 ㉤
	○ 끝: 실태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

(나) 글의 초안

청소년들에게 독서란 지적인 성장과 인성 계발에 주요한 밑거름이 된다.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습에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독서가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는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읽은 것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1년간 읽은 책의 권수와 책을 읽은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독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독서량이 적었다. 학생들의 약 36%는 1년간 책을 전혀 읽지 않으며 32%는 5권 이하를 읽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학생들 중 52%는 하루에 단 10분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독서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등이라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소설과 자기계발서 등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읽는 전체 책 중에서 판타지 소설은 약 30%, 자기계발서는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독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독서를 하는 습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 문구**를 만들어 교내 곳곳에 게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보기>를 활용하여 (가)와 (나)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통계 결과 :
1년간 평균 독서량

(단위: 권)

	전국 고등학생	우리 학교 학생
남학생	14.7	5.6
여학생	16.0	10.5
전체	15.4	8.1

㉤ 설문 조사: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

A : 학습에 도움이 되어서
B :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C : 다른 사람과 읽은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D : 책 읽기 자체가 재미있어서

- ① ㉣을 활용하여 (가)의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에서 남학생의 독서량이 여학생보다 적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다.
- ② ㉤을 활용하여 (가)의 ‘중간’에 새로운 항목으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이유를 제시함.’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나)를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 실태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제시한다.
- ③ ㉣을 활용하여 (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을 비교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④ ㉤을 보면 ‘책 읽기 자체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으므로, (나)의 끝 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⑤ ㉣과 ㉤을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나)의 끝 부분에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한다.

8. (나)의 **홍보 문구**를 <조건>에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독서량이 부족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두 포함할 것.
- 직유법을 활용할 것.

- ① 공부하느라 게임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변명이에요. 줄리면 틈틈이 자듯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시간을 확보합시다.
- ② 좋아하는 책 몇 권만 겨우 읽고 있지 않나요? 풍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듯이 넉넉하고 균형 잡힌 독서를 즐기도록 합시다.
- ③ 책을 적게 읽는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은가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는 것처럼 책을 적게 읽으면 생각이 여물지 않는답니다.
- ④ 책 읽기를 즐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까? 시들어 축 처진 풀에 물을 흠뻑 주면 되살아나듯 책을 많이 읽으면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⑤ 음식은 몸을 살찌우는 양식이요 책은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그리고 많이 읽어 마음을 살찌우도록 합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문화유산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다음,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삼일절에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첼로, 비올라 연주자들과 단소, 북 연주자들이 연이어 나와 합주를 하는 것이었다.

① 그러면 관객들 사이에 있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에 맞추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악기와 어우러져 한껏 분위기를 ㉠ 돋구었다. 어느새 구경만 하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거리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벅찬 감동을 받았고 서양

악기와 우리 악기 간의 조화로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 무형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 아리랑을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때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찍어둔 동영상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문화유산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다.
- ㉢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한다.
-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자신의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자’로 고친다.
- ② ㉡: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돋우었다’로 고친다.
- ③ ㉢: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므로 ‘된다’로 고친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행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입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갈-리다¹ ㉠

- ① '갈다¹ ①'의 피동사.
¶ 맷돌에 콩이 갈리다.
- ② '갈다¹ ②'의 피동사.
¶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 '갈다²'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¹'을 보니, '갈다¹'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¹'과 '갈-리다²'를 보니, '갈다¹'과 '갈다²'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¹'을 보니, '갈-리다¹'은 '갈다¹'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¹ ①'을 고려할 때, '갈다¹ ①'의 용례로 '맷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²'를 고려할 때, '갈다²'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14.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 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 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학 생: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어머니: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아 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학생 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학생 B: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언 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동 생: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15.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	'장식품'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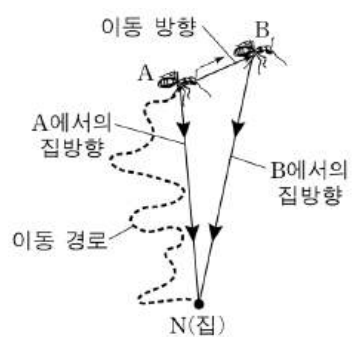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은신처까지 길을 찾아올 수 있다.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다.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신이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이 일치하도록 비행한다. 장소기억은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이 길찾기에 활용한다.

‘재정위’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장소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길을 나선 ㉠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를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온다.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기령,



그림에서 이동 경로를 따라 A에 도달한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았다면 그때 파악한 집 방향 \overrightarrow{AN} 으로 집을 향해 갈 것이다. 만약 A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B로 한 걸음 이동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overrightarrow{BN} 을 계산한다.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한편,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한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 정보이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는 셈이다.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 ③ 흰쥐는 재정위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한다.
- ④ 원숭이는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 ⑤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하여 길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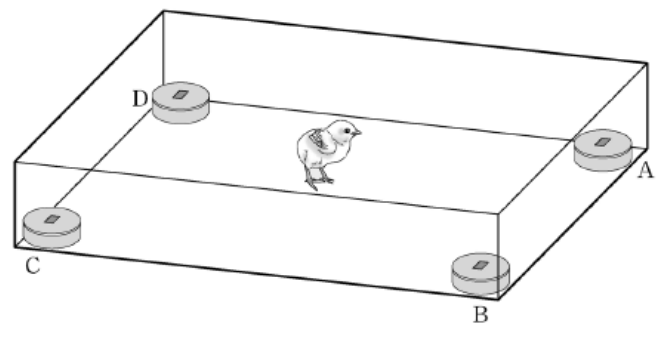
1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
- ② 사막개미의 경로적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겠군.
- ③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기억을 활용하겠군.
- ④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되돌아갈 때는 왔던 경로를 따라 가겠군.
- ⑤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 거리를 다시 계산하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병아리가 재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로 진화하면서 해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져,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이다.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통과하며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한다. 즉,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다.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back projection) 방법이 이용된다.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에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과값이다.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하여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T 촬영을 할 때 X선 발생기와 X선 검출기는 회전한다.
- ②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렵다.
- ③ CT에서의 환산값은 통과한 조직에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나타낸다.
- ④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와 항상 같다.
- ⑤ 조직의 투과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두께가 얇을수록 X선은 더 많이 투과된다.

20. **역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투사는 필요하지 않다.
- ②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
- ③ 역투사 결과값들을 활용하여 조직의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④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그 위치에 대응하는 역투사 결과값은 커진다.
- ⑤ 역투사 결과값은 CT 촬영기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얻을 수 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3점]

<보 기>

위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㉓와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물체 ㉔가 연결된 ■를 CT 촬영기 안에 넣고 촬영하여 A, B, C 방향에서 구한 환산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때 ㉓의 투과율은 ㉔의 2배이다.

*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진행함.
* 물체 ■의 밑면을 기준으로 A는 0° 방향, B는 45° 방향, C는 90° 방향의 위치에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과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2.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2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시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24.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5.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26.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27.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해서, 문은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서 건물 벽에 설치한 개폐가 가능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에서 창과 문은 각각의 기능이 명확하고 크기와 형태가 달라 구별이 쉽다.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창과 문을 합쳐서 창호(窓戶)라고 부른다. 이것은 창호가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창과 문을 굳이 구별한다면 머름이라는 건축 구성 요소를 통해 가능하다.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창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짝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이때 외부에 면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호는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이 잘 드러나는 독특한 요소이다. 창호가 열려 있을 때 바깥에 나무나 꽃과 같은 자연물이 있을 경우 방 안에서 창호와 일정 거리 떨어져 밖을 내다보면 창호를 감싸는 바깥 둘레 안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게 된다.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앤 것이다.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는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중요한 심미적 기능을 한다.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뽀얀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 또한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창호는 이와 같이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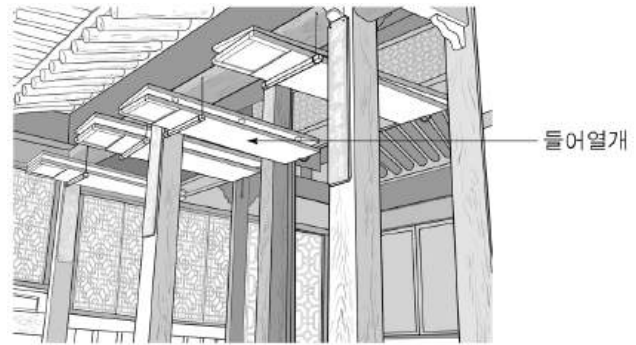
2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옥의 창살은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다.
- ② 한옥에서 창살 문양은 집주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 ③ 한옥의 방에서 바라보면 창호지에 어린 색채는 하루 종일 일정하다.
- ④ 한옥의 머름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 구성 요소이다.
- ⑤ 한옥에서는 창호의 형태에 따라 창과 문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9. 윗글을 읽고 <보기>의 ㉡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들어열개는 창호의 두 문짝을 접고 그것을 들어, 처마 밑에 달려 있는 걸쇠에 매달게 한 창호를 말한다. 그림의 한옥은 사랑채의 대청으로 수목이 있는 마당과 주변의 산을 마주보고 있고, 대청 전면의 들어열개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이다. 들어열개를 내려서 펼치면 대청 전면은 모두 창호로 채워지게 된다.



- ① ㉡은 편의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기에 한옥 공간의 가변성을 구현하는 요소이겠군.
- ② ㉡을 올렸을 때, 대청 전면이 개방되므로 환기와 출입이 원활해지겠군.
- ③ ㉡을 올렸을 때, 대청에서 마당을 조망할 수 있으므로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없어지는 심미적 경험이 가능하겠군.
- ④ ㉡을 내려 닫았을 때, 마당에서는 대청 전면에 펼쳐진 창살 문양을 감상할 수 있겠군.
- ⑤ ㉡을 내려 닫았을 때, ㉡이 벽을 대체하게 되므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은 차단되겠군.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큰 소리로 책을 읽어 보자.
- ② 요즘에는 영상습을 읽고 있지.
- ③ 이 옛 글자는 어떻게 읽어야 하지?
- ④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⑤ 이 컴퓨터에는 시디(CD)를 읽는 장치가 없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A]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B]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밑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
- ②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을 비유한다.
- ③ [A]의 '새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④ [A]와 [B]에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인 어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33.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활동 목표: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1: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 2: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 3: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①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②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③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④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⑤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속에 드는 측들이어야만 했다.

㉠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테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 운영은 각각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적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두 시 사십 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례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 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 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각째각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는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달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 한참 동안 아무 거 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틀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떼떽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출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 전광용, 「꺼삐딴 리」 -

* 월삼: 미국 시계 회사 '월삼'.
* 국어: 일본어를 가리킴.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하는 주인공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로서 유랑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 ② 인생의 반대로 비유된 ‘시계’는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 담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화해 주는 소재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④ ‘신사복’은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 준다.

37.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사생결단(死生決斷)
- ⑤ 생사기로(生死岐路)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졌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앓을쏘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들어 권할 적에’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선군이 잠깐 주막에서 조는데 ㉠ 문득 숙영남자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군의 곁에 앉아 슬프게 울며 말하기를,

“낭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 기쁘기 측량 없사오나, 첩은 시운이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고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전에 낭군의 편지 사연을 듣사온즉 낭군이 첩에게 향한 마음에 감격하오나, 첩은 천생연분이 천박하
[A] 여 벌써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습니다. 첩이 원혼이 된 사연을 아무쪼록 깨끗이 풀어 주시기를 낭군께 부탁하오니, 낭군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 합니다.”

하고 간 데 없었다. ㉡ 선군이 놀라 깨어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심신이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곡절을 헤아리지 못하여 인마를 재촉하여 여러 날 만에 풍산촌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문득 하인이 와서,

“상공(相公)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알렸다. 선군이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으로 되시고 들어가서 가내 안부를 여쭙었다. 상공이 주저하며 가족들이 잘 지낸다고 알리고, 선군이 장원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됨을 물어 기뻐하다가 이윽고 선군에게 은근한 말로,

“㉢ 장부가 출세하면 두 부인을 두는 것은 예부터 혼한 일이었다. 내 들으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기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임 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왕 이곳에 왔으니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감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하였다. 선군은 숙영남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신반의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하되, “㉣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남자를 취하게 하여 훗날을 도모하고자 함이로다.” 하고 이에 아뢰되,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나, 제 마음이 아직 급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성혼하여도 늦지 아니하오니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

하였다. 상공은 아들이 변심치 아니할 줄 알고 다시 말하지 못하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자마자 선군은 인마를 재촉하여 길에 올랐다.

(중략)

㉤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에 들어가 이불을 헤치고 보니, 남자의 용모가 산 사람 같아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선군이 부촉하여 이르기를,

“백선군이 왔으니, 이 칼이 빠지면 원수를 갚아 남자의 원혼을 위로하리라.”

하고 몸에서 칼을 빼니, 칼이 문득 빠지며,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다시 파랑새가 한 마리가 또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야 선군이 시비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급히 밖에 나와 형구를 벌이고 모든 노복을 차례로 신문하였다. 간악한 매월이 매를 건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

“상공께서 숙영낭자를 의심하시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던 차에 매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 함께 일을 꾸민 놈은 돌이로소이다.”

하거늘, 선군이 크게 노하여 돌이를 또 때리니 돌이가 매월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노라 승복하였다. 선군이 이에 매월을 죽여 숙영낭자를 위한 제물로 삼고 제문을 읽었다.

“성인도 속세에 노닐고, 숙녀도 험한 구설을 만남은 예부터 없지 않았으나, 낭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오. 슬프다! 모두 나 선군의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
[B] 리오. 오늘날 매월의 원수는 갚았으나 낭자의 화용월태를 어디 가 다시 보리오. 다만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낭자를 좇을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리다.”

제문 읽기를 마치매 신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한 후 돌이를 본읍에 넘겨 먼 절도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때 상공 부부는 선군에게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이같이 탄로 남을 보고 도리어 무색하여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선군이 화평한 얼굴로 재삼 위로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41.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꿈’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원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제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A]는 원혼이 산 자에게 보내는 전언이고, [B]는 산 자가 원혼에게 보내는 응답이다.
- ④ [A]와 [B]는 상대방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 ⑤ [A]와 [B]는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42. 윗글의 **매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선군의 회유 때문이다.
- ② 매월에 대한 신문은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③ 매월은 숙영낭자가 누명을 쓰게 되는 간계를 꾸몄다.
-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미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원통함이 자리잡고 있다.
-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은 상공의 집안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4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처음에 과제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왜 자신에게 그런 과제가 주어졌는지 의심한다. 더구나 방해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과제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과제 수행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행위를 적극 실행하여 과제를 완수한다. 이로써 주인공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 ① ㉠은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와 선군의 관계가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어.
- ② ㉡은 과제 제시의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선군이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은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은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하여 도리를 다하려는 선군의 태도를 알 수 있어.
- ⑤ ㉤은 과제 해결이 완수된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의 원한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줄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들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썩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이’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툇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툇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후에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자 1: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반대자 1: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자 2: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자 2: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쉴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자 1: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찬성자 1: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사회자: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찬성자 1: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자 2: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들으니,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찬성자 2: 우리에게 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 방송을 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 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회자: 네.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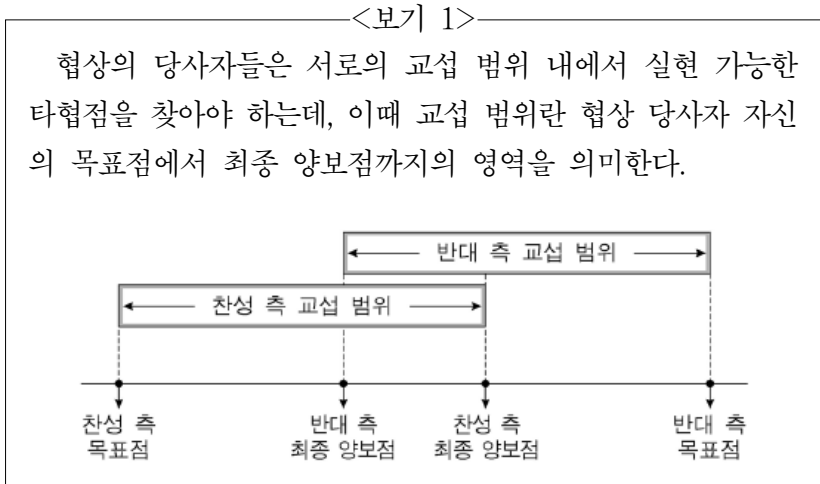
1.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②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③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⑤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위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찬성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②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입론의 ‘찬성자 2’가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1’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들어 반론의 ‘반대자 2’가 제시한 논거를 반박하고 있다.

3.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보기 1>의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기 2>

ㄱ.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방송을 편성한다.
 ㄴ.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
 ㄷ. 음악 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
 ㄹ.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 방송의 시간을 연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민: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혜경: ㉠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성민: ㉡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경: 병수야! 너도 좋았어?
 병수: ㉢ 글썄…….
 혜경: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고 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성민: ㉣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경: ㉤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병수: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 [_____ ㉦ _____]

병수: 맞아, 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② ㉡: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③ ㉢: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④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⑤ ㉤: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해 주고,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① 네가 혼자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네 주변의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게 어때?
 ② 네가 인생 경험이 짧는데 혼자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 인생 경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해.
 ③ 요즘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다. 그런데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게 어때?
 ④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
 ⑤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혼자 고민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로 쉽지 않을 거야.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6~7] <보기 1>은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논설문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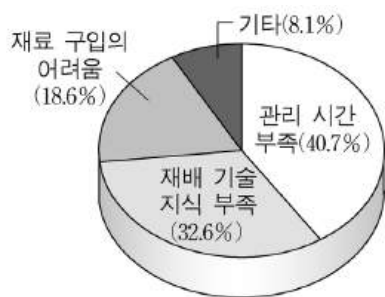
최근 도시민의 여가 활동 증가로 도시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농업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 농업은 도시 생태 환경 개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정서 함양, 공동체 의식 형성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의 농지가 매년 감소하여 경작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시 농업 관련 기술이 낙후되었고 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나) 설문 조사

1.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



2. 도시 농업 활동에서 겪은 어려운 점



(다) 인터뷰

“우리나라는 제약 요인이 많아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는 도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건축법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에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도시 농업을 위한 일정 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 농업의 메카인 쿠바는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많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농업 연구소장 -

<보기 2>

I. 서론

II. 본론

1. 현황

- 가.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
- 나. 귀농 인구의 증가 ㉠
- 다. 도시 농업 활동의 부진

2. 문제점 분석

- 가. 도시 농업에 필요한 경작 공간의 부족
- 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
- 다. 도시 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 부족
- 라. 인력 부족 ㉢
- 마. 도시 농업의 제도적 기반 미흡

3. 개선 방안

- 가. 도심지 내 마을 텃밭 조성 ㉣
- 나. 도심지 내 주말 농장 확대 ㉤
- 다. 도시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 라. 도시 농업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III.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를 참고하여 ‘II-1’을 작성할 때, ㉠은 주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② (나)-1을 참고할 때, ㉡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II-1-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③ ㉢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도시 농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친다.
- ④ (나)-2, (다)를 참고할 때, ㉣의 하위 항목에 ‘도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가한다.
- ⑤ (가)를 참고하고 ‘II-2-가’를 고려할 때, ㉣과 ㉤을 하나로 묶어 ‘도시 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한다.

7. <보기 2>의 ‘I. 서론’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을 인용할 것.
-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

- ① 도시 농업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 농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도시 농업의 기능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자.
- ②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도시 농부들이 전국 각지에서 생겨나고 있다. 도시 농부가 되려는 도시민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
- ③ 텃밭을 가꾸어 거둔 농작물을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도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시 농업이 국내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 ④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보니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시 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⑤ 도시 곳곳에 푸른 텃밭이 늘어나고 있다. 텃밭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도시 농부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는 도시민이 증가하는 것이다. 텃밭 가꾸기를 배우며 도시 농업의 즐거움을 만나 보자.

8.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번지점프는 탄력성이 있는 줄에 몸을 고정하고, 50m 정도의 높이에서 수면이나 지면을 향해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낙하할 때의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번지점프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의 번지점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기 위한 전통 의식이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소년들은 등나무 줄기에 몸을 묶어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뛰어내린다. 자칫하면 땅에 부딪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조 건>

-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한다.
-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추가하지 않는다.
- 반복된 내용이나 부가적인 내용은 압축한다.

- ①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긴장감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이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유래하였다.
- ② 바누아투 공화국에서는 높은 곳에서의 점프를 통해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전통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번지점프의 기원이다.
- ③ 번지점프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번지점프는 어린 소년들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다.
- ④ 번지점프는 밧줄을 몸에 고정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이것은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은 매우 용맹한 전사와 같다.
- ⑤ 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점프하며 그 순간의 긴장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번지점프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하여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우리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였다. 작문 과제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생각해 보았다. 문화유산은 종류도 다양하여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마침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소재로 정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다음,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

학생의 글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때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삼일절에 인사동에 갔다가 우연히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잠시 후에 첼로, 비올라 연주자들과 단소, 북 연주자들이 연이어 나와 합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관객들 사이에 있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에 맞추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악기와 어우러져 한껏 분위기를 ㉡돋구었다. 어느새 구경만 하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있었다. 거리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벽찬 감동을 받았고 서양 악기와 우리 악기 간의 조화로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아리랑을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후, 그때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찍어둔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문화유산은 현재와 단절되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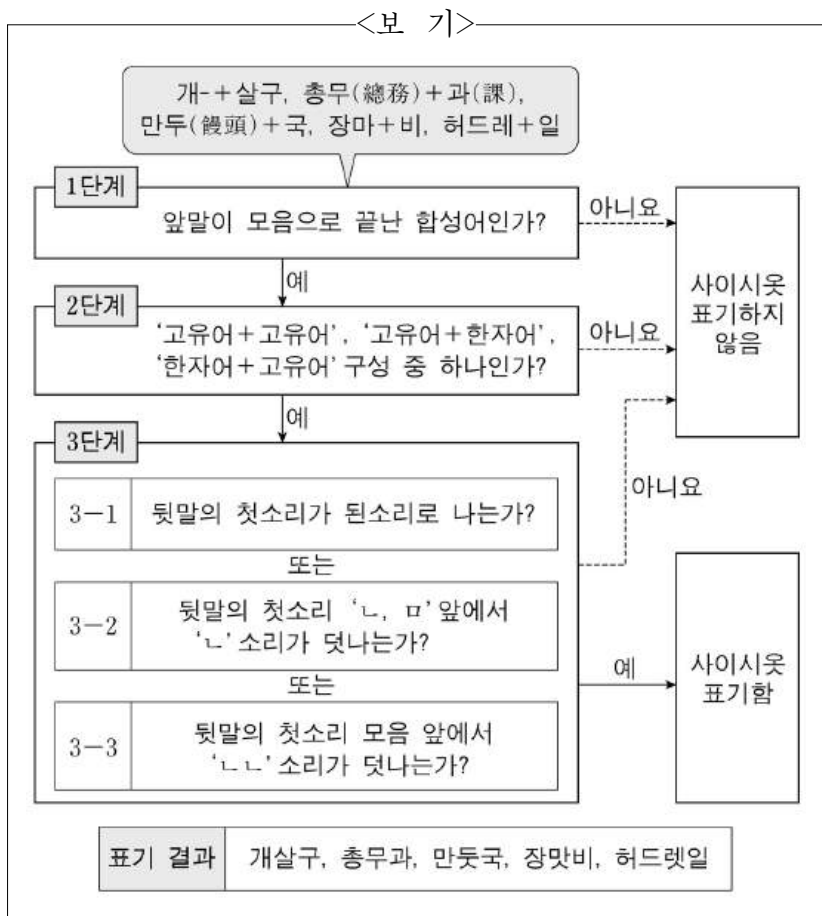
- ㉠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문화유산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정의의 방식을 사용한다.
- ㉢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한다.
- ㉣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과정을 제시하고 자신의 다짐으로 마무리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자'로 고친다.
- ② ㉡: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돋우었다'로 고친다.
- ③ ㉢: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므로 '된다'로 고친다.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12.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ㅍ]과 [비]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러'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13.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u>대하지</u>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u>지내기도</u>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u>되지는</u>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u>존경했다</u>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u>유학자이다</u> .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14.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답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 학생: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 어머니: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 └ 아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 학생 A: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 학생 B: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 언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 └ 동생: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가 | 나 |
| ② | 가 | 다 |
| ③ | 나 | 라 |
| ④ | 다 | 나 |
| ⑤ | 다 | 라 |

15.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	'장식품'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16. <보기 1>의 (가), (나)에 따른 표기의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가) ○를 입시울소리 아래 니셔 쓰면 입시울 가비야쁜 소리 드외느니라
[풀이] ○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나)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굴바 쓰라
[풀이]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나란히 써라.

<보기 2>

나랏 말쌔미 中등國극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 ㅁ츨내 제 ㅼ들 시러 ㅼ디 ㅁ홍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嬴 ㅎ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쥁를 ㉡ ㅁㅇ노니 사름마다 ㅎ야 ㉢ 수뵻 니겨 날로 ㅼ메 便安한키 ㅎ고져 흥 ㉣ 쓰르미 나라

- 『훈민정음』 언해 -

- | | | | | | |
|---|-----|-----|--|-----|-----|
| | (가) | (나) | | (가) | (나) |
| ① | ㉠ | ㉡ | | ㉠ | ㉢ |
| ③ | ㉡ | ㉣ | | ㉢ | ㉡ |
| ⑤ | ㉢ | ㉣ | | |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를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19.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할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인도(引導)해야
- ② ㉡: 지시(指示)해야
- ③ ㉢: 개편(改編)했다
- ④ ㉣: 도착(到着)할
- ⑤ ㉤: 쇄신(刷新)하고자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이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원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상황일까,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에 속할까?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전적으로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이는 창조의 자유가 예술의 필수 조건이 되는 시대를 앞당겼다. 즉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들은 신이나 성인(聖人)을 그리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19세기 낭만주의에 와서는 내면의 무한한 표출이 예술의 생명 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은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토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20세기만의 질적 차별성이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형식·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다. 현대 미술이 미술의 개념 자체를 묻는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이론적 행위로서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
- ② 예술가의 자율적인 이미지 창출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다.
- ③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 ④ 현대 미술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작품의 자격을 결정한다.
- ⑤ 현대 미술에서는 비평이 전시적 요소를 결정한다.

22. ㉠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 ② 자연 그대로의 사물을 전시하는 것도 작품 창작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 ④ 미술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본질적이다.
- 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3.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뒤샹의 <샘>은 소변기에 서명을 하여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그림에 벽지를 덧붙여 회화를 3차원화함으로써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작품이다.
- ③ 폴록의 <1950년 32번>은 캔버스에 물감을 붓거나 떨어뜨려 즉흥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의 표현을 시도한 작품이다.
- ④ 칸딘스키의 <콤포지션 VII>은 구체적인 대상의 묘사 대신 추상적인 색·선·형태만으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이다.
-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많은 네모 무늬로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을 창출함으로써 뉴욕의 활기찬 생활과 음악적 리듬감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이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의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갑을 비롯한 수만 명의 가입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누군가 A회사의 시스템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알고 링크 파일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거부하였다. 갑은 소송을 검토하였는데, 받게 될 배상액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갑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소송할 사람들을 모았고 마침내 1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갑은 이들과 함께 ㉠ 공동 소송을 하여 A회사에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저마다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심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괄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기에 번거롭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갑과 같은 이를 선정 당사자로 삼아 그에게 모두의 소송을 맡기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수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배상받을 금액이 적은 탓에 대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난 데 비하면, 승소해서 받게 될 배상금의 총액은 매우 적을 것이다.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일 갑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이들만 배상을 받게 된다. 반면에 집단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대표 당사자는 초기에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소송의 개시가 쉽지만은 않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IT 관련 협회와 같은 전문 단체가 소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 소송은 공익적 이유에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최근에 ㉡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 단체 소송도 도입되었는데,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한하여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4.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 ② 대립하는 원칙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여러 유사한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하였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⑤ 문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정립하였다.

25.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당사자 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 ②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 ③ 단체 소송에서 기업이 일으키는 피해를 중시시키려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한다.
- ④ 다수의 소액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피해자들은 공동 소송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일부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면 그런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던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26. ㉠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 정보의 침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 ②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③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어난 데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
- ④ 개인 정보를 판매한 데 대하여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 ⑤ 개인 정보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27.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포털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기업의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소비자들이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times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뻗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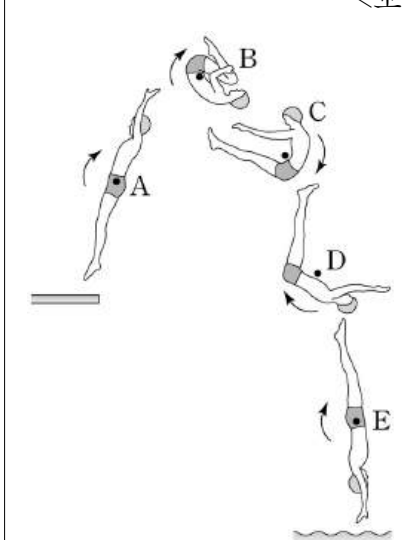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30.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정리한 ‘알고 싶은 점’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2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의 독서는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로 성경이나 주석서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2세기 들어 그리스 고전이 이슬람 세계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학문적 저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독서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독서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저서를 두루 구해 읽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텍스트가 장, 절로 나누어져 있고 중요한 구절 표시가 있는가 하면, 차례나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렇게 얻은 지식들을 논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고 도서를 위주로 한 독서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었다.

【알고 싶은 점】

- 이 시기에는 어떤 책들이 유행을 했을까? ①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②
- 이 시기에 독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③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를까? ④
- 이 시기 책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매영(梅影)이 부드러운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저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코다
이우고 잔 드리 권(勸)하랴제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비롬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나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치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뒤리
알패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밭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리’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드러 권하랴제’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일’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① 출렁대고 넘실거리던 이 만경창파(萬頃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까?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C]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D]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말했다.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鬯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서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죽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청주종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출사: 벼슬에 나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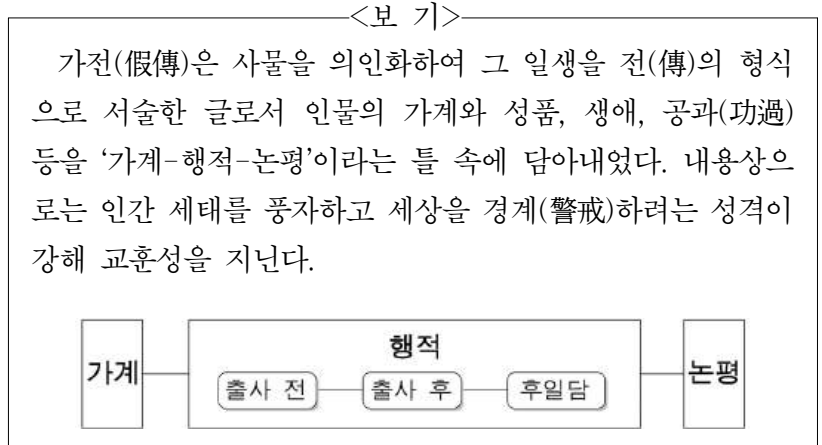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한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하여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37.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쫓아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껌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신경림, 「농무」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9.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되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

고, 침이 걸려서 책꽂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켜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하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42. **난파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 ② 정주할 곳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③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 ④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존재이다.
- ⑤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②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피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썩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이’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하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홀수형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재은: 성아야, 같이 가. 어? 그거 수민이 가방 아니야?
 성아: 응, 수민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조퇴하려고 하거든.
 재은: ㉠ 하긴,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지. 그래서 가방 가져다주는 거구나. 저번에 내가 다쳤을 때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더니, ㉡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김성아야.
 성아: (웃으며) 고마워. 언제나 네 말을 들으면 힘이 나.
 재은: 근데 너, 아까 점심시간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성아: 어? (잠시 말을 머뭇거리며) 그게…….
 재은: 뭔데? 얘기해 봐.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
 성아: 음, ㉢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번 전교 학생 회장 선거에 출마해 보면 어떨까?
 재은: 정말? 훌륭한데! 그런데 갑자기 왜?
 성아: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잠깐 임시 반장을 했었잖아. 학기 초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친구들이 친해지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았어. 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전교 학생 회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은: 그렇구나. 그런데 너, ㉣ 예전에는 뒤에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했어도 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
 성아: 그랬지. 그런데 막상 임시 반장을 해 보니까 남들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 또……. (잠시 침묵)
 재은: ㉤ 그리고? 계속해 봐.
 성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도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피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극복해 보려고.
 재은: 그렇구나. 큰 결심 했다. 나도 도와줄게.
 성아: 고마워. 그런데, 좀 고민되는 게 있어. 선거 운동 기간에 연설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재은: 음, 대중 앞에서 설득적 말하기를 할 때는,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대. 그러니까 () ㉞

- 위 대화를 고려할 때, ㉠~㉞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 ㉢: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대화 참여자 간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화제 선택에 제약을 줄 수 있다.
 - ㉤: 대화 참여자의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㉞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네가 학생 회장으로서 학생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것을 강조해 봐. 그러면 청중이 너의 자신감을 높이 살 거야.
 - 네가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던 이야기를 해 봐. 그러면 청중은 네가 학생 회장에게 어울리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 네가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 일을 주도해 왔다는 것을 강조해 봐. 그러면 청중은 네가 많은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학생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 네가 임시 반장을 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건 어때? 그 말에 청중은 네가 학생 회장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판단할 거야.
 - 네가 학생 회장이 되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해 봐. 그러면 청중은 자신의 숨어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거라고 기대할 거야.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행자: ‘책 사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우리나라 배』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반갑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의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네, 그건 배의 밑 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덕분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용이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얇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비교적 큰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전문가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전문가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에 나온 용어의 개념을 물음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담을 진전시키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희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희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희의 ‘잔디밭’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다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희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희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이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6~7] 다음은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방송국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교양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UCC 제작 기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다양한 UCC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아직 UCC 제작 경험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는 UCC를 제작하고 싶어 하지만 여유 시간이 부족하거나 제작 기술을 몰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UCC 제작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UCC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를 다룬 보고서를 살펴보면, UCC를 제작해 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보도 더 많이 얻고, 태도도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CC 제작 기술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담당자님께 거듭 부탁 드립니다.

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의 요구가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필자의 정서가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이다.
- ③ 특정한 독자가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별 독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주장의 실현에 따른 사회적 효과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⑤ 필자가 속한 집단의 개인 정보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7.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설문 조사(청소년 대상) (나) 청소년의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제작 경험	응답(%)
있음	28
없음	72

제작 의향	응답(%)
있음	89
없음	11

* UCC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 UCC 제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 대상

(다) 관련 보고서
 UCC 제작 활동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UCC 제작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들 중 제작 기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의향은 있으나 실제로 제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학습 만화는 교과 학습과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학습 만화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교과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 만화를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 즐겨 읽게 할 필요가 있다.

[조건]

- 1.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 2.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

- ① 학습 만화가 재미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쉽고 짧은 표현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다양한 어휘 습득이 어렵다.
- ② 학습 만화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 그러므로 독자는 학습 만화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룬 참고 도서를 폭넓게 읽도록 한다.
- ④ 학습 만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에만 집중하여 교과 내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학습 만화는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된다.
- ⑤ 학습 만화는 심화 과목 학습에 기초가 된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만화를 통해 교과 지식을 넓힌다면 학업에 보탬이 될 수 있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여받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나눔 도서관의 의의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야지.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바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1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약밥 → [약뻬], 잡다 → [잡뉘]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텥]

- ㉠ ㉠과 ㉡은 음절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에 ㉡'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 ㉠ ㉡'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 ㉠ ㉡'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용다용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화학자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불꽃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개선된 버너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 키르히호프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둘은 협력하여 불꽃의 색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띠 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망원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띠 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띄엄띄엄 떨어진 밝은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유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5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차가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헬륨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동료 과학자들은 물리학, 화학, 천문학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분광 분석법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냄으로써 우주의 통일성을 드러내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②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③ 물질을 불꽃에 넣으면 독특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⑤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②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키면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③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는다.
- ④ 철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⑤ 분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아 주는 버너를 고안하였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α 와 β 의 별빛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β 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①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 ③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
- ⑤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암사(仙巖寺)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昇仙橋)가 있다.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虹霓)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 준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널리 ㉠ 활용되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홍예는 장대석(長臺石)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또한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았음에도 ㉡ 견고하게 서 있다.

승선교는 이러한 홍예와 더불어, 홍예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예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예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일을 이룬다.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 가며 다채롭게 드러난다.

승선교는 못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승선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예석들은 접착제로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 ②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 ③ 홍예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 ④ 홍예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예석을 쌓아 만든다.
- 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예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20. 윗글의 ‘승선교’와 <보기>의 ‘옥천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천교(玉川橋)는 창경궁(昌慶宮)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다.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옥천교는 두 개의 홍예를 이어 붙이고 홍예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깨비 형상을 조각했다.

- ①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 ②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겠군.
- ⑤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21.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쓰였다
- ② ㉡: 튼튼하게
- ③ ㉢: 튀어나와
- ④ ㉣: 그친다고
- ⑤ ㉤: 주는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을 규명하려 하였다.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및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창의적 행동은 역경을 당해 이를 이겨 내려는 분투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인비는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렬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세 가지 상호 관계의 비교’를 제시하여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때 대중은 일종의 사회적 훈련인 ‘모방’을 통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그리고 죽은 선조들은 살아 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 준다. 그리하여 이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모방이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22. 윗글에 나타난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명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에서 나타난다.
- ② 모방의 존재 여부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된다.
- ③ 역사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연구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환경의 도전이 강렬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 ⑤ 선조에 기대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발전적 변화를 겪는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크게 달라졌다.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의 경우는 급속히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첫째 집단은 그대로 머물러 생활양식을 유지하며 겨우 생존만 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문명 단계에는 들어갔으나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고 말았다. 셋째 집단은 다른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이주한 다음,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새로운 고대 문명을 일구고 이어지는 문제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 ① 사막화는 서남아시아 일부 초원 지역 사람들이 당면했던 역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겠군.
- ② 첫째 집단에서는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③ 둘째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킨 후 이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했다고 보아야겠군.
- ④ 셋째 집단에서는 창조적 소수가 나타났고, 대중의 모방이 그들을 향했다고 보아야겠군.
- ⑤ 셋째 집단은 생활 터전과 생활양식을 모두 바꾸는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응전하여 문명을 발생시켰다고 보아야겠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6.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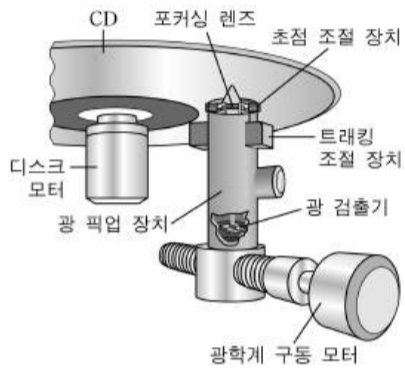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28.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샹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6연의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중략 줄거리】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

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어머니의 ㉦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3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③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동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陽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삼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흥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흥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

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우고 춘삼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우는 한편, 인형과 춘삼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삼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우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매,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리오.”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울도왕을 의령군에 봉했다.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 갖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할 만하였다.

- 허균, 「홍길동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 ④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4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④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⑤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흥맹한 형리(刑吏)처럼—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으나.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딱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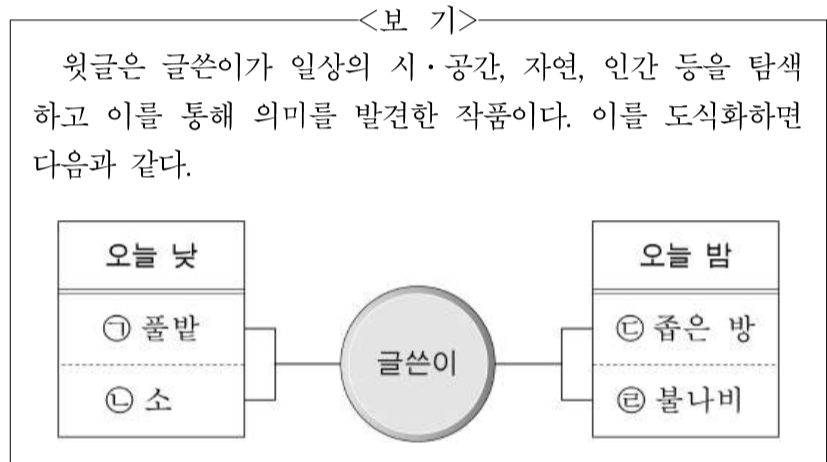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홀수형

[1~3] 다음은 학습 활동 과제에 따라 진행한 ‘모의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보고, 양측 대표의 역할을 맡아 협상을 해 보자.

한 식품 가공 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 기반 도시인 ○○시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기 위해 시청과 협상하려 한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시청 측에서는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소득을 늘리려 한다.

[모의 협상]

회사 측: 저희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그 문제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자면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지역 주민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지역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 인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회사 측: 예,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신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하수 배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측: 좋습니다. 하수 처리가 철저히 된다면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안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역 주민 채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긴 하겠지만 주민 다수가 공장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기엔 제시하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하신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 주십시오.

회사 측: 그러려면 공장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가공 식품 원료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장 이전으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를 주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역과 가격 차이가 없으니 그렇게 하지요. 그 대신 지역 주민들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니, 저희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청 측: 저희 농산물을 구입하신다면 가격 할인 없이도 회사 측에 운송비 절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농산물 가격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산 농가 주민들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측: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모의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 참여자 양측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다.
- ② 협상에서는 참여자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간다.
- ③ 협상 방법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절충하는 방법이 있다.
- ④ 협상에서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상에서 어떤 쟁점을 우선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협상 참여자들 간에 서로 다를 수 있다.

2.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③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다.

3.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가운데 다음 ㉢,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협상 주체	제안
회사 측	현재 직원 수의 10%를 지역 주민으로 추가 채용하겠습니다.㉢
시청 측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구입해 주기 바람.㉣

- ①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②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군.
- ④ 제안하는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군.
- ⑤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이군.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희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희 작품 전시회에서조차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희의 ‘잔디밭’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단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희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희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이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 ②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⑤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⑤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6~7] <보기 1>은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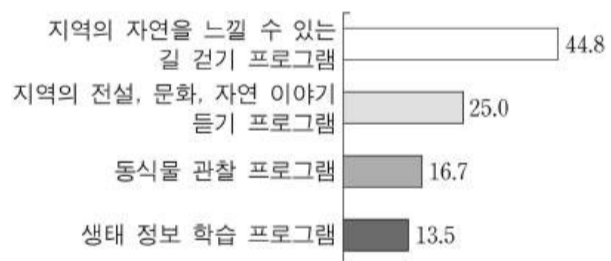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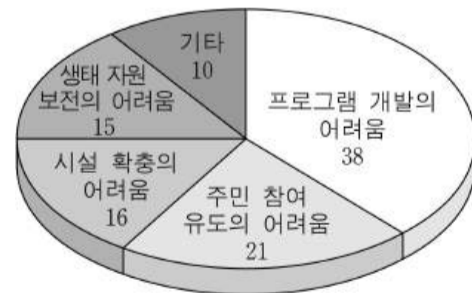
최근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 관광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로 잘 보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숲과 늪지가 사라지거나 관광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 생태 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 조사 자료

1.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2. 지방 자치 단체의 생태 관광 운영상 어려움(%)



(다) 우수 사례

- □□ 지역은 민물고기 생태관과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됨.
- 철새 도래지인 ○○섬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계 소득이 증대됨.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친구들에게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나)를 썼다.

(가) 신문 기사

○○시는 최근 '나눔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눔 도서관에서는 책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이 도서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듣는 책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나)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
저는 얼마 전 신문에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그곳을 찾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우선 나눔 도서관은 책을 공유하는 나눔의 성격이 강화되어진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을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어받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 둔 책이 한두 권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사고 싶지만 책값이 부담되어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나눔 도서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나눔터에 있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쓰지 않는 물품은 도서관 내의 '나눔터'에서 '나눔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나눔 동전과 교환하여 자신에게 요청되는 물건을 구입해 보세요.
이처럼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도 나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아요. 지금 도서관 누리집을 누르시면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고려한 방법이다. (나)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 나눔 도서관의 의의를 서두 부분에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야지.
나눔 도서관을 소개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해야겠어.
나눔 도서관이 하는 일들 중 학생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내용은 소개하지 말아야겠어.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줘야지.

10. '국어 사랑 동아리' 친구들은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글을 바르게 고쳐 주는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의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강화된'으로 고쳐야 합니다.
㉡ ㉡: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기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필요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 '그러나'로 고쳐야 합니다.

1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길이, 마중 무덤, 지붕
㉡ 무덤, 지붕 뒤뜰, 쌀알
㉢ 뒤뜰, 쌀알 무덤, 지붕
㉣ 길이, 무덤 뒤뜰, 쌀알
㉤ 마중, 지붕 길이, 쌀알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렇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걸-웃[거돋],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뇨], 홀-이불[혼니불]

- | | | |
|---|-------|-------|
| | ㉠ | ㉡ |
| ① | [꼰니랑] | [꼬도목] |
| ② | [꼰니랑] | [꼬초목] |
| ③ | [꼰니랑] | [꼰노목] |
| ④ | [꼬디랑] | [꼬초목] |
| ⑤ | [꼬디랑] | [꼬도목] |

13.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 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용다용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16.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

- ㉠ 자음 ‘△’과 ‘방’이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ㅼ’은 ‘ㅍ’과 ‘ㄷ’이, ‘ㅼ’은 ‘ㅍ’과 ‘ㅅ’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평성, 거성, 상성의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
- ㉤ 연철 표기(이어적기)를 하였다.

(나) 나랏 :말쓰·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종·와·로 서르
 슷·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 ·배 이·셔·도 ㅁ·춤·내 제 ·ㅼ·들 시·러
 꺾·디 :물·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들 字·종·를 ㅁ·그·노·니
 :사·름·마·다 :히·예 :수·뵈 니·겨 ·날·로 ·뽀·메 便·便·安·한
 ·크 호·고·져 홍 썩 르·미·니·라

- ① ㉠을 보니, ‘:수·뵈’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군.
- ② ㉡을 보니, ‘:ㅼ·들’의 ‘ㅼ’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었군.
- ③ ㉢을 보니, ‘:어·엿·비’에서 둘째 음절의 중성은 ‘ㄷ’으로 발음되었군.
- ④ ㉣을 보니, ‘:히·예’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달랐군.
- ⑤ ㉤을 보니, ‘:뽀·메’에는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군.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서(四書)는 배움을 위한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뒤를 이어 읽을 책은 『격몽요결』, 『소학』, 『근사록』, 『성학집요』로 그 체제와 내용이 정밀하여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일찍이 이를 후사서(後四書)라고 불렀다. 이를 반복하여 읽어 모두 이해하고 환히 알게 되면 자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매양 동료들에게 배움의 규범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사서 육경(四書六經)과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책은 사람이 평생토록 익히기를, 마치 농부가 오곡을 심고 가꾸듯 해야 한다. 하나의 경서를 읽고 익힐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첫째, 경서의 글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셋째,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되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되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방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학업을 이루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했다. 이상은 용촌(榕村) 이광지(李光地)의 독서 법이니 배우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

17. 윗글을 읽고 자신의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수준과 단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장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어야겠어.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③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겠어.
- ④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겠어.
- 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어.

18.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한 독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차례나 서문 등을 살핀 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다. 둘째,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며 빠르게 훑어 읽는다. 셋째,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해 가며 책을 읽는다.

-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읽는다.
-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면서 책을 읽는다.
- ③ 많은 양의 책을 읽기 위해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 읽는다.
- ④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견주어 가며 책을 읽는다.
- ⑤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골라 읽는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 a	㉣ b
②	㉢ a	㉣ c
③	㉢ b	㉣ a
④	㉢ c	㉣ a
⑤	㉢ c	㉣ b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 협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협찬 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의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③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④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 ②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 ③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 ④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⑤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24.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 ② ㉠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 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의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 ③ ㉡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겠군.
- ④ ㉡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에 따른 광고와 ㉡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 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커피 전문점, 휴대 전화, 의상, 승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 ①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②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 ③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 ④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 ⑤ 방송 후 화면 속의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 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 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 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 기준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팡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 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 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빈의 ㉠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29.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30.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 ③ 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별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휘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녀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어다.”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뉘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다.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말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

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

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

(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

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올

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후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입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 인은 각각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 인은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루몽」의 환몽(幻夢)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대어
- ② ㉡: 멍하니
- ③ ㉢: 이끌어
- ④ ㉣: 눈부신데
- ⑤ ㉤: 어울리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대체 박준은 어쩌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어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게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쩌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성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입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A]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
 니 믿음 들 디 업셔 냇?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니 온 곳혀여 우러 밤길 네뫼다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어는다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 그를 슬허 호노라
 - 임제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호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
 草) | 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호노라
 - 원친석 -

*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 목적: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 님 여희웁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니 온 곳혀여'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네뫼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무쳤는다'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자바 권(勸)홀 이 업스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사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호고
 넷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호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녹양방초(綠陽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

*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뚱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뚱처럼 멎은 즐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③ 제3연~제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툇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처럼—나는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으나.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딱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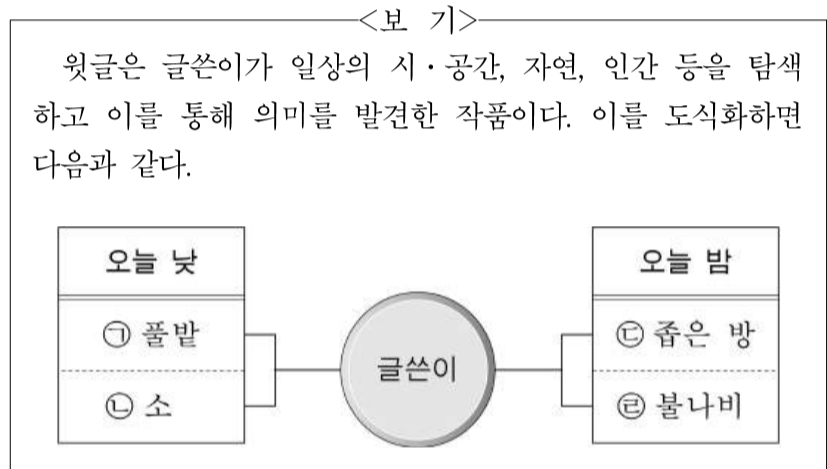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인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독서 토론 동아리 부장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1위는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였고, 2위는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이 많아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서 토론 노트를 보여 주면서) 이 노트는 토론 전, 중, 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 전 활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윗부분을 가리키며) 이곳에 책의 제목과 독서 진행 상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책의 내용 및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논제는 따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노트를 작성하면 첫째, 다른 친구들의 독서 상황을 확인하여 토론 진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저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논제로 삼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론할 때 자신의 논거와 상대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는 중에는 다른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거나 궁금한 것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이 노트에 토론 결과나 토론할 때 잘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적어 두면 다음 번 토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 토론 노트는 독서에서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토론 노트를 사용하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들은 물론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어서, 우리 동아리의 독서 토론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
-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겠어.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해야겠어.
-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학생 1 : 요즘 독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 논제와 관련 없는 얘기로 토론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고…….
- 학생 2 : 부장은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군.
- 학생 3 : 지난 시간 학교 행사 때문에 설문 조사 참여율이 낮았는데 전체 의견을 다시 들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 학생 4 : 독서 토론 노트는 좋은 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을 텐데…….
- 학생 5 : 부장 말대로 독서 토론 노트를 쓰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당장 써 봐야지.

- ① 학생 1은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자의 주장과 그 근거가 편향된 것은 아닌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

[3~5]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나무 해설가 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해설가 : 지난 시간에 나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 그림을 보여 주며) 우선 이 그림을 보시죠. 멋지지 않나요?
 진행자 :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그림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해설가 : 우리 조상들은 산, 물, 나무를 그림의 중요한 소재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산수화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뭘지 짐작이 되십니까?
 진행자 : 소나무가 아닌가요?
 해설가 : 맞습니다. (㉡ 표를 제시하며) 표를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나무보다도 소나무가 두 배 정도 많이 출현했습니다.
 진행자 :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설가 : 그림에서 소나무만 다시 볼까요? (소나무를 확대해 찍은 ㉢ 사진을 보여 주며) 나무의 굵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진행자 : 굵은 모습 때문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가 : 전통 조형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는 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소나무가 그 기조에 적합하죠. 또 사철 푸른 특성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설가 : 그렇습니다. 그림의 나무를 통해 선조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노래를 한 곡 들려 드릴 텐데요, 가사에 나무가 등장하니 잘 들어 보세요. (㉣ 음악을 들려준다.)
 진행자 : 제가 어릴 때 들던 대중가요네요. 노래에 나무가 등장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가 : 대중가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대중가요에는 어떤 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했을까요?
 진행자 : 음……. 소나무인가요?
 해설가 :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버드나무입니다.
 진행자 : 의외네요.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설가 : 대중가요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 영상을 보여 준다.) 시냇가 버드나무는 떠난 고향을 연상케 하는 대표적인 소재이죠. 최근에는 버드나무가 줄어든 만큼 노랫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진행자 : 예술 속에 나타난 나무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3.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설가의 물음에 대해 질문의 형식을 취하며 답변하고 있다.
- ② 해설가의 말에 호응하며 해설가의 발언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해설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해설가의 설명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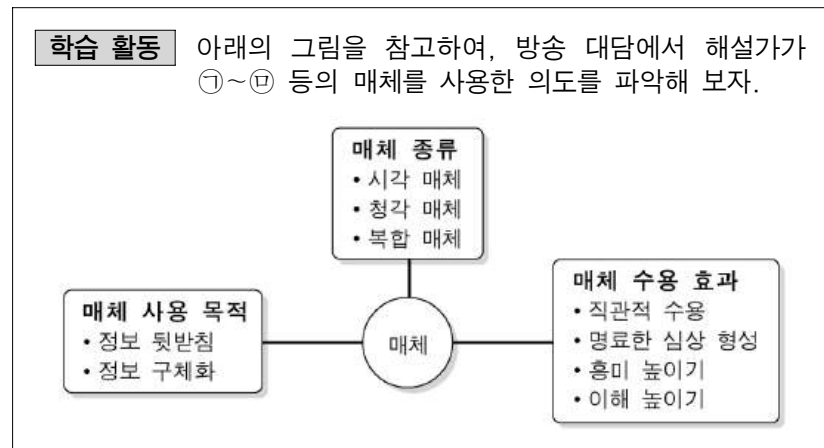
4. <보기>는 방송 대담을 시청한 후 언니와 동생이 나눈 대화이다. 위 대담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언니 : 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라……. 꽤 흥미로운걸.
 동생 : 그러게. 나도 재미있었어. 근데 언니, 요즘 나오는 노래 중엔 나무가 나오는 거 없어?
 언니 : 글썸. 잘 모르겠는데.
 동생 :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까?

- ① 대담은 <보기>에 비해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② 대담은 <보기>에 비해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③ <보기>는 대담에 비해 일정한 절차를 중시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④ <보기>는 대담에 비해 특정한 목적을 미리 설정하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 ⑤ 대담과 <보기>는 모두 복수의 가상적 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5. 위 대담에 관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그림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에 시선을 집중하게 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려고.
- ② ㉡: 산수화에 등장한 나무의 출현 순위를 확인하게 하여 소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라는 정보를 뒷받침 하려고.
- ③ ㉢: 소나무의 굽은 모습에 집중하게 하여 전통 미의식의 바탕이 되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수용하게 하려고.
- ④ ㉣: 노래에 등장하는 나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나무가 그림 이외의 예술 분야에도 등장함을 직관적으로 인식 하게 하려고.
- ⑤ ㉤: 고향에서 볼 수 있는 버드나무를 영상으로 감상하게 하여 소나무와 대비되는 예술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인지 하게 하려고.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는 '똑똑 우체통'을 소개하기 위해 학생 자치회에서 학교 누리집 알림방에 작성한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한 학생이 '똑똑 우체통'에 넣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가)



'똑똑 우체통'을 이용해 주세요. '똑똑 우체통'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똑똑하게' 반응하는 우체통이란 뜻입니다.

똑똑 우체통은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또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에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어 주신 이야기는 학생 자치회에서 선별하여 학교 누리집과 교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며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똑똑 우체통을 잘 활용한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 우체통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여러분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모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외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교실 청결은 물론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 나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나 미세 먼지가 많을 때, 비가 온 뒤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 다만 계단이나 복도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곳을 청소하는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 저 역

시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비가 와 진흙이 묻은 날에는 청소 시간 내에 ㉢ 다 끝내지 못해 수업 시간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 도구를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화 착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갈아 신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학생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실내화 착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85%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쾌적한 학교생활과 학생들의 건강, 청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모든 학생들이 실내화를 착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다음은 (가)를 쓰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똑똑 우체통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알려 줘야지.
- ② 똑똑 우체통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 줘야겠어.
- ③ 똑똑 우체통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려 줘야지.
- ④ 똑똑 우체통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 ⑤ 똑똑 우체통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려 줘야겠어.

7. (나)와 같이 건의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실내화 착용의 이로운 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 ② 실내화 착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과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높인다.
- ③ 실내화 착용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인다.
- ④ 실내화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하여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한다.
- ⑤ 글쓴이 자신의 경험은 제시하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건의 내용의 중립성을 확보한다.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은 '나쁜 영향'으로 수정한다.
- ② 맥락을 고려하여 ㉡을 '그러나'로 수정한다.
- ③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에 '청소를'을 첨가한다.
- ④ 글의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은 삭제한다.
- ⑤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은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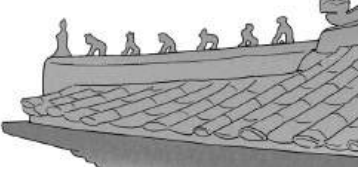
- 예상 독자 :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
- 글감 선정 : 학교 친구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잡상’이란 글감을 택하여 글을 써야겠다.
- 글 쓰는 목적 :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
- 자료 수집 :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
-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와 예시 등의 방법을 통해 잡상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

- 첫 번째 단락 : 잡상의 개념을 정의해야겠다.
- 두 번째 단락 : 잡상의 다양한 형상을 예시하고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 마지막 단락 : ㉠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어야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활용해야겠다.

(나) 학생의 초고

궁궐을 자주 다녀 본 친구들도 궁궐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조형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잡상이라 부르는데요, 잡상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 장식물을 뜻합니다.

잡상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여러 개를 동시에 지붕 위에 올리는데 그 형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봉황이나 용, 해태와 같은 전설 속의 동물도 있고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처럼 친숙한 것도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잡상을 올리는 이유는 잡상이 궁궐에 행운을 불러오고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집에 처용의 그림을 걸어 나쁜 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9.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를 학교 친구들로 한정된 것에서, 작문은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② 잡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에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③ 정의, 예시 등을 통해 잡상을 설명한 것에서, 작문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에서, 작문은 소재에 따라 내용 구성 방법을 달리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잡상을 선정하여 소개한 것에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을 참고하여 (나)의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지금도 궁궐 지붕 위에는 잡상들이 열병식을 하듯이 일렬로 늘어서서 궁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잡상에는 나라의 근간인 궁궐을 보호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 ③ 잡상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궁궐 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궁궐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 ④ 궁궐과 잡상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궁궐과 잡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 ⑤ 잡상은 고궁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러한 잡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 가야겠습니다.

1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끼, 노, 며, 소)
-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알, 억, 영, 환)
-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12.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 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 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 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 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 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보 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14.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답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가다

↓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예 → ㉠

아니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예 → ㉡

아니오

↓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답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 할머니: 어서 와라. ㉠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네, 엄마. ㉡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네, ㉢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아니에요, ㉣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응, ㉤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는 ㉠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해 있었다. 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 의식,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오히려 감독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들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 B급 영화: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에 제작되어 완성도가 낮은 상업적인 영화.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작가주의와 그에 대립하는 비평 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다.
- ④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의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맥거핀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을 말한다.
- ②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③ 프랑스 영화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④ 할리우드에서 제작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흥행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⑤ 할리우드에서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 인력들 간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였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제작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 ② ㉡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 ③ ㉡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다.
- ④ ㉡는 ㉠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는 ㉠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 윗글의 ㉠과 <보기>의 ㉡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의 일부 분일 뿐이다.

- ① ㉠은 ㉡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 ② ㉠은 ㉡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 ③ ㉠은 ㉡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 ④ ㉡는 ㉠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 ⑤ ㉡는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빛이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을 의미한다.

백열전구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이다.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끊어지기 쉬워 백열전구의 수명도 짧다.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수명은 짧아진다.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구조이다.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때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다.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고 수명도 5~6배 정도 길다.

발광 다이오드(LED)는 p형, n형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드는데 전압을 가하면 두 반도체 사이에는 일정한 전압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이 사이를 움직이는 전자는 그 전압 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접합된 두 반도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에 따라 필요한 전압의 크기나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다. 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

발광 다이오드를 조명용 발광 소자로 사용하려면 가시광선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단색 빛을 내는 발광체에 형광 물질을 입혀 형광등처럼 빛이 방출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손실이 작다.

2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에서는 빛과 적외선이 방출된다.
- ②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 구조는 복잡하지만 수명은 길다.
- ③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형광등의 빛의 색이 결정된다.
- ④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이 정해진다.
- ⑤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백열전구는 형광등보다 적외선 방출이 많으므로 형광등에 비해 발광 효율이 낮겠군.
- ② 백열전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은 낮아지겠군.
- ③ 형광등에서 빛 변환 효율이 높은 형광 물질을 사용하면 형광등의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겠군.
- ④ 두 조명 기구에서 같은 양의 빛 에너지가 나온다면 소비 전력이 작은 쪽이 발광 효율이 높은 것이군.
- ⑤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 물질을 통해 빛을 생산하지만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겠군.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유는 인간에게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다. 하지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 즉 원유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게 되면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원유를 열처리하여 미생물을 제거한 것이다.

원유를 열처리하게 되면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길수록 그 수는 더 많이 감소한다. 그런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열처리 조건을 알아야 한다. 이때 D값과 Z값을 이용한다. D값은 어떤 미생물을 특정 온도에서 열처리할 때 그 개체 수를 1/10로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만약 같은 온도에서 개체 수를 1/100로 줄이고자 한다면 D값의 2배의 시간으로 처리하면 된다. Z값은 특정 D값의 1/10 만의 시간에 개체 수를 1/10로 줄이는 데 추가적으로 높여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일수록 특정 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100개를 63℃에서 열처리한다고 하자. 이때 360초 후에 남아 있는 개체 수가 10개라면 D값은 360초가 된다. 만약 이 D값의 1/10인 36초 만에 미생물의 개체 수를 100개에서 10개로 줄이고자 할 때의 온도가 65℃라면 Z값은 2℃가 된다.

이러한 D값과 Z값의 원리에 기초하여 원유를 열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다. 먼저, 원유를 63℃에서 30분간 열처리하여 그 안에 포함된 미생물을 99.999% 이상 제거하는 ‘저온살균법’이 있다. 저온살균법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저온순간살균법’이다. 저온순간살균법은 원유를 75℃에서 15초간 열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생물 제거 효과가 저온살균법과 동일하지만 우유의 대량 생산을 위해 열처리 온도를 높여서 열처리 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다.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한 우유의 유통 기간은 냉장 상태에서 5일 정도이다. 만약 우유의 유통 기간을 늘리려면, 저온살균법이나 저온순간살균법으로 처리해도 죽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종류의 미생물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134℃에서 2~3초간 열처리하는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처리된 우유를 멸균 포장하면 상온에서 1개월 이상의 장기 유통이 가능하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유는 부패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 ② 우유의 유통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늘리려면 원유를 초고온 처리법으로 열처리해야 한다.
- ③ 열처리 시간이 같다면 원유에서 더 많은 수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열처리 온도를 높여야 한다.
- ④ 원유를 저온살균법으로 열처리하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제거되지만 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은 제거되지 않는다.
- ⑤ 초고온처리법을 사용하면 저온순간살균법을 사용할 때보다 원유를 열처리한 후 제거되지 않고 남은 미생물의 개체 수가 많다.

27. 윗글을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의 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같은 양의 원유가 담긴 세 개의 병이 있다. 이 중 한 병에는 미생물 A, 또 다른 병에는 미생물 B, 나머지 한 병에는 미생물 C가 각각 1,000개씩 들어 있다고 가정하자. 각 미생물의 열처리 온도 및 그 온도에서의 D값과 Z값은 다음과 같다.

A : 60℃에서의 D값은 50초이고, Z값은 10℃
 B : 60℃에서의 D값은 50초이고, Z값은 5℃
 C : 65℃에서의 D값은 50초이고, Z값은 5℃

- ① A,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60℃에서 100초 동안 열처리하면, A와 B의 남은 개체 수는 각각 10개씩 된다.
- ② A,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65℃에서 같은 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A의 개체 수는 B의 개체 수보다 더 적다.
- ③ A,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70℃에서 열처리하면, B는 A에 비해 더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다.
- ④ A, C가 들어 있는 원유를 70℃에서 5초 동안 열처리하면, A의 개체 수는 C의 개체 수보다 더 적다.
- ⑤ B가 들어 있는 원유를 65℃에서 5초 동안, C가 들어 있는 원유를 70℃에서 5초 동안 열처리하면, B와 C의 남은 개체 수는 각각 10개씩 된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 $\alpha \times$ 성과'(0 \leq α \leq 1)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α 가 커질수록 근로자는 고정급에 따른 기본 노력 외에도 성과급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α 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 첫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둘째,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다.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에는 기업의 평가와 보상이 공정하다고 근로자가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위험 프리미엄: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근로자는 사실상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28.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②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노력을 늘리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 ②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다.
- ③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약속이다.
- ④ 상대방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 손실이 클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 ⑤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이다.

30. 밑줄에 근거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가.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인센티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한다.

- | | | | |
|---|----|----|----|
| | ㉠ | ㉡ | ㉢ |
| ① | 증가 | 감소 | 감소 |
| ② | 증가 | 증가 | 감소 |
| ③ | 증가 | 감소 | 증가 |
| ④ | 감소 | 증가 | 증가 |
| ⑤ | 감소 | 증가 | 감소 |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A]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B]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C]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D]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E]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닦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응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묵, 「울정기(栗亭記)」 -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찍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얌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뿔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션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때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B]

“적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꺾꺾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슨 소림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입니까? (건우 증조부, 손에 쥔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 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꼬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쩐다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조각을 배 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 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E.L.S.: 익스트림 롱 숏.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 홍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밥소. 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홍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यो?”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쏘냐.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볼작시면, ㉠ 편자 없는 현 망건에 박쫄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현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현 고의에 첩 노끈 대님 매고, 현 짚신 감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자루 꿩무니에 비스 차고, 바람맞은 병인 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스비스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명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가 하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된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यो? 비웁니다. 형님 전에 비웁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혈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혈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께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중간 줄거리 : 어렵게 살던 홍부는 어느 날 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 주고 박씨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놀부 놈의 거동 보소.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그물 막대 둘러메고 제비를 몰러 갈 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떠서 들어오니 놀부 놈이 보고,

[A]

[B]

“제비 인제 온다.”

하고 보니, 태백산 갈가마귀 차들도 못 얻어먹고 주려 청천에 높이 떠 갈곡갈곡 울고 가니, 놀부 눈을 멀정게 뜨고 보다가 하릴없어 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 옛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적에 놀부 사면에 제비 집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오니, 그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제, 놀부 놈이 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꿩고 다만 하나 깨었는지라. 날기 공부 힘쓸 제 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 민망 답답하여 ㉡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른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꺾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달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엮어 두 엮더니, 십여 일 뒤에 그 제비가 구월 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 각처 제비를 점고할 제, 이 제비가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니, 황제 제신으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 아뢰되,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 보내어 홍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사 가라사대,

“이놈 이제 전담 재물이 여유롭되 동기를 모르고 오륜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報讐瓢)*’라 금자로 새겨 주더라.

- 작자 미상, 『홍부전』 -

* 보수표: 원수를 갚는 박.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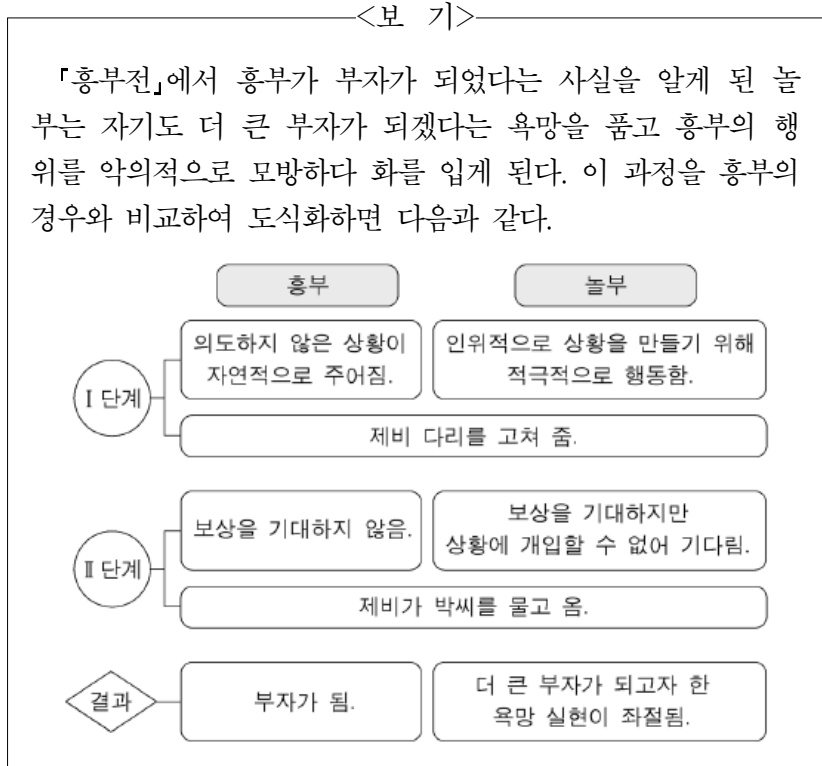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40.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홍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C]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에서 홍부와 홍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홍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 ⑤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동지선달’부터 올 리 없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 주는군.
- ②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 보여 주는군.
- ③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군.

42.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깜짝 놀라다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격이군.
- ② 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방귀 똥 냄새가 성내는 격이군.
- ③ 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군.
- ④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다니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군.
- ⑤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격이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다)

[A]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寂寞荒田側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B]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香經梅雨歇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뚱하네.	影帶麥風欹
[C]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	車馬誰見賞
	벌이나 나비들만 엇볼 따름이네.	蜂蝶徒相窺
[D]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自慚生地賤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堪恨人棄遺

- 최치원, 「축규화(蜀葵花)*」 -

* 낙목한천: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의 추운 하늘.
* 은한: 은하수.
* 자규: 두견새.
* 매우: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 맥풍: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 축규화: 접시꽃.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44.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의 「축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축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축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축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3. <보기>와 ‘모의 면접’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의 답변을 위한 피면접자의 사고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면접에서 피면접자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에 관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해야 하고, 의견에 관한 것일 경우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며 답해야 한다.

	질문 파악	답변 계획
①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구나.	자료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서 글과 그림이라는 두 매체의 특징을 대조하며 답해야겠어.
②	두 자료의 표현 수단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구나.	각각의 자료에서 인물이 드러내는 감정을 토대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여 답해야겠어.
③	두 자료에서 심리를 표현하는 수단에 관해 묻고 있으니 사실에 관한 질문이구나.	글과 그림 모두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심리를 드러낼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답해야겠어.
④	두 자료의 표현 수단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구나.	글과 그림 중 선호하는 매체에 대한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답해야겠어.
⑤	두 자료에서 심리 표현 수단이 다른 이유를 묻고 있으니 의견에 관한 질문이구나.	인물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답해야겠어.

[4~5] 다음은 독서 토론 동아리 부장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결과를 말씀드리면 1위는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였고, 2위는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이 많아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서 토론 노트를 보여 주면서) 이 노트는 토론 전, 중, 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 전 활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윗부분을 가리키며) 이곳에 책의 제목과 독서 진행 상황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책의 내용 및 저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토론거리가 될 만한 논제는 따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노트를 작성하면 첫째, 다른 친구들의 독서 상황을 확인하여 토론 진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어, 저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논제로 삼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토론할 때 자신의 논거와 상대방에 대한 반박 논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하는 중에는 다른 학생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거나 궁금한 것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입장에 있는 학생의 발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이 노트에 토론 결과나 토론할 때 잘한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적어 두면 다음 번 토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 토론 노트는 독서에서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 토론 노트를 사용하면 책을 읽어 오지 않는 학생들은 물론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으로 토론을 방해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어서, 우리 동아리의 독서 토론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앞부분에서 질문을 하여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
- ②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겠어.
-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어.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담화 표지를 사용해야겠어.
-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한 생각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학생 1 : 요즘 독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 논제와 관련 없는 얘기로 토론을 방해하는 애들도 있고…….
- 학생 2 : 부장은 독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토론 노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군.
- 학생 3 : 지난 시간 학교 행사 때문에 설문 조사 참여율이 낮았는데 전체 의견을 다시 들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 학생 4 : 독서 토론 노트는 좋은 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을 텐데…….
- 학생 5 : 부장 말대로 독서 토론 노트를 쓰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당장 써 봐야지.

- ① 학생 1은 발표의 동기에 공감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활용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자의 주장과 그 근거가 편향된 것은 아닌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

[6~8] 다음 <보기 1>과 <보기 2>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수업 시간에 연설을 듣고, 같은 화제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논설문 쓰기
- **연설 내용**: 고령화 사회의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효 문화의 회복 촉구
- **수립한 논지의 방향**: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 **선생님이 알려 주신 유의 사항**

“논설문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은 명확하고 타당하게 설정하고, 내용은 참신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단, 관련된 개념은 명확히 한정해 사용하고 표현은 정확하게 하며 객관적 설명을 적절히 사용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논문과 달리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활용할 자료

(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개발원, 2012)

유형 내용	사회 공헌형(공공 분야)	시장 진입형(민간 분야)
운영 방식	전액 정부 예산으로 급여 지급 - 1인당 20만 원, 7개월간	정부 보조금 일부와 사업 소득으로 급여 지급 - 연중 운영
주목적	사회 참여 동기 충족	생계비 확보 욕구 충족
일자리 창출 실적	194,480개(88.3%)	25,866개(11.7%)

(나) 노인 일자리 관련 연구 결과(○○연구원, 2012)

고령 근로자의 근로 목적	경제적 안정	65%
	사회 참여 및 기타	35%

민간 분야 부진의 주요 요인

- 초기 투자비와 고객 및 수요처 관리비 부담
- 지자체의 전담 기관과 전담 인력 부족
- 소비자가 선입견으로 인해 노인 참여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

(다) 전문가 의견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고 자존감이 고취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부양비, 의료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죠. 그런데 공공 분야의 노인 일자리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보기 2>—

1. 서론㉠
2.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
-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과 현황㉢
-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시사점㉣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증대 방안㉤
5. 결론

6. <보기 1>에 주목하여, 작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종류와 화제의 성격을 참작하여 비전문가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 ②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할 자료는 동일한 관점의 것들로 제한한다.
- ③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시장 진입형’ 등은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뒤 사용한다.
- ④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은 참신한 내용으로 제시 하되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해 논거를 마련한다.
- ⑤ 중심 내용은 주장과 논거를 기본 형식으로 하여 서술하되 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설명의 방식도 활용 한다.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수업 시간에 들은 연설 내용을 활용하되, 노인들의 자립적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언급하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 해야겠어.
- ② ㉡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노인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 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③ ㉢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 측면 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중심 으로 현황을 제시해야겠어.
- ④ ㉣에서는 (가)와 (나)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생계 수단에서 사회 참여 수단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어.
- ⑤ ㉤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민간 분야 활성화에 초점 을 맞춰 관련 사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전담 기관과 인력 확충, 일반 시민에 대한 광고와 홍보 지원 등을 제시해야겠어.

8. <보기 1>의 작문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 2>의 결론에 들어갈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의의
- ② 소외된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우리 사회의 효 문화 회복 촉구
- ③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별, 계층별 소득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제언
- ④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우리 사회의 전망
- ⑤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 풍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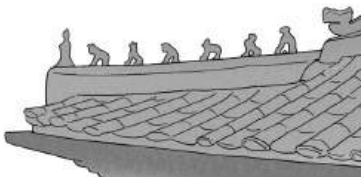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

- 예상 독자 :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
 - 글감 선정 : 학교 친구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잡상'이란 글감을 택하여 글을 써야겠다.
 - 글 쓰는 목적 :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
 - 자료 수집 :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겠다.
 -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와 예시 등의 방법을 통해 잡상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
- 첫 번째 단락 : 잡상의 개념을 정의해야겠다.
 - 두 번째 단락 : 잡상의 다양한 형상을 예시하고 잡상을 지붕 위에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 마지막 단락 : ㉠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어야지.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활용해야겠다.

(나) 학생의 초고

궁궐을 자주 다녀 본 친구들도 궁궐 지붕 위에 있는 작은 조형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런 조형물들을 잡상이라 부르는데요, 잡상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 장식물을 뜻합니다. 잡상은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여러 개를 동시에 지붕 위에 올리는데 그 형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봉황이나 용, 해태와 같은 전설 속의 동물도 있고 서유기에 등장하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처럼 친숙한 것도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잡상을 올리는 이유는 잡상이 궁궐에 행운을 불러오고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들이 집에 처용의 그림을 걸어 나쁜 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9.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를 학교 친구들로 한정된 것에서, 작문은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② 잡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에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③ 정의, 예시 등을 통해 잡상을 설명한 것에서, 작문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구성한 것에서, 작문은 소재에 따라 내용 구성 방법을 달리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잡상을 선정하여 소개한 것에서,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을 참고하여 (나)의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궁궐의 안녕을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지금도 궁궐 지붕 위에는 잡상들이 열병식을 하듯이 일렬로 늘어서서 궁궐을 지키고 있습니다. 잡상에는 나라의 근간인 궁궐을 보호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 ③ 잡상들은 마치 지붕 위에서 궁궐 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엿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상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궁궐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 ④ 궁궐과 잡상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궁궐과 잡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 ⑤ 잡상은 고궁을 찾는 사람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러한 잡상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어 가야겠습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얼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불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2.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①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

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
 ②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

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③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

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

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로마자 표기법은 국제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음 자료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표기	표준 발음	올바른 로마자 표기	
가락	[가락]	garak ㉠
앞집	[압 째]	apjip ㉡
장롱	[장:농]	jangnong ㉣

학생 : (가)

-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ㅈ'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ㅈ'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④ ㉠에서 '락'의 'ㄹ'은 'r'로, ㉣에서 '롱'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롱'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⑤ ㉡에서 '집'의 'ㅈ'과 ㉣에서 '장'의 'ㅈ'을 같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앞집'의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1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 할머니 : 어서 와라. ㉠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 네, 엄마. ㉡ <u>그이</u> 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 네, ㉢ <u>아가씨</u> .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 아니에요, ㉣ <u>고모</u> .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 응, ㉤ <u>고모부</u> 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15.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 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뺏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지 않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뺏아가다

```

    graph TD
      A[㉠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뺏아가다] --> B{사전 표제어 실렸나요?}
      B -- 예 --> C[㉠]
      B -- 아니요 --> D{'-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D -- 예 --> E[㉡]
      D -- 아니요 --> F[㉢]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뺏아 가다 또는 뺏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뺏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뺏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뺏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뺏아 가다 또는 뺏아가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의, 의, 스'는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의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예) 늑+의: 늑미 뜯 거스디 아니헛거든 (늑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거북비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스: 大王스 말쓰미사 울커신마른 (대왕의 말씀이야 옳으시지만)
나무+스: 나무스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 |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 술위+㉡ 글위를 날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①	의	스
②	스	의
③	의	스
④	스	의
⑤	의	의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는 ㉠작가주의라는 비평 이론이 새롭게 등장했다.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의상과 세트, 인기 연극배우에 의존하는 제작 관행이 팽배해 있었다. 작가주의는 이렇듯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창되었다.

작가주의는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감독의 세계관 혹은 주제 의식, 그것을 표출하는 나름의 이야기 방식, 고집스럽게 되풀이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배경 혹은 표현 기법 같은

일관된 문체상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영화 비평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한 것이다. 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 등의 변수로 야기될 수 있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오히려 감독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들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바로 스릴러 장르의 거장인 히치콕이다. 히치콕은 제작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속에서도 일관된 주제 의식과 스타일을 관철한 감독으로 평가받았다. 히치콕은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그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맥거핀’ 기법을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하나의 극적 장치로 종종 활용하였다. 즉 특정 소품을 맥거핀으로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것이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B급 영화: 적은 예산으로 단시일에 제작되어 완성도가 낮은 상업적인 영화.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작가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작가주의와 그에 대립하는 비평 이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④ 작가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 ⑤ 작가주의가 영화 비평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맥거핀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을 말한다.
- ② 작가주의는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을 선정하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③ 프랑스 영화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작가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 ④ 할리우드에서 제작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흥행의 안정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⑤ 할리우드에서는 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제작 인력들 간의 역할과 임무를 구분하였다.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제작에서는 관객의 기호를 흥행의 변수로 보지 않았다.
- ② ㉢는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상투적인 영화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 ③ ㉢는 히치콕의 작품들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다.
- ④ ㉢는 ㉠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는 ㉠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B급 영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 윗글의 ㉠과 <보기>의 ㉡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한 편의 영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감독은 영화의 일부 분일 뿐이다.

- ① ㉠은 ㉡보다 감독의 주제 의식을 중시한다.
- ② ㉠은 ㉡보다 감독의 표현 기법의 일관성을 중시한다.
- ③ ㉠은 ㉡보다 영화 창작 과정에서 감독의 권한을 중시한다.
- ④ ㉡은 ㉠에 비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조건을 중시한다.
- ⑤ ㉡은 ㉠에 비해 감독의 역량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합적이다’는 무슨 의미인가?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과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 등으로 정의해 왔다.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처럼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룬다.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이다.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 신장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 주는 명제 사이에는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다.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면,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하여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합설에서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 ② 정합설에서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 ③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에도 참이 아니다.
- ④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연관의 긴밀도 문제 때문에 정합설은 아직 한계가 있다.

22.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 -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
- ② 민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 민수는 농구보다 축구를 좋아한다.
-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 -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 ⑤ 민수의 말이 옳다. - 은주의 말이 틀리다.

23.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 ①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②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③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 ④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 ⑤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4.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받아들인
- ② ㉡: 일어나지
- ③ ㉢: 밝혀내기
- ④ ㉣: 지나치게
- ⑤ ㉤: 아우를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고대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1856년에 포그슨은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약 100배 밝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러한 등급 체계는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편되었다. 맨눈으로만 관측 가능했던 1~6등급 범위를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는데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더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자들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복사 플럭스'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그러나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은 더 어둡게 보인다. 이처럼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리겔'의 경우 겉보기 등급은 0.1 정도이지만, 절대 등급은 -6.8 정도에 해당한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된다.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즉,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과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이고, 절대 등급은 -3.6 정도이므로 거리 지수는 5.6이다.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북극성은 10파섹보다 멀리 있으며, 실제로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 이처럼 별의 밝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파섹: 거리의 단위로서 1파섹은 3.086×10^{13} km, 즉 약 3.26광년에 해당한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frac{1}{9}$ 배가 되겠군.
- ②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겠군.
- ③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겠군.
- ④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겠군.
- ⑤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약 2.5배 차이가 나겠군.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가상의 별 A, B에 대한 정보이다. 별 B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는 각각 별 A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1로 설정하여 계산한 값이다.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지수	반지름	표면 온도
A	2	-1	3	1	1
B	1	-6	7	0.1	10

- ①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크다.
- ②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별이다.
- ③ 별 B는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
- ④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 ⑤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어둡게 보인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요긴하다. 기업은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소비자는 소비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성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정보를 광고에서 얻으려 한다.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면 이를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광고가 사회 전체에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규제 방식이 모색되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과연 광고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당사자로서 누구를 상징할 것인가였다. 초기에는 ㉠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에 따라 광고 정보를 활용한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광고 정보가 정직한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는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광고에 의존하여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광고의 기만성에 대한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책임 주체로 기업을 상징하여 ㉡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복잡적이다.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워졌고, 상품에 응용된 과학 기술이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면서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이해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다른 상품 광고와의 차별화를 위해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이나 장면도 자주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기업이 광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여러 광고 규제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이는 크게 보아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통해 광고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는 광고 또한 사회적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실에 반하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규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 등을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부 기관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법적 규제가 광고의 역기능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강제적 조치라면, 자율 규제는 광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이다. 여기서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광고주, 광고업계, 광고 매체사 등이 광고 집행 기준이나 윤리 강령 등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한다. 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 규제의 배경과 유형
- 피해 책임의 주체와 규제의 주체를 중심으로
- ② 광고 규제의 사회적 영향
- 규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을 중심으로
- ③ 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의의
- 시대에 따른 소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④ 광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⑤ 광고 규제에 대한 대립적 시각
-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중심으로

2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 주체의 자율 규제가 잘 작동될수록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할도 커진다.
- ②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는 정도가 클수록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된다.
- ③ 시장 독과점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기업 책임 부담 원칙이 약화되고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이 부각되었다.
- ④ 첨단 기술을 강조한 상품의 광고일수록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
- ⑤ 광고의 기만성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 그 이유는 소비자에게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다 ㉡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 ② ㉠보다 ㉡이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
- ③ ㉡보다 ㉠을 따를 때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④ ㉡보다 ㉠을 따를 때 정부가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
- ⑤ ㉠과 ㉡은 모두 광고의 역기능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고 규제 중에는 소비자가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는 소비자 규제가 있다. 이는 소비자야말로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광고들은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 규제는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이때 규제의 주체로서 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소비자는 법적 규제를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주체는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규제는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리 행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소비자 규제는 소비자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책임 부담 원칙을 지지하겠군.
- ② 소비자 규제는 광고 규제의 효과 면에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보완한다는 의의가 있군.
- ③ 소비자 규제의 주체는 광고의 폐해에 직접 대응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주체와 긴장하는 관계에 있겠군.
- ④ 소비자 규제는 광고 주체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와 공통점이 있군.
- ⑤ 소비자 규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어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할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악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 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상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찍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얌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뿔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려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래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션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때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B] “척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꺾꺾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슨 소림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입니까? (건우 증조부, 손에 쥔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 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 아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꼬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쩐다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쪼각을 배 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 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E.L.S.: 익스트림 롱 숏.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왕이 대로하여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든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왈
 ㉠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오.”
 호왕이 대로하여 무사를 명하여
 “내어 배어라.”
 하니, 경업이 크게 꾸짖어 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을 불변하여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며 맨 것을 풀고 손을 이끌어 올려 앉히고,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다.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오. 장군의 소원대로 하리라.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셔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시더니,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았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꺼워하사 궁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더니, 경업이 나아와 울며 절하니,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보더라.
 호왕이
 “경들을 임경업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들을 보내나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은을 구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소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중략)
 세자와 대군이 급히 췌내에 들어가 대전께 뵈운데, 주상이 반기사 왈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가라사대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은을 구하여 오느냐?”
 하시고 벼루로 내리쳐 치시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하시니, 이때는 을유년이라.
 이때에 호왕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부마를 구하더니, 호왕이 경업을 유의하여 공주더러 이르니, 공주가 관상 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 부마에 뽀핍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숨을 넣어 키를 세 치를 돌우고 들어갔더니, 공주가 엿보고 왈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형용이니 짐짓 영웅이로되, 다만 키가 세 치 더한 것이 애달다.”

하거늘, 호왕이 마음에 서운하나 그와 방불한 자가 없는지라. 이에 장군더러 왈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
 장군이 사례하기를,
 ㉡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공하며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이다.”
 호왕이 재삼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써 좃지 아니하니, 호왕이 안타까워하더라.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 호왕이 미루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
 호왕이 그 말을 따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 의주까지 호송하니라.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는지라. 경업이 돌아오는 때문이 왔거늘, 자점이 헤오되,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상계 아뢰기를,
 “경업은 반역 죄인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는 수 없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 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
 상이 크게 놀라 왈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중하사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그 무리와 의논하여 왈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라.”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使者)가 와 이르되,
 “장군이 반역했다 하여 역률(逆律)로 잡아 오라 합니다.”
 하고 칼을 씌우며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 왈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피하더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군은 호왕의 배려에 따라 소원을 말하였다.
- ② 호왕은 적국의 임금인데도 강직한 임경업을 살려 보냈다.
- ③ 호국 신하들은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 ④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임경업의 소원을 방해하였다.
- ⑤ 주상은 세자와 대군은 돌아오고 임경업은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40.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왕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 ② 이 사건의 주요 과장인 관상 보기에 대해 공주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③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경업이 천하절색이라는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둠으로써 그가 세속적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④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혼사는 여전히 호왕이 주도하면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이 사건은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에 대한 호왕의 호감에서 비롯됨으로써 사건 전개에 연속성을 강화한다.

41. 임경업이 말한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회유에 대해 대응하고, ㉡에서는 권유에 대해 반응한다.
- ② ㉠에서는 충신의 도리를, ㉡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언급하여 거절한다.
- ④ ㉠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
- ⑤ ㉠에서는 죽음을 작정하고, ㉡에서는 억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승의 문집 『효전산고』를 보면, 종로의 담배 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내가 자점이더냐?”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 사건은 청에 대한 적대감, 임경업에 대한 흠모 의식에 바탕을 둔 「임경업전」에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보여 준다.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 ②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흠모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하겠군.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일겠군.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흐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므슴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흐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 혼가지라
 흐물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
 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순풍: 순박한 풍속.
 * 피미일인: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교교백구: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어약연비 운영천광: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뽕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3]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학생 2’가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내일은 내가 발표할 차례지? 준비는 다 했어?
 학생 2: 음……. 솔방울과 습도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 자료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 ㉠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학생 1: 흥미로운 주제네. 자료 준비도 잘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
 학생 2: 사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집중하면 오히려 발표를 잘 못할 것 같아.
 학생 1: 그러면 몇몇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래.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말대로 해 볼게. 고마워.

(나)
 여러분은 솔방울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니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려는 내용은 솔방울의 모양과 습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을 잘 살펴보면 날씨에 따라 오므라들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그럼 먼저 솔방울의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며) 보시는 것처럼 솔방울 겉면은 작은 조각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서로 조금씩 겹쳐져 있습니다. 이 조각을 ‘실편’이라고 하는데, 실편 한 개는 대개 소나무 씨앗 한 개씩을 감싸고 있습니다. 솔방울 하나는 보통 70~100개 정도의 실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실편을 이루는 조직 중 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벌어진 솔방울에 물을 부으면 솔방울이 서서히 오므라드는데요, 이것은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보다 물기를 더 빨리 흡수해서 그만큼 빨리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편들이 모두 안쪽으로 굽어져서 솔방울이 오므라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실편 바깥쪽 조직이 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해서 솔방울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솔방울의 특성을 알고, 솔방울이 벌어진 정도로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땀을 잘 배출하도록 고안된 운동복도 있습니다. 이 운동복은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이런 운동복을 입으면 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이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 (가)의 상황에서 ㉠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미리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하며 자신감을 얻는다.
 - ② 발표할 주제가 청중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청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주제를 교체한다.
 - ③ 발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
 - ④ 발표에서 실패했던 예전의 기억 때문에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두려움을 이겨낸다.
 - ⑤ 청중의 높은 지적 수준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다양한 질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발표에 대한 자기 암시를 한다.

2. 다음은 ‘학생 2’의 발표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ㄱ.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겠어.
- ㄴ. 설명하려는 현상을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겠어.
- ㄷ. 소개하려는 사례가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어.
- ㄹ.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해야겠어.
- ㅁ.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나)의 발표를 듣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솔방울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 한 개가 들어있겠군.
- ② 솔방울이 습기를 잃으면 실편은 안쪽으로 오므라들겠군.
- ③ 옛날 사람들은 솔방울이 활짝 벌어지면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겠군.
- ④ 솔방울의 실편 안쪽 조직은 바깥쪽 조직에 비해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하겠군.
- ⑤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만든 운동복은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겠군.

[4~5] 다음은 상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희 : (상담실에 들어서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 응, 괜찮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 무슨 일이니?

진희 : (자리에 앉으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 친구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선뜻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상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친구들이랑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 오, 좋은 생각을 했구나. 선생님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 물론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으니까.

진희 : 네. 그런데 막상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상담을 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

선생님 : ㉣ 그러니까 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혹시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선불리 비판하지 말고.

진희 :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기의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너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들었겠구나.’처럼 말야.

진희 : ㉥ 아,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 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며 용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진희 : 네.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 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이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단다.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테니까 선생님이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줄게.

진희 :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 또래 상담 동아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에 수긍함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5. ‘진희’가 ㉡를 대상으로 ㉢를 홍보하기 위해 교내 방송을 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여 말하고자 할 때, 각 단계에 따른 발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1단계: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을 던진다.
- 2단계: 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관시킨다.
- 3단계: 청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4단계: 해결 방안의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5단계: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 ① 1단계 { 여러분, 드라마 ‘○○’ 보셨죠? 주인공이 또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 ② 2단계 { 여러분은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 ③ 3단계 {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기 힘들었던 여러분의 고민을 △△ 상담 동아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④ 4단계 { 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 ⑤ 5단계 {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학급 게시판에서 상담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게시판에 있는 연락처로 신청하시고,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6~8] (가)는 일기이고, (나)는 학교 신문의 '독자 의견란'에 실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우리 지역의 ○○마을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처음으로 다녀왔다. 사실 나는 향토 음식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배운 밀국수를 통해 향토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겉보기엔 한 그릇의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꾸밈없는 맛과 정성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향토 음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에, 지금껏 향토 음식에 무관심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

흔히들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음식을 떠올릴 것이다. ㉡ 그러나 향토 음식은 전통 음식보다 좁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그 지방 고유의 음식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에 있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토 음식은 그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향토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이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우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 음식 선호도 설문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지역 향토 음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이다. 나는 이 결과를 접하고서 이제라도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주말에 ○○마을에서 열리는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다. ㉣ 주말에 함께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밀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할머니들로부터 이 지역 밀국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은 지역 특성상 논농사가 어려워 쌀 대신 밀을 많이 먹었고, 이웃과 함께 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정을 나누었다. 또, 양념을 많이 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담백한 맛은 우리 지역 사람들의 ㉤ 활기찬 마음과 닮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향토 음식을 배우는 것은 그 지역의 요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어져 온 문화와 정신을 배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 향토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식문화를 지킴으로써 전통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은 지역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데에도 ㉦ 참여할 것이다.

[A]

6. (가)와 (나)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자신의 체험이 지닌 한계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문제 상황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현상을 분석한 설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7. (나)의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 건 >

- (가)의 ㉠와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할 것.
-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의 ㉡를 유도할 것.

- ① 향토 음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음식으로서 현재의 식문화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따라서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향토 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향토 음식은 청소년의 관심이 없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떡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듯이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을 이어 갈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의 작은 관심들이 모인다면 향토 음식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 ④ 향토 음식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우리 식문화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우물가에서 송충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향토 음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는 데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⑤ 향토 음식의 전통에 의문을 갖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우리 향토 음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훌륭한 식문화와 융합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8.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바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교체한다.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런데'로 수정한다.
- ③ ㉣: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소박한'으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기여'로 바꾼다.

[9~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교지에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글을 신고자 함.
- 예상 독자: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

[학생의 글]

내 꿈은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함께 고려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피아노 계단’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다. 어느 도시의 한 지하철역에는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이 있다. 일단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계단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또 있다. 이 계단에는 오르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전기료가 기부금으로 누적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전자 간판도 달려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끼게끔 하여 계단을 이용하도록 재치 있게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낸 사람이 바로 공간 디자이너이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에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실제로 주변에는 그런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어 그중 몇몇 곳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나도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간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 계획을 세웠고,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먼 훗날 내가 디자인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미소 짓고 있는 나를 그려 보며, 오늘도 나는 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려 한다.

9. ‘학생의 글’에서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한다.
 -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부각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 ③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다.
 - ④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⑤ 공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10. 다음은 교지 편집장이 이메일로 보내온 수정 요청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자신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고 수정 요청 사항

-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할 것.
-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추가할 것.
- 직접 찾아가 본 공간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
-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할 것.

- ① 글에 언급한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제목을 제시하자.
-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자.
- ③ 우리 주변에서 환경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자.
- ④ 공간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 ⑤ 진학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자.

11.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학 생: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띯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12.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 ㉡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 ↔ 작다

작다 ㉨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

- ① ‘크다 ㉠’과 ‘크다 ㉡’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15.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식이 상한 것과 가스가 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각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탐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감각이다. 어떤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을 ‘취기재(臭氣材)’라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난다고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취기재의 분자가 코의 내벽에 있는 후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동물만큼 후각이 예민하지 않다. 물론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개[犬]가 10억 개에 이르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1천만 개에 불과하여 인간의 후각이 개의 후각보다 둔한 것이다.

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공기 중에 취기재의 분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다시 말해, 취기재의 농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다. 이처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탐지 역치’라 한다. 탐지 역치는 취기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가 메탄올보다 박하 냄새를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까닭은 메탄올의 탐지 역치가 박하향에 비해 약 3,500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를 탐지할 수는 있지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즉 ㉠ 냄새의 존재 유무를 탐지할 수는 있어도 냄새를 풍기는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된다.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아야 한다. 즉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그 냄새가 꽃향기인지 비린내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는 농도가 평균 11% 정도 차이가 나야 냄새의 세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10만 개가 넘는다. 하지만 그 취기재가 무엇인지 다 인식해 내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쓰일 모든 취기재의 이름을 미리 알려 준 다음, 임의로 선택한 취기재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종류를 맞히게 했다. 이때 실험 참여자가 틀린 답을 하면 그때마다 정정해 주었다. 그 결과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거의 두 배로 향상되었다.

위의 실험은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냄새에 대응되는 명명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후각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후각 수용기는 취기재의 분자에 반응한다.
- ② 후각은 유해한 물질을 탐지하는 역할도 한다.
- ③ 박하향의 탐지 역치는 메탄올의 탐지 역치보다 높다.
- ④ 인간은 개[犬]에 비해 적은 수의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
- ⑤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반응할 수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 그와 관련된 냄새를 통해 환기되는 경우가 있다.
- ② 특정한 냄새와 그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 ③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향상되면 그 취기재의 탐지 역치를 낮출 수 있다.
- ④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취기재의 가짓수보다 많다.
- ⑤ 같은 취기재들 사이에서 농도 차이가 평균 11% 미만이라면 냄새의 세기를 구별하기 어렵다.

18.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5인 경우
- ②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
- ③ 탐지 역치가 10인 취기재의 농도가 35인 경우
- ④ 탐지 역치가 20인 취기재의 농도가 15인 경우
- ⑤ 탐지 역치가 20인 취기재의 농도가 85인 경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실행되고 있다. 이는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인 CPU(중앙 처리 장치) 스케줄링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의 목록인 '작업큐'에 등록한다. 운영 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업큐에서 선택하여 CPU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작업큐에서 지운다.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A와 B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작업큐에 등록되고 이 순서에 따라 A와 B는 차례로 실행된다. 이때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A와 B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하면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구간 실행'이라 하며, 각각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을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한다. A와 B의 구간 실행은 원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번갈아 반복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된다.

한편, 어떤 프로그램의 구간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작업큐에서 대기한다. A의 구간 실행이 끝나면 A의 실행이 정지되고 다음번 구간 시간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데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짧다. 교체 시간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A의 상태를 저장하고 B를 실행하기 위해 B의 이전 상태를 가져온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되더라도 운영 체제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하므로 구간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교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큐에 등록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총처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실행 시간'에 '교체 시간'과 작업큐에서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져서 교체 시간의 총합은 늘어난다. 그러나 총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의 구간 시간 내에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제 프로그램 A, B, C가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가 실행되고 있고 B가 작업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할 경우,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와 B

의 구간 실행이 끝난 후 C가 실행된다. A와 B가 종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구간 실행이 필요하면 작업큐에서 C의 뒤로 다시 등록되므로 C, A, B의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세 프로그램은 등록되는 순서대로 반복해서 실행된다.

이처럼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따라서 작업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해 대기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운영 체제의 일부이다.
- ②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는 작업큐에 등록된다.
- ③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짧다.
- ④ CPU 한 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이 가능하다.
- ⑤ 컴퓨터 운영 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20. ㉠의 실행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②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이 늘어난다.
- ③ 총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 ④ 구간 시간이 늘어나면 구간 실행 횟수는 늘어난다.
- ⑤ 작업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총처리 시간은 늘어난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운영 체제가 작업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면 작업큐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도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프로그램 P, Q, R이 실행되고 있는 예를 생각해 보자. P가 '구간 실행' 상태이고 Q와 R이 작업큐에 대기 중이며 Q의 순위가 R보다 높다.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작업큐에 재등록될 때, P의 순위를 Q보다는 낮지만 R보다는 높게 한다. P가 작업큐에 재등록된 후 다시 P가 구간 실행을 하기 직전까지 _____ [가] _____ 을/를 거쳐야 한다.

- ① P에서 R로의 교체
- ② Q의 구간 실행
- ③ Q의 구간 실행과 R의 구간 실행
- ④ Q의 구간 실행과 Q에서 P로의 교체
- ⑤ R의 구간 실행과 R에서 P로의 교체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둔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 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갈필: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먹을 조금만 묻혀 거친 느낌을 주게 그리는 필법.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후대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 작품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
- ②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 ③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묵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 ⑤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묵란화를 창안하였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③ ㉡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 ⑤ ㉠과 ㉡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써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과 정의의 관계는 법학의 고전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논의해 왔다. 자연법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으로서 신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또는 인간 본성에 근원을 둔다. 특히 인간의 본성에 깃든 이성,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자질은 자연법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하여 종교적 권위를 중시하였다. 이후 근대의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1583~1645)는 중세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인간 이성에 따른 자연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이성을 통해 확인되고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법 규범은 자연법이자 신의 의지라고 말하면서, 이 자연법은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의 올바른 인도를 통해 다다르게 되는 자연법은 국가와 실정법을 초월하는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로티우스가 활약하던 시기는 한편으로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법도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자연법에 기반을 두면 가톨릭, 개신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이렇게 이루어진 법 원칙으로써 각국의 이해를 조절하여 전쟁의 참화를 막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이란 저서를 낳았다. 이 책에서는 개전의 요건, 전쟁 중에 지켜져야 할 행위 등을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자연법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신의 권위에서 독립한 이성의 법에는 인간의 권리가 그 핵심에 자리 잡았고, 이는 근대 사회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한 예로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에도 자연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더욱이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 선언에서는 자유권, 소유권, 생존권, 저항권을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로 선포하였다. 이처럼 자연법 사상은 근대적 법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특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법과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자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비판 속에서 자연법 사상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비판의 선봉에 서며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이른바 ‘법률실증주의’이다.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 또한 그것은 국가 권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합법의 외관을 쓴 전체주의로 말미암은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게 되자, 자연법에 대한 논의는 부흥기를 맞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법은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는 역할에서 여전히 의의가 인정된다.

26.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규범이다.
- ② 미국의 독립 선언에 법률실증주의가 영향을 주었다.
- ③ 서구의 근대적 법체계에는 평등의 이념이 담겨 있다.
- ④ 중세의 신학에서는 신의 법에 인간의 이성을 관련시키지 않았다.
- ⑤ 프랑스 대혁명에서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사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②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법 규범이 있다.
- ③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④ 각국의 실정법을 두루 통합하여 국제법으로 만들면 그것은 어디서나 통용되는 현실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⑤ 종교의 차이로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법을 구성하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법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권위만이 자연법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윤리나 도덕과 관련이 없는 근원적인 법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③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대립하지만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시공을 초월하는 본질적인 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자연법의 역할은 실정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29. <보기>는 윗글을 읽고 쓴 글이다. ㉠~㉥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법과 정의의 관계로 법을 바라볼 때 자연법 사상과 법률실증주의는 서로 마주 보도록 양쪽 끝에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운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하지만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의 권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와 함께 국민의 준수 의지라는 도덕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할
- ② 가져올
- ③ 기다릴
- ④ 떠올릴
- ⑤ 헤아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A]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B]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짝’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⑤ ‘꽃 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 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경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붙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가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 총회에서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 -

(나)

S#4. 윤기준의 방 안 (저녁) (현재)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기준,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기준의 상반신.

윤기준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 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폭 쉬시다 오시면 대회생제약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밖 풍경 (저녁) (현재)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종략)

S#11. 시골 자동차길 (낮) (현재)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12. 버스 안 (낮) (현재)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훑훑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 인서트(Insert): 삽입된 장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신문이나 편지, 사진 등이 끼이는 것.

* 로우브: 길고 품이 넓은 겹옷. 여기서는 목욕 가운.

* ㉥: 효과음(Effe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안개»: 「무진기행」을 각색한 시나리오임.

34.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중심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시대 배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긴장을 풀고 공상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 ② ㉡: 엉뚱한 공상을 하던 ‘나’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 ③ ㉢: ‘나’의 무진행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 ④ ㉣: ‘나’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아내’의 말을 긍정하며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36. (나)는 (가)를 각색한 시나리오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서사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회상의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에서는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아내’의 말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데 비해, (나)에서는 ‘윤기준의 방 안’, ‘시골 자동차길’, ‘버스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는 데 비해, (나)는 그 느낌을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장면(scene)은 시나리오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한다.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이 변할 때 나뉜다. 구분된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행동의 연속성이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담아내게 된다. 장면 속에 담긴 여러 표현들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① S#4에서 인서트된 사진은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된 요소이다.
- ② S#4에서 등장하는 공간과 소품들은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된 요소들이다.
- ③ S#5의 창밖 풍경은 S#4의 공간과 대조되어 인물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 ④ S#4에서 S#5로의 전환은 방 안의 우울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S#11에서 S#12로의 전환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펄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임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 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갖은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 옥새: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항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 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 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 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
- 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
- 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구슬이 ㉠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 외따로이 살아간들
 ㉤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입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엿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 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어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거머희뜩: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입'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워렁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입'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 ⑤ 화자가 '입'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2] 다음은 상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희 : (상담실에 들어서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 응, 괜찮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 무슨 일이니?

진희 : (자리에 앉으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 친구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선뜻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상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친구들이랑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 오, 좋은 생각을 했구나. 선생님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 물론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으니까.

진희 : 네. 그런데 막상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상담을 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

선생님 : ㉣ 그러니까 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혹시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선불리 비판하지 말고.

진희 :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기의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너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들었겠구나.’처럼 말야.

진희 : ㉥ 아,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 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며 용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진희 : 네.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 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이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단다.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테니까 선생님이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줄게.

진희 :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 또래 상담 동아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에 수긍함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2. ‘진희’가 ㉡를 대상으로 ㉢를 홍보하기 위해 교내 방송을 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내용을 조직하여 말하고자 할 때, 각 단계에 따른 발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1단계: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을 던진다.
- 2단계: 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관시킨다.
- 3단계: 청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4단계: 해결 방안의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5단계: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 ① 1단계 { 여러분, 드라마 ‘○○’ 보셨죠? 주인공이 또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 ② 2단계 { 여러분은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 고민을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 ③ 3단계 { 이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기 힘들었던 여러분의 고민을 △△ 상담 동아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④ 4단계 { 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 ⑤ 5단계 {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학급 게시판에서 상담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게시판에 있는 연락처로 신청하시고,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3~5]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지금까지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학교에 문화 체육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교수 : 시설 조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학교에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조항만 있을 뿐, 학교에 설치할 시설의 기준이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사회자 : ㉡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윤 교수님의 말씀처럼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 ㉢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네, ○○ 지역에서는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체육관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C]

사회자 : ㉤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도적 보완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청중의 질의를 받아 보겠습니다.

청중 1 : 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조성 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사업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

윤 교수 : 학교 시설 조성

사회자 : 한 분만 더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 2 : 저는 △△ 구청 직원인데요, 저희는 지역 내 학교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 학교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 [가]

3. ㉠~㉤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한다.
 - ② ㉡ : 토의 진행을 위해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한다.
 - ③ ㉢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한다.
 - ④ ㉣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한다.
 - ⑤ ㉤ : 두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4.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언급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④ [D] :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 ⑤ [E] : '청중 1'의 의견을 듣고 '청중 1'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후,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5. '최 교수'가 토의 과정에서 드러낸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며 말한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가 원하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이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②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학교 측의 요구보다는 주차난의 해소라는 주민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③ 구청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주차장 조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학교가 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므로 절차에 대한 규정부터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⑤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역과 학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시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등학생의 작문 과제 수행 일지

- 예상 독자: 학교 신문을 읽을 학교 친구들 ㉠
- 글을 쓰게 된 배경: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친구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고 있음. ㉡
- 글을 쓰는 목적: 카페인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게 설득함. ㉢
- 기타 유의할 사항: 선생님께서 글쓰기에 대해 평소에 강조하시는 점 중 다음 사항은 이번 글에서 꼭 반영하고자 함.
 1. 문단의 화제가 명료하게 드러나야 함. ㉣
 2.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함. ㉤

(나) 학생의 초고

카페인을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적당량을 섭취하면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덜해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부작용이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어느 정도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체중 1 kg당 2.5 mg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체중 50 kg인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에 125 mg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125 mg은 어떤 식품을 얼마나 먹으면 섭취하게 되는 양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주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은 탄산음료(에너지 음료, 콜라 등)와 커피류이다. 이들 식품의 카페인 평균 함유량을 살펴보면, 에너지 음료 한 캔(250 ml)에는 62.5 mg, 콜라 한 캔(250 ml)에는 23 mg, 커피 한 캔(175 ml)에는 84.4 mg이 들어 있다. 체중이 50 kg인 청소년이 하루에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섭취 허용량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탄산음료나 커피류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즐겨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초콜릿 30 g짜리 한 개에는 16 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체중이 50 kg인 청소년이 커피 한 캔과 콜라 한 캔을 마시고 초콜릿 두 개를 먹으면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A] [B]

6. (가)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제시한다.
- ② ㉡을 드러내기 위해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실태로 글을 시작한다.
- ③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제시한다.
- ④ ㉣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문단은 질문의 방식을 통해 화제를 드러낸다.
- ⑤ ㉤을 반영하기 위해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제시한다.

7. <보기>의 '자료 해석'을 활용하여 (나)의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13)에서 알게 된 내용 카페인 함유량이 기준치(1 ml당 0.15 mg) 이상인 액체 식품은 포장 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여부와 '카페인 함유량(mg)'을 표시해야 한다.
↓
자료 해석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일부 액체 식품의 포장 용기에서는 카페인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

- ①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 ② 체중 50 kg인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섭취 허용량을 체중 60 kg인 청소년의 경우로 환산하여 제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 ③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 ④ 카페인이 함유된 액체 식품 중에서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만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 ⑤ 포장 용기에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액체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8. (나)의 [B]에 결론을 쓰고자 할 때, <조건>에 맞추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글의 목적과 흐름을 고려하여, 독자가 유의할 점을 제시할 것.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요컨대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 등에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카페인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어떤 식품에 카페인이 들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 ② 정리하자면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카페인의 총량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카페인 하루 섭취량이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자.
- ③ 정리하자면 청소년과 성인에게 일어나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잘 알면 카페인을 덜 섭취하겠지만 잘 모르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④ 요컨대 하루에 섭취하는 각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양의 합이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카페인을 섭취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과 조금 더 유의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 ⑤ 요컨대 성인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무심코 성인들을 따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과 어른 흉내를 내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길 중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9~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교지에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글을 신고자 함.
- 예상 독자: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

[학생의 글]

내 꿈은 공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함께 고려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피아노 계단’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다. 어느 도시의 한 지하철역에는 다양한 색깔로 채색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이 있다. 일단 그 모양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 계단에는 재미있는 요소가 또 있다. 이 계단에는 오르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있으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전기료가 기부금으로 누적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전자 간판도 달려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끼게끔 하여 계단을 이용하도록 재치 있게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공간을 새롭게 바꾸어 낸 사람이 바로 공간 디자이너

이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에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실제로 주변에는 그런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어 그중 몇몇 곳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쳐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나도 사람들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간을 창조해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 계획을 세웠고,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먼 훗날 내가 디자인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미소 짓고 있는 나를 그려 보며, 오늘도 나는 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려 한다.

9. ‘학생의 글’에서 활용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한다.
-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부각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 ③ 공간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대 사회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다.
- ④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⑤ 공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보여 주기 위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공간 디자인 작품을 예로 들어 제시한다.

10. 다음은 교지 편집장이 이메일로 보내온 수정 요청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자신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고 수정 요청 사항

-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할 것.
- 글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추가할 것.
- 직접 찾아가 본 공간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를 제공할 것.
-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할 것.
-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할 것.

- ① 글에 언급한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제목을 제시하자.
-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자.
- ③ 우리 주변에서 환경과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자.
- ④ 공간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 ⑤ 진학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자.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오늘은 겹받침 ‘ㄹ’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ㄹ’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 ‘ㄹ’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ㄹ’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어간의 겹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자, 그러면 겹받침 ‘ㄹ’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_____ [가]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9항]

○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굳이, 같이 ㉠

[제25항]

○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꾸준히, 깨끗이 ㉡

○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더욱이, 생긋이 ㉢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응.

경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경준: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①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②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① ↔ 작다

작다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①

- ① '크다 ①'과 '크다 ②'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①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②'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15.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뒤혜는 모딘 도죽 알피는 어드본 길혜 업던 번개를 하눌히 불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도적 앞에는 어두운 길에 없던 번개를 하늘이 밝히시니

중세 국어: 뒤혜는 모딘 중싱 알피는 기픈 모새 열본 어르믈 하눌히 구티시니
 현대어 역: 뒤에는 모진 짐승 앞에는 깊은 못에 얽은 얼음을 하늘이 굳히시니

- ① '모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 ② '업던'이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어적기를 하였군.
- ③ '하눌히'를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군.
- ④ '모새'가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열본'을 보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방'이 쓰였군.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국 시대(戰國時代)의 사상계가 양주(楊朱)와 묵자(墨翟)의 사상에 ㉠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孟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비해 사회 혼란이 ㉡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견해를 강화한 것이었다.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방법을 '인(仁)'의 실천에서 찾고,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하였다.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인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당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 감정인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유비적 확장을 통해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그는 '의'를 개인의 완성 및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작은 이익이건 천하의 큰 이익이건 ‘의’에 앞서 이익을 내세우면 천하는 필연적으로 상하 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는 일종의 ㉢ 도덕 내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인간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하여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 역설하였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의 확충과 더불어 욕망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③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⑤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 윗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의’의 실천은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③ 가정 내에서 ‘인’과 더불어 ‘의’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의’의 의미 확장보다는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⑤ 사회 규범으로서 ‘의’는 ‘인’과 대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19.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수양을 통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니,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중요하다.
-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성인들이 만든 것이지 인간의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 ④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고,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된다.
- ⑤ 저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20.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의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사회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의’의 실현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여 ‘의’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 ①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보았다.
- ② ‘맹자’는 ‘의’와 이익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맹자’는 이익의 추구를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목적’은 이익의 충족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을 ‘의’를 실천하게 하는 동기로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을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맹자’는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목적’은 ‘의’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2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
- ② ㉡: 책임이나 부담 등을 더 무겁게 함.
- ③ ㉢: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 ④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⑤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어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문인들에게 시, 서예,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묵란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 따라서 묵란화는 문인들이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석란(石蘭)>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다.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은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져 있으며,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어 있다.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둔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의 대비가 돋보인다. 난 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둔후한 인품을 느낄 수 있으며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어 갔다.

생을 마감하기 일 년 전인 69세 때 그랬다고 추정되는 ㉡<부작란도(不作蘭圖)>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담묵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그 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며 한 송이 꽃을 피웠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 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묵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 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작란도>에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 두었다.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 순간의 계기에 의해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갈필: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먹을 조금만 묻혀 거친 느낌을 주게 그리는 필법.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② 후대 작가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해석을 근거로 들어 작품에 대한 통념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성격의 작품을 예로 들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문인들은 사군자화를 통해 군자의 덕목을 드러내려 했다.
- ② 묵란화는 그림의 소재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 ③ 유배 생활은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묵란화는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림 양식이다.
- ⑤ 김정희는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묵란화를 창안하였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완만하고 가지런한 잎새는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절에 추구하던 단아한 품격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에서 소담하고 정갈한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은 고상한 품위를 지키려는 김정희의 이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③ ㉡에서 바람을 맞아 뒤틀리듯 구부러진 잎은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김정희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에서 홀로 위로 솟구쳤다 꺾인 잎은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김정희 자신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 ⑤ ㉠과 ㉡에 그려진 난초는 김정희가 자신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소재이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나타난 김정희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내용은 형식에 담긴다. 그러므로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으로써 내용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에서 감동을 받는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파악은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예술 작품의 형식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 형식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익히는 것은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술 창작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사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통의 계승과 혁신의 문제는 예술에서도 오래된 주제이다.

- ① 전형적인 방식으로 <석란>을 그린 것은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② 추사체라는 필법을 새롭게 창안했다는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군.
- ③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의미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시와 서예와 그림 모두에 능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양식을 이해하고 익힌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다는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 단체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 왔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둘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한계가 있다. ㉡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A]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지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다.

26.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해서 기술하고 있다.
- ②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했을 때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
- ⑤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 결정 방식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2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여 전체 주민의 이익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② ㉡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③ ㉠과 ㉡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 ⑤ ㉠과 ㉡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8.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재원 확충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어 삶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주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주민의 80%가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52.5% 대 47.5%로 찬성이 많았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다.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주민 투표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 ① 찬성이 더 많은 투표 결과를 보니,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가 대립하는 것을 보니,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보니,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니,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체가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점탄성이란 무엇일까? 점탄성을 이해하기 위해 점성을 가진 물체와 탄성을 가진 물체의 특징을 알아보자. 용수철에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면 용수철은 즉각적으로 늘어나며 용수철에 가한 힘을 제거하면 바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데, 이는 용수철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수철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즉각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꿀을 평평한 판 위에 올려놓으면 꿀은 중력에 의해서 서서히 흐르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는 꿀이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꿀은 힘과 변형의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간 지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물체가 힘과 변형의 관계에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즉각성’과 점성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점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물체를 점탄성체라 한다. 이러한 점탄성을 잘 보여 주는 물리적 현상으로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들 수 있다. 응력 완화는 변형된 상태가 고정되어 있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인 응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크리프는 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줄에 힘을 주어 특정 길이만큼 당긴 후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외부에서 힘을 주면 고무줄은 즉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힘과 변형의 관계가 탄성의 특성인 ‘즉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늘어난 고무줄의 길이를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고무줄의 분자들의 배열 구조가 점차 변하며 응력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점성의 특성인 ‘시간 지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점탄성체의 변형이 그대로 유지될 때, 응력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이 응력 완화이다.

이제는 고무줄에 추를 매달아 고무줄이 일정한 응력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고무줄은 순간적으로 일정 길이만큼 늘어난다. 이는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체와 같이 분자들의 위치가 점차 변하며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리프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유리창 유리의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점탄성체의 변형에 걸리는 시간이 물질마다 다른 것은 분자나 원자 간의 결합 및 배열된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일론과 같은 물질의 응력 완화와 크리프는 상온(常溫)에서도 인지할 수 있지만, 금속의 경우 너무 느리게 일어나므로 상온에서는 관찰이 어렵다. 온도를 높이면 물질의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경우 온도를 높임에 따라 응력 완화와 크리프가 가속화되며, 금속도 고온에서는 응력 완화와 크리프를 인지할 수 있다. 모든 물체는 본질적으로는 점탄성체이며 물체의 점탄성 현상이 우리가 인지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수철의 힘과 변형의 관계가 '즉각성'을 갖는 것은 점성 때문이다.
- ② 같은 온도에서는 물질의 종류와 무관하게 물질의 유동성 정도는 같다.
- ③ 물체가 서서히 변형될 때에는 물체를 이루는 분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
- ④ 유리창의 유리 아랫부분이 두꺼워지는 것은 '시간 지연성'과 관련이 있다.
- ⑤ 판 위의 끈이 흐르는 동안 중력에 대응하여 끈의 응력은 서서히 증가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일론 재질의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바로 풀어 보니 원래의 길이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기타 줄을 길이가 늘어나게 당긴 후 고정하여 음을 맞추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 매여 있는 기타 줄의 길이는 그대로였지만 팽팽한 정도가 감소하여 음이 맞지 않았다.

(나) 무거운 책을 선반에 올려놓으니 선반이 즉각적으로 아래로 휘어졌다. 이 상태에서 선반이 서서히 휘어져 몇 달이 지난 후 살펴보니 선반의 휘어진 정도가 처음보다 더 심해져 있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선반이 서서히 휘는 속력은 따뜻한 여름과 추운 겨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① (가)에서 기타 줄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 것은 기타 줄이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군.
- ② (가)에서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달라진 것은 기타 줄에 응력 완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군.
- ③ (가)에서 나일론 재질 대신 금속 재질의 기타 줄을 사용하면 기타 줄의 팽팽한 정도가 더 빨리 감소하겠군.
- ④ (나)에서 선반이 책 무게 때문에 서서히 변형된 것은 선반이 크리프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여름과 겨울에 선반의 휘어지는 속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반이 겨울보다 여름에 휘어지는 속력이 더 크기 때문이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후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인을 나타낸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던 내 갸름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톳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임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 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준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구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 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㉔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꽃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관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보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 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㉕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였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5.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㉒: 인물이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 ③ ㉓: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의해 각성되고 있다.
- ④ ㉔: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⑤ ㉕: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

3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도요새의 지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도요새의 말이라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도요새 무리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요새의 습성과 인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① ‘도요새’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 ② ‘도요새’는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도요새’는 작지만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어리지만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펄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피 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에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씀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 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갖은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 옥새: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항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 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 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 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
- 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
- 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 구를 되어
 ㉢ 바람에 홀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되리라] [B]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갇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잡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곁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출수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유서연입니다. 박사님의 책 『화폐 속 문화』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지에 실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 왔는데요. 먼저, 천 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사: 그러죠.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 네. 앞면엔 퇴계 이황, 뒷면엔 도산 서원이 있어요.

박사: 맞아요. (천 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학생: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박사: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박사: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사: 그렇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학생: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만 원권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들어 있나요?

박사: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 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어요.

학생: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박사: 맞아요.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일부예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별의 밝기 까지도 표시했지요. 조선 시대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학생: 와! 지갑 속에 우주가 들어 있었군요.

박사: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진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지: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을 바탕으로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했지?

서연: 그럼 인터뷰의 내용이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에 관한 거니까 표제는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민지: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태성: 그건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 …………… ②

민지: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서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테니 그 의미를 추가하여 설명하면 좋겠어. …………… ③

민지: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태성: ‘계상정거도’에 대한 설명 내용은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폐 속 그림을 확대해서 실기로 하자. …………… ④

민지: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서연: 그러면 지폐 속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 ⑤

[3~5]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우리 모듬은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인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하기로 했지? 조사한 자료를 선별해 보자.

학생 2: 며칠 전 ○○신문에 전통 시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어. 아름시장의 특징을 잘 소개했으니 그것을 활용하자.

학생 3: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다른 전국의 전통 시장 분포에 대한 내용은 아름시장의 특징과 상관이 없으니 그것은 빼고 활용하자.

학생 2: 그래. 내가 찾은 한 연구 보고서에 있는 설문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전통 시장을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던데? 아름시장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설문 결과를 포함하면 좋겠어.

학생 1: 좋아.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자. ○○신문 기사의 일부와 연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자.

학생 2, 3: 그래, 그렇게 하자.

(나)

최근에 여러분은 전통 시장에 가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네요. 아마도 시장이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 하지만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인 아름시장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름시장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 시장이 대형 매장보다 불편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 며칠 전 ○○신문에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한 우수 사례로 실렸을 정도니까요. 이것은 아름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지향하며 노력한 결과이지요. 신문에 소개된 것처럼 아름시장에는 장보기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원하는 품목을 대신 구매해 주고 배달까지 해 줍니다.

㉢ 아름시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밤에 열리는 '야금장터'도 아름시장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형 매장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장을 볼 수 있지만 아름시장에서는 그럴 수 없어서 소비자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주 금요일에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것이지요. 야금장터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이 만든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저도 그곳에 관심이 생겨 가 보았는데 예술가들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많아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공연도 열어 소비자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렇듯 아름시장은 기존 전통 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시장에 문화를 접목하려는 시도로 재탄생한 시장입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도 아름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의 자료 선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비교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② 발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인지 점검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③ 자료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파악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④ 자료의 수준이 청중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고려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 ⑤ 자료가 화제의 특징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지 판단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4.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새롭게 여겨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발표자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 발표자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③ ㉢: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④ ㉣: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표자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다.
- ⑤ ㉤: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권유하기 위해 한자 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5. 다음은 (나)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청자 1: 아름시장에서 장보기 도우미를 도입하고 야금장터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진 대형 매장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나도 생각해.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매출이 늘게 될 테니까.

청자 2: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신문 기사를 대비하여 아름시장의 특징과 성공적인 변화 양상을 전달한 것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발표 내용대로 나도 아름시장의 장보기 도우미나 야금장터가 전통 시장에 관한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전통 시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

청자 3: 아름시장의 새로운 시도 중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발표 내용에는 쉽게 공감이가.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야금장터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는 데는 공감이 가지 않아. 단순한 볼거리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 ① 청자1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에 공감하면서 아름시장의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② 청자2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발표 내용을 듣고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군.
- ③ 청자3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청자1과 청자3의 반응으로 볼 때, 야금장터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의 특징을 설명한 것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군.
- ⑤ 청자2와 청자3의 반응으로 볼 때, 장보기 도우미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한 발표 내용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슈퍼마켓에 가면 일부 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가 무엇인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쓰기로 했다.

(나) 학생의 초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농산물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시를 볼 수 있다. 이 표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에 의한 것인데,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 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먹는 사람들이 많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도입은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계속 늘고 있는 데 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한 농산물'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은 외관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인증 표시가 ㉠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인증 표시는 세 가지로 ㉡ 나뉘어진다. 유기농 인증 표시는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임을 뜻한다. ㉢ 그러나 무농약 인증 표시는 유기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저농약 인증 표시는 유기 합성 농약을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 사용 ㉣ 기준에 1/2 이하로,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1/2 이내에서 사용하되 제조제는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에 붙인다. 단,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은 중단되었고 이미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 2015년까지만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소비하는 것이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 실감하는 길이다.

6.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 ②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이다.
- ③ 글의 화제는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격도 지닌다.
- ④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 ⑤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7. 다음은 [A]를 쓰는 과정에서 세운 글쓰기 계획과 그 계획을 점검·조정한 결과이다. [A]에 비추어 볼 때, ㉠~㉥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글쓰기 계획	점검·조정의 결과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가 등장한 배경을 설명해야겠어.	독자들은 인증 표시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므로 등장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느는 것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거론해야겠어.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조사한 결과가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그 대신 인증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글의 화제로 제시해야겠어.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글의 첫 문단에서 설명했으므로 인증 표시 제도 운영의 의의를 서술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기준도 함께 설명해야겠어.	인증 표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 통과의 어려움을 분류 기준과 함께 설명했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바르게 아는 것의 의의를 제시하며 마무리해야겠어.	인증 표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하여 '부착될'로 고친다.
- ② ㉡: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나뉜다'로 고친다.
- ③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런데'로 고친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기준의'로 고친다.
- ⑤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실천하는'으로 고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 (가)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 보자.
-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리 토끼' 그림
-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 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를 해 왔던 스스로를 반성했다.
-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 얼마 전 모둠 활동 중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워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 선입견 없이 다시 보니 토끼로도 보여 신기했다. 학문 탐구에서 대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⑤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 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

전공 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 어떤 실습인지 궁금했는데, 대학교 선배들과 모듬을 이루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글의 일부를 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번 체험은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이번 전공 체험 교실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 전공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예전에 비해 줄었고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어제 뭐 했니?
B: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감기 걸렸다면?
B: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혔어.
- ④ ㉡ [A: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아주 나빴어.
- ⑤ ㉢ [A: 너 오늘도 바빠?
B: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13.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더-하다

I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II 동사

① ㉡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 ㉢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II ②’이다.

1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 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며,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다.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尿素)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들을 생성하는 데 이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의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의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

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 높다.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 가령,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이때 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 몰: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체내 단백질을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의 축적을 막는다.
- ② 유비쿼틴이 결합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솜이다.
- ③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다.
- ④ 세포 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결합 순서는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른다.
- ⑤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중에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수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군.
- ②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여 얻어진 필수아미노산의 일부는 단백질 합성에 다시 이용되겠군.
- ③ 체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은 음식물의 섭취나 체내 단백질 분해로부터 공급되겠군.
- ④ 제한아미노산이 없는 식품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골고루 함유되어 있겠군.
- ⑤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하겠군.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 데 필수아미노산 A, B, C가 각각 2몰, 3몰, 1몰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가), (나), (다)에서와 같이 A, B, C의 공급량을 달리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가): A 4몰, B 6몰, C 2몰
 (나): A 6몰, B 3몰, C 3몰
 (다): A 4몰, B 3몰, C 3몰

(단,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분해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없겠군.
- ②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 ③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군.
- ④ (나)와 (다) 모두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B가 되겠군.
- ⑤ (나)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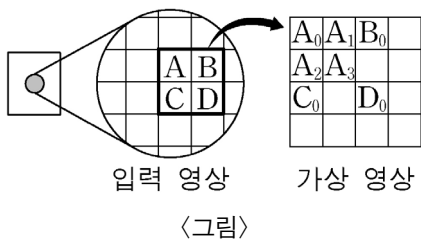
1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을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이 높다.
- ②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 ③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은 높이가 매우 높다.
- ④ 잘못을 시정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 ⑤ 친구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름이 높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n \times n$ 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모니터에 있는 $n \times n$ 개의 화소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된다.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 \times 2n$ 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을 채운다.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_0 \sim A_3$ 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 영상을 확대한 가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 ‘확대 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A_0 \sim A_3$ 모두가 같은 밝기로 표시되므로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한다. 확대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 ‘선형 보간법’이다.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D는 각각 A_0, B_0, C_0, D_0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A_3 의 화소값을 A_3 과 인접한 A_0, B_0, C_0, D_0 의 평균값으로 채우고, A_1 은 A_0 과 B_0 의 평균값으로, A_2 는 A_0 과 C_0 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값이 인접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접 화소들 사이의 명암 대비가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반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frac{n}{2} \times \frac{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채운다. 이때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가상 영상의 화소에 복사한다. 이러한 ‘선택 복사 방법’을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 특히 글자와 같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흑백의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

러나 이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영상의 화소값은 밝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② 디지털 영상의 해상도는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 ③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밝을수록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많아진다.
- ④ 디지털 영상에서 두 화소의 화소값 차이가 클수록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 ⑤ 영상을 확대, 축소할 때 입력 영상은 가상 영상으로 변환되어 모니터에 표시된다.

21. 윗글의 <그림>에 ㉠, ㉡을 적용했을 때,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적용하면 A값과 B값의 차이가 없을 때, A_1 값과 B_0 값은 차이가 없다.
- ② ㉠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_0 값과 A_2 값은 차이가 있다.
- ③ ㉡을 적용하면 A값과 C값의 차이가 없을 때, A_0 값과 A_2 값은 차이가 없다.
- ④ ㉡을 적용하면 A값과 B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_0 값과 A_1 값은 차이가 있다.
- ⑤ ㉡을 적용하면 A값~D값이 모두 같을 때, A_3 값은 인접한 화소의 화소값과 차이가 없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00×100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의 중앙에는 밀변이 50개의 화소로 구성된 검은색의 정삼각형이 있고 입력 영상의 바탕색은 흰색이다. 이 입력 영상을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 확대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하고, ㉡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한 가상 영상을 만들어 모니터에 표시하였다.

- ① ㉠에서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에 비해 모자이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② ㉠에서는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는 것이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할 때보다 처리 시간이 길다.
- ③ ㉡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정삼각형의 윤곽선 부분은 명암 대비가 강해진다.
- ④ ㉡에서 ‘선택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 ⑤ ㉠과 ㉡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가상 영상들의 화소수는 서로 다르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은 주로 세금을 비롯한 공적 재원으로 ㉡ 충당을 한다. 하지만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조직이 늘어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민간 위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물 관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 경감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면허 발급 방식'이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공 서비스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민간의 자율에 맡겨 공공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는데, 이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 복지관과 같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 개선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3.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 ②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 ③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 ④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
- ⑤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

24.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가치와 효용을 비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상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의 수익이 제한되기 때문
- ②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
- ③ 민간 위탁은 대부분 면허 발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 ④ 민간 위탁에 의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
- ⑤ 공공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

26.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는 행사 관련 서류의 열람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 ② ㉡: 그는 회사의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 ③ ㉢: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다.
- ④ ㉣: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 ⑤ ㉤: 집단 이기심은 사회 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A]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골을 움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

얹음새 같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이윽한: 시간이 지난.
*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단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셈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단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이태준, 「파초」-

* 챙: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 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애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쁨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A] “㉣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향 속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긋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B]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총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건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
 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총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
 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즐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대: 낚시터.

* 명감: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34.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총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④ ㉢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는 ‘소생’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37. ㉣의 화자에게 ㉣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굶餓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피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과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촉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라.

“한 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동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과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늙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독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굽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떠룩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권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리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작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뚝뚝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새벽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고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담」 -

* 당학: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질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리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과'를 '나라를 줌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빛'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탑』)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탑』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잇자 한들 눈에 절로 밝히거늘 설위 아니 그리워할쏘나
 ㉡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잇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라
 무심하고 쉽게 잇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나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 가니
 ㉢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고황(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나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건우직녀를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시고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 진초: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함.
 * 총명: 듣거나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청조: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
- ㉡ 사택망처: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를 할 때 아내를 깜박 잊고 두고 가는 것.
- ㉢ 사광: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률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음.
- ㉣ 편작: 전국 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함.
- ㉤ 비익조: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 ① ㉠을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② ㉡을 활용한 것은, ‘사택망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③ ㉢을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 ④ ㉣을 활용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⑤ ㉤을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출수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유서연입니다. 박사님의 책 『화폐 속 문화』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지에 실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 왔는데요. 먼저, 천 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사: 그러죠.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 네. 앞면엔 퇴계 이황, 뒷면엔 도산 서원이 있어요.

박사: 맞아요. (천 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학생: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박사: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박사: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사: 그렇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학생: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만 원권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들어 있나요?

박사: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 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어요.

학생: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박사: 맞아요.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일부예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별의 밝기 까지도 표시했지요. 조선 시대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학생: 와! 지갑 속에 우주가 들어 있었군요.

박사: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진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특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지: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을 바탕으로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했지?

서연: 그럼 인터뷰의 내용이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에 관한 거니까 표제는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로 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민지: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태성: 그건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 …………… ②

민지: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서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테니 그 의미를 추가하여 설명하면 좋겠어. …………… ③

민지: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태성: ‘계상정거도’에 대한 설명 내용은 독자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폐 속 그림을 확대해서 실기로 하자. …………… ④

민지: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서연: 그러면 지폐 속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 ⑤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수필 「강희자전과 감투」를 변형하여 재구성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을 통해 논제와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고 입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쌀을 사기 위해 책을 팔러 간다. 책방 주인은 책값으로 오십 원을 매기며 되팔 때 가격이 칠십 원이어서 오십 원도 높은 가격이라고 강조한다. 몹시 아끼던 책을 판 ‘나’는 간신히 칠십 원을 마련해 되사려 가지만 주인은 오백 원에 팔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나’의 판매 요구를 거부한다.

학생 1: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생 2: 저는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값은 판매 당시의 여건이나 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구입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격 결정권이 책방 주인에게 있는 대신 ‘나’는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 1: ‘나’와 책방 주인이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을 팔 때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선택권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방 주인에게 가격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구입 가격의 열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적정한 이윤 추구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윤 추구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 2: 책방 주인이 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의 상황까지 고려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매자 각각의 형편에 따라 책값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 1: [가]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현안에 대하여 그것이 지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이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음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4. 토론의 흐름에 따라 상대측을 반박하려고 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책방 주인은 ‘나’의 상황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알았다 하더라도 책을 사고팔면서 그것을 모두 고려하여 책값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② 상대측에서 ‘나’가 책을 팔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동정심을 유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니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③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신 것은 책방 주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④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책방 주인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책값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 ⑤ 저는 ‘나’가 책을 팔고 살 때 책방 주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구매자들마다 책값을 달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은 저의 발언을 왜곡한 것입니다.

5. 다음은 위 토론에 청중으로 참여했던 학생이 쓴 글이다.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되도록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이윤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지속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1989년 개인 서비스 요금 자율화 이후 설령탕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결국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다. 이는 ㉣ 물건의 가격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 물건의 가격만 높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 ① ㉠: ‘학생 1’과 ‘학생 2’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였군.
- ② ㉡: ‘학생 2’의 입론과 ‘학생 1’의 반론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군.
- ③ ㉢: ‘학생 2’의 입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가 현실과 어긋남을 보여 주는 사례를 들고 있군.
- ④ ㉣: ‘학생 1’의 반론에 사용된 둘째 논거를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군.
- ⑤ ㉤: ‘학생 1’의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학생의 초고

밥상에 오르는 곡물이나 채소가 국내산이라고 하면 보통 그 종자도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벼, 보리, 배추 등을 제외한 많은 작물들의 종자를 수입하고 있어 그 자급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양파, 토마토, 배 등의 종자 자급률은 약 16%, 포도는 약 1%에 불과할 정도다. 또한 청양고추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음에도 현재는 외국 기업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 채소 종자 시장의 경우 종자 매출액의 50%가량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종자를 심고 키우기 어려워 질 것이고 종자를 수입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상 이변 등으로 곡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종자 문제가 식량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종자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면서 상당수 우리 종자의 소유권과 우수 육종 기술도 함께 넘어간 사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종자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 육성에 소홀했다는 데 있다.

① 따라서 국내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종자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처럼 종자 산업은 식량 안보 면에서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종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생명 공학과의 접목을 통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종자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자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든다.
 - ②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 ③ 현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④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과 자신이 내세운 대안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 ⑤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7.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국내 종자 기업의 종자 개발 기술력이 선진국 종자 기업의 기술력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음에도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최대 종자 기업의 경우, 연구 개발 투자액이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총 연구 개발 투자액보다 약 20배 이상 많았다.

(나) 특정 바이러스에 강한 새로운 콩 종자가 개발 보급되어 농가의 콩 수확량이 크게 늘면서 토종 종자가 밀려나고 전국의 콩 종자가 대부분 새로운 종자 한 가지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다른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새 품종의 콩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전국에 콩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조 건>—

- (가)로부터 핵심 내용을 도출하여 ㉠을 구체화할 것.
- (나)에 드러난 현상에서 시사점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국내 종자 기업들이 해외 종자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으려면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종자 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토종 종자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 ② 따라서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연구 개발 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만 외래종을 도입하여 종자를 개발하면 다양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종 종자로 단일화하여 보급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종자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되 기업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특정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된 종자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종자 개발에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개발된 종자의 장점만을 중시하여 종자를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다양한 종자의 개발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⑤ 따라서 해외 종자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종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토종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에 지원하기보다는 외래 종자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 밑글의 내용을 학교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전략	실행 계획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의 화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시작한다.	도입에서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이 발표의 화제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겠어. …… ①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상호 작용을 시도한다.	흔히 먹는 곡물과 채소를 언급하며 그 종자가 어느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니 질문하고 반응을 살펴야겠어. …… ②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외국에 개방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 현황을 그래프로 제시해야겠어. … ③
생생한 전달을 위해 적절한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전문가가 식량 안보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 줘야겠어. …… ④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하도록 화제와 청중의 관련성을 부각한다.	종자 산업이 부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안보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어. … 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리 토끼’ 그림
○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 ①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를 해 왔던 스스로를 반성했다.
-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 얼마 전 모둠 활동 중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워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 선입견 없이 다시 보니 토끼로도 보여 신기했다. 학문 탐구에서 대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⑤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 전공 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 어떤 실습일지 궁금했는데, 대학교 선배들과 모둠을 이루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글의 일부를 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번 체험은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이번 전공 체험 교실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 전공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예전에 비해 줄었고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음:는], 닦지[닥찌], 읊기[읍끼], 밟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밟는[밤: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12.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13.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엇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넙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14. <보기 1>의 학생 의견과 관련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1>

학습 활동: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생각한 바를 각자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학생 1: ‘ㄱ’의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니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 학생 2: 휴대 전화 자판 중에는 ‘·, -, |’를 나타내는 3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어서 참 편리해요.
- 학생 3: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관계가 <A>-<A에 획 추가>-<AA>로 글자 모양에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인 문자인 것 같아요.
- 학생 4: ‘ㅁ’과 ‘ㅂ’에 획을 추가해서 만든 자음자들은 ‘ㅁ’ 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포함된 ‘ㅁ’ 모양은 이들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 것이에요.
- 학생 5: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글자 수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보기 2>

한글의 제자 원리

가.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나.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
라. 기본자 외의 8개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 ① 학생 1 - 가, 나 ② 학생 2 - 다, 라
- ③ 학생 3 - 나, 다 ④ 학생 4 - 나, 라
- ⑤ 학생 5 - 가, 라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더-하다

I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II 동사

① ㉡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 ㉢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II ②’이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중세 국어] ㉠ 부텃 마를 ㉡ 듣즈보디 [현대 국어] 부처의 말씀을 듣되
학습 활동	[중세 국어] 니르고져 흥 ㉢ 배 이셔도 [현대 국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학습 활동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input type="text"/> [가] <input type="text"/>)

- ① ㉠: 관형격 조사로 ‘시’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④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 본위에서 자신을 ㉡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

으로 ㉔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㉕ 과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㉖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지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7. 밑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18. 밑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19.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20. ㉑~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 ② ㉒: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③ ㉓: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④ ㉔: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 ⑤ ㉕: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사회 이론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연구 대상뿐 아니라 이론 자체가 사회 상황이나 역사적 조건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19세기의 시민 사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민 사회라는 용어는 17세기에 등장했지만, 19세기 초에 이를 국가와 구분하여 개념적으로 정교화한 인물이 헤겔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의 후진국인 러시아에는 절대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산업 자본주의도 미성숙했던 때여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자본가들을 육성하며 심각한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다. 그는 사익의 극대화가 국부(國富)를 증대해 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긍정했으나, 그것이 시민 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무한한 사익 추구가 일으키는 빈부 격차나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 사회가 개인들이 사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영역이자 그 욕구를 사회적 의존 관계 속에서 추구하게 하는 공동체적 윤리성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시민 사회 내에서 사익 조정과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 직업 단체와 복지 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행정 조직의 역할을 설정하면서, 이 두 기구가 시민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끌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빈곤과 계급 갈등은 시민 사회 내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국가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적 질서를 확립할 최종 주체로 설정하면서 시민 사회가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혁명을 이끌었던 계몽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파편화된 개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있었고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은 격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고용주 단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한 르 샤플리에 법이 1791년부터 약 90년간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분출되는 사익의 추구를 억제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프랑스 시민 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뒤르켐은 이러한 상황을 아노미, 곧 무규범 상태로 파악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표방하는 공리주의가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아노미를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과 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할 도덕적 개인주의의 규범에 주목하면서, 이를 수행할 주체로서 ㉡ 직업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헤겔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르켐은 직업 단체가 정치적 중간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국가에 전달하는 한편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헤겔과 뒤르켐은 시민 사회를 배경으로 직업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직업 단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자의 시민 사회론이 철저히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

론은 과학적 연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론이 갖는 객관적 속성은 그 이론이 마주 선 현실의 문제 상황이나 이론가의 주관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지를 제시한 후, 대표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명료화하고 있다.
- ② 화제를 소개한 후,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일반화하고 있다.
- ③ 주장을 제시한 후, 예상되는 반증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주장의 근거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주제를 제시한 후, 동일한 사례를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초점화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초 러시아에는 절대주의의 잔재와 미성숙한 산업 자본주의가 혼재하였다.
- ② 프랑스 혁명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개인들의 사익 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③ 헤겔은 국가를 빈곤 문제나 계급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최종 주체라고 생각하였다.
- ④ 뒤르켐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이기적 욕망이 조정되지 않은 아노미 상태로 보았다.
- ⑤ 헤겔과 뒤르켐은 공리주의가 시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23.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익을 조정하고 공익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국가를 견제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치안 및 복지 문제 해결의 기능을 담당한다.
- ④ 공리주의를 억제하고 도덕적 개인주의를 수용한다.
- ⑤ 시민 사회 외부에서 국가와의 연결 고리로 작용한다.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객관적 사회 이론은 이론가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무관하다.
- ③ 시·공간을 넘어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거한 사회 이론은 사회 현실의 문제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⑤ 사회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늘어선고,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A]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확산되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야 뉘뉘던고

㉠ 노국(魯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씨호야 적답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2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A] 외나모 뼈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호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호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호려니

산중을 밧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호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호니

영룡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윈(怨)호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엇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중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 부상: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첩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A]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 하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니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아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B]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가 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 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첩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올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중략)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였으며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고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남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김전이 왈,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누집 딸이라 하나뇨?”

남자 왈,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流離)하옵다가 겨우 의탁한 몸 되었사오니 고향과 부모의 성명은 모르오되 나이 찬 후에 혹 듣사오니 김 상서의 딸이라 하오며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김전의 아내 장 씨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전에게 왈,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삽고 연치(年齒) 또한 같사오되 다만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그 근본을 자세히 모르오나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으니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悲愴)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옹계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回報)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경액: 신선이 마신다는 신비로운 약물.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 - 지상계 - 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과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축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라.

“한 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동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려만 당학과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늙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독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독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떠룩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독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리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작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뚝뚝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샬넛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담」 -

* 당학: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질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리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과'를 '나라를 쪼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빛'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탑』)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탑』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끊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무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여기저기로.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둘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연습할까? 주중에는 방과 후에 내가 학생회 회의가 계속 있거든.
 학생 1: ㉡ (고개를 저으며) 안 될 것 같아. 나는 토요일에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 기타 연습은 주중에 했으면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네.
 학생 2: 아, 연습을 더 하긴 해야 하는데…….
 학생 1: 연습 시간을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 2: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는 건 어때? 내가 주말에 바쁘다고 하니까 내가 주중 회의 시간을 조정해 볼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도 시간을 좀 조정해 봐.
 학생 1: 그래.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를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을 텐데.
 학생 2: 토요일 오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겠어?
 학생 1: 그런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경험자가 도와주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너는 경험이 많고 잘 하잖아. 혹시…….
 학생 2: 응? 왜 그래?
 학생 1: ㉣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학생 2: 토요일 오전에 일을 끝내면 오후에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학생 1: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
 학생 1: 그럼 연습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제부터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때?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봐야 공연 당일에 떨리지 않을 것 같아.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
 학생 2: ㉤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무대 연습도 꼭 필요하긴 해. 하지만 아직 우리는 화음도 제대로 맞춰 보질 못했잖아. 조용한 연습실에서 우리 둘이 화음을 맞춰 보고 연습도 충분히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무대 위에서도 떨리지 않지.
 학생 1: 그래 좋아.

[A]

[B]

1.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 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견의 일치점을 찾았다.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A]에서는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④ [A]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를, [B]에서는 공동이 아닌 ‘학생 1’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 화제로 대화하였다.
- ⑤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안들을 ‘학생 1’이 종합하였다.

[3~5] 다음은 '영우'가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여름에 저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하면서 냉방 장치가 없는 한옥 안이 한낮에도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 바로 처마의 기능과 관계가 깊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처마의 기능을 여러분께도 알려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처마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그 뒤로 처마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마는 기둥이나 벽체 밖으로 길게 돌출된 지붕의 아랫부분을 가리키는데, 긴 처마는 서양식 주택과 비교되는 전통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 주며 화면을 응시한 채) 보시는 것처럼 서양식 주택은 대체로 처마가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 주며) 한옥 처마가 어떤 모양인지 잘 보이시죠? 한옥은 이렇게 벽체 밖으로 서까래를 길게 내어서 긴 처마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발표 원고를 응시한 채) 처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벽과 기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벽과 기둥 보호가 왜 중요하냐면 한옥의 벽은 흙으로, 기둥은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흙으로 된 벽은 오랫동안 빗물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나무 기둥도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마를 길게 만들어서 빗물을 기단 밖으로 흘려보내 벽과 기둥에 빗물이 닿지 않게 하려 한 것이죠. 장마가 길고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한반도의 기후를 고려하면 벽과 기둥을 빗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처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A] 두 번째로 처마는 계절에 따라 실내의 일조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 주며 화면을 응시한 채) 보시는 것은 여름과 겨울의 태양의 고도 차이에 따라 처마에 의해 일조량이 조절되는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마의 길이는 한반도의 계절별 태양의 고도 차이를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한낮의 직사광선이 처마에 막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가 낮게 뜨는 겨울에는 햇빛이 처마에 걸리지 않아 집 안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반도의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일조량을 조절하는 것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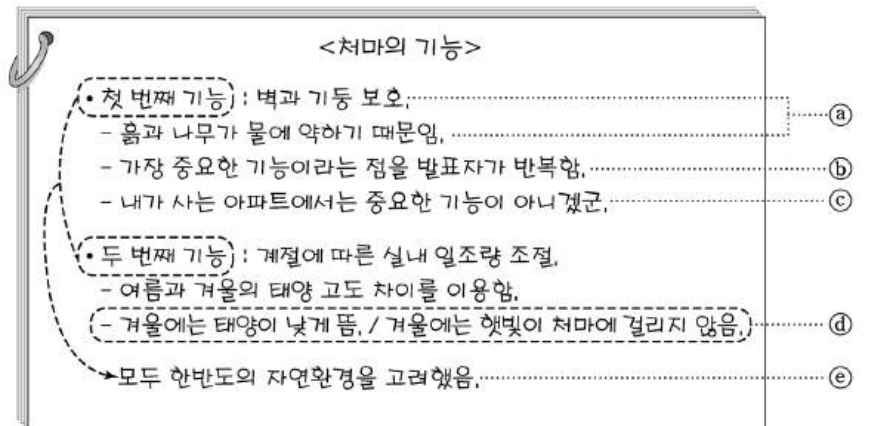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인 처마가 한옥 재료의 단점을 보완하고, 햇빛을 조절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다음은 '영우'의 발표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ㄱ.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해야겠어.
- ㄴ.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해야겠어.
- ㄷ.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이 청중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부각해야겠어.
- ㄹ. 발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설명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나의 경험을 제시해야겠어.
- ㅁ. 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청중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 다음은 어느 학생이 [A]를 들으며 메모한 내용이다. ㉠~㉡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듣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로 보아,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로 보아, 발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로 보아, 발표 내용을 자기 경험과 관련지으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로 보아,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로 보아,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비교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5. 다음은 '영우'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자 1: 발표자가 한옥 안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느낀 것은 처마가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처마가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말에는 공감이 되지 않아. 내가 알기로는 창호를 한옥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었어.

청자 2: 한옥에서 처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무척 흥미롭게 들었어. 그런데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화면과 발표 원고에만 집중하며 발표한 것은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청자 3: 처마의 모양과 계절에 따른 일조량 조절 원리를 시각 자료를 활용해 설명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그렇지만 '서까래'나 '기단'과 같은 말은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

- ① 청자 1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를 듣고 처마가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게 되었군.
- ② 청자 1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 내용과 달리 여름철에 한옥의 실내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창호와 관련지어 이해했군.
- ③ 청자 2의 반응으로 볼 때, 선정된 발표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④ 청자 2의 반응으로 볼 때, 발표자가 청중과 상호 작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⑤ 청자 3의 반응으로 볼 때, 매체 활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용어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군.

[6~7] 다음은 한 학생이 봉사 활동을 하고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는 감을 수확할 때가 오면 '까치밥'이라 하시며 감을 서너 개 남겨 놓으셨다. 까치밥을 왜 남겨 두시느냐는 나의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것이 다른 생명들에게는 겨울을 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는 알지 못했었다. ㉡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었다. 그 뉴스를 보고 문득 잊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다. ㉢ 그런데 뜻이 맞는 친구들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여 전해 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밥과 밑반찬을 준비해서 봉사 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우리는 찾아 줘서 고맙다며 반가워하시는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해 드리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음식을 드시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집 안에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니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 우리는 집안일을 도와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성의를 ㉤ 거부하시며 음식을 싸 와서 말뱃을 해 준 것만 해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다.

할머니와 헤어질 때 할머니께서는 아쉬워하시며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그 따뜻한 감촉은 우리의 봉사가 단순히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전하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가족의 의무감과 효 의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6. ㉠과 ㉡을 중심으로 파악한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성적인 의미를 가졌던 ㉠을 관습적인 의미를 가진 ㉡으로 바꾸어 보편성을 드러낸다.
- ②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을 연결하여 주제를 심화한다.
- ③ 문제를 제기하는 말인 ㉠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인 ㉡을 대응시켜 논리성을 강화한다.
- ④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한다.
- 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인 ㉠을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말인 ㉡으로 바꾸어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한다.

7.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좋겠어.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④ ㉥: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양하시며'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생활 주변의 소재를 찾아 모둠별 협동 작문하기
- 모둠원이 정한 중심 소재: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
- 글의 주제: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

최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대중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방송가에서는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살피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요리 행위의 친숙함을 들 수 있다.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기본적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하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친숙함을 느낀다. 다음으로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을 들 수 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요리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의 요리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요리 비법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선 불필요한 간접 광고의 노출이 많아지는 등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다른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요리 프로그램화 되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요리 프로그램은 요리 행위의 친숙함,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다. [A]

모둠원의 조언

* 조언 1: 첫 문단이 좀 어색한 것 같아.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첫 문단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특히 [A] ㉠

* 조언 2: 마지막 문단이니까 앞서 언급한 내용 중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어. ㉡

8. <보기>는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수집한 자료에 대해 모둠원들이 나눈 대화이다. ㉠~㉡ 중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보 기>

모둠원 1: 수집한 글쓰기 자료를 점검해 보자. 내가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로 들고 있어.

모둠원 2: 내가 조사한 특집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 요리 행위의 친숙함과 ㉢ 요리라는 소재가 가지는 매력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모둠원 3: 나는 ㉣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어 가는 현상을 다룬 논문을 찾아왔어. 그리고 ㉤ 요리 프로그램에 심취할수록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9.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소재를 고려하여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를 '요리 관련 서적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② 중심 소재를 고려하여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③ 중심 소재를 고려하여 '방송가에서는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방송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④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요리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 ⑤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10. ㉡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는 요리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며 공감을 얻는 것에 성공한 결과이다.
- ② 그러나 요리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만 제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 ③ 그러나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고 다른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요리 프로그램화 되고 있는 사실은 부정적이다.
- ④ 이 외에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도 인기 요인의 하나이다.
- ⑤ 나아가 요리 프로그램은 요리를 통해 인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관련된 요리 산업의 확대에도 영향을 준다.

1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훔+네 → [훔레]	㉣ 뿔+느라 → [뿔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_____ [가]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2.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과 「조사」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①

-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방에서 동생과 조용히 공부했다. / ㉡』
-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닭과 오리는 동물이다. / 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유의어 하고, ㉣

형태 정보 받침 없는 체언 뒤에는 ‘ ㉤ ’가 붙는다.

- ① ㉠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귄다.’를 넣을 수 있다.
- ② ㉡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 들어갈 말은 ‘격 조사’이다.
- ④ ㉣에 ‘이랑’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와’이다.

1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 ②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
- ③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 ④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 ⑤ [㉠: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14. <보기 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보기 2>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5.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아니, ㉡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 못 갔어.
 A: ㉤ 자세히 말해 볼래?
 B: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니?

- 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②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③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⑤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指紋)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문 입력 장치를 통해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한다.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 입력 장치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세기,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융선 부분에 묻어 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닿아 있지 않으므로 빛이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다.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든다.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인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한다.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다.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이때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에 차이가 생기는데,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서 사용한다. 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에만 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변환하여 연속적으로 저장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문 인식 시스템도 이를 따른다.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에 해당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지문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지문 영상을 보정한다.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

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특징 데이터로는 융선의 분포 유형, 융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 등이 사용된다. 정합 단계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값이 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하다.
- ②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
- ③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에 더 유리하다.
- ④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반사면에 융선 모양의 얇은 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온전한 지문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⑤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양호한 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센서에 접촉시킨 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17. ㉠~㉣을 사용해 정상적인 ‘지문 영상’을 얻었다고 할 때, 각 센서에 감지되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융선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골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하겠군.
- ② ㉡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과 같겠군.
- ③ ㉢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보다 적겠군.
- ④ ㉣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와 같겠군.
- ⑤ ㉤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보다 낮겠군.

18. ㉠에 따라 <보기>의 정보를 활용한 홍채 인식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할 때, 단계별 고려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근육 막으로, 빛을 통과 시키는 구멍인 동공을 둘러싸고 있다. 홍채 근육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수축하거나 이완하여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홍채에는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데,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대략 20억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다.

- ① [생체 정보 수집] 홍채의 바깥에 각막이 있으므로 홍채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지문 입력 장치와 달리, 홍채 입력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겠군.
- ② [전처리]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에서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 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 ③ [전처리]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을 보정해야겠군.
- ④ [특징 데이터 추출] 홍채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 데이터로 추출해야 하겠군.
- ⑤ [정합] 등록된 홍채의 특징 데이터와 조회하려는 홍채의 특징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판정하는 단계이므로 유사도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야 하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거에는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는 세 입자 중 가장 작고 가볍다. 1897년에 톰슨이 기체 방전관 실험에서 음전기의 흐름을 확인하여 전자를 발견하였다. 같은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서로 반발하므로 원자 안에 모여 있기 어렵다. 이에 전자끼리 흩어지지 않고 원자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톰슨은 ‘건포도빵 모형’을 제안하였다.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에 ㉠ 고르게 퍼져 있고, 전자는 건포도처럼 점점이 박혀 있어서 원자가 평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대략 2,000배 정도 무거워서 작은 에너지로 전자처럼 분리해 내거나 가속시키기 쉽지 않다. 그러나 1898년 마리 퀴리가 천연 광물에서 라듐을 발견한 이후 새로운 실험이 가능해졌다. 라듐은 강한 방사성 물질이어서 양전기를 띤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로 방출한다. 1911년에 러더퍼드는 라듐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알파 입자는 금박의 대부분을 통과했지만 일부 지점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 나갔다. 이 실험을 통해 러더퍼드는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구역에만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구역을 ‘원자핵’이라고 하였다. 그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이 행성들을 당겨 공전시키는 것처럼 양전기를 띤 원자핵도 전자를 잡아당겨 공전시킨다는 ‘태양계 모형’을 제안하여 톰슨의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러더퍼드의 모형은 각각의 원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다. 1913년에 닐스 보어는 전자가 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만을 돌 수 있다는 ‘에너지 양자화 가설’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로 이루어져 구조가 단순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다. 1919년에 러더퍼드는 질소 원자에 대한 충돌 실험을 통하여 핵에서 떨어져 나오는 양성자를 확인하였다. 그는 또한 핵 속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다. 1932년에 채드윅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하였다. 1935년에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는 중성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핵력이 작용하게 하여 양성자를 잡아당긴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여러 개의 양성자를 가진 원자에서는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려 하는데, 이러한 반발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만 여러 개의 양성자가 핵에 속박될 수 있다. 그의 제안을 이용하면 양성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핵 안에 모여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이 비교되어 있다.
- ②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내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기적 성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발견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라듐이 발견됨으로써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 ② 질소 충돌 실험에서 양성자가 발견됨으로써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이 입증되었다.
- ③ 채드윅은 양성자가 핵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을 제안했다.
- ④ 원자모형은 19세기 말에 전자가 발견됨으로써 ‘태양계 모형’에서 ‘건포도빵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 ⑤ 알파 입자가 금박의 일부분에서 튕겨 나간다는 사실을 통해 양전기가 원자 전체에 퍼져 있음이 입증되었다.

2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식물은 전국에 고른 분포를 보인다.
- ② 국어사전에서 적당한 단어를 골라야 한다.
- ③ 그는 목소리를 고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④ 울퉁불퉁한 곳을 흠으로 메워 판판하게 골랐다.
- ⑤ 날씨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아이가 감기에 들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나)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덕적’은 옳다’는 판단은 도덕적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덕적’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덕적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라)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 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 배치된다.

2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정서주의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도덕 실재론의 장점과 의의를 정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23.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한다.
- ②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 ③ 정서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⑤ 도덕 실재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한다.

24.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판단의 변화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 없다.
- ②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도덕적 판단도 수시로 변한다.
- ③ 도덕적 판단과 달리 감정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 ④ 감정 없는 사람도 없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 ⑤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25.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A는 정서주의자이고, B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본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예술작품 △△는 아름답다.
(ㄴ) 예술작품 △△는 아름답지 않다.

-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A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④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⑤ B는 (ㄱ)과 (ㄴ)은 모두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26. ㉡~㉣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판별하여 결정함.
- ② ㉢: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
- ③ ㉣: 서로 의견이 일치함.
- ④ ㉡: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 놓음.
- ⑤ ㉣: 서로 반대되어 어긋남.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 되겠군.
-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 남구만 -

(나)
 ㉡ 도롱이에 호미 걸고 빨 굵은 검은 소 물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품 진* 벗님 함께 가자 하시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짚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 위백규, 「농가(農歌)」 -

(다)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рода
 ㉣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뼈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피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달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눈을 썩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 품 진: 품앗이를 한.
 * 둘러내자: 휘감아서 걷어 내자.
 * 부룩: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다)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② (나)의 <제2수>에는 생성의 이미지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밝아 오는 ‘동창’과 ‘노고지리’의 지지권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물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비 온 끝에 별’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 ② (나)에는 (다)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 ③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 ⑤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육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려세 놓고 육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육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육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변이 마름이란 육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 작인이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는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안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 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육을 다 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굶신굶신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 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 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펴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 때도 트집을 좀 하나까 늦잠 잔다고 돌맹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빼게 해 놔다. 사날씩이나 전승 꿩, 꿩, 앓았다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애,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울갈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띄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들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 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이 미쳐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낮짝만 붉게 해 주고 고만이다.

(중략)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적물적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 ㉤(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어러이! 말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 반도 같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들입다 두들기며—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즐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순이를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 히들 크건만 이걸 위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쟈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흑흑이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앓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밭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텨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나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 김유정, 「봄·봄」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 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는 성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나'에게 불만을 표시한다.
- ② '나'는 '점순이'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 ③ '나'와 '장인'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는 '장인'의 태도 때문이다.
- ④ '동리 사람들'에게 '장인'이 인심을 잃게 된 주된 이유는 '나'와 '점순이'의 혼례를 치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나'는 '동리 사람들'이 '장인'에게 보여 주는 태도와 상반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나'는 '장인'이 '동리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을 옹호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이름과 별명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괄호를 제거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서술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너무 빨리빨리 논다'라는 행동에 대한 '장인'의 평가를 첨가하고 있다.
- ⑤ ㉤: '점순이'가 부쩍 자란 사실을 숨겨 온 '장인'의 속셈을 알아내고 반가워하는 '나'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봄·봄」은 시·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들이 전개된다. 소설 속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단순히 물리적 시·공간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태도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대부분의 마름들이 장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가을'에 많은 소작농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겠군.
- ② ㉡: '논'은 '장인'의 회유에 넘어간 '나'가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하는 장소로군.
- ③ ㉢: '화전밭'에서 '나'는 생기 있는 봄의 분위기에 취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군.
- ④ ㉣: '밭'에서 '나'는 '장인' 때문에 생긴 울화를 '소'와 '점순이'에게 한껏 터트리고 있군.
- ⑤ ㉤: '이날'은 '점순이'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 '나'가 '점순이'의 본심을 알아채는 날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공이 물러 나오자 위공과 정렬 부인이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엮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위공과 정렬 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 부인과 춘량도 또한 자리에 참례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삼 일을 즐기니라.

이때 천자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하시고, 종남산 아래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새, 천여 칸을 불일성지(不日成之)*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지은 후에 노비 천 명과 수성군 백 명씩 내려 주시고 또 채단과 보화를 수천 바리를 상으로 내려 주시니, 평국과 보국이 황은을 축수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그 궁궐 안 넓이가 십 리가 남은지라 위 의와 거동이 천자나 다름이 없더라.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사 명의를 급히 보내어,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 보리라.”

하시고 어의(御醫)를 명하사 보내시니, 어의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속히 약을 가르쳐 쓰라 하고 돌아와 천자에게 사실을 아뢰더라.

어의 다녀와 아뢰기를,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지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어 수상하여이다.”

하더라. 천자 놀라 묻기를,

“무슨 연고가 있더냐?”

[A]

어의 땅에 엮드려 아뢰기를,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기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하시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이때 평국이 병세 점점 나으매 생각하되,

‘어의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하고, 즉시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 부모 앞에 뵈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횡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중략 줄거리] 이후 홍계월(평국)은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영 및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떨어져 홀로 지내게 된다.

각설. 이때 남관장이 장계(狀啓)*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뜯어 열어 보시니 하였으되,

[B]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복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빼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하였거늘,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뢰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평국을 보내어 방비하옵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 들여 전장에 보내리오.”

하시되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오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 어찌 혐의하오리오.”

하거늘,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크게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리니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 경이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복지를 항복 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시되 평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작록을 받자와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 불일성지: 며칠 안 되어 일이 이루어짐.

* 장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일이나 문서.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A]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B]에는 문제 해결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홍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 홍계월이 병이 나자 집안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 홍계월이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 천자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홍계월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계월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위기-극복’의 영웅 소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 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①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을 적극 추천하는 것에서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홍계월이 정체가 탄로 나면 나랏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홍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하여 천자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여공이 어린 홍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뒷마루」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4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편’은 화자가 뒷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뒷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뒷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 모자와 벵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사십오 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돌려 줘야 합니다. 벵타이는 이십팔 분, 모자는 십구 분 오십 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왜 아직 안 온담? (다시 책을 낭독한다.)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칩니다.) 딱 오 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 보려 하였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무적인 동작이다. ㉡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무뎠듯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그리고는 남자가 미처 수궁하기도 전에 돌아서더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서서 부동산세를 취한다.)

(중략)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단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뭐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 벵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벵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

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차인다. ㉤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 이강백, 「결혼」 -

44. [A]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② ㉡: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군.
- ③ ㉢: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군.
- ④ ㉣: 자신이 빌린 것을 소중히 아끼듯이 여자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여자에게 전하는 데에 관객을 증인으로 삼고 있군.
- ⑤ ㉤: 하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빈털터리가 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희곡은 무대화를 전제로 창작된다. 작가는 무대의 제약을 고려하여 관객의 눈앞에 드러나는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극중 사건을 전개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인물의 등퇴장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 ①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된다.
- ② 하인의 등퇴장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사실과 결부되어 남자의 초조함을 고조시킨다.
- ③ 무대 공간을 벗어난 하인이 잠시 후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남자는 관객들을 극중 사건 진행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2. <보기>는 토론 전에 실시한 반대 측의 협의 내용의 일부이다.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반대 1: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려고 해?

반대 2: 음, 만일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한다면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반대 1: 어떤 식으로?

반대 2: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겠지. 또 자료가 편파적일 수 있다면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해.

- 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나요?
- ② 그 자료는 저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③ 그것은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안 맞지 않나요?
- ④ 그 자료는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요?
- ⑤ 팬덤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것이라면 그 자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국어 영역(B형)

3. 다음은 배심원이 작성한 평가표의 일부이다.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평가 기준	토론자	평가 내용
입론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한가?	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와의 관심사 공유, 인간관계의 확장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①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팬덤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②
		반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덤 활동의 배타성, 스타에 대한 맹목적 숭배는 팬덤 활동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것이므로 타당함.....③ 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논제에 부합하는 부정적 사례이므로 타당함.....④
반대 신문	상대의 논리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는가?	찬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이 사용한 '중독'의 의미를 팬덤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적절함.....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1: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둘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연습할까? 주중에는 방과 후에 내가 학생회 회의가 계속 있거든.
 학생 1: ㉡ (고개를 저으며) 안 될 것 같아. 나는 토요일에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약속이 잡혀 있어. 기타 연습은 주중에 했으면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네.
 학생 2: 아, 연습을 더 하긴 해야 하는데.....
 학생 1: 연습 시간을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 2: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는 건 어때? 내가 주말에 바쁘다고 하니 내가 주중 회의 시간을 조정해 볼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도 시간을 좀 조정해 봐.
 학생 1: 그래.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를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을 텐데.
 학생 2: 토요일 오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겠어?
 학생 1: 그런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경험자가 도와주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너는 경험이 많고 잘 하잖아. 혹시.....
 학생 2: 응? 왜 그래?

학생 1: ㉣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학생 2: 토요일 오전에 일을 끝내면 오후에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학생 1: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
 학생 1: 그럼 연습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제부터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때?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봐야 공연 당일에 떨리지 않을 것 같아.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
 학생 2: ㉤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무대 연습도 꼭 필요하긴 해. 하지만 아직 우리는 화음도 제대로 맞춰 보질 못했잖아. 조용한 연습실에서 우리 둘이 화음을 맞춰 보고 연습도 충분히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 무대 위에서도 떨리지 않지.
 학생 1: 그래 좋아.

4.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 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5.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학생 1'과 '학생 2'가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견의 일치점을 찾았다.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 ③ [A]에서는 '연습 시간 축소'의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④ [A]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공동의 문제를, [B]에서는 공동이 아닌 '학생 1'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 화제로 대화하였다.
- ⑤ [A]와 [B]에서는 각각 제시된 안들을 '학생 1'이 종합하였다.

[6~8] 신문에 기고를 하기 위해 (가)와 같은 계획을 세운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글쓰기 계획

[주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

- 서론: 국외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최근 사례를 제시한다.
- 본론: 1.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을 제시한다.
2.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을 살펴본다.
3. 살펴본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 결론: 논의를 종합하고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나) 수집한 자료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

(단위: 점)

	연도	소재국				계
		일본	미국	중국	기타	
국외 문화재 파악 현황	2011년	65,142	37,972	7,930	29,031	140,075
	2014년	67,708	43,558	8,278	36,616	156,160
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	2011년	6,313	1,295	0	2,137	9,745 (정부 주도 9,080 민간 주도 665)
	2014년	6,408	1,399	0	2,139	9,946 (정부 주도 9,277 민간 주도 669)

※ 자료에 제시한 수치는 누적 통계임.

(다) 학생의 초고

최근 국외의 ○○ 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조선 덕종어보가 우리나라로 공식 반환되었다. 이번 일은 자발적 반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외 문화재의 환수 현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원인은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외적 원인으로서는 상대국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 원인으로서는 국외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외 문화재의 환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기증을 받거나 구매 혹은 장기 대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단체를 통한 기증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정부와 국내 민간 단체의 상호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외 문화재에 대한 이해 자료 및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아 외국과 협상을 전개하고, 국민들은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때 국외 문화재의 환수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가)를 구체화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덕종어보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여 '서론'을 구체화한다.
- ②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이유를 대외적 원인과 대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③ 문화재 반환에 관련된 국제 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④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 협력을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⑤ '본론'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통해 국외 문화재의 효과적 환수가 가능함을 기대 효과로 언급하여 '결론'을 구체화한다.

7. (나)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자료를 제시한 후, ㉠을 바꾸어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2014년 국외 문화재 파악 현황></p>	<p>그래프에서 국외 문화재 분포를 살펴보면 국외 문화재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
<p><국외 문화재 환수 현황></p>	<p>그래프에서 문화재 환수 주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 <p>그래프에서 민간 주도로 환수된 문화재의 수량을 보면 정부 주도보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국외에 남아 있는 수량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
<p><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p>	<p>그래프에서 환수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 변화를 살펴보면 아직도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 <p>그래프에서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파악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환수된 국외 문화재의 수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

8. <보기>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외 문화재를 들여오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여와서도 보관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국외 문화재를 꼭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 국외 문화재 환수 비용 내역을 추가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가 어려움을 부각해야겠군.
- ② 문화재가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국외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군.
- ③ 문화재는 금전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해야겠군.
- ④ 적은 비용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여 국외 문화재가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겠군.
- ⑤ 공공 기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가하여 공공 기관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언급해야겠군.

- [9~10] 다음은 한 학생이 봉사 활동을 하고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는 감을 수확할 때가 오면 ‘까치밥’이라 하시며 감을 서너 개 남겨 놓으셨다. 까치밥을 왜 남겨 두시느냐는 나의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몇 개 안 되지만 그것이 다른 생명들에게는 겨울을 날 힘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땐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는 알지 못했다. ㉡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었다. 그 뉴스를 보고 문득 잊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다. ㉢ 그런데 뜻이 맞는 친구들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여 전해 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밥과 밑반찬을 준비해서 봉사 단체를 통해 소개받은 한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우리는 찾아 줘서 고맙다며 반가워하시는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해 드리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음식을 드시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집 안에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니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 우리는 집안일을 도와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우리의 성의를 ㉤ 거부하시며 음식을 싸 와서 말뼉을 해 준 것만 해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다.

할머니와 헤어질 때 할머니께서는 아쉬워하시며 내 손을 잡아 주셨다. 그 따뜻한 감촉은 우리의 봉사가 단순히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전하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려는 가족의 의무감과 효 의식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9. ㉠과 ㉥을 중심으로 파악한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성적인 의미를 가졌던 ㉠을 관습적인 의미를 가진 ㉥으로 바꾸어 보편성을 드러낸다.
- ② 과거에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을 연결하여 주제를 심화한다.
- ③ 문제를 제기하는 말인 ㉠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인 ㉥을 대응시켜 논리성을 강화한다.
- ④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인 ㉥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부각한다.
- 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말인 ㉠을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말인 ㉥으로 바꾸어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단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좋겠어.
- ②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④ ㉤: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양하시며’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11.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겠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훑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엮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12.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 생: ‘되어요, 돼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간 모음 ‘ㅛ’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드는 것은 ‘내’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람을) 쇠다, (턱을) 꺾다, (나사를) 죄다, (어른을) 뵈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
 학 생: 아, 그러면 ㉠

- ① ‘쇠어라’는 ‘쇠-’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쇠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② ‘꺾-’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꺾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 ③ ‘뵈도’는 ‘뵈-’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 ④ ‘뵈-’가 ‘-어서’와 결합되면 ‘뵈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쇄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굳다 [굳어, 굳으니, 굳는]

Ⅰ ㉠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 시멘트가 굳다
 ㉢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 허리가 굳다

Ⅱ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 굳은 결심 / 성을 굳게 지키다

반의어 ㉦ ㉧ 녹다 ㉨ ㉩

녹다 [녹아, 녹으니, 녹는] ㉪

㉪ ㉫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 얼음이 녹다 / 눈이 녹다
 ㉭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 ㉮ 엿이 녹다

㉯ 【...에】

㉰ 결정체(結晶體)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 ㉱ 소금이 물에 녹다
 ㉲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 우리 정서에 녹아 든 외국 문화

반의어 ㉴ ㉵ 굳다 ㉶ ㉷

- ① ‘굳다’는 ‘녹다’와 달리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와 ‘엿이 녹다’의 ‘녹다’는 반의 관계이다.
- ③ ‘굳다Ⅱ’의 용례로 ‘마음을 굳게 단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녹다Ⅱ㉬’의 용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다Ⅱ㉰’에 해당하므로 주어 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14. <보기 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보기 2>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5.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아니, ㉡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 못 갔어.
 A: ㉤ 자세히 말해 볼래?
 B: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니?

- ①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②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③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④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⑤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1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종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ㅉ히 (ㅉ+이) 즐어들 (ㅉ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ㅉ토 (ㅉ+도) 뛰더니 (ㅉ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다른 ㅉ (ㅉ+ㅅ) 風俗은 (다른 ㅉ의 풍속은)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랑+을) 아스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깊+ㅅ) 네거리에	길의 네거리에
㉢ (않+과) 밧	안과 밧

- | | | | |
|---|-----|---|----|
| | ㉠ | ㉡ | ㉢ |
| ① | 나라홀 | 깊 | 안과 |
| ② | 나라홀 | 깊 | 안과 |
| ③ | 나라홀 | 깊 | 안과 |
| ④ | 나라을 | 깊 | 안과 |
| ⑤ | 나라을 | 깊 | 안과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 흘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7.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미
 -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18.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하겠군.
 -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19.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미혹(迷惑)된
 - ② ㉡: 수용(受容)하고
 - ③ ㉢: 탈피(脫皮)하여
 - ④ ㉣: 출현(出現)할
 - ⑤ ㉤: 초월(超越)하여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없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

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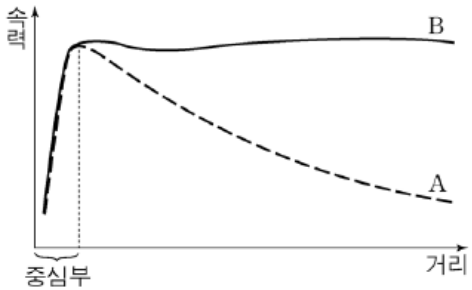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쫓아내거나 몰아냄.
- ②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③ ㉢: 걸어서 나타냄.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확증하였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 ②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 ③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 ④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긴다.
- 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26.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 ②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③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더 큼을 보여 준다.
- ④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런데 ㉢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제도이면서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안에 ㉣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중복 제재의 발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의 반대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 횡재라고 본다. 또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형사적 제재 수단인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본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도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
-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쟁
- ③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종류
-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와 문제점
- 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 ③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
- ④ ㉣은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말한다.
-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 되겠군.
-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비목* 외걸새에 용거북
 즘물쇠로 수기수기 즘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혼 둘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라
 - 작자 미상 -

(나)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니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
 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워 갈 제 적막 공규(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츄마 못 살네라 호고 부디 한 말을 전
 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ㅁ읍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짜리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A] 민둥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이 집에 정든 임 그대는 늙지 마서요

[B]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C]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D]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한 번 가신 우리 임은 그 언제 오나

[E] 당신이 날만침만* 생각을 한다면
 가시밭길 천 리라도 신발 벗고 오리라
 - 「정선 아리랑」 중에서 -

*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쌍비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 웨웨터: 외쳐.
 * 비사리춤: 벗겨 놓은 짜리 껍질의 묶음.
 * 날만침만: 나만큼만.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에서는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임이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 ② [B]: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 ③ [C]: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 ④ [D]: 임이 떠나간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 ⑤ [E]: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

33.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집’, ‘뒤주’, ‘궤’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보면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전하여 주렴’과 (다)의 ‘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때밀어 조각을 내었다. ㉠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때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울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선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점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내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쉿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언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히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뺀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다.
- ②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 ③ ㉢: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한다.
- ④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준다.

35.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련된 입신'은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사의 의미'는 '민 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 ④ '생활인의 감각'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비극의 차원'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성규'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36. 다음 <학습 활동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과제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에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세대 간에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 ①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 노인'과 공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군.
-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군.
- ③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④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 ⑤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이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 ㉠ 상이 크게 근심하사 조정에 전지(傳旨)하사 도적을 칠 계책을 의논하라 하시니, 우치 아뢰길, “도적의 형세 심히 크다 하오니 신이 홀로 나아가 적세를

보온 후 잡을 묘책을 정하리이다.”

㉡ 상이 크게 기뻐하사 어주(御酒)와 인금을 주셔 왈, “적세 심히 크거든 이 칼로 사졸을 호령하라.”

하시니, 우치 사은하고 물러 나와 즉시 말에 올라 장졸을 거느리고 여러 날 만에 가달산 근처에 다다라 보니 큰 산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수목이 뻗뻗하며 기암괴석이 첩첩하니 가장 험악한지라, 우치 군사를 산하에 머무르고 스스로 하사하신 인금을 가지고 몸을 흔들며 변하여 술개 되어 가달산을 바라가니라.

원래 가달산 산중에 수천 명 적당 중에 한 괴수가 있으니, 성은 엄이요 명은 준이라. 용맹이 절륜하고 무예 출중하더라.

이때 우치 공중에서 두루 살피더니, 엄준이 엄연히 홍일산*을 받고 천리백총마(千里白驄馬)를 타고 채의홍상(彩衣紅裳)한 시녀를 좌우에 벌이고 종자 백여 인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사냥을 하거늘, 우치 자세히 살펴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팔 척이요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 같으며 수염은 바늘을 묶어 세운 듯하니 곧 일대 걸물이라. 엄준이 추종들을 거느리고 이 골 저 골로 한바탕 사냥하다가 분부하되,

“오늘은 각처에 갔던 장수들이 다 올 것이니 마땅히 소 열 필만 잡고 잔치하리라.”

하는 소리 쇠북을 울림 같더라.

이때 우치 일계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을 만들어 창검을 들리고 기치를 벌여 진을 이루고, 머리에 쌍봉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 갑옷에 황색 비단 전포를 겹쳐 입고 천리오추마(千里烏騮馬)를 타고 손에 청사양인도(靑蛇兩刃刀)를 들고 짓쳐 들어가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우치 문 열리는 진언을 염하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장려한 집이 두루 펼쳐졌고 사방 창고에 미곡이 가득하며 차차 전진하여 한 곳에 이르니,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술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 명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 우치 하는 양을 보려 하고 진언을 염하니, 무수한 수리가 내려와 모든 장수의 상을 견어 치워 가지고 중천에 높이 떠오르며 광풍이 대작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그러한 운문차일과 수놓은 병풍이 움직여 공중으로 날아가니, ㉢ 엄준이 정신을 진정치 못하여 뜰 아래 나뭇등걸을 붙들고 모든 군사가 차반을 들고 바람에 떠서 구르더라.

(중략)

이때 우치 문사낭청*으로 임금을 모시고 있더니, 불의에 이름이 역도(逆徒)의 진술에 나오는지라. ㉣ 상이 크게 노하사 왈, “우치의 역모를 짐작하되 나중을 보려 하였더니, 이제 발각되었으니 빨리 잡아 오라.”

하시니, 나졸이 명을 받아 일시에 달려들어 관대를 벗기고 옥계 하에 꿇리니, ㉤ 상이 진노하사 형틀에 올려 매고 죄를 추궁하며 왈,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 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 변명하나 어찌 면하리오?”

하시고, 나졸을 호령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집장과 나졸

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
거늘, 우치 아뢰되,

“신이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일은 만만 애매하
오니 용서하옵소서.”

하고, 심중에 생각하되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 하고
다시 아뢰길,

“신이 이제 죽사올진대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올지라. 지하에 돌아가오나 원혼이 되리니 원컨대 성상
은 원을 풀게 하옵소서.”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이 재주가 능하다 하니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왈,

“네 무슨 능함이 있어 이리 보채느냐?”

우치 아뢰길,

“신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잘하니,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
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짐승이 기어가고 산을 그리면 초
목이 나서 자라오매 이러므로 명화라 하오니, 이런 그림을
전하지 못하옵고 죽사오면 어찌 원통치 않으리잇고?”

㉡상이 가만히 생각하시되, ‘이놈을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
로움이 있을까.’ 하여 즉시 맨 것을 끌러 주시고 지필을 내리
사 원을 풀라 하시니, 우치 지필을 받자와 산수를 그리니 천봉
만학과 만장폭포가 산 위로부터 산 밖으로 흐르게 그리고 시
냇가에 버들을 그려 가지 늘어지게 그리고 밑에 안장 엮은 나
귀를 그리고 붓을 던진 후 사은하되, 상이 물어 왈,

“너는 방금 죽을 놈이라. 사은함은 무슨 뜻이뇨?”

우치 아뢰길,

“신이 이제 폐하를 하직하옵고 산림에 들어 여년을 마치고
자 하와 아뢰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 동구에 들어가더니, 이윽고 간 데 없
거늘 상이 크게 놀라사 왈,

“내 이놈의 피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하시고 그 죄인들은 내어 베라 하시고 친국을 파하시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 홍일산: 붉은 양산.

* 주란화동: 단청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집.

* 문사낭청: 임금의 심문 내용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직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함경도 고을 원이 도적을 잡지 못해 우치가 토벌할 기회를 얻었다.
- ② 임금은 우치에게 어주와 인검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 ③ 엄준은 성 안의 큰 전각에서 장수들과 미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다.
- ④ 집장과 나졸이 우치를 한 매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청했다.
- ⑤ 우치는 과거의 죄와 역모의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듣고 임금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을 유발한 우치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 ②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 준다.
- ③ ㉡으로 인해 형성된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을 촉발하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화는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⑤ ㉠과 ㉡은 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우치전』은 전우치가 사건 해결을 주도하는 ‘전우치 설화’를 토대로 다양한 삽화가 결합된 소설이다. 각각의 삽화들은 서로 긴밀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의 도술 사용을 연결고리로 하여 결합된다. ㉠ 엄준 토벌 삽화와 ㉡ 역모 누명 삽화가 그 예로서 주인공이 조력자 없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그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한다. 또한 다양한 도술 사용은 다음 삽화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한다.

- ① ㉠과 ㉡은 사건 해결을 우치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 ② ㉠과 ㉡에서 삽화마다 각기 다른 도술이 사용된 것은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하는군.
- ③ ㉠과 ㉡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하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되는군.
- ④ ㉠과 ㉡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하는군.
- ⑤ ㉠에서 술개로 변하는 장면과 ㉡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주인공에게 신비감을 부여하는군.

40.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혼비백산(魂飛魄散)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릿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뒷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뒷마루」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4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편’은 화자가 뒷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뒷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뒷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뒷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뒷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자: 마침내 그 젊은 사기꾼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 모자와 벵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그리고 이 건장한 하인까지 빌렸던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사십오 분 동안만 그가 주인이며 다음엔 되돌려 줘야 합니다. 벵타이는 이십팔 분, 모자는 십구 분 오십 초, 그 밖에 다른 물건에도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여자로부터 즉각 답신이 왔습니다. 맞선을 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왜 아직 안 온담? (다시 책을 낭독한다.)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다섯 개를 펼칩니다.) 딱 오 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래 보려 하였으나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빼앗아 버린다. 감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무적인 동작이다. ㉡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은 무뎠듯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일 뿐이다. 그리고는 남자가 미처 수궁하기도 전에 돌아서더니 빼앗은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잠시 후, 하인은 돌아와서 남자 곁에 서서 부동산세를 취한다.)

(중략)

[A]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걸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더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 벵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벵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

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걸어차인다. ㉤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 이강백, 「결혼」 -

44. [A]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② ㉡: 누구도 물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군.
- ③ ㉢: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실은 빌린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군.
- ④ ㉣: 자신이 빌린 것을 소중히 아끼듯이 여자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여자에게 전하는 데에 관객을 증인으로 삼고 있군.
- ⑤ ㉤: 하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빈털터리가 된 남자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희곡은 무대화를 전제로 창작된다. 작가는 무대의 제약을 고려하여 관객의 눈앞에 드러나는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극중 사건을 전개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인물의 등퇴장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여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 ① 남자가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행동은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된다.
- ② 하인의 등퇴장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사실과 결부되어 남자의 초조함을 고조시킨다.
- ③ 무대 공간을 벗어난 하인이 잠시 후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는 공간이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남자는 관객들을 극중 사건 진행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문다.
- ⑤ 남자와 하인만 있던 무대 공간에 여자가 등장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쳐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이 해소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호: 오늘 들은 [A]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 재미있더라.
 승우: 처음엔 들을 생각 없더니, 너 정말 집중하면서 듣던데.
 지호: 그러게.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신청하길래 따라서 신청한 거였는데 잘한 것 같아.
 승우: (웃으며)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특강 내용이 딱 네 얘기였구나.
 지호: 그러네. ㉠년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없어?
 승우: 당연히 있지.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웬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것도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 거잖아.
 지호: ㉡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 맞아. 한정된 것이어서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네.
 승우: 맞아. 그런데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어째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지호: 왜? ㉢아,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 너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승우: 응.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런지 할 일도 많고 어렵네.
 지호: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작년에 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줄게.
 승우: 진짜? 정말 고맙다.
 지호: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오늘 들은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승우: 우와, 그러네.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내용.
 지호: 맞아. 정말로 얻은 게 많은 특강이었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우의 경험을 묻고 있다.
 - ② ㉡: 승우 말의 일부를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과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승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2. <보기>는 [A]의 일부이다. <보기>의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강사: 오늘 특강 잘 들으셨나요?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사례를 특강 내용과 연결 지어 말해 볼 학생 있나요?

[사례]

“경희루 내부 특별 관람 사전 예약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해서 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데다가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깐 웬지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 : [가]

강사: 좋아요. 제시된 사례를 특강 내용과 잘 연결했네요.

- ① 경희루 내부 개방으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내용이니깐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②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 사전 예약제 실시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니깐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③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경희루의 관람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④ 특별 관람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받는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⑤ 경희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에 경희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3~5] 다음의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에 자유 주제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제 있잖아. 우리 모둠은 아직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야. 좋은 생각 없니?

학생 2: 최근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도되었잖아. 로봇에 대해 발표해 보는 게 좋겠어.

학생 1: 그거 좋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룰 내용을 좀 좁히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야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을까?

학생 2: 이걸 어때?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는 거야.

학생 1: 괜찮다. 이번 발표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A] 여러분, 앞의 화면을 잠시 봐 주세요. (로봇 영상을 보여 주며) 여기 등장하는 로봇은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입니다. 두 발로 걷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사람과 비슷한데 참 신기하죠? 이 시간에는 이런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B]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나 영화에서 봤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생각날 것입니다.

[C] 자, 여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당시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팔 모양을 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휴보'처럼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어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하였습니다.

[D]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들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초창기 로봇들은 운반이나 부품 조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화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까지 해 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 향후에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와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상용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로봇 시장 규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국내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 규모는 2013년 2조 2,210억 원에서 2018년 7조 원으로 성장해 약 3.2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등 로봇 기

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로봇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 인간이 로봇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질 로봇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가)에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발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4. [A]~[E]에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로봇과 관련된 최근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B]: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로봇이란 말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다.
- ③ [C]: 청중들이 발표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여 로봇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D]: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들고 있다.
- ⑤ [E]: 국내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에 관한 보고서를 근거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5. 다음은 (나)를 들으며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다. ㉠~㉢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로봇의 발전 과정

-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것은? ㉠
: 영화 ○○에서 로봇이 권투하던 장면이 떠오르는군.

- 사람을 전혀 닮지 않은 로봇에서 점차 사람을 닮은 로봇으로 변화함.
- 사람의 감정을 읽는 로봇의 등장 ㉡
: 과학 시간에 배운 '인공 지능 기술'이 적용된 사례이겠군.

• 로봇으로 인한 인간 삶의 변화

- 인간의 노동물 대신하는 로봇부터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까지 여러 로봇이 등장함.
: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로봇이 인간 소외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군. ㉢

• 로봇 발전에 대한 전망

- 로봇 시장 규모의 증대
- 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를 비판함.

- ①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으면서 들었다.
- ②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를 따지면서 들었다.
- ③ 발표자가 언급했던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들었다.
- ④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하면서 들었다.
- ⑤ 발표자의 의견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면서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글을 써 보자.
- **예상 독자**: 교지를 읽는 학생들
- **글 쓰는 목적**: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 **자료 수집 방법**: 우리 학교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나) 글의 초고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현대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 이용이 적극적이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 바다임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런데 인터넷 정보들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있을까? 이를 ㉢ 알아보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항목으로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등 네 가지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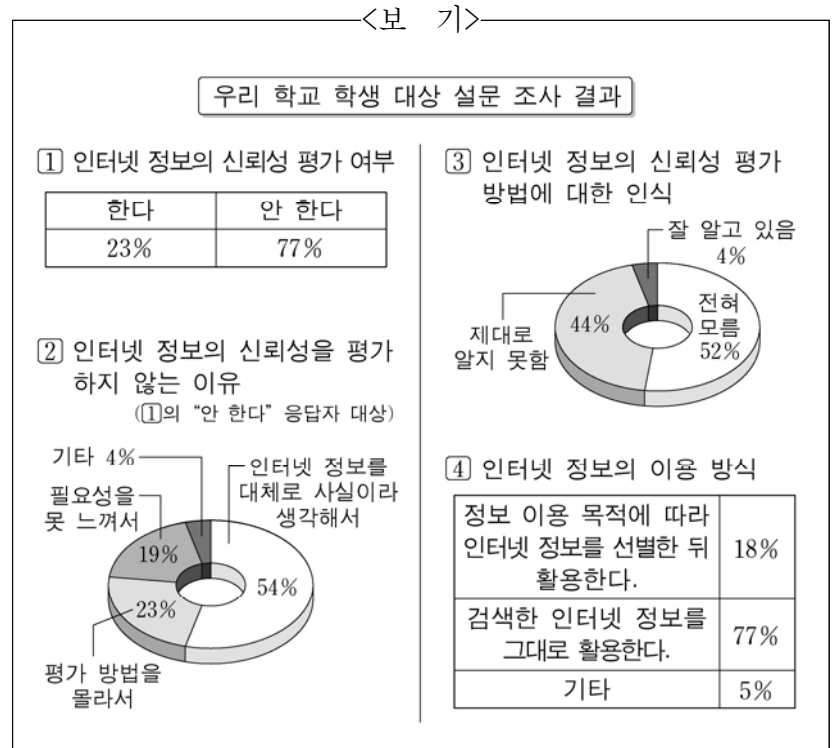
첫째 문항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은 대다수가 ㉣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묻는 둘째 문항에 대해서는 ㉤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하거나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73%에 달하였다. 이처럼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 매우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방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셋째 문항에 대해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 드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학생의 인터넷 정보 이용 방식을 묻는 넷째 문항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중의 18%만이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선별한 뒤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제시한 바처럼,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인터넷 정보를 무비관적으로 ㉩ 수용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정보를 무비관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이용 목적에 따라 그것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태도 형성을 위한 조치가 ㉪ 강구될 필요가 있다.

6. (가)에 따라 글쓴이가 (나)를 썼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지의 주요 독자층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정보 기술에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을 정의해 주었다.
-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 조사 항목을 글의 첫째 단락에서 언급하였다.
- ③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나열하였다.
- ④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의 둘째 단락에서 설문 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였다.
- ⑤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무비관적 인터넷 정보 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지막 단락에서 대조와 가정의 방식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7. <보기>는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자료이다. <보기>에 맞추어 [A]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①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 ② ㉡는 ②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합산 결과를 제시한 것이므로 '73%'를 '77%'로 수정한다.
- ③ ㉢와 ㉣는 ①과 ③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는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는 '4%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로 수정한다.
- ④ ㉤는 ②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로 수정한다.
- ⑤ ㉥는 ④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항목과 그에 맞는 수치를 제시하는 진술로 수정한다.

8.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이용에’로 고친다.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바다이므로’로 고친다.
- ③ ㉢은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알아보려고’로 고친다.
- ④ ㉣은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수용하는’으로 고친다.
- ⑤ ㉣은 그 앞에 ‘태도 형성을’이란 목적어가 있으므로 ‘강구할’로 고친다.

[9~10] 다음은 작문 과제와 그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자신의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글로 써 보자.

[학생의 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루었다고 내가 불멘소리를 하니, 옆에 있던 동생이 “저번엔 비가 오는데도 친구 만나러 갔잖아.”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지난번 비가 오는 날은 그 친구를 만나, 비가 오니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기도 하고, 평소 가 보고 싶었던 곳을 돌아다니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반면 오늘은 같은 상황인데도 활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며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문득 어떤 책에서 읽은 두 농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두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한 농부는 “비가 오니 오늘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군.” 하면서 불평을 했고, 다른 농부는 “비가 오니 땅이 부드러워져 일하기가 수월하겠군.” 하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였다. 두 농부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른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내 마음에도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살고 있다. 내 마음속 부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었을 활동이라도 좀처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긍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평소 하고 싶었으나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나는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내가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내 생활에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학생의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② 긍정적 마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장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 ③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④ 긍정적 마음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담은 가족의 조언과 연결한다.
- ⑤ 긍정적 마음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눈다.

10. 학생의 글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의 비가 내려 용서의 꽃을 피우다.
- ② 긍정의 거름을 주어 활력의 나무를 키우다.
- ③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함께 살아가다.
- ④ 긍정의 마음으로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다.
- ⑤ 긍정의 자세는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위해 필요하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3점]

—<보 기>—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 ㉡ 옷에 흠까지[흑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듣는다[듣는다].
-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 떡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굳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동사의 어간에 연결 어미 ‘-(으)며’가 결합할 때,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연결 어미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 철수가 커피를 마신다.
→ 철수가 음악을 들으며(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 ①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 ②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며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 ③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 ④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 ⑤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며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1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14.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 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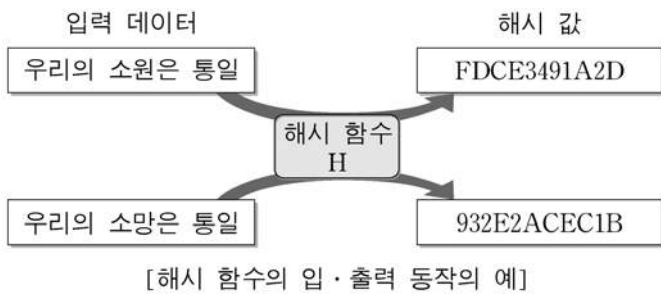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온라인을 통한 통신, 금융, 상거래 등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보안상의 문제도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암호 기술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전자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화폐 거래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 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x 에 대하여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수식을 $H(x)=k$ 라 할 때, k 를 해시 값이라 한다. 이때 해시 값은 입력 데이터의 내용에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여러 해시 함수가 이용되고 있는데, 해시 값을 표시하는 문자열의 길이는 각 해시 함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해시 함수에서의 그 길이는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 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시 함수가 ㉠ 일방향성과 ㉡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면 암호 기술로도 활용된다. 일방향성이란 주어진 해시 값에 대응하는 입력 데이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특정 해시 값 k 가 주어졌을 때 $H(x)=k$ 를 만족시키는 x 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돌회피성이란 특정 해시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데이터 x, y 에 대해서 $H(x)$ 와 $H(y)$ 가 각각 도출한 값이 동일하면 이것을 충돌이라 하고, 이때의 x 와 y 를 충돌쌍이라 한다. 충돌회피성은 이러한 충돌쌍을 찾는 것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시 함수는 온라인 경매에도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일방향성과 충돌회피성을 만족시키는 해시 함수 G 가 모든 경매 참여자와 운영자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자. 이때 각 입찰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를 감추기 위해 논스*의 해시 값과, 입찰가에 논스를 더한 것의 해시 값을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해시 값 게시 기한이 지난 후 각 참여자는 본인의 입찰가와 논스를 운영자에게 전송하고 운영자는 최고 입찰가를 제출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로써 온라인 경매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논스: 입찰가를 추측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입찰가에 더해지는 임의의 숫자.

16. 윗글의 ‘해시 함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자 화폐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해시 함수가 이용될 수 있다.
- ② 특정한 해시 함수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부터 두 개의 서로 다른 해시 값을 도출하지 않는다.
- ③ 입력 데이터 x 를 서로 다른 해시 함수 H 와 G 에 적용한 $H(x)$ 와 $G(x)$ 가 도출한 해시 값은 언제나 동일하다.
- ④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특정한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H(x)$ 와 $H(y)$ 가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언제나 동일하다.
- ⑤ 발신자가 자신과 특정 해시 함수를 공유하는 수신자에게 어떤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전송하면 수신자는 그 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7. 윗글의 ㉠과 ㉡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 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으로부터 x, y 를 복원할 수 없다.
- ② 입력 데이터 x, y 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문자열의 길이가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 ③ ㉡을 지닌 특정 해시 함수를 전자 문서 x, y 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의 문자열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 ④ 입력 데이터 x, y 에 특정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해시 값이 같은 것은 해시 함수의 ㉡ 때문이다.
- ⑤ 입력 데이터 x, y 에 대해 ㉠과 ㉡을 지닌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하였을 때 도출한 결과 값이 같으면 이를 충돌이라고 한다.

18. [가]에 따라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온라인 미술품 경매 사이트에 회화 작품 △△이 출품되어 A와 B만이 경매에 참여하였다. A, B의 입찰가와 해시 값은 다음과 같다. 단, 입찰 참여자는 논스를 임의로 선택한다.

입찰 참여자	입찰가	논스의 해시 값	‘입찰가+논스’의 해시 값
A	a	r	m
B	b	s	n

- ① A는 a, r, m 모두를 게시 기한 내에 운영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해시 값을 게시하는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최고가 입찰자를 알 수 없다.
- ③ m과 n이 같으면 r과 s가 다르더라도 A와 B의 입찰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A와 B 가운데 누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는지는 r과 s를 비교하여 정할 수 있다.
- ⑤ B가 게시판의 m과 r을 통해 A의 입찰가 a를 알아낼 수도 있으므로 게시판은 비공개로 운영되어야 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견과류와 같이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다 보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는 대개 산패로 인해 발생한다. 산패는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지방질이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 빛 등의 영향을 받으면 산화 작용이 ㉠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산패는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 이루고 있으며 지방질 한 분자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에서 탄소끼리의 결합은 대부분 단일결합인데 이중결합인 경우도 있다.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산,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다.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글리세롤은 지방질의 산패에 큰 영향을 ㉡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글리세롤에 오메가-6 지방산만이 결합되어 있는 ㉠ A 지방질이 있다고 하자. A 지방질의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라디칼 분자들이다.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 변화된 분자를 라디칼 분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라디칼 분자는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여 주위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는데, 이러한 반응 과정을 거치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비(非)라디칼 분자로 변화한다.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 받으면,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다.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한다.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非)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사이드로 변화한다. 새로 생성된 알릴 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한다. 이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냄새를 나게 하는 주원인이다.

A 지방질에서 산패가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에는 산화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있다. 산화방지제는 라디칼 분자에 전자를 주어 짝수 전자를 갖게 하여 다른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식물에 ㉢ 들어 있는 천연 산화방지제인 비타민 E는 퍼옥시 라디칼을 안정화시켜 오메가-6 지방산 사슬이 알릴 라디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한다. 이 밖에도 산패로 진행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오메가-3 지방산에는 이중결합 구조가 없다.
- ② 지방산에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 ③ 포화 지방산 사슬에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산패가 더 잘 일어난다.
- ④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일어난 산화 작용이 산패로 이어진다.
- ⑤ 지방질은 지방산 한 분자에 글리세롤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20. ㉠이 산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지방질 분자가 홀수의 전자를 갖는 라디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② A 지방질에서 알코올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 ③ A 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은 A 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 ④ A 지방질에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알데히드는 비정상적인 냄새를 나게 한다.
- ⑤ A 지방질에서 생성된 퍼옥시 라디칼은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된다.

21. 윗글의 ㉠~㉣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주었다.
- ② ㉢: 유리창에 빗방울이 무너를 이루고 있다.
- ③ ㉡: 태풍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 ④ ㉣: 차가 난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 ⑤ ㉢: 이 물질에는 염화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인정된다.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 기여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 효율이 높아진다. 시장이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같은 생산적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창출된 ㉡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것이 가격 인화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분적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와 가격 인하가 수반되어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게 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않는다.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 증진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 퇴출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전체 소비자에게 ㉦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가는 경쟁 정책을 ㉧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적으며,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직접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 조치

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충동구매나 유해 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경쟁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22.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을 사례 제시를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③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기술하고 있다.
- ④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 ⑤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에 대한 규제는 배분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생산적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쟁 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 ④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된다.
- 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한다.
- ② ㉡에는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경쟁 정책이 직접 해결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 ③ ㉢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 ④ ㉣은 경쟁 정책 이외에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이다.
- ⑤ ㉤은 경쟁 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25. <보기>의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ㄷ.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 당국은 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ㄹ.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자 관계 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바지하는 ② ㉡: 내리는
 ③ ㉢: 늘리더라도 ④ ㉣: 밀려난
 ⑤ ㉤: 세울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스타이컨의 ㉠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

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목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③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④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28.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29.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 ②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
- ③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
- ④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
- 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괘시한단 말이나? ㉠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괘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푼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 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넋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 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동기동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혈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혈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혈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남편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에 과거 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글제를 살펴보니 ㉠ 천하태평춘(天下泰平春)이라 걸려 있었다. ㉡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批點)이요 글귀마다 관주(貫珠)를 치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시고, 알성시(謁聖試) ㉢ 장원급제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곧 어전입시(御前入侍)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입시하여 천은을 사례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龍顔虎頭)요, 목목지인(穆穆之人)이로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한림은 어전에 엎드려,

㉣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忠臣之子忠臣)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 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 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당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 감사 김진희의 불의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 학정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魚肉)이 된다는 말인가.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密錄)하여 전하께 바쳤다. 전하께서는 그 ㉥ 밀록을 받아 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 봉서(封書) 삼장을 내리셨다.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새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한림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새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3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 이혈룡과 재회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이혈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혈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 ⑤ ㉤: 이혈룡은 검양의 어조를 통해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혈룡은 ㉠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
- ② ㉢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는 이혈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는 ㉢를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 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그녀의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 ①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 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옥단춘이 김 감사에게 팔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혈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 준 것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벼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 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짚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쭙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뭍'과 '뭍'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뭍'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후 ‘나’는 벗인 ‘방(方)’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 오른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뱀장어를 잡아 파는 한 소년을 만난다.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 위해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대 끝으로 국 솥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기만 하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A]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그러셨겠습니까.”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들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땀들 왜 안 그럴 수야 있었겠나요마는, 이제는 힘을 줄 데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걸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

[B] 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닙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 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걸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찌 안 갈리겠습니까—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었습니다그러.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선 너저름에 짱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엷고 안고 끌고 주추 끼고 다니는 꼴들—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딴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면 이 조그만한 장터에도 그 험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알기에 닳새도 더 되는가 봅시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닳새 동안이면 닳새 동안 긴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엷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리고는 말을 끊고 흐음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엷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품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게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겼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엷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 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우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퍼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퍼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섰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들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퍼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며,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영것바치를 움켜잡고 비어 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엷힌 것이** 띠 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뺨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훑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러며 고개를 개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냐.

- 허준, 「잔등(殘燈)」-

- * 고궁살이: 고궁살이. 남의 집 살이.
- * 암질(暗質): 어리석은 천성이나 성질.
- * 허친거리며: 발을 헛디뎈 균형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쏠리며.
- * 고무산, 아오지: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고무산은 농산물과 목재의 집산지였고 아오지는 석탄 산업 시설이 있었음.
- * 사넬미: 사내아이의 방언.
- * 띠개: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을 이르는 방언.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살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 ③ ‘행상의 여인네’는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 ④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 ⑤ ‘사넬미’, ‘어린 계집아이’, ‘업힌 것’ 등 ‘세 어린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40. 다음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활동 다음을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의 일부라고 가정하자.
㉠~㉥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낼 것.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 사용할 것.
-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할 것.
- ㉤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할 것.

- ① ㉠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되었군.
- ② ㉡은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 ③ ㉢은 [B]의 ‘마음이 ~ 하였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B]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를 통해 실현되었군.
- ⑤ ㉤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 애’, ‘그것’, ‘그놈’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41. ㉠을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있다.
- ④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의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 내고 있다.
-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떨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A]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가]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춥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蔞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야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야 여의려뇨
[나]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회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B]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 안표: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향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짜리피, 바랭이: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 ④ ㉣: 술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 ⑤ ㉤: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45.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판적 인생관이 ‘짜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 ⑤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2] 다음은 친구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호: 오늘 들은 [A]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 재미있더라.
 승우: 처음엔 들을 생각 없다가니, 너 정말 집중하면서 듣던데.
 지호: 그러게.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신청하길래 따라서 신청한 거였는데 잘한 것 같아.
 승우: (웃으며)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특강 내용이 딱 네 얘기였구나.
 지호: 그러네. ㉠년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없어?
 승우: 당연히 있지.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웬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것도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 거잖아.
 지호: ㉡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 맞아. 한정된 것이어서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네.
 승우: 맞아. 그런데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어째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지호: 왜? ㉢아,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 너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승우: 응.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런지 할 일도 많고 어렵네.
 지호: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작년에 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줄게.
 승우: 진짜? 정말 고맙다.
 지호: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오늘 들은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승우: 우와, 그러네.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내용.
 지호: 맞아. 정말로 얻은 게 많은 특강이었어.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우의 경험을 묻고 있다.
 - ② ㉡: 승우 말의 일부를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과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승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2. <보기>는 [A]의 일부이다. <보기>의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강사: 오늘 특강 잘 들으셨나요?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사례를 특강 내용과 연결 지어 말해 볼 학생 있나요?

[사례]

“경회루 내부 특별 관람 사전 예약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해서 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데다가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깐 웬지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생: [가]

강사: 좋아요. 제시된 사례를 특강 내용과 잘 연결했네요.

- ① 경회루 내부 개방으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내용이니깐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②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 사전 예약제 실시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니깐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③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경회루의 관람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희소성의 원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④ 특별 관람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받는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내용이니깐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3~5] 다음은 두 마을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면서 개최 장소를 A 마을과 B 마을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두 마을이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 마을의 대표 A와 B 마을의 대표 B가 후속 협상을 하게 되었다.

A: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B: 좋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A: 그러면 저희의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병기하되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했으면 합니다.

B: 글썄요. 저희도 저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A: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 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축제 명칭은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 무슨 뜻인지요?

A: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 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B: 그렇습니다.

A: 그런데 이미 유명한 B 마을과는 달리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 축제 명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B 마을에 유리하도록 협상의 세부 조건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B: 글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마을의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하더라도.....

A: 명칭에서 저희 마을 이름을 앞세우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B: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명칭보다는 홍보 효과가 적지만 저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들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 중 60%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축제 공식 명칭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A: B 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배분 비율은 공동 개최에 걸맞게 50%를 원칙으로 합시다.

B: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A: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마을

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B 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요?

B: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은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A: 음.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3. 위 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지난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의제를 제시하였군.
- ② A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상 전에 알아본 B 마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군.
- ③ B는 A가 제안한 세부 조건이 협상 결렬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A의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 내었군.
- ④ B는 A의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제안한 세부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군.
- ⑤ A와 B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안이 수정되었군.

4.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5. 위 협상에서 A와 B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B 모두 상대방의 양보로 축제의 공동 개최가 가능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 ② A는 축제 명칭을, B는 행사 배분 비율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③ A는 행사 선택의 순서에서, B는 축제 캐릭터와 관련해서 최초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 ④ A 마을의 인지도 향상과 B 마을의 경제적 이득 증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 ⑤ A가 바라는 효과적인 축제 홍보와 B가 바라는 마을의 화합 증진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 제안
- 글의 독자: 학생회 임원들

[학생의 초고]

지금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누군가를 돕는 활동은 교외 봉사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생회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교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학생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도움 오작교' 제도는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과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우선 학생회에서는 홈페이지에 '도와줄게요'와 '도와줘요' 게시판을 개설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은 '도와줄게요'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도와줘요'에 도움의 내용을 등록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필요한 게시판에 들어가서 목록을 검색하여 주고받을 도움을 찾아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등록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싶은 일도 함께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상관 없다. 그것이 다른 이와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됨을 느끼므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교와 상황이 유사했던 다른 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학교에서도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행으로 이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A] 우리에게서 교내 상황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6.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ㄱ. '도움 오작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겠어.
- ㄴ. '도움 오작교'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오작교'라는 이름에서 착안하였음을 제시해야겠어.
- ㄷ. '도움 오작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과 참여하는 학생이 할 일을 각각 제시해야겠어.
- ㄹ. '도움 오작교' 제도를 시행할 때 학생회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겠어.
- ㅁ. '도움 오작교' 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언급해야겠어.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우리 학교 신문의 기사 일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은 주로 교외 봉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내의 도움 나누기 활동도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도움 나누기 활동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2학년 K 군은 "의외로 학교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교내의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나) 이웃 학교의 사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2012년 3월 교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도움을 주려는 학생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첫째 42%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2015년 8월 현재 88%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교내 학생들 간의 도움 나누기가 미미했던 것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학생들 간의 도움 나누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전문가 의견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커지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① (가)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서로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행으로 이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도움 오작교' 제도를 도입하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에 '도움 오작교' 제도가 도입되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도움 오작교' 제도 시행상의 유의점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다.

8. <보기>는 학생의 초고에 대한 교사의 조언이다. <보기>에 따라 [A]를 고쳐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설득하는 글은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그 주장을 믿고 따르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이야. 너의 초고를 보니 제안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더 좋겠구나. [A] 부분에서는 네 주장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① 학생회는 빠른 시일 내에 ‘도움 오작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 ② 학생회는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도움 오작교’ 제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없다.
- ③ 학생회는 ‘도움 오작교’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④ 학생회는 학생들의 도움 나누기 활동을 권장하여 ‘도움 오작교’ 제도의 연결 횟수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은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⑤ 학생회는 ‘도움 오작교’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의 학교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9~10] 다음은 작문 과제와 그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자신의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글로 써 보자.

[학생의 글]

아침부터 비가 내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루었다고 내가 불멘소리를 하니, 옆에 있던 동생이 “저번엔 비가 오는데도 친구 만나러 갔잖아.”라고 한다. 생각해 보니 지난번 비가 오는 날은 그 친구를 만나, 비가 오니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기도 하고, 평소 가 보고 싶었던 곳을 돌아다니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반면 오늘은 같은 상황인데도 활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며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왜 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을까?

문득 어떤 책에서 읽은 두 농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두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한 농부는 “비가 오니 오늘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군.” 하면서 불평을 했고, 다른 농부는 “비가 오니 땅이 부드러워져 일하기가 수월하겠군.” 하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였다. 두 농부는 같은

상황이었지만 서로 다른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내 마음에도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살고 있다. 내 마음속 부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었을 활동이라도 좀처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긍정의 농부가 나타났을 때에는 평소 하고 싶었으나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나는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다. 긍정적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내가 내 앞에 놓인 상황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내 생활에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학생의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② 긍정적 마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이 갖는 장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 ③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④ 긍정적 마음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담은 가족의 조언과 연결한다.
- ⑤ 긍정적 마음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긍정적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눈다.

10. 학생의 글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의 비가 내려 용서의 꽃을 피우다.
- ② 긍정의 거름을 주어 활력의 나무를 키우다.
- ③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함께 살아가다.
- ④ 긍정의 마음으로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다.
- ⑤ 긍정의 자세는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위해 필요하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보 기>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밭이[바치]

㉡ 받침 ‘ㄷ, ㅌ(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담이[미다지]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12.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료>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

㉡ 영화 구경 [가지요].

㉢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보 기>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오. (×)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 ……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
- 읽어 읽어요 먹을게 먹을게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u>지낸다</u>. • 할아버지가 노년에 <u>편하게 지내신다</u>.
↓	
문장 성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게】

예문	문형 정보
① •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u>되어</u> 있다. •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u>인기다</u> .	→ 【...으로】
② •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u>넘어</u> 갔다. • 제 꾀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u>넘어</u> 간 풀이다.	→ 【-게】
③ •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u>다투</u> 기도 했다. •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u>다투</u> 곤 했다.	→ 【...에】
④ •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u>떨러</u> 있다. •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u>떨러</u> 있다.	→ 【...으로】
⑤ •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u>빠</u> 졌다. •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u>빠</u> 졌다.	→ 【-게】

14.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 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16.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도흔 빛 보고져 귀에 도흔 소리 듣고져 고해 도흔 내 만고져 이베 도흔 맛 먹고져 모매 도흔 옷 닙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은’이 ‘오욕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도흔 빛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도흔 빛’은 목적어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군.
- ④ ‘도흔’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도흔’은 용언의 관형사형이었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어미로 쓰였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이처럼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험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거나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험펠과 달리 셸먼은 설명이 논증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이지만,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17. 밑줄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의의
- ② 험펠의 설명 이론이 지니는 문제점
- ③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의 설명과 논증의 관계
- ④ 셸먼의 설명 이론이 험펠 이론에 비해 지니는 장점
- ⑤ 셸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

18. 밑글에 따를 때, 험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 ②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은 아니다.
- ③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다.
- ④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이다.
- ⑤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19. 밑글로 미루어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하다는 문제
- ②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은 불필요하다는 문제
- ③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
- ④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
- ⑤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

20. <보기>의 [물음]에 대해 험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한다고 할 때, (가)~(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르게 고른 것은? [3점]

<보 기>

[물음]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일까?

[설명]

설명항 { 보편 법칙: _____ (가)
 선행 조건: _____ (나)
 피설명항 : _____ (다)

[명제]

ㄱ.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
 ㄴ.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
 ㄷ.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
 ㄹ.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

- | | (가) | (나) | (다) |
|---|------|------|-----|
| ① | ㄱ, ㄴ | ㄷ | ㄹ |
| ② | ㄱ, ㄹ | ㄴ | ㄷ |
| ③ | ㄴ, ㄷ | ㄱ | ㄹ |
| ④ | ㄹ | ㄱ, ㄴ | ㄷ |
| ⑤ | ㄹ | ㄱ, ㄷ | ㄴ |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바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인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런 물음의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아 왔다.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 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한 과학적 탐구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한 기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또한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면과 ㉡ 절약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18, 19세기 산업 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생산 기술에 과학적 지식이 ㉢ 응용되고 기계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 규율이 확립되었고, 인간의 삶은 시간적 규칙성을 따르도록 재조직되었다. 나아가 시간이 관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動線)을 ㉣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어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과 산업체 연구소들이 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 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 활동의 논리에 ㉤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산업 혁명 이후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에 힘입어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근면과 속도가 강조되었다.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대에 대한 ㉦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제 20세기 말 정보화와 세계화를 계기로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압축되어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의식주 등 생활의 기본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현대인들은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다. 경쟁이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2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이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② 과학 혁명의 시대에는 활동적 삶의 위상이 사색적 삶의 위상보다 높았다.
- ③ 청교도 윤리는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다.
- ④ 시간-동작 연구는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⑤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다.

22. ㉠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기계 기술은 정신 기술처럼 가치 있으며, 산업 현장은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족스럽다.
- ②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 피로움과 질곡에 빠지고 말 것이다.
- ③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롭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유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 ④ 나태는 녹이 스는 것처럼 사람을 쇠퇴하게 만들며 쇠퇴의 속도는 노동함으로써 지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 ⑤ 인간은 기계이므로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자극과 영향으로부터 생겨났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후근대 사회는 ‘성과 사회’이다. 규율 사회가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결핍이 해소되고 규율 사회의 강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삶의 온전한 주체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 그 요구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된다.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다는 것이다.

- ① 근대 사회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규율 사회의 외적 강제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증은 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정보화,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서 성과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가 달라지는군.
- ④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이 더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포착하는 견해에 반하는 것이군.
- ⑤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현대인의 행동은 성공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
- ② ㉡: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
- ③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
- ④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⑤ ㉤: 어떤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25~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 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도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 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신생 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VEGF)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의 조직에서 혈관내피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인 ㉢ 베바시주맙이 개발되었다.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혈관 생성을 방해한다. 베바시주맙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다.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 ② ㉠은 ㉢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 ③ ㉡과 ㉣은 모두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복원한다.
- ④ ㉢은 ㉡과 달리 한 가지 종류의 암에만 효능을 보인다.
- ⑤ ㉣은 ㉡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인자에 작용한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의 액체에 넣었다.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1~2mm의 작은 암 덩이로 자란 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였다. ㉡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라났고,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었다.

- ① ㉠에서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겠군.
- ② ㉠와 함께 Bcr-Abl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겠군.
- ③ ㉡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되겠군.
- ④ ㉡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겠군.
- ⑤ ㉡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스타이컨의 ㉠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 ③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 ④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28.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 ②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④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 ⑤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29.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분반을 만하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
- ②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
- ③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
- ④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
- 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햅야라
 <제2수>

㉡ 잔화(殘花) 다 딛 후에 녹음이 기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둠의 소리로다
 ㉢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롬 씌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햅마 아니 니것느냐
 ㉣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 햅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혜 눈이 던다
 ㉤ 모침(茅簷)* 춘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랴 햅로라
 <제7수>

[A] 이바 아히들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햅다가 이 백밭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 양파: 별이 잘 드는 언덕.
- * 자채: 울며, 철 이르게 익은 벼.
- * 자해: 꽃게.
- * 모침: 초가지붕의 처마.
- * 소년: 젊은 나이.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32.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롤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거니 밋일 만나 즐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② ‘아히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는군.
-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울벼로 빗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벼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벼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다)

1

㉦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독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짚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쭙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혹구, 「보리」 -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뎀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태어난 날임을 상기시키는 아무런 특별함은 없다. 그해 봄날 바람이 불었는지 비가 내렸는지 맑았는지 흐렸는지, 이제 는 층계를 오르는 일조차 잊어버린 치매 상태의 노모에게 묻 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다산의 축복을 받은 농경민의 마지막 후예인 그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밤송이가 벌어 저절로 알밤이 툭 떨어지는 것, 봉숭아 여문 씨들이 바람에 화려르 흐 트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범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깨끗한 바가 지에 쌀을 담고 그 위에 마른 미역을 한 잎 걸쳐 안방 시렁에 엮어 삼신에게 바친 다음 할머니는 또다시 깨끗한 짚을 한 다 발 안방으로 들어갔다. 사람도 짐승처럼 짚북데기 깔자리에서 아기를 낳나?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의문에 안 방 쪽으로 가는 눈길이 자꾸 은밀하고 유심해졌다.

할머니는 아궁이가 미어지게 나무를 처넣어 부엌의 무쇠솥 에 물을 끓였다. 저녁 내내 어둡고 웅숭깊은 부엌에는 설설 물 끓는 소리와 더운 김이 가득 서렸다. 특별히 누군가 말해 준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무언가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조심스러 운 쉬쉬함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 한다는 눈치를 채게 마련이었다.

할머니는 언니에게, 해지기 전에 옛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독을 채워 놓으라고 말했다. 머리카락 빠뜨리지 마라. 쓸데없 이 수다 떨다 침 떨구지 마라. 부정 탄다. 할머니는 엄하게 덧 붙였다.

(중략)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 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산하 에 분분히 내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나는 창세기 이래 진화의 표본을 찾아 적도 밀 일천 킬로미터 의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 제도로 갈 수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칠 수도 있었으리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 도, 광야의 선지자도 될 수 있었으리라. 피는 꽃과 지는 잎의 섭 리를 노래하는 근사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었을 테고 맨발 로 춤추는 풀밭의 무희도 될 수 있었으리라. 질량 불변의 법칙 과 영혼의 문제, 환생과 윤회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 다. 납과 쇠를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도 될 수 있었고 밤하늘 의 별을 보고 나의 가야 할 바를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만성적인 편두통과 임신 중의 변비로 인한 치질에 시달리는 중년의 주부로 살아 가고 있다. 유행하는 시와 에세이를 읽고 티브이의 뉴스를 보 고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가지의 일간지 를 동시에 구독해 읽는 것으로 세상을 보는 창구로 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장을 보고 똑같은 거리와 골목을 지나 일주일에 한 번 썩 탕에 가고 매주 목요일 재활 센터에서 지체 부자유자들의 물 리 치료를 돕는 자원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 잦은 일은 아니 지만 이름난 악단이나 연주자의 순회공연이 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를 떠올린 것도 엇그제, 벌써 한 주일 이상이나 화재가 계속되어 희귀 생물의 희생이 걱정된다는 티브이 뉴스 에 비친 광경이 의식의 표면에 남긴 잔상 같은 것일 테고 더 먼저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들에 붙여 놓은, ‘도도’라 는 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도도**가 무엇인가를 묻자 아들은 4백 년 전에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 멸종된 새였다고 말했다.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그렇게 나타내지 않겠는가.

우리 삶의 풍속은 그만큼 빈약한 상상력에 기대어 부박하다.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새로 보태어진 나이에에 잠깐 발이 걸렸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나는 이제 혼례에나 장례에 꼭 같은 한 가지 옷으로 각각 알맞은 역할을 연출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질 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마늘과 생강이 어우 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지만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오정희, 「옛우물」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갈등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 **도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와 스스로를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로 여겼던 주인공을 연관 짓는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상이다.
- ② 주인공의 아들이 자기 물건들에 ‘도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멸종된 종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이다.
- ③ 주인공이 ‘도도’에 대해 ‘멸종된 새’로서 진화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려 주는 대상이다.
- ④ ‘도도’를 통해 바다 건너 외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하는 점에서, 주인공에게 ‘도도’는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⑤ ‘도도’가 인간 앞에 ‘항거’하지 못하고 희생되어 ‘전설 속’의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도도’는 주인공이 두려움을 느끼는 현실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41.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은 일생 동안 출생·성년·결혼·죽음의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적 경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상상의 세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한다. 이때 두 세계의 어느 편에도 온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선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옛우물」에서는 경계 상황에 놓인 중년 여성 인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 탐색의 과정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성찰한다. 이를 통해, 생명과 죽음이 서로 대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 ①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면서도 밤 외출을 하는 행위에서,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읽을 수 있겠군.
- ② 죽음을 물과 불과 바람과 먼지로 산하에 흩어져 내리는 것으로 보는 주인공의 생각에서, 생명과 죽음이 자연의 순환 원리를 바탕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막내동생이 태어나던 때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장면을 주인공이 떠올리는 것에서, 출생이라는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하며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군.
- ④ 한 사람의 생애에서 사십오 년의 의미를 묻는 주인공이 아프리카나 광야를 상상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이전에 진 공이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다. 엄송의 가자(假子)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 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 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송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식을 시켜 ‘진 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삼십만 냡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그리고 금위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조문화는 오 부인과 진 소저가 옛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중형 오 낭중이라는 자를 불러 놓고 말했다.

[A] “진형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죽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물어 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 들으니 그대는 형수와 인척이 된다 하더군.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그녀가 만일 효녀라면 스스로 거취할 방도를 필시 깨우치게 될 것이니라.”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 오 부인은 크게 노했다.

“조가 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 한다고?”

그러자 진 소저가 분연히 고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버지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 된 자로서 ㉡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 부인은 평소 소저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마침내 탄성을 발했다.

[B] “슬프다! 총계정에서 학을 읊은 시가 죽히 너의 성안(成案)이 되고 말겠구나.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의심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버지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이나 하겠느냐?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진 소저는 ㉢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 오 낭중은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돌아가 그녀의 말을 전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송을 사주해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 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

(중략)

마침내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뒤 진 소저는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없이 영영 울고 있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家人)들이 속속 찾아와 진 소저에게 혼인을 재촉했다. 진 소저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다.

“방금 부모님을 작별했으므로 정희가 망극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연후에 성례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문화의 가인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 조문화가 말했다.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

사오일 뒤 조문화는 시비로 하여금 진 소저를 찾아가 살펴 보게 했다. 진 소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이불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유모를 불러 놓고 일렀다.

“슬픔으로 심란하던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섭하여 속히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려 주신 ㉠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그런데 지금 바깥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 내 마음이 편하질 않구려.”

그 사람이 돌아가 진 소저의 말을 조문화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조문화는 몹시 기뻐했다.

“진실로 뛰어난 효녀로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화를 돋우게 하지 마라. 앞으로 모름지기 매일 문밖에서 동정을 살피되 집 안에는 다시 함부로 들어가지 말거라.”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

그 이튿날에도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를 찾아갔더니 ㉡ 빈집만 황량할 뿐 다시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몹시 놀랍고도 의아하여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저 집 소저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사람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소저고 대저고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무안만 당하고 돌아가 조문화에게 고했다.

-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

4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 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②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저와의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 ③ 조문화는 진 소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 소저의 혼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 ④ 운섬은 진 소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났다.
- ⑤ 마을 사람은 진 소저의 행방에 대해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43.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 ②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 ③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④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

⑤ [A], [B] 모두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된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사리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 ① 오 낭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리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진 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군.
- ③ 진 소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④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 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 소저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5. 문맥을 고려할 때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 ② ㉡: 없는 자가 찬밥 더운밥을 가리랴.
- ③ ㉢: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 ④ ㉣: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
- 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A형)

출수형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B]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C]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D]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E]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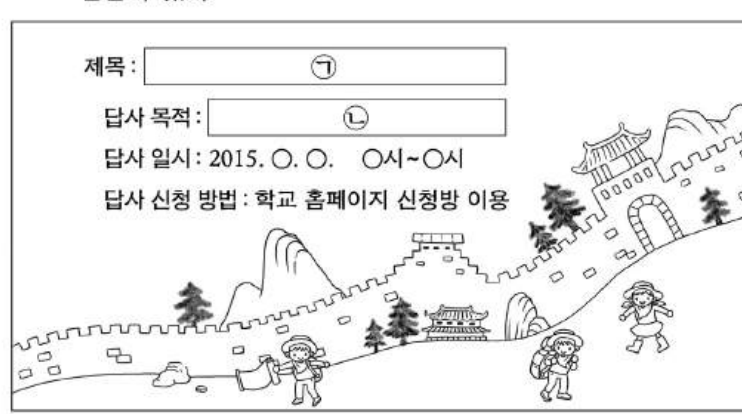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O. O. O시~O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희토류'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네. 그러시군요. 희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희토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원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잘 아시는군요.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57부터 71까지의 원소와 그 외의 2개 원소를 합친 17개의 원소를 가리킵니다. 희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

[A] 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었나요?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다음으로, 희토류의 실제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 주며) 희토류 중 하나인 이트륨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에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희토류 중의 하나인 네오디뮴이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 희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희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면 2010년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토류는 특정 광석에만 존재하며, 광석에서 분리하여 정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희토류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토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희토류의 개념과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제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희토류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희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A]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 ② 발표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시키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발표 대상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발표를 시작할 때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성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하고 있다.

4. 다음은 학생의 발표 연습을 들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 중 학생이 발표에서 실제로 반영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 발표 목적을 청중들에게 환기시키고 ㉡ 산업 분야에서의 희토류의 역할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 희토류와 관련된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 희토류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갖기를 권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5. 다음은 발표를 들은 청중이 발표자에게 한 질문의 일부이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 1 : 이트륨을 포함한 화합물을 사용한 TV 스크린 제품은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할 때 실제 에너지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①

학생 2 : 네오디뮴을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네오디뮴이 포함된, 강한 자성을 갖는 화합물을 활용한 다른 제품 사례는 없나요? ②

학생 3 :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③

학생 4 : 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여 정제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생산 기술을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④

학생 5 : 2050년에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자료를 소개하였는데요.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다른 연구 자료는 없나요? 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계획

- 처음
 -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특성 서술 ㉠
 - 앱 개발 시 부딪히는 난점 언급 ㉡
- 중간
 - 공공 데이터의 개념 정의 ㉢
 - 공공 데이터의 제공 현황 제시 ㉣
 - 앱 개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가 갖는 장점 진술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 ㉤
- 끝
 -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
 -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 언급

[가]

초 고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여행 코스를 짜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 도심에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주차장을 쉽게 찾아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막상 앱을 개발하려 할 때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있다. 여행지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도 문제이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공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 늘리고 있다.

공공 데이터가 가진 앱 개발 분야에서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 시행된 정책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점이다. 앱 개발자들의 아이디어는 대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만약 여행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에서, 주차장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갱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

[A]

6. '작문 계획'의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작문 계획'의 [가]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공공 데이터는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 ② 공공 데이터는 자본과 아이디어가 부족해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앱 개발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앱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 ④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 그러므로 앱 개발 시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다.
- ⑤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을 할 때 부딪히는 자료 수집의 문제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도심에서'로 고친다.
- ② ㉡: 앞뒤 내용을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친다.
- ③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늘이고'로 고친다.
- ④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시행한'으로 고친다.
- ⑤ ㉤: 사동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들지'로 고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버스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② 새 소리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③ 나뭇잎들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④ 가을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⑤ 친구들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옹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옷고름 → [온꼬름]
- ㉣ 닭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홀꺼나]

-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값다 → [깎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얕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12.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저기에 있잖아. 백타이를 매고 있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문]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조]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동]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②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레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을 작용점이라 한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레의 원리에는 돌림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 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잇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 \cdot m$ (뉴턴미터)이다.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 한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J(줄)이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해 있다고 하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가]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N의 힘으로 밀는 상태에서 문이 90° 즉, 0.5π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 준 일은 50π J이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 ②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 ③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
- ④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17.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 ②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 ③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 ④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같다.
- ⑤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원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돌고 있는 원판 위의 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 만큼 떨어져 O,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A, B에는 각각 \overline{OA} , \overline{OB} 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 ①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②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④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300~1,100 nm*, 저마늄은 800~1,600 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 nm: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준다.
- ②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
- ③ 입사된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필수적이다.
- ④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100 nm 파장의 빛을 검출할 때 사용 가능하다.
- 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 ② ㉠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 ③ ㉠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양공 쌍의 수는 양자 효율을 결정한다.
- ④ ㉠에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 ⑤ 흡수층에서 ㉠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예비 실험: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800 nm 파장의 빛을 길이가 1m인 광통신 케이블의 한쪽 끝에 입사시키고, 다른 쪽 끝에 실리콘으로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설치하여 전류를 측정하였다. 이때 100 nA의 전류가 측정되었고 증배 계수는 40이었다. 작동 온도는 0℃, 역방향 전압은 110 V였다.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 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 본 실험: 동일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가지고 작동 조건을 하나씩 달리하며 성능을 시험한다. 이때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① 역방향 전압을 100 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 ② 역방향 전압을 120 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 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 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 nA보다 작아지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먼저 흄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 한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22.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24.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 ②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③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 ④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형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 (ㄴ)에 대한 A와 B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어떤 천체의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100, 110, 120, 130, 140℃로 해마다 10℃씩 높아졌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 예측을 제시하였다.
 - (ㄱ)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150℃일 것이다.
 - (ㄴ) 1년 뒤 관측한 그 천체의 표면 온도는 200℃일 것이다.
- A와 B는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한다.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B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①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ㄱ)과 (ㄴ)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군.
- ② A는 (ㄱ)과 (ㄴ)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 ③ A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ㄱ)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겠군.
- ④ B는 (ㄱ)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ㄴ)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군.
- ⑤ B는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ㄴ)을 (ㄱ)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26.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
- ② 그의 말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기운이 빠졌다.
- ③ 그는 무릎 위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쳐 왔다.
- ④ 그의 강연에 자신의 주장이 빠져 모두 아쉬워했다.
- ⑤ 우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것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㉔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㉕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㉖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

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㉗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㉘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㉙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8. ㉚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취하였다
- ② ㉡: 부가하는
- ③ ㉢: 지시한다
- ④ ㉣: 형성되었을
- ⑤ ㉤: 경유하여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현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①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사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지금의 동서-은 연신 뼈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 서 있는 **속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결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을 새 집을 설계하듯이,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㉔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될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흥,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흥,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㉕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흥,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㉖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㉗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무(裸木)」-

31. ㉑~㉗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남편’의 행동은 ㉔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㉑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㉔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㉒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㉔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㉒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㉔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㉔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㉒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32. [코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코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코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육’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코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코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코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㉘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b]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장수 A :가만 계세요. 만약 내가 이 소를 샀다가두 나중에 탄로가 나면.....

개똥이 : 멧덩구리 같으니라구! 그런 걱정은 여기서 할 게 아냐! 자네가 입을 닥치구 있구 내가 입을 딱 찢어 버리구 있으면 누가 알아. 어느 개아들 늡이 안단 말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말어.

이때에 울타리 바깥 행길에 밭에 갔다 오는 말뚱이 나타난다. 말뚱이는 빈 지계를 졌다. 개똥이와 소장수를 보고 무루청한다.*

말뚱이 : (길에서) 개똥아 너 거기서 뭘 해? 그 사람은 누구야?

개똥이 :허긴 뭘 해. 아모것두 아냐. 소에 꼴 주고 있어.....

3장

이때에 또 국서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소장수와 개똥이는 슬슬 나가 버린다. 말뚱이는 소 옆에 와서 좀 ㉠이상한 공기를 예감한 듯이 살핀다. 이상 없음을 보고 소를 도로 매어 둔다. 마름 앞서고 그 뒤에 국서, 그리고 그 처 헛간으로 들어온다.

마름 :그러면 저 벼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돌다 리끼에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 네.

마름 :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덟 말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와서 갠진 것을 덜면 꼭 녁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던 말야!

말뚱이 : (옆에서 듣고 싶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째야 한단 말요?

마름 : 금명간에 다 해다 갠란 말야! 이늡이 왜 어른 말하는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 원 버르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관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일른 줄 알아?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구.그런 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는 여태 묵은 것은 다 맡겨 봐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엔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국서 :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쭈는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름 :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허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갖다 갠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냐. 사정없이 딱 잘라서 ㉡최후 결단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말뚱이 : 아니 뼈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 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었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 :이늡 말뚱아!

마름 : 이 망할 자식 보게. 늡은 사람 앞에 막 샷대질을 허구 이늡이 덤비지! 에잇, 고약한 늡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뚱이 : (악을 쓰고)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뭘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단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 봐요! 흥!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 (말리다가 못해 말뚱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늡, 버릇없어!

마름 :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이라두 빼어 가두 빼어 가구 솥이라두 떼어 갈 테니까.흥 저늡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중략)

국서 : (말뚱이더러 노하여) 이늡아 나가거라! 소는 그예 너 늡 때문에 날려 버리고 말었다! 이 빌어먹을 늡! 왜 아까 마름한테는 덤뵈어?

처 : 이늡아, 너는 허는 짓짓이 미런스럽더라. 이 일을 어떡하나? 이 일을.

말뚱이 : 아냐, 가만 있어. 내 소 팔어먹은 늡은 알어요. 저 그 쇠똥치란 소장수가 어떻게 생겼수?

소장수 B : 짧은 머리 깎은 녁석이지. 좀 똥똥허구.

말뚱이 : 똥똥허구 머리를 깎구..... 음! 그렇지! 이늡을 내가 죽여 버릴 테야.

국진 : 네가 아니?

말뚱이 : 인제 알았어요. 아까 개똥이란 녁석이 웬 똥똥허구 짧은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래 가지구 이 감낭구 밑에다가 소를 몰아 내놓구 한참 동안이나 뭐라구 쭈근거렸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소장수 B : 그럼 그건가 봅네다. 아무려면 불 안 뎌 굴뚝에서 연기 날려구요. (퇴장)

국서 : 저런! 육싹힐!

처 : 이늡아. 똑똑이 못 본 일이거든 아예 입에 담지 말어라. 왜 그늡을 소도적늡으로 몰라구 그래?

국서 :아냐. 그늡일는지도 몰라. 그늡이 소 팔어서 만주 보내 달라구 좀 성화를 부렸어야지.

- 유치진, 「소」 -

* 무루청하다: '무르춤하다'의 잘못. 뜻밖의 사실에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듯이 하여 행동을 갑자기 멈추다.

3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뚝이’는 ‘개똥이’와 ‘국서’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 ② ‘국서’와 ‘말뚝이’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도 ‘마름’에 대해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 ③ ‘국서’는 ‘개똥이’의 예전 행동을 근거로 ‘말뚝이’의 판단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말뚝이’는 ‘소장수 B’가 제공한 정보에 의지하여 ‘개똥이’가 ‘소장수 A’에게 소를 넘겼다고 믿고 있다.
- ⑤ ‘마름’은 도지 값기를 독촉하는 자신의 행동이 논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국서’ 부자의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으로 인해 생긴 ‘말뚝이’와 ‘마름’ 간의 불화 때문에 ‘마름’이 ㉡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한다.
- ② ㉠은 ‘마름’이 헛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치 채고 ‘말뚝이’가 ㉡을 대비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 ③ ㉠으로 인해 ‘개똥이’는 ‘말뚝이’에 대한 증오심을, ㉡으로 인해 ‘마름’은 ‘국서’ 부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 ④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고, ㉡으로 인해 ‘국서’와 ‘말뚝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⑤ ㉠으로 인해 ‘말뚝이’는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라는 말을 듣고 ‘국서’는 ‘마름’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는 1935년에 발표된 유치진의 초기 사실주의 극이다. 사실주의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민다. 『소』는 시대를 짐작하게 하는 용어의 사용,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과 대화 상황의 제시,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사용 등을 통해 당대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나 관습 그리고 농촌 사회에 내재된 갈등 상황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 ① ‘소’, ‘울타리’, ‘빈 지게’, ‘헛간’ 등을 연극적 장치로 이용하여 무대 공간을 현실의 일부인 것처럼 꾸미고 있군.
- ② 인물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행동과 생동감 있는 구어체의 말투를 통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제시하고 있군.
- ③ ‘마름’의 뒤를 따라가는 ‘국서’의 행동과 ‘국서’에게 지시하는 ‘마름’의 행동을 통해 농촌 사회의 계층 간 위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농지령’, ‘작인’, ‘도지’ 등 농민과 관련된 법령 및 용어를 사용하여 무대 위의 상황이 당대의 농촌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늙은 사람 앞에 ~ 고약한 늬 같으니!’, ‘나를 보고는 그만 도망을 했어!’ 등의 대사를 통해 계층 간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당대 농촌 사회의 관습을 보여 주는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김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리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느냐?”

“어디 좀 알아보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뚱을 와락 싸고, ㉢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욱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총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렁출렁하는구나.”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렁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뽀,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렁출렁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기를,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지면 좋은 활이 습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이웃나라가 알게 해서 안 되는 일이나이다.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응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별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작자 미상, 「토끼전」-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이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떡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복년: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믿겠습니까: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ㄹ. 각 수 중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B]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C]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D]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E]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출수형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B]**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C]**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D]**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E]**

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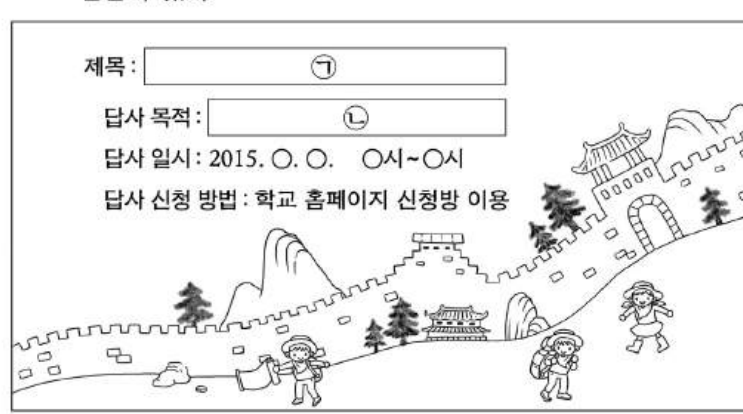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

답사 목적: ㉡

답사 일시: 2015. O. O. O시~O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써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⑤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4.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전략	강점 부각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예상 평가 항목		
대회 취지 부합성	㉠	㉡
대회 개최 여건	㉢	㉣
대회 운영 능력	㉤	

- ①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③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 ⑤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5.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②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⑤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8] (가)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및 계획

- 작문 상황: 일회용품을 즐겨 쓰고 쉽게 버리는 등 값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 생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 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글을 쓰려 한다.
- 주제문: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
- 개요
 - I. 서론
 - II. 현재의 소비 생활
 -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
 -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
 -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
 -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 III. 대안: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 1. 실천 방법
 - 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 나. 제품 사용 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함
 - 2. 기대 효과
 - 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
 - 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
 - IV. 결론: 소비 생활의 관점 개선 촉구 및 제언

(나) 인터뷰

질문자: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이 있나요?
전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 ㉠ 제품에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증하는 것도 있고,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표시해서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줄인 음료수를 개발하고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출시하였다.

6. (가)의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II의 내용을 항목화하려고 한다. 정보 간의 관계와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항목'과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목	내용
① 1. 양상	— ㉠, ㉡
2. 문제점	— ㉢, ㉣
② 1. 현황	— ㉠, ㉡
2. 종류	— ㉢, ㉣
③ 1. 실태	— ㉠, ㉡
2. 원인	— ㉢, ㉣
④ 1. 목적	— ㉠, ㉡, ㉢
2. 필요성	— ㉣
⑤ 1. 대책	— ㉠, ㉡, ㉢
2. 심각성	— ㉣

7. ㉠, ㉡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②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③ 작문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다.
- ⑤ 예상 독자의 성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8. (나), (다)를 활용하여 (가)의 III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III-1-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III-1-가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 가운데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III-2-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환경 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III-2-나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III-2-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 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버스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② 새 소리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③ 나뭇잎들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④ 가을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⑤ 친구들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보 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ㄴ]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ㄴ]으로 발음한다. ㉢
 -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ㄱ, ㄴ]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ㆁ]으로 발음한다.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몹+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답+하고	㉡, ㉤	[다카고]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옷음(옷+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뭐? ㉡ 저거?
 아들: 네, ㉢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그래? 그러면 ㉤ 어제였네. ㉥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알았어, ㉦ 우리 아들. ㉧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 ㉠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 ㉡

-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과)...을]

-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샤디 大師(대사) ㉠ 흐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 있고 ㉡ 仙人(선인)이 슬보디 大王(대왕)하 이 ㉢ 南堀(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쓰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호야 ㉣ 世間(세간)애 ㉤ 쉽디 몬호니 그 쫘 호닐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 蓮花(연화) |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는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 편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8. ㉠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다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9.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 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 안 된다고 본다.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②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③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⑤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22.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플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플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지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이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지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6.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2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취하였다
- ② ㉢: 부가하는
- ③ ㉣: 지시한다
- ④ ㉣: 형성되었을
- ⑤ ㉤: 경유하여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②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리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 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길길길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낳기는 마찬가 지라면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뺨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

다. “동주운아, 노을자야!”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서 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잡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껄뻘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잃었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별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끽끽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데 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흉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엘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잣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컷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씨: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제 바로 구월 구월날 오늘이다. 오늘 오후[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잡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 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숙이 나열. 대뜰에는 옆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꿰어앉았고, 그 뒤로 넉넉한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청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옵신다—.

사령: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끔찍 아니 한다)

사령: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 달라고 아뢰오—.

사령: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살려 달라고 아뢰오—.

수령: 처형해라.

급창: 처형하옵신다—.

참령: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랴!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 선 구경꾼들은 와— 헤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려 물러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

최 씨: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밴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데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영오: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오-냐.

영오: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더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는 내놓아 주어예지?

최 씨: 글썸,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데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훨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흙썩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썸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지자 보름 만엔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웅위해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금 다리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 늘어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었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넉넉한 참령이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돌돌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닢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 전경: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3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넋두리에 해당한다.
- ⑤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삿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④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 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피와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왔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라, 별나라,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라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냐?”
 “어디 좀 알아봅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가 성중(楚歌聲中)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총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
 라 하겠다. 아뿔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
 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과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
 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되,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지면 좋은 활이 습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
 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
 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
 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
 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
 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
 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
 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 불가사문어인국: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 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 내고 있다.
- ②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 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썬이로다
비 시여 셔근 집을 뒤라셔 곳쳐 이며
옷 버셔 문허진 담 뒤라셔 곳쳐 쓸고
㉡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촌 수하상직(誰何上直)* 뒤라셔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뒤 드르며 논의(論議)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곳튼 얼굴리 편혹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뒤 타시라 홀셔이고
헐 업는 종의 일은 뭇도 아니 허려니와
도로혀 헤여히니 마누라 타시로다
㉢ 너 주인 외다 혀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혀야 사되나이다
㉣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혀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별감: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 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뭇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헐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허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겹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E]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입니다. 이렇게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원래 인쇄술을 뜻했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문자로 구성하는 디자인 전반을 가리킵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이 있는데요, 그 각각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화면의 '작품 1'을 가리키며) 이것은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을 텐데요, 학교 앞 도로의 바닥에 적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입니다. 운전자에게 주의하며 운전하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하므로 이런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글자들은 전체적으로 크면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인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화면의 '작품 2'를 가리키며)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받침 글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선을 그려 넣고 사선의 위쪽을 검은색으로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니 마치 갓이 씌워져 있는 전등에서 나온 빛이 아래쪽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작품 3'을 가리키며) 이 작품은 '으'라는 글자 위아래를 뒤집어 나란히 두 개를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눈과 눈썹을 연상시키네요. 그리고 'ㅇ'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세 개씩 그려 넣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신선한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 드리며 타이포그래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면에 '작품 1', '작품 2', '작품 3'을 한꺼번에 띄워 놓고) ㉠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직접 제시하여 강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청중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강연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청중이 희망하는 직업들의 특징을 서로 대비함으로써 강연 내용의 활용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2. 위 강연을 고려할 때,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하였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② '작품 2'는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상관없이 글자를 작품의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③ '작품 3'은 회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④ '작품 1'과 '작품 2'는 모두 글자의 색을 화려하게 사용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⑤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고 있으므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3~5]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

학생 2: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학생 3: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학생 1: ㉠ 발표와 질의응답, ㉡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학생 4: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학생 5: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A]

학생 2: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학생 3: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학생 4: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중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학생 2: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학생 3: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B]

학생 4: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발표자에게 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지.

학생 1: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볼까?

학생 3: 음, 생각해 보니까 자유 토의 방식은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책 내용 모두를 이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을 꼼꼼하게 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학생 5: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이 좋겠다는 거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다들 책 읽기 모임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 토의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학생 1: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C]

학생들: (모두 동의를 표한다.)

3. 위 토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모임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된다.
- ② ㉡은 준비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다.
- ③ ㉠과 ㉡ 모두에서는 참여자들이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 ④ ㉠과 ㉡ 모두에서는 매주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다룬 분량이 정해져 있다.
- ⑤ ㉠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고, ㉡은 책을 각자 읽는 방식이다.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점을 인정한 후 다른 방안이 그 장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특정 방안의 한계를 언급한 후 그 방안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토의의 흐름으로 볼 때, [C]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3점]

- ①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결정하였다.
- ②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실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③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삼의 방안을 절충안으로 결정하였다.
- ④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유연하게 실행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 ⑤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6~7] (가)는 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동생이 누나와 나는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한 메모

- 작문 상황: ○○ 향토 문화원 학생 해설 도우미에 지원
- 목적: 선발 담당자에게 나를 알림. ㉠
- 예상 독자 분석: 학생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는 나의 학교생활이 궁금할 것임. ㉡
- 내용 생성
 -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 경험 ㉢
 - 나의 성장 배경 ㉣
- 조직 방법: 경험의 목록을 나열하여 제시함. ㉤

(나)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

동생: ○○ 향토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줄 학생 해설 도우미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분야라 지원하고 싶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계획을 구상해 보았는데 잘 안 돼. 이 메모를 좀 봐 줘.

누나: (메모를 확인한 후) 음, 단순히 자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목적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해설 도우미 선발 담당자라면 어떤 점이 궁금할 것 같아? 단순히 학교생활을 궁금해할까?

동생: 해설 도우미를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아, 내가 해설 도우미로 적합한지가 궁금하겠지.

누나: 그럼 해설 도우미로 적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공고문의 내용을 잘 고려해 봐.

동생: 공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해설 도우미로 선발해서 초등학생에게 지역의 향토 문화를 설명해 주는 활동을 하게 한다.

누나: 향토 문화를 해설하려면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설명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설 대상인 초등학생과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 이런 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동생: 음, 그러면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경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학생회 봉사 부장 활동, 나의 성장 배경을 쓰면 좋겠는데.

누나: 그것들을 모두 쓰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거야.

동생: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했던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보고서 발표 대회,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 그럼, 선택한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

누나: 단순히 너의 경험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의 의미를 경험 내용과 연관 지어 조직하면 글의 의도가 잘 전달될 거야. 그리고 글 전체를 처음, 중간, 끝 부분으로 나누고 **중간 부분**에서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 좋겠어.

동생: 고마워 누나. 이제 잘 써 볼게.

6. (나)를 고려할 때, (가)의 ㉠~㉤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발 담당자에게 자신이 학생 해설 도우미로 적합함을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구체화한다.
- ② ㉡: 공고문을 토대로 예상 독자의 주된 관심사를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로 재설정한다.
- ③ ㉢: '의미 있는 활동' 중 학생 해설 도우미로서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④ ㉣: 자신의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성장 배경 대신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⑤ ㉤: 선별된 각 경험의 내용과 그 의의를 함께 제시한다.

7. (나)를 고려하여 **중간 부분**을 작성하려 할 때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경험	내용 구체화 방안
①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	동아리에서 지역 문화재를 탐방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③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기른 설명 능력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서술한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복지 센터 보조 교사로서 초등학생을 돌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음을 서술한다.
⑤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	보조 교사 활동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문화 해설 도우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서술한다.

[8~10] 다음은 기사 요청서와 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기사의 본문 개요 및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학교 신문 편집부의 기사 요청서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옮겨져 미리내 솔숲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특집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예상 독자는 본교 학생들입니다.

○ 본문의 개요

- 1문단: 미리내 솔숲 개방 행사 안내㉠
- 2문단: 체육관 신축으로 인한 소나무 처리 문제 발생㉡
- 3문단: 소나무 처리 문제에 대한 학생들과 동문들의 우려㉢
- 4문단: 소나무 기증을 통한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 5문단: 기증한 소나무들로 솔숲을 조성하게 된 계기㉤
- 6문단: 소나무 기증의 의의와 솔숲에 거는 기대

○ 기사 초고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시민의 솔숲으로 부활

<부제>

<전문>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의 기증으로 조성된 미리내 솔숲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다.

<본문>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개방을 축하하는 행사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솔숲이 위치한 시민 공원에서 열린다. 솔숲 개방 행사에는 우리 학교 상징물인 소나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재학생과 동문 선배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 참석하였다.

우리 학교와 역사를 함께해 온 소나무들로 솔숲이 조성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우리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 새로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체육관을 지을 터에 이미 자리 잡은 소나무들을 옮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베어 버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 소나무들을 베어 버리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학교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당장 베어 버리기보다는 몇 달만이라도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학교 측과 ㉢ 합의했다.

학생회에서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던 중 시민 공원에 소나무를 기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비단 시민 공원에서 솔숲을 조성할 소나무가 필요하다며 소나무 기증 의사를 반겼고, 솔숲의 터가 정리되는 대로 솔숲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우리 학교는 구성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소나무들을 시민 공원에 기증하였다.

현재 우리 학교 소나무들은 새 보금자리인 시민 공원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소나무들은 학교에 있을 때처럼 건강하게 새 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공원에서 예정보다 빨리 솔숲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우리 학교 이름을 딴 미리내 솔숲의 조성은 교내의 소나무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 해결되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인 소나무들과 이별하는 것을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기증을 통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나눔’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번 기증으로 시민들의 쉼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상징물인 소나무들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8. 개요의 ㉠~㉤ 중, <본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글쓰기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에 따라 작성했을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기사 내용 중 학생회장의 말을 바탕으로 예상 독자에게 소나무 기증의 의의가 잘 전달되도록 <부제>를 정해야겠어.

- ① 우리 학교 소나무들로 조성된 미리내 솔숲,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개방
- ② 지역 사회에 쉼터 제공, 소나무 기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눔과 협력의 정신 일깨워
- ③ 미리내 솔숲, 공공 녹지 조성과 나무 생태 보전이라는 시민 공원의 설립 취지 잘 살려
- ④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 기증의 중요성 알리는 계기로 작용
- ⑤ 지역 사회와의 협력의 산물, 우리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 지역 사회의 상징물이 되기까지

10. 기사 초고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결과	수정 방안
①	㉠: 행위의 시간 표현이 잘못되었다.	‘참석할 예정이다’로 수정한다.
②	㉡: 의미상 불필요한 표현이다.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③	㉢: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다.	‘시민 공원은’을 주어로 추가한다.
④	㉣: 부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때마침’으로 수정한다.
⑤	㉤: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다.	‘해결되었다는’으로 수정한다.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도-'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저-'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저-'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저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도 '도와', '더버'도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ɔ̃/ɥ[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도 '도오시니', '셔볼'도 '셔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ㅅ'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ㅇ' 또는 'ㅅ'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도 '아으', '저서'도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저고'와 현대 국어의 '저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은
② (신을) 굽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버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빚다	빋게	비서	비슨	빋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맑+네 → [망네]
 ㉡ 낮+일 → [난닐]
 ㉢ 꽃+말 → [꼐말]
 ㉣ 굽+고 → [글꼬]

- ①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 → [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 → [물랏]'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 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6.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 기본 단위이다.
- ② ㉢은 ㉠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③ ㉣가 변하면 ㉤도 따라서 변한다.
- ④ ㉥은 ㉦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⑤ ㉠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는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 ②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 ③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 ④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 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 ⑤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 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와 사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 ②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 ③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
- ④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 되면 ‘사과이다’로, 1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 해야 되겠군.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 시키고자 한다.

[A]

- 입력 단자는 세 개(a, b, c)
- a, b, c의 현재의 가중치는 각각 $W_a=0.5$, $W_b=0.5$, $W_c=0.1$
-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B]

-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I_a=1$, $I_b=0$, $I_c=1$
-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1

-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 이겠군.
-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 W_b , W_c 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 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 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나)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 실험동물이 ㉡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동물의 ㉢ 반응 결과를 인간 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 이라 한다.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 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라) 그러나 ㉤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 이다.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 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

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마)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나):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다):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보고 있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 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 ②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해 안다.
- ③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 ④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상관없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⑤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② ㉠이 ㉡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된다.
- ③ ㉡은 ㉠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한다.
- ④ ㉡은 ㉠과 달리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3.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맡기는 ② 가하는 ③ 주는 ④ 안기는 ⑤ 겪게 하는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 [A]
-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렀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이란 곰비에 반죽고 복(福)이란 림비에 반죽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올로 념서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늬미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흐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문왕과 후비: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2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 해석될 수 있었다.

26.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7.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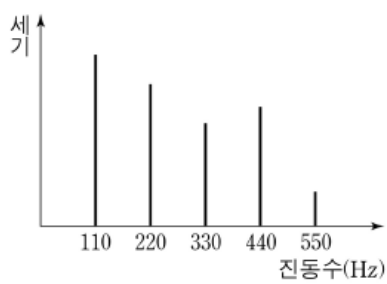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윗꽃’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①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림>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 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 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 인 옥타브, $3/2$ 인 완전5도, $5/4$ 인 장3도, $6/5$ 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A]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 ②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④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⑤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29.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③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④ 셈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⑤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30.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①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 ②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⑤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31.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 ③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 ④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⑤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32.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 Q, R, 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Hz)	440	550	660	880

-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 ②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윗글의 ㉠은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뒤라.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옳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
나무 억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
(沈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옳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①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②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③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
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
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
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릿한 내용을
갖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
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죽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나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핍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은 ㉡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랴?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씹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찌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 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①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뭍어 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북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접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B]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 하시기로…….”

“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네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려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 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벌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 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딴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 신앙을 잃어 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 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 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 접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40.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 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이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엽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뻠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이어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底]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海如海露凄凄]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최척은 앓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갓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于)*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질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살 수 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오.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오.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 * 주우, 두홍: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 * 안남: 베트남.
- * 왕자진: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 * 돈우: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 * 사우: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43.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 ③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 ④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44. 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 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시가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
- 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
- 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요리 연구가 ○○○입니다. ‘맛있는 꽃’이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오늘 제 강연은 먹는 꽃, 즉 식용 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스민 차 드셔 본 분은요? 아, 몇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마시는 차 중에는 말린 꽃잎을 재료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꽃은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로도 자주 쓰인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장미 꽃잎을 올린 샐러드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팬지꽃, 호박꽃도 샐러드나 소스 재료로 쓰인답니다. 이렇게 꽃을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는 꽃잎의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도 꽃을 넣은 게 있는데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 (손을 든 학생을 가리키며) 네, 어떤 음식을 먹어 보았나요? (학생: 강연을 듣다 보니,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생각나요.) 네, 좋은 예를 들어 주었네요. 이 학생에게 다 함께 박수를 쳐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꽃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는 여럿이 모여 진달래 화전을 만들어 먹었고, 가을이면 국화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네요. 철쭉꽃은 화전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 철쭉꽃뿐만 아니라 아네모네, 은방울꽃 같은 것들도 독성이 있답니다. 그러니 꽃을 먹기 전에 독성이 있는 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에 따라서는 꽃가루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도 있으니 이런 꽃은 암술, 수술, 꽃받침을 제거하고 꽃잎만 드셔야 해요. 특히 진달래꽃은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제거하고 물에 씻어야 한답니다.

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어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설명 대상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을 들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지	
○ 듣기 전후에 떠올린 생각	
〈듣기 전〉	
• 어떤 꽃을 먹을 수 있을까?]...㉠
• 꽃을 재료로 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듣기 후〉	
•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형태적 차이점은 무엇일까?	㉡
• 학교 화단의 꽃은 함부로 음식 재료로 쓰면 안 되겠군.	㉢
• 동아리 행사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 강연을 듣고 정리한 내용	
• 꽃을 재료로 한 음식: 꽃잎 차, 샐러드, 화전 등]...㉤
• 식용 가능: 장미꽃, 팬지꽃, 호박꽃, 진달래꽃, 국화꽃	
※ 농약이나 오염 물질 없는 것, 꽃잎만 섭취	
• 식용 불가: 철쭉꽃, 아네모네, 은방울꽃	

- ① ㉠과 ㉣을 함께 고려할 때 듣기 전 떠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강연에서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서는 들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들은 내용을 강연자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대상에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에서는 들은 내용을 자신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는 들은 내용을 정보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범주화하여 정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다음은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이번 교내 학생 연설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합시다’이고 오늘 ㉠우리가 할 토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내 학생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연설에 대해 토의해보는데 먼저 연설을 시작할 때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학생 1: 우선 연설을 할 장소와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학생 2: 글쎄, 그 방법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때?

학생 3: 연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아.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한 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학생 1: 응. 시 낭송은 참신한 방식이니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데 도움이 되겠네.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연설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고.

학생 2: 그래. 생각해 보니 그 방법이 좋겠다. [A]

사회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1: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해.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 주면 친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학생 2: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는 네 의견에는 동의해. 그런데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관련 법 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학생 3: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먼저 친구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친구들이 이 문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지.

학생 1: 지금까지 제안된 근거와 자료는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모두 채택하자. 단, 순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근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학생 2: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

학생 3: 좋아. 나도 동의해.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합의된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설 계획을 정리해 볼게. 이제, 토의를 마치자.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을 들을 청중의 특성이 고려되고 있다.
- ② ㉠에서는 ㉡이 행해지는 공간적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
- ③ ㉠에서는 ㉡에서 다룬 근거의 제시 순서가 논의되고 있다.
- ④ ㉠에서는 ㉡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 ⑤ ㉠에서는 ㉡의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4. [A]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3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학생 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⑤ 학생 3은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 사회자가 ㉤에 따라 연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관련 법 조항을 들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설을 시작할 때 주제와 관련된 시 작품을 활용해야겠어.
- ③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론 보도 사례를 활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④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자 관련 통계 자료를 인용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예상되는 미래 농업의 모습을 제시해야겠어. ㉠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농업에 도입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해 언급해야겠어. ㉢
-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 통신 기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해야겠어. ㉣
-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해야겠어. ㉤

<초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인류의 운명과 함께할 산업은 무엇일까? 신석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다. 이제 농업은 정보 통신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 기상과 병충해 같은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져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기를 때 기상 상태나 병충해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계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실제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농사를 지은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사례도 있다.

[B] 재배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여 최적화된 정보에 따라 재배 환경을 조절하고 자동 재배 시설을 제어하는 기술이 도입되면 실내에서의 대규모 농업도 가능해진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 농작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이 완비된 식물 공장이 확산되면 농업은 이전과 달리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식물 공장을 고층 건물 형태로 지으면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도심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도 대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농업과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6.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과수원 농사를 짓는 ㉦○○농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생산량은 25% 이상 향상되었고, 운영비는 10% 이상 줄어들었다. ... (중략) ... 기상 관련 정보가 축적될수록 ㉧가뭄 피해, 수해, 냉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업신문」 -
- 도시에서 농작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식물 공장이 ㉨미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식물 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의 토지 이용 효율이 높다. 둘째, 환경 조절 장치를 통해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 - 과학 잡지 「△△△」 -

- ① ㉦의 정보를 이용하여 [A]에서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로 제시하였다.
- ② ㉧의 현상을 포괄하여 [A]에서 생산량의 예측과 조절이 어려웠던 원인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③ ㉨의 규모를 예측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 ④ ㉨의 실현 가능한 모습을 구체화하여 [B]에서 식물 공장의 형태에 대한 정보로 제시하였다.
- ⑤ ㉨의 요소들을 찾아 [B]에서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8. <보기>는 초고를 읽은 편집부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편집부의 검토 의견]
 초고 잘 읽었습니다. ([가])을 고려하여 마지막 문단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쓴 글]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이 농업에 도입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도시의 고층 건물에서도 대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 농업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수식 관계가 어긋나는 문장, 정보 통신 기술 적용의 확장 가능성
- ②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정보 통신 기술 적용의 확장 가능성
- ③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
- ④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
- ⑤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 전통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9~10] (가)와 (나)는 동일한 작문 과제를 수행한 두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를 바탕으로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한 글을 써 보자.

<자료>

소리는 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듯 북장단으로 소리를 이끌고 추임새로 흥을 돋우어 주는 북재비가 없다면 제 목소리는 무용지물이지요. 일단 판소리가 시작되면 북재비인 △△△ 씨와 저는 완벽한 호흡으로 공연을 완성해 나간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수많은 연습을 통해 호흡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 ○○○ 명창과의 인터뷰 -

(가)

소리꾼과 북재비의 판소리 공연 모습에서 내가 상담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다. 선생님께서는 마치 북재비의 역할을 하듯 나를 북돋워 주신다. 내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내 말에 맞장구를 쳐 주심으로써 속 깊은 이야기를 마음껏 꺼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A]

그런데 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해 부끄럽다. 친동생을 대할 때 그의 말을 잘 들어 주고 스스로 마음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기보다는 동생의 생각을 지레짐작하고 내 잣대를 내세워 입바른 소리부터 한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대화는커녕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지어 다투게 될 때도 있다. 늘 후회하면서도 말이다.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들어 주고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나)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통해 공연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교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마치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B]

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내 마음을 닫아 버릴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 물론 처음부터 마음이 통하는 친구 사이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9. [A], [B]를 통해 두 학생의 작문 수행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의 내용을 [A]에서는 상담 경험과, [B]에서는 독서 경험과 관련지었다.
- ②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를 [A]에서는 가족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B]에서는 친구와의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였다.
- ③ [A]에서는 ‘북재비’의 역할에, [B]에서는 ‘소리꾼’과 ‘북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주목하였다.
- ④ [A]와 [B] 모두 자료에서 이끌어 낸 의미와 관련하여 자신을 반성하였다.
- ⑤ [A]와 [B] 모두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10.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할 것.

- ① 좋은 친구는 어둠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다. 내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길을 찾아 나서는 데 빛이 되기 때문이다.
- ②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③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 주는 열쇠이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교감해 나간다면 대면대면하던 사이도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 ④ 서로 잘 이해하는 사이라고 해서 오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 ⑤ 좋은 친구 사이가 되는 데에 지름길은 없다. 선불리 내가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친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올 것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1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겠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겠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겠군.

13.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영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
 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간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 습니다.
↓	
직접 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 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	
간접 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① | 오늘 | 있으라고 | 자기의 | 남기라고 |
| ② | 어제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③ | 오늘 | 있으라고 | 나의 | 남겨라고 |
| ④ | 오늘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⑤ | 어제 | 계시라고 | 나의 | 남기라고 |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하늘 벼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왕이 부터를 講흐스^ㅅ보^ㅅ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물 아라보리로^ㅅ소^ㅅ니^ㅅ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를 위하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물 미퉈 金물^ㅅ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다.
- ② (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이 쓰였다.
- ③ (다):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쓰였다.
- ⑤ (마):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스리
 밤등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호노라 <1수>
- (나) 셋그래 기나 즈르나 기동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니 거신가 호노라 <8수>
-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재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논고 <17수>
- (라) 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긋지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호노라 <18수>
- (마) 창(窓)밖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러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호노라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 * 수간모옥: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 만산 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 부용 당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 혜란 혜경: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는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나)의 ‘만산 나월’은 ㉞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다)의 ‘봄빛’은 ㉞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 ⑤ (라)의 ‘부용 당반’은 ㉞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18. (마)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님만 너져 풀썩 니러나 썩썩 나서 보니
 님은 아니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헌디 벽오동(碧梧桐)저즌 님히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느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적 깃 다듬는 그림자 | 로다
 모쳐로 밤일시만정 행여 낮이런들 늬 우일 번혀여라
 - 작자 미상 -

- ①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②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군.
- ③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이 확인되고 있군.
- ④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군.
- ⑤ (마)의 중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중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 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꽂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뽑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 DIS* -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응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진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진 흙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비켰!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닥쳤! 이진 부정을 탕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 DIS -

-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

*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피땀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려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못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이기던 웁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 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 조마구와 부채마치: 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 전: 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① ‘아냐! 이진 독이 아냐!’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③ ‘매섭게 보다가 험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④ ‘폴짝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 ② ㉡: ‘웁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애’가 언제나처럼 ‘웁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의 탁월한 건축미를 보여 주는 판테온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반구형의 지붕인 돔은 오직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로마인들은 콘크리트의 골재 배합을 달리하면서 돔의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여 지붕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돔 지붕이 지름 45m 남짓의 넓은 원형 내부 공간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붕의 중앙에는 지름 9m가 넘는 ㉡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이 내부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섞어 물로 반죽한 혼합물이다. 콘크리트에서 결합재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물과 만나면 ㉢ 점성을 띠는 상태가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화 반응이 일어나 골재, 물, 시멘트가 결합하면서 굳어진다.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은 상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좋다.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부어 경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골재는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밀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재들 간의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건축은 구조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형태 면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지만 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진다. 압축력이나 인장력에 재료가 부서지지 않고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최대의 힘을 각각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또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줄어드는 길이는 인장력을 가했을 때 최대한 늘어나는 길이보다 훨씬 길다. 그런데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 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따라서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어 대부분의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하면 인장력에 취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다만 철근은 무겁고 비싸기 때문에, 대개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그 지점을 ㉣ 위주로 철근을 보강한다. 또한 가해진 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재료가 변형되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포아송 비이다. 철재는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며, 대체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는 0.15 정도이다.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대형 공간을 축조하고 기둥의 간격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건축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예술적 ㉤ 영감을 줄 수 있는 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는 신념을 가졌던

르 코르뷔지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을 사보아 주택에서 완벽히 구현하였다. 사보아 주택은, 벽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층 거실을 둘러싼 벽에는 수평으로 긴 창이 나 있고, 건축가가 ‘건축적 산책로’라고 이름 붙인 경사로는 지상의 출입구에서 2층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테라스로 나와 지붕까지 연결된다. 목욕실 지붕에 설치된 작은 천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면 이 주택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진 또 다른 소우주임을 느낄 수 있다. 평평하고 넓은 지붕에는 정원이 조성되어, 여기서 산책하다 보면 대지를 바다 삼아 항해하는 기선의 갑판에 서 있는 듯하다.

철근 콘크리트는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계속되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이 제작된다. 먼저, 거푸집에 철근을 넣고 철근을 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붓는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들면서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 사이를 30m 이상 벌리고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 이 간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였기에 구현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다. 이 구조로 이루어진 긴 지붕의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넓은 실내를 환하게 채우며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부를 대리석처럼 빛나게 한다.

이처럼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는 언제나 새로운 건축 미학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특히 근대 이후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유기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축 재료의 특성과 발전을 서술하면서 각 건축물들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건축 재료의 특성에 기초하여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건축 재료의 기원을 검토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의 미학적 특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④ 건축 재료의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 재료와 건축물들의 경제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 ⑤ 건축물들의 특징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원인을 제시하고 건축 재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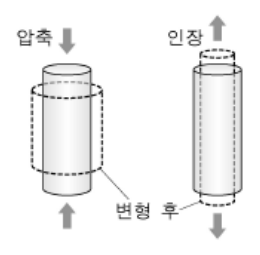
- ① 판테온의 돔에서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 ②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 ③ 킴벨 미술관은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넓고 개방된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다.
- ④ 판테온과 사보아 주택은 모두 천장을 두어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사보아 주택과 킴벨 미술관은 모두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재보다 크다.
- ② 일반적으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재로 사용할 때는 압축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넣는다.
- ③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는 철근의 인장력으로 높은 강도를 얻게 되어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이 복원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줌으로써 인장 강도를 높인 것이다.
- 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는 크기가 다양한 자갈을 사용하는 것보다 균일한 크기의 자갈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A와 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 B에 힘을 가하며 변형을 관찰하였다. A와 B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줄어들면서 지름은 늘어났다. 또, A의 윗면과 아랫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했더니 높이가 늘어나면서 지름이 줄어들었다.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하였더니, 일반적으로 알려진 철재와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와 동일하게 나왔다. 그리고 A와 B의 포아송 비는 변형 정도에 상관없이 그 값이 변하지 않았다. (단, 힘을 가하기 전 A의 지름과 높이는 B와 동일하다.)

- ① 동일한 압축력을 가했다면 B는 A보다 높이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 ② A에 인장력을 가했다면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컸을 것이다.
- ③ B에 압축력을 가했다면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은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보다 작았을 것이다.
- ④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B의 지름이 A의 지름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다.
-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았다면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29. 윗글과 <보기>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닌 건축 재료로, 규격화된 직선의 형태로 제작된다.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화되어 녹이 슨다는 단점이 있어 내식성 페인트를 칠하거나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등 산화 방지 조치를 하여 사용한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의 기술적 장점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다. 거대한 평면 지붕은 여덟 개의 십자형 철골 기둥만이 떠받치고 있고, 지붕과 지면 사이에는 가벼운 유리벽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최소한의 설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천장에 닿아 있지 않고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준다. 미술관 내부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속에서 개방감을 느끼게 된다.

- ①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기둥에는 산화 방지 조치가 되어 있겠군.
- ②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세우려 할 때는 대체로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겠군.
- ③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을, 킴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구현하였겠군.
- ④ 가는 기둥들이 넓은 간격으로 늘어선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재료로는 철골보다 철근 콘크리트가 더 적합하겠군.
- 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의 지붕과 사보아 주택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벽이 아닌 기둥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30. ㉠~㉣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행복은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다.
- ② ㉡: 이 건축물은 후대 미술관의 원형이 되었다.
- ③ ㉢: 이 물질은 점성 때문에 끈적끈적한 느낌을 준다.
- ④ ㉣: 그녀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
- ⑤ ㉤: 그의 발명품은 형의 조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caloric)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 ㉠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증기 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였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 다루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 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이 높이 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1840년대에 줄(Joule)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calorie)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였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톰슨은 ㉢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낳았다.

3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 ② 수력 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는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 ③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 ④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본다.
-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되었다.

32. 윗글로 볼 때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라는 점
- ②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 ③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 ④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이 맞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 ⑤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 방출할 때의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점

3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A)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B)을 측정하여 $\frac{B}{A}$ 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①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하다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 ②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의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다
- ③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 ④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커진다
- ⑤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34. 윗글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
- ② ㉡: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 ③ ㉢: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④ ㉣: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 ⑤ ㉤: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 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社團)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法人)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 사원 개인에게까지 ㉢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일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으로 둔다. 또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 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권리 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이어 이를 받아들인다.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 ②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한다.
- ③ 법인격을 얻은 사단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 ⑤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사단이다.

36. 윗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② 일인 주식회사는 대표 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 ③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한다.
- ④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총회가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이다.
- ⑤ 여러 주주들이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일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없다.

37. ㉠~㉥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법인에 속해 있지만 법인격과는 구별되는 존재
- ② ㉡: 사단이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
- ③ ㉢: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
- ④ ㉣: 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실체로서 운영되지 않는 경영
- ⑤ ㉥: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태

38.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장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③ 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받아들여 그 회사의 법인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 ④ 법원이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대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론의 의의이다.
- ⑤ 특정한 거래 관계에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3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겸비(兼備)하면 ② 구비(具備)하면 ③ 대비(對備)하면
- ④ 예비(豫備)하면 ⑤ 정비(整備)하면

[40~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다.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는 내면성이다.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셋째는 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다.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조신」, 「김현감호」, 「최치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띤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

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합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되었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이원적 공간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

(나)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이로우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임금이 우선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녀가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 속에서 나와, “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일러 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 -

(다)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橫厄)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나.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 속절없

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모든 가산은 어떻게 되었소?”라고 물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그럼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 되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았고, 피란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길흉사에도 가 보지 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던,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오열하였다.

(중략)

“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어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장례 지낸다.’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계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40. (가)에서 설명한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전기소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 ② 전기와 전기소설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전형성을 보여 주었다.
- ③ 전기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하였다.
- ④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하면서도 서사적 독자성을 지향했다.
- ⑤ 전기소설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가려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나)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② (나)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A]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
- ③ (나)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A]의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 ④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
- ⑤ (나)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A]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43. ㉠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김현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
- ② 매우 ‘사나운 범’이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의 경이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은 김현과 범 사이의 긴장감이 해소됨을 보여 준다.
- ④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⑤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낸다.

44. (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낭이 ‘황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짜 잃은 새’로 표현하는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군.
- ③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군.
- ④ 최낭이 이생에게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알 수 있군.
- ⑤ 최낭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군.

45. (다)에서 구현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② 능동적 여인상은 최낭의 ‘환신’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③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리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④ 이원적 공간 구도는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따라 ‘황천’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⑤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는 것은 이생과 최낭이 ‘시를 지어 주고받’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겸재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정선의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팔경’은 관동 지방을 소재로 한 여덟 점의 산수화로 정선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난다고 평가받습니다. 산수화 연구가에 따르면, 산수화 중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산수화의 ‘환’이라고 합니다.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 생략이나 변형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취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습니다. ‘관동팔경’의 산수화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굽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경 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인데요, 이들은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점경 인물을 정선이 산수화에 형상화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관동팔경’의 작품 중 <낙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이 점들이 보이시나요? (대답을 기다린 후) 네, 잘 안 보이시죠.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이렇게 정선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제 발표가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한 서적들을 열거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마무리해야지.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선의 산수화의 특징]

- 정선의 산수화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인 ‘환’이 실현되었음. ㉠
- 정선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킴. ㉡

[‘관동팔경’의 산수화들]

- <총석정>에서는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함. ㉢
- <삼일포>에서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드러냄. ㉣
- <낙산사>에서는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A]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B]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 1: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하지 않음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의 문제점을 ㉡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을 지지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이 ㉠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 주제: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 촉구
- 글의 구성
 - 1문단: 새로운 광고 기법의 등장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2문단: 검색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3문단: 기사형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4문단: ㉠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A]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를 들 수 있다. 검색 광고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이다.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이용자들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광고 기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들 수 있다.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던 기존 광고와 달리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말한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 자료 인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B]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정보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말미에 ‘글 ○○○ 기자’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를 접할 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 기법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

6.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 회피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함을 제시해야겠어.
- ㉡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 예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상 독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7.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 기사형 광고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

○○ 대학에서는 최근 물과 장수의 관계를 밝힌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그 지역에서 나는 물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다른 지역 물에 비해 장수 마을의 물은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샘물은 미네랄의 함량이 국내 최장수 마을의 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물은 상품화되어 11월 2일 출시된다.

제품 용량 500 ml, 1,000원

- ①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샘물’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독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글 ○○○ 기자’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8.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한다. 따라서 기업은 매체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 ② 광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주체적으로 광고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 ③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매체의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④ 검색 대상과 제품이 달라 매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광고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⑤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 떠었다.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라진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 싹도 생명력을 뿜내며 ㉢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춤추며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뎠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생각해 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발길과 추운 겨울도 잔디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도 저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잔디를 보면서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꼭 ㉤ 이루리라 다짐했다.

9. 초고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연상을 이끌어 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잔디가 밟혀 난 길을 관찰하며 밟혀 사라진 잔디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 ② 잔디가 밟혀 난 길 위에 잔디 싹이 돋은 것을 관찰하며 잔디가 지닌 생명력을 떠올렸다.
- ③ 잔디밭에 함께 모여 자라는 잔디를 관찰하며 잔디가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뎠 온 것에 대견함을 느꼈다.
- ④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을 떠올렸다.
- ⑤ 바짝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바짝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어려움'로 고쳐야겠어.
- ②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떠었다'로 고쳐야겠어.
- ③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푸르지만'으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또한'으로 고쳐야겠어.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꿈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u>낮은</u>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힘든 만큼 기쁨이 <u>큰</u>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u>넓게</u> 벌렸다.	도로 폭이 <u>넓어서</u> 좋다.
④	내 <u>좁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⑤	<u>작은</u>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u>작다</u> .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 [안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ㅁㅅㅁ 여러
[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 [중세 국어] 自然히 ㅁㅅㅁ 여러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믄 흐터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홀어

[중세 국어] 散心은 흐튼 ㅁㅅㅁ라
[현대 국어] 산심은 홀어진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떡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떡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꿰었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꿰었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분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밑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밑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② 다다른다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⑤ 기인한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완데 장부의 마음을 둔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느니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 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즐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피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기술이 있는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피셔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덕은…… 우린 애아범이 그래 와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와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량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여 있었던지 용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덕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쳐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꿇주린 이리**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덕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푹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중략)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엿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

21.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2.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 봅시다.

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다시 말 말라.” 하시고,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항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용골대가 송과장에 걸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획과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겠군.
- ②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불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으려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2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4.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굶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맥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26.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면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낱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저 낱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
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
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함이정: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듩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
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
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
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시다.

함묘진: 밖에는 왜?

동연: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송구스럽습시다…….

함묘진: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
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편 구름이……. 구름 [B] 뒤편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물부처요?

서연: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다!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표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살아간다.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속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혐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33.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혐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 ③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 ④ 반추 동물의 과도한 혐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 ⑤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성장한다.

34. 윗글로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성장하지 못하겠군.
- ② ㉠과 ㉡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 ③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은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 ④ ㉡와 ㉢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 산물을 배출하겠군.
- 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하고 ㉢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혐유소와 비혐유소는 반추위에서 (㉡), 이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 ①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②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③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반추 동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 ④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 ⑤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36.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40. 밑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 이편저편 화류교의(樵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창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B]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복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썸하러 주주리는 지저권다
 ㉣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둔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구고두: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상마연: 일을 마치고 떠나가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서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복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 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 진로 시간에 우리 학급은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연을 들어 잘 알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훼손이 심각하여 현실의 공간에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못한 적이 있지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간접적이지만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 체험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 본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학교와 가까운 ○○ 박물관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시대 한양 도성 체험전’이 다음 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양 도성을 저와 함께 걸어 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 ④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문화유산 훼손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지역
 - 학교 가까운 곳에 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해야겠다. …… ①
- 사전 지식
 -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문화유산 복원을 디지털 기술과 관련지어 설명해야겠다. …… ②
 -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용어가 낯설 테니,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③
- 요구
 -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야겠다. …… ④
- 관심사
 -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으니,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해야겠다. …… 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이 유형 문화유산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한옥을 짓는 기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 건가요?
- ② 얼마나 훼손되어야 현실 공간에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복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문화유산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④ 문화유산의 복원을 과학 기술의 차원에서만 다룬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4~7]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 1 :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 ㉠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은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드리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 ㉣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는데요, ㉤ 이를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가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명가 :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2 :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1.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 쓰기
2.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탔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니?

학생 1 : 선배님은 _____ ㉠ _____

- ① 발명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지. 나도 발명 도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②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보라고 하셨지. 나는 개선이 필요한 주변 사물의 문제점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③ 모형의 각 단계를 양념 담는 통으로 설명하셨지. 나는 다른 물건을 이용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④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셨지. 나도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내용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 ⑤ 발명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지. 나도 창출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물건을 제작, 완성하는 과정을 글에 포함해야겠어.

6. 다음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설명문의 끝부분을 쓸 때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의미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 ①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물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②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인지,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 단계 이후에는 체험 단계 이전에 학습한 발명 기법을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 ③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주변의 사물들 중에서 발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체험 단계, 인지 단계, 발명 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 모형의 단계를 따라 하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⑤ 이처럼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떠올리는 체험 단계,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지 단계,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발명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만드는 적용 단계가 있다.

7. (나)에 대한 '학생 2'의 상호 평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의 평가 내용

잘한 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심 화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①
	글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문단의 앞부분에 순서를 알려 주는 표지를 사용한 점 ②
수정할 점	2문단에서 표현이 어색한 문장을 사용한 점 ③
	3문단에서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떨어뜨린 점 ④
	4문단에서 앞뒤 문장의 위치를 잘못 배열하여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기고한 학생의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후 다른 학생이 같은 신문에 기고한 반박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학교는 내년도 학사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현행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여름방학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여름방학은 1학기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 2학기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여유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여름방학 기간에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외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개학 이후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셋째, 학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일이 2주 이상 걸리는 경우 방학을 활용한다. 그런데 여름방학 기간이 단축되면 학교 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생활이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나)

학교 신문에 여름방학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글이 실린 후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그 글에서 제시한 근거들을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히려 학기 중보다 학습 부담이 커져서 여름방학 기간에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2주로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도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오랜 시일이 필요한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시급한 공사의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지난 학기 중 특별실 보수 공사를 하였지만 불편 없이 진행되었다.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업 공백이 줄어들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겨울방학 시작을 앞당길 수 있어 학년 말의 비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은 수업의 연속성 확보와 학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려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8. <보기>는 (가)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가)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ㄴ.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
 ㄷ.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ㄹ.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까?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나)에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 ①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 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 ② 여름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 ③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④ 학기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 ⑤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안을 제시한다.

10. (가)를 쓴 학생이 (나)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A]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교 시설 공사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의 인터뷰를, 학기 중 공사가 불편 없이 진행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②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험 학습 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을, 학기 중에도 체험 학습 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③ 학기 중보다 여름방학 기간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한다는 신문 기사를, 여름방학 기간을 유지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④ 여름방학 기간을 단축했지만 학년 말 학사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던 다른 학교 사례를, 여름방학 기간 단축이 학사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 ⑤ 여름방학 기간이 2주, 4주인 두 학교 학생들이 지난 학기의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여름방학 기간과 학습 연속성이 관련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해야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 [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차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썰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3.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담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교[흐카교]'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영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물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힘 일후미라(일흙+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거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보기 2>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학은 ①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묘'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들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현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 과급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다. 먼저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 하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 금리를 인하한다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 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다. 그런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 이제 경기를 ㉥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 이 비밀관성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는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에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준칙주의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큰 경제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정해 둔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2.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②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통화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기간	1/1~3/31	4/1~6/30	7/1~9/30
	1분기	2분기	3분기
물가 상승률	2%	3%	3%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 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학자 병의 고려 사항]

기준 금리가 4%로부터 1.5%p*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 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p만큼 달라지며, 기준 금리 조정과 공개 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이며 기준 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다.

* %p는 퍼센트 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1%에서 2%로 변화하면 이는 1%p 상승한 것이다.

- 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2.5%로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상해야 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4%로 유지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5.5%로 인상해야 한다.
- ④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는 이를 4%로 인하해야 한다.
- ⑤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4월 1일에도 이를 5.5%로 유지해야 한다.

24. 밑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느라 경제 변동에 신속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에서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과 달리, 통화 정책에서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⑤ ㉡에서는 ㉠과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25.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의 노력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 ② ㉡: 의병 활동은 민중의 애국 애족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 ③ ㉢: 이 질병은 구토와 두통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④ ㉠: 기온과 습도가 높은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⑤ ㉢: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머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 부연(附椽): 긴 서까래 끝에 덧없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 호장: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갈 있는 형겼으로 꾸민 것.
 * 초마: '치마'의 방언.

26.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28.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겉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어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뽕 뽕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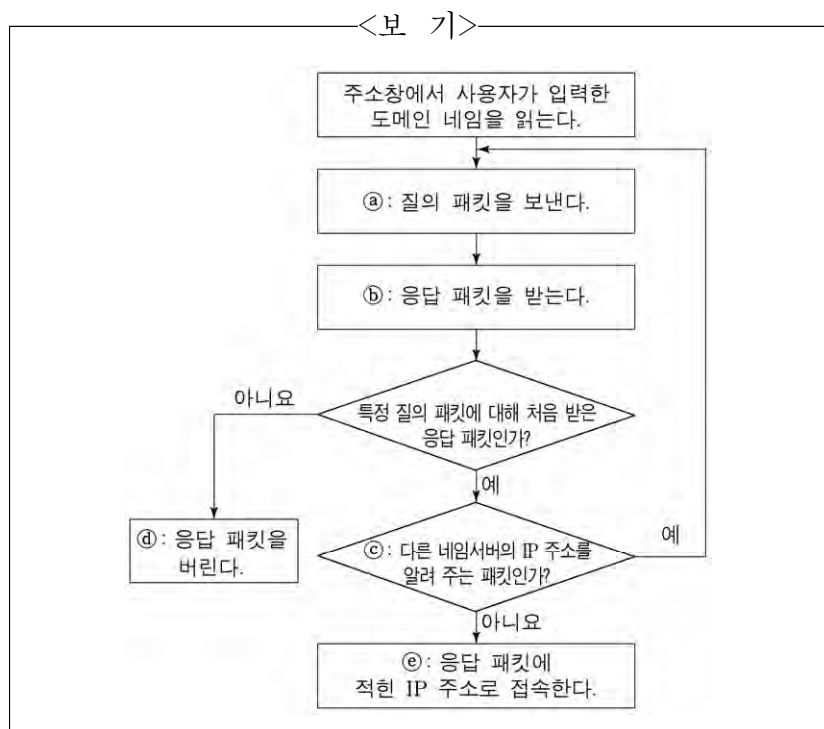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네임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간다.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

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30.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 ②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된다.
- ③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
- ⑤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31. <보기>는 ㉔ 또는 ㉕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㉔: ㉔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하다.
- ② ㉕: ㉕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도 동일하다.
- ③ ㉔: ㉔는 ㉔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 ④ ㉕: ㉕의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내 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⑤ ㉕: ㉕의 IP 주소는 ㉔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이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 ②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 ③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 ④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

33.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hosts’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네임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질의 패킷을 보내기 전에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되겠군.
- ②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 ③ 클라이언트에 hosts 파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 ④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 ⑤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34. 문맥상 ㉑~㉓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제조(製造)되는
- ② ㉒: 표시(標示)한다
- ③ ㉓: 발생(發生)된
- ④ ㉔: 인정(認定)한
- ⑤ ㉕: 비교(比較)해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잇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
 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
 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
 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
 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
 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A]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협
 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
 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
 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
 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
 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B]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
 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옥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
 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
 삼경의 추풍은 샅샅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
 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과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칩칩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
 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문득 ㉠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
 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
 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촉나라 땅이
 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 오작(烏
 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짙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
 라. 먹으니 배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
 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
 으니 그중에 ㉢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 소리 처량하여
 산천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벗을 삼아 심회를
 덜며 일본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 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
 고 수파는 고요한데, ㉤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
 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
 자 죽림 암상에 비껴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 협의: 꺼리고 미워함.
 * 곤액: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 사형: 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단저: 짧은 피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회룡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 는 그 **고무신 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 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 짝은 대문 앞의 멧대 가 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 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 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 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희끄무레한 남자 고무신 짝을 끄 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뺨**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그 며칠 뒤, 정확하게 열흘쯤 지나서였다.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던 아내가,

“아빠아, 눈 왔다이, 눈 왔어어.”

호들갑을 떨듯이 소리를 질러서, 나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의 바람으로 달려 나갔다.

아내는 뜰 한가운데 파자마 바람으로 싱글벙글 웃고 서 있었다.

수북하게 눈이 와 있었다. 게다가 하늘은 활짝 개고 해는 금방 떠오를 모양이었다.

“밤새 왔던 모양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연하지.”

“아이, 야박스리. 좀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주면 어때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거든.”

“흥, 이치 좋아하시네.”

하며 아내는 입을 비시시 웃고 눈은 알뜰하게 나를 흘겨보듯 하더니, 다시 **장난스러운 표정**이 되며 물었다.

“하늘에 갑복 구름이 차 있다가,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이렇게 온 하늘이 깨끗이 개어 오르려면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아요?”

나는 잠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뚱하게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건 하늘 나름일 테지.”

“하늘 나름이라뇨?”

“넓은 하늘도 있고 좁은 하늘도 있지 않겠어. 그건 어쨌든, 당신은? 당신은 아나?”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낭랑한 목소리로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랑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저 웃음이도록 해 주고 있는 이 활짝 개어 오른 눈 내린 겨울 아침.

그러나 무엇인가 빠져 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지워 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개어 오를 때는 대개 바람이 불면서 스름스름 걷히는데,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하늘은 활짝 개어 있곤 하는 것이다. 선들바람이 지나가면서 두꺼운 하늘 한복판에 파이란 구멍 하나가 깊숙하게 뿜 뚫렸다 싶으면 스름스름 구름이 날아간다.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온 하늘은 끝까지 활짝 개어 있곤 한다. 그렇다, 늘 ‘어느새’다. ‘어느새’라는 낱말 하나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간단히 처리 안 될 수도 없게 그렇게 ‘어느새’다. 하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개어 오르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본 사람이 있을까. 온 하늘의 구름 조각 하나하나가 한꺼번에 스러져 가는 것을 완전히 본 사람이 있을까. 설령 보았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온 하늘이 활짝 개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눈이 내려서, 게다가 하늘이 개어 올라서 아내는 저렇게도 단순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눈을 밟으며 사뿐사뿐 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 그러더니 뜰 끝에서 멈춰 섰다. 일순 여들여들하게 유연하던 아내의 뒷등이 무언가 현실적인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었다.

“어마, 저게 뭐유?”

헛간 쪽의 블록 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보았다.

“뭔데?”

나도 가슴이 철렁해지며 문득 열흘쯤 전의 그 일이 떠올라 그쪽으로 급하게 다가갔다.

동시에 좀 전의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대뜸 우리 둘 사이에서 음산한 분위기로 둔갑을 하고 있었다.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그 고무신짝.”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혈떡거리듯 하였다. 맞다. 고무신짝이었다. 그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짝**.

“.....”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찌영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그것이 또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 이호철, 「큰 산」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0.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낱이 되살리려 애쓴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곤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호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랏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문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읍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밭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별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5.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공’하다가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g) 총 ○○회 제공량(○○g)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열량	○○○kcal	
탄수화물	○○g	○○%
당류	○○g	○○%
단백질	○○g	○○%
지방	○○g	○○%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나트륨	○○mg	○○%

*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개정 후 표시 도안>

영양 정보		총 내용량 ○○g
		○○○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mg	○○%
탄수화물	○○g	○○%
당류	○○g	○○%
지방	○○g	○○%
트랜스지방	○○g	○○%
포화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단백질	○○g	○○%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4~7] (가)는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

2017년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래 상담 요원을 모집합니다. 또래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대상: △△구 지역 내 고등학생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가)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참여한 공부방 봉사 활동은 상담에서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인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제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혹시 공부 외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후 수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방 봉사 활동은 물론, 상담을 할 때에도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또래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상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저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또래 상담 요원 역시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힘은 또래 친구가 전해 주는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또래 상담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면접 대상자: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입니다.

면접자: 안녕하세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접자: 다양한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면접 대상자: 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또래 상담은 생각의 눈높이가 맞는 또래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A]

면접자: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 네.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며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B]

면접자: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상담에서 말하는 '래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면접 대상자: 래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접자: 네. 맞습니다.

면접 대상자: 래포란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래포는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래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 이번에는 상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래 친구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져 부모님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C]

면접 대상자: 먼저 또래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며 상담을 하겠습니다.

4.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기소개서에는 ㉠ 지원 동기, ㉡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 ㉢ 성격의 장단점, ㉣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 ㉤ 지원자의 다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5.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여 지원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9.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건의문의 끝 부분에는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건의 주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 ① 수요 조사에 따른 버스 운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시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② A 단지 학생들이 겪는 등굣길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 단지 학생들의 아침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A 단지 학생들의 등굣길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여유롭게 등교할 수 있게 되어 A 단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④ 학생들의 자가용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A 단지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가) 인터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돌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야 되고, 종종 아침밥도 못 먹고 갈 때가 있어요.”

- □□고등학교 학생 -

(나) ‘A 단지’ 고등학생들의 등교 수단 이용률

등교 수단 조사 시점	자가용	시내버스	기타
2016년 6월	25.2%	66.7%	8.1%
2016년 12월	44.4%	47.8%	7.8%
2017년 6월	53.2%	38.5%	8.3%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

(다) 신문 기사

△△시가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행하였다. 등교 급행 노선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40분대 통학 시간을 20분대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증가하였다.

- ①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군.
- ②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군.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습니다.

학생 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11. <보기>의 ㄱ~ㅍ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고마워. ㉠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므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끓으며 늪음이 있느냐?]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마를'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16~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포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포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롬프뢰유*의 흐름을 ㉤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롬프뢰유(trompe-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16.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롬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포에 해당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18.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가다.

한밤에 ㉡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긔 차고 넘치노나.

쫄그리고 앓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묵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 궁거워: 궁금하여.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 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갈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건너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23~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 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눔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대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구!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대 이눔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여보 김 첩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그대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리 낱 아느냐? 이눔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나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음 이눔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눔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김 첩지! 글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눔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 서야! 음!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글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에헴.

최 노인: 아 ㉤ 김 첩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어머니: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췌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이눔아! ㉥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뭇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집니까?

최 노인: 네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예? 전세라구요?

㉦ (어머니와 경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눔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최 노인: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글썽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플보드’이라든가……
 경운: ‘샤플보드’ 말씀이세요?
 최 노인: 그래 ‘샤플보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가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이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썽 다 되어 간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뭐가 괜히야?
 경운: ㉡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별도 안 드는 집이 뭣이 된단 말이야! 뭣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탐 짓밟고 뽀아 헤친다.)
 어머니: ㉢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 샤플보드(shuffleboard): 오락의 한 종류.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등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최 노인’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경재’의 말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호칭을 달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 노인’의 노력이 드러나 있다.
- ④ ㉡: 두 인물이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다급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5. <보기>와 ㉠~㉢을 관련지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차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 변모되기도 한다.

- ① ‘경재’는 ㉠을 통해 ‘최 노인’이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드러내는군.
- ② ‘복덕방’은 ㉡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과의 흥정을 중지하게 되는군.
- ③ ‘경수’는 ㉢를 통해 ‘최 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최 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군.
- ④ ‘최 노인’은 ㉠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군.
- ⑤ ‘최 노인’은 ㉡를 통해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운’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군.

26.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② 중심인물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④ 중심인물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여 허망해하는 중심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27~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 역학에 ㉠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 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근본적인 의문을 ㉤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 들어맞는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 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그렇다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그는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진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진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진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진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진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진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진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진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LP: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27.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을 관찰하고 있으므로 달이 존재한다.
- ② 달은 질량이 매우 큰 거시 세계의 물체이므로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 ③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 ④ 달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 ⑤ 달이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므로 관찰 이후에 달이 있을 가능성은 반이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ⁿ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하지만 공존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①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 ②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6배 빠르다.
- ③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 ④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 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여섯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29.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 ②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③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④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 ⑤ 비고전 논리에서는 모든 자기 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30. 윗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아래의 (ㄱ)~(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ㄱ)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ㄴ)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와 배타적인 상태에 있다.
 (ㄷ) 반지름 5cm의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ㄹ) 반지름 5cm의 팽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단, (ㄱ)과 (ㄴ)의 전자 e는 동일한 전자이고 (ㄷ)과 (ㄹ)의 팽이는 동일한 팽이이다.)

- ① A는 (ㄱ)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B는 (ㄱ)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ㄴ)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③ A와 B는 모두 (ㄷ)이 ‘참’일 때 (ㄹ)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A는 B와 달리 (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⑤ B는 A와 달리 (ㄹ)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32.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거(依據)하면 ② ㉡: 인지(認知)하게
- ③ ㉢: 소지(所持)하게 ④ ㉣: 제기(提起)한다
- ⑤ ㉤: 부합(符合)한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 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패소시키 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 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 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외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 판결문을 모두 덧붙태어 푹푹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억만가호마다 걸식 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빌어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 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錚)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넋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꼬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둘러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 박랑사: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잡을 데 없으시면 ㉠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B]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라
날 두고 가겠으면 ㉡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라
이리 한참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놔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푹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제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시오
나도 ㉤ 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 증삼: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따뜻하고 좋은 봄절.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격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울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격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여하고 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올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겠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겠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 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겠군.
- ④ [B]에서 '못 가지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겠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38~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의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è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38.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39.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 ②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④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 ⑤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40.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 ②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④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⑤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41.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 ②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42.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닳투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

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똬이라고 그러시끄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와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옴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중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맑은 유난히 썰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마나 공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뭣 하러 나다니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대?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뿔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단 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충충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썄 그게 아니예요.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에 그는 손가락을 놓고 곧장 건너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꿈쩍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악 일어서려 할 때였다.

㉠ 찬우야!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 찬우야.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 누그 아버지랑 찬세가 언제나 기다리겠냐.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른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 ②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④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 ⑤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찟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① ㉠에서 ‘어머니’가 냇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② ㉡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③ ㉢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 ④ ㉣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찟함을 느끼게 하는군.
- ⑤ ㉣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팔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두 가지씩 준비한 겁니다.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아침, 저녁의 수라상까지 합해 왕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한 셈입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어떤 상궁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상궁은 왕에게 생선을 발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울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 음식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어.
 - ③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왕이 식사한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수라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낮것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⑤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제시하였다.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자 1: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 2: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의 상궁 중 한 명이 기미 상궁이겠군.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 3: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했는 것일 거야.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 ①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갈등한다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현지: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민호: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B]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4.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①

2문단
○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②
○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③

3문단
○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④
○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⑤

7.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한 경제학자는 ㉠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 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①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② ㉡를 활용하여,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③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 관계 형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 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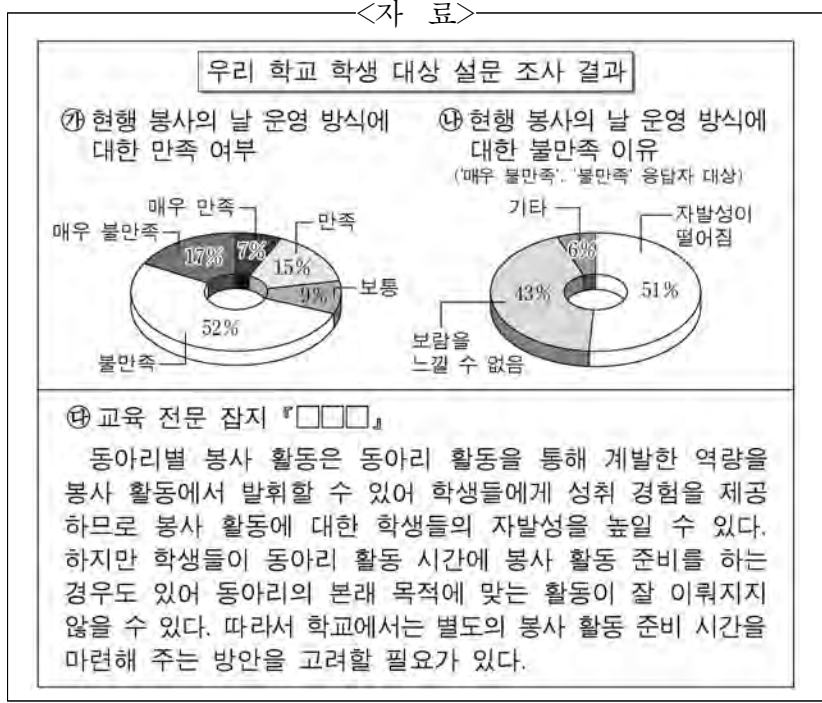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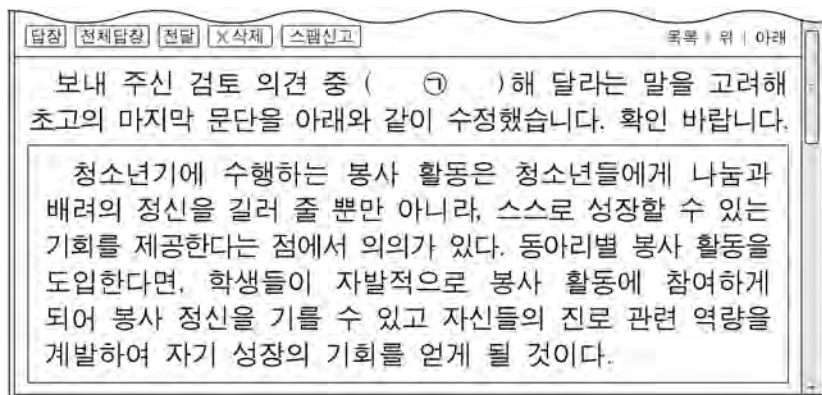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㉙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㉗과 ㉘를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㉘와 ㉙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
 • 놋된 누구(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흙일 → [홍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정 전	개정 후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뱀 [김 : 뱀] ㉡ ……	김-뱀 [김 : 뱀/김 : 뱀] ㉡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작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두 이론을 소개하고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시대순으로 제시하여 그 이론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윗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 ②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때로는 그 자연물에 해가 된다.
-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
- ④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 ③ 베이컨과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다.
- ⑤ 스피노자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생물학자 마이어는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창발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겠군.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물질론에 동의하겠군.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인정하겠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볼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뎀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A] 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건넌던 ㉠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신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㉞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장강: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여: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순임금의 두 왕비인 이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2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 ②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왔다.
- ③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 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 ④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 씨’를 의심했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24.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 ②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 ③ ㉢: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물건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 ‘사 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 사전에 준비한 수단으로, ‘사 씨’가 두 왕비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 ⑤ ㉞: ‘유 한림’이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이다.

25.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
- ②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 ③ ㉠와 ㉡에는 모두 꿈을 꾸는 주체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 ④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는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에는 ㉠에서와 달리, 꿈을 꾸는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8세기의 선비인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사씨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라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 ①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유 한림의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용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겠군.
- ⑤ 유 한림에게 갖은 고초를 줄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달은 데서, 그 이야기를 맹랑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④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①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②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③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④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⑤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⑥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⑦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⑧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⑨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28. ㉠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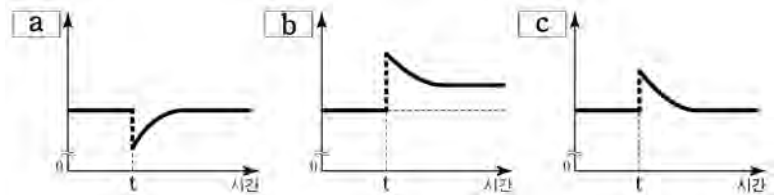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단, t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떨어져 ② ㉡: 드러낼
- ③ ㉢: 불러온다 ④ ㉣: 되돌아오면서
- ⑤ ㉤: 꺾히는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호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뒤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슬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흔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廐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호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호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요양: 청나라의 십양.
- *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십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 박제상: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 참승홀: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 성려: 임금의 염려.
- * 검불: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돋어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뾰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清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 [A] 잎이 뽀뽀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 * 간죽하수문주인: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 두실 와옥: 몹시 작고 누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학자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 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전압의 ㉤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 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 ②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 ③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 정보이다.
- ④ 영상을 전송할 때는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소스 부호화는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39. 밑글을 바탕으로, 2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 집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 ②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의 평균 정보량이 최댓값이다.
- ③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 ④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최대가 된다.
- ⑤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발생 확률이 각각 3/4, 1/4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와 같다.

40. 밑글의 ‘부호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 부호화에서는 수신기에서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②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할당한다.
- ③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채널로 전송하기 전에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한다.
- ④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면 부호율은 1보다 커진다.
- ⑤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한 경우,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날씨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한다.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①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 ②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맑음 흐림’은 ‘01001001’로 바뀌겠군.
- ③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군.
- ④ 날씨 ‘비’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부호화 하는 경우,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겠군.
- ⑤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특정 날씨의 부호를 전송할 경우,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흐림’으로 판단하겠군.

42.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가 아닌 것은?

- ① ㉠: 공항에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를 전송(錢送)할 계획이다.
- ② ㉡: 대중의 기호(嗜好)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한다.
- ③ ㉢: 나는 가난하지만 귀족이나 부호(富豪)가 부럽지 않다.
- ④ ㉣: 한번 금이 간 인간관계를 복원(復原)하기는 어렵다.
- ⑤ ㉤: 이 작품은 그 화가의 오랜 노력의 결정(結晶)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옴으니 하며 짜그락 거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쭉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끄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틀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 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 더라고 귀뻘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

었다.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게 쉰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뜸—뜸부기 짹 찾는 소리로 개구리 논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학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메저지고 개펄에 성에 영기듯 허영게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떡탕곳 개펄을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붙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위도 모기가 떼떼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벽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 그렇다. 왕대피 밑 떡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 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변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게서 뭇 허나?”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탕지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녀?”

“무슨 불? 허어 참, 그렇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 저게? 술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헐 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러? 저건 서울서 온 뉘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나는 무엇에 받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어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씨알두 게가 굵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붕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거.”

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 무등 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 툇던: 끝을 가늘고 부드럽게 하려고 툇으로 훑던.
- * 콩노긔: 콩의 꽃.
- * 자마구: 곡식의 꽃가루.
- * 된내기: 된서리.
- * 감못하기도: 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기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되는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들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하게 장면을 교차하여 상황의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를 함께 제시하여 사건의 내막을 감추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 ② ㉡에는 착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금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나타난다.
- ③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기란 어떤 대상을 꺼리거나 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금기를 위반하면 그 대상에 의해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 ①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였던 것은,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땀’을 해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아무리 무더위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금기를 위반한 ‘나’가 자신에게 닥칠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겠군.
- ⑤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야생조류보호협회의 ○○○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다가 유리문에 부딪친 적 있나요? (대답을 듣고) 네, 몇몇 학생들이 경험했군요. 꽤 아팠죠?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빠른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유리창 충돌이 야생 조류가 사고로 죽는 원인 중 2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야생 조류는 왜 유리창에 잘 부딪치는 걸까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넓어서 전방에 있는 사물을 잘 인식하지만,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있어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므로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치지 않도록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소의 안내서에는 그물망 설치나 줄 늘어뜨리기 등의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중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군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야생 조류는 사람과 달리 우리가 보는 색뿐만 아니라 자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외선 반사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유리창에 붙이면 야생 조류가 테이프에서 반사된 자외선을 보고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테이프 부착 전후를 비교한 결과,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부착 후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이 크게 줄었습니다.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안내한 방법 중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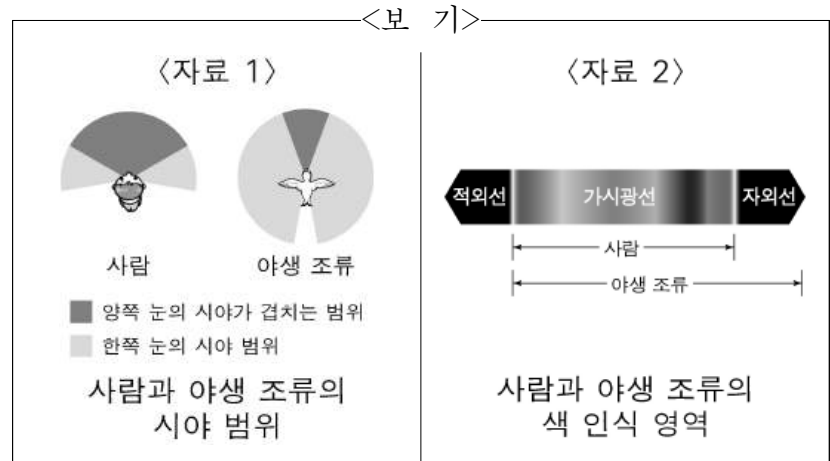
- ① 강연에서 제시된 용어를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③ 청중의 배경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강연의 앞부분에서 강연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들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내용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며칠 전 우리 집 유리창에도 비둘기가 부딪쳐서 놀랐어.
- 비둘기도 야생 조류에 해당할까?
- 자외선 반사 테이프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우리 집에도 부착하면 새가 부딪치지 않겠지.
- 야생 조류가 부딪치지 않게 유리창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 ①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강연자가 설득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③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 ④ 강연자가 제시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었다.
- ⑤ 강연자의 제안에 따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었다.

3. <보기>는 강연에서 강연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료 1>은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자료 1>은 사람과 야생 조류의 시야 범위가 다를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자료 1>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의 부착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자료 2>는 야생 조류가 자외선 반사 테이프를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4~7] (가)는 모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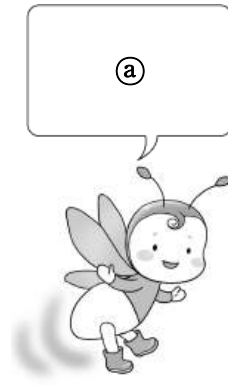
[모둠 과제 안내장]

- 과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 쓰기.
- 조건: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

(가)

- 학생 1:** 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 보자.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맛나거리에 대해 쓰고 싶은데, 어때?
- 학생 2:**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 □□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 학생 3:**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 학생 1:** 그게 좋겠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 학생 2:** 응, 알겠어. 그리고 사랑미술관도 소개하자. 거기서 [A]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이던데.
- 학생 1:**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 학생 3:**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 학생 2:** 알겠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 조사해 올게.
- 학생 3:**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제당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도 소개하자.
-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
- 학생 3:**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
- 학생 2:**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았던데. 우리 [B]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제당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
- 학생 3:** 그리고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
- 학생 1, 2:** 좋아.
- 학생 3:**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 학생 2:** ㉠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 학생 1:** ㉡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 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면 좋겠어.
- 학생 1:** 그럼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 학생 2:**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때?
- 학생 1, 3:** 응, 좋아.
- 학생 1:**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나)



사랑시의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제당’에서 시작한다. 이 제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 명칭의 유래와도 관련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네 아들[四郎(사랑)]은 평생 효를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훗날 그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을 지켜 주는 산할머니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산할머니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바람맞이 언덕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20여 분 걷다 보면 ‘사랑미술관’이 나온다. 이곳은 우리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사랑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화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해설해 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미술관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숲이 우거진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에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반딧불이 축제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직접 보며 아름다운 반딧불을 즐길 수 있다. 여름날 사랑미술관에 들렀다가, 해가 지면 반딧불이 축제장에 가 보는 것도 좋다.

바쁜 학교생활로 인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돋보이는 도시,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인 사랑시의 이야기를 따라 길을 떠나 보자.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2’가 △△거리, □□길을 언급한 것은 맛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② ‘학생 3’이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 ③ ‘학생 2’가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모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군.
- ④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 ⑤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군.

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6.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할 때,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할머니 제당과 문화제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당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한다.
- ②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산할머니의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도 함께 소개한다.
- ③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도 설명한다.
- ④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 주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⑤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한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의 고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반딧불을 보면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 ② 산할머니 전설이 남아 있는 사랑시에는 효의 전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 ③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해설을 들어 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산할머니 전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 ④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과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사랑시로 오세요.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 ⑤ 사랑스러운 반딧불이와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시 여행. 눈은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랑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미술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고 작성을 위한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사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히려고 함.
-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 학생들 사이에 사극에 대한 논란이 있음. ㉠
 - 사극의 본질은 주제 의식에 있음. ㉡
 - 시청자들이 사극에 흥미를 갖는 원인 ㉢
 - 사극은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
 - 역사적 사실의 반영 정도에 따른 사극의 유형 ㉤

[글의 초고]

드라마 ‘○○’이 인기를 끌면서 사극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역사와는 다르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라서 보기에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사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A] 사극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허구적 창작물이다. 따라서 사극의 본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구현되는 주제 의식에 있다. 사극에서는 허구를 통해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그것이 얼마나 시청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사극에서는 실존 인물에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거나, 실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등장시켜 극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다. 이러한 점은 시청자들이 사극에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어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역사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져 과거의 지식으로만 존재하던 역사를 현재에서 살아 숨 쉬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청자들이 사극에서 다루지는 상황을 실제 역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달리 사극은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사극의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사극의 내용이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는다. 한편 사극을 통해서도 감동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처럼 실제 역사와 사극은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초고 작성 후 수행한 자기 점검]

- 점검 내용: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 수정해야 글의 목적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아.

○ 고쳐 쓴 마지막 문단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를 현실로 소환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극에서 재창조된 인물에 공감하거나 그들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과 경험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사극을 실제 역사 그 자체의 재현이 아닌 허구적 창작물로 인식해야 한다.

8. ㉠~㉣ 중 ‘글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고쳐 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극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통일성이 약화되므로, 허구적 창작물이 사극의 본질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 ② 실제 역사와 사극으로 초점이 분산되어 논지가 흐려지므로, 사극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는 입장이 부각되도록
- ③ 실제 역사의 장점을 위주로 제시하여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극이 실제 역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 ④ 실제 역사와 사극의 긍정적 기능을 함께 제시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사극의 본질은 실제 역사를 온전히 수용하는 데 있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 ⑤ 실제 역사 반영이 사극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허구적 창작물로서의 사극이 갖는 효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10. <보기>의 관점에서 [A]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극의 본질이다. 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멀어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 ①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 ② 사극에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를 사실로서의 역사보다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
- ③ 사극에서 상상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들 간의 유기성을 부여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 ④ 사극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요인은 허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 의식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역사이다.
- ⑤ 사극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허구적 내용의 재미보다는 역사적 사건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사극을 제작해야 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A] 수식을 받는다. 반면 ㉠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한편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건-’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의/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와 ‘노퍽 느는 저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흔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④ ‘노퍽’와 ‘노퍽’의 형태를 보니, ‘노퍽’는 파생 부사이고 ‘노퍽’는 파생 명사이겠군.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곧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 ①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 ②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 ③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출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 ⑤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곶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횡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갑]
㉡	전세방[전세빵]	아랫방[아래빵]
㉢	버섯국[버설국]	조갯국[조개국]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덴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굵는	[글른]	[궁는]
㉡ 째네	[째네]	[잘래]
㉢ 꿩기고	[끈기고]	[끈키고]
㉣ 뚫지	[뚫찌]	[뚫치]

○ 탐구 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 ① |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② |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③ |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④ |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⑤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지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밉더냐?
- ④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 ⑤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세기 초부터 ㉠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흙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치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흙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 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흙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흙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흠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흠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샬과 흠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 윗글의 ‘최한기’와 <보기>의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양 근세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①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 ②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 ③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겠군.
- ④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 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 ⑤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들어오기
- ② ㉡: 드러내었다
- ③ ㉢: 퍼뜨리기
- ④ ㉣: 실린
- ⑤ ㉤: 가리지

25.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다.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셋째, 농지를 빌려 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 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①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 ②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군.
- ④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26.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커피를 쏟아서 옷에 얼룩이 졌다.
- ② 네게 계속 신세만 지기가 미안하다.
- ③ 우리는 그 문제로 원수를 지게 되었다.
- ④ 아이들은 배낭을 진 채 여행을 떠났다.
- ⑤ 나는 조장으로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민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A]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B]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C]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D]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E]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E]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겁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긴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이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엮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진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온천행」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학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학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학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학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회마른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버리시고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A]
즈른 히를 아즐가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디리

<제2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측루(側廬)*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셔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막음껏 솟아올라
ㄱ을 들 불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훈(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밭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빗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한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저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 * 공산 측루: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베갯머리.
*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뵈'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리곰'과 (나)의 '슬피 우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좃니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츠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업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훈'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ㄱ을 들 불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纓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B]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

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 직접 방식 또는 ㉡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3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3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3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A)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 | | A | B |
|---|-----|-----|
| ① | 진양성 | 진음성 |
| ② | 진양성 | 위음성 |
| ③ | 위양성 | 위음성 |
| ④ | 위음성 | 진음성 |
| ⑤ | 위음성 | 위양성 |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① ㉠을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② ㉠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 ③ ㉠을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④ ㉠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⑤ ㉠을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려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갯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알이 내 소견 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A] 실성한 사람같이, 이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 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려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흑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결식
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가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
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
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결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
으나 차마 못 들어오스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
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B]

하고, 좌상에 나았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뭉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
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결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2. <보기>는 「참옹고집」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 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했던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 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려 왔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 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야, 작가 선생이 밤무대 가수 신세인 옛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데? 그러지 마라.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 박이 되기까지 참 술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밤무대 가수 친구가 웬 말이나고 불멘소리를 해 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 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친으로 옮겨 와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삶들의 윤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귀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정상의 면적은 좁디 좁아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부딪치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혹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였다.

(중략)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썸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매 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 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불박여 있었다.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 간 가슴에 품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둔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 양귀자, 「한계령」 -

4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삽화처럼 나열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해설하고 사건의 의미를 직접 제시한다.
-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 ⑤ 서술자가 의문과 추측의 진술을 통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44. 윗글의 ‘나’와 ‘은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자’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나’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 ② ‘나’는 ‘은자’의 전화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으며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③ ‘은자’는 ‘나’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고, ‘나’는 ‘은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은자’가 도도하다고 여기고 있고, ‘은자’는 ‘나’가 체면을 차린다고 여기고 있다.
- ⑤ ‘은자’는 현재의 자신을 ‘나’에게 보여 주려 하고 있고, ‘나’는 ‘은자’를 통해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이러니는 흔히 말하는 반어보다 넓은 개념이다.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행위나 내면,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대립적인 두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때에 아이러니가 발견될 수 있다. 이때 대립적인 의미는 양면성을 생성한다. 「한계령」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대상, 인물의 행위와 의식의 대립, 인물의 심리 등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결국은 내리막길을 마주해야’ 하는데도, ‘있는 힘을 다해 기어’ 오르고 있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 ② ‘몸으로 밀어 가야 할 ‘굳건한 쇠문’을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들’에게서 ‘나’는 양면성을 발견하는군.
- ③ ‘일 년에 한 번씩’ ‘고향 동네에 가’면서도,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④ ‘변해’ 버린 ‘큰오빠’와 ‘온전히 남아’ 있는 ‘큰오빠’가 ‘나’의 생각 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⑤ ‘은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나자는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에서 양면성이 나타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프로젝트 과제는 ‘숨어 있는 들꽃의 재발견’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여 주며) 여기 우리 모둠의 발표 차례를 봐 주세요. 우리 모둠의 1차 탐구 과제는 ‘들꽃의 아름다움’이고, 2차 탐구 과제는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서’입니다. 오늘은 1차 탐구 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국어 시간에 배운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들꽃이 하나 등장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청중의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죠. 시멘트 틈을 뚫고 피어나 주인공에게 삶의 희망을 일깨워 준 민들레꽃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것은 (사진을 보여 주며) 제가 산책을 하다가 보도블록 틈에 수줍은 듯 피어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 찍은 제비꽃 사진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기대치 않은 곳에 핀 들꽃을 발견할 때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들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걸까요? (동영상을 보여 주며) 이 높은 산 위에 부는 세찬 바람 소리 들리시죠? 이곳을 자세히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짙은 자주색의 들꽃 보이시죠? 바로 이곳, 고산 지대에서 피는 고려엉겅퀴꽃입니다. 이런 곳은 바람뿐 아니라 자외선도 강해 꽃이 자라기 힘든데요. 그래서 고산 지대에서 피는 들꽃 중에는 빛깔이 짙고 크기는 아담한 것이 많습니다. 강한 자외선을 걸러 내며 짙은 색의 꽃잎이 되었고 강한 바람을 견디며 아담한 크기의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들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한 화면을 보여 주며) 여기 이 들꽃들도 아담하면서 색이 선명하죠? 고산 지대에서 피는 금강초롱꽃과 동자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슬라이드를 보여 주며) 도표 왼쪽 부분은 들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이 붙은 꽃들입니다. 금강초롱꽃, 숲바람꽃 등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도표 오른쪽의 이름들을 보세요. 예컨대 도둑놈의갈고리꽃을 보면, 들꽃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도둑놈’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들꽃이 이렇게 명명된 이유를 알아보고 들꽃의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1. 학생의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군.
- ②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군.
-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하고 있군.
- ④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여 청중과 긍정적인 유대감을 쌓고 있군.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군.

2. 다음은 위 학생 모둠의 1차 탐구 과제 발표 계획안이다. 발표에 반영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로젝트 과제	숨어 있는 들꽃의 재발견	
발표 단계 및 발표 내용	도입	1차 탐구 과제 제시.....㉠
	전개	1. 기대치 않은 곳에서 찾은 들꽃의 아름다움.....㉡ 2. 들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이유 • 고산 지대의 생태 환경.....㉢ • 고산 지대에서 피는 들꽃 - 고려엉겅퀴꽃 - 금강초롱꽃과 동자꽃.....㉣
	정리	2차 탐구 과제 예고.....㉤

- ① ㉠: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모둠 탐구 과제의 차례를 보여 주며 오늘 발표할 탐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사진을 활용하여 들꽃의 모습에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③ ㉢: 동영상을 활용하여 고산 지대의 생태 환경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 인터넷으로 검색한 화면을 활용하여 고산 지대의 들꽃이 지닌 특징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들꽃 이름이 분류된 도표를 보여 주며 들꽃 이름과 자연 환경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고 있다.

[3~7] (가)는 공개 토론 장면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지금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찬성 1: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반대 2: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까요?

찬성 1: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을 또 내야 하고, 투표소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까.

찬성 1: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 결선 투표제도 1차 투표는 단순 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반대 1: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1: 결선 투표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민주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하십시오.

찬성 1: 반대 측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고등학교처럼 투표 방식을 변경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투표소 재설치 등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이번 토론회는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토론에 대한 의견을 밝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자 한다.

찬성 측은 입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학생회장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배운 A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실시했지만 1차 투표율보다 결선 투표율이 낮아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4%였다. 결국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34%만의 대표성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찬성 측은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반대 측은 입론에서 단순 다수제가 1회만 투표하므로 더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주장과 근거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 학교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이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반대 측은 투표율이 낮은 문제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토론 단계에 따른 발언의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토론에서 반대 측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론 단계에 적합하다. 한편, 반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이 제시한 투표 제도의 도입으로 생기는 담합의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상대측과는 달리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이 토론을 보면서 '대표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 보니 국민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사람을 선출한다. 따라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수록 당선자의 대표성은 높아진다.

대표성 높은 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대표성 높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 참여자와 청중 모두에게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의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3. (가)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 ② 학생회장 선거 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 ③ 학생회장 선거에 새로운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④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선거 홍보 기간을 늘려야 한다.
- ⑤ 선거 기간이 길어지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된다.

4. (가)의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여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 ② '반대 1'은 입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언급하며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반대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⑤ '찬성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 <보기>의 ㉠~㉥ 중 '찬성 1'의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체로 입론에서는 ㉠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며,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끝으로 ㉤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토론회가 개최된 목적과 관련하여 글을 쓴 동기를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①
- 찬성 측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내 생각을 써야겠어. ②
- 토론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에 대해 자료를 찾아 정리한 내 생각을 써야겠어. ③
- 찬반 양측의 입장 중 내 입장을 선택하고, 내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아야겠어. ④
- 토론회의 의의에 대해 내 생각을 밝히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토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⑤

7. 다음은 (나)의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한 토론 평가 항목이다. 글을 쓴 후, 이를 바탕으로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평가	㉠ 찬성 측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평가
	㉡ 반대 측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평가
	㉢ 입론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 반론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의 적합성 평가

- ① ㉠: 필자는 찬성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찬성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② ㉡: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에서 주장한 투표 횟수와 신중한 투표권 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③ ㉢: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에서 현행 투표제를 유지할 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④ ㉣: 필자는 반대 측이 입론 단계에서 상대측의 주장대로 투표가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박했다는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 ⑤ ㉣: 필자는 반대 측이 반론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를 들고 있다는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8~10] 다음은 교지에 실을 동아리 홍보 글을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생각과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생각: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 우리 동아리의 특색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퍼네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
- ㉣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 ㉤ 가입 후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을까?

(나) [학생의 초고]

그동안 봉사 활동을 해 온 우리 동아리는 다른 봉사 동아리와 달리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퍼네이션과 같은 기부 활동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네이션(funation)’은 재미(fun)와 기부(donation)를 결합한 말로, 일상에서 재미있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기부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체험하며 기부금을 모으는 퍼네이션입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다음 순번을 지목하여 릴레이로 참여하는 퍼네이션인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런 퍼네이션 때문에 요즘은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기부를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을 내밀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눔의 마음이며, 우리 동아리의 선발 기준도 나눔의 마음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의 잔반을 줄여 절약한 잔반 처리 비용을 결식아동에게 기부하는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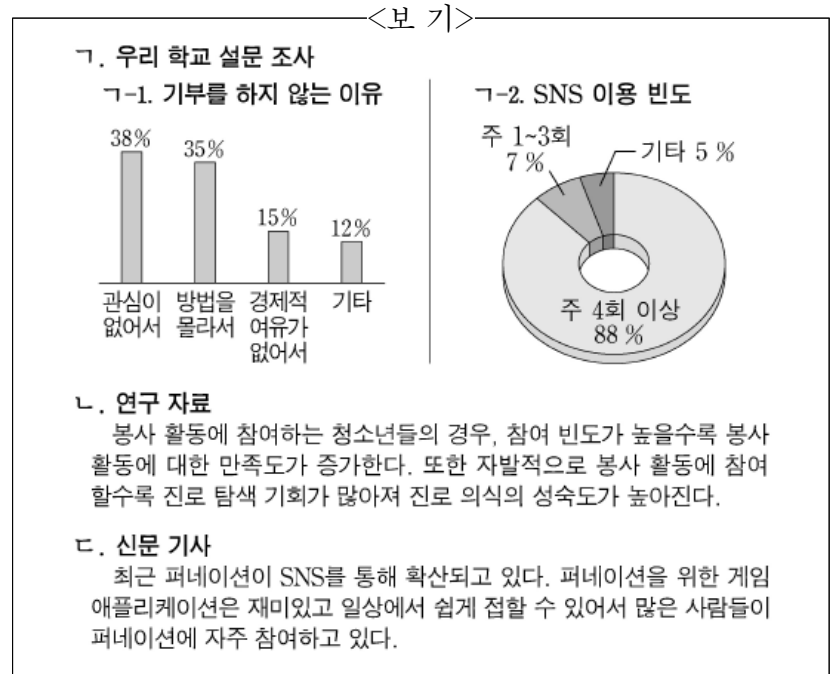
여러분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퍼네이션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은 퍼네이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퍼네이션 홍보를 하며 나눔의 경험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8. (가)의 ‘학생의 생각’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아리에서 추가한 활동을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② 퍼네이션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③ 다른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을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④ 동아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 ⑤ 가입한 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여 ㉤을 반영하고 있다.

9. <보기>는 (나)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찾은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해야겠어.
- ② ㉠-1을 활용하여, 기부 방법을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동아리 활동의 내용으로 제시해야겠어.
- ③ ㉠-2와 ㉡를 활용하여, SNS 이용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봉사 활동 참여 빈도가 높아져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보강해야겠어.
- ④ ㉡를 활용하여, 우리 동아리에 가입해 퍼네이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진로 의식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⑤ ㉢을 활용하여, 우리 동아리가 ‘잔반 제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유는 일상에서 퍼네이션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해야겠어.

10.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나눔의 의의를 밝히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나눔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여러분의 재능과 나눔의 마음이 더해져 우리 주변은 밝아질 것입니다.
- ②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 ③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간의 친밀감이 높아 집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퍼네이션 게임을 하며 재능을 발견해 보지 않으실래요?
- ④ 나눔은 내가 베푸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퍼져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을 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 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의 재능이 함께하면 나눔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뭇’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 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⑤ ‘즐거운’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12.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영화가 밥을 먹었다. / 꽃이 예뻐다.
영화가 밥을 먹는다. / *꽃이 예쁘다.

㉡ [영화야, 밥 먹어라. / *영화야, 좀 예빠라.
영화야, 밥 먹자. / *우리 좀 예쁘자.

㉢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갔다. / *예쁘려고 미용실에 갔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

㉣ [나에게는 돈이 있다. /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는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사람

㉤ [나무가 크다. / 나무가 쭉쭉 크다.
머리카락이 길다. / 머리카락이 잘 긴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②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명령형·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③ ㉢: 동사와는 달리 형용사는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 ④ ㉣: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이고 있다.
- ⑤ ㉤: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ㅌ	ㄴ	ㅁ	ㅇ	ㅈ	ㅊ	ㅌ	ㅎ
표기	모음 앞	g	d	b	tt	n	m	ng	j	ch	t	h
표기	그 외	k	t	p								

모음	ㅏ	ㅑ	ㅓ	ㅕ
표기	a	ae	o	i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치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제]’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닭이[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너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밤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4.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어간 말음 조건	형태	용례
'ㄱ, ㅂ, ㅅ, ㅎ'일 때	-습-	돕습고
'ㄷ, ㅈ, ㅊ'일 때	-줍-	묻줍고
모음이나 'ㄴ, ㄹ'일 때	-습-	보습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습-, -줍-, -습-'으로 실현되었다.

- 아래 문장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이다.
- 王(왕)이 부텨기 더욱 敬信(경신)흐 므스물 내스바
[왕이 부처께 더욱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 어간 '듣-'과 어미 '-으며' 사이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 내 아래브터 부텨기 이런 마를 몬 (㉡)
[내가 예전부터 부처께 이런 말을 못 들으며]

- | | |
|--------|------|
| ㉠ | ㉡ |
| ① 王(왕) | 듣즈블며 |
| ② 王(왕) | 듣스브며 |
| ③ 부터 | 듣즈블며 |
| ④ 부터 | 듣스브며 |
| ⑤ 므슴 | 듣스블며 |

15.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②	㉡	명사절
③	㉢	명사절
④	㉣	관형절
⑤	㉤	관형절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평(生平)에 윈흐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아
 마음에 호고져 호야 십재황황(十載惶惶)*호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호야 여공불급(如恐不及)*호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노라 <제4수>

출(出)호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호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호니 버리면 구태 구호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호니 오라 말라 호노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호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 * 십재황황: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 계교: 건주어 헤아림.
- *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 회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 현: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드래랑/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흐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려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a)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A] 가령 은행 ㉠같은, 기업 ㉡을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명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22. [A]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기초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 ②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 ④ ㉢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 ⑤ ㉣은 기초 자산에 부도가 나야만 이득을 본다.

23.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 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_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즉시 B_x 전량을 매입한 Y는 B_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계약 체결 당시 B_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_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AA+로 변경되었다. 2013년 10월 2일, B_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였다. (단, X, Y, Z는 모두 한국 기업이며 신용 등급은 매월 말일에 변경될 수 있다. 이 CDS 계약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일에 갱신되며 CDS 프리미엄은 매월 1일에 변경될 수 있다.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는 변화가 없다.)

2011. 1. 1.	2011. 9. 17.	2012. 12. 30.	2013. 9. 30.
CDS 계약	X의 재무 상황 악화	X의 지급 능력 개선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 변경

* bp: 1bp는 0.01%와 같음.

- ① 2011년 1월에는 B_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겠군.
- ② 2011년 11월에는 B_x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 ③ 2013년 1월에는 B_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 ④ 2013년 3월에는 B_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 ⑤ 2013년 4월에는 B_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25.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 ② 과자 한 봉지를 팔면 내게 100원이 떨어진다.
- ③ 더위를 먹었는지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 ④ 신발이 떨어져서 걸을 때마다 빗물이 스며든다.
- ⑤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동이 대희하여 채문 안에 들어가니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 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 그중에 상좌(上座)의 사람을 보니, 청포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읊만 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문왈,

“소년은 어디로 오며, 성명은 뭐라 하느냐?”

길동이 대왈,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서울 장안에 있는 홍 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즉 활빈당에 천하 역사(力士) 모여 용맹을 자랑한다 하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 등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 시험할 쏘냐?”

그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 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榜目)을 지어 가지고 쓴

㉢ 글을 내어 왈,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쏘냐?”

[가]

하거늘 길동이 받아 보니,

“제일은 이 앞에 초부석(樵夫石)이란 돌이 있으되 무게 천 근이라,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요, 제이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오백 근이라, 그 철관을 쓰고 이 앞 돌문 삼백 단을 세웠으니 그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요, 또한 해인사라 하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거만(累巨萬)이요,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고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 상장군 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길동이 한 번 보고 대소 왈,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오?”

하고, 모든 역사를 데리고 초부석 있는 곳에 나아가 혼연히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공중에 던지니, 그 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보 밖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하여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 철관 오백 근을 쓰고 돌문 삼백 단을 넘어가니, 모든 무리 일시에 고함하여 왈,

“천하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로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에 자리 아래 엎드려 군례(軍禮)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치하하더라.

(중략)

상이 하교하사 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대, 홍 의정 주왈,

“신의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의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사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
 “빨리 잡아들여 수검(搜檢)하여 보라.”
 하신대, 홍 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한대,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을 보고 다 나와 절하여 왈,
 “부친께선 강녕하시나이까?”
 하거늘, 홍 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 의정 말을 듣고 일시에 다리를 걷고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홍 의정이 할 수 없어 상께 주왈,
 “신의 역자(逆子)를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황공 대죄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길동을 보시고 왈,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하라.”
 하시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러 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새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이 다시 꺾내에 들어가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버 대대로 국은을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리까? 신의 몸이 천비(賤婢)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며, 여의주 없는 용이요 날개 부러진 봉이라,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집안에서만 늙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재주를 시험코자 ㉠ 각 읍 각 관을 치고 군기를 탈취하기는 신의 책략을 자랑함이요, 상의 어위대장 이흠을 속임도 재주를 보임이요,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와 음양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재주를 지녔사오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 상께서 신에게 병조판서 삼 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다.”
 상이 길동의 아뢰를 듣고 탄식하여 왈,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찌 쓰지 아니 하리요?”
 즉시 공부상서를 명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 뒷일은 어찌 되고? 다음 권을 불지어다.

- 「홍길동전」 -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포 입은 사람’은 길동의 정체를 궁금해한다.
 - ② 길동은 활빈당 무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 ③ 홍 의정은 ‘참 길동’을 찾으려는 상의 명령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 ④ 무수한 길동이 홍 의정 앞에서 동일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 ⑤ 상에게 길동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7.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길동이 활빈당 무리와 한편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② ㉡은 길동에게 활빈당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 ③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에 제시된 과제를 통과하면 차지할 지위이다.
 - ④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와 ㉢은 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은 길동이 활빈당에서 무리들과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와 ㉢은 이를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길동전」은 19세기에 오면 특정 대목을 확대·변형한 이본이 여럿 등장한다. 윗글은 이러한 이본 중 하나로, 이전에는 길동이 용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바위를 드는 것으로만 제시되었으나 윗글에서는 철관을 쓰고 돌문을 넘는 장면이 추가되었다. 또한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에서는 활빈당을 이끌던 수령을 새롭게 등장시켜 자신의 자리를 길동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흥미를 높였다. 특히 이전에는 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계략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였지만 윗글에서는 길동이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원하던 바를 얻는 것으로 변형하였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를 바라던 당대 독자들의 욕망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대한 부정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 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 ① ㉠은 추가된 인물을 통해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것이겠군.
- ② ㉡은 길동의 용력을 보여 주는 장면이 더해진 것이겠군.
- ③ ㉢은 군신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 시도이겠군.
- ④ ㉡은 주인공의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 돈을 벌려는 소설업자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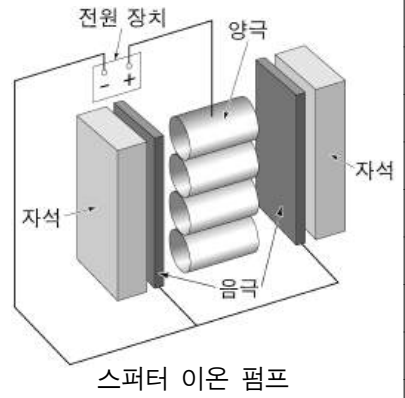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 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9} 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 토르(torr): 기체 압력의 단위.

2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 ②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 ③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을수록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 ④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 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 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3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없다.
- ②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없이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 ③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 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 ④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에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 ⑤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시킨 후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

31. ㉡의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 ②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 ③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 ④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 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 통 A~E가 있고, 각 진공 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 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 이다.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 통에서 동일하다. N 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진공 통	기체	분자의 질량 (amu*)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 (개/cm ³)
A	질소	28	$4N$
B	질소	28	$2N$
C	질소	28	$7N$
D	산소	32	N
E	이산화 탄소	44	N

* amu: 원자 질량 단위.

- ①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 ②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보다 낮겠군.
- ③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 ④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 ⑤ E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33~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

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북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대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을 ㉢ 아우르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잡한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잡한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잡한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하는 시점, 느린 화면과 빠른 화면의 교차 등 영화의 형식 원리는 ㉥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는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지각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선 체험을 가져다준다. 벤야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을 환각, 꿈의 체험에 ㉦ 비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영화관에 모인 관객은 이런 체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꿈의 세계를 향유한다.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는 생산학과 소비학과를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화된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세계를 지닌 꿈꾸는 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이렇게 벤야민의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근대 도시의 산물인 영화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근대 도시와 영화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밝힌 벤야민의 견해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③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벤야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근대 도시의 기원과 영화의 탄생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영화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근대 도시와 영화의 체험에 대한 벤야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소개한 후,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을 드러냄을 밝히고 있다.

3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대 도시를 근대 도시인이 지닌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 기계라고 본다.
- ② ㉠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 체제가 욕망과 충족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은 근대 도시인의 소비 정신이 금욕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 ④ ㉡은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존재라고 본다.
- ⑤ ㉠과 ㉡은 모두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을 완화하여 유순한 몸을 만든다고 본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객에게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 ②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에서 발생한다.
- ③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에서 유발되는 충격과 유사하다.
- ④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 영화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 관객에게 유발된다.
- ⑤ 육안으로 지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영화적 체험으로부터 발생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1920년대의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베르토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 등 다양한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억압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한다. 영화인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르토프는 영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베르토프는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가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에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 줌으로써 영화가 상영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① 베르토프의 영화는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소외된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생산학과 묘사하는 훈육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군.
- ③ 베르토프가 다양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 공간을 재구성한 것은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유발하겠군.
- ④ 베르토프가 사용한 짧은 이미지들의 빠른 교차는 벤야민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를 보여 주는군.
- ⑤ 베르토프의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에서 신기한 구경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을 보여 주는군.

37. **벤야민이 말한 근대 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의 공간과 꿈꾸는 공간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 ② 소비 행위가 노동자에게 복합 체험을 가져다주는 공간이다.
- ③ 이질적인 것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가는 공간이다.
- ④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가 극복된 공간이다.
- ⑤ 집단 규율을 따라 노동하는 노동자도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3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봉합(縫合)하려는
- ② ㉡: 보증(保證)하는
- ③ ㉢: 연상(聯想)하게
- ④ ㉣: 의지(依支)하여
- ⑤ ㉣: 개편(改編)하는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공동 경비 구역에서 근무하는 국군 이수혁 병장, 남성식 일병(수정의 오빠)과 인민군 오경필 중사, 정우진 전사 사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소피 소령을 파견하여 보타 소장 관할 아래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 S#79. 팔각정 (낮)

팔각정에서 본 판문각 근처 부감* 전경 —대질 심문을 받고 나온 수혁, 경필 일행이 회담장 앞에서 각각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카메라, 후진하면서 팔각정 내부로 초점 이동하면 보타의 손이 쑥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소피: (영어) (봉투를 받아 들고) 뭐죠?

보타, 대답 대신 관측경을 들여다본다.

보타: (영어) 한국이 처음이랬지?

㉡ 보타의 관측경으로, 판문각 앞에서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관찰하는 북한 군인이 보인다.

보타: (영어) (목소리) 그래 ‘아버지’ 나라가 마음에 들던가?

㉢ 판문각 쪽에서 북한 군인의 쌍안경 시점으로, 사진을 보고 있는 소피의 모습이 잡힌다.

보타의 설명 사이사이, 한국전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생활과 좌우 투쟁, 종전 후 공산 포로 복송, 반공 포로 석방 및 제3국행 포로의 출발과 도착 장면들이 사진과 기록 영화 화면으로 편집된다.

보타: (영어) (목소리) ㉣ 한국전 당시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가 있었지.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 두 무리 간엔 처참한 살육이 계속됐어. 종전되고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남으로의 귀순이나, 북으로의 귀환이나... 그 17만 포로 중 76명은 둘 다를 거부했어. 그들 중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있네. 바로... 자네 아버지 장연우 같은 사람이지.

소피, 놀란 얼굴로 손에 든 다른 사진을 내려다보면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 결박당한 채 쪼그리고 앉아 있다. ㉤ 그중 동그라미가 처진 사람 얼굴로 줌인*.

보타: (영어) 포 장군이 매우 잼싸게 움직였다군. 국방부, 외무부, 인도, 아르헨티나, 스위스 대사관... 며칠 사이 정보란 정보는 다 모았어. 포 장군으로선 ㉥ 전 인민군 장교의 딸인 자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없었겠지.

소피: (영어) (흥분해서) 3일이면 돼요. 곧 이 병장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가요.

(중략)

㉦ S#81. 소피의 숙소 (낮)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고 짐을 싸는 소피. 사진 액자를 가방에 넣으려다 말고 들여다본다. 어린 시절의 소피와 스위스인 엄마 사진. 액자 뒤를 열어 가족사진을 꺼낸다. 접힌 부분을 펴자 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난다.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는 소피.

S#82. 수사본부 (낮)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수혁, 목발을 짚었다. 사진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소피.

소피: (수혁을 돌아보며)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몸도 불편한데.

영문을 모르고 불려 온 수혁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고 출입구 앞으로 가는 소피, 과녁판에서 다트 화살을 뽑아 든 다음 서류 한 장을 꽂아 고정시킨다.

소피: 내일 자정을 기해 나를 제이에스에이 근무에서 해제한 다는 명령서예요.

수혁: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소피: 그래, 내가 인민군 장교의 딸이란 얘길 듣고 기분이 어떻게 던가요?

수혁: (주저 없이)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 소피,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군복 안에 받쳐 입은 터틀넥 스웨터의 목을 젖혀 보인다. 목에 나 있는 피명 자국.

소피: 난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병장은 깨끗하네요. 이 병장이 오 중사보다 힘이 센가 보지요?

당황하는 수혁, 대답 없다.

소피: 자, 진짜 재미난 쇼는 이제부터예요. 잘 봐요.

수정의 얼굴이 프린트된 출력물을 과녁판에 꽂는 소피. 당황하는 수혁.

소피: 수정 씨를 만나자마자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수정의 초상화를 과녁판에 꽂는 소피. 놀라는 수혁.

소피: 정우진이 그린 초상화예요. 그리고 이건 (찢어져 너털 너털한 얼굴 없는 사진을 과녁판에 꽂으며) 정우진의 시신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과녁판에 나란히 부착된 ㉨ 석 장의 이미지. 충격받은 표정의 수혁.

소피: ‘사라진 탄환’이 남 일병의 알리바이를 깨는 증거였다면... (얼굴이 찢겨 나간 사진을 가리키며) ‘사라진 얼굴’은 네 명의 병사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걸 뜻하는 증거죠.

수혁, 애써 외면하고 걸어간다.

수혁: 그래서요?

㉔ 노란색과 빨간색 디스켓 두 개를 꺼내 보이는 소피.

소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수사 보고서예요. 내가 뭘 제출하느냐는 이 병장한테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 준다면 난 후임자에게 어떤 증거나 추리도 제공하지 않겠어요.

수혁: 협박입니까?

소피: 거래죠.

수혁: 영장을 가든 훈장을 받든 전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㉕ 진실의 대가로 소령님이 저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니까?

소피: 이 병장이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오경필의 안전이예요.

- 박상연 원작, 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 부감: 카메라가 인물의 시선보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촬영하는 것.

* 줌인: 피사체의 크기를 점점 확대 촬영하는 것.

3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피'의 아버지는 전쟁이 끝나자 북으로 귀환한다.
- ② '소피'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사 의지가 없다.
- ③ '수혁'은 '소피'의 아버지의 전력을 듣고 '소피'를 경계한다.
- ④ '소피'는 '사라진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 ⑤ '소피'는 '수혁'이 '오경필'의 안전을 염려한다고 생각한다.

40.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의 공간 범위는 팔각정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포함한다.
- ② ㉒는 '소피'가 직무에서 해제되는 원인이 된다.
- ③ ㉓는 '소피'가 네 병사의 관계를 짐작하게 된 단서이다.
- ④ ㉔는 '수혁'이 진실을 밝히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제출될지가 정해질 것이다.
- ⑤ ㉕는 '수혁'이 수사본부에 있는 '소피'를 만나러 온 이유이다.

41. 윗글을 영상화한다고 가정할 때, ㉑~㉕에 해당하는 감독의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㉑과 ㉒은 각각 관측경과 쌍안경으로 상대측을 바라보는 장면을 설정하여 남북한 대치 국면에 있는 S#79 공간의 특수성을 그려야겠어.
- ② ㉓은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과 달리 사진이나 기록 영상물을 제시하여 당시 상황을 보여 주어야겠어.
- ③ ㉔은 동그라미 처진 얼굴을 확대 촬영하여 '소피'의 아버지가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겠어.
- ④ ㉕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소품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야겠어.
- ⑤ ㉕은 사건의 맥락이 관객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한 화면에 담아야겠어.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뛰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㉑ 꺼멧게 멧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헤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헤인 현금이 맞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훑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㉒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빨아 들이켜며, ㉓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㉔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붙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㉕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㉖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겨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위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 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4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② ㉡은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 ③ ㉢은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④ ㉣은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 ⑤ ㉥은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 ①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 ②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 ③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5.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은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혹시 어두운 밤길을 걸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밤길을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어둡고 무서웠지만 달빛 덕분에 어렵지 않게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 주는 ‘나에게 말해 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 심리 상담가 ○○○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라고 해요. 제 친구는 자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손재주도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깝워요. 또 작은 실수에도 “난 항상 이래.”라며 자책하고 우울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돕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님처럼 안타깝네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을 탓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장점 말해 주기’와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친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자주 말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만약 친구가 실수해서 자책하고 있으면 “많이 속상하겠구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며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식으로요. 그러면 친구가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책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청취 소감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그럼 △△의 노래 ‘우리 함께’를 들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1.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 ② 사연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 있다.
- ③ 사연 내용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청취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④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고 전문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사연에 대한 상담 중에 질문을 던지고 사연 속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프닝] 방송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 ‘달빛’ 이야기로 시작
 [사연 소개 및 고민 진단]
 ○ 사연 신청자가 보낸 사연 소개
 ○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존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제시 ... ㉠
 ○ 자존감이 낮은 원인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인을 제시하고 사연의 문제 상황에 적용 ㉡
 ○ 사연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 제시 ... ㉢
 [방법 제시]
 ○ ‘장점 말해 주기’ 방법을 안내하고 효과 제시 ㉣
 ○ ‘감정 헤아려 주기’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효과 제시 ... ㉤
 [클로징] 청취자 게시판에 관한 안내 및 인사말로 마무리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에게 말해 줘’ 게시판
 ○월 ○일 방송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청취자 1: 저도 자존감이 낮은 거 같아서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들었는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요.

↳ 청취자 2: 자존감을 높여 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 주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 청취자 3: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 줘야겠어요.

↳ 청취자 4: 도와주고 싶은 대상의 연령대가 사연 속 친구와 다를 때에도 방송에서 알려 준 방법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 청취자 5: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건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친구들이 속상했을 텐데 활용해 볼게요.

- ① ‘청취자 1’은 자신이 방송을 들은 목적과 관련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② ‘청취자 2’는 방송 내용을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방송에서 안 내되지 않았던 방법의 효과를 예측하고 있군.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 ④ ‘청취자 4’는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군.
- ⑤ ‘청취자 5’는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있군.

[4~7]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제] 성금 마련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전문] 지난 10월 4일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 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

[본문] 선생님 32명과 학생 174명이 함께 달린 이 행사는 K 군(2학년)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학생회가 주최하였다. 한 달 전 교실에서 쓰러져 입원한 K 군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병원비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미가 컸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다. △△공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힘내라며 응원을 보냈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 마라톤이 끝난 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금을 기탁한 시민도 있었다. K 군의 담임선생님은 “친구를 돕기 위해 학생회가 앞장선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나)

학생 1: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학생 2: 이 기사문은 내가 작성한 거지?

학생 3: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학생 1: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학생 3: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신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

학생 1: ㉡ 네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학생 3: 두 의견을 들어 보니, 네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1, 2: 응, 그래.

학생 1: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 3: ㉢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 했는데, 어때?

학생 2: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

[A]

학생 3: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학생 2: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B]

학생 3: 응원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 2: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학생 1: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 3: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수정해 올게.

학생 1: ㉣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학생 3: 아, 맞아. 지난 회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잊었네. 거기에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넣고.

학생 1: 응,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

학생 2: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어.

학생 3: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모두 반영해서 써 볼게.

학생 1: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이 있어. 그걸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

학생 3: 지면의 크기도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구나.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학생 2: 아, 그리고 성금을 5천 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 원씩 내셨어.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 줘.

학생 3: 그렇게. 처음 써 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학생 1, 2: 괜찮아. 기사 쓰느라 고생했어.

4. ‘학생 3’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표제 수정하기
→ ‘작은 물방울들 하나 되어 희망 만든 사제동행 마라톤’으로 수정해야겠군. ㉠
- 전문 수정하기
→ ‘지난 10월 4일 △△공원 일대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 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로 고쳐야겠군. ㉡
-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을 ‘또한 행사 참가자들 중 선생님은 1만 원씩, 학생은 5천 원씩의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공원 일대 4km 구간을 완주했다.’로 수정해야겠군. ㉢
→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 군을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다.’로 고쳐야겠군. ㉣
→ 둘째 문단에서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를 삭제해야겠군.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회장은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 ② 학생회장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뻐다.”라고 밝혔다. 행사에서 모인 성금은 다음 날 학생회장이 대표로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 ③ 학생회장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인상적인 행사였다. 행사 이후 K 군 가족은 성금을 전달받고, 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④ 학생회장은 “장소 섭외가 힘들었지만 뜻 깊은 경험이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고, 모금된 성금은 K 군 가족에게 전달됐다.
- ⑤ 학생회장은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라고 밝혔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달리며 뜻을 모을 수 있었던 행사였으며, 학생회에서 성금을 K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6.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② ㉡: 상대의 제안은 기사문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라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 화합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데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④ ㉣: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 인지를 상대에게 환기하는 발화이다.
- ⑤ ㉤: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7.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로봇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로봇세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서 ㉠ 전체 응답자 중 86.6%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52.2%는 자신의 직업이 로봇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거에도 ㉡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증가했다. …(중략)… ㉢ 로봇 기술 중 상당수는 특허권 등록의 대상이므로, ㉣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로봇세가 로봇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과, 로봇세가 로봇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 로봇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세는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 로봇세 도입의 목적이다. 하지만 나는 로봇세 도입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로봇세는 공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 널리 쓰이고 있는 모바일 뱅킹이나 티켓 자동 발매기도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로봇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 로봇을 사용해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로봇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면 한 번의 이익에 두 번의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불공평하다.

앞으로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로봇 기술 개발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로봇 기술 중 상당수가 특허권이 인정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은 기술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로봇 기술의 특허권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로봇 사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진 로봇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막대한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어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A]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로봇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전체 일자리는 줄지 않았다.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은 늘 존재했지만,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로봇의 사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우리는 로봇 덕분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나 반복적인 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로봇 사용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로봇세의 도입으로 이러한 편안한 삶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로봇세의 납부 주체를 포함한 로봇세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삶에 로봇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
 - ③ ㉢을 고려해, 로봇 사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로봇세 도입의 취지를 언급한다.
 - ④ ㉣을 고려해, 로봇세 도입과 로봇 기술 개발의 관계를 제시하여 로봇세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⑤ ㉣을 고려해, 일자리가 증가해 온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② ㉡의 사례를 찾아, 이를 로봇의 경우와 비교하여 로봇세가 중복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 ③ ㉢를 이유로 들어,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벌어질 경쟁의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했다.
 - ④ ㉣를 구체화하여, 로봇세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 ⑤ ㉣에서 한쪽의 의견을 선택하여, 로봇세 부과가 로봇 관련 특히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로봇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로봇 하나당 대체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로봇 사용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로봇 사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 ①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산업 혁명의 경험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② 로봇의 생산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사례만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 ③ 로봇 사용으로 밀려날 수 있는 인간 노동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로봇세를 도입해 기업이 로봇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 ⑤ 산업 혁명의 경우와 같이 로봇의 생산성 증가는 인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ㅜ
중모음	ㅔ	ㅖ	ㅗ	ㅛ
저모음	ㅐ		ㅓ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ㄱ’로 끝나는 명사 ‘밭’, ‘술’, ‘이튿날’이 ㉠ ‘밭가락’, ㉡ ‘소나무’, ㉢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ㄱ’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밭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ㄱ’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ㄱ’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ㄱ’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ㄱ’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밭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밭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밭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밭 엄지 가락(엄지밭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밭 가락’은 현대 국어 ‘밭가락[밭까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ㄱ’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ㄱ’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ㄱ’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A]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ㄱ’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ㄱ’인 말과 ㅌ인 말이 어울릴 적에 ‘ㄱ’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ㄱ’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 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보 기>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난알(난+알)	술방울(술+방울)
선달(선+달)	푸나무(풀+나무)

- ① 술방울, 무술, 난알 ② 술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난알
- ⑤ 쌀가루, 술방울, 선달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주제]
○ ‘숯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자르며 저 놓느니(술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숯 근(술가락의 끝), 젓 가락 근(젓가락 끝), 수저(수저) • 뭇(무리), 뭇 사람(뭇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숯가락 장스(술가락 장사) • 뭇사람(뭇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로 밥을 뜨다 • 숯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튿’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숯’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ㄱ’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튿’이나 ‘뭇’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숯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숯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숯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숯’과 ‘뭇’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ㄱ’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한다.
- ② ㉡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 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다.
- ③ ㉠과 ㉡은 ㉠이 이행되면 그 결과로 ㉡이 소멸하는 관계이다.
- ④ ㉠과 ㉡은 동일한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 ⑤ ㉠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8.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을’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 ‘갑’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
- ② ‘갑’은 소를 제기하여야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
- ③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그림 A’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었다.
- 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 ①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 행위로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 ②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 차이가 있다.
- 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 표시의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 차이가 있다.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
- ②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 ③ 우리 마을은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산간 지역이다.
- ④ 이 책에 나오는 옛날이야기 한 편을 함께 읽어 보자.
- 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물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내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

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 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

그러나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홀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A]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령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소년**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래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깃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훌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O·L*—

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 보고

운전수: 손님!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그럼 내립니다. **시시한 동네**까지 물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꿰매고 있다. 옆에서 꼴꼴 자고 있는 혜옥.

영호: (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리며

민호: 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정신 차려야죠. 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취직이요. 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싫습니다.

철호: 그럼 뭐 뽕죽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용기?

영호: 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딘다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호는 반쯤 끌려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그건 억설이야.

영호: 억설이요?

철호: 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천만에요.

#75. 철호의 집 골목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던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O·L(overlap):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전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꿰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 이어지는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㉔’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재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동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지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새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A]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요소로 ㉣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옹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리학적 기론(氣論)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학설은 브라헤의 영향이었지만, 태양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氣)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옹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문정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증자의 말을 땅이 둥글다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하였다.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서양 천문학을 회통하려는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망라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은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 * 질점: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 * 구 대칭: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읽기 계획: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한 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예측 및 질문 내용	점검 결과
○ 서양의 우주론에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같음..... ①
○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예측과 다름..... ②
○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③
○ 중국에서 서양의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제시됨..... ④
○ 중국에 서양의 우주론을 전파한 서양의 인물은 누구일까?	질문의 답이 언급되지 않음..... ⑤

2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 ② 서양 천문학의 전래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에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 ④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 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29. 윗글에 나타난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학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 ②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었다.
- ③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 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관측치로부터 수립한 케플러의 우주론은 신플라톤주의에서 경험주의적 근거를 찾은 것이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에서 서양 과학을 수용한 학자들은 자국의 지적 유산에 서양 과학을 접목하려 하였다.
- ② 서양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를 집대성한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
- ③ 방이지는 서양 우주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양의 이론과 구별되는 새 이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 ④ 매문정은 중국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천문학적 전통과 서양 과학의 수학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였다.
- ⑤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 새 이론을 창안하였다.

3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 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싸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1)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2) (1)에서의 구 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중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1), (2)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 ①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 ②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 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 ③ 질량이 M 인 지구와 질량이 m 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겠군.
- ④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들을 모두 더하면 구해지겠군.
- ⑤ 반지름이 R , 질량이 M 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에 중심이 있는 질량이 m 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R+h$ 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m 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진작(振作)할
- ② ㉡: 고안(考案)했다
- ③ ㉢: 소지(所持)한
- ④ ㉣: 설정(設定)했다
- ⑤ ㉤: 시사(示唆)되어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A]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B]

지붕에 박넉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빨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C]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왕고못택 제삿날 밤 열나홀 새벽 달빛을 밟고 [D]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옥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E]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리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점이 심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 일을 모르고 구치 아니시느고?’
 하며 주야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점의 부촉(咐囑)*을 들은 고로 물도 주지 아니하여 경업이 더욱 한 하더니,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왈,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여 바로 몸을 날려 옥문(獄門)을 깨치고 궐내에 들어가 상을 뵈고 청죄한데,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되,
 “경이 만리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매 반가움이 끝이 없거늘 무삼 일로 청죄하느뇨?”
 경업이 돈수사죄 왈,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 무석이나, 대명(大明)과 함께 호왕을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천행으로 살아 돌아옵더니, 의주(義州)에서 잡혀 아무 연고인 줄 알지 못하옵고 오늘을 당하와 천안(天顔)을 뵈오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신하더러 왈,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고?”
 하시고 자점을 패초(牌招)*하사 실사를 물으시니, 자점이 속이지 못하여 주왈,
 “경업이 역적이옵기로 잡아 가두고 계달코자 하였나이다.”
 경업이 대로하여 고성대매 왈,
 “이 몸쓸 역적아! 들으라.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모반할 마음을 두어 나를 해코자 하느뇨?”
 자점이 듣고 무언이거늘, 상이 노하여 왈,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또한 만고충신이거늘 네 무슨 일로 죽이려 하느뇨?”
 하시고,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게 하라.”
 하시다.
 [A] 경업이 사은하고 퇴궐할새, 자점은 궐문 밖에 나와 심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 들어 난타하니,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여러 번 맞아 중상하매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하여 경업을 옥에 가두고 금부로 가니라.
 이때 대군이 시자(侍者)더러 문왈,
 “임 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뇨?”
 시자가 대왈,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대군이 의심하여 바빠 입궐하여 경업의 거처를 묻되, 상이 수말을 이르시니 대군이 주왈,
 “자점이 이런 만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

하소서.”
 하고, 명일을 기다려 친히 경업을 가 보려 하시더라.
 [B] 차시,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받아 천명이 진하게 되매 분기대발하여 신음하다 죽으니, 시년 사십팔 세요, 기축(己丑) 9월 26일이라.
 (중략)
 자점이 반심을 품은 지 오래다가 절도(絶島)에 안치되매 더욱 앙양(怏怏)하여* 불측지심이 나타나거늘, 우의정 이시백이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 금부도사를 보내 엄형 국문하신 후 옥에 가두었더니, 이날 밤 한 꿈을 얻으시니, 경업이 나와 주왈,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되었사오니 바빠 국문하옵소서.”
 하고 울며 가거늘, 상이 놀라 깨달으시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 한지라.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날이 밝으매 자점을 올려 국문하시니, 자점이 자복하여 역심을 품은 일과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상이 노하여 자점의 삼족을 다 내어,
 “저자 거리에서 죽이라.”
 하시고,
 “그 동류를 다 문죄하라.”
 하시며,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 하고 왈,
 “너희 아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 와 ‘자점의 모해로 죽었다.’ 하기로 내어 주나니 원수를 갚으라.”
 하시다.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부촉: 부탁하여 말김.
 * 패초: 임금의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름.
 * 앙양하여: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여.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서사적인 흥미를 높이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죽음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 ③ 대화의 내용을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적대자와의 지략 대결을 통해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계를 알고 있었다.
 - ②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했다.
 - ③ 대군은 자점을 의심하며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 ④ 우의정 이시백은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 ⑤ 상은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 내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 조희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입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지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퇴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퇴 늙고 병든 둔한 글을 [C]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D]
 세상에 낫삼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襖)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며
 각색 대단(大緞)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퇴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E]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 * 차아: 줄기에서 번어 나간 곁가지.
- *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 * 피봉: 겹봉.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퇴퇴’와 [C]의 ‘내 웃고 써서 퇴퇴’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며칠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 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청중의 반응이 없자) 안동에서 볼 수 있는 탈이에요.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봉산 탈춤’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부터 귀 위까지 이어진 선이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형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 쭈신다.”라는 말에 담긴 허풍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지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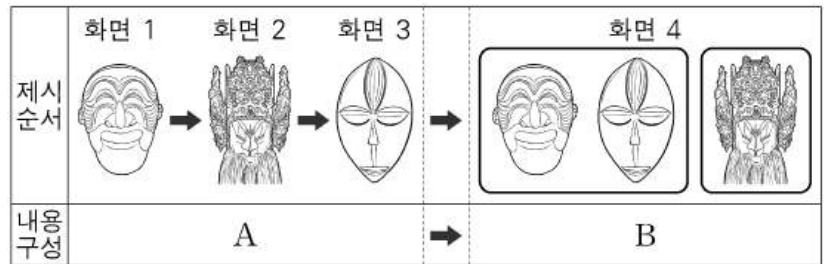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 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는 용이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에 시선이 갔습니다. 양반탈이 이마 부분까지만 표현돼 있는 것과 달리 관우 탈은 머리에 쓴 관까지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강렬한 붉은 색이어서 무시무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얼굴과 머리 부분을 모두 이용해 관우의 박력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도 추상적으로 보일 만큼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인데요, 단순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된 커다란 눈이 작은 코와 대비되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에 다소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란 주제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입부에서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 B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
①	사용된 색채를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형태상 차이점이 부각 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②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③	인상적이었던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공통점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변경하여 제시하기
④	지리적으로 인접한 순서를 밝히며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제시하기
⑤	표현된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탈 소개하기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저 탈이 하회탈인 줄 알았는데, 하회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회탈도 설명해 주겠지?
- 나도 관우 탈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에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었어.
- 발표자가 말한 대로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에 대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

- ①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다.
- ②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
- ⑤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4~7] (가)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지역 사회에서 개최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한옥의 멋’ 솔빛 마을이 달라진다

솔빛 마을, 시청과 한옥 관광지 조성에 합의

시청 측과 솔빛 마을 주민 측은 △월 △일 시청에서 회동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한옥의 가치 전파를 위한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을 연내 추진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시청 측은 솔빛 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레 길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 측도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솔빛 마을에서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지역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래 ○○마을의 마을 소득과 관광객 수는 각각 연평균 약 5%, 7%씩 증가했다. ㉠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마을의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주민 측은 ○○마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나)

시청 측: 지난 협상 후 기사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한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결국 ○○마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도 퇴색될 것입니다.

시청 측: 이해합니다. 저희도 모든 한옥을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한옥을 개방하되 가능하면 많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허락하실 경우에도 예약한 관광객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고, 한옥 관광 도우미가 동행하여 미개방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측: 한옥 내부 관람을 얹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의 마을 여건 상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시청 측: 한옥 내부 관람 인원은 매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고, 단체 관광은 마을 관광 에티켓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동선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또한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시청 측: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채용 건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방 시간은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 개방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이 클 것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주민 측: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주민들이 연장에 찬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 시간 연장의 이득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 계만 돌아갈 것입니다.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 측: 그러면 야간은 아니더라도 오후 7시까지 개방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 후는 주민들의 생활을 배려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민 측: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점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신 관광 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주민 생활 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개방 시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음은 기자가 (가)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사 내용] 솔빛 마을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	
[조사 방법] 관계자 취재, 관련 기관 문헌 자료 수집	
〈시청 측과 주민 측 협상 취재〉	
• 사업 추진 목적 및 양측 합의 사항	
〈시청 측과의 인터뷰〉	
•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	①
• 사업 추진 계획	②
〈솔빛 마을 주민 측과의 인터뷰〉	
•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및 우려 사항	③
〈지역 연구소 자료 수집〉	
• ○○마을 한옥 관광지 사업 관련 통계	④
•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	⑤

5. <보기>는 ㉠의 초안이다. <보기>를 ㉠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의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마을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 ①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인과 관계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기 위해
- ②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 ③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 ④ 글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하기 위해
- ⑤ 글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6. 다음은 솔빛 마을 주민 측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협상 계획서의 일부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의할 내용	세부 내용	대응 전략
⋮	⋮	⋮
과잉 관광 문제 - 관광 수용력 중심	개인 생활 침해, 공동체 구성원의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를 넘을 우려.....㉢	
지역민을 위한 현안	일자리 창출.....㉣	
	생활 복지 개선.....㉤	
⋮	⋮	⋮

- ① [A]에서는 ㉠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와 관련된 상대측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 ⑤ [E]에서는 ㉤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며 상대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7.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여 상대방에게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발화이다.
- ②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며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⑤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조건을 제시하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화이다.

[8~10] (가)는 학생의 일기이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월 ○일

환경 동아리 시간에 'PVC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을 통해 PVC가 플라스틱의 일종이라는 것과 정말 많은 물건이 PVC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통에도 PVC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PVC가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의논을 했다.

(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귀사에서 제조하는 필통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평소 귀사에서 만든 학용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필통의 재질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귀사뿐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학용품에 PVC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PVC 사용이라도 줄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도 필통의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이 동기가 되어 (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글쓰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 ⑤ (가)는 (나)에 비해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반성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9.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초고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 준 것에 감사하는 끝인사로 마무리했잖아.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 ①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귀사는 제품의 재질을 개선하기 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 ③ 재질을 개선한다면 귀사처럼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귀사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 ⑤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주게 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10.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논문 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품 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 **통계 자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kg) 세계 1위~6위 국가>

㉢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재질	재활용 정도	
	용이함	어려움
플라스틱	PVC	○
	PP	○
	무색 PET	○
	유색 PET	○
철	○	

- ① ㉠: ㉡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이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 ② ㉡: ㉠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 ㉡를 활용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군.
- ④ ㉢: ㉠와 ㉡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 ㉠와 ㉡를 참고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 PP로 바꾸어 달라고 수정해야겠군.

1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풀잎[풀립]	㉡ 읊네[음네]	㉢ 벼훅이[벼훅치]
----------	----------	------------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지요?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 ¹ ㉠ […을 …으로]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 […을] ㉢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 ¹ ㉠ […에] ㉠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묻다 ² ㉠ […을] ㉡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체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 ² ㉠ […을] ㉠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흥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이 니게요. 머 내가 휘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겠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찢라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문 빈손으로 우찌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든 ㉠ 핑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겄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 겄소. 하지마는 두고 보든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든 알 기 니게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른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야겠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흥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뿜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흠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B]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흠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웃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읊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채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흐흐흐.”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 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캬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 박경리, 「토지」 -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체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고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서희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에피쿠로스 사상의 목적과 의의
-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 ③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옹호
- 사상의 한계와 발전적 계승을 중심으로
- ④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이견
- 당대 세계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⑤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과 효용성
- 행복과 쾌락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2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과 ㉢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과 ㉢은 인간의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③ ㉠과 ㉡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④ ㉠과 ㉡은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⑤ ㉠과 ㉡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은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1.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 ㄷ. 인간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 ㄹ.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이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2. 윗글의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의 훌륭한데 있어서도 탁월한 존재이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네.

- ①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②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③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군.
- ④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 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의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뿩뿩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되, ‘만고총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 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 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론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참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B]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기를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문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옹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빠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 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러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 작자 미상, 「조옹전」 -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옹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옹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옹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옹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옹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옹이 거론되는 것은, 조옹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옹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옹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옹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신용 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킨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인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 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 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 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 침체에 대출 재원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개별 금융 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 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정책 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② ㉡에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 ④ ㉡은 ㉠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A)일 때 (B)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C)하도록 하고,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A	B	C	D
①	불황	거시	사용	미시
②	호황	거시	사용	미시
③	불황	거시	적립	미시
④	호황	미시	적립	거시
⑤	불황	미시	사용	거시

근면은 화근이, 당신의 게으름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지금 당신은 물러나 앉았으니 당신에 대한 시비의 소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러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니, 당신에게 어느 것이 흉하고 어느 것이 길한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유지(有知)를 버리고 무지(無知)를 이루며, 유위(有爲)를 버리고 무위(無爲)에 이르며, 유정(有情)을 버리고 무정(無情)을 지키며, 유생(有生)을 버리고 무생(無生)을 즐기면, 그 도는 죽지 않고 하늘과 함께 아득하여 태초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도울 것인데, 도리어 나를 나무라시니 자신의 처지를 아십시오. 그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게으름은 그제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다.

- 성현, 『조용(嗶慵)』 -

3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어진 삶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제1장>의 초장에는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드러난다.
- ② <제3장>의 중장에는 강호를 선택한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제6장>의 종장에는 화자 자신이 분수에 맞는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다.
- ④ <제9장>의 중장에는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화자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9장>의 종장에는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11장>의 종장에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34.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봉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화자는 '백운'과의 '위우'를 통해 '무한지락'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외에 연하 죽'한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물외에 벗'과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5. ㉠과 ㉡을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화자는 '공맹을 비호'기 위해 '성대농포'의 길을 가야 함을 알게 되었다.
- ② ㉡의 '나'는 '태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며 '군센 쇠'와 같은 변치 않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 ③ ㉠의 화자는 '녹수 청산'에서의 삶을 즐거워하고, ㉡의 '나'는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음을 '찌드른가'로 밝히고, ㉡의 '나'는 반성의 태도를 '고칠 터이니'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풍우 다'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 '나'는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용』에서 필자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준다.

- ①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필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하는 것에서,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 ③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④ '나'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 ⑤ '나'가 게으름 덕분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귀신'의 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시각을 알 수 있겠군.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한 대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를 ㉠ 이룬다고 할 때 이를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가령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 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그 조건으로 흔히 제시된다.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비해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 전달한다. 세포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분된다.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중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는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 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의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하고 분화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전자 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핵의 DNA와는 다른 DNA가 있으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

되었다.

공생발생설에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의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 만들어진다. 미토콘드리아의 막에는 진핵세포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인 포린이 존재하고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 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신을 복제하여 증식할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복제하여 증식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의 많은 부분이 세포핵의 DNA로 옮겨 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남은 유전자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의 유전자만 있을 정도로 DNA 길이가 짧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성과 관련된 예를 제시한 후 공생발생설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 ② 개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후 세포의 생물학적 개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개체의 유형을 분류한 후 세포의 소기관이 분화되는 과정을 공생발생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개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후 세포가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성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개체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
- ② 바닷물을 개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기적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④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한다.
- ⑤ 진핵세포가 되기 전의 고세균이 원생미토콘드리아보다 진핵세포와 더 강한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39.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핵세포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② 공생발생설이 당시의 유전학 이론에 어긋난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③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④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0. <보기>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을 연구한 결과들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분열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세포 소기관이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수송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올리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복어는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어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어는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었다.

○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하였다. 생존한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는 않았다. 아메바에게는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게는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 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것이겠군.
- ② 복어의 ‘체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은 ‘복어’와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진다면 개체성을 잃을 수 있겠군.
- ③ 복어의 세포가 증식할 때 복어의 체내에서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의 DNA도 함께 증식하는 것은 아니겠군.
- ④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개체성을 잃었다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의 DNA 길이는 짧아졌겠군.
- ⑤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복어’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 관계이겠군.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구성(構成)한다고
- ② ㉡: 존재(存在)하고
- ③ ㉢: 보유(保有)하고
- ④ ㉣: 조명(照明)되면서
- ⑤ ㉤: 생성(生成)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광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놀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쭉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린 돌멩이 위에 **엎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4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놀려	㉡
3연	들쭉레	들쭉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엎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 ①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 ‘놀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쭉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엎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45.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빈자리’를 ‘들쭉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뉘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뉘시꾼 인형은 뉘시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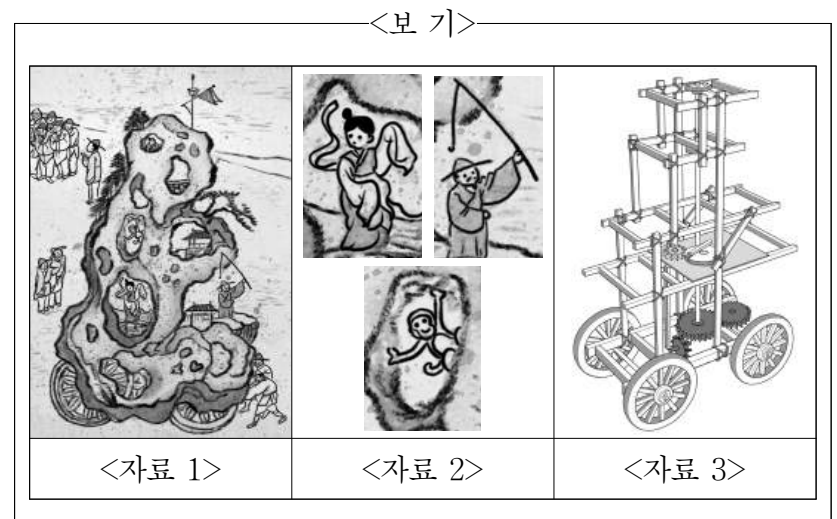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예산대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③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⑤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다음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 ①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 ②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 ③ 예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라고 하셨는데, 그 산은 신선의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④ 예산대에서 인형극이 행해졌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직접 예산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었나요?
- ⑤ 『봉사도』는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대 외에 다른 그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4~5] 다음은 학생이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면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지 편집부 기자 ○○○입니다.
 사서: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 사서 △△△입니다.
 학생: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지에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햇살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사서: 우리 도서관을 소개한다니 고마워요.
 학생: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
 사서: 아마 ‘책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학생: 책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서: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학생: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서: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그것을 보고,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합니다. 다음 날 선정한 이유를 적은 편지를 책과 함께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일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A]
 학생: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서: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학생: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
 사서: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책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편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서: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학생: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사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이 한국고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서: 고맙습니다.

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
-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고,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 다음은 위 면담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이다. 면담과 학생 글을 고려할 때,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과 마음이 닿는 햇살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햇살도서관은 책편지 서비스를 하는 마을 도서관이다.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책편지 서비스는 햇살도서관에서 신청자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골라 주고, 그 이유를 편지에 적어 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경험한 주민들은 햇살도서관이 책을 빌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말한다. 책편지 서비스는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사서 선생님들 덕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 탐색이나 교우 관계에 고민이 있는 한국고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면담에서 받은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포함하여 독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높인다.
- ② 책편지 서비스가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책편지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를 알린다.
- ③ 마지막 질문에 대한 사서의 답변 중 일부를 글의 부제로 제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 ④ 면담에서 알게 된 책편지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제시하여 책편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⑤ 면담에서 학생이 사서에게 언급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도서관의 장점을 부각한다.

[6~7]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들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가) 학생 1
옥수수 씨앗을 심으러 학교 텃밭에 가는 날이었다. 처음 심어 보는 옥수수라 마음이 설렘이 들었다. 그런데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잡초를 뽑고 텃밭의 흙을 정리하느라 흙먼지가 날리고 땀이 흘렀다. 생각보다 일이 많고 힘들었다. 괜히 시작한 것 같아 후회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투덜대며 얼굴을 찡그렸다. 옆에서 나를 지켜보신 선생님께서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야지.”라고 하셨다. 생각해 보니 텃밭에 오면서 느꼈던 설렘은 어느새 투덜땀으로 바뀌어 있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었던 것은 아닐까? 텃밭에 올 때의 마음으로 옥수수 씨앗을 심으며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하나의 생명을 심을 때는 심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심는 거란다.’

(나) 학생 2
선배와 학교 텃밭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아침저녁으로 살피며 싹이 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열흘쯤 지나자 선배의 옥수수는 싹이 올라오는데, 내 옥수수의 싹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여러 번 텃밭에 갔다. 선배는 때가 되면 싹이 돌아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했다. 선배의 말에 나를 되돌아보았다. 왜 그렇게 조급해했던 것일까? 나는 평소 무엇인가를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랄 때가 많았다. 이런 태도는 친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 가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데,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조급해하며 서운했던 적이 많았다.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성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옥수수 싹이 어느새 올라와 있었다.

6. (가)와 (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타인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 ②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④ ‘학생 1’은 같은 문장을 다시 인용하며, ‘학생 2’는 자신이 원했던 상황이 이루어진 모습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⑤ ‘학생 1’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학생 2’는 자신의 태도를 타인과의 관계와 연결 지어 내용을 전개하였다.

7. <보기>는 (가)와 (나)를 읽은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친구들이 쓴 글 읽어 봤어? 소감이 어때?
B: ‘학생 1’, ‘학생 2’ 모두 학교 텃밭에서 체험한 내용에 대해 쓴 점이 흥미로웠어. ‘학생 1’은 자신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고, ‘학생 2’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어.
A: 나도 그렇게 생각해. ㉠ 그런데 기다림의 자세만으로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B: 그럼. ㉡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빨리 잘하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은 적이 있어서 ‘학생 2’의 생각이 이해되더라. 나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A: ㉢ ‘학생 2’의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 노력에 따라 목표한 결과를 얻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
B: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 같은 글을 읽고 이야기해 보니, 서로의 생각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 ① ㉠: ‘학생 2’의 글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대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학생 2’의 글에 공감하고 있다.
- ③ ㉢: ‘학생 2’의 글에 담긴 생각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있다.
- ④ ㉣: ‘학생 2’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학생 1’, ‘학생 2’의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 이유를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주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 글의 목적: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기
- 예상 독자: 확증 편향의 개념이 생소한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글

만약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증거를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형 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사형 제도의 효과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공한 후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지.’라고 반응한 반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심리적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확증 편향에 빠질 경우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려워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다. 또한 확증 편향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은 사회적으로 편향된 통념을 형성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존 증거들을 탐색하게 되어 판단의 [A]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기에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토의와 같은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구성원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이 불러일으킬 영향을 예상하여 책임감을 가진다면, 판단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서로 갈등하는 일을 막으려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8.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은?

- ①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야겠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겠다.
-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해야겠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증 편향을 보여 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을 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을 제시해야겠다.

9. (나)에 제시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갈릴레이는 태양의 흑점 이동과 목성의 위성 존재 등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지동설이 옳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에서는 천동설을 지지했기에 갈릴레이의 거듭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였다. 지동설은 갈릴레이 사후에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①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한다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확증 편향으로 인한 판단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
- ③ 현상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관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④ 집단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가치관이 다양한 세상에서 일관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10.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A]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즉,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사 결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①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문단 간의 관계를 알려 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게 어때?
-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 ③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니까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때?
- ④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문단의 통일성에서 벗어나니까 해당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때?
- ⑤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주장에 대한 근거로 추가하는 게 어때?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2) 민수는 방에서/*방에 공부하고 있다.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애/에/예,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애/에/예,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애/에/예,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애서/에서/예서, 인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씨셔’ 역시 ‘씨’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씨셔’,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인/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대 국어의 예
㉠ 그 지역에서 공통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중세 국어의 예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씨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 ①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씨셔’가 붙었군.

1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흐기]	[안파글]	[너기]	[끄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흙기]	[안파끝]	[넋씨]	[끄툸]	[수페]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안파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습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④ ‘끝을’은 연습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습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14.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물을 마셨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히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쫓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밋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룰소냐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호야 산일(山日)이 적적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이란 오늘 호고 옥기(浴沂)란 내일 호새
 아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호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로다
 무릉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호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관안에 히 비첸다
 평무(平蕪)에 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썬워 야외로 보너노라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홈*도 ㄱ이 엷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엷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디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㉔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푸른 물결.
 * 소쇄함: 기운이 맑고 깨끗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㉔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㉔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19. ㉠~㉔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를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는 ㉠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한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료를 매개로 과거와 만난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역사학이 학문이 될 수 있으며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 만날 수 있다면 역사학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 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 나타났다.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논리적 연관이 없는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반면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띤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닳은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광학적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피사체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언어적 서술에 비해 호소력 있는 서술로 비춰지게 된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 이룬다.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로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일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 펼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는 ㉦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역사가는 ㉧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어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언어, 물질문화, 풍속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며,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혹은 작가의 의도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실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허구의 이야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A]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 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의 묻혀 있던 목소리를 표현해 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의 개념을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영화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혀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영화의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 서술로서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 ③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강하다.
- ⑤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기호이다.

23. ㉠, ㉡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당시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들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공통된 요소를 분석했다.

㉣. 17세기의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한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그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의 여러 곳에서 문장을 차용했다.

- | | | |
|---|------|------|
| | ㉠ | ㉡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24. ㉠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②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 ③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 ④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 ⑤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82년 작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한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했다. 1993년,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로 탈바꿈되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난다. 전자는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다. 반면 후자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다.

- ①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하는군.
- ②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을 가공의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 ③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실제 사건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제작됐지만, 그 속에도 역사에 대한 영화인 나름의 시선이 표현 기법으로 나타났겠군.
- ④ 영화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역사적 고증에 바탕을 두고 당시 사건과 생활상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역사 서술 방식에 가깝겠군.
- ⑤ 역사서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16세기 프랑스 농촌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서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시사 연구의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군.

2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면(對面)할
- ② ㉡: 간주(看做)되었던
- ③ ㉢: 대두(擡頭)했다
- ④ ㉣: 결합(結合)한다
- ⑤ ㉤: 전개(展開)하기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7.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8.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9.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하랴?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가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쨌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맥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맥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맥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맥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 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너덕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임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나?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
 하는 서대주 집이나?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
 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꿰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양: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33.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종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 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 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빛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골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가을 아침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① 수풀이 호르르 벌레가 호르르르

청명은 내 머릿속 가슴속을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가나니

온 살결 터럭 끝은 모두 눈이요 입이라

나는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의

가장 고흥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수풀과 벌레는 자고 깨인 어린애라

밤새워 빨고도 이슬은 남았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주리나니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노는

㉠ 햇빛이 처음 쏟아오아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그때에 토록 하고 동백 한 알은 빠지나니
 오! 그 빛남 그 고요함
 간밤에 하늘을 쫓긴 별살의 흐름이 저러했다

온 소리의 앞 소리요
 온 빛깔의 비릇이라
 ㉡ 이 청명에 포근 취어진 내 마음
 감각의 낮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 김영랑, 「청명」 -

* 취어진: 계절의 정취에 젖어 든.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
 강물 위에 째랑째랑 구슬알을 쏟아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가는 오월도 청명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신는 날에.

- 고재중, 「초록 바람의 전언」 -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낮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청명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시인에게 상상력의 주요한 원천이 되어 왔다. 그중 생태학적 상상력은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모든 생태계 구성원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여, 서로 교감·소통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로, 나아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을 통해 시인은 자연의 근원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38.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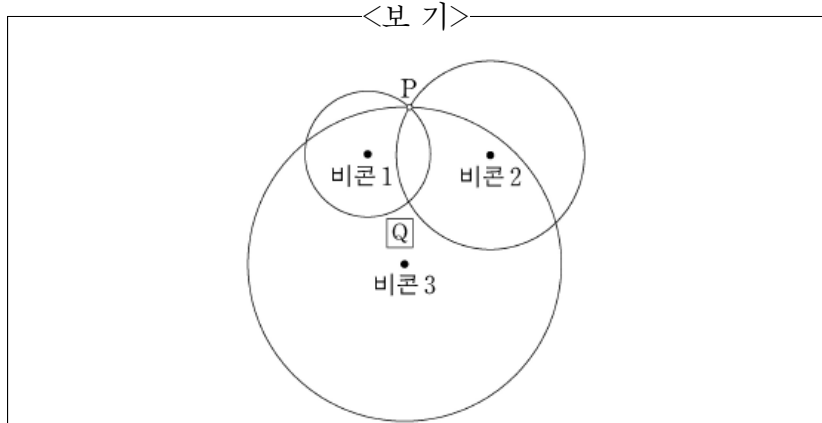
39.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 ②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 ③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 ④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 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 ⑤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 ②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41.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 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이다.
 *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다.
 (단,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신호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신호 순이겠군.
-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멸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텔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려는 거야. 이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반말 투로** **옥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건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땅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러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친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콕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활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느냐.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㉔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덴 귀가 딱 멀어 버리셨나. 왜 통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율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씀이야.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㉕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승맞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㉔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 채권 삽니다아 —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아 —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다아 —”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제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43.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㉒: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㉓: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㉔: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뉘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㉕: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4.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음박’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45. ㉖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통에는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청중의 답을 듣고)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그럼 사람들은 왜 볼펜을 애용할까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펜은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찢어지거나 볼펜 끝 부분이 망가지는 일이 적습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자료 1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만년필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촉이 날카로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거친 표면에 글씨를 쓰면 펜촉이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아, 질문이 있으시네요. (㉠ 청중의 질문을 듣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네, 그럼 발표를 이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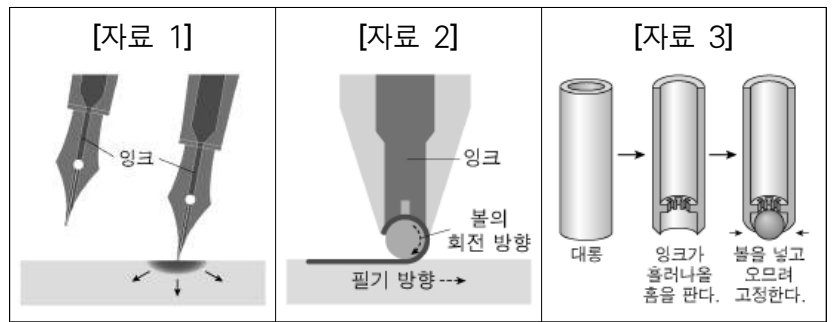
(자료 2를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 의해 볼이 구르지요. 이 과정에서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가 써집니다. 그런데 볼펜의 볼이 빠진 경험이란 한번쯤 있으시죠? (자료 3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볼펜은 잉크가 들어갈 대롱의 끝에 볼을 넣은 후 밑 부분을 오므려 볼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볼이 빠지는 문제를 정밀한 기술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펜은 종류가 다양하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자가 물에 잘 번지지 않는 유성 볼펜, 필기감이 부드러운 수성 볼펜, 여러 색을 하나에 담은 다색 볼펜, 글씨를 쓰고 지울 수 있는 볼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압 볼펜 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볼펜은 신문 기자였던 라즐로 비로가 특허를 낸 이후 상용화되면서 기존 필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펜이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여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⑤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자료	발표 내용	매체 자료를 활용한 이유
① 자료 1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관 현상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를 대비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② 자료 2	볼펜의 제작 과정	볼펜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여 보여 주기 위해
③ 자료 2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	볼이 있는 부분의 단면을 확대하여 볼의 잉크가 종이에 묻는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해
④ 자료 3	볼펜의 볼을 고정하는 과정	볼펜의 볼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⑤ 자료 3	볼펜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	잉크가 흘러나오는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보여 주기 위해

3.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 ② 만년필 외에 모세관 현상이 적용되어 손쉽게 필기할 수 있는 필기구에는 무엇이 있나요?
 - ③ 만년필 펜촉의 굵기와 필기할 때 힘을 들이는 정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④ 만년필로 힘들이지 않고 글씨를 쓰려면 어떤 형태의 펜촉을 사용해야 하나요?
 - ⑤ 종이의 섬유소가 가는 대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4~7]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공 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큼니다. 실제로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회사는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데 반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공 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2: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1: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 지능 면접이 신뢰성도 높습니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잠재력 파악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어 지원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원자들의 면접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돼 결국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찬성 1: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A]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 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토론 후 과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나) 학생의 초고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공 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느라 진땀을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미래에 인공 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인공 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인공 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만든 도구인 인공 지능이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구일 뿐인 기계가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 지능이 인간을 판단한다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인공 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인공 지능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지만 인간은 말과 행동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하여 사고한다. 인공 지능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통계적 분석을 할 뿐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기계가 타당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인공 지능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반면 인간은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인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4.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 1]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편리한가?

- ▶ 찬성 1: 때와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 반대 1: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①

[쟁점 2]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경제적인가?

- ▶ 찬성 1: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과가 큼을 비용 절감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②
- ▶ 반대 1: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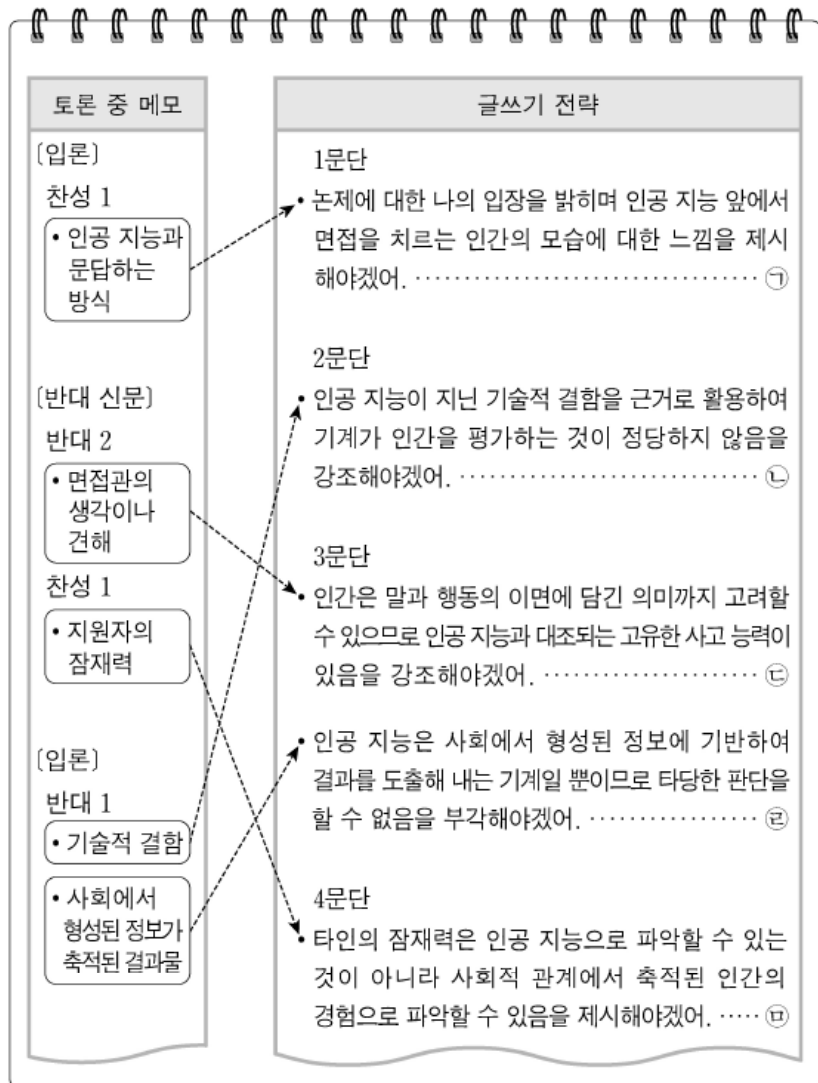
[쟁점 3]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의 평가는 객관적인가?

- ▶ 찬성 1: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객관적임을 밝히고 있다. …… ④
- ▶ 반대 1: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객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절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6. 다음은 (가)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의 일부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끝 부분에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친구의 조언: 1문단에서 제기한 첫째 물음에 대해 너의 입장을 드러내야 할 것 같아.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2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좋겠어.

- ① 인공 지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수 없다. 인공 지능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하다.
- ②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공 지능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③ 인공 지능은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공 지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인간이 객체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 ④ 인공 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이용하는 객체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 ⑤ 객체인 인공 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은 인공 지능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8~10]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작문 상황]

- 목적: 지역 방언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
- 주제: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실태를 잘 모름. ㉠
-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나) 학생의 초고

세계에서 언어가 사라져 가는 현상은 우리나라 지역 방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 방언의 어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방언 어휘 중 특정 단어들을 우리 지역 초등학생의 80% 이상, 중학생의 60% 이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한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제주 방언을 소멸 직전의 단계인 4단계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하였다.

[A] 지역 방언이 사라져 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표준어가 확산되어 가는 것도 한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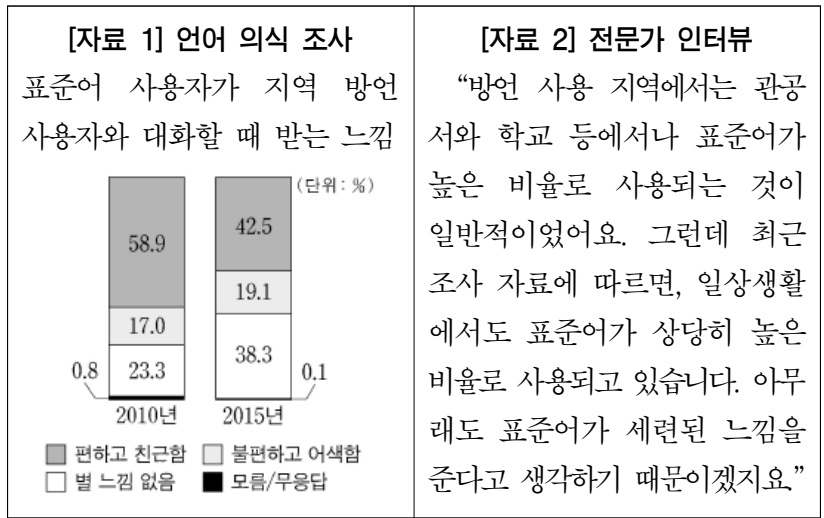
일부 학생들은 표준어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지역 방언이 꼭 필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지역 방언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 방언의 가치 때문이다. 지역 방언은 표준어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슬기’ 외에 ‘올갱이, 데사리, 민물고동’과 같이 동일한 대상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지역 방언이 있는 것처럼 지역 방언은 우리말의 어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B] 지역 방언은 우리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이다. 지역 방언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사라져 가는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자.

8. ㉠, ㉡을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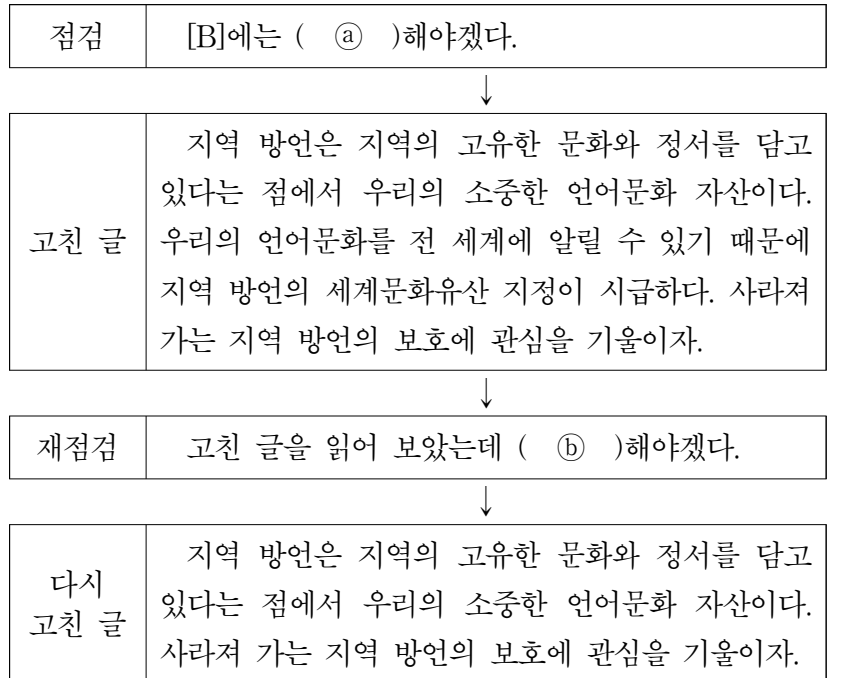
- ① ㉠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 방언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하여, 소멸 위기 언어로 등록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이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 ③ ㉠을 고려하여,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역 방언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며 지역 방언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 ⑤ ㉡을 고려하여, 지역 방언의 예를 활용하며 지역 방언의 가치를 설명한다.

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료 1]: 지역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의 비율과 부정적 느낌의 비율 변화 양상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지역 방언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② [자료 1]: 지역 방언 사용자와 대화할 때 받는 느낌의 순위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방언 교육 정책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③ [자료 2]: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식적 상황에서의 표준어 사용 교육이 부재한 것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④ [자료 2]: 공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를 일상에서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표준어를 쓰려는 태도를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 ⑤ [자료 1]과 [자료 2]: 지역 방언에 대한 표준어 사용자와 지역 방언 사용자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중 매체의 지역 방언에 대한 편향성을 원인으로 추가해야겠군.

10. 다음은 학생이 [B]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으니 이를 추가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② [㉠: 문단이 완결되지 않았으니 마무리하는 문장을 추가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③ [㉠: 문장 간 연결이 긴밀하지 않으니 연결 표현을 추가
㉡: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이 있으니 이를 삭제
- ④ [㉠: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부족하니 이를 추가
㉡: 글의 맥락에 부적합한 담화 표지가 있으니 이를 삭제
- ⑤ [㉠: 주요 개념의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
㉡: 앞 문단에서 다룬 중복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삭제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 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

-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①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11.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 ④ ‘뺨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12.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영희: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뎀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너 빛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빛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① 빛쟁이
- ② 빛쟁이, 금방
- ③ 뒤, 돈
- ④ 뒤, 금방, 돈
- ⑤ 빛쟁이, 뒤, 금방

1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꼇]’은 ④, ‘잇[입]’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잇’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잇]으로 발음돼요. 이때 [닛]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화+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쌩]’에서의 [쌩]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샨]’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어인 ‘활[활]’과 같아요.

1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하늘에 뜬 태양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늘 푸르던 하늘	㉣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 내가 읽는 소설	㉥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	-(으)㉤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ㅣ'로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
예) 바비(밥+이) [밥이]
-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
예) 활 쏘리(활 쏘 이+∅) [활 쏘 이가], 새(새+∅) [새가]
-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ㅣ'가 나타났다. 예) 쇠(쇼+ㅣ) [소가]
-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 ㉢
예) 꽃 도쿄 [꽃 좋고], 나무 셋는 [나무 서 있는]

<보기 2>

㉠: 나리 저므러	[날이 저물어]
㉡: 太子 오느다 드르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 내해 드리 업도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 아드리 孝道호고	[아들이 효도하고]
㉤: 孔子ㅣ 드르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이 ㉡이라면 ㉠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와 ㉢ 이외에는 ㉠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 적용
 [A]

- ① 병이 ㉠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하겠군.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녘 두던 밭기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빗치 되야 있다
중양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자스라
블근 게 여물고 높은 둑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지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있고
호두포* 엔 구빅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돛든빅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쏘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감지 이실 거지런들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려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췌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나
청준(淸樽)을 밧췌 열고 큰 잔의 그득 브어
㉣ 죽엽(竹葉) 그늘 술를 들빛 초차 거후로니
표연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호야 들을 보고 밧치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흐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룰소나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밧세 집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엇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리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 호두포: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사사료이 비춤.
-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관직 생활.
- * 몽혼: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샷갯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둑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 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뜯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헛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게’와 살진 ‘눌은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러 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룡’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 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이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증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 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양생이처럼 기러케 쏠라다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 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쥌 채 서 있었다.

— 넬끔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제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증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컷등에 연필을 쫓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깔 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붉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터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짜 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통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넋 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흑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 ④ 흑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도.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 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 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기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

[A]

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누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웁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웁니다.”

[B]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흠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33.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35.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 받을** **㉣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의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굼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 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교내 연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작은 빙하에 의지한 채 바다를 부유하던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빚어 낸 비극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갯벌과 염습지의 염생 식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산림의 약 37%이며 흡수 속도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산림은 탄소를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지만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이산화탄소 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므로 블루카본이 온전히 저장되어 있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합시다.

1.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 ② 통계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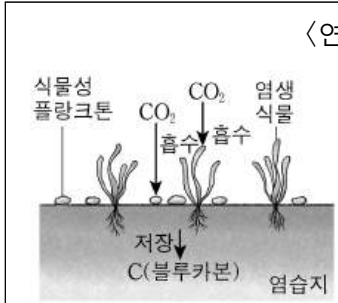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내 연설 대회

지구 온난화 대응의 새로운 접근, 연안 생태계!

연설자: △△△

○ 연설 관련 그림 자료

〈연안 생태계〉



식물성 플랑크톤, CO₂ 흡수, 염생 식물, CO₂ 흡수, 저장 (블루카본), 염습지

연안의 염생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함. ①

○ 연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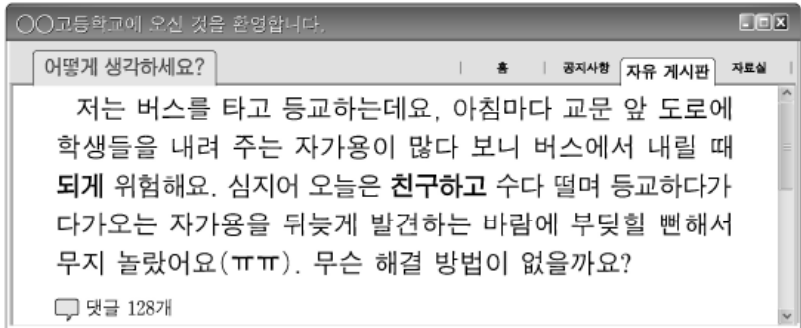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음. ②
-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함. ③
-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함. ④
-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음. ⑤

3.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이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안 생태계의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 ② 블루카본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 ③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산림 조성이 시급함을 알리자.
- ④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 ⑤ 북극곰과 공생하려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4~7]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학생 1: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학생 2: 아, 등굣길 문제?
 학생 3: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1: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학생 2: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학생 1: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학생 3: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학생 1: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학생 2: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학생 3: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학생 1: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학생 3: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2: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굣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학생 1: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서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4.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 ② (나)의 '홈피'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인 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 ④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 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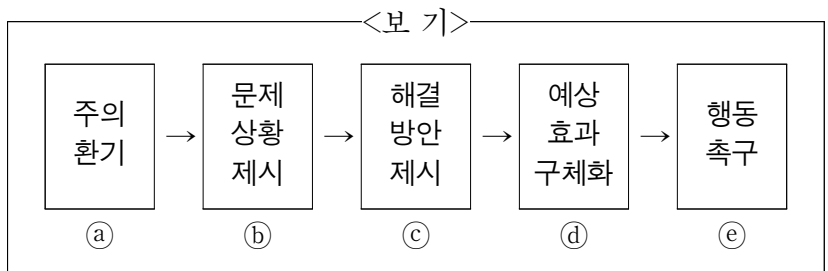
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 등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 부정이나 설의법 등이 활용된다.

- ① ㉠에서 현안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
- ③ ㉢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 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④ ㉣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설의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7.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의 ㉠~㉣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서 안전한 등갯길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갯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 주자고 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했을 때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나)에서 등갯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등교 시에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독자가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예상 독자: 학교 학생들
- 전달 매체: 2020년 6월에 발간될 학교 신문

[수집한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출처	연도(제작/발행)
<자료 1>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	○○신문	2019
<자료 2>	물 중독 사례	△△방송 다큐멘터리	2014
<자료 3>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	□□병원 보고서	2004
<자료 4>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	환경부 연례 보고서	2013

[초고]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하다. 그러나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한다. 단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는 ‘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물 중독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 연구 팀의 실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 팀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목이 마른지 물어보았다. 그런 다음 이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부여했다. 이후 관찰을 통해 이들의 물 섭취 유무를 파악하며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 반면 일반적 생각과 달리 목마르지 않은 때 물을 마신 경우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8.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별 기준	그렇다	아니다
(가) 작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나)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		

- ① <자료1>은 '내용'이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② <자료2>는 '내용'이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③ <자료3>은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출처'가 명확하고 물 섭취 실태를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고 보아 (나)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 ④ <자료4>는 '내용'이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 ⑤ <자료4>는 '출처'는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9. 위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한다.
- ② 1문단에서 물의 인체 내 역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 ③ 2문단에서 물 중독 증상에 대한 부분은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한다.
- ④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방법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다.
- ⑤ 3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는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에 마지막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하는 게 좋겠어.

- ①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②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만 물이 인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③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거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안다면 물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물 중독 사례와 연구 팀의 실험을 통해 물 섭취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마르지 않은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 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 올바른 물 섭취를 생활화한다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담화는 하나 이상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담화가 그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일관된 주제 속에 내용상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각 발화나 문장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형식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에는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 있다.

우선 지시 표현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대용 표현은 담화에서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지시 표현으로는 '이, 그, 저' 등이 있다. 이들이 담화에서 언급되는 말을 대신할 때는 대용 표현이 된다. 가령 친구가 든 꽃을 보면서 화자가 "이 꽃 예쁘네."라고 말했다면, '꽃'을 직접 가리키는 '이'는 지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가 "그런데 지난번 꽃도 예쁘던데, 그때 그거는 어디서 샀어?"라고 발화를 끝장 이어 간다면 이때의 '그거'는 앞선 발화의 '지난번 꽃'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이다. 끝으로 접속 표현은 문장과 문장, 발화와 발화를 연결해 주는 표현으로, '그리고' 등과 같은 접속 부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발화의 '그런데'도 앞의 발화를 뒤의 발화와 이어 주는 접속 표현에 속한다.

한편, 담화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 및 맥락을 고려하면서 발화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이때 여러 문법 요소가 활용된다. 가령 화자는 "아버지! 진지 드세요."라는 발화에서 '드세요'의 '드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특정 어휘나 조사, 어미 등을 사용하여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위의 ‘드세요’의 ‘-어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도 보여 준다. 즉, 종결 어미는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등 화자의 의도를 구현할 때도 쓰인다. 화자, 청자 및 맥락이 발화나 문장에서 문법 요소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셨구나! 과일 좀 드리고 오렴.”과 같이 연속된 발화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두 친구가 만나서 주말 나들이 장소를 정하는 상황)
선희: 우리, 이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
영선: (탄생각을 하다가) ㉠ 지금 저녁 먹으러 가자.
선희: 그게 뭐 소리야? 주말 나들이로 어디 갈 거냐고.
영선: (머쓱해하며) 아, 그럼 놀이동산 갈까?
선희: 음, ㉡ 거기 말고, (사진을 보여 주며) ㉢ 여기는 어때?
영선: ㉣ 거기?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 ㉤ 그리고 너무 멀잖아. (선희를 바라보며) 아,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어때?
선희: 그래, ㉦ 거기가 좋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안녕.

- ① ㉠은 ‘주말 나들이 장소 정하기’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서 담화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② ㉡는 ‘영선’이 발화한 ‘놀이동산’을 대신하는 대응 표현이다.
- ③ ㉢, ㉣는 발화 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형식적 장치로서 형태가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는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와 ‘너무 멀잖아.’를 대등하게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다.
- ⑤ ㉦는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계셨구나’의 ‘께서’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계셨구나’의 ‘-구나’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에 관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드리고’의 ‘드리-’를 통해 화자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오렴’의 ‘-렴’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1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선행 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의’ 등이 쓰인다. 다만 유정물이라도 존칭의 대상일 때는 이들 대신 ‘ㅅ’이 쓰인다. 이를 참고하여 선행 체언과 후행 체언이 관형격 조사로 연결되었을 때의 모습을 아래 표의 ㉠~㉤에 채워 보자.

선행 체언	아버님 (아버님)	그럭 (기러기)	아들 (아들)	수풀 (수풀)	등잔 (등잔)
후행 체언	곁 (곁)	목 (목)	나하 (나이)	가운데 (가운데)	기름 (기름)
적용 모습	㉠	㉡	㉢	㉣	㉤

- ① ㉠: 아버님(아버님+의) 곁 ② ㉡: 그럭(그럭+의) 목
- ③ ㉢: 아드(아들+의) 나하 ④ ㉣: 수풀(수풀+ㅅ) 가운데
- ⑤ ㉤: 등잔(등잔+ㅅ) 기름

14.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하게 ㉡ 실천하기 ㉢ 원한다면 제대로 ㉣ 된 계획 세우기가 ㉤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15.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학생: 선생님, 자기 소개서를 써 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헛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 봉사 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 도울 뿐이었는데 ㉢ 너 밖에 없다면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 때 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선생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학생: 아, 그럼 [A] 은/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군요.

- ① ㉠의 ‘보다’, ㉢의 ‘밖에’
- ② ㉡의 ‘뿐’, ㉣의 ‘밖에’
- ③ ㉡의 ‘뿐’, ㉣의 ‘만큼’
- ④ ㉠의 ‘보다’, ㉡의 ‘뿐’, ㉣의 ‘만큼’
- ⑤ ㉠의 ‘보다’, ㉢의 ‘밖에’, ㉣의 ‘만큼’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18. (나)를 참고할 때, ㉠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갑**: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② ㉡: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셋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뽕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건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먼저 k 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 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 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 ②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 ③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 ④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 ⑤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26. 윗글의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스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 ②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 ③ 보이스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 ④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 ⑤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2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A),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B)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C)이/가 늘어난다.

- | | A | B | C |
|---|------|------|--------|
| ① | 클수록 | 클수록 | 프레임의 수 |
| ② | 클수록 | 작을수록 | 시간 |
| ③ | 클수록 | 작을수록 | 프레임의 수 |
| ④ | 작을수록 | 클수록 | 시간 |
| ⑤ | 작을수록 | 작을수록 | 프레임의 수 |


2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촬영한 동영상 중 연속된 프레임)



㉠ k 번째 프레임



㉡ k+1 번째 프레임

- ① ㉠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② ㉡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 ③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을 보정하겠군.
- ④ ㉠은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 ⑤ ㉡을 보면 ㉠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과제: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 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 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 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33.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그기 뭘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었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쭈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 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엌게 밝아 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하고 말했다.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 끼다. 니 가족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끼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숙야” 하고 소리쳤다.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 오자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까잇 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겘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쑤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㉞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곁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떡두깨(떡두꺼비) 곁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찢매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㉟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㊱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꽤찮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였다가는 더 맥힐 거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곁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냈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㊲ 우물로 달려갔다.

[A]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B]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세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4. ㉞, ㉟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㉞을 통해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㉟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③ ㉞과 ㉟을 삭제하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④ ㉞과 ㉟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하여 읽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⑤ ㉞과 ㉟을 통해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㉞~㉟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㉞: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 ② ㉟: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 ③ ㉞: 주인공의 지난밤 체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 ④ ㉟: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
- ⑤ ㉟: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공간

3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②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 ④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로,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B]는 [A]의 ‘이야기’가 삼 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 때문임을 보여 준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 ①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겠군.
- ②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황만근이 ‘나는 인자 죽었다.’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겠군.
- ④ ‘바보 자숙아’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 할 수 있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샛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늣홀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지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녁녀(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A]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서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러니

- 정철, 「관동별곡」 -

* 호의현상: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서호 넷 주인: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동명: 동해 바다.
 * 음애에 이온 플: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여산: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②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 ⑤ ‘고갯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 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② ‘개심대’에서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화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A]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다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답]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답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답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답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답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답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훔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답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추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황송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 했습니다.

전우치: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꼴떨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여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왕은 고개를 들라.

왕: 예?

전우치: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 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어떤가?

왕: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 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감히 도사 높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도사 높이라? 예...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척-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 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 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냡을 주겠다.

전우치: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41.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4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2: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3: 전우치가 임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4: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5: 전우치가 재산을 훔쳐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4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뀔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4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칩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칩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뽕은맛의 느낌은 알지만 뽕은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임.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 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③ 감의 타닌(과육의 검은 점)이 뽕은맛을 낸.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
④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뽕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학생 2: 뽕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뽕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뽕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

학생 3: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뽕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4~7]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산림 치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국립 산림 치유원의 산림 치유 지도사 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시청자 분들께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도사: 산림 치유란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 치료라고도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 치유입니다. 산림 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 명상, 숲 체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숲 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도사: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진행자: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지도사: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진행자: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지도사: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지도사: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진행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지도사: (그림 제시) 이렇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물일곱 곳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도사: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도사: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입니다. 숲으로 오세요.

진행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 치유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했다.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 준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쉽숲’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쉽숲’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대화하기’였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A]

4.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⑤ ‘지도사’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진행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5. <보기 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 우편의 내용이고, <보기 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의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을 보내 드리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보기 2>

㉠ [동영상]
 ○ 내용: '숲 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등 숲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장면 (1분 분량)

㉡ [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값 변화

참가자 집단	참가 전 점수 평균값	참가 후 점수 평균값
A 직업군	36.6점	12.4점
B 직업군	34.3점	10.8점

※ 32~49점 구간: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해당함.

㉢ [그림]


- ①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겠군.
- ②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영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야겠군.
- ③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줘야겠군.
- ④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군.
- ⑤ [질문 3]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군.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 ②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혀야겠다.
- ③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혀야겠다.
- ④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해야겠다.
- ⑤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해야겠다.

7.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점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섬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해야겠어.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었다. 산림 치유의 효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③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 ④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⑤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8~10]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작문 상황: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
 -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
 - 인포그래픽이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 ㉣
 - 인포그래픽이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나) 학생의 글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의 쓰임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림]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 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글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각적인 형태로 복잡한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됐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관계를 나타냈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인포그래픽 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각적 재미에만 치중한 인포그래픽은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A]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8.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①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②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내용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1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알림판에 관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지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글만 활용할 때보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학교 신문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더니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림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 ①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② (나)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③ (나)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알림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④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⑤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네, ㉠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15.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랏 :말썽·미 中 國·국·에 달·아 文 文 字·종·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성·이 니
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鳴·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크 히·고·져 흙 썩·라·미
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말썽·미’와 ‘:흙 ·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②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③ ‘:이·를’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④ ‘:히·여’와 ‘便·便·安·안·크 히·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뿌·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쁘다’가 쓰였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였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A] 사람이였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면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다
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웅대가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였다.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였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였다. 그는 경기도 출생
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
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앓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B]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였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황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침지
수동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댕바람에 내 집을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였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쾌짌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지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맥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잖아……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설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웬소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 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이기영, 「고향」-

* 사슴: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7.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18.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 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슴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¹⁾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벨의 형식론²⁾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번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번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 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나)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20.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21.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②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③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 ④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⑤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22.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방론자가 뒤상에게 :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②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③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 ④ 뒤상이 제도론자에게 :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3.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작품 정보 요약


- 작품 제목 : 「그리움」
- 팸플릿의 설명
 -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임.
 -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음.
-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됨.

■ 비평문 작성을 위한 착안점

-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 ①
-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②
-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③
-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겠군. ④
-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 ⑤

24.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 <보기>의 A는 ㉠의 관점,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카소, 「게르니카」

A: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의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B: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 ①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 ③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 ④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B에서 ‘희망을 갈구하는’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겠군.

25.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인 것은?

- ①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前提)해야 한다.
- ② ㉡: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時期)이다.
- ③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 ④ ㉣: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根據)로 하여 쓰였다.
- ⑤ ㉤: 청소년의 시각(視角)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 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타내기
- ② ㉡: 드러내어
- ③ ㉢: 헤아릴
- ④ ㉣: 마주하기
- ⑤ ㉤: 달라진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찌하뇨?”
뺏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에게 여쭙즉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엷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겹,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 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짜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쑈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레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 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A]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라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도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다.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抗)미생물 화학제’라 한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 중 ㉠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 소독제라 한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3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 ②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 ③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④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 ②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 ③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 ④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 ⑤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
- ③ ㉡과 ㉣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 ⑤ ㉡은 ㉣과 달리,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3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상의 실험 결과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얻었다.

[결과 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결과 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 학생의 추론: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 [가] 고 추론할 수 있어.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화합물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 ①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②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③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④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는다 훈다마는
①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늬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뽕7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흐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넙'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넙'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넙천'에서의 '한홍'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넙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넙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넙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부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생각 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나라 고분 벽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돌방 무덤에 있습니다.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으로 3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고분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 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방법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의 고분 벽화에는 연꽃무늬가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연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 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四神)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인식과 사회상을 담아낸 고분 벽화의 전통은 조선 전기 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 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종교 사상이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후 질의응답]
 - 청 중 : [A]
 - 발표자 :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② 고구려에 도교가 확산된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에 사신이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③ 고구려 고분 벽화에 주대종소법이 활용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에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④ 고구려 돌방무덤은 3세기에 출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⑤ 고구려 고분 벽화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4~7] (가)는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중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활동 1]: 모둠 활동을 통해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과 관점 정하기

[활동 2]: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활동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가)

학생 1: 오늘은 내가 모둠장 할 차례니까 진행해 볼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 볼까?

학생 2: 그래, ㉠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을 다루기로 했었지?

학생 3: 맞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학생 2: ㉡ 근데 그건 교지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학생 3: 그러네. 그럼 어떤 걸로 하지?

학생 1: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 그건 어때?

학생 2: ㉢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줄래?

학생 1: 응. 장소가 본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해.

학생 3: 그렇구나.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거리로 변해 버렸잖아.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 이것도 장소의 획일화 아닐까?

학생 1: 그래, 그게 장소 획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도 경험했을 만한 내용이네. 장소의 획일화를 현안으로 다뤄 보자.

학생 3: 좋아. 근데 장소의 획일화가 나쁜 점만 있을까? 인기 있는 명소를 따라 해서 획일화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

학생 1: 물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획일화된 장소는 금방 식상해져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될 거고.

학생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를 해 보자.

학생 3: 응. ㉤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

학생 1: 아무래도 장소의 다양성이 줄어들니까 가 볼 만한 장소가 줄어들겠지. 다른 문제점도 있을 텐데, 내가 자료 수집하면서 더 조사해 볼게. 다른 역할도 나눠 볼까?

학생 2: 초고는 내가 써 볼게. 초고 다 쓰면 검토 부탁해.

학생 3: 나도 자료를 찾는 대로 정리해서 공유할게.

(나)

제목: 이곳저곳 같은 장소, 장소의 획일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개성 없는 ○○거리가 자리 잡았다. 추억이 담긴 골목길이 전국의 수많은 ○○거리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장소가 고유한 특성을 잃고 다른 장소와 동질화된 것이 장소의 획일화이다.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장소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과는 구별되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는 ‘나의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장소가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는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도 줄어든다. 인기 있는 장소를 따라 하면, 장소 고유의 특성이 사라져 경험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내 학술제에서 소개된 ‘우리 동네 보고서’를 보면,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일어난 변화가 최근 우리 동네 곳곳으로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장소가 획일화되어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데 장소의 획일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장소를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소의 가치는 장소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 재래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살려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각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확인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③ ㉢: 상대의 의견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5. 다음은 '학생 1'이 [활동 1]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 중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른 것은?

• 모둠 활동 시작
 - [활동 1]과 관련해 지난 활동에서 논의된 사항 환기 ... ㉠
 •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 선정
 -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 ㉡
 - 매체에서 찾은 현안 제안 ㉢
 • 현안에 대한 관점 선정
 - 관점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 안내 ㉣
 • 모둠 활동 마무리
 - [활동 2]와 관련해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 제안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6. '학생 2'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제목
 [활동 1]에서 선정한 현안이 드러나게 제목을 구성해야
 겠군. ①
 • 1문단
 [활동 1]에서 예상 독자도 접했을 만하다고 논의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해야겠군. ②
 • 2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야겠군. ... ③
 • 3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장소의 획일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추가 자료를 활용해야겠군. ... ④
 • 4문단
 [활동 1]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서술해야겠군.
 • 5문단
 [활동 1]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례를 추가하여 장소의 획일화
 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부각해야겠군. ⑤

7. 다음은 선생님의 모둠 활동 안내이다. 이에 따라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오늘은 모둠에서 작성한 비평문의 초고를 평가해 볼게요.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각 모둠별로 평가해 봅시다.

- ㉠ 현안에 대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현안에 대한 관점이 일관되는가?
 ㉢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할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① ㉠을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② ㉡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③ ㉢를 고려할 때,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④ ㉣를 고려할 때, 장소가 획일화되면 인간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이 훼손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⑤ ㉣를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를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8~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작문 목적: '게임화'에 대한 정보 전달
- 주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임화'의 특징
- 예상 독자: '게임화'가 생소한 우리 학급 학생

(나) 학생의 초고

'게임화(gamification)'란 게임적 사고나 게임 기법과 같은 요소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때 게임이란 컴퓨터 게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게임화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하여 이에 도전하게 만든다. 이후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자들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배경으로 율놀이 판을 만들어 모둠별 퀴즈 대결을 펼친 것도 게임화에 해당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퀴즈를 맞히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게임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한편 게임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기업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달리기를 하면 달린 거리와 소모 칼로리 등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과제를 통해 참여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일리지를 올려 주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게임화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게임화를 활용하느냐이다. 게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흥미, 도전, 경쟁, 보상과 같은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8.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다.
- ② 제재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제재가 가지는 효용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③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례를 제시한다.
- ④ 제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정의한다.
- ⑤ 제재와 관련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상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한다.

9. <보기>는 (나)의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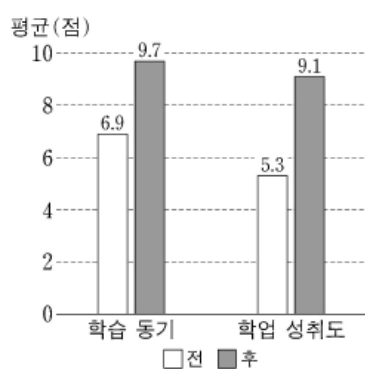
가상의 나무 심기가 실제 나무 심기로 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가상의 나무를 심으며 얻는 성취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가상의 나무 심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ㄴ. 전문가 인터뷰

"게임화된 과제에서는 참여자가 무언가를 하거나 선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됩니다. 이때 피드백의 한 유형인 보상 또한 신속하게 주어집니다. 참여자는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ㄷ. 연구 자료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사회 수업에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과 적용하지 않은 학급으로 나누어 수업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게임화를 적용한 학급은 적용하지 않은 학급과 달리, 도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 ① ㄱ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에 게임화가 환경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게임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게임화를 학습 상황에 적용한 (나)의 내용에 게임화가 학습 참여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나)의 내용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10. 다음은 (나)의 '학생'이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 활동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 일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 보자.
- (1) 자신이 쓴 글과 관련한 경험을 떠올려 보자.

지난 한국사 시간에 모둠별로 퀴즈 대결을 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다른 모둠을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모둠의 친구를 다그치며 싫은 소리를 해 버렸다.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다음 날 그 친구를 찾아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 (2) (1)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쓸 내용을 생각해 보자.

이번 일로 게임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A] 내용을 제시하여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 ① 게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에만 연연할 경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 ② 게임화를 통해 단순히 흥미만 추구할 경우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 ③ 게임화된 과제에 도전하려는 의욕이 없는 경우 다른 참여자들의 과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 ④ 게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제에 대한 몰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 ⑤ 게임화의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쥬(소젓메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소젓메쥬’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땡아 갈라서 틀어 땡’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땡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11.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1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연지’라고도 했다.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이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 ‘혁명’의 순화어로 ‘가족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족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 ① ‘입술연지’는 ‘소젓메쥬’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④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13.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물 떡볶이’ 만드는 법

- 떡을 물에 ㉠ 담궈 둔다.
-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 걸러서 육수를 준비한다.
- 육수에 고추장, ㉢ 같은 마늘, 불린 떡, 어묵을 넣는다.
- ㉣ 하였던 떡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 젓어 익힌다.

- ① ㉠: 예쁘-+-어도 → 예빠도
- ② ㉡: 푸르-+-어 → 푸르러
- ③ ㉢: 살-+-니 → 사니
- ④ ㉣: 동그랗-+-아 → 동그래
- ⑤ ㉤: 굽-+-은 → 그은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접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접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다음 밑줄 친 접문장 ㉠~㉥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 기상청은 ㉠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 시민들은 ㉡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
- ㉢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갔다.
- 나는 나중에야 ㉣ 그녀는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깨달았다.
- 삼촌은 주말에 ㉤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

- ① ㉠은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 ② ㉡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③ ㉢는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④ ㉣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는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현대 국어와는 달리 중세 국어의 ‘㉠’, ‘㉡’가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선생님: ‘㉠’, ‘㉡’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단다.

(가)

체언의 끝소리	조사의 형태	예
자음	이라	지비라[집이다]
단모음 ‘이’나 반모음 ‘ㅣ’	∅라	스시라[스시(사이)이다] 불휘라[불휘(뿌리)이다]
그 밖의 모음	ㅣ라	전치라[전츠(까닭)이다] 곡되라[곡도(꼭두각시)이다]

(나)
수(금)은 이제라[이제이다], 下(하)는 아래라[아래이다]

학 생: (가)의 ㉠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 ‘㉡’가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 | | |
|-------|----|
| ㉠ | ㉡ |
| ① 지비라 | 이라 |
| ② 스시라 | ∅라 |
| ③ 불휘라 | ∅라 |
| ④ 전치라 | ㅣ라 |
| ⑤ 곡되라 | ㅣ라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지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 그가 쓴 『북학의』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 중화 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백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득하였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덕무는 『입연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나)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㉔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 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㉕ 성행하였다.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㉖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에 의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 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 ③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18세기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7. (가)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제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 ② 박제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 이라고 생각하였다.
- 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 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 ⑤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18. 『평등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 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이다.
- ③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④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 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 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19. 문맥을 고려할 때 ㉑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②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③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④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 ⑤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군.

20.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의』의 일부이다.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냥을 연경에 실어 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 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 오는 일은 없다.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 ①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②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어.
 ③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④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변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⑤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2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드러난
 ② ㉠: 생각하지
 ③ ㉠: 그치지
 ④ ㉠: 따라갔다
 ⑤ ㉠: 일어났다

-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쾌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 갔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튀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 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원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 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 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가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㉞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엔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케작·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한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22.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 ② '나'는 D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24.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 ② '나'는 ㉡의 정체와 '노인'이 ㉡를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 ③ '나'는 '노인'이 ㉡를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④ '나'는 자신과 ㉠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도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 ②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돌', '벌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 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6.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	㉧
본계약상 급부	㉨	식사 제공

- | | ㉦ | ㉧ | ㉨ |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없음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들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옹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침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요.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뱀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 ① 아이가 현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몰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숫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숫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숫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숫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 하면 동영상이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레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3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 ②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숫값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 ④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 ⑤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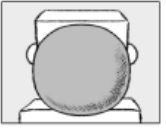

35.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 ②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 ④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 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36.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 ②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 ③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 ④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 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37.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	'네모'가 바람을 불어 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숫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 ②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 되겠군.
- ③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 ④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 ⑤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숫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디 혼디 네자 호앗더니
 늙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났더니
 그 더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므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인성(人生)은 유한(有限)혼디 시름도 그지업다
 무심(無心)혼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염냉(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꺾듯 냉담(冷淡)혼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정철, 「사미인곡」 -

(나)

창 밧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어즈버 유한(有限)혼 간장(肝腸)이 다 그츨가 호노라

- 신희 -

* 혜란 혜경: 난초 핀 지름길.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잣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칼칼칼 담을 따라 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어 놓은 늘어진 천막.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게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당호: 집에 붙이는 이름.

* 유중영의 옛일: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 임원: 산림.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② (가)의 '호는고야'와 (나)의 '호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 ② ‘접어 있고’와 ‘늡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 ③ ‘삼 년’ 전을 ‘엇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임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 ④ ‘인성은 유훈’과 ‘무심흔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어.
- ⑤ ‘염냥’이 ‘가는 듯 고택’ 온다는 인식에서, 임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

40.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 ①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② (나)에서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리가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③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옛집’의 ‘초당’에 붙였던 당호를 ‘임원’의 새집에서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필자가 외적 고요에 더해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굳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41. (가)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다)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42.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기억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새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호의 의미를 통해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집이 그릇과 같은 부류이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여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용악, 「그리움」-

(나)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기름쟁이 사래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탕자 울타리가 쳐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 팡팡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냇가에 소고삐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 쇠르르 쇠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집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 청청히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섭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댁의 목소리와
 ㉣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돌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돌아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그 언덕」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을 활용하여 무섭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 ④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되는 토대를 이룬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꼼꼼하게 읽기
- ②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읽기
- ④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기
- 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게 되면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데 퇴계(退溪)는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항상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만다. 그러니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 이익, 『서독승면론』 -

- ① ‘정신이 새어 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는 데 대한 우려는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음을 시사한다.
- ② 학문 과정에서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 ③ ‘읽은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 ④ ‘마음속의 생각’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강론’ 또는 ‘기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 과정과 연결된다.
- ⑤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의를 드러낸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문장을 읽으면서 특정 전공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독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우리도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문점을 나누며 의논하는 경우가 많잖아?

- ① 독서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모범적인 독서 태도를 발견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알게 된 내용과 관련지어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⑤ 독서 경험에 비추어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흄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턴의 과정 이론이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 [A]가 스크린상의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ㅁ	

- ① ㄱ: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였음.
- ② ㄴ: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음.
- ③ ㄷ: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였음.
- ④ ㄹ: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변용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음.
- ⑤ ㅁ: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 ②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 ③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 ④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6.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 ②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 ③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 ④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 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재이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 ② ㉠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었다.
- ③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 ④ ㉡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 ⑤ ㉡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8.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 ㉡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 ㉢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 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①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 ②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 ③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 ④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는 새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 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 동의하겠군.

9.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었다.
- ②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해라.
- ③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 ④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을 찾는 중이다.
- ⑤ 선생은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 올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향유(享有)하기로
- ② ㉡: 단절(斷絶)하는
- ③ ㉢: 둔감(鈍感)해져
- ④ ㉤: 지대(至大)한
- ⑤ ㉥: 수립(樹立)하였다는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A]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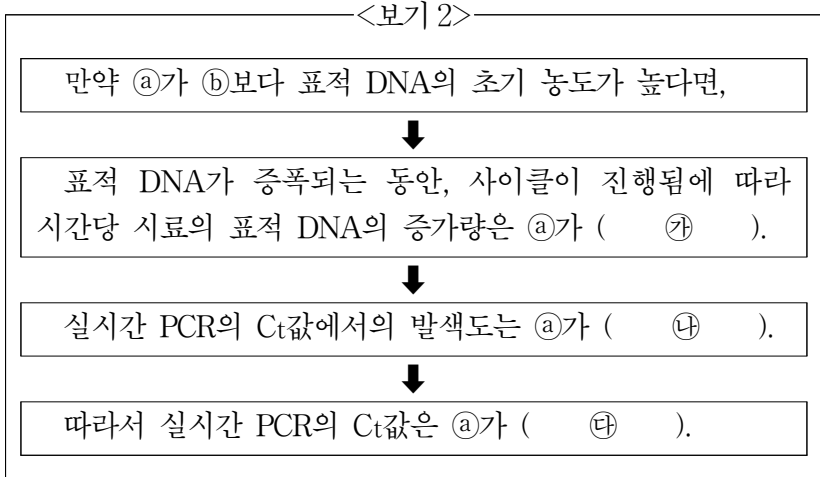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이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16.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17.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 | | | |
|---|----------|----------|----------|
| | <u>㉠</u> | <u>㉡</u> | <u>㉢</u> |
| ① |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 ㉡보다 많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 ㉡와 같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깐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관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걸어 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 더구나 이리루 들어 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켰었던 과거의 ㉞ 요설들이 생각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한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A]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출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라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쪽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게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욱, 「울리유곡(栗里遺曲)」 -

* 수출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어렸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팔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뽀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제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이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 주야로 잊지 못하는 바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고 이 감사가 보는 데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니, 혼자 있을 때에는 주야 탄식으로 지내더라.

장필성이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다시 만날 길이 없어 수심으로 지내더니, 한 계책을 생각하되,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

하고 여러 가지로 주선하더니, ㉠이때 마침 감사가 문필이 있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필성이 한 길을 얻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니 감사가 일견 대희하여 칭찬하며 왈,

“가위 여옥기인(如玉其人)이로다. 필성아, 이방이라 하는 것은 승상접하(承上接下)하는 책임이 중대하니, 아무쪼록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

필성이 국궁수명(鞠躬受命)*하고 차후로 공사 문첩(文牒)*을 가지고 매일 드나들며 송이의 소식을 알고자 하나 별당이 깊고 깊어 지척이 천 리라 어찌 알리오.

차지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 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의 글씨가 완전한지라, 속으로 생각하되,

‘이상하다. 필법이 장 서방님 필적 같으니, 혹 공청에를 드나 드나.’

하고 감사더러 묻는다.

“㉣요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이방이 갈리었습니까?”

“응, 전 이방은 같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 네 보아라, 글씨를 잘 쓰지 않느냐.”

송이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암암이 기꺼하며,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 볼까, 그렇지 못하면 편지 왕복이라도 할까, 사람을 시키자니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못 하고 무슨 기회를 기다리나 때를 타지 못하여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 자연 서로 상사병이 될 지경이더라.

이때는 추구월(秋九月) 보름 때라. 월색은 명랑하여 남창에 비치었고, 공중에 외기러기 웅웅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간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여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 잊어 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 밝은 달 발허리에 가득하고 쓸쓸한 낙엽성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A] 가슴에 가득하여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 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는고.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뜬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낙천(萬古文章白樂天)을 달 아래 만날 적에 마음속에 맺힌 말을 세세히 풀었건만,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랑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 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흙뻘 같고 청황모 무심필을 덩벽 풀어 백룡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장우단탄(長吁短歎)에 맥맥히 앉았다가 고개를 돌리어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중략)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은 책상머리에 엎드렸더니, 잠시간에 잠이 들어 주사야몽(晝思夜夢) 꿈이 되어 장주(莊周)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떨치고 바람 좇아 중천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피니,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 공방에 혼자 몸이 전일의 답시(答詩)를 내놓고 보며 울고 울고 보며 전전반측 누웠거늘, 송이가 달려들어 마주 붙들고 울다가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되었다.

사람이 늙어지면 상하물론(上下勿論)하고 잠이 없는 법이라. ㉦이때 이 감사는 연광도 팔십여 세뿐 아니라, 일도방백(一道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웠더니, 홀연히 송이의 방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거늘, 깜짝 놀라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가 나이 십팔 세라. 필연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보니,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돋우어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거늘, 마음에 괴이하여 가만히 들어가 ㉧두루마리를 펼쳐고 본즉 ‘추풍감별곡’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국궁수명: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히며 분부를 받음.
* 공사 문첩: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문서.

28. 밑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의 걱정을 산다.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해 대화하며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를 읽으며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된다.
- ② ㉠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 ④ ㉠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를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⑤ ㉠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를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30. [A]의 ‘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대이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할 뿐 아니라,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 ② ㉡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 ③ ㉢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 ④ ㉣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 ⑤ ㉤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숯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냇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은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긋다, 그어, 그으니’처럼 ㉠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웃다
 발음 [운:따]
 [활용] 웃어[우:서], 웃으니[우:스니], 웃는[운:는]

긋다
 발음 [근:따]
 [활용] 그어[그어], 그으니[그으니], 긋는[근:는]

동사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르다 - 잠그다
- ② 흐르다 - 푸르다
- ③ 뒤집다 - 끼입다
- ④ 붙잡다 - 정답다
- ⑤ 캐묻다 - 엇듣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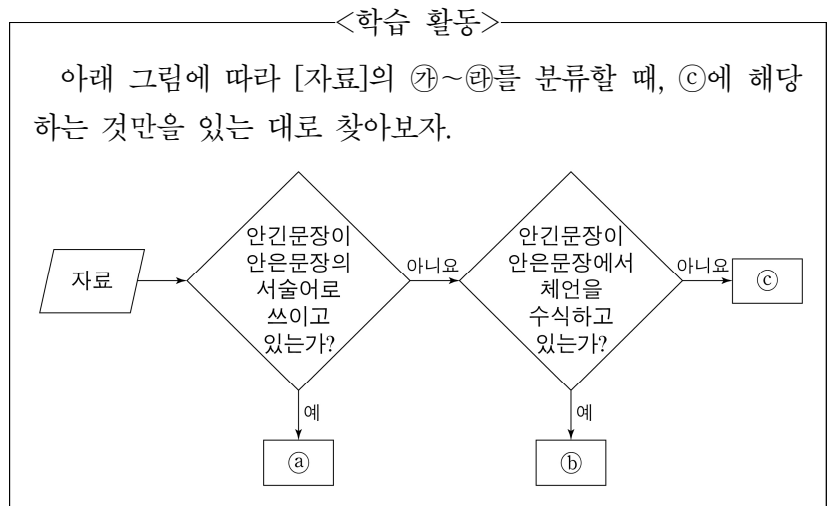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서다	[활용]	서, 서니 ...
㉡ 끄다	[활용]	꺼, 끄니 ...
㉢ 풀다	[활용]	풀어, 푸니 ...
㉣ 쌓다	[활용]	쌓아, 쌓으니, 쌓는 ...
㉤ 믿다	[활용]	믿어, 믿으니, 믿는 ...

- ①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료]

-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수고했어. ㉡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 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후배 2: 네. 그럼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 ① ㉠과 ㉡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 ②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 ④ ㉤은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 ⑤ ㉦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¹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²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 ① ㉠: 뭍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 ②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
- ③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 ④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 ⑤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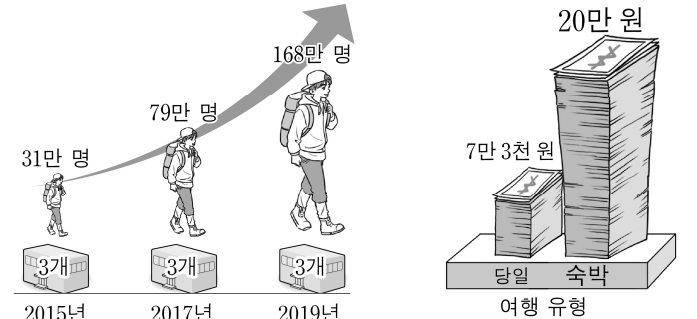
사진: ○○초등학교 시설 전경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A]



연도	관광객 수 (명)	숙박 시설 수 (개)
2015년	31만 명	3개
2017년	79만 명	3개
2019년	168만 명	3개

여행 유형	지출액 (만원)
당일	7만 3천 원
숙박	20만 원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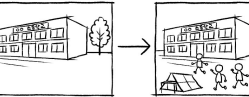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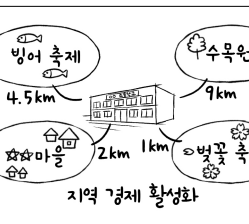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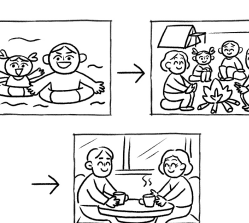
<보 기>

기사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행 과제: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 바탕 자료: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
- 영상 내용: 새로 조성될 숙박 시설 소개
 - 첫째 장면(#1):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
 - 넷째 장면(#4):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다섯째 장면(#5):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상
① 	#1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② 	#2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배경으로 텅 빈 폐교의 모습을 제시한 후,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으로 전환.
③ 	#3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
④ 	#4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⑤ 	#5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박 기자: ㉡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장면 3]

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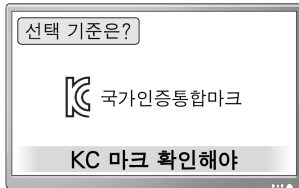


[장면 4]

박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 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 5]

박 기자: ㉡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C 마크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간혹 광고로는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면 6]

박 기자: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 (가)는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 ②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③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자료

마음속 걱정도 날리는, 내 손 안의 태풍

◇◇ 휴대용 선풍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

부상의 위험을 줄인
부드러운 날

안전을 보증하는
KC 인증

- ①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쓴 독서 일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본 것은 좋은 결정이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고 밝히며, 예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도 설명하고 있었고, 8~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에서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다.

①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을 만큼 책의 내용은 흥미로웠다.

1.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지식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책인가?
- ② 다수의 저자들이 참여하여 집필한 책인가?
-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받은 책인가?
- ④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 ⑤ 최신의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믿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2.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 ③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읽는다.
- ④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는다.
- 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읽는다.

3. 윗글을 쓴 학생에게 ㉠과 관련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 ①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정리하기보다는 저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 ③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다룬 책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겠어.
- ④ 책의 내용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 읽기보다는 전문가인 저자가 책을 구성한 방식대로 읽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읽는 게 좋겠어.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는데,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

(나)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촉진된 소비는 생산 활동을 자극한다.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 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나열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광고와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 ②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③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 ④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 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6.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 ②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 ③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 ④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 ⑤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7.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 ② ㉠의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되고, ㉡의 결과로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 ③ ㉠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 ④ ㉠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
- ⑤ ㉠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하고, ㉡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

8.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

- 대상: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 기획 근거: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며,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인 ‘을’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로 이윤을 보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에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 한다.
- 광고 개요: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

- ①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 ②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 ③ 이 광고로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의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 ④ 이 광고로 ‘갑’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9.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입(搬入)되므로
- ② 삽입(挿入)되므로
- ③ 영입(迎入)되므로
- ④ 주입(注入)되므로
- ⑤ 투입(投入)되므로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 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 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1.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과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1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유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지의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 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감각 전달 장치는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몰입하게 된다.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이 있다.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상 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한다.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한다.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할 수 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는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HMD: 머리에 쓰는 3D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
*시차: 한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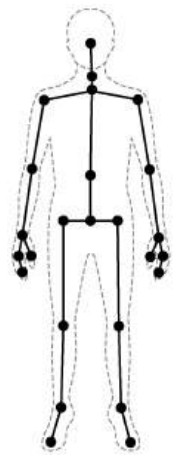
- ①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 ②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 ③ HMD는 사용자가 시각을 통해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 ④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
- ②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의 변경에 따라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한다.
- ③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⑤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인 키넥트 센서는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적외선 카메라는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피사체의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제공한다. 반면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림>

- ① 키넥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 ②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 ③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 ⑤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 정보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7.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
- ② 아내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을 조화롭게 맞추었다.
- ③ 우리는 다음 주까지 손발을 맞추어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 ④ 그 동아리는 신입 회원을 한 명 더 뽑아 인원을 맞추었다.
- ⑤ 동생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와 답을 맞추어 보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제주도에 간 배 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때 배 비장은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 비장 그중에도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묻는다.

“㉢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무슨 말이람나? 양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짜라기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쇼.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 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빠 가시라구!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 비장도 꽤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배 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 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겠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제 오지나 말았더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예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 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마는,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불은 데 불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실수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 내가 이곳에 불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러하면 가이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저녁에 다 떠나고, 인제는 다시 사오 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

“참 딱한 일이올시다.”

하더니,

“웁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아?”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이 쉬며, “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불게,

“여보시오, ㉡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의 혼이 썩었던지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옵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신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종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 목낭청: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19. ㉠~㉡ 중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 ②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 ③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 ④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 ⑤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 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배 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 ① ‘양반이’ 문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껌 뿐 한가하다.

사흘 째 되던 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 박 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 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발 좀 보라니?” / “음!”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 오르고 있었다.

윤 노인이 또,

“하하하 저 물빛 봐!”

박 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이번에는 박 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 왔다.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컹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깜깜한 철야, ㉢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섰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 가고 파도도 낮아 갔다. 섯 날에 보는 ㉤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 노인이었다. 그의 머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A] 들이밀자 윤 노인은 머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가 무슨 일로선지 머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 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별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B] — 설마 죽었을라고. —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했다. 해순이도 물웃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멸치 철이건만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 오영수, 「갯마을」 -

(나)

S#14.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윤 노인과 박 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윤 노인 거 왜 을축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없는 거야.

박 노인 암 여부가 없지... (수평선을 보며)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윤 노인 (침통하게) 음...

박 노인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S#15. 노목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S#16. 바위

점점 커 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다.

S#17. 축항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S#18.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낙들.

S#19. 하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번쩍이는 번개./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S#20. 들판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무서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벼락이 떨어지며 고목 하나에 불이 붙는다./쏟아지는 비! 비!/몰아치는 바람.

S#21. 길(밤)

돌각 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숨은 하늘에 치달고/웃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넘어지며 달린다./번개! 천둥...

S#22. 성황당(밤-비)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해순 서낭님에... 서낭님에...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잠시 후 순임이가 올라와서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S#23. 하늘(밤-비)

먹장 같은 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뿐이다./크게 번개가 친다.

S#24. 노한 밤바다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처절한 성구의 얼굴/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철./분주한 선원들의 모습./더욱더 거센 파도./흔들리는
벙사람들.../파도에 쓰러지고/흔들림에 넘어지고.../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S#25. 성황당(밤-비)

해순이와 순임이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였다./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아낙들.

S#26. 윤 노인의 집 앞(밤-비)

윤 노인이 나온다./순임이 따라 나오며
순임 아버지예.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김니꺼...
윤 노인 마 퍼뜩 다녀올 까다...
순임 내일 아침에 가지면 안 될까요...
상수 (가며) 양이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간다.

S#27. 축항(밤-비)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협스럽게 걸어온다./빈 배에 걸려
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 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잠깐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S#28. 성황당(밤-비)

더욱더 거센 비바람./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O.L.

S#29. 아침 바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
하다./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

* 후리: 그물의 한 종류.

* 몽타주: 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
내는 편집 방식.

22.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개성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 ② '두 노인'은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다.
- ③ '두 노인'은 ㉠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 ④ '두 노인'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 ⑤ '두 노인'은 ㉠으로 인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는군.
- ②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이군.
- ③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군.
- ④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이군.
- 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군.

25.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21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
- ② S#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 ③ S#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 ④ S#25에서 '해순'과 '순임'은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 ⑤ S#26에서 '순임'은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

26. (나)의 S#18과 S#24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S#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 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S#24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S#24는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S#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7.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 과제: (나)는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한 시나리오이다. (가)의 ㉠~㉡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결과를 탐구해 보자.

(가)	(나)	(가)에서 (나)로의 각색 방향
㉠ ⇒	S#14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 ⇒	S#15~S#17	비유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 ⇒	S#22, S#25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 ⇒	S#28	사건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 ⇒	S#28, S#29	하나의 상황을 O.L.(오버랩)을 활용하여 제시하기

- ① ㉠을 대화 상황에서의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라는 대사로 바꾸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를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에서 성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 ④ ㉣를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에 나타난,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뺨뺨뺨한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제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A]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변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 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지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2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짙짙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나

(중략)

[A]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댛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웁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쭈** 하나니

[C]

- 작자 미상 -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임의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다. 또한 중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중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A] 중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중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 ‘논일[논닐]’에서 ‘ㄴ’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다.

3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따라 ‘싫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 ② ㉡에 해당하는 예로 ‘복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 ③ ㉢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잎새’를 연결할 수 있다.
 - ④ ㉣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뭇’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복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굳이	[구지]
㉡	옷만	[온만]
㉢	물약	[물락]
㉣	값도	[갑또]
㉤	활는	[할른]

-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 들이예요. ㉠~㉤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 울보, 낚시꾼, 멧쟁이, 장난꾸러기
 ㉣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 부채질, 땀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학생: 예, 접사가 ㉣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① ㉠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 ② ㉡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 ③ ㉢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 ④ ㉣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 ⑤ ㉤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이 홀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조건	예문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겹문장	㉠
⋮	⋮

-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 ㉠ 주격 조사 ‘이’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 ㉡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관형격 조사 ‘ㅅ’은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 호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① ㉠: 드리 즘든 ㄹ궡매 비취요미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
- ② ㉡: 바블 머굼 대로 헤여 머굼과 [밥을 먹을 만큼 헤아려 먹음과]
- ③ ㉢: 그 나뭇 불휘를 빼헤 [그 나무의 뿌리를 빼어]
- ④ ㉣: 물궡 물로 모술 땡궡노라 [맑은 물로 못을 만드노라]
- ⑤ ㉤: 넙금하 아궡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40~43]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주소는 어디인가?

청소년 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88.3%에 달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을까? ○○ 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3학년 김 모 학생은 ㉤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사회성을 향상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박▽▽ 기자 -

(나)

카드 1	카드 2
<p>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p>  <p>청소년의 약 88%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참여 경험 있다 21%</p>  <p>참여 경험 없다</p> <p>그러나 실제로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21%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p>
카드 3	카드 4
<p>기관</p>  <p>청소년</p> <p>청소년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p>	<p>기관 중심의 활동</p>  <p>청소년 주도적 활동</p> <p>이에 △△대 사회학과 김◇◇교수는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40.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편파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가)와 (나)는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가)와 (나)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1'에는 (가)의 보고서에 담긴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해야겠군.
- ② '카드2'에는 (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야겠군.
- ③ '카드3'에는 (가)의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을 드러내기 위해 기관의 이미지를 더 크게 그려야겠군.
- ④ '카드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제시해야겠군.
- ⑤ '카드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교수 인터뷰 내용 중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해야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43.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카드 뉴스 보완 방향: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A, B를 추가

카드 A		카드 B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응답 내용	비율(%)	
사회 참여가 어렵게 느껴져서	63	
⋮	⋮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이유를 제시한다.
- ③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려 준다.
- ⑤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44~45]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의 회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 08. 01.....

하진 '마음을 그려 드려요'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시작할게!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 우리 웹툰에 관심이 높아졌어! 이번 사연 내용이야.

웹툰을 챙겨 보는 독자입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라 사연을 올려요. 친구가 시험공부를 도와 달라 했는데,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짜증을 냈거든요. 서운해하는 걸 보고 후회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어떻게 말할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잘 그려 주세요.

우주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건 어떻게 드러내지?

주혁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하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우주 좋아.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

하진 그러자. 대화는 말풍선에 쓰고,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
주혁 응. 그래도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줘.
하진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줘.
우주 그래. 회의한 걸 토대로 그려 볼게! 아,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 주소 링크도 올릴게.

-----20□□. 08. 12.-----

하진 댓글 봤어? 친구 입장에서 말해 보라는 의견도 있어.
우주 별점이 높은 것을 보니 독자들의 평가가 좋네.
주혁 그러게. 난 '좋은날' 님 댓글 보니 뿌듯했어. 수고했어.

(나)

동아리 소식 **마음을 그려 드려요** 사연 게시판

[열두 번째 사연] 20□□. 08. 08. 13:00

시험공부 좀 도와줄래?
내가 ...

바쁘니까 알아서 해!

‘아, 후회돼.’

‘미안해서 어찌지.’

“여러분이라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떤 말로 전하겠어요? 댓글로 적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
http://www.○○○.com/board_03

공감 ♥ 125 ★★★★★ 4.5

냥냥이: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라고 친구 입장에서 말하기. 20□□. 08. 08. 15:32 👍 87

파도: "정말 후회되고 미안하더라."라고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추천! 난 그렇게 해서 화해했어요. 20□□. 08. 09. 17:20 👍 55

↳ **솜사탕**: 맞아요. 먼저 말 걸기가 어려워도 솔직한 게 중요해요. 20□□. 08. 09. 17:53

↳ **파도**: 그것도 맞는 말! 20□□. 08. 10. 19:12

좋은날: 작가님! 독자들의 고민 사연을 그려서 공유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왠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20□□. 08. 11. 18:05 👍 33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45.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기 위해 장면이 제시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숫자를 세로로 배열해 날짜 변화를 표현했다.
- ②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었다.
- ③ 멀어지는 친구 사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 ④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 ⑤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②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③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⑤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포착(捕捉)한다
- ③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간주(看做)하면
- ⑤ ㉤: 결성(結成)되지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뿐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 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1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
-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④ ㉣과 실제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제계의 점인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느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뻐하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줍이 쳐.

[A]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지대는 가지대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썩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늙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분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낱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즐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뻗뻗이 들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낱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낱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육,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즐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22.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좁이 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명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 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땀뭍’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뽀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목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하릴없이 길거리를 배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을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류장에서 토크 아니면 올림픽북권을 사면서,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거나 더욱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늉을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A] 달채 씨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 의식을 드러내기도 해 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참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빠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여태껏 전혀 몰랐던 세계가 구청과 자기 집구석 바깥에 따로 있음을 그는 우산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개의 서민들은 의외로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일껏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 죄도 없이 공연히 겁부터 집어먹고는 피죄죄한 물골의 자기한테 갑자기 저자세로 구는 것이었다.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집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

셋째는,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 줄 때보다 그냥 뒤꽂무니에 꿰 찬 채 부주의한 몸가짐인 척하면서 웃웃 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 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김달채 씨는 그러잖아도 짧은 머리를 더욱 짧게 깎았다. 옷차림도 낡은 양복에서 스포티한 잠바 스타일로 개비했는가 하면 구청 밖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 버릇했다. 달채 씨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짬만 생기면 하릴없이 길거리를 나다니며 청명한 가을날에 우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떠보는 색다른 취미에 점점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중략)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일대 사건을 만날 듯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 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살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맹이들이 인도와 차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시커먼 그을음 연기를 피워 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유리가 박살 난 건물도 보였다. 김달채 씨는 주체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도 돌볼 겨를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최루 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채 씨는 구경꾼들 뒷전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돋움하고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사복 경찰관들한테 붙잡혀 끌려오는 학생의 모습이 구경꾼들 어깨 너머로 내다보였다. 달채 씨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앞사람들 틈바귀를 비집고 전면으로 썩 나갔다.

“이봐요, 거기!”

김달채 씨는 창문마다 철망이 쳐진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 넣는 사복들을 향해 느닷없이 목청을 높였다.

“아직도 어린애야! 다치지 않게 살살 줌 다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나는지 김달채 씨 자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를 단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김달채 씨의 가슴을 때밀었다.

“나 이런 사람ियो.”

김달채 씨는 엉겁결에 잠바 자락 한끝을 슬쩍 들어 뒷주머니에 꿰 찬 우산 케이스를 내보였다.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그런 물건 따위는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이나 들어가 봐요!”

이른바 닭장차에 어린 학생들과 함께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털끝만큼도 없었다.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을 ㉠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도리 없는 노릇이었다. 김달채 씨는 남의 채마밭에서 무 뽑아 먹다 들킨 아이 처럼 무르춘한 꼬락서니가 되어 맥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

24.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건을 제시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회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인물의 의도적인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⑤ 상대를 달리하여 벌이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는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 ② 피죄죄한 몰골의 김달채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 준다.
- ③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인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 ④ 시위 진압의 영향으로 고통 받던 김달채는 전경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구경꾼들 뒤로 물러선다.
- ⑤ 닭장차에 끌려가게 된 김달채는 건물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함성에 안도감을 느낀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달채는 ㉠을 그 생김새로 인해 ㉡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 ② 김달채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
- ③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려는 김달채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 ④ 김달채는 ㉡에 익숙하지 않은 ‘거개의 서민들’이 ㉠을 ㉡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 ⑤ ‘사복 차림의 청년’은 ㉡에 익숙하여 ㉠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채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채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채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채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채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채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채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태보 궐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구완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왈,

“이 몸이 명재경각(命在頃刻)이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군 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데 이때에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諸員)이 모두 이로되,

[A] “그대는 죽기로써 간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刑獄)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直啓)로 올렸더니 상(上)이 보시고 다시 하교하사,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응위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 백성이 구름 되듯 하더라. 이때에 생가 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태보 위로 왈,

[B] “인명이면 재천이웁거늘 설마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물에 훨훨 씻어 다른 곳에는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궐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옵 것이니 아무리 죽은 사람의 말이라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

금부에 수일 잡혀 갇혔더니, 상이 구태여 왕비는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이 울어 왈,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하되, 부인이 대경 왈,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니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오리까? 일후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십여 명이 의관을 정제하고 서 있거늘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앉으며 가만 보니 학발의관(鶴髮衣冠)을 갖춘 어린 재자 오류 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부인이 몽사를 생각함에 심신이 산란하여 명월을 대하여 내념에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 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 등이 급히 구완하여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이때에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이러구러 곡성이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오. 그 편지를 떼어 보니 하였으되,

‘불효자 태보는 두어 자 문안을 부모 전에 올리나이다.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의 관에서 신병과 심회가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사람의 죄 삼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제일이라 하였으니 삼천 수죄(首罪) 지었으나 국은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중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을 생각지 마옵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새,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피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없더라. 초종례로 극진히 한 후에 채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내니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각설, 이때에 상이 민 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륙 인이 월색 희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을 은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균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효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붙들라.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십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2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꾀다.
- ③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 ④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 ⑤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29.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 ⑤ ‘십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3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 ②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 ④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 ⑤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은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가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어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냐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과중할 벼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출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너비(넙-+ -의)도 ㄱ티 하고 [넓이도 같이 하고]
노퍽(높-+ -의) 다섯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버의(범+ 의) 뼈나 [범의 뼈나]
사르의(사롬+ 의) 무레 [사람의 무리에]
무의(물+ 의) 든니논 [물에 다니는]
바의(밤+ 의) 나디 아니흐느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의’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王人 겨퇴 안젧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기]
- ㉡ 曲江人 구벽에 ㄱ마니 든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光明이 불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글지시에 위두흐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쓰리 일후문 [딸의 이름은]

- ① ㉠에서 ‘겨퇴’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이군.
- ② ㉡에서 ‘구벽’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쓰리’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 이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숨이는 집에 있고.
 영이: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모음 ‘ㅛ, ㅠ’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ㅛ/ㅛ, ㅟ/ㅟ’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ㄴ, ㄷ’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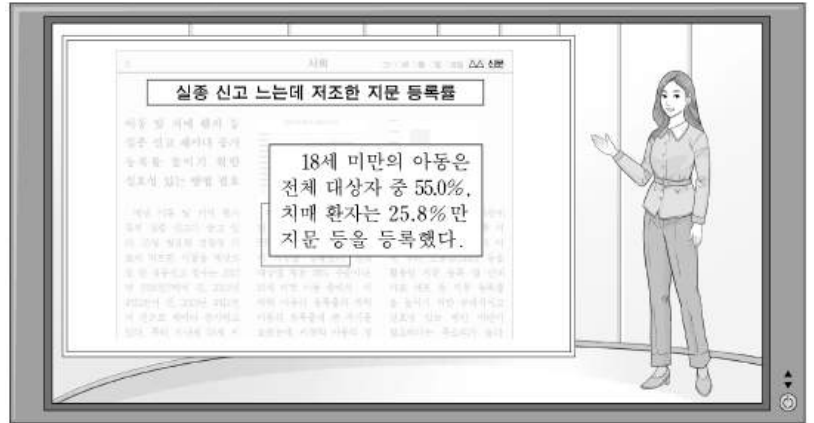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ㅝ’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ㅝ, ㅟ, ㅛ, ㅜ, ㅞ’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꺾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꽂’과 ‘쑤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이-’가 붙은 ‘(벌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쑤’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여’로 적을 수 있다.

[40~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문, 함께 보시죠.



진행자: 표제가 ‘실종 신고 하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신문

'지문 등 사전등록 앱'의 ㉠ '첫 화면'은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정된 메뉴 화면을 한눈에 보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지문 등록' 메뉴를 누르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언제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다.

㉢ '함께 있어요' 메뉴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 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같이 찾아요' 메뉴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 '보호소' 메뉴는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보호소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 ㉠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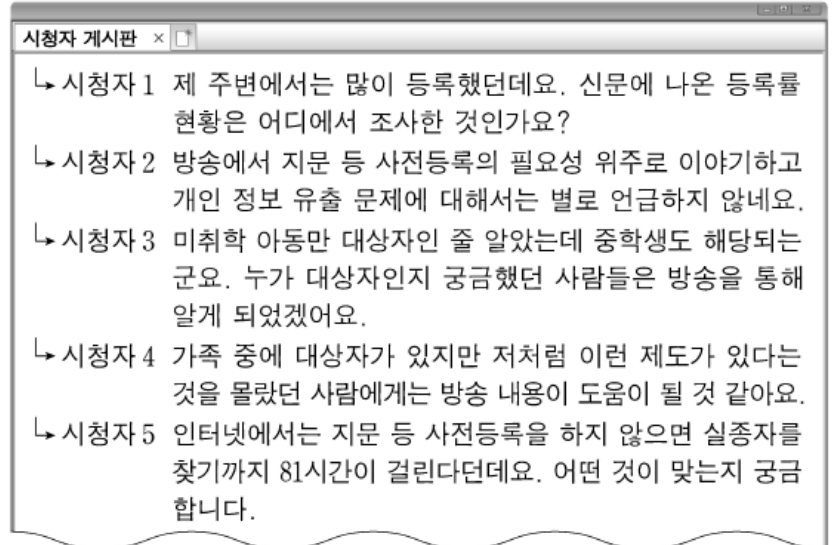
40.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신문의 내용보다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군.
- ②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③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④ 진행자가 △△신문과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전문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니까'를 통해 시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42.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시청자 1과 2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4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2와 5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3과 4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3과 5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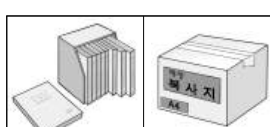
43.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글과 이미지로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서로 다른 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45]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 (가)를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보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재생 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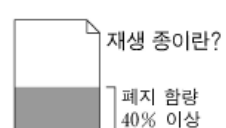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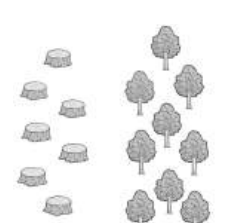
재생 종이를 아시나요?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인데요, 대체로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재생 종이는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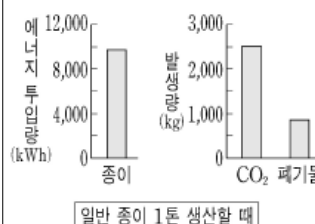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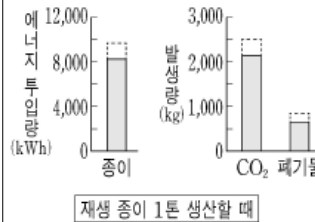
재생 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20××년 한 해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만드는 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숲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반 종이를 복사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뀌어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을 참고해 주세요.

또 재생 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CO₂)와 872kg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재생 종이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2,166kg이, 폐기물은 735kg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나)

#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배경 음악
#1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짐.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해서 만든 종이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한번 사용한 종이를 말해요.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
#2	잘린 나무 밑동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타남.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뀌어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배경 음악)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뀜.

#3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물질의 양입니다.
#4	자막이 '재생 종이 1톤 생산할 때'로 바뀌면서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로 내려옴.		일반 종이 대신 재생 종이를 만들면 투입 에너지와 발생 물질의 양이 약 15% 정도 줄어듭니다.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생 종이의 활용 사례를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했다.
- ② 재생 종이와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부각했다.
- ③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 주었다.
- ④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일반 종이의 양을 글과 사진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시했다.
- ⑤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룬 다른 게시물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도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 ②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의 정의를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내레이션으로 보완해야지.
- ③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두 개로 구성해야지.
- ④ 정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가)에서 제시한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적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해야지.
- ⑤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 보존에 대한 내용을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나타내야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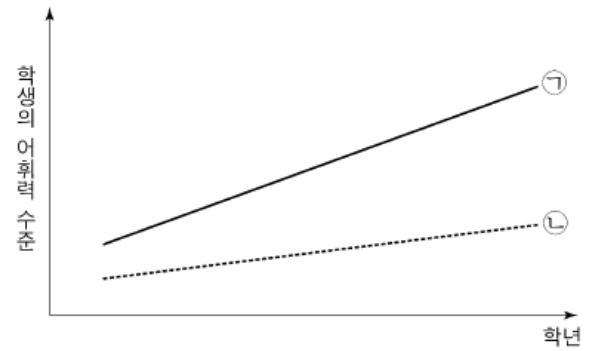
그러나 ㉢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체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④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밑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 하도록 한다.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했다
- ② ㉡: 받아들여
- ③ ㉢: 믿던
- ④ ㉣: 끼어들었다는
- ⑤ ㉣: 이어졌지만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노가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₁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₂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1.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₁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①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 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②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③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④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⑤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⑥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 | | | |
|---|----------|----------|
| | <u>A</u> | <u>B</u> |
| ① | 클 | 클 |
| ② | 클 | 작을 |
| ③ | 같을 | 클 |
| ④ | 작을 | 클 |
| ⑤ | 작을 | 작을 |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 ②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 ③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 ④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⑤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 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드.”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왈,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벽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왈,

“㉡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보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뉘 능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고?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왈,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옹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 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대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누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낳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쾌약을 떨려 하느냐?”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왈,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왈,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저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뻤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벌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1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20.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음모 모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굴’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뒀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곶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시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피에는 새 다 긁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남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췌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간장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냐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북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뚜르 똑뚜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러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늑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귀'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뉴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입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끈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뺨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B]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켤레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던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뺨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 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 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뺏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네,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듬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미군 헌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게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각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력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녀 께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던한 기생층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넛**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간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우리를 낀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ɪ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ɪkneɪ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늘 [국빡]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빡’이 아니라 ‘빡’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빡]을 들을 때 된소리되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되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bus’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2음절로 바꾸고, ‘b’를 ‘ㅂ’ 또는 ‘ㅃ’으로 바꾸어 [버쓰]나 [빠쓰]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뫼[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 ③ 국어에서 ‘밥만 있어’의 ‘밥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ㅂ’이기 때문이겠군.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 | |
|----------|------------|----------|
| ㉠ 앞일[암닐] | ㉡ 장미꽃[장미꼴] | ㉢ 냥고[너코] |
| ㉣ 걱정[걱쩍] | ㉤ 굳이[구지]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송-’,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씨’,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습-’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송고 부터씨 禮數^{ᄒᆞ}습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ᄒᆞ}께 절 올리고]

- <보기 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를 보습고져 ᄒᆞ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ᄒᆞ}게 가서]
 - ㉢ 내 이제 世尊의 송노니 [내가 이제 세존^{ᄒᆞ}께 아뢰니]
 -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쭈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③ ㉢: 조사 ‘씨’와 동사 ‘송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쭈’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 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간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 처럼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록,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〇〇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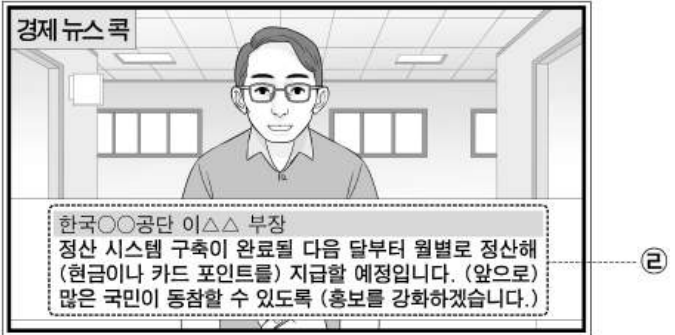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던 뜻이겠죠.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〇〇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자: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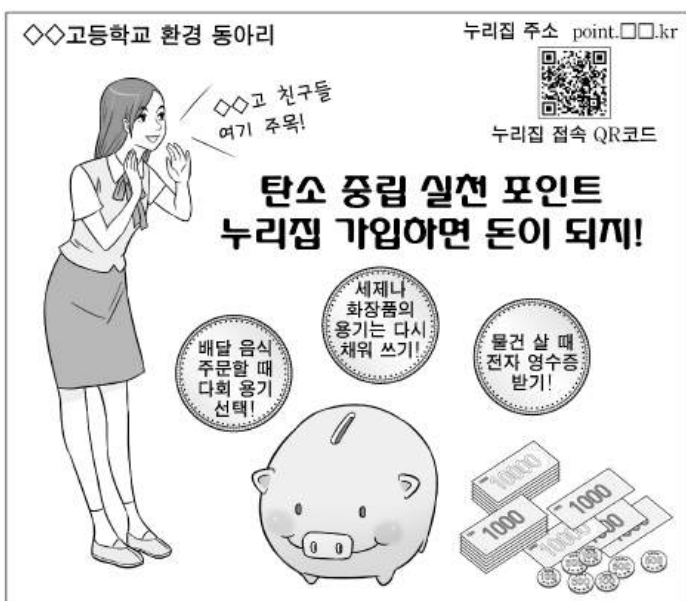


기자: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㉔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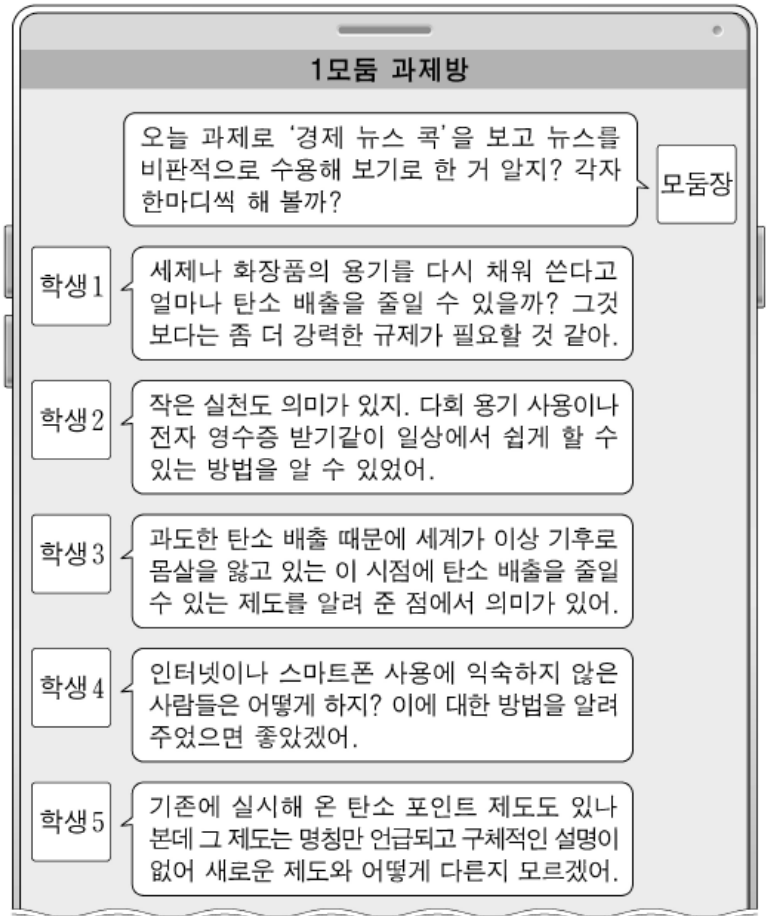


(나)



40.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㉒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㉓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㉔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㉔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㉕~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㉖: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㉗: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㉕: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㉖: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기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44~4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문화 지킴이들, 안녕!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 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과거 궁중 연회에서 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빛세종: 채화? '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A] 빛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궁중 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여 주며)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대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햇살가득: 월계화?? 월계화 만들어 주세요!

[B] 좋아요! 햇살가득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그럼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들어요. 자, 다음은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 마름질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 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꼼꼬미: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C] 물론이죠, 꼼꼬미님! 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 둔 꽃잎들을 꺼내며)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 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은맘: ○○시에 사는데,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ㅎㅎㅎ

[D]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은맘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영롱이: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ㅠ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E]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저도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는 궁중 채화를 장식하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 지킴이,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해야겠군.
- ②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군.
-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편집을 할 수 없으니,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 ④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 ⑤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꼼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A]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 ②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다.
- ③ 독자가 느끼는 글의 어려움의 정도는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따르면 독자는 자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수록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빈도는 눈동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다음은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의 새로운 공간>이라는 글을 읽으며 우선 글 전체에서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만 확인하는 읽기를 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 글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읽어 나갔다. '장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 앞에 읽었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나니 문맥을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라는 의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가 글의 주제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 그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 나갔다.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라는 문장을 읽을 때 ㉤ '대신하여'와 달리 '파피루스'와 '양피지'처럼 생소한 단어는 하나씩 확인하며 읽었다.

- ①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서는 고정이 일어났을 것이다.
- ② ㉡: 도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③ ㉢: 글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도약이 나타났을 것이다.
- ④ ㉣: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짧고 고정 횟수가 적었을 것이다.
- ⑤ ㉤: 중요하지 않고 익숙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동일한 길이의 문장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가] 나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 ①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을 때
- ②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읽을 때
- ③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 ④ 배우고 익힌 내용이 쌓여 글에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
- ⑤ 읽기 목적에 따라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을 때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성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①~⑤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①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②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③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 ④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 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에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8.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②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⑤ B: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바꾸는
- ② ㉣: 동떨어진
- ③ ㉤: 바라보는
- ④ ㉥: 빼앗는다
- ⑤ ㉦: 찾아내는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①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②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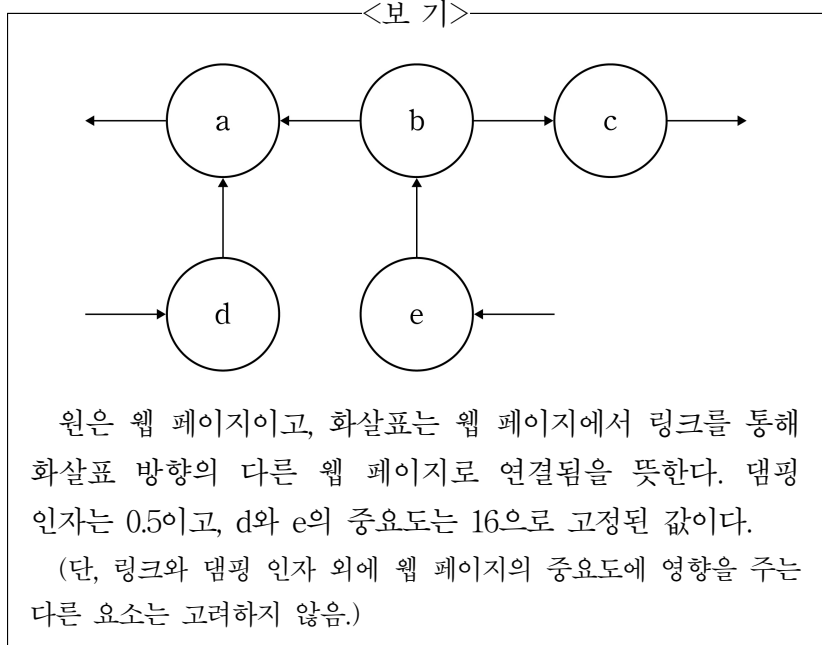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 ②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가 커진다.
- ③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 ④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의 합이다.
- 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15.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 하여 ㉠을 높인다.
- ②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 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③ 알파벳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 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 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을 높인다.
- 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 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

16.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훨훨 날아갔다.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줌 당황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 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중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옵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나이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왈,

“㉡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에게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복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㉔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황제께 ㉕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궤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 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㉖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19.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 ② ㉒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③ ㉓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④ ㉔으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⑤ ㉔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20. ㉕, ㉖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는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② ㉕는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③ ㉖는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④ ㉖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⑤ ㉕와 ㉖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종종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여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썩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A]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B]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C]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D]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E]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F]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F]

- 신경림, 「길」 -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세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밤이 아직 쉼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겅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만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걷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 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랭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끼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연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용시키고 있다.
-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쌩아’, ‘호르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⑤ ‘자갈자갈’, ‘끼득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는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췌는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는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를 같은 것이 돌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회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뻗뻗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쪼끄만 **날개**가 돋아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뱃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꿇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 레닌: 러시아의 혁명가.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꿩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층(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달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㉔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 자린은순: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 회황천지: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32.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㉒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㉓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㉔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㉔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 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께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 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주름 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②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의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③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④ ‘언니는 밤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의 ‘밤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 ⑤ ‘큰형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의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 목말라 있다.
-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 점찍어 두었다.
- 그녀는 요즘 야식과 ㉢ 담쌓고 지내고 있다.
-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 녹슬지 않았다.
-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 눈뜨게 됐다.

- ①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②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④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⑤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솟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 ①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 ②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다.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③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다.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 ④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⑤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ㄷ, ㅂ’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ㅅ, ㅆ,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② ‘폭넓다[퐁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③ ‘값만[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④ ‘겉늬다[건늬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⑤ ‘호박잎[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40~42] (가)는 학습 활동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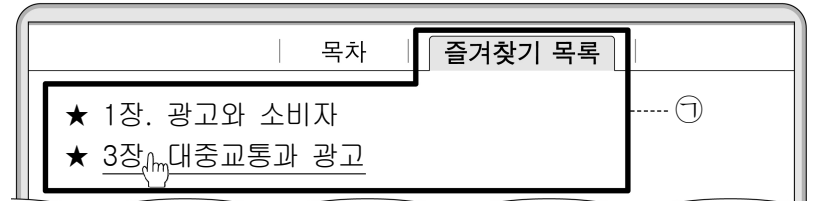
(가)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발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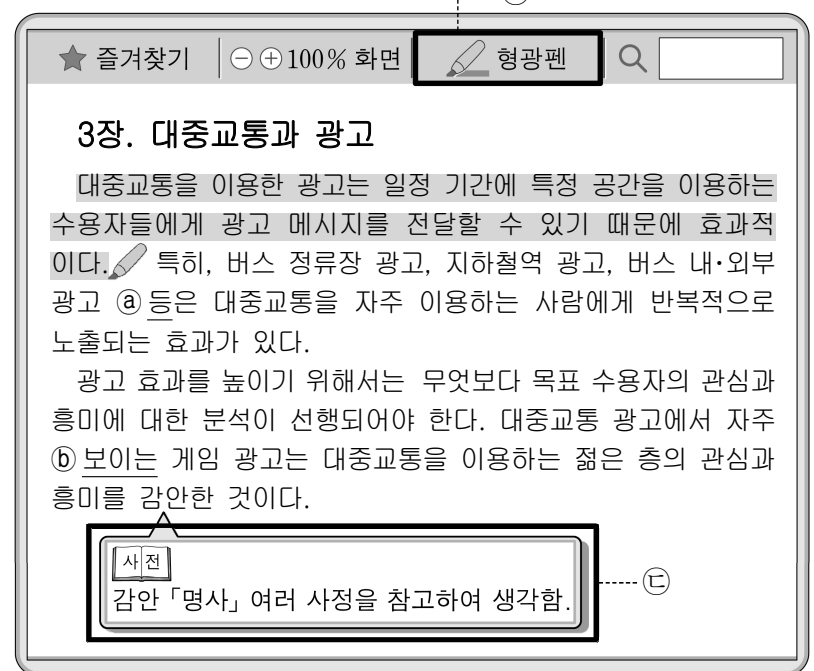
○○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여 광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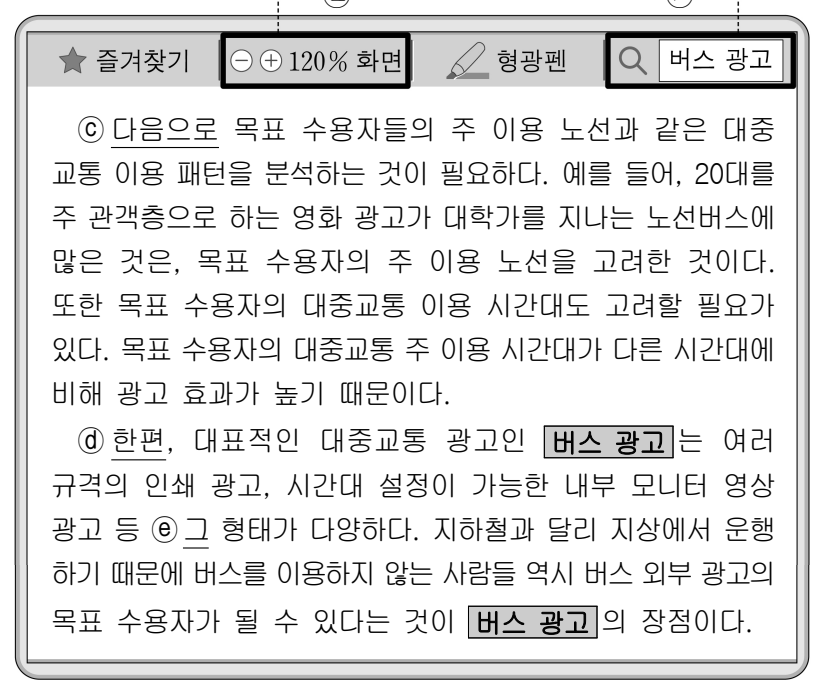
[화면 1]



[화면 2]



[화면 3]



40.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자책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종이 책과 비슷했어. 하지만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어구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종이 책과 달랐어.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용을 빠르게 이해했어. 또 화면 배율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조절하니 읽기에 편했어.

- ① ㉠에 1, 3장이 포함된 것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② ㉡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가 된 것은 학생이 해당 문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③ ㉢의 '감안'에 대한 사전 찾기 결과는 [화면 2]에서 본문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의 글 읽기에 도움을 주었군.
- ④ ㉣을 통해 [화면 3]의 글자 크기가 [화면 2]보다 커진 것은 학생의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었군.
- ⑤ ㉤의 결과가 [화면 3]에 표시된 것은 학생이 '버스 광고'를 쉽게 찾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군.

41. 다음은 학생이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메모 1: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광고에서 강조 하면 효과적이겠다.

메모 2: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 하고,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에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메모 3: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고, 도보 통학 학생들 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 ① '메모 1'에서, 광고에서 부각할 내용을 선정한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이겠군.
- ②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③ '메모 2'에서, 버스 노선 중에서 특정 노선을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영화 광고의 예처럼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④ '메모 3'에서, 광고 게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광고 형태를 제안하려는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메모 3'에서, 버스 옆면과 뒷면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나)에 제시된 버스 외부 광고의 장점을 고려한 것이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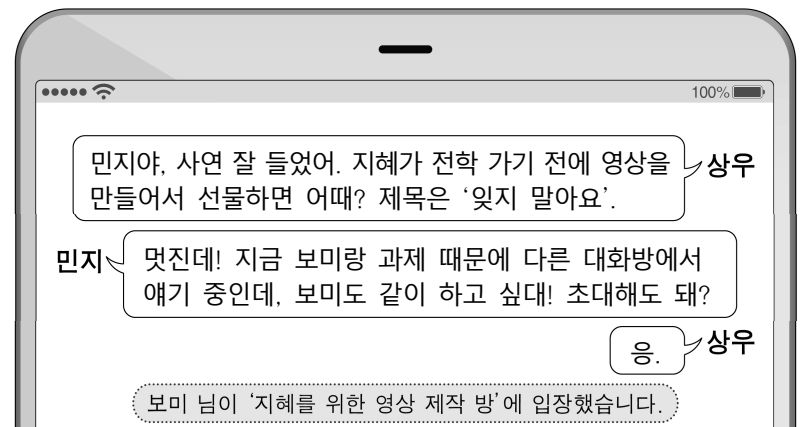
- ①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② ㉡: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더 존재 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 목표 수용자 분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⑤ ㉤: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3~45] (가)는 교내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들은 학생 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방송을 듣고 계신 ○○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마지막 순서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지요. 어제까지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잔잔한 배경 음악) "3학년 1반 이민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 우리 반 지혜가 응급 처치를 해 줬어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곧 전학을 가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의 노래 <다시 만날 우리들>을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들려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나)



우리 셋이 계속 얘기 나눠야 하니까 대화방 목록에서 찾기 쉽게 방 이름을 붙였어. 보미야, 어서 와. 상우

응. ^^ ㉠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상우야, 어떤 장면 찍을 거야? 보미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 학교의 여러 공간을 담으면 좋겠어.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 상우

민지 

그럼 첫 장면으로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걸어가는 네 모습을 찍어서 찍을게.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 상우

알겠어. 민지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 지혜가 5층에서 운동장 바라보는 걸 좋아했거든. 상우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민지가 사연으로 신청했던 노래의 제목을 그 안에 적어 놓자.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 보미

오, 그렇게 찍자. 상우

민지 ㉡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

좋아.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을 넣자. 영상 제목과 어울리게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 상우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화면에는 그 말이란 문장으로 보이도록 하면 어때? 자막은 내가 넣을게. 보미

응. 근데 민지야, 생각해 보니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네가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빠르고 찍자.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 상우

알겠어. ㉢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 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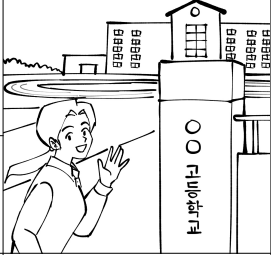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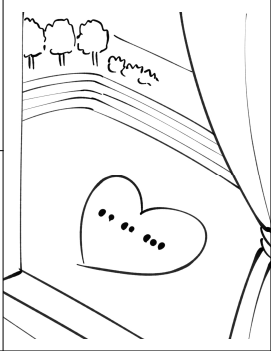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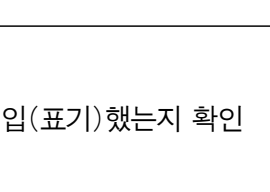
㉣ 그럼 아래 투표함에 날짜를 몇 개 올릴 테니까 각자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줘. 상우

투표 제목: 촬영 날짜 선택

43.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공유된 맥락을 기반으로 '상우'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② ㉡: 동의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상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 ③ ㉢: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영상 제작에 관한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④ ㉣: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하여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①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지혜가 여러 공간에 얽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학교 공간을 촬영할 때, 민지가 지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내야겠어.	
③ 지혜가 바라보던 운동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교실에서 촬영해야겠어.	
④ 운동장에 그린 하트 모양의 그림에 '다시 만날 우리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겠어.	
⑤ 우리가 다 같이 등장해서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나눠서 말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자막을 삽입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